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나는 한숨을 내쉬며 겨우 상체를 일으켰다.

어쩐지 침대가 좁게 느껴진다 했더니.

여기서 저기까지 숨을 크게 쉬고 데굴데굴 굴러야 겨우 끝에 닿을 만큼 큰 침대가 지금은 빈자리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빼곡하다. 고개를 좀 더 빼 밑을 살펴보자 역시나 알력에서 진 모양인지 귀염성 있게 동그란 금발 뒤통수가 가련하게 제 양손을 얌전히 베고 잠들어있다.

나를 바로 마주 볼 수 있는, 자기네들끼리 총애의 자리라고 칭하는 곳에서 자고 있던 남자는 눈을 스르륵 뜨더니 내 허리를 감싸 안았다. 기분 좋은 따끈함이 전해진다.

더 주무세요.

그는 고양이라도 된 것처럼 내 옷자락에 뺨을 비비고 아양을 떨었다. 나는 못 이기는 척 잠에 취해 반쯤 비몽사몽인 그의 뺨을 쓰다듬어 주었다.

오늘은 혼자 잔다고 했을 텐데.

단호하게 말하고 싶지만, 슬금슬금 다시 누웠기 때문에 나른한 목소리가 나왔다. 베개는 또 어디로 간 건지. 할 수 없이 그의 가슴팍을 대신 베고 누웠다. 열심히 단련해 봉긋하게 솟은 가슴은 단단한 듯 부드럽고 손에 감기는 맛이 있다. 자장 자장. 그는 정성스레 내 머리를 넘겨주고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다시 재우려고 하지 마.

뒤쪽에서 무게감이 느껴지더니 스르륵 옆구리 사이로 손이 뻗어 나와 나를 꼭 껴안는다. 몸에 꼭 맞는 굴곡과 포근한 감촉. 내 목의 오목한 곳에 얼굴을 묻은 그녀는 잠에 취한 목소리다.

나만 옆에서 자려고 했는데, 다른 놈들도 쫓아왔어.

혼내줘. 덧붙이진 않았지만, 꼭 그런 말투였다. 모두를 끌어들였으니 더 단호하게 굴어야 하지만 그녀를 탓할 순 없어 나는 그저 '머리카락이 간지러워.' 하고 말았다. 그녀는 투정 대신 내 귓볼을 살짝 깨물었다. 나는 그 따끔한 애교에 키득대며 고개를 돌렸다. 어느새 잠이 깬 얼굴로 까만 눈을 깜빡이며 그녀는 내 입술에 짧게 입 맞췄다.

왜 그럴까, 왜 항상 네 입술에선 단맛이 나는 거지? 내 속삭임에 그녀는 내 입술에 한 번 더 입을 맞춘다. 좀 더 입맞춤으로 이어지려고 할 때 누군가 내 발목에 뜨겁고 말랑한 입술을 꾹 눌렀다가 뗀다. 내가 귀찮다는 듯 휘휘 저어 떨쳐내자 굳은살이 박여 단단하고 거친 손이 다리를 타고 슬슬 올라왔다. 나는 입술을 떼고 아래를 쳐다봤다.

...님. 일어났어?

눈이 마주치자 곱게 접히는 눈은 아침부터 마주하기에 너무 야하다. 그는 성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경건하게 내 무릎에 입을 맞췄다. 나는 손을 뻗어 그 머리칼 살살 헤집어 놓았다.

두런두런 말소리에 저 한구석에서 쭈그려 자던 미인도, 그리고 다른 한구석에서 자던 미인도, 제일 잠꾸러기인 바닥에서 자던 녀석도 깨어나서 내게로 슬그머니 온다.

아무리 튼튼한 침대라지만 여러 사람이 올라오니 매트리스가 푹 꺼지는 게 느껴진다. 더 넓은 침대를 사야하나, 같이 잘 순번을 정해줄까?

행복한 고민을 하는 동안 나는 잠에서 깼다

"연애! 연애를 하는 거야!"

스스로 깜짝 놀랄 만큼 큰 외침과 함께.

그러니까 그 꿈이 결국 모든 것의 원인이었다.

자그마치 21년이나 잤다. 이렇게 오래 잠들 줄은 몰랐는데. 내가 잠에서 깨자마자 한 행동은 내가 어떻게 생겼었나 거울 앞에 서서 요리저리 뜯어보는 일이었다. 평소라면 굳이 하지 않을 행동이지만 나는 앞으로 연애 할 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점검해봐야 한다.

일단 인성은 훌륭하고 능력도 탁월하고 외모도 뭐...

거울에 비친 전신을 바라보며 나는 흠, 하고 탄성도 한숨도 아닌 소리를 냈다.

마지막으로 외형에 영향을 미친 죽음.

그곳에서 주목받는 미인상은 여리여리한, 이곳의 표현으로 ‘폴렌체라‘ 일 것 같은 여자였다. 하늘을 날며 허리의 천을 풀어내는 폴렌체 경기의 선수 폴렌체라는 나비처럼 가볍고 벌처럼 빨라야 하니 마르고 뼈대가 길었다. 나는 각지고 예민하게 솟은 어깨뼈를 매만졌다.

약해 보이는걸.

밝은 백금발머리. 끝으로 갈수록 근사한 웨이브가 있는 풍성한 머릿결, 동공에 가까워질수록 연 황토색을 띠는 올리브색 눈동자 또한 그 당시 유행하는 스타일이었다.

마음에 쏙 들진 않지만, 부활할 때마다 사람에게 호감을 사기 쉬운 모습으로 변하니 시대에 영향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21년 전에는 다들 이런 게 예쁘다고 생각했으니까. 나는 나뭇가지 같은 손목을 입술을 삐죽 내밀고 눈앞에서 흔들어보았다.

언제부터 예쁘고 선량한, 사랑받는 인형 같은 외형만 가지게 됐더라?

인간들은 아름다운 것을 보면 가지려는 못된 습성이 있으므로 약하고 어릴 땐 항상 보잘것없는 모습이었다. 억센 더벅머리에 아무리 씻어도 금방 더러워지는 행색. 길에서 스쳐 지나가도 아무도 기억 못 할 평범한 얼굴. 초식 동물이 몸을 낮추듯 나는 사람들 속에 숨어들었다.

힘을 어느 정도 얻었을 때가 좋았지. 강한 뼈대에 큰 덩치, 그때 팔뚝이 지금 허리만 했던 것 같다. 괜한 시비에 자주 휘말리지만 않았다면 다시 모습이 변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았을 거다. 겉으로 보고 설설 기던 사람도 내가 여자라는 걸 알고 태도가 돌변했지. 지긋지긋한 세월이었다.

외형에 구애받지 않을 만큼 강해진 이후였나 보다. 불필요한 근육이 서서히 사라지더니 피부는 매끈해졌고 머리카락엔 윤기가 흘렀다. 그때가 돼서야 처음 본 사람도 나에게 잘해줬다. 참 우스운 일이다. 나는 언제나 나일 뿐인데 인간들은 혐오하다가 질투하다가 이젠 선망한다.

나는 고요히 거울 속을 노려봤다. 내가 고개를 오른쪽으로 틀면 거울 속 그 애는 왼쪽으로 틀고 내가 고개를 왼쪽으로 틀면 거울 속 아이는 오른쪽으로 튼다.

그래, 굳이 모습을 바꿀 필요는 없지. 모습이야 어떻든 누구도 날 함부로 대할 수 없으니까.

나는 실속 없이 거울을 보는 짓은 그만두고 내가 직접 만든 무엇이든 들어가는 무한대 주머니에 마구잡이로 보석을 쑤셔 넣었다.

반짝거리는 동그란 것들을 손으로 만지다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어딜 가나 돈이 최고라는 건 굳이 몇백 년의 경험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당연한 사실이었기에 가능한 한 넘치도록 챙겼다.

옷은 당장 숲길을 걸어도 어색하지 않도록 최대한 여행자처럼 갈아입었다.

허벅지까지 오는 두꺼운 연녹색 튜닉을 걸치고 어린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절개선이 들어간 7부 바지를 입고 종아리에는 벌레에 물리지 않도록 천을 둘렀다. 하의는 보통은 주머니가 주렁주렁 달린 바지를 입지만 그것 못 가진 자만 하는 짓이다. 나같이 발전을 아는 자는 무한대 주머니가 있으니 그럴 필요 없다.

발목 위로 오는 워커처럼 생긴 신발을 신고 가슴께에 보호대도 차서 나름 구색은 다 갖췄다.

허리춤에 주머니를 걸 수 있는 가죽띠를 차고, 마법 주머니와 그 외 몇 개 다른 주머니를 걸었다.

그리고 나의 자랑거리인 검도 찼다.

보석이 박힌 건 아니었지만 모양 자체로 나의 굳어있는 감성을 건드릴 만큼 심미적이다.

이 검을 차지하기 위해 죽은 인간의 숫자가 이루 말할 수 없다.

물론 내가 전부 다 죽인 건 아니고 최후의 한 놈이 다 죽이길 기다렸다가 그놈을 죽이고 홀랑 가져왔다.

원래 나처럼 힘 있고 똑똑한 사람은 일 처리를 효율적으로 한다.

앞으로 필요할 테니 음식도 많이 챙겨 넣었다.

무한의 주머니에 보관기능이 없으면 섭섭하니 몇십 년간 끙끙대며 온갖 재주를 부려놓은 덕에 내가 죽기 전까진 이 음식들은 썩지 않을 거다.

뭐, 이 외에 필요한 게 생긴다면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지.

마지막으로 로브를 걸치고 나는 돌 몇 개를 치워 집에서 나왔다.

나온 입구를 돌아보니 영락없이 몬스터가 튀어나올 것 같은 던전 입구지만 흉흉한 냉기와 곰팡내 대신 따뜻한 훈기가 느껴졌다. 음, 역시 볼 때 마다 범상치 않아.

절대로 외부인을 들이지 않는다는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입구를 몇 번 매만져 보강해준 뒤에 상쾌한 마음으로 숲길을 걷기 시작했다.

발밑으로 낙엽들이 부스러지는 감각이 기분 좋았다.

딱 좋은 날씨에 맑은 공기, 여태껏 잊고 살았던 현실감각이 세포 하나하나까지 깨우고 있었다.

순간이동 마법을 사용하면 중심지까지 금방이겠지만 모처럼 기분이 좋으니 좌표도 신경 쓰지 않고 걸어서 이 숲을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까짓거, 숲이 아무리 넓더라도 내가 죽기 전까진 나가지 않겠는가?

내가 힘들어서 포기할 일은 없을 테니 지구는 둥그니까 무작정 앞으로 걸어보자.

왜 굳이 연애놀음이나 하자고 21년간의 긴 잠에서 깨어나 짐을 꾸리고 길을 떠나게 됐냐고?

어디서부터 얘기하는 것이 좋을까...

난 불멸자다.

음, 너무 대뜸 본론부터 이야기했나.

어쨌거나 사실이니 굳이 정정하지 않겠다.

불멸자 보다는 불사신이 더 친숙한 용어일 테니 불사신이라고 얘기하겠다.

나는 불사신이고 올해로 산 지 980년이 된다.

20년만 더 지나면 엘프조차 죽음을 기다리는 나이가 되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불사신이 됐는지 설명하라고 한다면, 나도 정확히 모른다.

하지만 내가 언제부터 불사신이었냐고 묻는다면 이젠 가물가물한 내 나이 20살 언저리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차원 이동이었다.

시발, 난 왜 이렇게 말솜씨가 없는 걸까. 또 성급히 얘기해버렸네. 다시 한번 차근차근 얘기하도록 하겠다.

난 20살인가, 18살인가 22살인가. 기억도 안 날 햇병아리 적에 자고 일어나니 다른 차원에서 눈을 떴다.

농담이 아니고 정말 자고 일어나니 다른 곳이었다.

이 세계로 넘어오는 차원 이동자가 내가 유일한 건 아니라서, 그렇다고 흔한 것도 아니지만 나는 백여 년에 한 명쯤 생기는 차원 이동자를 찾아 몇 가지 추론들을 얻을 수 있었다.

하나, 차원 이동자는 무작위로 선정된다.

둘, 차원 이동자는 차원을 이동하면서 한 가지 능력을 얻는다.

차원 이동이 나에게 준 것은 불사의 능력이었다.

그래, 그게 내가 불사신인 이유다.

어려지거나 다른 몸을 얻거나 마법이나 검술 등에 천부적인 재능이 생긴다든지 하는 유용한 능력이 많은데 불사의 몸은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다.

방귀를 색깔로 볼 수 있다든가 개미를 빨리 찾는다든가 하는 쓸모없는 능력보단 나으니 뭐, 만족한다. 원래 행복은 상대적인 것 아니겠는가?

나는 온몸을 조각조각 내서 바닷속에 수장시켜도 되살아난다.

어떤 방식으로 죽이든 최소 하루에서 최대 삼 년 이내의 기간 안에 되살아나며 상처 없이 회복된다.

여기서 다시 하나. 나는 불사신이다.

그리고 둘, 나는 늙지 않는다.

하하. 상상만 해도 신이 나지? 좋지?

묵혀둔 비밀을 누군가에게 고백 했을 때 그가 했던 반응이었다. 신나고 좋았겠네요. 그때의 나는 너무 화가 나고 분해서 입이 딱 붙은 것처럼 아무 말 못 했다.

이 곳에 처음 왔을 때 나는 막 성인 티를 벗은, 젊다는 말보다 어리다는 말이 어울리는 어린애였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힘도 없었다.

그래, 퍽이나 좋았겠다. 그래서 죽지 않는 몸인데도 살기 위해 똥 밭이라도 구르고 굴렀지.

그따위로 나불댄 놈의 코를 깨지 못한 게 꿈에서도 생각난다.

다시 살아난다 해도 죽음은 여전히 두려운 독약이었고 나는 그 잔을 거부 하고 싶었다. 한가지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나는 여전히 죽음과 끝없는 달리기 시합을 했을 거다.

여기서 셋, 나는 부활할 때마다 새롭게 태어났다.

조금 더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외모, 독에 대한 내성, 도망칠 수 있는 근력, 순발력, 마법저항력, 불행을 감지하는 예감...

사인과 관련해서 최대한 다시는 그 방법으로 죽지 않도록 몸이 진화했다.

여기까지 이야기했다면 한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지만, 내가 갖게 된 능력을 파악한 뒤로 나는 계속해서 자살했다.

최대한 잔인한 방법으로, 몸을 날려버릴 수 있도록. 다양하게, 끊임없이.

가끔 내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것 같으면 그때 시도했던 다양한 자살방법의 하나를 탓하곤 한다.

아, 역시 분신자살 때문에 미쳐버린 게 틀림없어. 아니면 익사였던지, 폭사였던지, 뭐든 간에.

농담인 것 같지만 아마 그때쯤 미쳤던 거 같다. 나중엔 선호하는 자살방법이 생길 정도였으니깐.

어찌 됐건 자신에게 잔악무도한 일을 마치고 나서 나는 모든 것을 가지게 되었다.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정말 가질 수 있는 모든 능력의 한계치를.

당연히 차원 이동을 한 이계인을 통틀어서 제일 강해졌다. 그리고 이계인 외에 모든 인간을 통틀어서도.

전부와 싸워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자살을 몇백 번을 했는데 나보다 강한 사람이 있다면 억울하지 않겠는가? 그냥 내가 제일 강하다고 생각하자.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그렇게까지 강해질 이유가 없었는데도 정말 자살만 계속하다 보니 미쳤던 것 같다.

비정상적으로 강함에 집착하고 탐구했다. 결과만 놓고 보자면 그 덕에 시간을 의미 있게 낭비할 수 있었고 지금 매우 편리하다.

눈물 없이 못 들을 과거사는 이쯤 해두고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일단 힘은 가지게 되었다.

보는 이가 다 홀릴만한 외모도, 그 외에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도, 힘을 가지고 뜨개질이나 하기엔 억울하니 모험도 산으로 들로 많이 하고 다녔다.

당연히 돈도 따라왔고 그 돈으로 해보고 싶은 것도 다 해봤다.

그리고...

지루해졌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니 영생은 너무나 길었다.

‘개와 인간의 시간이 다르고 인간과 드래곤의 시간은 다르다‘

주어진 수명이 다르듯 종족마다 체감 시간이 다르니 모든 것을 빨리하지도 모든 것을 느긋하게 하지도 말라는 이곳의 속담이다.

나는 그동안 개처럼 살았다. 내 앞에 닥친 일을 게걸스럽게 헤쳐 나갔다. 영생을 가졌으니 드래곤처럼 느긋하게 살아도 됐었는데. 남들이 뛰어서 가는 거리를 기어가도 결국 내가 더 멀리 갈 수밖에 없다. 드래곤조차 누리지 못하는 영생은 그런 의미였다.

내가 마음 한 자락이라도 준 것은 시간이 지나 병들고 늙고 죽어갔다. 시간은 아무리 쥐어도 손 틈을 빠져나가는 고운 모래 같아서 어디에도 머물지 못하고 정처 없이 떠돌았다.

그 속에서 점차 나를 감추는 법을 배웠다. 깊게 얽매여있던 것에서 한 발짝씩 멀어졌고 어느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았다.

길가에 핀 풀꽃에도 아름답다, 그렇게 마음을 주었던 여리고 어린 나였기에 처음엔 힘들었다.

하지만 난 강해지기 위해 자신을 여러 번 죽였던 사람이다.

샛별처럼 드는 마음을 죽이는 건 자살보다 쉬웠다. 그렇게 선한 것, 악한 것 구분하지 않고 그들의 눈을 바라보지 않은 채 혼자 살다 보니 시간이 갈 때마다 감정이 마모되어 갔다. 시간은 꾸준히 나를 무너트렸다.

점점 감정표현이 적어졌고 상황을 관망하고 있었다. 인간이면서 인간을 별개의 생물로 보게 되었다.

긴 시간 동안 어디선가 불어오는 재에 관계를 위해 지펴놨던 마음의 불씨가 점차 꺼져갔다.

하지만 모순처럼 사소한 일에도 불쑥 화가 치솟았다가 금방 괜찮아졌다. 손에 쥔 것을 길가의 돌멩이처럼 내버렸다가 다시 주워서 내 손으로 부쉈다. 부정적인 감정은 어두운 줄 모르고 깊어졌다. 오히려 더 감정의 기복이 커졌다. 나는 화를 참지 않았고 자비를 베풀지 않았으며 손속이 잔인해졌다.스쳐 지나가는 관계는 모두 찰나의 일이므로 나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늙지 않는 대신 낡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어제 꿈을 통해 깨달은 것이다.

"연애! 연애를 하는 거야!"

그게 이 이야기를 시작한 본질적 이유이다.

나름 순조롭게 여기까지 잘 온 거 같군.

모든 걸 다 해봤다고 생각했지만 단 하나, 연애를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

차원 이동 전에 연애니 사랑이니 해봤긴 했지만, 너무 까마득한 옛날이라 그냥 없었던 일 같다. 나는 내 부모 얼굴도 기억이 안 나는걸.

차원 이동을 한 뒤에 어리고 약했을 땐 살기에 바빠서. 한때는 자살하느라 바빠서, 강해지고 나서는 내 힘에 취해있기에 바빴다.

그 사이에 스쳐 지나간 인연이 없다고는 말 못 하겠다.

하지만 남들과 다른 시간을 산다는 것은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뜻하기도 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건 미워하건 그 사람은 결국 나보다 일찍 죽는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도 죽고, 그 사람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간직했던 가족과 친척, 후손마저도 전부 죽는다. 나는 여전히 선잠에 들면 그때 그 시절로 달려가는데.

그것을 감당하며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았다. 몸의 고통은 견뎌도 마음은 상처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앗, 방금 말은 정말 인간 같았다. 이번에 특별히 오래 잔 것이 효과를 발휘하나 보다.

꿈에서 나는 미남 미녀를 한 명도 아닌 수십을 끼고 복상사로 뒤질 만큼 행복하게 가벼운 연애를 했다.

왜 사랑, 연애 그런 것들을 고지식하게만 생각했지?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그러니 나는 죽어가는 연인을 보며 가슴 아파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그런가? 사랑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많은 이가 증명하지 않았는가.

누군가가 죽을 때까지 사랑할 확률보다 한 달도 채 안 되는 사랑을 할 확률이 더 높았다.

사랑의 유효기간은 제각각이니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금방 상해버리는 연애의 캔만 따면 된다.

여태껏 왜 그걸 모르고 인생을 낭비했을까.

목표가 생기니 모든 것에 활력이 생겼다.

원래라면 몇 년간 더 잠들어있을 예정이었지만 곰팡내를 풍기며 말이 그렇다는 소리다. 누워 있고 싶지 않았다.

당장이라도 밝은 햇살 아래로 뛰어가 연애를 하고 싶었다.

그래, 그러니까 그 꿈이 결국 모든 것의 원인이라니까.

나는 괜시리 바닥의 돌을 발로 차며 내 결정을 조금 후회했다.

벌써 걷기만 한지 삼 일째 되는 날이다. 꿈 따위에 짐을 바로 싸서 방향도 정하지 않고 무작정 걷다니. 걷다 보면 지구는 둥그니까 앞으로 나갈거라고?

이 세계를 지구라고 부르지 않을뿐더러 둥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은가, 난 천년 가까이 살아놓고 아직도 이렇게 선입견을 품고 산다. 정말 멍청하다.

아니 멍청하진 않다. 감히 내가 멍청하다니.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삶의 지혜를 몸소 터득했는데 내가 멍청하다면 일단 두 발로 서서 걷는 것들은 다 멍청한 것이다.

내가 이렇게 숲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것은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 자신도 알지 못하지만, 함부로 정의할 수 없는 미지의 힘이 그렇게 하도록 이끌었겠지.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는 숲속이지만 나는 배가 고프면 배가 부를 때까지 음식을 먹는다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잠깐 뭔가를 먹고 다시 움직이기로 했다.

뭘 먹을까 주머니를 뒤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이쪽으로 다가오는 인기척이 느껴졌다.

단순히 덩치로만 판단하면 남자 같아 보였는데, 셋 다 우중충하게 얼굴을 가리는 로브를 눌러쓰고 있었다.

비도 안 오는데 로브를 뒤집어쓰고 얼굴을 가리는 놈들이란 대개 수상하고 미심쩍은 구석이 있다.

그다지 친해지고 싶은 유형은 아니다. 먼저 다가가기 귀찮아하는 나이가 된 나에겐 너무 비사교적인 애들이기 때문이다.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지나가길 기다리는 쪽으로 마음 굳혔는데 이놈의 미모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나 또한 로브로 가리고 있지만 빛나는 미모를 보고도 그냥 지나쳐주길 바라는 마음이 더 지나친 모양이다.

나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저놈들처럼 얼굴을 다 가려주는 로브를 덮어썼음에도 그걸 뚫고 느껴지는 광채.

역시나 나의 아름다움에 반했는지 세 놈은 지나가다 말고 나에게 외쳤다

"거기 누구요!"

단순히 저놈들도 나를 수상하다고 여겼을지도.

참나, 연장자에게 먼저 자기소개를 시키는 건 실례인데 기본도 안 되어있는 인간들이다.

그렇다고 가만두면 칼을 들이밀 태도였기에 나는 손을 들어 공격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밝힌 뒤 대답했다.

"여기서 나가려는 사람인데?"

물음에 답했는데도 그놈들은 결국 나에게 칼을 들이밀고야 말았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서 문제이다.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싸가지가 없어지는 것 같다. 몇백 년을 살아온 내가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제는 거의 사회문제라고 봐도 무방하다.

칼을 들이미는데도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서 있자 칼을 들이민 놈이 도리어 머쓱해진 듯 보였다.

치켜세웠던 칼을 슬그머니 낮추는 게 보였다.

"여기서 나간다는 게 무슨 말이요?"

칼을 낮췄다고 해도 나를 겨두고 있는 칼날을 보는 것은 유쾌한 일은 아니다.

잘 벼려진 칼끝을 보고 있노라면 칼로 시도했던 수많은 자살이 떠오른다. 그 시도들은 다 성공적이었다. 성공했다고 기뻐해야 하는 건지 슬퍼해야 하는 건지 몰라도, 칼 하나만으로 얼마나 다양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나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놈은 알까?

모른다면 지금 체험시켜주고 싶다. 물론 공짜로 시켜 줄 테니 사양해도 받지 않을 거다.

내가 대답 없이 칼만 바라보며 서 있자 그놈이 다시 한번 칼을 이쪽으로 들이민다.

아무래도 나의 공짜 죽음 서비스를 체험하고 싶은 지원자인가보다. 요즘 것들은 이렇게 버릇없이 서로 먼저 죽고 싶어서 난리다.

저놈을 어떻게 조질까 하고 빠르게 방법을 머릿속으로 훑고 있는데 칼을 든 놈 뒤에 서 있던 놈이 그놈의 칼 든 쪽의 팔을 잡아 내리게 했다.

"겁에 질렸잖아, 그렇게 칼을 들이밀고 있으면 말이 안 나오는 게 당연하지."

객관적으로 봐도 내 모습이 겁에 질린 것 같진 않았겠지만 놀랍게도 그 말에 설득당했는지 버릇없는 놈은 칼을 나에게서 치웠다.

넌 친구한테 평생 고마워하면서 살아라. 방금 네 목숨을 구한 거야.

자기가 죽음 문 앞에서 건져 올려진 것도 모르는 놈팡이는 한 번 더 나에게 물었다.

조금 누그러진 어조였다. 그래, 너희 앞에 선 건 무척이나 아름다운 아가씨라고. 나비 한 마리도 못 죽이게 생겼는데 뭘 그렇게 경계해? 물론 잘 안 보이겠지만 마음으로 느껴보라고.

점점 더 세 놈에게서 구린내가 났다. 황제라도 암살하고 도망치는 놈들일까? 이 세계의 어마 무시한 범죄자라면 그쯤 될 것이다.

"여기서 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물었소."

정체와 별개로 이해력이 부족한건가, 그렇다면 마음이 하해와 같이 넓은 내가 이해해야지. 나는 속으로 잠깐 애도하고 대답했다.

"여기서 나간다는 게 여기서 나간다는 뜻이지. 무슨 뜻이냐 물으면 여기서 나가려고 하니 여기서 나간다고 할 수밖에..."

놈의 얼굴이 보이진 않지만, 화가 났다는 건 대단히 잘 알겠다.

칼끝을 부르르 떨며 다시 내게 겨둘까 고민하는 눈치기에 나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이놈들이랑 헤어지기로 마음먹었다

딱 봐도 수상해 보이는 원투쓰리인데 괜히 엮였다가 나의 계획이 와장창 꼬이고 말 것이다.

그럼 난 분노에 차서 사람들을 마구 죽이면서 울분을 토할지도 몰랐다. 그렇게 된다면 나에게 좋지 않고 인간들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다.

또 유치하고 우스운 '피의 제왕' 같은 수식어로 멀쩡한 사람을 마왕 만들지도 모를 일이니까.

검을 든 놈이 분을 삭이고 뭐라 하려 할 때 나는 스슥 뒤로 물러나며 사라지려고 했다.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순간 검을 든 놈을 말렸던 애가 그놈 앞에 서며 나에게 다가왔다.

그 애가 다가오자 훅하고 청명한 기운이 뻗쳤다. 맑고 고운 기운. 좋은 곳에서 좋은 것 먹고 좋은 것만 보고 자란, 부모 잘 만나서 수련한 놈들이 타고나는 기운이었다.

남들에게 영향을 줄 정도로 모인 기운이라면 꽤 뛰어난 마법사이거나 검사라는 뜻이었다. 그 기운은 기운에 대한, 다른 말로 하면 마나에 대한 민감도가 클수록 더욱 분명하게 느껴진다.

일반인에겐 그저 왠지 가까이 가면 안정이 된다는 정도로 인식되지만 마나를 느끼는 사람은 민감할수록 심하면 눈에 기운이 보일 정도가 되는 것이다.

당연히 나는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도 잘 보니까 눈 아프고 정신 사나워서 감각을 억제할 수 있을 정도다.

그것만큼은 자살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꽤 오랫동안 연습해야 했다. 마나를 보는 감각을 닫는 걸 연습한다니, 그걸 느끼는 기관이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나니까 결국 해내게 되었다.

시감각을 억제한 뒤로, 눈이 멀면 다른 감각이 발달하는 것처럼 상대가 지닌 기운의 종류나 양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공기의 흐름으로 인식하게 됐는데 높은 기운이면 냄새도 맡을 수 있었다.

어렴풋이 향기까지 맡아지는 걸 보니 꽤 쓸만한 실력을 갖춘 놈 같았다.

부모가 가진 돈 받아 처쓰면서 남들과 다르게 순수한 기운만을 모은 것은 아니꼽지만 결국 그것조차 자신의 재능인 셈이다. 이러나저러나 꿉꿉하고 음식물 쓰레기 냄새나는 흑마법사 놈들보다 나았기에 나는 저런 기운을 가진 애들을 좋아한다.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좀 더 자세히 맡아보았다.

잘 마른 빨래 냄새, 거기에 섞인 비누 냄새와 꽃잎 냄새. 신선한 풀의 냄새. 새벽에 맺힌 이슬의 냄새.

놈의 목덜미에 코를 박고 킁킁거리고 싶을 만큼 좋은 냄새였다. 아무리 돈을 처발라서 좋은 것만 한다 해도 저렇게 정순한 기운만 골라서 몸에 담아두긴 힘든데, 그릇도 좋구나 싶었다.

숲의 냄새를 닮았지만, 숲과는 확연히 다른 냄새에 나는 기분이 스르륵 풀렸다.

인간답게 연애를 하자고 나와서 맨 처음 하려는 짓이 살인이었다니 난 어쩜 이렇게 잔악무도한 매력을 가지고 있을까. 정말 안될 일이다.

난 나도 모르게 슬쩍 발걸음을 옮겨 좋은 향이 나는 놈 쪽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갔다.

맡으면 맡을수록 개운해지는 느낌이었다.

흠, 한창 산으로 들로 쏘다니던 시절 인간을 너무 많이 죽여 마왕이라는 칭호를 받은 적 있었다.

나는 그때 한참 기운에 관해 연구 중이었고 좋은 기운을 가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또 왜 좋은 기운을 이들은 향기로우면서 따스한지 궁금했었다.

난 궁금증은 못 참는 성격이기에 어차피 마왕 소리 듣는 거 정순한 기운을 가진 놈들을 선별해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지만 그만큼 기운을 쌓아 놓는다는 건 결국 어느 정도 실력자라는 뜻이었다.

제물을 빙자한 용사들이 세상을 구하고 말겠다는 신념을 품은 채 주렁주렁 넝쿨째로 굴러들어왔고 나는 그 녀석들을 잡아다가 방향제로 썼다.

천성이 여리고 순한 나라서 토막 내서 천에 넣어두는 역겨운 짓을 한 건 아니고,중요한 건 죽이면 향이 사라진다. 기운이 날아가기 때문이다. 그냥 살아 있는 채로 옆에 끼고 돌아다녔다.

좀 미인을 매달고 다니는 돼지 황제 같은 모습이었다는 걸 인정한다. 물론 나는 매우 아름답고 내가 데리고 다니는 것들은 성별 나이 전부 다양했지만.

왁왁하며 틈만 나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들을 죽이지 않고 꾸준히 방향제로써 예뻐해 주자 어디까지나 진짜 방향제 역할만 했다. 그것들이 고분고분하게 변하는 것은 색다른 유흥거리였다. 사람은 자기에게 잘 해주면 상대가 적일지라도 쉽게 마음을 연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러한 일들을 취미로 두었던 내가 단언컨대 저놈은 등급을 매기자면 특특상품이지않을까.

어쩌면 신관일지도 몰랐다. 신관은 기운이 강해도 향이 없는 게 대다수였지만 내가 잠든 동안 세상이 변했을지도 모르지.

어찌 됐건 이 기운은 나를 진정시킨다. 가까이 가서 향기를 맡으면서 어~ 시원허다~ 하고 외치고 싶었다.

물론 난 사회화를 마친 인간이었으므로 그러지는 않았다. 이럴 때 늘 느끼지만 난 역시 인간이다. 예의까지 바른.

"우리가 협박하거나 시비를 걸려는 건 아니에요, 여성분 혼자서 이 험한 포텟쿠 숲속에 있다는 게 뜻밖이어서 물어본 거였어요."

기운과 어울리는 예의를 갖춘 사람이었다. 이제야 대화가 시작되는 듯싶다.

그에 걸맞춰 뭔가 길게 대답해주고 싶어도 내가 한 대답은 사실이니 따로 할 말은 없었다.

그나저나 포텟쿠? 포텟쿠..?

난 고개를 갸웃거리며 기억을 더듬어보다가 떠올렸다. 아, 그러고 보니 내가 터로 잡은 숲이 인간들 사이에서는 악명 높은 숲이었다.

내 입장에선 몬스터니 환수니 괴인이니 하는 것들보다 변태처럼 집착력이 있는 인간이 더 성가신 존재였고 인간만은 피하자 싶어서 여기까지 꾸역꾸역 들어왔다.

주변에 잡된 것을 훠이훠이 쫓아내고 황궁 부럽지 않은 던전을 판 다음에 내가 한 일은 이 숲의 악명을 더 드높여 주는 일이었다.

별거 없고 그냥 숲을 돌면서 몬스터들끼리 정한 자기네 구역의 우두머리를 죽이면 손쉽게 숲은 혼돈의 도가니로 떨어졌다.

서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서열 싸움을 하고 덩달아 그 싸움에 끼지도 못하는 열등한 몬스터들도 흉포해지고 결과적으로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는 숲을 지나가거나 숲 주변에 사는 인간이었다.

그나마 지나다닐 수 있는 숲에서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인근 마을에서 손사래 치는 숲으로 평이 바뀐 것을 확인하고 나서 나는 나의 아늑한 집으로 돌아와서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었다.

역시 내 집 앞은 조용하고 깨끗해야 제맛이었다.

그렇게 나름대로 수고 아닌 수고를 들여서 악명을 높여놓은 숲이지만 정작 난 숲의 이름도 모르고 그냥 내 집 마당 정도로 부르고 있었다. 아니면 내 집 앞 숲? 얼토당토않은 말이었지만 나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집 앞에 숲 정도는 있어도 되는 법이다.

솔직히 포텟쿠라는 괴상망측한, 꼭 뭔가 튀어나올 것 같은 이름보단 집 앞 숲이 얼마나 직관적이고 외우기 쉬운가.

괴상한 숲의 이름을 들어 잠깐 생각이 삼천포로 빠져버렸지만 나는 아무튼 고개를 끄덕였다.

오냐, 이해해주마.

내 끄덕거림에 검을 든 놈이 뭐... 하고 뭐라 불만스러운 어조로 중얼거리려고 했지만, 청명한 기운을 가진 애가 눈빛으로 저지했다.

"저희도 똑같이 이 숲에서 나가려는 사람들입니다만, 포텟쿠를 지난다고 하기엔 너무..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계셔서..."

그야 당연히 내가 주렁주렁 자기네들처럼 배낭도 메고 뭐도 챙기고 이것도 두르고 번거롭게 입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똑같이 입어야 하는 거면 내가 그 돈을 투자 안 했지. 겉으론 그냥 옷처럼 보여도 천문학적 돈이 든 마법 물건이니까.

놈은 목소리를 조금 낮추더니 미안하다는 기색을 깔고 얘기했다.

"포텟쿠에서 괴인이 나온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지만... 아무래도 미지의 숲이라서요. 하하... 의심받으셔서 기분 나쁘시겠지만, 목숨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니까 싸울 생각이 없으시다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나마 아직도 칼을 든 채로 나를 노려보는 것이 분명한 놈보단 말 같은 소리였기에 기분이 상하진 않았다

그렇다고 내가 그들에게 굳이 설명해야 하는가? 잠깐 고민해보고 결론을 내렸다.

여행 떠나서 일주일도 안 되어 누굴 죽이는 건 아무래도 찜찜하다. 왜 자꾸 귀찮으면 죽이자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는지 몰라도 누군가를 죽이는 일은 최종 선택이어야 했다.

능력은 인간이 아니지만 난 아직 인간이라는 자각이 있다. 아무리 그래도 설명하기 귀찮다고 사람을 죽이는 건 정신 나간 살인마보다 더했다.

"그냥 간단해 보이지만 이거 다 마법 물품이야."

이해 다 됐지? 나는 대답을 바라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 멍청한 얼굴들을 보니 내 말을 이해 못 한 것 같군. 마법 물품이라는 말이 그렇게 어렵나?

죽이지 않기로 마음먹었기에 친절하고 상냥해진 나는 한 번 더 느리게 말해주었다.

"마법물품."

이해 가기 쉽게 주머니까지 툭툭 두드리며 얘기하자 좋은 기운을 가진 놈이 꿈에서 깨어나듯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마법 물품이라니... 기능에 따라 다르겠지만 엄청 비쌀 텐데... 하지만 그렇다면 이해가 가네요."

그래, 당연히 이해가 가야지. 너희가 이해를 못 했다고 해서 내가 뭔가 더 해주진 않을 거거든.

"그럼 됐지? 이제 가봐."

나는 새를 내쫓을 때처럼 손을 휘저으며 못 다 한 식사를 마저 하려고 했다.

깨어난 후 처음 먹는 음식이니 거나하게 차려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세 놈은 내 손짓에도 꿈쩍하지 않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아니 오히려 한 놈은 전투태세를 갖추는 듯 보였다.

내 하대와 짐승 다루듯 한 태도에 화가 났다고 쉽게 짐작 가능했지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당연했다.

모처럼 긴 잠에서 깨어나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시작한 인간다운 여행이다.

나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모든 걸 생생하게 느끼고 있었다.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이토록 사람을 기운차게 만들다니,

어쩌면 나는 그동안 기나긴 우울증에 빠져있었는지도.

어찌 됐건 그런 여행의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앞으로의 일이 잘 풀리는 법인데 다른 것도 아닌 첫 식사부터 이렇게 불청객이 끼어들면 내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는가.

예전의 내 세계엔 밥 먹을 때 개도 안 건드린다던가 개만 건드린다던가 그런 말이 있을 정도인데 말이다.

그리고 기분 나쁜 걸 떠나 나와 저들의 능력 차는 사람과 개... 아니 사람과 개미만큼의 차이였다. 개미에게 인격 운운하며 잘 대해준 것만으로도 나는 성인군자였다.

흘긋 그쪽을 다시 보니 셋은 여전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하지만 개미가 서 있다고 해서 밥을 못 먹을 이유는 없지

나는 그냥 무시하기로 마음먹고 허리춤에 멘 주머니에서 작게 접힌 손수건을 꺼내 펼쳤다.

손수건을 몇 번 탁탁 털어 떨어트리니 금세 작은 탁자로 바뀌었다. 손수건을 아공간이랑 연결하여 특정 물건을 소환해내는 마법이었다. 아공간에 고이 보관되어있던 피크닉 테이블이 나오고 나는 그들이 빤히 쳐다보는 앞에서 주머니에서 음식들을 꺼내 차렸다.

역시 오랜만에 식사이니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거창한 게 좋다.

고심해서 고른 음식들로 다 채우고 나니 서 있던 놈 중에 젤 작은놈의 배에서 꼬르륵하는 소리가 들렸다.

일반인 기준으로 거리를 생각한다면 옆의 두 놈은 듣고 나는 못 들을 거리라 그놈은 머쓱한 듯 양옆의 사람을 보고 눈치를 살폈다.

설사 내 눈치를 살폈다 해도 나는 내 음식을 나눠 먹을 생각이 개미 눈곱만큼도 없지만.

보란 듯이 수프부터 시작해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산속에선 뭐니 뭐니 해도 코스요리지.

저들끼리 눈치를 살피며 조금만 나눠달라 할까 고민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나한테 말 걸 시간 없을 텐데, 좀 있으면 몬스터가 들이닥칠 것이다.

저 멀리에서 음식 냄새를 맡고 다가오는 기척이 들렸기에 알 수 있었다.

물론 음식 냄새를 맡고 몬스터가 모이는 건 내 탓이지만 몸소 몬스터를 물리쳐줄 마음은 없다.

몬스터는 본능적으로 약한 놈들에게 먼저 달려들기 때문에 나보다 저놈들을 공격할 것이다. 나를 공격하지도 않는 몬스터를 죽이려고 식사를 멈출 필요는 없지 않은가?

저들이 약한 건 내 탓이 아니다.

그리고 달려드는 몬스터와 싸우게 되는 것도 내 탓이 아니고.

아니나 다를까 놈들이 머뭇거리며 겨우 저기, 하고 입을 뗐을 때 나무 사이에서 얼굴이 개미핥기를 닮은 인간형몬스터가 나타났다.

나야 그 놈들 이름은 모르고, 침이 강한 산성이라 번거롭다는 점만 빼면 어디에나 널린 잡몹이라 밥 먹는데 인간 죽는 꼴은 안 봐도 되겠다는 것은 안다.

놈들이 몬스터와 접전하여 몬스터들을 썰 때 나는 스테이크를 여유롭게 썰었다.

약한 몬스터답게 위험요소를 인지하는 본능이 강한지 세 놈과 싸우다 내 쪽으로 길이 트였어도 이쪽으로 넘어오는 몬스터는 한 마리도 없었다.

이처럼 가냘픈 여자아이가 밥을 먹고 있다면 지켜주고픈 마음이 들 법도 한데 자기 목숨 구하기에 급급해서 몇 번이고 내 식탁에 가까이 올 뻔했다.

혹시라도 내 테이블에 지저분한 피를 흘리거나 음식 위로 쓰러지는 불상사가 생기면 몬스터고 인간이고 레어 스테이크 대신 썰어주려고 마음먹었는데 저들에겐 다행히도 그 정도까진 아닌 모양이었다.

나도 덕분에 눈앞에서 펼쳐지는 전투를 연극 삼아 내 보존마법을 스스로 칭찬하며 아직도 따뜻한 스테이크를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내가 대강 파악했던 기운대로 버릇없게 칼 들이미는 녀석은 자신 있는 모양새만큼의 실력은 못 되었다.

그냥 기사라고 이름 붙인 검은 잡고 다니는 인간 정도, 발에 차이는 흔하디흔한 검술 실력으로 전투에서 꽤 고군분투하고 있었고, 청렴한 기운을 가진 애는 인간치고 맑은 기운답게 도축 업자처럼 시원하게 다 썰어버리고 있었다. 사실 그놈이 몬스터를 전부 처리하다시피 했다.

그리고 게 중 제일 작은 놈은 의외로 선전하고 있었다. 활이 주 무기인 듯 좀 뒤편에 서서 쉴 새 없이 화살을 날리는데 손뼉을 쳐주고 싶을 만큼 백발백중이었다. 이야 상 줘야겠는걸?

스테이크를 다 끝내고 나는 2차 주요리에 손을 뻗었다.

껍질을 바삭하게 구워내어 식감은 살리고 속의 촉촉함을 간직한 닭구이였다. 간장으로 만들어진 소스도 발라 달콤하면서 먹을수록 입맛이 당기는, 다른 건 다 잊어도 잊을 수 없었던 치킨을 흉내 내어 만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다.

다리 하나를 잡고 막 베어 물려는 데 뒤에서 화살을 쏘던 녀석의 로브에 몬스터의 침이 튀었는지 얼굴을 가리던 로브가 녹아내렸다.

아 저거 마법 로브던데 아깝게 됐네. 격하게 움직여도 벗겨지지 않도록 고정 마법이랑 얼굴이 보이지 않게 하는 보호 마법이 걸려있던데.

이미 몬스터 침 한 바가지가 묻어 그대로 두면 로브가 아니라 얼굴까지 녹아내린다는 걸 느꼈는지 작은놈은 급한 손놀림으로 로브를 벗었다.

작은놈이 허둥대는 동안 청량한 기운의 녀석이 그놈을 엄호하며 앞을 지키고 섰다.

그리고 버릇없는 놈은 몬스터 한 마리 붙잡고 여전히 고전 중이었다. 쯧쯧, 저래서 어느 세월에 죽여. 차라리 개미가 깨물어 죽이는 게 빠르겠다.

로브를 다 벗어 내팽개치자 보호 마법이 걷혀 작은놈의 얼굴이 드러났다.

아아, 보고 싶지가 않다. 보호 마법을 걸어서 얼굴을 가릴 정도면 저놈들은 구린 놈들이 분명하다. 얼굴을 보게 된다면 귀찮고 구질한 일에 꼬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내 직감은 대개 정확하다.

하지만 날아가는 매의 똥구멍까지 볼 정도로 뛰어난 시력을 어쩌겠는가, 눈이 달려있으니 볼 수밖에 없었다.

여린 꽃잎을 연상케 하는 연분홍빛 머리와 노랑에 가까운 연한 헤이즐넛 색 눈을 가진, 아직 젖살이 통통한 미소년이었다.

보드라워 보이는 볼과 큰 눈동자, 팔랑거리는 속눈썹. 혈기 도는 입술.

나는 닭 다리를 뜯던 것도 잊고 그 소년의 얼굴을 빤히 바라봤다.

어리지만 않았다면 내가 충분히 예뻐 해줬을 텐데... 눈 높은 내가 합격점을 줄 정도로 귀엽게 생겼다.

아이들은 금방금방 자라니 아마 눈 깜짝할 사이에 잘생긴 청년이 될 것이다. 키가 얼 마큼 클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고 쟤가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연애를 하겠다는 말은 아니다. 마음먹은 일은 당장에 해치워야 하는 성격이라 느긋하게 기다리지 못할뿐더러 다 큰 놈들도 까마득하게 어려 보이는데 저건 나 눈엔 완전 방금 태어난 것처럼 보였다.

인간이라면 누군들 나랑 나이 차이가 안 나겠느냐마는 숫자로 대하는 차이와 직접 눈에 보이는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이다. 겉모습이라도 덜 차이 나 보이는 애들이 마음이 편안하다.

물론 내가 이놈 저놈 사귀다가 다시 쟤를 만나게 됐는데 그때 다 커 있다면 생각은 해보겠다. 살다 보니 느낀 건데 절대 안 되는 일은 없다. 가능성은 항상 열어놓아야 한다.

버릇없는 놈이 개미가 깨물어 죽이는 속도로 겨우 몬스터 하나를 해치우고 나자 남은 건 한 마리가 되었다.

남은 한 마리도 청량한 애의 자비 없는 검로를 보건대 곧 지 친구들이랑 같은 신세가 될 것 같았다.

청량한 애가 허리를 숙여 크게 다리를 베어내는데 그놈이 마지막 힘을 짜낸 건지 혀를 길게 내밀어 분홍이, 그러니까 작은 놈의 목을 휘감으려고 했다.

분홍이가 아차 하는 표정으로 활 통의 화살을 꺼내려는데 그 손보다 몬스터의 혀가 더 빨라 보였다.

나는 그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뜯던 닭 다리를 몬스터의 얼굴을 향해 힘껏 던졌다.

"예쁜 애는 안 돼!!"

나의 인간을 초월한 뛰어난 시각으로 보았기에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지만 이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청량한 애가 몬스터의 다리를 벰과 동시에 내가 닭 다리를 집어 던졌다는 말과 똑같다.

아마 최후의 일격이었을 텐데 그 일격이 분홍이에게 닿기도 전에 내가 던진 닭 다리에 그놈의 머리가 터져버렸다.

수박을 쪼갠 것과 같은 다소 어이없는 소리가 나며 몬스터 머리의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청량한 애는 다리를 베느라 상체를 숙여서, 분홍이는 거리가 멀어 피해가 없고 옆에 서 있던 버릇없는 놈만 고스란히 그 핏덩어리와 살점 쪼가리들을 맞았다. 거봐라, 어른한테 예의 없는 놈은 벌 받아.

그 뒤로 쿵, 하고 몬스터의 몸이 쓰러지고 약속이라도 한 듯 셋 다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시선에서 느끼는 감정을 나도 느낀다.

그래 나도 항상 내가 놀라워.

생면부지의 사람을 위해 먹던 닭 다리를 희생시킬 만큼 얼굴에 약한지 이제야 깨닫게 되는구나.

돌이켜 생각해보니 잘생기거나 예쁜 애들에겐 이유 없이 퍼주고 도와주고 그랬다.

그때는 그저 내가 마음이 약해졌나보다, 혹은 이끌림이 있는 것 보니 이건 우주의 계시이다! 생각했지만 단순히 얼굴에 약한 것뿐이었다.

거울을 보면 나 자신을 도와주고 싶고 아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그 이유였구나. 나처럼 아름다운 이를 보면 스스로 반하는 것도 당연하다.

몇백 년을 살아도 내가 모르는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건 신선하다. 아직 발견할 부분이 남았다니. 나라는 인간은 정말 질리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친해지고 싶을 정도다.

난 다시 자리에 앉으며 얌전히 닭 다리를 들었다.

식사를 마저 끝내고 빠르게 이 숲을 빠져나가야겠다.

이제야 목표가 명확하게 생겼다. 각 나라를 돌면서 잘생겼다 소문 난 인간들을 다 만나봐야지. 그중에 내 취향 한 놈은 있겠지.

내가 식사를 다시 시작한 사이 세 놈은 뭉쳐서 나를 한번 쳐다보고, 내가 터트린 몬스터 시체도 한번 보고 쑥덕대기에 바빴다.

자기들끼리 숨기려고 조용히 속닥대는 것 같지만 이 좋은 청각을 어쩌면 좋으리.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듣게 되었다.

이것 봐. 푸엣타 머리를 일격에 터트렸어.

도대체 뭐로 터트린 거야? 단검이었어?

아니, 먹고 있던 닭 다리...

뭐어?!

체구와 목소리로 유추해보면 어린 여자애 같은데... 이게 가능해?

둘 중 하나겠지. 인간이 아니거나 차원 이동자거나...

둘 다 너무 말도 안 되지 않나?

평범한 여자애가 닭 다리로 일격에 푸엣타 머리를 터트리는 게 더 말이 안 돼

그건 그렇긴 한데... 괴인일까?

괴인은 아니야. 저 여자애 말대로 입고 있는 옷 전부 마법 물품이야, 대강 확인해봤어. 괴인은 마법 물품을 쓸 수 없어.

그럼 차원 이동자…?

아니 왜 둘 다 마법의 경우를 빼놓는 거야?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몸에 두르고 있는 게 다 마법 물품이라며. 그럼 그거 도움 받은 거 같은데, 무슨 마법인지 확인했어?

그것까진 확인 못 해봤어... 상급 마법이거나 스캔 못 하게 방해마법까지 걸려있나 봐.

그럼 마법 물품으로 한 일 같은데, 차원 이동자나 인간이 아닌 것보다 훨씬 말 되잖아.

그 뒤로도 몇 마디를 더 나누더니 결국 마법 물품으로 한 일이라고 결론 내린 것 같았다.

몬스터 시체랑 피바다 속에서 비위도 좋게 음식 처먹는다며 욕한 건 내 넓은 아량으로 넘어가 주기로 했다.

왠지 아까 전보다 멀찍이 떨어져서 서 있던 세 놈 중에 분홍이가 좀 더 앞으로 나왔다.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을 먼저 했었어야 했는데 경황이 없어 감사 인사를 못 드렸네요."

"고맙다고 하려면 네 얼굴에 대고 해. 얼굴 보고 구해준 거니까."

잘생겨서 구해준 게 사실이기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분홍이의 얼굴이 자못 심각해졌다.

오래 살아 그런지 남의 표정을 읽어내는 것에도 능숙해졌는데 저건 비밀을 들켰다는 표정이다.

마법까지 걸어 얼굴을 숨긴다 했더니 얼굴을 알아보는 누군가에게 들키기 싫었나 보다.

뒤에 두 놈도 갑자기 심각한 분위기로 변해 살짝 한 발짝 다가왔다.

여차하면 죽여서 입막음하겠다는 비장한 분위기로 분홍이는 나를 슬쩍 떠봤다.

"얼굴이요? 저를 아시나요?"

저들끼리 심각한 분위기를 자아내든 말든 거기에 내가 맞장구쳐 줄 이유는 없기에 태평스럽게 손가락을 쪽쪽 빨며 대답했다. 역시 마늘을 많이 넣길 잘했다. 양념 맛이 일품이군.

"아니, 귀엽게 생겨서."

분홍이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뒤에 선 놈도 그러고 보니 아까 예쁜 애는 안된다고... 하고 중얼거렸다.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 데 도와줌에 이유가 필요한가, 그렇게 생각했는지 분홍이는 금세 이해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을 건넸다.

그 모습에 최약체인 건방진 놈이 삐딱하게 서서 불쑥

"감사는 그쪽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앞에서 몬스터를 다 막아줘서 그쪽이 무사한 거 같은데."

하고 말했다.

내가 닭 다리를 던져 몬스터 머리를 터트린 걸 보고도 저런 말을 하다니. 맙소사. 신이시여, 계신다면 저놈의 지능을 굽어살피소서.

그리고 보통은 몬스터가 코앞까지 왔는데도 태연하게 식사를 하고 있다면 아 저 사람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기 마련이건만, 신이시여 엎드려서 자세히 살피소서. 만들 때 뭔가 빠트린 듯한 놈이 있으니.

나는 별다른 반응을 않고 분홍이에게 상냥한 목소리로 물었다.

"얘, 너 배고프지 않니? 같이 먹을래?"

내 태도는 명백히 그놈의 말을 무시하고 있었기에 놈은 삐딱하게 서 있던 자세를 풀며 뭐지? 하고 되물었다.

분홍이는 그런 놈을 한번 뒤돌아보고 달래듯 고개를 끄덕거린 뒤 몬스터 시체가 널린 주변을 둘러보며 대답했다.

"음식보다는 일단 이 자리를 빨리 떠야 할 거 같은데... 피 냄새를 맡고 얼마 안 있으면 몬스터가 몰려들 거에요."

분홍이는 나를 약간 질린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덧붙였다.

"게다가 말씀은 고맙지만... 몬스터 시체를 앞에 두고 먹기는 좀..."

그렇게 말하면 잘 먹고 있는 내가 뭐가 되냐 만은 어차피 난 말 하나하나에 신경을 쓸 만큼 세심한 사람은 아니었다. 초콜릿 에클레어를 하나 잡아들며 그래? 하고 반문했다.

어차피 식사는 대강 끝났으니 나도 귀찮아지기 전에 자리를 피하는 게 편했다.

가볍게 테이블보 끝을 잡아 확 터니 테이블을 폈을 때처럼 눈 깜짝할 새 손수건으로 다시 변했다.

테이블에 얹어져 있던 음식들은 다음에 펴기 전까지 내가 올려놓은 위치 그대로 보관된다. 일종의 귀속마법인데 내가 훌륭하게 응용했다.

나는 초콜릿 에클레어를 한입 먹으며 말했다.

"가자."

내가 무슨 저들 앞에서 마술쇼를 한 마냥 쳐다보고 있던 셋은 동시에 네? 와 어? 를 섞은 듯한 소리를 냈다.

아니, 그러면 숲 속에 이토록 아름답고 가련한 길 잃은 소녀를 내버려둘 생각이었단 말인가.

내가 헤매고 있던 것은 길잡이 역할을 할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미래를 예지하는 능력은 없지만 내가 쓸데없이 길을 헤맸을 리 없다. 나처럼 완벽한 사람은 원래 그렇다.

"그럼 날 두고 너희들끼리만 갈 생각 이였어? 나 나가는 길 모르는데?"

내 말에 셋이서 눈을 마주치더니 그 중 한명이그 싸가지놈 같다. 허 참, 하고 혀를 찼다.

잠깐의 침묵이 지나고 분홍이가 나에게 물었다.

"어느 나라로 가시는 거죠?"

"그런 거 없고 그냥 이 숲만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당연히 여행의 목적지가 정해졌을 리 없다. 일단 이 숲을 나가고 인근 마을에서 차근히 이제 뭘 하면 될까 하고 생각할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는 중이다.

"주변 마을 아무데나 가려고."

내가 덧붙인 말에 그들의 침묵이 깊어졌다.

말하지 않아도 무슨 생각하는지 뻔히 알겠다. 뭐하는 사람이지부터 시작해서 다시 나의 정체에 대해 온갖 억측을 늘어놓고 있을 터였다.

그렇다고 없는 목적지를 만들어낼 순 없는 법이지 않은가, 내가 댄 지명이 아직까지 존재할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이들이 나를 수상하다 여겨 떼놓고 가려해도 어쩔 수 없다. 그냥 따라가지 뭐. 어차피 허락은 나한테 무의미한 것이다. 허락 받는다면 따라가기 좀 더 편하기에 한번 물어나 본 것이지 거절하든 말든 내 알바 아니다.

"음, 그럼 숄테나까지만 동행하도록 하죠. 저희가 가는 방향에 제일 가까운 마을이 숄테나니까요. 괜찮으신가요?"

청량한 애가 셋 중 제일 강하기에 결정권이 있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제일 어린 분홍이 에게 결정권이 있나보다.

나는 고개를 끄덕여서 대답하려다가 로브를 뒤집어쓰고 있으니 안 보일 것 같아 그래 하고 대답했다.

예상대로 예의 없는 놈이 크게 반발하며 뭐어?! 하고 멀리 있던 몬스터도 다 불러들일 정도로 소리를 질렀다.

청량한 애는 어쩌겠어, 하는 태도로 어깨를 으쓱 하는 것 보니 분홍이의 결정에 별 다른 불만은 없어보였다.

예의 없는 놈이 분홍이의 옆에 붙어서 소리를 죽여 "아니 정체도 모르는 사람을 그렇게 쉽게 동행하자하면 어떡해. 앞에서 몬스터랑 피 튀기며 싸우는데 스테이크 썰어먹는거 봤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또라이같아." 하고 속삭였다.

그 놈이 그렇게 투덜거리는 게 일상인듯 분홍이는 한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태도였고 청량한 애도 별 다른 반응 없이 "그럼 일단 출발." 하고 앞서 나갔다.

앞서는 애를 따라 나가면서 투덜이는 계속해서 나를 흘깃 흘깃 뒤돌아보며 투덜거렸고 분홍이는 그 놈의 목소리가 커지려고 하자 적당히 해 하고 경고한 뒤 나에게 물었다.

"목적지도 없는 여행이라니.. 되게 독특하시네요. 어떻게 그런 여행을 하게 되신 건가요?"

사실 정상적인 여행객들이라면 이쯤 되서 서로 통성명을 하자 하고 제안 할 텐데 통성명은커녕 나머지 두 놈은 로브도 벗지 않는걸 보면 혹여나 자신을 알아볼까 두려워하는 눈치였다.

내가 시종일관 반말하고 있음에도 별 다른 얘기가 없는 것 또한 괜히 말투로 트집 잡았다가 혹여나 내가 귀족이라 그렇다. 너희는 귀족이냐 평민이냐 귀족이라면 누구냐 등 질문이 길어질까 봐 피하는 것이고.

내가 반말을 쓰는 이유는 단순히 내가 월등하게 잘났고 나이도 많기 때문이지만.

분홍이는 이미 얼굴을 보였기에 얼굴 숨기기는 포기한 모양 이였지만 나머지 두 놈을 포함해서 필사적으로 정체를 숨기려는 모습을 보니 슬 궁금증이 생겼다.

너무 열심히 모래성을 쌓고 있으면 가서 발로 차버리고 싶어지는 게 사람 심리이다. 아니, 사실 나의 심리이다.

나의 제멋대로인 매력이 발휘되어 아까 전까지는 엮이기도 싫었지만 이왕 이렇게 동행하게 된 거, 셋의 얼굴정도는 구경하고 싶었다.

어차피 얼굴만 본 다해서 이 세 놈들이 누구인지 알리가 만무하다. 기본적으로 난 내 얼굴 외에는 관심 없다. 그러므로 얼굴만 보고 그 놈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는 재주 또한 없다.

나는 발걸음을 빨리 해 분홍이 옆에 가까이 붙었다.

나머지 두 놈 다 약간 긴장하는 낌새가 느껴졌다. 오호라, 전투에서도 분홍이를 감싸고 도는 모습이 아기 새를 지키는 부모 새 같더니만 이놈이 얘네 가 지켜야 할 놈인 가보다.

"그 전에 통성명이나 하지. 서로 이름을 알아야 부르기 편할 거 아냐."

"아아, 네.."

분홍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름을 얘기하려는데 불퉁한 목소리가 불쑥 끼어들었다.

"통성명 전에 그 쪽은 로브를 벗어서 얼굴을 보여주는 게 어때? 아까 전부터 괴인인지 인간인지 정체를 밝히라고 얘기했는데 줄곧 얼굴을 가리고 있군. 괴인이라서 가리고 있는 건 아니겠지?"

괴인은 인간과 짐승을 섞은 듯 한 얼굴이기에 얼굴을 보면 인간과 확연히 구분된다. 투덜이는 그걸 염두에 두고 말한 것 같지만 그 말을 뒤집어보자면 자기네들도 인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로브를 벗어야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괴인은 마법물품을 쓸 수 없다고 방금 전 저들끼리 말했는데, 정말 저 놈은 지능이 많이 떨어지는 걸까? 칼솜씨도 변변찮던데 머리까지 나쁘면 저런 놈은 어찌 사는 걸까. 저 놈처럼 모자랐던 과거는 너무 까마득해서 기억나질 않는다.

나야 햇빛을 가리기 위해 쓴 로브였으니 벗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다.

필사적으로 가리려는 그들과 반대로 손쉽게 벗어버리자 셋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이 느껴졌다.

셋 중 분홍이가 얼굴이 드러나 있으니 그의 표정만 뚜렷이 보였다. 처음에는 가벼운 놀람, 곧 헤 하는 멍청한 표정으로 쳐다보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풀어진 표정을 짓다 못해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다.

내가 예쁜 건 알고 있지만 온 몸을 바쳐 땅에 절까지 하다니, 그 앞에다 대고 웃으면 심장이 터져 죽을 거 같으니 웃음을 자제하기로 했다.

투덜이도 어... 하는 소리를 내고 있는데 저 멍청한 목소리를 듣건데 본인이 그런 소리를 내고 있는지도 모르는 듯 했다. 셋 중 그나마 정상적인 건 앞장 서가는 청량한 애였다. 걸음을 멈추고 나를 쳐다보고 있긴 했지만 그건 넘어진 분홍이를 기다려주느라 그런 것 같았다.

분홍이는 버벅대며 일어나더니 나와 눈이 한 번 더 마주치자 얼굴이 확 붉어지며 부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렸다.

지금 나에게 첫 눈에 반하는 상황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한참 예민할 나이라 그런지 반하는 것도 쉬운 모양이었다. 진심을 다해 쉽게 화내고 쉽게 울고 쉽게 반하는 애들을 보면 신기하다. 이 나이쯤 되니 가끔 나는 어리숙한 감정들이 부럽다. 이젠 감정을 느끼면서도 이 감정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 어쩌면 사람의 가죽을 계속 뒤집어쓰기 위해 감정을 느끼는 척 하는지도 모른다.

이대로 계속 두면 세 놈이 넋 놓고 내 얼굴 구경만 할 것 같기에 입을 열었다.

"그 쪽도 벗어야지."

내 말에 화들짝 놀라 반사적으로 왜? 뭐! 하고 소리 지른 건 투덜이놈이었다.

과민반응 하는 게 더 수상해보인다는걸 모르나.. 저런 놈과 같이 다니면서 정체를 숨겨야 하는 나머지 놈들이 측은해졌다.

"네 논리대로라면 인간임을 증명하기 위해 너희도 로브를 벗어야지. 괴인인지 알게 뭐야."

투덜이는 내 말에 언성을 높이려다가 큰 소리는 몬스터를 부를 수 있다는 자각은 있는지 조금 누그러트려 대답했다.

"우리가 괴인이면 인간과 같이 다니겠어? 이미 우리 중 한명은 인간인 게 증명됐잖아."

"응, 그래. 알게 뭐야."

내가 퉁명스럽게 틱 하고 내뱉자 투덜이는 다시 화가 오르는지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놈이 그러든 말든 얼굴을 보기로 마음먹은 이상 난 꼭 봐야겠다. 얼굴이 딱히 궁금한 것은 아니었지만 나만 얼굴을 보여주는 건 손해 보는 기분이 들었다.

죽여서라도 벗겨야지 하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약간의 무력을 동원할 생각까진 있었다.

그러나 순순히 내 요청에 응한 건 의외로 청명한 놈이었다.

그는 별 것 아니라는 태도로 스윽 하고 로브를 젖혔다.

얼굴이 금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온갖 생색은 다 내던 투덜이놈이 무안해질 정도로 빠른 행동이었다.

로브 아래 드러난 얼굴은 그가 내뿜던 기운과 많이 닮아있었다. 부드럽고 선한, 신관의 정석같이 생긴 얼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심약한 자들을 등쳐먹는 사기꾼들 말고, 흔히들 생각하는 '그' 신관 말이다.

따뜻한 기운이 맴도는 하얀 머리는 귀를 살짝 덮는 길이로 앞머리를 늘어트리면 눈을 약간 가리는 정도였다. 내려오는 앞머리를 자연스럽게 이마를 드러내도록 넘겼고 살짝 우려낸 차처럼 맑은 라임색 눈동자가 아주 예뻤다. 눈꼬리가 약간 쳐져 순해보였다. 남성적이기 보단 물기가 감도는 얇은 선의 인상이었다.

그 외형은 친근감이 저절로 솟아나게 했다. 예전부터 그를 알았던 느낌이 들었다. 몰랐다면 앞으로 알아 가면 되고.

이 놀라운 적극성이 어디서 나온 건지는 아까의 일로 알고 있다.

당연히 그의 얼굴이다. 나는 얼굴에 약한 사람이다.

나는 새롭게 알게 된 나의 모습을 깔끔하게 인정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더욱 얼굴에 약한 사람이 되겠다는 뜻이다.

"그래, 확실한 인간이네."

너도 나중에 같이 닭다리 먹자꾸나.

나는 이제 유일하게 칙칙한 로브를 덮어쓰고 있는 투덜이를 향해 고개를 까딱거리며 너도 벗으라는 의미를 전달했다.

놈은 잠깐 망설이다가, 어쩔 수 없다는 태도로 로브를 벗었다.

미리 말해두자면 나는 매일 내 얼굴을 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극도의 아름다움을 매일 마주하기 때문에 눈이 높아졌다는 뜻이다.

웬만큼 예쁘거나 잘생기지 않으면 내 눈에 차지도 않았다.

투덜이놈이 성격만큼 얼굴도 글러먹었다면 실수인척 몬스터 밥으로 줬을 텐데,

아쉽게도 놈은 내 눈에 차고 넘칠 정도로 잘생겼다.

정말로 잘, 생겼다. 놈이 조각이라면 조각가가 놈을 만들기 위해 부순 실패작들이 수천 개일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완성해내고도 지문이 닳도록 매만져 결점 하나 없게 다듬었겠지. 오랜 여행을 했음에도 까칠한 구석 없이 매끈한 피부가 정말 놈을 조각처럼 보이게 했다.

그러니까 인상 쓰는 조각. 맑은 날의 하늘과 같은 색을 가진 눈동자가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 쪽도 인간 맞군."

저렇게 더러운 성질에 맑은 하늘색눈동자라니. 조각가는 조각의 눈을 완성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보석을 넣었겠지만 조각이 성질 더러울줄 알았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다.

그래도 어린 늑대의 부드러운 솜털 같아 보이는 갈색빛 섞인 회색머리색은 놈과 제법 어울렸다.

놈은 그 말이 나오길 기다렸다는 듯 황급히 로브를 뒤집어썼다.

쟤가 그나마 잘 하는 건 얼굴인데 그 하나의 장점마저 숨기다니, 정말 쓸모가 없는 존재다.

나와 녀석들은 잠깐 멈추었던 걸음을 재촉했다.

그리고 아까 하다 말았던 통성명도 다시 시작했다.

몽실몽실 분홍 이는 데블랑 신관같이 생긴 애는 그웬 조각 놈은 옐츠란이었다. 하나같이 외우기 힘든 이름이군.

셋 다 이름을 밝히고 내 이름을 기다리는 눈치 길래 나는 빠르게 머리를 굴렸다.

이 세계로 넘어오기 전 이름은 까맣게 잊은 지 오래고 처음 썼던 이름조차도 가물가물하다.

이름이 필요할 때마다 대충 지어서 썼는데 이번엔 뭐로 하면 좋을까..

"레티시아"

툭 하고 그 이름이 나왔다. 누구의 이름 이였을까, 내가 썼던 이름이었을까?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지는 이름이었다.

데블랑은 조용히 레티시아..하고 중얼거리더니 말했다.

"예쁜 이름이네요. 어울려요."

그래놓고 얼굴이 벌게져서 고개를 돌렸다. 나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저도 모르게 한 칭찬 같았다.

이름이 어울린다니, 좀 생뚱맞은 칭찬이었지만 어떻게든 말 붙여보려 말도 안 되는 별 칭찬을 많이 들어봐서 나는 그냥 응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얼굴 빼고 다 배배 꼬인 게 분명한 옐츠란은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틱 하고 말을 내뱉었다.

"뭐야, 귀족이 아니잖아."

내 교양 넘치는 말투와 귀감이 될 만한 태도를 보고 귀족이라 추측을 한 모양이었다.

신분 높은 족속들은 대부분 아무런 노력 없이 태어나니 귀족이었으면서 그게 뭐라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닌다. 숨겨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가문이름과 작위까지 붙여 이름을 말하기 때문에 어느 지방에서 온 아무개 똥똥이 뭐시기 무슨 3세 백작처럼 쓸데없이 이름이 길었다.

데블랑과 그웬, 옐츠란 그리고 나까지 이름만 말했으니 전부 귀족은 아니란 뜻이었다.

하지만 내 오랜 경험으로 보건데 세 놈 다 비싼 밥 처먹은 태가 폴폴 났다. 지금은 숨기고 있을 뿐이지 저 놈들도 이름 전체는 더럽게 길 것이다.

"재수 없게 굴기에 귀족인줄 알았더니."

내 숨길 수 없는 고귀함이 그런 식으로도 보일 수 있다는 걸 인정한다.

가장 최근의 삶까지 명령만 하던 삶을 살아서 그렇다.

어디에 가서 무얼 하든 내 위론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없도록 만들었다는 게 더 옳은 말이다. 감히 누가 나를 고개 숙이게 한단 말인가? 이 능력을 가지고 굽실대면서 사는 건 내 사고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 힘은 감추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 안 드는 놈 쥐어패라고 있는 거지.

작위니 뭐니 인간들끼리 서열을 정해 줄 세운 것들은 나에게 하등 의미 없지만, 무시하고 혼자서 해결하려한다면 귀찮은 일들이 잔뜩 생긴다.

보통 사람들은 한 눈에 상대를 파악하는 나와 같은 혜안이 없기 때문에 딱 보기에도 뛰어난 내가 굳이 뛰어남을 증명해야한다.

무조건 다 죽인다고 강한 게 아니라서 굉장히 번거롭지만 적당히 죽이고 적당히 살리고 적당히 부탁을 들어줘야한다. 나는 생의 꽤 많은 시간들을 그런 귀찮은 일에 허비했고 그게 재밌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어차피 사람들 속에서 지낼 거라면 신분은 귀족인 게 낫다. 쓸데없는 노력을 허비하기보다 쉽고 간편한 길을 택했다.

"귀족이 아니라고 안 했어."

그렇다고 귀족이라고 하지도 않을 거지만.

적당히 저들끼리 오해하고 내게 편하게 상황이 흘러가도록 둘 생각이다.

예상대로 내 말에 옐츠란은 멈칫하더니 물었다.

"...귀족 맞아?"

대충 어깨를 으쓱하며 넘기자 잠자코 있던 그웬이 뭐라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거리다 말았다.

뇌가 청순한 옐츠란과 달리 그웬은 정상적인 뇌를 가진 모양이었다. 데블랑도 내 말에서 이상한 점을 찾은 듯 미묘한 표정이었다.

나는 그들의 기색을 눈치 챘음에도 굳이 내색하지 않았다. 제일 시끄러운 놈만 처리하면 된다.

놈들도 별다른 지적 없이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이쪽의 신분을 파헤치는 만큼 저쪽도 정보를 드러내야하기에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게 놈들에겐 잘된 일이었다. 무언갈 숨겨야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저쪽이니까.

옐츠란도 내 말을 믿는 기색은 아니지만 음,흠...같은 소리를 내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보였다.

아무리 나를 살펴봤자 이마에 귀족이 아님 이라고 적혀있는 것은 아니어서 놈은 더 이상 생각하길 포기한 모양이었다.혹은 나머지 놈들이 왜 얌전히 있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겠지. 참 알기 쉬운 놈이로군.

말이 끊기니 자연스럽게 다들 걷기 시작했고 데블랑은 대화를 이어나가려는 듯 아까 했던 질문을 다시 나에게 물었다.

"음, 아까 어떻게 목적지도 없는 여행을 하게 됐다 하셨죠?"

아무런 악의 없이 나를 바라보는 앳된 얼굴을 마주보았다.

새삼스럽지만 정말로 어리다. 어리숙하고 경험 없는 여행자의 질문이었다. 얼굴을 가리고 다닐 만큼 사연 있는 자들이면서 남의 사연은 가볍게 들으려고 하다니.

일반인이라면 다닐 리 없는 포텟쿠 숲에 혼자, 그것도 목적지가 없는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의심스러운 데 데블랑은 정확히 태풍의 눈으로 걸어들어가려한다.

내 외형 때문에 그리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모양인데, 그 점이 어리다는 말이다.

살다보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너무 많다. 내가 어떤 무시무시한 사연이 있을 줄 알고 쉽게 사연을 묻는다는 말인가, 비밀엔 큰 대가가 따르는 법이다.

하지만 데블랑의 반짝거리는 눈을 보고 있자면 나도 외형에 홀라당 넘어가 대가 없이 모든 걸 알려주고 싶어진다.

"데블랑, 숲에서 만난 사람에게 사연을 묻는 일은 조심해야 하는 거야."

데블랑이 앗 하더니 순식간에 얼굴이 어두워졌다.

말 못 할 자기네들의 사연이 떠오른 모양이었다.

"하지만 난 별다른 사연이 있는 게 아니니 그냥 말해줄게."

나는 잠에서 깨어났을 때 느낀 놀라운 감정을, 오랜만에 내가 피가 도는 사람임을 알 수 있게 해준 생각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했다.

시작을 아주 부드럽고 시적으로, 나의 인생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좋을 텐데...

"연애하려고."

그래, 그럼 그렇지

이 빌어먹을 말솜씨. 고르고 골라도 마땅히 좋은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나는 고작해야 연애하려고. 하며 툭하고 서론 본론 다 자르고 결론만 얘기하는 아주 획기적인 언어체계를 갖췄다.

내가 할 말을 고르면서 뜸들이자 셋 다 아닌척해도 기다리던 눈치였는데 말을 뱉자마자 동시에 나를 쳐다봤다.

내가 한 말이 이해가 안 가는 표정들이다. 난 그 이해 안 가는 표정이 더 이해 안 간다. 내 말 어디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표정을 짓는 거지? 부연설명은 없었어도 그게 핵심인데.

제일 먼저 입을 연 건 옐츠란이었다.

"뭐? 어떤 미친 사람이 연애하려고 포켓타 숲으로 들어와?"

그게 나란 사람이다. 저 놈은 입 함부로 놀리다가 어느 날 비명횡사 할 것이다.

"들어온 게 아니라 나가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왜 포켓타 숲으로 지나 가냐고. 연애하려면 멀리 갈 것 없이 마을에서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 마을을 가기 위해 포켓타 숲에서 나가려는 건데..

나는 굳이 그 말을 하진 않았다. 이 주변에 집이 있니 집이 던전이니 어쩌니 저쩌니 설명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이다.

"내 마음인데?"

내가 그렇게 말하자 옐츠란은 허 참, 나 참, 하고 몇 번 씩씩대다가 그래, 그래.. 하고 내 말을 인정했다.

설령 내가 마을에서 곱게 자랐고 연애를 하기 위해 다른 도시를 가면 어떤가? 또 포켓타 숲을 돌아가는 게 아닌 가로 질러가면 뭐가 어떤가. 죽어도 내가 죽는데.

살면서 많이 만나는 인간유형중 하나는 자기 일도 아닌데 자기 일처럼 성내고 열 내는 인간이다. 옐츠란도 그런 인간인 모양이다. 좋게 보면 정이 많은 거지만 내가 보기엔 쓸데없는 열량소비이다.

문득 시선이 느껴져서 그쪽을 쳐다보니 안 보고 있었다는 듯 그웬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기 전 표정을 나는 보았다.

가벼운 경멸을 띤 한심하다는 얼굴.

데블랑도 어느새 자기보다 좀 더 어린 소녀를 보는듯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용사를 기다린다는 어린아이의 말을 들었을 때처럼, 따스함이 섞이긴 했지만 나를 얕잡아 보는 게 분명했다.

그들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지는 짐작 간다.

마법 아티팩트를 두르고 다닐 만큼 부유한 집의 자제, 그 쯤 되는 집의 딸이면 아마 정해진 혼처가 있겠지.

그걸 거부하고 연애를 하겠다고 뛰쳐나온 철없는 소녀. 우물 안 개구리처럼 살아서 겁도 없이 포텟쿠 숲으로 들어와 나가지고 못하고 뱅뱅 헤매는 사람.

처음 본 남자들에게 반말하며 겁도 없이 동행을 요구하고, 가출했기에 신분도 밝히지 못하지만 여전히 집에서 하던 버릇대로 구는 재수 없는 애.

하지만 놈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상관없다.

뭐라고 생각하든 내 본질이 뛰어나고 위대한 존재라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난 대체로 나에 대한 불경한 오해들을 그대로 두는 편이다. 그것들을 하나씩 해명하기엔 내가 살아온 인생이 너무 길었다. 그 짓을 반복 하고 반복 하고 반복하다 보니 책의 똑같은 구절만 계속 읽는 기분이었다. 안 그래도 끝나지 않는 긴 삶에 지루함까지 뿌릴 필요 없지. 게다가 살다보니 느낀 건데 풀릴 오해라면 언젠가 풀리기 마련이다. 풀리지 않는 오해라면, 아무렴 어떤가. 그게 나한테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

어차피 헤어질 사이이니 쓸데없이 경계하기보단 약한 존재로 인식하는 게 편했다.

약한 척 하며 그 속에 숨어있으면 인간 방패막이 하나,둘, 그리고 반.물론 반절짜리는 개미만큼의 위력을 가진 옐츠란이다. 총 두개 반이 생긴다. 이 방패 막은 나를 위험에서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귀찮음에서 보호해주는 방패막이다.

나서서 힘을 과시하면 내 위대한 발걸음에 차질이 생긴다. 연애하기 전에 쓸데없이 나라를 세울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런 별 볼 일 없는 일에 제발 엮이지 않길 바란다.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데블랑이 넉살좋게 말을 건넸다.

"자유연애 말하는 거죠? 피옌타에서 유행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

연애면 연애지 자유연애라니.. 누가 그런 이름을 붙이는 걸까. 이해할 수 없는 사고방식이다.

하지만 적당히 대꾸하기 위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목적지가 없진 않네요? 피옌타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방금 네가 목적지를 만들어 준 것 같은데?

하지만 그렇게 대답할 순 없으니 질문에 질문으로 답했다.

"난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피옌타에서 자유연애가 유행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자유연애가 유행한다니깐 광장에 다 같이 모여 오늘은 너 내일은 너 하고 사귈 순서를 정하는 모습이 떠오르는걸. 사실이라면 피옌타는 오늘부터 내 마음의 고향이다. 가서 아주 잘 적응해 현지인 못지않게 방탕하게 살 수 있다는 예감이 든다.

"말 그대로에요. 피옌타 사교계에서 자유연애가 유행한대요."

"자유연애가 뭔데?"

"아까 자유연애 할 거라고 고개 끄덕이셨잖아요."

"그냥 대충 대답한 건데, 이제 흥미가 생겼어. 설명해봐."

내 대답에 데블랑이 아.. 하고 작게 소리를 내었다. 짧은 어색한 침묵이 지나고 질문에 대답 해줘야한다는 강박관념이라도 있는 건지 데블랑은 다시 입을 열었다.

"피옌타에서 유행하는 사교만남인데,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자유로운 만남이에요. 소문만 들어 자세히는 모르지만, 미혼 남녀의 교제를 자유롭게 방임하는 분위기라고 하더군요."

사교계 어쩌고 하는 거보니 아주 대놓고 나 귀족일세. 소개하는군. 그웬이 슬쩍 이쪽을 뒤돌아봤다가 고개를 돌렸다. 데블랑에게 입단속을 시키려다가 나와 눈이 마주쳐 다시 고개를 돌렸나보다.

정체를 숨기고 싶은 건지 자랑하고 싶은 건지 영 어설픈 조합이다.

그나저나 '자유연애'를 '방임'한다니 어느 정도로 자유롭길래 그렇게 말하는 걸까?

귀족들이란 온갖 것에 낭만이라는 이름 붙이길 좋아하는 족속들이다. 결혼 후에 정부를 두어도 낭만이니 진정한 사랑이니 자기들끼리 조잘대는걸 보면 말 다했다.

역설적이게도 미혼남녀의 만남은 있어서는 안 될 파렴치한 일로 취급하더니, 세상이 많이 바뀌기는 한 모양이다.

자유연애 어쩌고 하는 가벼운 교재가 유행이라 불릴 정도라면.

미혼의 남녀가 같이 산책만 해도 결혼을 해야 하네 말아야하네 이야기가 오갔고 아무 일 없어도 방에 같이 있었다면 주변에 알리지도 못하고 번갯불에 감자 구워먹듯 식을 치렀다.

그랬던 게 엊그제,.. 아니 백여 년 전이였는데..

"피옌타가 어디쯤 있는 거지? 여기서 꽤 멀어?"

얘기를 듣다보니 흥미가 생겼다. 오랜만에 들떠 나온 여행이니 목적지 없이 느긋하게 떠돌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했는데, 궁금증을 해소하러 피옌타로 가도 나쁠 건 없다. 사교계에서 유행하는 만큼 데블랑 네를 속일 때처럼 어물쩍 신분을 속이는 일은 불가능 하겠지만, 일단 가다보면 다 방법이 생길 거다.

"피옌타가 룬다 근처인데.. 룬다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직도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세계라 자고 일어나면 국가가 사라져있고 지역명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피옌타같은 이름만 들어도 코딱지만 할 거 같은 지명은 당연히 모른다. 하지만 룬다가 내가 아는 그 곳이 맞다면 어디쯤 있는지 대강 짐작 간다.

"항구도시 룬다 말이지?"

맞아요. 하면서 데블랑이 고개를 끄덕이는데 잠시간 입 닫고 있던 옐츠란이 불쑥 대화에 끼어들었다.

"피옌타에 가봤는데 말이 방임이지, 자유연애를 했다간 호사가들 재밌으라고 던져주는 이야깃거리 되기 딱이야."

데블랑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래? 하고 되물었다. 옐츠란은 안 듣는 척, 관심 없는 척 하고 있더니 우리 대화를 다 듣고 있던 모양이다.

" 관심받길 자처하는 어린애들이나 자유연애를 해. 연애한다는 소문이 돌면 사교계의 관심이 집중되니 성공적인 데뷔탕트를 위해선 연애부터 시작하라고 농담할 정도야."

인상만 팍팍 쓰고 나오는 말마다 예의범절이라곤 똥구멍으로 배운 듯 한 옐츠란이라 사교계에서도 물 위에 뜬 기름처럼 영 섞이지 못하고 둥둥 떠다닐 줄 알았는데 아닌 모양이었다. 타 지역 사교계에 가서 떠도는 소문까지 듣게 된다는 건 꽤나 잘 어울려 떠들었다는 말이 된다. 하긴, 오지랖 넓은 성격을 보아하니 거기서도 여기저기 참견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 연애도 진짜 좋아서 만나는 건지.. 단순히 주목 받으려고 연극식 연애를 하는 건지.. 그냥 유행이니까 너도 나도 해보는 분위기야. 우리 오늘부터 자유연애해요. 하면 그날부로 연인이 되는 거지. 퍽이나 서로 사랑하겠다."

장황하고 쓸데없이 친절한 설명이었다. 부정적 견해까지 곁들여진.

자유연애 비판서를 쓴다면 첫 장에 들어가도 될 훌륭한 요약이다.

꼭 나보고 흥미를 가지지도 말라고 으름장을 놓는 것 같아 우스워졌다. 내가 제 여동생이나 자식도 아니고, 연애하고 싶어서 여행한다는 말이 앞서 가졌던 인상을 무너트리고 새로 만들만큼 철없는 소리로 들렸나보다.

"피옌타 갈 생각이면 접는 게 좋아. 피옌타식 자유연애란 보여주기 위한 연극이라고. 가서 괜히..."

옐츠란은 거기까지 말하다가 입을 닫았다. 말을 하다 말았음에도 그 뒤에 할 말이 예상 갔다. 스스로도 선을 넘은 말이라 생각해 진작 닫았어야 할 입을 이제야 닫은 것 같았다.

입 나불거릴 시간에 제 앞날이나 걱정하지. 실력은 쥐똥만하면서 오지랖만 넓으니 조만간 흙 덮고 누워있을 성격이다

그대로 쭉 조용히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말을 하다 말아 끝마쳐야 된다 생각했는지 기어코 옐츠란은 말을 덧붙였다.

"거기다가 피옌타 사교계는 굉장히 폐쇄적이야. 피옌타 출신이 아니면 근처로 오지도 않더군. 여기서 수근 저기서 수근.. 음흉한 놈들."

어찌됐건 피옌타에서 유행한다는 자유연애에 대한 궁금증은 옐츠란의 설명으로 해결 될 만한 수준이어서 피옌타로 가려던 마음은 바로 정리됐다.

그렇지만 내 보호자라도 되는 양 구는 옐츠란이 꼴 보기 싫었기 때문에 난 데블랑 곁으로 가서 속삭이는 흉내를 내며 옐츠란에게 다 들리게 큰 목소리로 물었다.

"쟤는 원래 저렇게 말이 많아?"

데블랑이 난처한 미소를 지었고 당연히 내 말을 들은 옐츠란은 거친 손놀림으로 로브를 젖혔다. 약이 올라 인상을 찌푸린 채 나를 쏘아보고 있는 잘생긴 얼굴이 드러났다.

"네가 궁금해 하는 거 같아서 일부러 설명해준거잖아."

"내가 너한테 설명해달라고 했어?"

나의 완벽한 논리에 놈은 잠깐 말문이 막힌 듯 보였다. 걷다가 발을 잘못 디뎌 넘어질 뻔 한 옐츠란은 괜히 낙엽만 힘주어 세게 밟으며 화풀이했다. 얼굴만 잘생기면 뭐하나 성격이 개차반인데. 신은 없는 게 분명했다. 내가 신이였으면 열심히 만들어놓고 저렇게 살도록 두지 않는다. 나처럼 완벽하게 살도록 이끌었지.

"사람이 친절을 베풀면 그냥 고맙게 받으면 안 되냐?"

내가 고맙게 받을 수 있는 건 오직 옐츠란의 얼굴뿐이다. 나는 예나 지금이나 주제넘게 나서는 것들을 싫어했다.

나와 타인 사이엔 분명한 선이 존재했다. 그 선을 따라 벽을 쌓으며 살아온 지 몇 백 년, 주변 것들에 정을 붙이자 마음먹었다 해도 하루아침에 벽을 허물기란 쉽지 않았다. 나 이외의 존재는 연극무대 위에 세워진 나무판자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내가 허락할 때만 움직여야했다. 먼저 정을 붙이려고 다가오는 사람은 거북하다.

"옐츠란."

앞서가던 그웬이 이쪽을 돌아보며 놈을 불렀다.

"옐츠란."

앞서가던 그웬이 이쪽을 돌아보며 놈을 불렀다.

"그건 친절이 아니야. 예의 없는 행동이지. 네가 과했어."

아까부터 느끼는 건데 그웬과는 말이 좀 통하는 느낌이다. 요즘 애들답게 영 버릇없는 옐츠란과 달리 그웬은 좋은 향기도 나고 말도 예쁘게 하고 귀엽지 않은 구석이 없다. 주머니에 쏙 넣어 다니고 싶을 정도다.

"내가 뭐?"

그웬은 아무 말 않고 그저 옐츠란에게 고개를 저었다. 그게 둘만의 신호인진 몰라도 옐츠란의 표정이 괴상해졌다.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간신히 참는 표정으로, 네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 안 간다라는 의미를 표정에서 읽을 수 있을 정도였다.

옐츠란은 입을 꿈질꿈질 대다가 한숨을 내쉬고 보폭을 크게 해서 그웬을 앞질러 맨 앞으로 갔다. 그웬은 앞질러가는 옐츠란을 한번 쓱 보더니 아무런 제지 없이 묵묵히 발 밑만 보며 걸었다.

제일 약한 놈이 선두에 서다니, 걸어 다니는 에피타이저군. 핑거 푸드처럼 몬스터가 홀라당 집어 갔으면 좋겠다.

데블랑은 내 표정을 살피며 미안한 어조로 얘기했다.

"레티시아씨,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죄송해요. 옐츠란이 나쁜 의도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사람을 많이 못 만나봐서 그래요."

살포시 미소 짓는 눈동자가 반짝거렸다. 오동통한 장밋빛 뺨이 깨물어 주고 싶게 귀엽다. 아직 젖살 빠지지 않은 소년의 미소란 저절로 따라 웃게 되는 귀염성이 있다. 훨씬 어른인 내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기로 했다.

"그래. 딱 봐도 사회성이 부족해 보여."

내 말을 들은 옐츠란이 불퉁한 어조로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서 다 들려~"

배고픈 몬스터들이여 여기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핑거푸드로 배부르게 하리라.

"같이 다니는데 고생이 많겠군."

데블랑이 어쩔 수 없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네.. 그런 편이죠."

"여기서 다 들린다고~"

데블랑과 나는 옐츠란의 떽떽거림을 숲에서 들리는 벌레소리처럼 무시하며 걸었다.

그웬이 발걸음을 빨리하더니 옐츠란 옆에 서서 뭐라 속닥거렸다.

앞으로 얼 만큼 남았어? 방향은 이쪽이 맞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가까워져가고 있어.

정확히 알아야 할 거야. 숲을 빠져나가면 마을을 거쳐야하니까.

내 예민한 귀가 둘이 하는 대화를 잡아냈다.

그웬이 옐츠란에게 얼 만큼 남았냐고 묻는 걸보면 의외로 옐츠란이 길잡이를 하고 있나보다. 숲길이 영 익숙지 않은 듯 이끼를 밟고 미끄러질 뻔 해 그웬이 잡아주는 모습을 보니 이대로 계속 따라가도 괜찮을까 의문이 들었다.

길 상태나 식물들을 보아하니 숲 외곽으로 잘 가고 있기는 한데, 그웬을 두고 옐츠란이 길잡이라고? 잘 닦여진 돌길에서도 제 발에 걸려 넘어질 것 같은 놈인데, 당연히 노련함을 보고 길잡이가 된 건 아닐 테다.

옐츠란이 길잡이를 할 수 밖에 없는 자기들만의 사정이 있나본데 마을을 거쳐야 한다는 걸 부정적인 어조로 말하는걸 보니 정체를 숨겨야 해서 마을을 거쳐 가기 영 껄끄러운 모양이었다. 정말 황제라도 암살한 걸까?

나는 앞서가는 옐츠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절뚝대며 걷는 게 발에 물집이라도 잡힌 듯 했다. 저렇게 모자란 것까지 끼워서 성공할 만큼 황제 암살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냥 가출한 도련님 모임인가?

데블랑을 쳐다보니 눈이 마주친 그가 어색한지 시선을 피하면서 미소를 지었다. 꽤나 설득력 있다. 그게 맞다면 가출한 이유야 거기서 거기일 테니 별로 궁금하지 않다.

그웬은 옐츠란을 툭 치며 슬슬 준비해 하더니 우리 쪽을 보고 외쳤다.

"데블랑, 슬슬 준비해야 해! 곧 해가 질 거야!"

데블랑은 팔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이더니 바닥을 살펴 걸으며 나뭇가지를 줍기 시작했다. 앞에 가는 그웬과 옐츠란도 굵직한 나뭇가지 위주로 줍고 있었다. 보아하니 불을 피우려는 모양인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무리가 설마 그 정도로 멍청하진 않겠지 싶어서 물었다.

"뭐하는 거야?"

"네? 불을 피우려구요."

그래, 그 정도의 멍청이들이군.

난 왜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씨를 가져서 항상 주변 사람들을 과대평가할까? 널려 있는 게 멍청이들인데.

짐승들이 나오는 숲에서야 불을 피우면 그 불을 보고 가까이 오지 않지만 몬스터들이 대거 나오는 숲에서 불을 피운다는 건 여기서 바비큐 파티 하니까 어서 오세요 하는 꼴이었다.

특히 곤충형 몬스터들은 불을 보면 환장하고 모여 드는데 그것들은 몰려다니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여간 귀찮은 게 아니다. 보통은 불필요한 전투를 피하기 위해 밤에 불을 피우지 않고 은신처를 만들어 마법물품인 체온유지담요를 덮고 모여 잔다.

숲을 다녀 보지 않은 뜨내기라도 몬스터 숲에 간다하면 제 목숨이 아깝기 때문에 모험 자들의 정보를 사서 단단히 준비했다.

이놈들은 그런 기본적인 정보조차 없이 무작정 숲에 들어온 것이 분명했다.

난 혹시나 싶어서 한 번 더 물어봤다.

"불을 왜 피워? 체온유지담요는?"

"네?"

데블랑은 그런 단어는 전혀 처음 듣는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마에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적힌 것 같았다.

"그럼 이때까지 계속 밤에 불을 피운 거야?"

"네.. 그게 무슨 문제라도..?"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딱 그 꼴이군.

무사히 숲을 거의 다 지났으니 그 정도 실력은 되는 건지 운이 좋은 건지.

생각 없이 따라 걷는 짓은 그만둬야겠다. 그냥 주변을 잘 살피다가 다시 깊은 숲으로 들어간다 싶으면 슬 빠지기로 마음먹었다.

"불 피우면 몬스터가 모여들잖아. 머리 좋은 놈들은 멀리서도 연기를 보고 찾아온다고."

"네..? 아..!"

내 말을 듣고 떠오르는 게 있는 모양이었다. 데블랑은 충격 받은 얼굴로 후두둑 나뭇가지를 떨어트렸다.

"어쩐지.. 밤만 되면 지나치게 몬스터가 많이 나타난다 싶었는데.. "

그럼 셋 중 누구라도 상황을 보고 유추 할법한데 셋 다 몬스터가 많다더니 정말로 많구나 하고 견뎠던 모양이다.

꽤 실력자인 그웬이 먼 거리에서 내 말을 들었는지 굳은 표정으로 옐츠란에게 말을 전해주었다.

옐츠란도 충격 받은 표정으로 들고 있던 나뭇가지를 후두둑 떨어트렸다.

데블랑은 힘 빠진 손길로 떨어트린 나뭇가지를 다시 주웠다. 그래도 불은 피우려는 모양이었다.

"아무도 그런 말 안 해주던데..."

"누가 그런 말을 공짜로 해줘. 물건을 사면서 물어보던가 길드 가서 정보를 사던가, 하다못해 모험가들한테 술 한 잔 사주면서 물어봤어야지."

"그런 말도 아무도 안 해주던걸요."

하긴, 밥도 남이 다 차려준 것만 먹던 귀족 도련님들이 뭐를 알겠냐만은.

악명 높은 내 집 앞 숲에서 만난 여행자들은 하나같이 노련해서 이런 천둥벌거숭이 같은 여행자를 오랜만에 보니 몬스터들의 잘 차려진 한 끼 식사 같았다. 저기 옐츠란이 에피타이저, 그 옆에 그웬이 메인. 데블랑은 디저트쯤 될까.

"용케 살았네."

데블랑은 내 말에 한숨을 내쉬었다. 그동안 고생한 게 떠오른 모양이었다.

"고생했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빨리 마을에 도착해서 푹 쉬고 싶어요."

고생한 것 치곤 셋의 모습은 단정한 편이었다.

장기간 여행을 하면 얼굴 씻는 것마저 힘들어져 똥을 묻히고 다니는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더럽게 다니는 인간들이 많다. 본래 가지고 있던 위생습관이 어떻든 간에 여행을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씻지 못할 때가 생긴다. 그런 상황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종내에는 꾀죄죄하게 거지인지 여행자인지 보통은 둘 다지만 근처에도 가기 싫은 꼬락서니를 하게 된다.

그 점을 생각했을 때 잠잘 시간마저 없이 구른 놈들이 얼굴이 말끔하고 땀 냄새와 피 냄새 정도만 난다는 건 몸단장 할 여유는 있었다는 의미다.

며칠을 숲에서 보냈는지는 몰라도 숲의 크기를 생각했을 때 못해도 5일은 버텼을 텐데, 생각보다 셋의 평균이 높거나 그웬이 두 명분의 고생을 더 했거나,..당연히 후자겠지만.

얼마 전 비가 왔는지 젖은 낙엽과 잔가지, 떨어진 솔방울, 진흙더미와 이끼가 한데 뒤섞여 걷기 불편한 땅 상태에도 그웬은 흔들림 없이 곧게 나아갔다. 몇 걸음 떼기가 무섭게 넘어질 듯 비틀거리는 옐츠란과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생각해보니 어린나이에 그 정도 기운을 모은 것도, 밥 먹는 짧은 시간에 몬스터를 다 해치우는 것도 흔치않은 일이었다. 이정도 실력자가 섞여있는 무리라면 단순히 집 뛰쳐나온 도련님무리가 아닐 수도 있겠군.

"근데 레티시아씨는 그런 정보를 어디서 얻었어요?"

"책에서 읽었어."

"오, 그런 책도 있어요? 책 제목이 뭐에요?"

"모험가의 생존방법."

당연히 그런 책은 없다.

이 세계의 책이란 문자를 아는 소수를 위한 것이고 대개 그 소수는 고등 교육을 받은 기득 층이다. 발 닦을 향유까지 챙겨 마차 세 개는 끌고 다니는 여행을 하는 귀족들은 생존법을 알 필요 없다. 책이란 고가의 물건이기 때문에 수요가 없다면 애초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또한 책 한권을 집필할 만큼 생존법을 아는 모험가가 문자를 알고 있을 확률도 적다.

거짓말을 하는 건 밥 먹는 일보다 익숙하다. 늙지도 죽지도 않는 몸으로 떠돌아다녔기에 나는 막힘없이 온갖 가짜 과거를 읊을 수 있다. 데블랑은 의심이라곤 한 치 없는 얼굴로 외우려는 듯 책 제목을 몇 번 중얼거렸다.

책 내용에 대한 데블랑의 질문에 누구나 알 법한 이야기를 섞어 대답해주다가 귀찮아서 기억이 잘 안 나 로 대답을 통일 했을 때쯤 그웬과 옐츠란이 멈춰 서서 우릴 기다리고 있었다.

용케도 찾아낸 판판하고 너른 야영할만한 땅이었다.

아까 전부터 걷는 게 아니라 발을 무거운 추처럼 거의 끌고가다시피 했던 데블랑이 크게 반색했다.

"오늘은 여기서 야영준비야?"

"응. 딱 좋은 장소가 나타났네. 더 가다가 마땅한 곳을 못 찾고 해가 져서 발이 묶이는 것보단 조금 이르더라도 여기서 짐을 푸는 게 나을 것 같아."

데블랑과 옐츠란이 젖은 낙엽을 미리 걷어놓았는지 흙바닥이 보였다. 그 바닥의 중앙엔 걸어가면서 놈들이 부지런히 주웠던 나뭇가지가 쌓여 있었다. 데블랑도 품에 안고 있던 나뭇가지를 그 위에 와르르 쏟아냈다. 옐츠란이 마뜩찮은 표정으로 나뭇가지 무더기를 바라보았다.

"불 피워도 되는 거야? 괜히 몬스터만 끌어 모으는 거 아니겠지."

불 피울 생각으로 여태껏 열심히 주워와놓고선 세 놈은 나한테 답이라도 구하듯 쳐다보았다.

어차피 숲 외곽이라 불을 피워도 몰려올 몬스터가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의미로 어깨를 으쓱했다.

내가 확답을 내려 주지 않자 데블랑과 옐츠란은 나를 쳐다보던 눈빛으로 그웬을 바라봤고 그웬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새벽의 추위를 견디려면 불을 피워야 해. 숲을 거의 빠져나왔으니까 괜찮을 거야."

옐츠란이 나뭇가지 더미 쪽으로 손을 뻗자 모닥불만한 불길이 솟아올랐다.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놀랍게도 마법이었다. 시동어 없는 마법은 마나의 언어로 부리는 마법이라 하여 사소한 것이라도 꽤 고위 마법에 속했는데 그걸 놈이 하다니 이상한 일이다.

마나의 언어로 부리는 마법은 단순히 머리가 좋거나 실전 경험이 많다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일반 마법은 술식으로 경로를 계산하니 그 과정을 시동어로 읊어야하지만 마나의 언어란 마나가 가르쳐주는 흐름의 경로로, 일종의 새로운 감각이라서 보유 마나가 일정량을 넘어가게 되면 그냥 '알게' 된다.

일정량의 기준은 높아서 마나의 언어를 알기 위해선 마나의 양이 풍부해야했다.

하지만 옐츠란에게선 특별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다. 일반인보다는 마나의 양이 많지만 마법사라고 하기엔 부끄러울 정도의 양이다. 그런 놈이 어떻게 마나의 언어를 아는 거지? 나는 그럴 리는 없지만 혹시나 내가 놓친 부분이 있나 싶어서 옐츠란에게 다가갔다.

"마법사야?"

"...그래."

옐츠란은 내가 다가가자 두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렇다고 대답하는 놈의 표정은 미묘했다. 숨기고 싶은 비밀을 들킨 것 같기도 했고 단순히 대답하기 싫은 것 같기도 했다.

나는 감각을 개방해 그의 기운을 훑어보았다. 여전히 별 볼 일 없는 마나 양이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특이하게도 얇은 실 같은 기운이 놈에게 묶여 끝은 저 멀리 보이지 않는 곳까지 뻗어 있었다. 이런 기운은 처음 본다.

정신계 마법에 걸리거나 저주에 걸린 상태와 비슷한데 그 경우 흑마법 계열이라 기운이 검은 빛을 띠어 바로 알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옐츠란에게 묶인 기운은 순수한 마나처럼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나를 연구해 새로운 마법을 만들어 내거나 응용하는 건 내 소소한 취미 중 하나였으므로 처음 보는 광경에 호기심이 불쑥 솟았다. 그렇지만 놈들에게 물어본다 해서 순순히 대답해주지 않을 테니 얌전히 감각을 닫았다.

셋은 모닥불 근처에 메고 있던 짐을 내려놓고 가방을 뒤져 이것저것 꺼내놓았다. 그웬은 건식량과 작은 냄비를, 데블랑은 그웬이 꺼낸 가죽 주머니를 받아 조금 멀리까지 걸어가더니 모닥불을 중심으로 둥글게 바닥에 원을 그리듯 어떤 가루를 뿌리기 시작했다.

"뭘 뿌리는 거야?"

"네가 읽었다던 그 책에는 탈취가루에 대해 안 나와 있나보지?"

그웬이 대답해주겠거니 하고 물은 질문인데 옐츠란이 받아서 불퉁한 어조로 대답했다. 잘생긴 얼굴을 보고 마음이 너그러워진 나는 별다른 반응 없이 모닥불 가까이 가서 앉았다. 대답 없이 본인만 빤히 쳐다보고 있자 머쓱해졌는지 옐츠란은 표정을 누그러트리며 말을 이었다.

"저렇게 뿌려놓으면 냄새가 바깥으로 안 빠져나가. 음식냄새나 사람 냄새 같은걸 전부 지워줘."

내가 한창 돌아다닐 땐 그렇게 편리한 물건은 없었는데, 요즘은 모험 다니기 참 편해졌다. 저렇게 편한 물건을 두고도 밤에 불을 피워서 생고생을 하다니, 문명이 발전해도 사람이 멍청하면 어쩔 수가 없나보다.

그런 생각이 표정으로 다 드러났는지 옐츠란이 눈썹을 꿈틀하더니 한마디 하려는 기세였다.

반복되는 쓸데없는 입씨름에 지겨워진 나는 놈이 입을 떼기 전에 그웬 옆으로 가서 앉았다. 그웬은 건식량을 물에 끓여 스튜처럼 먹으려는지 조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몬스터 숲을 지나가는데 국물이 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호사지만 그거야 이런 놈들한테 해당하는 얘기고, 점심에 스테이크를 썰었던 나에겐 그웬이 만드는 것이 소여물이나 꿀꿀이죽처럼 보였다. 나는 금방 관심을 끊고 데블랑 쪽을 쳐다봤다.

데블랑은 탈취가루를 다 뿌린 모양인지 손을 털면서 가까이 오고 있는 중이었다.

탈취가루라고 해서 당연히 냄새를 잡아주는 효능을 가진 식물을 말려 빻은 가루인줄 알았는데 데블랑이 든 가죽주머니에서 미세하게 마나가 느껴졌다.

"탈취가루가 마법물품이야?"

"아, 네."

"줘 봐."

맡겨놓은 물건을 찾는 듯한 내 태도에 데블랑이 멈칫했다가 탈취가루 주머니를 건넸다. 그웬과 옐츠란도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하는 듯한 얼굴로 나를 쳐다봤다. 세상은 넓으니 나처럼 늘 당당한 사람도 있는 거다. 정말 모두의 귀감이 될 만한 지배자의 태도다.

탈취가루라고 부르는 것은 마나석 가루였는데, 마나석이란 마나를 담고 있는 돌로 보통은 마법진에 마나석을 박아 효과를 증폭시키거나 마나 공급자가 없어도 마법이 발휘되도록 마나저장소의 역할로 쓰였다. 마나석 가루 또한 마찬가지 쓰임새이다. 마나석이 광물의 형태를 하고 있어 사용에 제한이 생기니까 그걸 가루로 냈을 뿐이다. 마나석을 가루로 만들면 감당할 수 있는 마법의 위력이 줄어들지만 사용처는 훨씬 다양해진다.

마법스크롤이나 마법 로브같은 돌을 매달 수 없는 마법물품은 전부 마나석 가루를 발라 만들어진다.

마나석가루는 마나가 고체된 덩어리 같은 거라 마법을 시행하는 재료지 마법 그 자체는 아니다.

그런데 이 탈취가루는 일반 마나석가루와 달랐다. 마나석가루 자체에 마법이 걸려있었다. 결계마법과 공기순환 마법을 마나석 자체에 담은 것이다. 이런 식의 활용은 생각조차 안 해봤다. 마나석에 담긴 마나를 특정속성마나로 바꾸다니, 마나에 마법을 건다는 걸 그 누가 생각해봤겠는가.

이 방법을 응용한다면 마법물품의 판도가 바뀔 것이다. 마법물품을 자급자족하는 나는 순전히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 연구심이 생겼다. 방법을 알아내서 더 좋은 마법물품을 개발해 나만 쓰고 싶다.

"이거 어디서 사는 거야? 간다는 마을에도 팔아?"

"저건 파는 거 아냐. 저런걸 파는 곳이 있을 거 같냐."

내가 탈취가루를 받아들자 가까이 온 옐츠란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물 컵을 든 아이를 보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가루 하나라도 흘리면 온갖 구박을 할 기세라 짜증나기 전에 놈에게 가죽주머니를 넘겨줬다.

"그럼 어디서 구한 건데?"

옐츠란은 입을 다물고 모닥불만 바라봤다. 모닥불이 퍽이나 흥미롭다는 표정이었다.

나머지 두 놈을 쳐다보니 그웬은 꿀꿀이죽 만드는 일에 너무 집중해서 아무것도 못 들었다는 듯 등을 돌리고 있었고 데블랑은 갑자기 부산스럽게 땅을 밟기 시작했다. 말하기 힘든 곳에서 구한 모양이지만 상관없다. 연구에 필요한 샘플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가능하다. 나는 이들이 거부할 수 없는 아주 매력적인 제안 하나가 떠올랐다.

"탈취가루 조금만 나눠줘. 대신에 제대로 된 음식을 나눠줄게."

그들은 내가 말하는 제대로 된 음식이 얼마나 '제대로' 된 음식인지 직접 봐서 알거다.

잠잘 자리의 땅을 발로 다지고 있던 데블랑의 얼굴이 눈에 띄게 펴졌다. 그웬도 슬그머니 꿀꿀이죽을 만들던 손놀림을 멈추고 옐츠란을 쳐다봤다. 꼴에 마법사라고 마법물품을 관리하는 건 옐츠란의 담당인 모양이었다. 내 말에 구미가 당기는 건 옐츠란도 마찬가지인지 생각하는 척 잠깐 뜸을 들였지만 탈취가루가 든 주머니를 건네는 손은 대답보다 빨랐다.

"그래, 조금만이야. 구하기 어려운거라고. 우리도 계속 써야하니까."

내가 탈취가루로 차라도 타 마실 거라 생각하는지 옐츠란은 깐깐한 눈으로 쳐다봤다. 티스푼으로 한 스푼정도만 가져가자 정작 당황한건 옐츠란이었다.

"가루를 원 모양으로 뿌려야 효과가 있어. 그 정도 가지곤 네 손가락을 둘러쌀만한 원도 못 그릴걸?"

나는 종이봉투를 꺼내 덜어낸 탈취가루를 잘 넣고 옐츠란에게 주머니를 건네주었다. 옐츠란은 주머니를 받으면서도 영 떨떠름한 표정이었다.

"내가 한 말 때문에 그런 거라면 조금 더 가져가도 돼."

"아니, 필요없어. 이거면 돼."

옐츠란은 내가 주지도 않은 죄책감을 자기 혼자 느끼는지 내가 모닥불 근처에 손수건을 펼쳐 탁자를 꺼내는 동안 근처에서 서성거렸다.

"그정도론 아무데도 못 쓴다니깐?"

도대체 저 놈은 뭐가 문제인걸까? 언제는 아까워서 끙끙대더니 필요없다니까 더 주려고 난리다.

나는 과격한 몸짓언어로 대화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거짓말을 했다.

"쓰려고 달라한 거 아니야. 그냥 수집하는 거야."

"수집한다고?"

"응. 마법물품을 수집하는 게 취미거든."

대충 둘러대기 위한 '수집'이라는 이유가 너무 그럴싸해서 순식간에 머릿속에서 수집에 얽힌 내 가짜 과거사로 책 한권을 집필할 정도였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법물품도 전부 수집했던 거라 둘러대면 모든 게 설명된다. 번거로운 일을 덜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져서 주머니에서 잡히는 대로 음식을 꺼냈다. 대충 하던 일을 정리한 그웬과 데블랑이 와서 내가 마구잡이로 꺼내놓은 음식접시를 원래 놓인 접시를 피해 적당한 곳에 다시 놓았다.

궁금한 것이 많은 얼굴로 나를 보던 옐츠란의 시선은 끊임없이 음식이 나오는 주머니로 옮겨갔다가 나중엔 음식에서 못 박힌 듯 떨어지지 않았다. 더 있다간 침도 흘리겠군. 나머지 두 놈의 표정도 별반 다르진 않았다. 데블랑은 윤기가 흐르는 닭 통구이의 표면을 보고 거의 회개할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거 다 먹어도 되는 거에요?"

"그 전에 먹을 수 있는 거냐고 물어봐야 할 거 같은데.. 어떤 마법으로 이렇게 완벽한 형태가 보존된 음식이 나오는 거지? 겉만 멀쩡하고 상한 건 아니겠지?"

데블랑이 조심스러운 어조로 묻자 옐츠란이 톡 쏘는 어조로 몇 마디 덧붙였다.

갓 만든 음식을 접시 째 보존마법을 걸어 주머니에 연결된 아공간에 보관하는 방식이지만 보존마법이라는게 내가 만들어낸 마법이므로 옐츠란이 의심스러운 눈길로 음식을 쳐다보는 게 당연했다. 덜 떨어지는 마법사가 나의 심오한 고등마법을 알리가 없기 때문이다. 보존마법은 시간과 공간과 방어 마법이 복잡하게 얽힌 마법으로 월등히 뛰어난 내가 아니라면 세상에 나오지도 못했을 마법이었다.

"다 먹어도 되는 거야. 정 못 미더우면 먹지 마."

내 말에 옐츠란은 자기가 무슨 말이라도 했냐는 듯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얌전히 자리에 앉았다.

데블랑은 옷매무새를 대강 정리해 도대체 왜? 어차피 데블랑은 겉에 로브를 입고 있었으므로 정리할 것도 없다. 옐츠란 옆에 앉았고 그웬은 손을 닦고 내가 꺼내 놓은 식기를 각자의 자리에 나눠주었다.

손에 잡히는 대로 음식을 꺼냈더니 에피타이저와 메인, 디저트 나눌 것 없이 한 상에 자리했다. 스프와 스튜, 생선튀김과 마들렌, 스테이크와 과일. 서로 어울리지 않는 음식들이 같이 놓여있으니 어색해보이긴 했지만 상다리가 부러질 듯 음식이 한 상 가득 들어찬 모습이 식욕을 자극했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데블랑의 감사인사에 고개를 끄덕이자 기다렸다는 듯이 셋은 식사를 시작했다. 맨 처음 집는 음식에서도 셋의 성격이 보여 조금 우스웠다. 옐츠란은 곧장 자기 앞에 놓인 먹음직스러운 스테이크를 썰었고 데블랑은 샐러드부터 드레싱과 섞었다. 그웬은 정석대로 가벼운 스프부터 한 스푼 떴다.

셋 다 아무 말 없이 음식을 먹는 데에 열중했기에 한동안 포크와 나이프가 접시를 긁는 소리만 공간을 채웠다. 남부 식으로 맵게 조리된 버섯볶음을 먹고 손부채질을 하던 데블랑이 좀 괜찮아졌는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물었다.

"마법물품수집에 관한 이야기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나는 크게 배고픔을 느끼지 못했기에 스크램블 에그나 뒤적이고 있던 터라 고개를 끄덕였다.

잘 지어낸 이야기인데 머리 속에서 썩히기엔 아깝다. 하지만 머릿속에 담겨진 이야기를 밖으로 꺼내는 것에 익숙지 않아서 어디부터 시작해야할지 망설여졌다. 태초에.. 로 시작하는 말 밖에 떠오르지 않았으므로 나는 질문에 답하기로 마음먹었다.

"뭐가 궁금한데?"

"그 주머니부터 이야기 해주세요. 어떻게 그 작은 주머니에서 음식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무슨 주머니에요?"

"그냥 무한의 주머니라 부르는데... 꺼내고 싶은 물건 생각하고 꺼내면 꺼내져."

"와, 그런 마법물품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어떻게 무한의 주머니를 얻게 된 거에요? 엄청 귀할 거 같은데."

남쪽에서 만난 신비의 상인에게서 얻었다 할까 지진으로 인해 드러난 던전에서 찾았다할까 고민하다가 역시 고전적인 이야기가 어린 데블랑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에 좋을 것 같아 드래곤을 들먹였다.

"인간으로 변한 드래곤을..."

내가 별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옐츠란이 피식 웃었다. 남이 말하는데 비웃다니? 예절을 귓등으로 배운 놈이네.

"인간으로 변한 드래곤을 만났다고?"

"응, 드래곤인지 모르고 도와줬는데 고맙다고 이걸 주더라."

"드래곤은 인간으로 변하지 않아. 그건 옛날이야기에나 나오는 거라고."

사실이긴 하다.

드래곤이 인간으로 변해 인간들 사이에서 섞여 논다는 건 자의식 강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였다. 인간들은 이해하기 힘든 일을 남 탓하기 좋아하니 드래곤은 참 좋은 대상이었을 거다. 왕국이 망해도 드래곤 탓이다! 사람이 갑자기 많이 죽어도 드래곤 탓이다!

전의 세계에도 뭐더라.. 고양이인가 여우인가가 사람으로 변한다했다. 대장인가 쓸개인가 빼먹는다고. 그냥 죽이고 싶은 사람 죽여 놓고 장기를 빼버린 게 그렇게 와전된 건 아닐까. 역시 남 탓은 전 차원 공용습관이다.

"사실 드래곤을 죽이고 얻었어."

이 것 또한 사실이다. 양가죽으로 만든 것처럼 보이는 주머니는 실제론 드래곤 날개의 피막을 잘라다 만들었다. 겉으로 보기엔 작은 주머니지만 가상의 공간과 연결했기에 상당한 부피를 감싸고 있고, 작은 가죽으로 큰 부피를 감쌀 정도로 탄력성이 좋은 가죽은 드래곤 날개 피막이 제격이다.

드래곤을 죽이기는커녕 드래곤을 구경도 못해봤을 세 놈은 당연히 믿지 않는 표정이었다. 옐츠란은 노골적으로 우습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냐 진짜야. 드래곤 날개피막을 잘라다 주머니를 만들고 마법진을 새기기 위해 안쪽에 드래곤 가죽을 덧대고 드래곤 발톱으로 긁어 마법진을 그렸지."

사실 이쯤 되면 무한의 주머니가 아니라 드래곤의 주머니라고 부르는 게 맞지만 그렇게 부르는 건 왠지 드래곤의 불알 같아서 관뒀다.

데블랑은 어린아이의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믿어줄 때처럼 상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누가 그렇게 얻었대요?"

내가.

물론 그렇게 대답할 순 없으므로 돌려 대답했다.

"이 주머니를 만든 마법사가...?"

데블랑 안쓰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옐츠란은 별 다른 말은 안 했지만 미간을 살짝 찌푸렸고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잠자코 음식만 먹던 그웬까지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봤다.

"아... 그 마법사한테 사신 거에요..?"

저 표정들은 내가 사기 당했다고 생각하는 게 틀림없다. 나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다.

데블랑은 진위여부를 두고 나와 토론해야할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야할지 고민하는 얼굴이었다. 진짜로 드래곤의 부산물로 만든 건지 따지고 들다가 사실이 아닌 게 밝혀지면 아마 값을 크게 치렀을 내가 속이 상할 것이고 그냥 믿도록 두기엔 양심이 허락지 않는 모양이었다.

데블랑의 고민은 길지 않았다.

"대단하네요!"

나는 햇살처럼 웃는 데블랑을 따라 웃었다. 데블랑은 음식을 먹으면서 말하는데도 귀여워 보일 정도로 얌전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나이다운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대화는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그는 눈길이 닿는 곳 마다 이건 뭐에요? 저건 뭐에요? 쫑알대며 물어봤다. 새끼 새에게 토해서 먹이를 먹이는 부모 새의 마음이 이러할까.물론 나는 하늘에서 자식이 떨어진다 해도 키우고 싶은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다. 나는 데블랑이 뭔가를 집어 먹을 때마다 흐뭇해져서 데블랑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거짓말을 쳤다. 거짓말은 갈수록 정교해져 옐츠란도 몇마디 질문하고 그웬도 재밌다는 얼굴로 내 말에 집중할 정도였다.

"그럼 마법물품 중에 마도시대 물건도 있어요?"

"마도시대?"

필요할 때마다 마법물품을 만들어냈으니 시대를 따지자면 그 중에 마도시대의 물건도 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마도시대 마법물품이라고 하면 거창한 유물로 생각하고 특히 마법사 놈들의 마도시대 물건에 대한 집착이 병적일 정도라옐츠란은 코딱지만 한 힘을 가졌지만 혹시 모르니까고개를 저었다.

"구하기 힘들 더라고."

"에이, 드래곤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무한의 주머니보단 구하기 쉬웠을 거 같은데요."

떠들 만큼 떠들었기에 거짓말을 지어낼 마음이 사라진 나는 데블랑의 말에 별 다른 대꾸 없이 물었다.

"배부를 만큼 먹었지? 이제 치운다?"

웃고 떠드는 사이 모닥불이 밝게 느껴질 정도로 어둠이 주변에 깔렸다. 숲에서 해가 지는 건 순식간이기 때문에 더 어두워지기 전에 잠자리를 준비해야했다.

셋 다 디저트까지 챙겨먹고 배가 불러 손을 놓고 있었기에 떨떠름한 얼굴이지만 내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테이블보를 잡아당겨 테이블을 손수건으로 바꾸니 두 번째 보면서 처음 보는 것처럼 셋은 손수건을 신기하게 바라봤다.

"역시 전 그게 제일 편해 보여요."

그웬이 웃으면서 말했다. 모닥불 빛이 비치는 얼굴은 더없이 온화하고 따스해보였다. 에잇 요망한 웃음! 네가 아무리 예쁘고 귀여워도 내 손수건을 주진 않을 거야!

"응, 편해."

내가 빨리 손수건을 로브 속으로 감춰버리자 데블랑이 귀엽다는 듯 웃었다. 나를 완전 새침한 여동생쯤으로 여기는듯했다. 자길 살려준 게 누군지 그새 까먹었나보다.

놈들은 모닥불 곁에 적당히 자리를 잡고 앉아 제일 땅이 고른 자리를 나에게 양보했다. 진창에서도 편하게 잘 수 있는 나지만 자기네들이 불편한 자리에서 자고 싶다는데 어쩌겠는가? 기꺼이 따라줄 수밖에.

나는 냉큼 그들이 양보해준 자리에 가서 앉았다. 흙이 고르게 깔려서 땅은 푹신푹신하고 모닥불 열기는 너무 뜨겁지도 너무 멀지도 않고 큰 바위가 저쪽에 하나, 한쪽으로는 나무가 빽빽해 바람도 막아줬다.

내가 만족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확인하는 사이 놈들은 두런두런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했다. 식량은 얼마 남았는지, 몸 상태는 어떤지, 누가 불침번을 설 건지 그런 얘기들이었다. 셋은 이야기를 다 하고 나를 힐끔힐끔 보면서 눈치를 봤다.

"뭐야?"

"아, 저... 잠깐..."

저렇게 주저하는 이유라면 생리현상밖에 없지. 왜 화장실 가는 것까지 나한테 허락받지?

"똥 쌀 거야? 갔다 와."

내가 손을 휙휙 내젓자 데블랑은 단번에 얼굴이 빨개져서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해놓고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안절부절못했다. 큰 거 아니면 작은 거겠지. 뭘 저렇게 부끄러워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데블랑은 결국 별 다른 말없이 앞서간 그웬과 옐츠란을 따라갔다. 나는 황당해져서 나무 사이로 사라지는 세 명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왜 볼일을 셋이서 같이 보지...? 쾌변 하도록 서로 응원해주는 문화권에서 자랐나..?

뭐, 내가 알 바는 아니지.

셋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기분 더러워지는실제로도 더러운소리까지 듣게 될까봐 주변에 마법으로 소리 차단막을 세웠다.

주머니가 달린 가죽 띠를 허리에서 풀어 대충 근처에 던져두고 검은 검집 채 가슴에 안고 로브에 마력을 흘리자 저절로 로브가 몸을 꼼꼼히 감쌌다.

보석과 기타 물건이 든 무한의 주머니는 내버려두고 검은 애지중지 끌어안고 잘 준비를 하려는 이유는 검은 내가 아끼는 물건 중 유일하게 아무런 마법도 걸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장인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물건, 특히 무기 중엔 마법을 걸면 본래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이 있다. 대장장이가 영혼을 쏟아서 만들었다는 소리를 듣는, 이름까지 붙여진 무기들이 보통 그러한데, 실제로도 대장장이가 심혈을 기울여 만드는 동안 생명력, 다른 말로 마력이 옮겨가기 때문이다. 그런 무기에 마법을 걸면 본래 담고 있던 생명력이 날아가거나 꼬이기 때문에 전보다 무뎌지거나 매끄럽지 않게 된다.

이 검을 차지하기 위해 죽어나간 이가 수백 명에 달하니, 사실 명성보다 악명을 떨쳤지만 내 검도 이름이 있었다. 검의 이름이 중요한건 아니라서 까먹었지만. 검의 이름 따위 알게 뭔가, 부른다고 꼬리를 흔들면서 반기는 것도 아니고 산책을 나가는 것도 아닌데. 검이라면 그냥 날카롭기만 하면 된다.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고 있는 장작을 바라보다가 별로 깊게 생각해보지 않아서 지나쳤던 가능성이 떠올랐다. 저 세 놈들 항문 쪽 볼 일이 아니라 머리 쪽 볼 일을 보러간 모양이다. 다 큰 남자 셋이서 어찌나 할 비밀얘기가 많은지... 황제 암살 모의건 나를 죽이자는 계획이건 별반 위협은 되지 않아서 가물가물 눈이 감겼다. 앉은 채로 꾸벅꾸벅 졸다가 거의 잠이 들었는데 바스슥 낙엽 쌓인 땅을 조심히 걷는 소리가 났다. 곧이어 풀숲을 헤치는 소리, 어두운 시야 때문에 나뭇가지에 얻어맞고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친 소리차단막을 지나 사정권 안으로 누가 돌아오고 있었다. 밤의 숲에 익숙하지 않은지 기어오는 게 빠를 만큼 느린 무게감이 느껴지는 발걸음, 보나마나 옐츠란이었다.

확실히 잠을 청하기로 마음먹은 나는 검을 베고 바닥에 누웠다. 딱딱한 검집의 촉감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렇다고 불편하진 않다. 이 정도는 익숙해질 만큼 야영을 많이 겪었다.

긴 잠에서 깬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한동안은 잠을 자도 눈을 뜨고 얕은 천만 눈앞에 두르고 있는 것처럼 의식은 깨어있고 몸만 휴식을 취하는 상태가 계속 될 것이다. 어차피 생존에 최적화 된 몸이라 자연적으론 깊은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불편하지는 않다.

그저 지척에 다가온 옐츠란이 숨죽인 채 내가 자고 있는지 손을 휘휘 저어 확인해보고 코 밑으로 고른 숨도 확인하는 게 우스웠을뿐이다. 옐츠란은 모닥불 주변을 한바퀴 돌았다가 그웬과 데블랑이 있을 쪽을 향해 몸을 돌렸다가, 다시 나를 바라봤다가 한참을 무언가 망설이고 있었다. 잠에서 깨기 싫은 마음 반 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가 냅둬 보자 하는 마음 반으로 가만히 잠만 자고 있는데 옐츠란은 마지막으로 내 눈 앞에 손을 휙휙 저어서 확인해보곤 내 허리띠로 손을 뻗었다. 정확히는 무한의 주머니에.

가죽 띠에 달린 금속벨트가 덜그럭 거리는 소리에 슬그머니 눈을 떠 옐츠란을 보니 놈은 무한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계속 빈 공간만 휘젓고 있었다. 단순히 손만 넣어서 안 되자 마력도 흘려보고거의 개미 똥구멍만큼 나와라 하고 속삭여도 보던 옐츠란은 내가 아직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하고픈 마음이 들었는지 고개를 들었다가 나와 눈이 마주쳤다. 나는 귀기 섞인 미소를 지었다.

"손버릇이 나쁘구나, 너."

"으어억!“

옐츠란은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손에 잡고 있는 걸 내던지고 소리를 질렀다. 한번 지르고도 모자라 한 번 더 우렁차게 소리를 질러서 저렇게까지 놀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거칠게 땅을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고 빠르게 나타난 그웬과 몇 번 넘어지고 굴러 겨우 쫓아온 데블랑이 보였다.

"무슨 일이야!"

비스듬히 누운 채로 팔을 괴고 있는 나와 귀신이라도 본 듯 놀라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옐츠란을 보고 둘은 무슨 상황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나는 태연스럽게 로브를 살짝 제쳐 꺼낸 손가락으로 옐츠란을 가리켰다.

"쟤가 내 주머니에 손을 댔는데."

데블랑과 그웬의 시선이 놈에게 훽 돌아갔다.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묻는 눈빛들이었다.

"도둑질 하려고 했다고."

내 말에 둘은 똑같이 입을 벌리며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너희 그러기로 합의 본 거 아니었어? 혹은 놀라는 표정을 짓기로 합의 본 건가. 그렇다면 참 놀라운 연기력이다. 나는 자기네들끼리의 실랑이를 구경할 마음이 생겨 몸을 일으켜 앉았다.

"너 미쳤어? 왜 그랬어?"

거친 말을 들으면 귀라도 씻을 것 같이 생겼으면서 의외로 그웬은 험악하게 말했다. 옐츠란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놈들에게 말하진 않았지만 무한의 주머니는 어차피 나 이외의 사람은 사용할 수 없다. 죽을 때 마다 입고 있는 옷이며 소지품이며 다 두고 죽는데 분별없이 아무나 사용 가능하면 나는 기부의 황제라고 불려야한다.

데블랑은 황당한 표정으로 옐츠란과 주머니를 번갈아가며 보다가 미안한 기색으로 내게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희는 모르는 일이에요. 저를 구해주시고 음식도 나눠주셨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꼴이군요.. "

그웬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앉아있는 옐츠란을 발로 툭툭 쳤다. 너 왜 안 하던 짓을 해, 뭐 훔치려고 그랬어, 대답해, 하고 계속 발로 밀자 입을 꾹 다물고 얌전히 참던 옐츠란이 그웬의 다리를 밀어버리며 짜증을 냈다.

"아, 말로 하지 왜 사람을 차냐! 신기해서 그랬다! 왜! 무슨 마법진인지 보려고!"

분명 뭔가를 꺼내려고 하던 소리를 들었는데, 소 판 놈이 말도 판다고 도둑질 하더니 이젠 거짓말정도는 우스운 모양이었다. 하지만 나는 대단히 너그롭고 자애로운 사람이었기에 옐츠란이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했던 사실은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다.

잠든 틈을 타 남의 짐을 뒤지는 건 이 세계에서 흔한 일이다. 삶에 요령이 없던 시절, 그렇게 도둑질을 많이 당했고 요령이 생긴 후론 털린 것의 다섯 배는 더 넘게 훔쳤다. 내 재산의 든든한 밑천이 돼 준 멍청이들에게 콩알만큼의 감사함을 가지고 있다. 어차피 돈은 다 그렇게 돌고 도는 거니까 실패로 끝날 걸 아는 미수사건가지고 열 올리고 싶진 않다.

그렇다고 호구처럼 괜찮다고 넘어갈 마음도 없기에 나는 건성인 태도로 놈들을 추궁했다.

"같은 일행인데, 아까 짜고서 연기하는 거 아냐?"

"정말 아니에요. 정 불안하시면 지금..."

지금 바로 떠나겠다고 할 기색이던 데블랑은 깜깜한 저 너머를 보고 그건 무리란 걸 깨달았는지 뒷말을 잊지못하고 머뭇거렸다. 나는 기껏해야 데블랑의 안절부절못하는 귀여운 표정과 그웬의 예의바른 태도를 더 보고 싶어 심술을 부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쯤하고 다시 자야지 생각 중이었다.

"옐츠란을 묶을까요?"

"옐츠란을 묶을까요?"

그웬이 그렇게 물어볼지 몰랐기에 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역시나 마음에 든다. 그는 순하게 쳐진 라임색 눈동자에 동의를 구하는 빛을 담아 나를 보고 있었다. 옐츠란 또한 그웬이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는지 얼빠진 표정을 지었다.

"왜 나를 묶겠다는 말이 나와?"

"네가 독단적으로 한 일이니까. 우리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듣고 보니 그웬의 말이 그럴싸한지 데블랑도 고개를 끄덕였다.

"옐츠란을 묶어두면 밤사이에 허튼 짓은 안하겠네. "

"갑자기 몬스터 나타나면 어쩌려고?"

그웬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묶여있으나 안 묶여있으나 어차피 도움이 안 되잖아."

부드러운 미소와 다르게 신랄한 어조였다.

옐츠란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굳은 표정으로 일어서서 엉덩이를 툭툭 털었다.

사실 그웬의 말은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진짜 자기들끼리 짠 거라면 그웬이나 데블랑이 옐츠란 대신 도둑질하고 옐츠란을 풀어주고 도망가면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놈들과 쓸데없는 실랑이를 하기보다 버릇없는 옐츠란을 묶어두는 편이 더 재밌었기에 나는 쉽게 허락했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반항하며 소리 지르는 옐츠란을 그웬이 찍어 누르고 데블랑이 밧줄을 배낭에서 꺼내 신속하게 옐츠란을 묶었다. 아무리 그래도 다리를 묶을 순 없기에 정말 몬스터가 나타나면 위험하니까 다리는 묶지 않고 팔을 가슴 앞에 엑스자로 교차해 꽁꽁 묶어 꼴이 꽤나 우스웠다. 놈은 바닥에 뒹굴 면서 혼자 일어나려고 버둥댔지만 일어설 때마다 그웬이 발로 밀어버려서 바닥을 애벌레처럼 기는 것이 할 수 있는 동작의 최선이었다. 옐츠란은 계속해서 욕을 중얼대면서 그웬과 데블랑, 나까지 살뜰하게 챙겨 저주를 퍼부었다.

"입까지 막아버리기 전에 조용히 해 옐츠란. 원인 제공을 한 건 너잖아."

데블랑이 엄한 어조로 경고했지만 옐츠란은 계속해서 우리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는 말을 했고 그웬이 진짜 입을 막아버리려고 배낭을 뒤지자 그제야 입을 다물었다.

옐츠란이 입을 다물자 평화로운 적막이 공간을 감쌌다. 나는 다시 아까처럼 비스듬히 누워 팔을 괴고 데블랑과 그웬이 불침번에 대해 얘기하는걸 구경했다.

아니, 놈들의 얼굴을 구경했다는 표현이 더 옳다. 모닥불의 훈기가 어루만지는 그들의 얼굴은 한참을 봐도 재밌었다.

그웬과 데블랑은 당연하다는 듯 나와 옐츠란을 제외해놓고 자기들끼리 불침번을 정하고 있었다.

내가 먼저 불침번을 설 테니까, 잠이 오면 깨울게.

여태껏 불침번을 계속 선 건 너였잖아. 피곤할 텐데 오늘은 먼저 자. 내가 설게.

먼저 자면 자다가 깨야하는데 그게 더 싫은걸.

그래? 그렇긴 하겠다.

나무가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소리, 두런두런 자기네들끼리 떠드는 소리, 모닥불의 온기가 더해져 아까 달아났던 잠기운이 슬그머니 다시 몰려왔다. 나는 머리맡에 놓인 검을 왼쪽 겨드랑이에 끼고 꾸물꾸물 옐츠란 곁으로 갔다.

조용하길래 잠이든 줄 알았더니 놈은 이집트의 미라 같은 자세로 멀거니 하늘만 보고 있었다. 묶인 게 퍽이나 억울해서 잠도 안 오는가보다.

나는 놈이 깨어 있건 말건 아랑곳 않고 허벅지를 베고 누웠다.

"뭐, 뭐야!"

깜짝 놀라 내 머리를 밀어내려고 했던 모양이지만 손이 묶여있어 옐츠란은 꿈틀대기만 했다.

데블랑과 그웬이 놀란 기색으로 나를 쳐다봤다. 데블랑은 조금만 더 크게 뜨면 눈알이 굴러 떨어질 수도 있어보였다.

딱딱한 검집을 베고 눕는 것보다 사람을 베고 눕는 게 훨씬 편하니까 충분히 논리적인 행동이지만 놈들은 나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 할 거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근사한 이유를 생각해뒀다. 잠이 오든 안 오든 나는 똑똑하기 때문이다.

"도망갈까 봐 감시하는 거야. 너희들이 내가 잠든 사이에 물건을 훔치고 도망치면 안 되니까."

데블랑은 내 말에 반박하고 싶은 듯 몇 번 입을 달싹였지만 결국 한숨과 함께 포기했다. 그웬은 별반 신경쓰지 않는 기색이었다.

본래라면 짐을 털릴 뻔 했으니 내가 잠을 자지않고 경계하는 것이 옳다. 아무리 옐츠란이 내 주머니에 손을 댔어도 놈을 묶어두는건 숲에서 만난 모험가들치곤 친절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놈들이 친절을 베푼 다고 나까지 친절해질 필요는 없다. 나는 데블랑과 놀아주느라 오늘치의 사교성을 탈탈 털어 썼다.

옐츠란은 베개 신세가 된걸 처음엔 버둥거리고 욕을하며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시끄럽게 굴 때마다 적당한 힘으로 배를 한대씩 쳐주자 얼마 안 있어 얌전해졌다.

조금 더 지나자 고른 숨을 내쉬며 잠까지 들었다. 내 베개가 된 게 퍽이나 마음에 든 모양이다.

슬쩍 고개를 들어 얼굴을 확인하자 눈을 감은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있었다. 잠을 자는 게 아니라 기절한 건가.. 허우대는 멀쩡해서 이렇게 허약하다니 참 쓸모없다. 사람으론 쓸모없어도 어쨌거나 베개역할은 충실하게 해서 뒤통수로 미지근한 체온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이게 그웬이였으면 잠자리가 한층 더 쾌적했을 텐데, 옐츠란한테선 숲을 오래 헤맨 사람한테서 나는 낙엽냄새와 젖은 흙냄새, 약간 쿰쿰한 냄새밖에 나지 않았다.

끔찍한 냄새가 나지 않는 게 어딘가 싶지만, 성에서 방향제를 껴안고 잠들었던 나날들이 그립다. 자꾸 인간들이 쳐들어와서 그만두긴 했지만, 참 좋은 날들이었다.

과거의 영광들을 떠올리면서 나는 잠에 빠져들었다. 옐츠란도 기절한 김에 잠든 모양이다.

묶인 몸이 불편한지 머리 하나가 얹어진 허벅지가 불편한지 가끔 끙끙 앓는 소리를 냈지만 어쨌거나 놈은 깨지 않고 잘 잤다.

잘 자네.

그러게. 어떻게 저러고 잠이 들지?

어느 쪽 말야?

둘 다.

그웬이 먼저 불침번을 선다더니 데블랑은 아직 잠이 오지 않는 모양이었다. 둘은 그 자리에 앉은 채로 말을 주고받았다.

레티시아씨 말이야, 이상한 사람 같지?

그웬이면 몰라도 데블랑, 네가 그렇게 말할줄 몰랐는데.

말도 안 되지. 무슨 연애를 하겠다고 포텟쿠 숲을 가로 질러?

그 것 말고도... 여자 혼자 다니는 것도 그렇고, 듣도 보도 못한 마법물품을 저렇게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것도...

도둑질 당할 뻔했으면서 무방비 상태로 잘 자는 것도 이상해. 숲에서 만난 모르는 남자 셋 사이에서? 나라면 절대 안 그래.

그 뒤로도 나에 대한 수상한 점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심지어 내가 너무 아름답다는 것까지 수상한 점으로 꼽았다. 예쁜 것까지 수상하다니! 둘 다 잠이 와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게 틀림없다.

그웬은 내가 숲을 다니는 게 익숙해 보인다는 점, 데블랑은 숲을 다녔는데도 엉키지 않고 여전히 아름다운 곱슬머리를 하고 있는 점을 마지막으로 수상한 점 찾아내기 대회를 끝마쳤다. 내일은 왼손으로 포크질을 해볼까, 너무 수상해서 기절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근데 옐츠란은 왜 그랬을까?

한참을 부스럭 소리를 내고 잠잘 준비를 끝마친 데블랑이 물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겠지.

그래도 레티시아씨가 가지고 있을 린 없잖아.

아무래도 우리 중에 중압감이 제일 클 테니까. 옐츠란 입장에선 거의 맨 몸으로 목숨을 걸었는데, 마음이 급했을 거야. 멍청한 선택이긴 하지만.

데블랑은 한숨을 내쉬었다.

레티시아씨한텐 미안하네...

그 말을 끝으로 한참동안 조용해서 잠들었는 줄 알았는데 데블랑은 조용히 그웬을 불렀다.

그웬, 옐츠란 너무 구박하지 마. 서로 안 맞는 건 알겠지만, 어쨌거나 옐츠란은 우리 중에 제일 큰 희생을 하고 있어. 알잖아?

그웬은 한참을 대답하지 않았다. 그웬의 그 선한 얼굴 때문에 상상가지 않았지만 아마도 굳은 얼굴로 모닥불을 노려보고 있는 것 같았다.

데블랑이 고른 숨을 내쉬며 잠에 빠져들 때쯤 그웬이 나지막이 그래. 하고 대답했다.

그 뒤로 둘은 번갈아가면서 불침번을 서고 나와 옐츠란은 놈들과 무관하게 한번을 깨지 않고 아주 잘 잤다.

감은 눈 너머로 시야가 점점 밝아졌다. 해가 뜨고 있었다.

그 뒤로 우리는뛰어난 나와 모자란 놈들을 우리라는 말로 묶어 부르는 건 옳지 못한 표현이다. 나와 멍청이들로 불러야겠다. 별 탈 없이 숲의 가장자리에 가까워졌다

옐츠란은 내가 베개로 쓴 뒤로 나를 어색해 하는 건지 분을 겨우 참는 건지 전처럼 버릇없이 대화에 툭툭 끼어들지 않았고 그웬은 원래도 말이 없었으니 이동하는 내내 나와 데블랑만 대화를 했다.

그 마저도 내가 단답으로 일관해 깊은 질문은 하지 못했으니 데블랑이 하는 질문이라곤 무슨 음식을 제일 좋아하세요? 수준이어서 지루해 제대로 대답하기 싫었다. 나중엔 다들 땅만 보며 묵묵하게 걸었다.

나와의 대화는 그렇다 치고 얘네들끼리는 왜 대화를 안 하는 거지 싶었는데 슬쩍 내 눈치를 보고 그웬이 옐츠란에게 속삭이고 우리, 로브 여분 있던가? 옐츠란도 목소리를 낮춰 그웬에게 속삭여아니, 없어. 나 때문에 말을 아끼고 있구나 알게 됐다. 속삭일 필요까진 없는 말같은데, 비밀 놀이 하는걸 좋아하는가보다.

밤에 놈들이 나를 보고 수상하다 한 것처럼 이놈들도 만만치 않게 수상하다.

원래 잘생긴 놈들 주변에 또 다른 잘생긴 놈들이 모이는 법이라 놈들 따라다니면 연애대상이 주렁주렁 걸어 들어올 텐데, 그 대가로 엄청나게 귀찮은 일을 같이 하게 될 것 같다. 아깝긴해도 마을에 도착하면 바로 헤어져야겠다.

걷다보니 사람들이 오가는 야영지인 듯 꽤 넓은 공터가 나와 쉬어가기로 놈들은 결정했다.

불길을 지키기 위해 돌을 둥글게 쌓아 놓은 장작불 터에 타고 남은 시커먼 나무가 가득했다. 이정도로 사람 손이 닿았다면 정말 마을이 지척일 것이다.

나는 의자로 쓰이는 듯 한 눕혀놓은 통나무에 걸터앉아 샌드위치를 꺼냈다.

세 놈의 시선이 내가 꺼낸 샌드위치에서 못 박은 듯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누가 쳐다본다고 해서 식사를 못 하는 건 아니었기에 태연스럽게 샌드위치를 베어 물었다.

고운 밀가루만 사용한 폭신하고 쫀득한 식감의 빵에 여러 종류의 햄, 좋은 풍미의 치즈, 아삭한 채소와 상큼한 토마토, 솜씨 좋은 소스까지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내가 한 입 더 베어 먹자 멍청히 남이 먹는 모습을 구경하는 게 우스운 일이란 걸 드디어 안 건지 그웬이 제일 먼저 눈을 떼고 가방에서 말라서 딱딱해진 비스킷을 꺼냈다.

"조금만 더 가면 마을이니까, 가서 제대로 챙겨먹자."

데블랑이 애교 한번 떨면서 한 입만 달라고 하면 세 놈의 몫을 다 챙겨줄 수 있는데 그 정도의 눈치는 없나보다. 셋은 비스킷을 거의 쥐처럼 갉아먹고 있었다.

"저..."

데블랑이 나를 보고 미안한 표정을 짓길래 이제야 나의 너그러운 마음을 눈치 채고 재롱을 부리나 싶었다. 남자아이는 사근사근하고 애교스러워야 귀여움 받는 법이다.

"정말 죄송하지만 로브를 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부탁은 맞지만 예상했던 내용이 아니라 나는 음식을 꺼내려 주머니를 뒤지려다가 멈칫했다.

"왜?"

데블랑은 마땅한 이유를 지어내느라 고심하는듯했다. 마을에 들어서기 전 사람 수만큼 로브가 필요한 이유야 대충 짐작해도 알 것 같지만, 쫓기는 신세라서 얼굴을 가려야 해요 같은 이유는 남한테 말하기 너무 수상하다. 데블랑은 드디어 마땅한 이유가 생각났는지 입술을 꾹 깨 물었지만 쉽사리 입을 떼지 못했다. 무슨 표정으로 말해요도 아니고 모르는 척 해주는 것도 많은 자비심이 필요했다.

데블랑은 얼굴이 점점 빨갛게 달아오르더니 시선을 애매하게 내리고 거의 쥐어짜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너무 귀여워서요.."

그웬과 옐츠란이 데블랑과 같은 편인걸 잊고 황당한 표정을 지을만큼 터무니없는 이유였다.

"제가 너무 귀여운 외모를 하고 있으니까... 마을에 들어가면 시비가 걸려서..."

귀가 빨개진 채로 땅만 쳐다보고 말하는 데블랑의 모습을 보자니 솔직히 그럴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 데블랑이 달에서 왔다고 해도 그렇구나 하고 눈 감아줄 수 있다. 그만큼 귀여웠기때문이다. 아래로 내리깐 속눈썹 끝이 빛을 받아 투명했다. 눈가 아래로 속눈썹 그림자가 드리우는 모습에 볼을 콕 찔러서 나를 쳐다보게 만들고 싶었다. 뺨을 깨 물면 따뜻한 우유 맛이 나지 않을까?

너무 귀여운 것을 보면 골려주고 싶은 마음이라 나는 데블랑이 무안해질 만큼 이해가 안 간다는 태도를 취했다.

"너무 귀여워서라고? 옐츠란이나 그웬 로브 대신 쓰면 되잖아. 로브 빌려가놓고 도망치려고 그러지? "

그웬이 태연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저도 너무 잘생겨서 데블랑에게 로브를 빌려줄 순 없네요."

그웬은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는 태도였다.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죠, 라고 말할 때와 같은 어조라서 조금 기가 찼다.

반면에 옐츠란은 누가 그렇게 말하라고 고문이라도 했는지 고통스러운 표정을 한 채 더듬더듬 얘기했다.

"나도...나도...너무...잘생..윽,.. 잘생겨서.. 안 돼.."

놈의 얼굴은 거의 새로운 종족으로 다시 태어난 듯 붉어져있었다. 단순히 얼굴이 달아오른정도가 아니라 애초에 붉은 피부였던 것 같았다. 조각 같은 미남자가 얼굴을 붉히고 부끄러워하고 있으니 내가 옐츠란에게 가진 악감정은 제쳐두고 솔직히 귀여웠다. 나는 얼굴에 약한 사람이었으므로 얌전히 백기를 내렸다.

"이해해. 나도 너무 아름답고 잘생기고 귀여워서 그런 일을 종종 당하거든."

사실을 얘기하는데 옐츠란이 조금 질린 눈빛으로 바라봤다. 부끄럼쟁이 같으니라고.

주머니를 뒤져 여분으로 들고 다니는 로브를 꺼내 데블랑에게 건네줬다. 딱 보기에도 범상치 않은 고급품이자 놈은 로브를 받아들면서도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건 너무... 화려한데요...?"

"아, 뒤집어서 입으면 돼."

살아 움직일 듯 –실제로도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생한 나무와 꽃 자수가 놓인 화려한 이 로브는 의례용으로 만들어진 아주 귀한 물건이었다.

겉감은 살짝 윤기가 도는 검은 융단에, 안감은 색이 바뀌는 비단으로 되어있고 그 위에 손끝으로 굴곡이 느껴질 정도로 두터운 자수가 은사로 놓여있다.

이 로브의 가치는 은사로 놓은 자수에 있다.

자수에 능력을 둔 차원 이동자가 만든 물건이라, 자수는 보기에만 생생한 게 아니라 실제로 움직였다. 계절에 따라 놓인 자수의 전체적 모양이 바뀌었고 착용자의 기분에 따라 살랑살랑 작은 움직임을 보였다. 마법물품이 아니라 순전히 초월자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작품이어서 마법으로 흉내낼 수도 없다. 마법으로 만든다면 기껏해야 로브가 반짝이게 하는 게 다겠지.

양면 다 활용가능해서 평소엔 수수하게 검은 융단 부분을 겉으로 해서 다니다가 연회가 있을 때 뒤집어서 사용하면 된다. 절로 바뀌는 자수와 비단 색 때문에 어느 옷에나 어울렸다.

나는 주로 초대 받지 못한 손님처럼 일부러 허름한 행색을 꾸며 검은 융단 부분으로 로브를 두르고 있다가 결정적인 때에 로브를 뒤집어 착용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탈바꿈해 남들이 놀라는 꼴을 구경하는 데 썼다.

극적인 효과를 사랑하는 내가 아주 어렵게 구한 로브였다. 자수 능력을 가진 차원 이동자와 동시대를 살지 않았기에 그가 만들어낸 것 중 이토록 내 마음에 쏙 드는 물건이 있다는 것 자체가 행운이었다.

데블랑이 영 부담스럽다는 눈빛으로 로브를 들고 있다가 자수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로브를 떨어트릴 뻔했다. 빛 같은 반사 신경으로 받아든 나는 데블랑의 손을 꼭 잡고 경고했다.

"이 로브 진짜 내가 아끼는 거니까 훔쳐 가면 지옥 끝까지 따라가서 받아낼 거야. 위치 추적마법이 걸려있거든."

그리고 다시 지옥 끝으로 보내줄 거야.

뒤에 삼킨 말을 내 눈빛에서 읽었는지 데블랑이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로브가 있다면 저것을 빌려주지 않았을 테지만 내가 지금 입고 있는 로브는 내 마력을 넣어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입으면 전기가 통하는 마법이 걸려있고, 여분의 로브는 더 없기에 어쩔 수 없었다.

로브는 성인 남성의 키에 맞게 제작 된거라 아직 성장기가 한참 남은 데블랑이 입자 땅에 질질 끌릴 만큼 길었다. 데블랑이 그것을 확인하고 난처한 기색을 비침과 동시에 로브는 쑥쑥 줄어 데블랑에게 딱 맞게 변했다. 저 정도 마법물품엔 당연히 걸려있는 변형마법이었다.

"변형 마법까지 걸려있군요.. 이정도로 귀한 물건을 스스럼없이 빌려주시다니..."

"응. 그러니까 꼭 돌려줘."

내가 계속 돌려달라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자기 때문이라 생각했는지 옐츠란의 표정이 굳어있었다. 데블랑은 갑자기 뜻 모를 행동을 했다. 양 손으로 입을 가리고 나한테 고개를 숙이는, 처음 보는 인사법 이였다.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어떻게 갚는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나한테 빚지고 사는 놈들이 세상에 늘어날수록 좋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내 표정을 보고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걸 깨달은 데블랑이 아까의 행동은 맹세를 꼭 지키겠다는 의미라고 알려주었다. 거참 쓸데없는 것만 자꾸 생겨나고 있다. 입으로 맨날 거짓말이나 해대니까 과장된 행동으로 신의를 보이는 게 아닌가, 애초에 거짓말을 안 하면 되지.

물론, 나는 신의 따위는 없는 사람 이였으므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괜찮다. 맹세는 깨라고 있는 거다.

내가 로브를 빌려준 뒤로 데블랑은 좀 더 사근사근해져서 내가 단답을 하건 말건 성실한 태도로 대화에 임했다. 바람이 강하게 불때마다 로브가 펄럭이고 안감이 드러나는 모습은 매우 아름다웠으므로 나는 만족했다. 인형놀이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 아마 이런 재미에 인형놀이를 하는 거겠지.

기분이 좋아진 나는 아무래도 좋을 데블랑의 질문에 아무래도 좋을 답변을 늘어놓았다.

좁은 길이 점점 넓어지고 듬성듬성 밭이 보이더니 허름하게 지어진 농장이 보였다. 조금 더 가자 제법 그럴싸하게 지어진 마구간도 보였다. 기껏해야 노새와 조랑말 몇 마리가 전부였지만 마을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빌려주는 마구간은 마을이 지척이라는 의미였다.

"마을에 가면 일단 로브 먼저 사서 바로 로브를 돌려드릴게요."

몬스터가 튀어나오는 숲 지척이니 튼튼해 보이는 성벽으로 둘러싸여있었지만 마을 크기는 작은 듯 보였다. 문을 지키고 선 병사들은 방만하게 늘어져 심지어 한명은 오크통에 앉아 팔짱을 낀채 졸고 있었다. 나와 멍청이들이 마을로 들어가도 별다른 확인 없이 스윽 훑어보기만 했다.

"여유로운 분위기가 좋네요."

데블랑은 천성이 긍정적인지 주변을 둘러보며 웃었지만 나는 그 의견에 전혀 동의할 수 없었다.

내 집 앞 숲의 악명 때문에 숲을 지나쳐야만 도착하는 위치의 마을은 발전하지 못하고 낙후되어 있었다.

여유는 전부 돈에서 나오는 거다. 시골마을다운 삼삼함은 있지만 돈은 없어 보였다.

분뇨가 섞인 질척이는 진흙바닥, 배열을 맞추지 못하고 정신없이 늘어서있는 집들, 털이 듬성듬성 빠진 다 늙은 개가 그늘에 늘어져서 자고 있고 얼굴에 검댕을 묻히고 닭을 쫓던 사람 둘이 경계 섞인 표정으로 이쪽을 쳐다봤다.

꼭꼬꼬, 비명을 내지르던 닭이 옐츠란 다리 사이로 지나가 놈은 펄쩍 뛰며 놀랐다. 아이들 무리가 저쪽 편에서 왁자지껄 자기네들끼리 놀며 물이든 나무통을 걷어차서 한쪽에 쌓아둔 짚 위로 물이 쏟아졌다. 그걸 보고 짚을 나르건 남자가 이놈들! 하고 소리를 지르며 아이들을 내쫓았다. 남자가 쫓아와도 그것이 놀이인 냥 꺄르르 웃으며 아이들은 내달린다.

뭐, 이 시대에 흔히 볼 수 있는 시골마을의 풍경이었다. 별 다른 것도 없는데 세 놈은 얼굴에 흥미로움을 띄고 마을을 두리번거렸다.

로브 모자까지 뒤집어 쓴 사람 넷이 마을 어귀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는 건 내가 생각해도 수상한 일이었다. 각자 할 일을 하던 마을 사람들이 슬금슬금 길목으로 나와서 무슨 놈들인가 하고 쳐다봤다.

저쪽에서 놀던 아이들 중 제일 나이 많이 보이는 놈이 다가와 제법 살갑게 물었다.

"뭐 어떤 거 찾으세요? 식당? 여관?"

이정도 규모의 마을에선 뭘 고르든 별반 소용없겠지만 일단 대꾸했다.

"여기서 제일 좋은 여관."

"아, 그럼 우리는 여기서 제일 조용한 여관으로 안내해줘."

데블랑의 말에 아이는 씩 웃으며 앞장섰다.

안내라는 말이 우습게 따라 걸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진흙으로 지어진 주변 건물들과 다르게 제법 멀쩡한 돌 벽으로 된 건물이 나타났다.

"여기가 우리 마을에서 제일 좋은 여관이자 제일 조용한 여관이에요. 어차피 저희 마을은 여관이 하나뿐이거든요."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작은 마을에 여관이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소년이 문을 끼익 열자 제법 열성적인 태도로 나무탁자를 닦고 있던 인상 좋은 여관 주인이 반색했다.

"오랜만의 손님이네?"

여관 주인은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고는 앞치마 주머니를 뒤져 반질반질한 동전하나를 건네줬다. 소년은 신이 난 표정으로 뛰쳐나갔다.

"며칠 묵을 겁니까? 1박에 3렐, 세 끼 다 여기서 식사하면 숙박비는 공짜. 참고로 음식가격은 1렐부터 시작해요."

아까 소년이 받은 동전이 벨이고 그 다음 단위가 렐인데 화폐단위는 아직 바뀌지 않은 모양이다. 4벨에 1렐이니 딱 시골마을 여관만큼의 숙박비였다.

나는 주변에 보이는 의자 아무거나 끌어서 앉고 로브 모자를 벗었다.

"음식은 잘 해? 제일 자신 있는 음식으로 가져와봐."

여관주인은 나의 화려한 외모에 놀란 건지 가식 없는 말투에 놀란 건지 잠깐 멍하니 있다가 네? 네.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주방인가로 사라지는 주인 등 뒤에 대고 옐츠란이 "사람 수대로 음식을 준비해주시오." 하고 외쳤다.

데블랑네들도 근처 의자에 앉았다. 보통은 탁자 근처에 있는 의자에 앉지만 놈들은 의자에 먼저 앉고 탁자를 의자 근처로 끌고 왔다. 웃긴 놈들이네. 내가 탁자와 떨어져 앉아서 이쪽으로 탁자를 끌고온건가?

마침 준비해 둔 음식이 있었는지 얼마 기다리지 않아 겉이 반지르르하게 닳은 나무그릇에 음식이 담겨 나왔다. 으깨진 감자가 들어간 토마토 스튜와 납작하게 구워진 빵이었다. 산해진미라고 할 순 없지만 나름 짭조름하게 간이 맞고 푹 익힌 감자가 고소하니 먹을 만했다.

세 놈은 방금 막 한 음식을 먹는 게 오랜만이라 그런지 말도 없이 스튜를 먹는 데만 집중했다.

여관주인은 음식을 가져다주고 나무탁자를 계속 닦으면서 힐끔힐끔 나와 여전히 로브를 뒤집어 쓴 놈들을 구경했다.

나는 먹다가 배불러져 남은 토마토 스튜를 옐츠란 그릇에 다 부었다. 옐츠란이 짜증이 난 표정으로 나를 봤지만 어쨌거나 먹을 양이 늘어난 것이니 별 말은 하지 않았다.

"제일 좋은 방이 어디야?"

주머니에서 적당히 적은 액수를 생각하고 잡히는 대로 돈을 꺼냈는데 10라 짜리였다. 1라에 5렐이니 며칠 묵기엔 충분한 금액이었다. 10라짜리를 던져주고 거기서 내 음식 값과 숙박비를 제하라고 하자 여관 주인의 얼굴이 밝아졌다. 이번 여행객이 돈 없는 거지는 아니라는 사실에 기분이 좋아졌나보다.

얼굴이 술을 마신 것처럼 벌겋고 수염이 덥수룩한 아저씨가 웃는 모습은 별로 보고 싶지 않았기에 나는 계단을 턱짓했다. 꼴에 여관이라고 이층짜리 건물이네.

이쪽을 쳐다보고 있던 데블랑이 내가 돈을 건네는 모습을 보고 벌떡 일어났다.

"아, 레티시아씨. 저희가 대신 내드릴게요."

"왜?"

"저희한테 도움을 많이 주셨으니까요. 여관비라도 대신 내드릴게요."

"나 거지 아니야. 필요 없어."

내가 그렇게 대답하고 계단을 올라가버리자 등 뒤로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데블랑의 시선이 느껴졌다.

은혜를 푼돈으로 갚겠다니, 안 될 말이다. 이번에 헤어지면 언제 어디서 다시 마주칠지 몰라도 그 때 은인이 원수가 될 만큼 확실하게 받아낼 생각이다. 나는 내가 남에게 진 빚은 쉽게 잊어도 남이 나에게 진 빚은 절대 잊지 않는 탁월한 기억력의 소유자였다. 옐츠란이 싸가지 없는 만큼 더 받아낼 거다.

내 몸무게조차 지탱하지 못하고 계단은 삐걱이는 소리를 냈다. 여관 주인이 제일 좋은 방이라며 복도 끝의 방문을 열어줬다. 나와 멍청이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에도 부지런히 여기저기를 쓸고 닦던 여관주인의 성격 덕에 방은 작긴 했지만 나름 깔끔했다. 아니, 시골의 여관치곤 대단히 깔끔한 편이다. 빨아둔 것 같은 이불에 코를 대고 킁킁 냄새를 맡아보았다. 빨아둔 게 맞군. 나는 만족해서 주머니에서 5라를 더 꺼내 여관주인에게 던져줬다.

"팁이야. 여관이 참 깨끗하군."

내 반말에 어렴풋이 불만을 품은 표정이던 여관주인은 5라를 받고선 내가 자기 뺨을 때려도 괜찮다는 태도로 싱글벙글 웃었다.

"얼마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내가 침대에 걸터앉아 손을 휙휙 젓자 남자는 여전히 웃는 표정으로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다.

밑층에서 놈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웬은 방을 잡고 짐을 풀고 옐츠란과 데블랑이 같이 나가서 옐츠란은 다음 여행에 필요한 물건을, 데블랑은 로브를 사러가기로 정한 모양이다.

옐츠란과 데블랑이 여관을 나서는 소리와 그웬이 심하게 삐걱이는 계단을 밟고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손깍지를 낀 채로 침대에 누웠다.

짚을 채워 만든 침대라 그다지 포근하진 않았지만 짚을 간지 얼마 안됐는지 적어도 안에 쥐가 돌아다니는 느낌은 나지 않았다.

잘생긴 놈을 어딜 가서 만나지.

그웬정도의 외모면 좋고, 옐츠란 정도의 외모면 더더욱 좋겠는데...

사실 던전에서 나오자마자 저 정도 외모의 사람들을 만난다는 건 거의 하늘이 준 기회였다. 하지만 셋 다 대단한 비밀을 가진 양 굴어서 영 꺼림칙했다.

마왕을 죽이러 가는 용사 무리 같은 거면 엮이면 좆 되는 것이다. 왕국 구하기도 지겨운 데 세상 구하기 같은 건 진짜 귀찮다. 이미 엮여본 전적이 있어서 생각만 해도 진저리났다. 나는 평화롭고 안온하게 서로에게 포도나 먹여주는 연애를 하고 싶다. 생사를 넘나들며 끈끈해지는 사랑 말고.

배도 부르겠다 오랜만에 침대에 누웠겠다 가물가물 눈이 감겼다. 워낙에 조용한 시골동네라 제일 시끄러운 소리라곤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장난치는 소리라 잠이 잘 왔다.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마저도 밥 먹으라고 부르는 부모의 목소리에 점차 흩어졌다. 나는 깊은 잠에 든 것처럼 적막에 몸을 맡기고 단잠을 잤다.

얼마간 잤을까 누군가 급하게 삐걱이는 계단을 두 칸씩 밟고 올라오더니 여관이 떠나가라 "그웬!!! 그웬!!!" 하고 외쳤다. 옐츠란의 목소리라서 저 놈이 왜 야단이야.. 싶어서 눈이 확 떠졌다. 옆옆 방의 문이 열리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한 게 분명한 그웬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작게 불러도 다 들려. 왜 소란이야?"

"데블랑이 납치당했어."

"...뭐?"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나는 몸을 일으켜 침대에 앉았다.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 무슨 납치를 당해... 이쪽 끝에서 납치당하면 저쪽 끝에서 보일정도로 작은 것 같은데.

"근처에 로브 파는 곳을 발견하지 못해서.. 좀 멀리까지 갔거든. 의외로 마을이 넓더라고. 나는 건량이나 살까 하고 데블랑이랑 갈라졌는데.. 데블랑이 사라졌어. "

"사라져?"

"아니, 사라진 게 아니라... 근처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누구한테 끌려갔대."

"누구한테 끌려갔는데?"

"그걸 모르니까 납치라고 하지. 마을 사람들도 다 모르는 얼굴이래. 덩치 큰 남자들이라고만 했어."

데블랑이 어떤 이유로 납치당한건진 모르겠지만 확실한건 내 로브도 같이 끌려갔다는 것이다.

보존 마법이 걸려있어 더러워지거나 쉽게 찢어지지는 않겠지만 혹시 모르는 일이다.

나는 내 로브의 안위가 걱정되기 시작했다. 가엾은 로브..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떨고 있는 건 아닐까, 혹은 윤기를 잃은 건 아닌지 자수가 흐트러진 건 아닌지 걱정됐다.

일단 방 안으로 들어가서 마저 이야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는지 두 놈이 방 안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데블랑이 얼굴을 보였는지, 둘 중 한명의 얼굴을 누가 알아봤는지 등 그웬이 캐묻는 말에 옐츠란은 대답하는 소리를 흘려들으며 나는 고민에 빠졌다.

지금 가서 로브를 벗겨 와야 하나?

로브의 위치는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이었다. 로브의 위치만 알 수 있으니 로브를 입은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늦어질수록 데블랑이 죽을 확률도 올라가겠지. 로브에 피가 묻지 않는다 해도 죽은 시체에서 벗겨오는 것보다 이왕이면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벗겨 오는 게 기분이 나았다. 알던 사람이라도 시체가 입던 옷을 입는 건 기분이 더러우니까.

레티시아씨가 로브에 추적마법이 걸려있다 했지?

아 맞다, 맞아 그랬어.

그럼 추적마법으로 어디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하자.

놈들이 얘기하는걸 들으니 조금 있으면 이곳으로 오겠군. 얼마 안 있어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레티시아씨? 그웬입니다.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들어와."

내 허락이 떨어지자 굳은 표정의 두 놈이 방으로 들어왔다. 다 들어서 알고 있음에도 나는 시치미를 뚝 떼고 물었다.

"무슨 일이야?"

그웬이 입을 열어 내가 다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를 설명했다. 로브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거야 어렵지 않지만 그냥 나만 공간이동해 로브만 빼오는 게 더 빠른 길이라 고민됐다. 나는 로브만 필요했기에 데블랑까지 살려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내가 고민하는 기색을 보이자 위험 때문에 망설인다고 생각했는지 옐츠란이 애가 탄 표정으로 말했다.

"그냥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면 돼. 우리가 찾으러 갈 테니까. 로브는 꼭 돌려줄게."

그래주면 더 편하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침대에서 일어섰다.

"따라와."

성보다는 저택에 가까운 소담한 크기, 실용성을 중요시한 외관은 멋없이 자라난 이끼 때문에 얼룩덜룩했다.

나는 지나가는 마을 사람 아무나 잡고 그 건물을 가리키며 물었다.

"저거 무슨 건물이야?"

"영주님 성이잖아."

당연한걸 묻는다는 듯이 대꾸한 마을사람은 내게 잡힌 옷자락을 떼어 내고 다시 자기 갈 길을 갔다.

하긴, 이런 시골 마을에 저 정도 건물이라면 영주 성 밖에 없지.

"영주 성 안에 있는데?"

로브가 있는 위치를 향해 걸어오니 도착지는 영주 성이었다.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 정확히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영주성 안에 있는 것은 확실했다.

내 말에 옐츠란과 그웬의 얼굴이 심각해졌다.

나는 그 심각한 분위기에 끼고 싶지 않아 한걸음 물러서서 담벼락에 핀 꽃이나 구경했다.

납치당했다고 하더니, 데블랑이 영주성에 있다는 건 납치를 지시한 사람이 영주성과 관련 있는 인물이란 이야기였다. 데블랑은 이미 죽고 내 로브만 영주성에 들어간 것일 수도 있지만.사실 그 편이 덜 귀찮기에 나는 그러길 바랐다.

"일단 여관으로 돌아가죠."

벌써 한 패거리인 것 같은 그웬의 말에 기분이 나빠졌다. 어쨌든 여관으로 돌아가려고 한건 맞기에 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냥 이번은 용서해주기로 했다. 데블랑이 죽었을 수도 있으니까.

"영주 성 어디에 있는 거야?"

옐츠란은 여관으로 돌아가면서도 당장에 영주 성으로 쳐들어가고 싶어 하는 태도였다.

걸으면서 계속 뒤를 돌아봐 몇 번 넘어질 뻔했다.

"그건 정확히 몰라. 들어가 봐야 알아."

그웬은 내 말에 찌푸렸던 미간을 더 깊게 찌푸렸다. 옐츠란도 침음을 삼켰다. 나를 데려가지 않는다면 영주성 전체를 뒤져야하니 부담감이 크게 느껴지나 보다.

그래도 한번 왔던 길이라고 여관까지는 금방이었다.

그웬과 옐츠란은 나를 방까지 데려다주고 자기네들끼리 할 얘기가 있다며 자기들 방으로 갔다.

허름한 여관의 방음을 믿지 않아 한껏 소리 낮춰 소곤댔지만 내 귀에는 다 들렸다.

어쩔 수 없어. 저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야 해.

나를 감히 저 여자로 칭하는 목소리는 그웬이었다.

그래도 그웬은 요즘 애들 답지 않게 예의바른 줄 알았는데... 순 내숭이었나 보다. 하긴, 내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다.

영주성에? 뭐 어떻게 들어가려고?

짐까지 달고 몰래 들어가긴 힘들어. 대놓고 들어가야지.

저 짐이 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길 바랐지만 나의 뛰어난 이해력은 짐이 나를 지칭하는 것이 맞다고 알려줬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자식들! 어쨌거나 무능력한 사람 취급 받길 바란 건 나였기에 당장 놈들 방으로 쳐들어가진 않았다.

일단 뭐라고 지껄이는지 들어나보자.

저런 허름한 성을 몰래 들어가는 게 뭐가 어려운지 모르겠다. 나는 놈들이 포기하면 로브만이라도 빼올 생각이었다.

옐츠란은 앓는 소리를 내며 침대에 걸터앉았다. 아마 고민 하는 중일테다.

대놓고 들어간다는 건.. 신분을 밝히고 입성하겠다는 뜻이지?

맞아. 아까 영주 성으로 가면서 보니까 마을 곳곳에 맬렌의 비석이 있더군. 데블랑을 그냥 납치한 게 아니야, 정보를 듣고 계획적으로 납치했어.

영주가 지시했겠군.

그래서 정식으로 입성하겠다는 거야. 영주 입장에선 한 낚싯대에 두 마리 고기를 낚는 건데, 마다할 이유가 없지.

저 여자는? 뭐라고 소개할건데?

데블랑이 없으니 나는 아예 저 여자가 되었군. 나는 낡은 의자에 걸터앉아 소리가 들려오는 벽 쪽을 노려봤다. 세상이 너무 무서워서 가련한 나는 인간기피증에 걸릴 정도다. 앞에서는 상냥하게 굴고 뒤에서는 내 욕을 하다니.엄밀히 말하면 욕은 아니지만 내가 기분 나쁘면 다 욕이다. 조금 있으면 나를 이것저것 이라고 부르겠네.

둘러댈 말이야 많아.

그웬의 말에 옐츠란이 한숨을 쉬었다.

그래, 그게 문제가 아니지. 들어가서 어떻게 나올 건지가 문제지.

천이 스치는 소리, 종이가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웬이 뭔가를 꺼내 옐츠란에게 보여준 것 같았다.

네가 거점 스크롤을 가지고 있어. 내가 여자와 함께 들어갈 테니까. 데블랑을 찾으면 귀환스크롤을 찢을게.

거점스크롤과 귀환스크롤은 두개가 있어야 완성되는 마법 스크롤 이였다. 귀환스크롤을 찢으면 거점스크롤을 가진 사람의 위치로 이동하는 이동마법이 담긴 스크롤인데, 간단한 마법임에도 불구하고 유용해서 비쌌다. 나와 그웬, 데블랑까지 세명을 옮기려면 만만치 않은 가격일 텐데 예상은 했지만 역시 귀족 중에서도 꽤 높은 신분 같았다. 거기다가 옐츠란은 결국 이동마법조차 시전 못하는 마법사라는 뜻이기도 했다. 마나의 언어로 마법을 사용하면서 불 피우는 간단한 마법밖에 못 하다니, 요란한 빈 수레 같군.

잠깐의 침묵이 지난 뒤에 옐츠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아서 반대하진 않을 거지만, 저 여자를 데리고 성에 들어간다는 건 무고한 사람을 우리 일에 끼워 넣는 거야.

왜 무고해? 로브를 찾아서 지옥 끝까지 쫓아가겠다하던걸.

로브보단 목숨이 값지잖아.

그웬이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다. 얼굴을 볼 수 없어 짐작밖에 못하지만 지금의 웃음은 그가 여태껏 지었던 온화한 미소와는 다를 거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건데?

성에 같이 들어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설명해야해. 그리고 선택권을 줘야지.

무슨 일인 줄 알면 분명 안 하겠다고 할 걸? 도망이라도 가면 우리 손해잖아.

그럼 무작정 같이 들어가자 하겠다고? 만약 일이 꼬여 네가 붙들리게 되면 데블랑과 너는 살아서 신전으로 넘겨지겠지. 근데 저 여자는...

그게 뭐?

옐츠란이 침대에서 일어섰다. 좁은 보폭으로 걷는 소리가 들리는걸 보니 그웬에게 가까이 다가선 모양이다. 화가 났을까? 옐츠란의 숨이 불규칙적으로 들락날락했다.

어차피 신분도 불확실한 평민 한명 죽는 거잖아. 뭐가 문제야?

그웬은 '저도 너무 잘생겨서 데블랑에게 로브를 빌려줄 수 없어요.' 라고 말하던 때처럼 평 이한 어조였다.

그 날의 표정이 그려질 정도로 닮은 말투인데 내용은 전혀 달랐다.

이 세계에서 귀족으로 태어나고 자란 이들은 다 그웬같은 사고방식이라 딱히 배신감이 들거나 충격 받진 않았다.

내가 보기엔 목숨 값은 똑같은데 귀족들은 자기 심장이 더 무거운줄 안다. 신분제에서 한 번도 벗어나본 적 없는 이 곳 사람에게 귀족과 평민은 같은 인간이 아니다. 귀족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평민은 하나의 부속품일 뿐이다. 그웬의 말대로 신분이 불확실한 평민 하나의 죽음은 문제 될 일도 아니었다.

나도 그 사고방식에 일부 동의한다. 신분제가 없던 세계에서 살던 날들은 너무 멀어져버렸다. 까마득한 옛날보다 손짓으로 사람을 부렸던 최근의 삶이 더 또렷했다. 이 곳으로 넘어와 신분제 때문에 받은 차별의 시간보다 남을 차별한 역사가 더 길기에 그웬의 말에 도덕성 운운하는 것도 웃긴 일이다.

그렇다고 욕하지 못할 이유도 없지. 그게 옳고 상관없이 감히 나까지 싸잡아 소모품 취급하는 건 재수 없다.

겨우 타고난 피로 떵떵거리는 오만함은 당장에 꺾어 줘야 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침대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다. 침대에 한번 드러누우면 불이 나기 전까진 일어나기 힘든 법이다. 난 동네꼬마의 버릇없는 소리까지 엉덩이를 때려줄 만큼 열정 넘치는 사람은 아니어서 다시 침대에 드러누웠다. 그웬을 두들겨 패 가치를 증명하기보다 침대에 누워 있는 게 훨씬 중요하다.

정작 옐츠란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었다.

충격 받은 듯 한참을 대답 없던 옐츠란은 더듬더듬 말했다.

그래도, 나는...난 네가 좀 달라졌을 거라 생각했어. 숲에서 저 여자를 두둔하는 말을 하기에, 평민이라도...아니 레티시아씨만이라도 사람으로 대하는 줄 알았어.

아, 옐츠란..

그웬이 웃음을 참는 듯한, 혹은 옐츠란을 가엾게 여기는 듯 한 목소리로 놈의 이름을 불렀다.

그건 그냥 평민한테 사교계니 하는 소리 늘어놓는 게 우스워서 멈추게 했을 뿐이야. 귀족인 네가 평민에게 친절을 베풀 어도 그 여자는 고마운 줄 모르잖아? 딱 봐도 사교계에 환상을 품고 기웃거리는 천한 것인데, 장단을 맞춰줄 필요는 없지.

옐츠란은 더 깊은 침묵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나는 침대에 누워 무릎을 세워 다리 한쪽을 올린 채로 발을 까딱거렸다. 어째 나보다 옐츠란이 더 분한 거 같군.

데블랑과 옐츠란과 그웬은 같은 환경에서 자랐을 텐데, 같은 나라 출신의 귀족일 테니까 세 놈 다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것 같아서 신기했다. 사실 이 세계에서 정상은 그웬이고 나머지 두 놈은 별종이다.

그나저나 이러는 사이에 데블랑이 죽어도 세 번은 더 죽었겠다.

넌 진짜로 신전에 갔어야 했어.

옐츠란은 여전히 심각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었다. 사람 목숨 파리 목숨으로 아는 그웬보고 왜 신전에 가라하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어쨌거나 그웬은 웃음기가 남아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칭찬으로 듣지.

성에 갈 채비를 하는지 부스럭 거리는 소리, 단검의 날을 확인 하는 소리, 그 외에 모를 소리들이 들리고 그웬이 한숨과 함께 아마도 그를 노려보고 있을 옐츠란을 신랄하게 비꼬았다.

영주가 마음이 바뀌어 데블랑이 위험해질지도 모르는데, 같잖은 도덕심 부릴래? 여자가 도망치면 네가 대신 위치추적을 할거야? 그럴 능력이나 되고?

와, 차라리 때려라.

옐츠란은 그웬이 명백히 사실만 말하자 마땅히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나보다. 놈들은 그대로 방을 나와서 내 방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두 놈 다 낯빛이 굳어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 심각해서 하품이 나올 지경이다. 내가 하품을 하며 침대에 걸터앉자 그웬이 물었다.

"로브를 찾으러 영주성에 들어가실 건가요?"

귀찮아서 관두긴 했지만 감히 나를 죽어도 상관없는 평민 운운한 놈이었기에 얼굴을 보자 부아가 치밀었다. 정말 만의 하나, 아니 일만 경의 하나의 확률로 내가 영주성에서 죽는 다해도 나한텐 의미 없는 한 번의 죽음일 뿐이지만 어쨌거나 재수 없는 건 재수 없는 거였다.

온화해보이던 그웬의 얼굴이 이젠 음흉함으로 똘똘 뭉친 계략가 같아 보였다. 놈에게서 나는 좋은 냄새도 다 소용없다. 역시 사내란 자고로 옐츠란처럼 똑부러지게 생겨야지.

나는 그웬이 짜놓은 판에 심술을 부리고 싶어서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포기하지 뭐 . 영주성이잖아. 어떻게 꺼내?"

내가 그렇게 대답할거라곤 예상 못 했는지 두 놈이 당황해서 눈을 껌뻑 거렸다. 그웬은 당혹에 가까운, 옐츠란은 안도에 가까운 표정이었다.

당황도 잠시, 그웬은 매끄럽게 말을 꺼냈다.

"꺼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시겠어요?"

"아니, 안 할건데."

그웬은 내 대답에 침묵했고 옐츠란은 내가 설득될 것 같지 않자 조급함이 드는지 입을 뗐다.

"그거 되게 아끼는 거라 하지 않았어? 안 찾아도 돼?"

나는 데블랑을 보는 눈길의 반의 반 정도의 관심을 담아 옐츠란을 바라봤다. 한결 따뜻하게 바뀐 눈빛에 내가 이상해보였던지 놈은 약간 떨떠름한 표정이었다.

"왜 돌려 말해? 내 로브를 찾는 게 너희한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 로브를 입은 사람을 찾는게 중요하지. 로브를 위치추적해서 데블랑을 찾으려는 거 아냐?"

나의 명쾌한 정리에 두 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한테 공손히 부탁해야지. 데블랑을 구하러 갈 건데 도와주세요. 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건 내가 특별히 예의범절에 뛰어나서가 아니라 보통 사람이라면 응당 갖추는 예의였다. 놈들은 지금 아쉬운 쪽이 누군지 모르나 본데, 간절한 걸로 따지자면 저쪽이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라다.

내 가르침에 크게 깨우치는 바가 있는지 그웬이 고개를 끄덕였다.

"데블랑을 구하러 갈 건데 도와주세요."

"싫어."

물론 부탁한다고 들어줄 마음은 없다. 하고 싶다고 하고 해달라 해서 해주고, 세상 사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이제 그 정도쯤은 깨우칠 나이도 됐지 않나.

내가 단칼에 거절할 것은 예상 못 했는지 그웬이 드물게 인상을 찌푸렸다. 눈꼬리가 쳐져서 마냥 선하다고만 생각했던 얼굴이 제 옷을 입은 듯 뚜렷해졌다. 온화한 미소를 지을 때 어딘가 거슬린다 생각했는데 꾸며낸 표정이라 그랬군.

"얘기는 들어보고 생각 해줘. 너한테는 로브를 잃어버린 일 정도겠지만 우린 일행이 납치당했다고."

그래, 그 정도의 태도는 되어야지.

옐츠란이 딱 내가 바란 정도의 간절함을 담아 말했기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나도 귀여운 데블랑을 이왕이면 구해주고 싶다. 산 채로 꺼내주고 고맙다고 볼에 뽀뽀라도 받아야지.

"영주 성에 들어 갈 방법이 있어요. 눈치 채셨겠지만, 제가 작위가 있는 귀족이라..."

그웬은 거기까지 말하고 미안한 듯 웃으며 "사정이 있어 말씀을 못 드렸네요." 하고 덧붙였다.

정말 미안한가보다 착각할 정도의 연기라 방금까지 천한 것 운운하는 놈이 맞나 싶었다. 으윽, 난 저런 태도 질색이야. 재수 없어.

"제 신분을 밝히고 정식으로 입성하면 돼요. 데블랑은 아마 오해받아 치안대에 끌려 간 것 같으니까, 영주한테 양해를 구하면 데블랑을 데리고 나올 수 있을 거에요."

이제 보니 거짓말로 책을 쓸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웬이다. 신전이니 목숨이 위험하니 하는 소리를 다 들었는데 놈은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별로 위험한 일이 아니에요." 하고 나에게 설명했다. 옐츠란을 힐끔 보니 묵묵히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다.

"정말 별로 위험한 일은 아닌 거지?"

나는 목자를 따라가는 어린양처럼 순순한 낯을 흉내 내어 놈들을 쳐다봤다. 연기라면 나도 한 연기 하지.

놈들이 따라 잡을 수 없는 세월의 무게가 있다. 그웬이 태어나면서부터 연기했다해도 이십 몇년쯤, 나는 이백년은 넘게 연기했으니까 비교할 거리도 아니다.

"네, 정말 위험하진 않아요. 가서 저녁식사를 대접 받고 저에게 데블랑이 어디 있는지 알려준 뒤에 좋은 방에서 하루 푹 쉬고 오는 거에요."

아, 그렇구만.

놈은 들어갈 땐 같이 들어가도 나올 땐 같이 나올 마음이 없는 듯 했다. 평민 운운하더니 거의 일회용 열쇠처럼 생각하는군.

옐츠란도 그웬의 말뜻을 알아챘는지 낯빛이 달라져 입을 일자로 꾹 다물고 크게 숨을 내쉬었다.

마지막 기회야.

나는 놈들의 얼굴을 생각해서 너그롭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줬다. 이번 기회도 걷어찬다면 데블랑에겐 안타깝지만 나는 로브만 찾아 사라질 생각이었다.

"정말이야?"

"네."

그웬은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 웃음기 섞인 대답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방 안에 진득한 침묵이 흘렀다. 끈적한 꿀을 손가락으로 뜨는 감촉처럼 아주 느리고 기분 나쁜 찰나가 지났다.

옐츠란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소리가 들렸다. 놈은 숨을 잠시 멈추더니 나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사실 아니야."

고민이 섞인 낮은 목소리에 나는 만족의 미소를 지었다. 귀여운 소년을 간접 살인 할 뻔 했네. 그렇게 되지 않아서 다행이야.

그웬의 눈가에 낭패가 스치고 빈 자리에 분노가 들어찼다. 한시가 급한 때에 옐츠란이 모든 걸 망쳤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나는 무력함을 드러내는 것들에게 자비로웠다. 소년의 사랑스러움을 간직한 데블랑을 귀여워하는 것처럼, 한계를 인정하고 몸을 낮추는 이들에겐 변덕의 동정심을 베풀었다.

아, 나라는 사람은 어쩜 심성도 이렇게 고운지... 모자란 구석이 없다.

" 이건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일이야. 우린 쫓기고 있고, 영주는 우리를 쫓는 세력에 속한 사람이야. 성에 들어갈 땐 정문으로 들어가겠지만 데블랑을 찾아 나올 땐 몰래 나와야 해."

그웬이 고개를 돌려 옐츠란을 책망의 눈길로 봤다. 하지만 놈은 이미 망쳐버린 판을 수습할 마음이 없는듯했다. 그웬이 멱살이라도 잡을까 걱정했는지 옐츠란은 몸을 뒤로 살짝 물리고 긴장하고 있었다.

"그래도 우릴 도와 줄 수 있어?"

"그래."

방금 전까지 단호하게 거절만 반복하던 내가 냉큼 허락하자 두 놈의 표정이 볼만했다. 특히 그웬은 일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자 기껏 깨우친 세상의 이치에 의문을 품는 표정이었다.

선한 사람은 불이익을 받는 세상에서 단숨에 옐츠란의 동화나라에 내팽겨졌으니 그럴 만도 하다.

사실대로 말하고 설득해야 된다 주장했던 옐츠란조차 아니 왜? 라고 되묻고 싶어 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별 다른 걸 묻지 않았다. 자세히 알 수록 깊게 엮일 뿐이니 별로 궁금하지도 않다. 신전과 척을 진 치열한 인생을 사는 건 녀석들이지 내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도 내 로브를 찾아야 하니까 도와줄게."

역시 얼굴은 잘나고 볼 일이다. 놈들을 내가 지금까지 몇 번이나 도와 준거지? 이정도면 내 은혜가 하늘 같으니 나를 우러러봐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놈들은 그저 불경스러운 낯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뿐이야."

"고마워."

옐츠란은 데블랑처럼 이 은혜를 꼭 갚겠다는 둥 요상한 인사법은 하지 않았다. 다만 놈 답지 않게 진중한 눈빛이라 나는 그 감사를 받아주었다.

무급노동, 아니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태도는 당연하지.

그웬도 순순히 고맙다고 인사를 하며 영주성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들어간 이후에 어떻게 데블랑을 찾아 나올 것인지에 대해 알려줬다.

내가 들은 대로의 방법이라 나는 그냥 성의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계획을 설명하는 동안에도 누가 쫓는지 왜 쫓기는지 등의 질문은 하지 않았기에 옐츠란은 아무 것도 묻지 않고 도와주겠다는 내 태도에 감동을 받은 듯 했지만 그웬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관찰했다.

위험한 일이 아니라고 할 땐 몇 번이고 확인하더니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위험하다고 하니 바로 도와주겠다고 나선 게 수상했나보다. 너무 때 마침 등장한 조력자 느낌이라 의심 할만도 했다. 그렇게 날 세우고 의심해봐야 알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을 텐데.

나는 그저 쓸데없는 경계로 심력소모나 하도록 그웬을 내버려 두었다.

떼기 싫은 엉덩이를 침대에서 겨우 일으켰다.

산 너머로 느긋한 해가 넘어가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 했다.

밤이 되면 데블랑을 찾아 성을 빠져나오고 달 밝은 새벽에 바삐 달려 다음 마을에 도착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엔 진짜로 놈들과 안녕이다.

세이모어 가문의 그웬 렌츠.

놈의 이름값은 대단했다. 신분을 밝히자마자 문을 지키고 선 기사가 한 명은 남아야 한다는 것도 잊고 둘 다 후다닥 성안으로 뛰어 들어갈 정도였으니.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영주의 환대가 이어지기까지 얼마 걸리지도 않았다. 진짜 기다리고 있던 건 아니라 물 흐르듯 정석대로 진행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영주는 급하게 제일 좋은 옷을 챙겨 입을 만큼 민첩하게 움직인듯했다.

그웬과 영주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나는 팔짱을 낀 채로 누추한 성을 훑어보고 영주의 생김새를 구경했다.

영주는 누굴 납치할 만큼 야망 넘치는 사람처럼 보이진 않았다. 감자 농사나 지으며 감자 수프에 감자구이, 찐 감자를 먹어도 신이시여 일용할 양식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 올릴 만큼 소박하게 생겼다. 아니, 그냥 감자처럼 생겼잖아?

동글 넓적한 머리통에 짧고 몽땅한 키에 누렇게 뜬 얼굴빛은 어딜 봐도 감자였다.

좋은 것만 보고 살아도 모자랄 내 머리는 눈 깜빡하는 사이에 자꾸 영주 얼굴을 까먹었다. 눈을 감았다 뜰 때마다 처음 보는 인간감자가 있어서 내 기분은 더러워졌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이 아름다운 숙녀분을 소개받을 기회를 잊고 있었다니.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소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까 전부터 아이고만 여덟 번 이상 하던데 저렇게 앓다가 아주 죽겠군. 나는 감자랑 말하는 재주는 없으니 감자어 능통자인 그웬이 알아서 통역해주겠거니 하고 삐딱하게 서서 잠자코 있었다.

"여행 중에 만난 릴리스양일세. 황홀한 꿈을 선사해주는 나의 밤 친구지."

그웬은 내 손을 잡아끌어 손등에 입 맞췄다. 잠자리를 같이하는 사람이라는 직설적 뜻에 영주의 얼굴이 감자조림처럼 불그죽죽해졌다.

나는 놈을 여전히 고깝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웬의 옷에 손등을 아무렇게나 비벼 닦았다. 딱딱하게 나를 쳐다보는 눈동자는 협조를 바라고 있었지만, 데블랑을 구하는 걸 도와주겠다고 했지 소꿉장난까지 같이 해주겠다고 말한 적 없다.

"하하, 무언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신가 보군요!"

감자는 어린아이 재롱이라도 보듯 웃었다.

어쨌거나 영주는 그웬을 죄인처럼 다뤄 세이모어 가문과 척을 지기는 싫은 모양이었다. 언제 돌변할지는 몰라도 아직까진 손님 대접을 착실히 해주고 있었다. 그웬도 데블랑에 관한 얘기를 꺼내지 않고 적당히 어울려주고 있었다.

사람을 숨겨놓거나 사람을 찾는 놈들로 보이지 않았지만, 데블랑은 확실히 여기에 있었다.

영주는 평상심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손수건으로 자주 목덜미의 땀을 훔쳤고 대화가 끊길 때쯤이면 긴장해서 바깥의 소리를 살폈다. 불안해하는 감자라... 영 웃긴 조합이다.

나는 두 놈이 떠들 건 말 건 적당한 의자를 찾아 앉았다. 둘 다 대화를 멈추고 당황한 얼굴로 나를 쳐다봤다.

"...하하…! 아이고, 대화가 너무 길어졌던 모양이군요! 방으로 안내해드리지요. 부디 거리낌 없이 편히 지내십시오. 저녁을 준비하라 일렀으니 준비가 다 되는 대로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영주가 당황해서 말을 마무리하며 하인들에게 안내를 지시했고 나는 그웬이 에스코트하듯 뻗는 손을 무시하고 일어섰다.

그웬은 내 행동에 대해 뭐라 지적하고 싶은 모양이었지만 제가 뭐라고 내 행동을 지적한단 말인가. 놈은 그냥 한숨을 내쉴 뿐이었다.

하인들은 영주의 지시로 나와 그웬의 방을 따로 준비했지만 같은 방에서 묵겠다는 그웬의 말을 거부할 순 없었다. 어차피 우린 이 성에서 밤을 지내지 않고 탈출할 생각이라 같이 있는 게 당연했다. 하지만 그런 사정을 알 길 없는 하인들은 다른 방에 준비해 두었던 내 옷가지들을 꺼내면서 나한테만 들릴 정도의 소리로 한참을 투덜댔다.

요즘은 춥지도 덥지도 않은 쾌적한 날씨였지만 회색 돌로 무식하게 지어진 영주 성은 숲속의 밤만큼 서늘한 공기가 돌았다. 그 때문에 손님방은 미리 지펴둔 벽난로 때문에 추레하지만 제법 아늑해 보였다.

이런 깡 시골에 손님방을 내어줄 만한 사람이 올 리는 없으니 오래 비워둔 티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벽 한쪽에는 따스한 봄날 정원을 배경으로 여러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짠 태피스트리가 먼지 때문에 색이 바래 있었다. 나는 가까이가 그림을 구경하며 중앙에 선 얼굴이 비워진 남자의 몸을 가리켰다.

"얜 누구야?"

그웬은 나를 나침반쯤으로 생각하고 아예 독단적으로 움직이기로 마음먹은 듯했다. 방으로 들어와선 내 쪽으론 신경도 안 쓰고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태피스트리를 보더니 이상하다는 어조로 나에게 되물었다.

"당연히 맬런이지 않습니까?"

아까 놈들이 여관에서 맬런의 비석이 어쩌고 했고 하인들도 저 쪽방에서 맬런이 알면 노할 일이라고 투덜거리는 것을 들었다. 갑자기 자주 등장하는 이름인데 맬런이 누구기에 다들 아는 것 같지. 신이나 되나.

나는 그림을 찬찬히 살피다가 깨달았다. 아 신이 맞구나. 예나 지금이나 종교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신을 이름으로 불러대면 알 턱이 없었다. 그나마 하느님 이런 건 직관적이라 알기 쉬운데.

맬런의 비석이 마을 곳곳에 있다는 말의 의미는 영주가 맬런의 열성적인 신자라는 뜻이었다.

간이 작아 보이는 영주가 데블랑을 납치한 이유도 납득이 갔다. 신전이랑 연관된 일이니 신앙심으로 발 벗고 나섰겠지.

그웬은 내가 맬런이란 이름을 듣고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눈치채지 못한 걸 알아챘지만 별다른 설명은 해주지 않았다. 옐츠란이 있었다면 편했을 텐데 아쉽군.

나는 의미 없이 벽난로 위의 조각들이것도 종교와 관련된 조각이겠지.을 모조리 쓰러트린 뒤에 침대로 가서 누웠다. 음, 여관의 침대보다 훨씬 낫군. 당연하겠지만.

그웬은 침대로 가까이 와 나를 질린다는 눈빛으로 내려다보면서 조용히 당부했다.

"곧 있으면 영주가 저녁 식사를 대접할 텐데, 식사 예절은 신경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안 됩니다. 독이 들어있을지도 모르니 내가 먹는 음식을 잘 지켜보고 따라서 소량씩 드십시오."

흠흠, 역시 이불은 오리털 이불이다.

이런 시골에선 보기 힘든 고급품이어서 나는 슬쩍 주머니를 열어 이불을 마구잡이로 쑤셔 넣었다.

"...저녁 식사 후에 잠자리에 드는 척하며 하인들을 다 물리고 일을 시작할 겁니다."

나는 베개도 팡팡 두드려보았다. 역시나 이불이랑 같이 맞춘 베개가 맞다. 만족스러운 부드러움에 나는 베개도 주머니로 쑤셔 넣었다.

"그 이후론 제 곁에서 딱 붙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보고도 몰라? 도둑질하고 있잖아."

그웬이 잇새로 하, 하고 숨을 내뱉었다.

"몰라서 묻는 소리 같습니까?"

"그럼 알면서 왜 물어."

놈은 턱을 꽉 조인 채 인상을 찌푸리며 손바닥으로 눈을 가렸다.

길게 내쉬는 숨에 분이 가득 차 있었다.

젊은 놈이 벌써 성질이 고약해서야, 마음 좀 곱게 써라, 외모의 반만큼이라도.

"뭐 어때. 네 것도 아니잖아, 아니면 너도 가지고 싶어?"

내 주머니의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채워졌다. 어차피 자원은 돌고 도는 법. 시간 지나면 네 것이 내 거가 될 수도 있으니 시기를 앞당겨줬을 뿐이다.

그웬은 침묵을 지켰지만, 눈빛으로 답을 대신했다.

천박한 것. 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 마음껏 생각해라. 다음 마을도 시골 마을 수준에서 못 벗어 날 텐데 여관 침대이야 거기서 거기일 테니 이불이라도 포근해야 잘 잔다.

아니, 잠깐... 침대를 넣어 가면 어떨까? 침대도 들어가려나?

나는 처음 해보는 생각의 기발함에 깜짝 놀라서 굳었다. 원래 나는 잠자리를 크게 따지지 않는 데다가 혼자 다닐 땐 순간이동으로 큰 도시만 거치기에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나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번 깊은 잠 이후에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그러다 보니 좋은 침대, 좋은 이불, 좋은 베개가 눈에 들어왔다.

차분히 침대 너비를 보며 주머니에 넣을 각을 재고 있는데 바깥에서 하인이 문을 두드렸다. 식사 준비가 다 되었으니 나오라는 의미였다.

역시 침대는 꺼냈을 때 놓기 애매하니까 관두자.

그웬은 방에서 나서기 전 나에게 작게 경고했다.

"눈에 띄는 짓은 삼가세요."

그렇게 노려봐도 하나도 아프지 않다. 진짜 사람을 죽이려면 찔러 죽일 듯한 눈빛이 아니라 실제로 찔러야지.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다. 진지한 놈들을 놀리는 건 언제나 재밌다.

그웬이 당부했다고 해서 지키란 법은 없다.

놈은 독을 넣기 힘든 과일이나 소스가 뿌려지지 않은 샐러드, 그리고 영주를 따라 먹는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교묘하게 영주가 손댔던 음식을 소량씩 먹었다.

반면에, 나는 상에 차려진 음식은 전부 한 숟가락씩 맛보려는 듯이 마구잡이로 음식을 헤집어 먹었다.

음식이 차례로 나오지 않고 한 식탁에 다 차려 먹는 방식조차 시골 마을다운 구식이었다. 그렇다고 식사 예절까지 그런 건 아니라 두 놈은 이따금 대화를 나누던 것도 잊고 나를 쳐다봤다.

내가 양손에 닭 다리 하나씩 쥐고 뜯었을 땐 영주의 얼굴은 거의 치즈가 엉겨 붙은 감자처럼 변했다. 내 식사 예절 때문일까 닭 다리 두 개 다 내가 먹어서일까? 그웬은 티를 내지 않았지만, 분노에 찬 눈동자로 가끔 나를 쏘아봤다.

어차피 나는 수백 년간 독이 들지 않는 몸으로 진화해서 어떤 독이든 내겐 조미료 수준이었다. 그 때문에 마약이 들지 않는 일은 안타깝지만, 독을 두려워하면서 음식을 가려 먹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았다.

보통 손님이 오면 식사자리에 온 가족이 다 나와야 하는데 감자만 나온 거로 봐서 손님 대접하는 척하지만 그웬을 무시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걸 아는 그웬도 왜 음식을 먹지 않냐는 질문을 간신히 면할 정도로만 깨작깨작 먹었다.

둘이서 무슨 기 싸움을 하든 어쨌거나 나는 배가 부르다. 주방장 솜씨가 썩 좋진 않았지만 못 먹을 정도는 아니어서 나는 특별한 조리법을 요구하지 않는 음식 위주로 배를 채웠다.

기름이 묻어 번들거리는 손을 대충 식탁보에 문지르니 영주가 하던 말을 잊고 아이고... 하고 중얼거렸다.

"난 먼저 들어가도 되지?"

내 자유로운 언어습관이 영주 앞이라고 구속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웬도 그걸 빨리 알아챈 모양인지 내 반말이 영주에게 향했다고 영주가 느끼지 못하도록 빠르게 대답했다.

"릴리스, 많이 피곤한 거야?"

"배불러."

나는 배부르면 누워야 하는 매우 생산적인 습관이 있었다. 의자에 앉아있는 지금도 계속 방만하게 몸이 늘어졌다.

어차피 영주가 예를 차리지 않으니 그웬도 그럴 마음이 사라진 건지 피곤해서 먼저 일어나보겠다고 통보했다.

영주는 헛기침을 큼큼하더니 간신히 "들어가 보세요." 하고 자신이 허락한 듯한 모양새를 했다.

하인이 안내해주는 대로 빠르게 왔던 길을 되짚어 방에 들어오자마자 그웬은 쿵 소리 나게 문을 닫았다.

놈은 거칠게 머리를 쓸어올리더니 단어 하나하나를 씹어 뱉는 것처럼 말했다.

"음식에 독이라도 들어있으면 어쩌려고 했습니까?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요? 내가 분명 음식 먹는 것을 조심해라 말했잖아요."

나는 빠른 걸음으로 걸어 냉큼 침대 위에 누웠다. 아, 살 것 같다. 좋은 습관을 오늘도 무사히 지켜냈다.

배가 부른 데다가 편한 자세를 취하니 마음이 좀 너그러워졌기에 나는 적당히 사실을 놈에게 말해주었다.

"괜찮아, 나는 독이 안 통하거든."

"마법 물품을 너무 맹신하는 것도 안 좋아요. 모든 독을 막아주진 못합니다."

내 주장의 근거를 마법 물품에서 찾은 모양이지만, 어쨌거나 내 행동을 이해해서 그웬은 점차 분노를 잠재우고 짜증이 남은 태도를 보였다.

창밖을 보니 벌써 어둠이 짙게 장막을 드리웠다.

나는 침대에 몸을 기대앉은 채로 침대마저 구식이다. 눕지 않고 기대어 자는 침대라니! 오십 년 전쯤에 다 사라진 거로 알고 있었는데 바깥을 살피는 그웬에게 말했다.

"지하에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그웬의 눈동자가 아래로 향했다가 다시 날 쳐다봤다.

"네가 발 디디고 서 있는 그쯤? 아니 그거보다 좀 더 오른쪽이겠다."

복도에 사람 인기척은 넷 정도 된다.

방에 들어오면서 이제 잠자리에 들 거라고 하인들은 다 보냈는데 아직 네 명이 남아있는 걸 보면 방을 지키고 선 기사만 네 명이란 소리였다. 아니, 지키는 게 아니라 감시하는 거지. 그웬의 실력을 봤을 때 네 명으로 감시하는 건 터무니없지만 기사들을 죽이거나 제압했다간 데블랑을 찾기 전에 도망친 게 들킬 수도 있었다. 기사들은 교대근무를 할 테니, 혹은 오가는 하인들이 기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거나 시체가 널려있다면 영주에게 이를 수도 있고.

우리는 계획대로 창문을 통해 벽을 타고 내려갈 준비를 했다.

이런 오래된 성은 배뇨시설마저 구식이기에간단히 말하면 그냥 창문 밖으로 똥오줌을 버렸다. 성벽엔 그렇게 버려진 똥오줌이 무늬처럼 말라붙어있었다.

벽을 밟고 내려간다는 건 썩 탐탁지 않았지만 나는 그웬을 위해 마나를 낭비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웬은 나는 재주가 없으니 어쩔 수 없었다.

어차피 모든 사람이 잠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불가능했다. 오늘 밤엔 영주도 잠들지 않을 것이다. 그웬은 잡으려 성의 기사들을 총동원해 준비시키고 있을 테니까. 더 깊은 밤까지 기다린다는 건 그들에게 준비하라고 부추기는 꼴이었으므로 그웬은 곧장 고프르를 밟고 올라서서 드러난 대들보에 챙겨온 밧줄을 묶었다.

침대는 크고 푸근하긴 했지만, 방의 한가운데 있었고 기둥으로 쓰는 나무는 오래되어 삭았을 테니 좋은 선택이었다. 놈은 밧줄이 제대로 묶였는지 확인하고 밑을 내려다 봤다.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안 되면 나랑 같이 내려가고."

"같이?"

그웬은 등을 가리키며 업는 시늉을 했다. 흥미로운 제안이긴 했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불편할 것이기 때문에 고개를 저었다. 나는 데블랑의 목이 제자리에 붙어 있을 때 구하고 싶었다.

그웬은 한 번 더 권하지 않고 곧장 밧줄을 타고 내려갔다. 젖먹이일 때부터 침대에서 밧줄을 타는 걸 연습했나 싶을 정도로 빠른 속도였다. 순식간에 4층 높이의 건물에서 내려간 그웬이 밧줄을 두 번 잡아당겼다. 미리 얘기한 대로 안전하니 내려오라는 뜻이었다.

기대앉을 수 있도록 넓게 만든 창틀에 무릎을 올리니 미지근한 바람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기며 지나갔다. 비록 성벽에선 똥내가 나지만 이 바람은 저 멀리 내 집 앞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 상쾌했다. 짙은 어둠이 땅에 가깝게 가라앉아있었다. 하인들이 부지런히 피워놓은 횃불 빛이 드문드문 보였지만 그웬이 서 있는 자리까지 밝히기엔 역부족이었기에 그웬은 어둠 속에 잠잠히 묻혀 있었다. 하지만 밝고 어두운 것을 가리지 않는 내 눈엔 초조하게 인상을 찌푸리는 얼굴이 보였다.

나는 창틀을 짚고 훌쩍 뛰어내렸다. 거칠게 파바바박 내 귀를 쏠 것처럼 공기가 비명을 질렀다. 로브 자락이 크게 부풀어 오르고 머리카락이 마구 나부끼는 것이 느껴졌다. 내 근육의 힘과 마법을 적절히 조합해 고양이처럼 소리 없는 착지를 했다. 그웬은 내 우아함에 감명을 받았는지, 예측할 수 없는 내 행동에 놀랐는지 얼이 빠진 표정이었다.

내가 타고 내려오기 쉽도록 한쪽 발은 성벽을 딛고 밧줄을 단단히 쥐고 서 있던 놈은 스르륵 밧줄을 놓쳤다.

"너 뭐야..."

정말 한결같은 반응이군.

사람들은 나의 우월함을 목격하면 너 누구야 당신 정체가 뭐야 하는 말부터 시작했다. 차라리 괴물이다! 하고 도망을 치는 편이 덜 번거로웠다.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대답하지 않고 지루하다는 표정을 짓자 그웬은 거칠게 내 어깨를 꽉 잡았다.

"정체가 뭐야."

이 말까지 나올 줄 알았다.

능력 덕에 인간의 신체 이상으로 단단해진 몸이라 잡힌 어깨가 아프지는 않았지만, 기분은 더러웠기에 그웬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예상치 못한 악력에 놈이 작은 신음과 함께 얼굴을 일그러트렸다.

"버릇없게 굴지 마."

놈은 아픔을 견디기 위해 밭은 숨을 내쉬면서도 나를 맹렬히 노려봤다. 이렇게 실랑이할 시간이 없을 텐데 왜 멍청한 놈이랑 다니는가 했더니 그웬도 옐츠란과 비슷한 구석이 있다. 나는 그웬을 가까이 끌어당겨 속삭였다.

"내가 너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으니 너도 아무것도 묻지 말아야지. 그게 공평하잖아. 안 그래?"

그웬은 잠깐 사이에 내 손아귀에서 빠져나가더니 한걸음 떨어져서 섰다. 여전히 의심 가득한 얼굴이지만 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성의 경비는 나름 신경 썼지만 애초에 적은 경비병 수 때문에 허술했다. 게다가 경비병들은 자리를 지키고 선 게 아니라 성을 돌아다니면서 수상한 것이 없나 감시했으므로 자주 경비가 비는 틈이 생겼다.

잠깐의 공백은 우리가 뚫고 지나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나는 그웬의 뒤를 바짝 쫓으며 놈이 틀린 길로 들 때마다 제대로 방향을 짚어주는 역할만 했다. 그웬은 집중해서 기척을 읽어내면서도 나를 가끔 복잡한 눈빛으로 쳐다봤다.

나는 모르는 체 하며 긴장해서 잔뜩 배어나오는 놈의 기운의 향기를 맡았다. 성에 몰래 숨어든 건지 숲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데블랑이 정확히는 로브가 있는 곳에 가까워지자 무장한 기사들이 바글바글 대서 더 이상은 몰래 다니기 어려워졌다.

더군다나 영주는 머리를 제법 썼는지 지하니까 당연히 어둡고 음습한 지하 감옥 일거라 생각했는데, 탁 트인 홀에 옛날에 물 항아리를 저장하던 곳인가 보다. 데블랑을 가두어 우리는 일단 근처 방에 숨어 있는 중이었다.

"정면 돌파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들어온 곳은 마른 식자재를 쌓아둔 창고였고 바깥으론 여전히 열심히 순찰을 도는 놈들의 발걸음 소리가 간간히 들렸으므로 그웬은 내게 바짝 붙어서 거의 바람처럼 속삭였다.

오래된 성의 건축 양식으로 보건데 일단 홀로 들어가면 오래된 수로처럼 이어진 길이 여러 군데일 테니 빠져나오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적당히 좁은 길을 선택해 반대편에서 적들이 몰려오기 전, 스크롤을 발동시키면 됐다.

하지만 홀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는 무방비상태로 적에게 노출되는데다가 데블랑이 아직 놈들 손아귀에 있다는 점이 문제였다. 물론 첫 번째 문제는 내가 보기엔 별로 걱정거리는 아니었다. 홀의 기척은 여덟명 정도, 그웬의 실력이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였다.

두번째도 큰 문제는 아니다. 그웬과 옐츠란의 말에 따르면 영주는 절대 데블랑을 죽일 수 없다고 했다. 어떻게 절대라고 호언장담하는지 몰라 나는 그 말을 믿지 않기로 했다.

그웬이 긴장한 표정을 짓는 건 나를 지키면서 적을 상대해야한다는 부담감 때문이었다. 그웬이라 할지라도 사방을 동시에 방어 하는 건 불가능하다. 적에게 둘러싸이기라도 한다면 나에게 쏟아지는 공격은 막아주지 못했다. 나를 상처 하나 없이 지키겠다는 마음보다 짐 덩어리 데리고 달려야한다니.. 하는 마음이 더 큰 게 보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웬은 검을 소리 없이 빼어들었다. 제법 좋은 검이었다. 그 검을 보니 내 검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나도 검을 빼어들었다.

"검을 쓸 줄 아세요?"

"아니, 검 멋있지?"

그웬은 잠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서 있다가 반응하길 포기했다. 놈은 내가 기껏 뽑은 검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 휘두를 생각 말고 그냥 들고만 있으라고 말했다.

어차피 나도 휘두를 생각은 없었다. 나는 어쩌다 휘말린 가련한 사람일 뿐이니 어떻게 잔악무도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는가?

물론 그웬이 레티시아님! 부디 이 천한 것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는다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

나는 단순히 심술을 부리는 것뿐이니까.

그웬은 복도의 기척을 살피다가 소리 없이 문을 열어 주변을 살핀 뒤에 나에게 나오라고 손짓했다. 나는 검을 나무막대기처럼 성의 없이 쥔 채로 놈의 뒤로 붙었다. 모퉁이만 돌면 홀의 입구를 지키고 선 기사들과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기사들은 다행히 부딪치면 거창한 소리가 나는 갑옷이 아닌 가벼운 체인메일을 상의만 입고 있었다.

그웬은 나에게 잠깐 기다리라는 손짓을 한 뒤 그야말로 바람처럼 달렸다. 놈은 큰 발소리도 내지 않고 순식간에 기사들에게 달려들더니 한 놈의 목을 베고 다른 한 놈이 놀라 소리를 지르기도 전에 검의 궤적을 이어 목을 날렸다. 그웬은 쓰러지는 두 개의 몸뚱이를 받쳐들어 큰 소리가 나지 않게 눕힌 뒤 내게 나오라고 손짓했다.

나는 깔끔한 단면으로 잘린 목을 보며 감탄했다. 생각보다 더 실력이 좋군.

물론 이만큼 깔끔하게 잘린 건 그웬이 표면에 마법 처리한 검을 쓰는 이유도 한몫했지만 어쨌거나 좋은 검이 좋은 주인을 만나 이뤄낸 결과였다.

그웬은 피를 뒤집어 쓴 채 곧바로 홀의 문을 열었고 육중한 문은 불길하게 울부짖으며 존재를 과시했다.

그 소리에 홀 안에 있던 자들의 시선이 전부 이 쪽으로 쏠렸다. 순식간에 긴장의 기운이 쫙 퍼졌다. 그웬은 빠르게 홀 내부를 훑어 안의 상황을 파악하고 제일 가까운 자에게 달려들었다. 놈은 어정쩡하게 검을 빼어들던 상태로 목이 날아갔다.

"누구냐!"

홀에는 기사들이 통로를 지키느라고 넓게 떨어져 서있어 입구에서처럼 기습으로 당황한 틈을 타 모두를 죽이기엔 역부족 이였다. 그웬은 한 놈을 죽인 뒤에 빠르게 뒤로 물러나 내 앞에 다시 섰다.

홀은 생각보다 넓지 않았다. 힘껏 뛴 그웬의 걸음으로 사십 걸음 정도 될 크기였다. 홀의 중앙엔 놀란 표정의 데블랑이 내 반가운로브를 입은 채로 의자에 묶여 앉아있었고 그 양 옆으로 둘, 왼 편에 이어진 세 개의 길에 셋, 그리고 오른편에 이어진 길에 둘. 총 일곱의 기사가 있었다. 스르릉, 일제히 검을 뽑는 소리가 홀에 가득 울렸다.

"그웬 렌츠 세이모어..."

누군가 그웬을 알아본 모양인지 앓는 소리로 이름을 불렀다. 그웬의 유명세가 대단한지 기사들 사이로 소리 없는 동요가 퍼졌다. 적들은 이쪽에 검을 겨눈 채로 주춤주춤 데블랑의 곁으로 모여들었다.

기사들이 머뭇거리는 것처럼 그웬도 뒤에 선 나 때문에 쉽사리 뛰어들지 못했다. 적들이 먼저 달려들어야 오는 놈들 하나씩 처리 할 텐데 아무도 나서지 않아 의미 없는 대치만 계속 됐다. 시간을 길게 끌수록 불리한건 우리 쪽이라 그웬은 검을 다잡더니 체스판 위의 룩처럼 앞으로 진격했다. 그웬이 위에서 아래로 크게 휘두른 검을 기사 하나가 받아내다가 자세가 무너졌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없었다. 두 합만에 다시금 기사의 목이 날아갔다.

살벌할 정도로 압도적인 실력 차에 기사들은 재빠르게 판단했다. 한명씩 덤벼봐야 승산이 없으니 한꺼번에 달려들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여기저기서 칼이 달려 들자 그웬도 아까처럼 시원하게 목을 댕겅댕겅 날리지는 못했다. 채앵 챙. 검이 지르는 비명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웬은 적의 수를 줄이기보다 데블랑에게 가까이 다가가는데 힘을 쏟기로 한 모양이다. 기사들이 물러 선 걸음만큼 착실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어느새 데블랑과의 거리가 지척이었고 그웬은 기사 한 놈의 검을 받으면서 한쪽으로 무게를 실어 빙글, 눈 깜짝 할 사이에 기사와 자리를 바꿨다. 이젠 그웬이 등 뒤에 데블랑을 두고 기사들이 나를 등 뒤에 두고 섰다.

그웬과 검을 주고받으면서 여기저기 베인 기사들의 숨이 거칠었다. 반면에 그웬은 적들과 비교하면 차분한 숨이라 기사들이 괴물을 보는 듯 한 표정으로 그웬을 쳐다봤다.

아니, 그나저나 나는...?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건가? 왜 없는 사람 취급하지?

어이가 없군.

나를 빼놓고 어쨌거나 자기들끼리 심각했다.

그웬은 아주 천천히 뒤로 걸었다. 그웬이 물러선 만큼 기사들은 앞으로 전진 했고 그웬은 여전히 먹이를 노리는 짐승 같은 눈빛을 기사들에게서 떼지 않은 채 솜씨 좋게 데블랑을 묶고 있는 밧줄을 잘랐다.

데블랑은 의자에서 일어서더니 의자를 발로 걷어차 기사 쪽으로 날렸다. 옷은 그대로 입고 있었지만 무장은 해제 당했는지 그웬이 넘겨주는 단검보다 조금 긴 검을 빼들었다. 걱정을 담은 데블랑의 눈초리가 힐끔, 나를 향했다.

데블랑만 나를 볼 수 있나봐...귀신이 된 듯 한 기분을 숨길 수가 없었다.

그대로 버리고 갈 줄 알았는데 데블랑을 무장시키는 거보니 나를 다시 데리고 갈 모양인가.

기사들은 그웬이 이동스크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니 놈들이 다시 전투태세를 하는 게 도주로를 뚫으려는 줄 알고 U자 형태로 넓게 둘러쌌다.

그러나 그웬과 데블랑은 나와 다시 합류하기 위해 자세를 잡는 것이었으므로 앞을 뚫기 쉽게 적들이 분산되자 눈을 빛냈다.

그웬이 다시 뛰어들기로 마음먹은 사이 아까 전부터 땅을 울리던 소리가 바로 지척에서 울렸다. 양 옆의 통로에서 무장된 인원이 우루루 쏟아졌다. 아니, 우루루 라고 하기엔 좀 민망한 인원이군. 이런 시골에 영주성의 병력이란 죄다 끌어 모아도 40명이 채 안됐다. 그래도 몬스터가 나오는 숲이 지척이라 마을의 전체 인구수가 대략 200명 정도인걸 감안하면 전투가능인원의 비율은 높은 셈이다.

그웬의 얼굴에 낭패감이 흘렀다. 왜 기사 놈들이 나를 안 보이는 것처럼 무시하나 싶었는데 어차피 곧 있으면 지원 병력이 올 테니 딱 봐도 약해보이는 나는 일단 놔둔건가보다.

나는 편하게 팔짱을 끼고 칼은 밑으로 늘어트린 채로 잡고 있다가 수십 개의 눈초리가 나를 향하자 하품을 쩍 했다. 그웬이 내 기품 넘치는 태도를 보고 마음을 정했는지 데블랑의 팔을 잡았다.

"빠져 나가자."

역시 나를 두고 가려는 게 맞았어!

데블랑이 혼란이 가득 찬 표정을 짓자 그웬이 데블랑의 귀에 이동스크롤이 있다고 속삭였다. 데블랑은 고개를 저었다.

"레티시아씨를 두고 갈 순 없어."

데블랑의 입에서 내 이름이 나온 순간 영주가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다.

"저 여자부터 잡아라!"

우리 사이에서 대치중이던 기사가 빙글 몸을 돌려 나에게 달려들자 그웬이 혀를 차면서 버릇없는 놈! 등을 보인 적을 가차 없이 베었다. 그 뒤를 데블랑이 바짝 붙어 그웬의 뒤를 엄호하고 기사들이 앞 다투어 검을 내질렀다. 영주가 데리고 온 병사 열 몇도 거기에 엉켜들어 전투는 금세 난잡해졌지만 나는 아까처럼 팔짱을 끼고 구경할 수 없었다. 영주의 말을 착실하게 듣는 병사들이 내게로도 뛰어 들어왔기 때문이다.

나를 두고 가려한 그웬 때문에 눈곱만큼도 도움이 되긴 싫지만, 나는 내 앞에서 날카로운 것들을 들고 얼쩡거리는 놈들을 혐오했다. 특히 검 끝을 내게로 겨누는 일에 아주 예민했는데, 얼마나 예민했냐면 마법으로 손목을 날려줄 만큼 예민했다.

내가 검을 들고 서있어 마법을 쓸 거라고 예상 못했는지 폭발이 일어나자 놀란 적들이 으아악 소리를 지르며 한참 물러섰다.

마법사다! 마법사야! 병사들의 외침에 영주가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마법사가 왜 검을 들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멍청한 거 아냐? 당연히 검을 자랑하기 위해서지.

이렇게 잘 빠진 검을 자기들한테 써줄 것이라 생각하다니, 주제파악 좀 했으면 좋겠다.

그웬과 데블랑은 내가 마법을 써 혼란이 일어난 사이에 세 명을 더 처리했다. 둘은 내가 마법물품으로 마법을 사용했다 생각하는지 별로 놀란 표정은 아니었다.

그웬이 기사 하나의 다리를 베어 길이 뚫리자 데블랑이 빠르게 내 앞에 섰다. 내가 너무 괜찮아 보이는지 데블랑은 괜찮냐는 물음도 없이 나를 보고 안심한 표정을 했다.

앗, 귀여워. 나는 어쩌면 이 표정을 보기 위해 그웬이 재수 없어도 참고 여기까지 왔는가보다.

데블랑은 나를 지키기 위해 내게 등을 보이고 내 오른편에 비스듬하게 섰고 어느새 온 그웬은 왼편에 비스듬하게 섰다. 음, 말 두 마리가 모는 마차를 탄 기분인걸.

나는 데블랑이 입고 있는 로브를 들춰보며 어디 상한 곳이 없나 확인했다. 무사하네. 피가 묻은 것 정도야 마법으로 씻어낼 수 있다.

"이 상황에서 꼭 로브를 확인해야겠습니까?"

그웬이 짜증이 잔뜩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그럼, 해야지. 제일 중요한 일인걸.

데블랑이 로브가 잡힌 채로 약간 민망한 표정을 하고 그웬이 그걸 보느라 잠깐 주의가 흐트러진 순간이었다.

기사 한 명이 기합과 함께 그웬의 팔을 베려고 칼을 밑에서 위로 올렸다.

보통은 위에서 내려찍기에 예상치 못한 공격이었는지 그웬이 황급히 몸을 틀어 칼끝을 피해내느라 고개까지 뒤로 젖혔다. 그리고 그 순간 스크롤에 담겨져 있던 마나가 진동하며 터져 나왔다.

하필이면 검이 스크롤 있던 자리를 스친 모양이었다. 이동마법이 발동되어 빛이 환하게 쏟아졌다. 그웬이 그 찰나에 데블랑에게 손을 뻗었지만 닿지 못하고 빛 무리에 휩싸여 사라졌다.

그웬이 사라지고 홀에 싸늘한 침묵이 흘렀다.

"하하하!"

침묵을 깨트린 건 갑옷을 챙겨 입은 감자였다. 아니, 영주였다.

"이제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졌군요. 포기하십시오! 왕자님!"

데블랑이 초조한 눈빛으로 주변을 경계하다가 영주를 응시했다. 데블랑이 왕자였단 말이야? 아니, 시발 나는 왜 운이 좆도 없는 거야. 또 거지같이 왕가랑 엮였구만.

"전하께서 저주 받아 총기가 흐려지신 겁니다! 신전으로 돌아가 정화를 받으면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으실 겁니다!"

"그대는 지금 내가 미쳤다고 말하는 건가?"

"당치도 않습니다! 전하께서 맬런님의 교리를 거부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신께서 노하시기 전에 정화를 받으세요!"

자기들끼리 심각하건 말건 나는 자괴감에 빠져들었다. 아아, 난 왜 뽑기만 하면 심각한 일에 휘말리는 거야. 그냥 아버지 머리를 홀라당 태워서 집 나온 귀족 아들 정도면 좀 좋냐고..

"신전으로 돌아가시면 맬런께서 크게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그러면..."

영주의 감자 같은 얼굴에 결의가 굳게 차올라서 조금 고구마 같아 졌다.

"크게 노력한 이 종을 불쌍하게 여기시어 맬런님께서 포텟쿠 숲을 정화시켜주시겠지요."

포텟쿠 숲이면 내 집 앞 숲 말하는 거 아닌가? 그게 왜 여기서 나오지..? 나와 같은 의문이 든 건지 데블랑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포텟쿠 숲의 몬스터가 줄어들면 숄테나도 텔른만큼 번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왕자님께서 꼭 신전으로 돌아가셔야합니다!"

나는 흠, 하고 소리를 냈다. 거 미안하게 됐군.

이 마을이 코딱지만 한 시골동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포켓타 숲에서 나오는 몬스터 때문이었고, 영주는 포켓타 숲에 유독 몬스터가 많은 이유가 신의 은총이 충분치 않아서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있는지도 모를 신의 은총 때문이 아니라 전부 내가 아늑한 잠자리를 위해 손을 써뒀기 때문이었다. 아니 나 때문이라고 하면 어감이 안 좋으니 내 덕분이라고 하자.

그러게 맬런인가 하는 신보다 진작 살아있는 나를 섬겼다면 내가 은총을 베풀어 거처를 옮길 수도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줄을 잘못 탄 영주가 잘못이다.

영주가 일생일대의 사건 앞에서 결의를 다질수록 나는 점점 더 겸연쩍어졌다. 흐음...

병사가 슬금슬금 다가오자 데블랑의 어깨가 긴장으로 단단해졌다.

데블랑은 나를 지키려는 듯 다리를 벌리고 선 채 허리를 세웠지만 내 눈엔 새끼고양이가 털을 부풀리는 것처럼 귀여웠을 뿐이다. 우리를 둘러싼 병사들에게도 위협이 되진 않았는지 더 가까이 다가왔다. 데블랑은 결의가 깊게 베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무래도 도망치는건 불가능할 것 같군요. 투항하고 레티시아씨의 안전은 꼭 보장받겠습니다. 저는 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니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귀찮은 일에 휘말렸다는 생각에 그냥 혼자 도망치려고 했던 나는 미안해졌다. 생각해보니 하나나 둘이나 도망치는건 똑같으니까 같이 도망쳐야겠다.

어디보자.. 나는 감각을 개방해 그웬의 기운이 있는 곳을 더듬었다. 마을 외곽쯤이군.

데블랑의 목을 끌어안자 깜짝 놀라 몸을 움츠리는 것을 느끼며 나는 그웬이 있는 곳으로 공간이동했다.

순식간에 눈앞의 풍경이 뒤섞이고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처럼 내장이 간질간질한 기분이 들고 난 뒤 우린 다른 곳에 서있었다.

바깥은 어둡고 조금 축축한 공기가 떠다녔다.

옐츠란과 그웬은 급하게 말에 오르다가 우리가 나타나자 눈을 휘둥그레 떴다.

"뭐야..."

한참 심각한 분위기였는지 둘은 나와 데블랑을 보고도 믿을 수 없어 했다. 데블랑도 반응은 마찬가지였다. 갑자기 바뀐 풍경이 낯선 지 얌전히 나에게 끌어안긴 채 굳어 있었다.

"빨리 도망가야 하는 거 아닌가?"

마을 외곽에 말을 미리 준비해놓을 정도면 바로 도망칠 생각이었을 텐데, 내가 그 점을 지적하자 놈들은 부랴부랴 정신을 챙겼다.

그나저나 말이 세 필뿐이군.

"아예 날 버리고 갈 생각이었나 봐? 말이 세 필 뿐이네."

"이.. 이것도 겨우 구한거야! 마을을 뒤져도 세 필 뿐이었다고..."

옐츠란이 오해받아 억울하다는 눈빛을 했다. 데블랑은 여전히 얼떨떨한 표정으로 서있었다.

"어떻게 된거야?"

그웬이 대강 짐작은 했는지 데블랑이 아닌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거기 계속 있다 보면 내 작고 소중한 양심이 아파할 것 같아서 도망쳐 나온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놈들을 도와줬으니 나는 거만하게 고개를 치켜들었다.

"내가 또 도와 준거지 뭐."

데블랑은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든 건지 자기 목에 감긴 내 팔을 풀며 나를 돌아봤다. 사탕보다 더 달콤한 색의 눈동자가 감사의 감정을 담아 너울대고 있었다. 조만간 내 신전을 차려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눈빛이었다.

"레티시아씨껜 감사하다는 말을 아무리 해도 부족하군요."

당연한 소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볼을 톡톡 쳤다.

"네?"

"고마우면 뽀뽀."

데블랑이 내 말에 놀라며 한걸음 물러서고 말 위에 앉은 두 놈은 나를 파렴치한 보듯이 내려다봤다.

하하, 그 정도 눈빛쯤이야.

나는 재차 볼을 두드렸다.

"시간 없어 빨리."

데블랑은 머뭇거리더니 밤이 다가와 푸르스름한 와중에도 확연히 보일정도로 얼굴을 빨갛게 물들이고 내게 다가왔다. 부드러운 감촉이 볼에 닿았다가 떨어졌다.

좋았어. 이걸로 포텟쿠 숲에 대한 죄책감은 잊는 거야.

옐츠란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으억 하고 소리를 냈다. 그웬은 같이 성에 한번 갔다 오더니 나에 대해선 포기한 모양이었다. 그저 데블랑에게 말에 빨리 타라 재촉했다. 데블랑은 문어처럼 빨갛게 익어서 우물쭈물 말에 올라탔다.

"뽀뽀해줬다고 빚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알지?"

데블랑은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고 옐츠란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하고 헛웃음을 흘렸다. 누차 말하지만 세상엔 보잘 것 없는 옐츠란 같은 놈이 있고 빛나는 태양보다 위대한 나 같은 사람도 있다.

옐츠란은 그러다가 정신을 차렸는지 "아니, 그럴 시간에 어떻게 된 건지 제대로 말해줄 수 있었잖아!" 하고 나와 데블랑을 번갈아봤다.

"여기서 밤새겠다. 일단 출발하면 데블랑이 설명해줄 거야."

여전히 얼굴이 빨간 데블랑에게 맞지? 하고 상냥히 웃어주자 데블랑은 무슨 말인지 제대로 듣지 못한 듯 했지만 일단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그래, 귀찮은 건 네가 다 처리하는 거야.

그나저나 말이 세 필뿐이니 나는 같이 타야하나? 누구 말을 타야하지? 고민하는 걸 알아챘는지 그웬이 손을 내밀었다.

"제 말에 타시죠."

이놈이 왜 이러지? 평민 운운하던 놈이 자진해서 나를 태우겠다니 갑자기 심경의 변화가 생겼나... 내가 인상을 찌푸린 채 손을 잡지 않자 놈은 한숨 쉬었다.

"제 말이 제일 크고 사람 한 명을 태우고도 빠르게 달릴 만큼 제가 제일 기마술이 좋으니까요. 제 말에 타셔야합니다."

저라고 좋아서 같이 타자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뒷말을 삼킨 듯한 태도였지만 그냥 그웬의 손을 잡고 놈의 말에 올랐다. 순간이동으로 바로 사라져버릴 수도 있었지만 데블랑의 뽀뽀에 기분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나는 굉장히 관대한 사람이고 하나하나에 반응할 만큼 어린 나이가 아니었기에 그웬이 하는 것처럼 나도 놈을 무시했다. 향기가 나는 편한 안장쯤으로 생각하자.

그웬은 나를 제 앞에 태우더니 말을 달리게 했다. 먼저 달려 나가는 우리 뒤로 옐츠란과 데블랑의 말이 뒤따랐다. 귓가에 바람의 달음박질 소리가 스쳤다.

침대에서 편한 하룻밤을 포기했지만 똥냄새 나는 마을에서 멀어져서 기분이 좋다. 후각이 대단히 예민한 나에겐 힘든 동네였다. 뜨끈뜨끈하게 등을 덥혀 주는 그웬의 가슴팍도 마음에 든다. 그웬은 재수 없지만 그웬의 얼굴과 향기와 단단한 몸은 재수 없지 않다. 근육이 차오른 몸은 안정감 있게 나를 감싼 채 좋은 향기를 내고 있어서 놈에 대한 심술도 한결 누그러졌다.

내가 그웬의 품 안에서 노곤하게 기운의 향기에 취해있는 동안 번갈아가며 혀를 씹을 뻔 한 옐츠란과 데블랑의 대화는 대충 이러했다.

"어떻게 빠져나온 거야? 마법 스크롤도 없으면서?"

"나도 모르겠어.. 레티시아씨가 나를 잡더니 갑자기 순간이동 했어."

"갑자기? 스크롤을 찢거나 시동어도 없이?"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옐츠란은 나에게 뭔가 묻고 싶어 열심히 말을 몰아 그웬의 말 옆으로 붙었지만 내가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자 포기하고 다시 뒤쳐졌다.

일단 숄테나에서 멀어지는 것이 먼저라 한동안은 침묵 속에서 각자 말만 열심히 몰았다. 그웬의 단단한 팔뚝을 믿고 고개를 쭉 빼어 데블랑과 옐츠란의 얼굴을 살펴보자 의문이 겹겹이 쌓인 얼굴이다. 그웬의 얼굴은 볼 수 없지만 별반 다르지 않은 표정이겠지.

갈림길 세개를 지나고 조금 여유로워진 속도에 나는 그웬의 가슴팍에 편하게 기대며 머리를 비볐다. 놈은 불만의 한숨을 쉬었다.

"제대로 앉으세요. 떨어져요."

나는 당연히 그웬의 말을 무시했다.

말 세 마리가 동시에 달릴 수 있을 정도로 너른 평야를 지나고 있는 중이었기에 데블랑과 그웬이 슬그머니 보조를 맞춰왔다.

"내가 목숨까지 구해줬는데 아무리 거창한 비밀이라도 이제 알려줘야 하는 거 아냐?"

눈치껏 마법사인가 보다 짐작하고 나에게 확인할 기회만 노리던 두 놈은 내가 물어볼 거라곤 짐작 못했는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데블랑 왕자님? 네가 대답할래?"

어디까지 말해줘야하나 고민하는 기색이던 옐츠란은 내 입에서 왕자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혼자 놀라 말을 세게 걷어차 앞으로 쏘아져나가듯 달려갔다가 겨우 돌아왔다. 그 모습을 보고 나와 남은 놈들은 웃음을 터트렸고그웬은 헛웃음이긴 했다. 덕분에 데블랑은 긴장감을 덜어낸 채로 설명해줬다. 돌아온 옐츠란까지 한마디씩 더 얹어 정신이 없긴 했지만.

데블랑은 페르디낭 국가의 둘째 왕자였다. 진짜 이름은 데블랑트 웬 코트니 페르디낭. 내가 데블랑트나 데블랑이나 뭐가 다르냐 했지만 데블랑은 그저 다르다고만 대답했다. 그래서 뭐가 다르다는 거야?

페르디낭은 신성국가로, 포텟쿠 숲까지 포함하여 지금 우리가 달리고 있는 땅이 바로 페르디낭의 영토였다. 내가 페르디낭을 모른다고 하자 놈들의 의심이 한층 더 깊어졌다. 자기가 서있는 나라의 이름도 모른다는 건 이상한 일이긴 하다. 건국 당시부터 신성국가였기에 페르디낭은 오랫동안 교단의 지배를 받았다.

신성해야할 교단은 권력을 손에 쥔 채 부패했고, 결국 왕가와 기싸움을 하다가 치료를 해주지 않아 선대 왕자 중 하나를 죽게 만들었다. 그 일을 기점으로 왕가와 교단은 크게 반목하게 되고 교단 측에 일명 대꺾기신성력이 충실하다는 이유로 귀족 가의 후계자를 종교로 귀의하게 만드는 짓이다.를 당한 귀족들은 왕가를 지지했다. 현 황제 대신 대리청정을 하고 있는 데블랑의 누이는 신성국가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법을 택하기로 했다.

"마법을?"

"네, 누님은 마법국가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신성국가에서 마법국가라.. 생각해보면 그렇게 이상한 일도 아니다. 신성력과 마력은 반대 개념이 아니지만 신성력은 신을, 마력은 자신을 믿는 일이다보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서로 양 끝에 있다 생각했다. 신을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에 신을 빼앗아봐야 지지대를 잃을 뿐이다. 그렇다고 다른 신을 들이미는 건 과거를 답습하는 일이니 마법을 선택한건 현명하다. 게다가 마법은 종교처럼 소수의 배운 자들을 위한 것이니 기득권을 유지하기도 좋았다. 마법사들끼리 연합해 교단처럼 부패할지도 모르지만 그건 나중 일이니까.

"그래서 저희는 마도시대 유물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마도시대 유물이라 해봐야 거창한 건 없는데... 내가 측은한 눈길로 쳐다봤는지 데블랑은 "압니다. 어려운 길이라는 걸요. 하지만 마도시대 유물을 찾아야 마법국가를 위한 초석과 명분이 생깁니다." 하고 말했다. 아니,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

내 머리카락이 자꾸 날려 얼굴을 간지럽히는지 그웬이 한데 모아서 휘휘 꼬아 앞으로 넘겨주었다. 천한 것 운운한 놈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다.

나는 퍼뜩 드는 생각에 옐츠란을 쳐다봤다.

"아, 그럼 내 주머니 뒤진 것도 혹시?"

옐츠란은 다시 튀어나온 과거의 잘못이 달갑지 않은지 헛기침을 하다가 대답했다.

"맞아. 마도시대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말을 돌리기에... 혹시 가지고 있나 해서 그랬어."

그리곤 쥐꼬리만 한 목소리로 "미안해..." 라고 덧붙였지만 나는 귀가 매우 밝으니까 똑똑히 들었다. 흠, 이제야 대충 퍼즐이 맞는군.

"그럼 아까 감자가 말하던 데블랑이 저주 받았다는 얘기는 뭐야?"

내 말에 셋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다. 감자? 감자가 누구야? 하고 서로 눈짓으로 물어보는 표정이었다. 그웬이 금방 눈치 채고 아 숄테나의 영주.. 하고 중얼거렸다. 데블랑도 알아듣고 웃음을 참는 얼굴로 대답했다.

"신전에서 저를 잡아들이기 위해 퍼트린 헛소문이에요. 왕실 측에서 허락하지 않아 수배령을 내릴 수 없으니까요. 귀족들은 보통 소문의 내막을 알지만 가끔.. 저렇게 맬런을 맹신하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로브로 얼굴을 가리고 다녀?"

"아, 이건..."

"역시 너무 귀여워서?"

내 물음에 데블랑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덩달아 옐츠란의 귀 끝도 빨개졌다. 아, 귀여운 것들. 달리는 말 위에 있으니 시야가 흔들거려 자세히 보려고 몸을 쭉 빼다가 중심을 잃고 기우뚱 넘어질 뻔했다. 그웬이 빠르게 내 허리를 단단히 붙들었다.

"일부러 제 말의 반대로 행동하는 겁니까?"

눈치 빠른 놈. 나는 그웬의 손을 떼내고 바로 앉았다. 향기 나는 안장은 말을 할 수 없으니 나는 아무것도 못 들은 거다.

내가 넘어지는 줄 알고 깜짝 놀랐던 데블랑은 안심해서 말을 이었다.

"로브로 얼굴을 가리는 이유는 마도시대의 유물을 페르디낭이 찾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아직 소재지가 명확하지 않아 국경을 넘어야 할 수도 있는데... 유물이 타국에서 발견된다면 국가 간 분쟁으로 번지는 일이라서..."

데블랑은 내가 알아듣지 못할까봐 풀어서 구구절절 얘기했다. 하지만 오래 살면서 비슷한 일을 수차례 겪은 나는 첫 마디만 듣고 대강 알 것 같아서 국가 간 분쟁 어쩌고 이후의 이야기는 다 흘려들었다.

마도시대 유물쯤 되면 나라의 국보로 관리될 재산이다. 만약 데블랑네가 타국에서 유물을 발견했다 해도 누가 발견했냐보다 어디서 발견됐나가 더 중요하니 국가가 얽히면 함부로 가져 올 수가 없다. 페르디낭의 왕자가 특정 국가 근처에서 얼쩡거리다가 어느 날 유물을 가지고 페르디낭으로 돌아갔다 라는 소문이 돌면 그 나라가 유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지도 모를 일이다.

열심히 설명하며 말을 몰던 데블랑은 내가 듣고 있지 않다는 걸 눈치 챈 모양인지 흐지부지하게 설명을 끝냈다.

"뭐, 그웬은 진짜로 쫓기는 신세라 얼굴을 가리고 있지만요."

"왜?"

"세이모어 가문의 수도자... 그러니까 대끊기 희생자로 그웬의 이름이 거론됐거든요. 정식 발표는 아니지만 거의 기정사실이었죠. 수도자로 선발됐는데 도망친다면 교단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전에 빠져나오긴 했지만...세이모어 가문이 워낙 쟁쟁한 가문이라 교단에서 쉽게 포기를 안 하네요. 수배령이 내렸어요."

난 이해하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옐츠란이 그웬한테 신전에 갔어야했다고 말했던 거군. 그웬은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못 들은 체하며 말만 몰고 있었다. 같이 다니는 동안 대강의 성격을 파악했기 때문에 놈이 왜 조용한지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옐츠란이 되는대로 지껄이는 쪽이라면 그웬은 속으로 생각을 정리하다가 한두 마디 내뱉는 쪽이었다. 지금도 속으로 생각하느라 바쁠 거다.

"레티시아씨."

데블랑은 제법 진지한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음, 왜 불렀는지 알겠는걸. 수백 년간의 경험으로 보건데 부탁이 있는 놈만 저렇게 분위기를 잡았다.

"여태껏 물어보신 것은 국비라서 아무나 들을 수 없습니다."

데블랑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을 가까이 붙였다. 긴장한 얼굴이 어둠 속에서 동동 떠다녔다.

"그럼에도 레티시아씨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마도시대 유물을 찾는 일을 도와달라고 청하고 싶어서입니다."

"거절하면?"

나는 놀랍도록 세상을 비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라 거절의 말부터 입에 올렸다. 데블랑은 대답하지 않았다.

"거절하면 입막음을 위해 나를 죽이기라도 할 생각이야?"

"거절하면 입막음을 위해 나를 죽이기라도 할 생각이야?"

불편한 침묵이 잠깐동안 이어졌다. 데블랑은 침울한 눈빛을 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레티시아씨한테 그런 짓을 하겠어요. 거절하시더라도 그건 레티시아씨의 자유입니다. 페르디낭의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교육을 잘 받았어. 나는 만족해서 표정을 풀며 팔꿈치로 그웬의 배를 꾹 눌렀다. 데블랑의 말을 듣고 양심이 찔리진 않을 테니 내가 배라도 찔러줘야한다. 갑자기 팔꿈치로 배를 찍힌 그웬은 놀라 배에 힘을 주면서 내 팔을 밀어내며 "뭐 하는 짓입니까."하고 짜증냈다.

"나한테 그런 제안을 하는 이유는 뭐야?"

"레티시아씨가 저희를 도와줄 수 있을만한 힘을 가진 마법사라고 짐작했으니까요."

옆에서 듣고 있던 옐츠란도 말을 얹었다.

"사람 한 명을 데리고 원하는 곳으로 공간이동을 하는 건 어지간한 마법사는 못 해. 게다가 우리가 있는 곳으로 바로 왔다는 건 마나를 더듬어서 왔다는 뜻인데...마탑에서도 그런 마법사는 손에 꼽는다고."

나는 옐츠란의 꽤 똑똑한 분석에 놀랐다. 내 표정이 너무 노골적이었는지 달빛에 드러난 내 얼굴을 보던 옐츠란이 투덜댔다. 자기가 똥멍청이인줄 아냐는 내용이었다. 나는 똥멍청이의 투덜거림을 대충 흘리면서 데블랑에게 물었다.

"내가 도와주면 뭘 얻지?"

회유의 기색이 보이자 데블랑의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졌다. 말랑한 두 볼이 봉긋 솟아오르는, 나까지 행복해지는 미소였다.

"원하시는 건 뭐든 지요."

자기가 하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 무게를 가지는 줄 모르고 대답하는 듯 했다. 옐츠란도 놀랍게도나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데블랑에게 핀잔을 줬다.

"데블랑! 뭐든지는 안 되지. 뭐든지는..."

"아니야. 레티시아씨가 원하신다면 작위든 영지든 돈이든 다 드릴 생각이야. 목숨을 구해주신데다가 계속 도와주셨는데, 염치없이 내전에 참가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잖아."

나는 감탄을 흘렸다. 같은 귀족 사회에서 자란 그웬은 천한 것 운운하는데 어떻게 왕자인 데블랑은 차별 없이 생각하지? 신분제 사회를 살면서 좀처럼 볼 수 없는 사고방식이었다. 출생의 비밀 같은게 있는건 아닐까.

사실 나였다면 국가를 위한 일, 대의를 강조하며 들뜨게 만들어 이름뿐인 자리를 약속했을 것이다. 일이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는 명예직 같은 거 말이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 뭐...입막음을 위해 죽이겠다 협박하다가 진짜로 죽였겠지.

나는 내가 가진 능력을 개차반처럼 휘두르는 것에 대해 죄책감이라곤 없다. 힘이 없을 적 그렇게 희생당한 한 사람이긴 하지만 억울하면 힘을 기르면 되는 거 아닌가.

왕자의 신분으로 너무 올곧게 자란 데블랑이 신기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 이용가치를 알면 나와 거래를 하려고 했다. 그들은 데블랑과 같은 걸 걸었지만 태도가 달랐다. 대가를 지불했으니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듯이 굴었다.

어릴 땐 그런 놈들한테라도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했다. 어딜 가도 이방인이 된 느낌에 소속감을 얻고 싶었다. 하지만 인정을 받을수록 나는 더 끝으로 내몰렸다. 그들이 대가를 주고 산 것은 제 뜻대로 움직이는 도구지 인간이 아니었다. 도구에게 염치를 구하거나 부탁하는 사람은 없다. 능력 있고 기반까지 얻는 내가 퍽이나 두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그 시절의 나는 대부분 배신으로 죽었다.

"데블랑, 너 잘 컸다."

"네?"

"누구한테 배웠어?"

내 질문이 뜬금없다고 생각하는지 다들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데블랑은 눈을 빠르게 깜빡거리면서 내 말을 이해하려 애썼다.

"아... 그러니까 가정교사 말씀이세요?"

"응, 맞아."

"가정교사한테 배우면 교단의 입김이 들어가 뭐든지 '신의 은총으로 말미암아'로 시작한다고 누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셨어요. 누님이랑 나이 차가 많이 나거든요."

별 다른 매체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다 보니 대부분 부모나 교육자의 가치관을 답습했다. 데블랑은 어려운 길에 보내놓고 대리청정을 한다기에 유물은 명분이고 경쟁자를 멀리 치워버린건가 했더니 아닌가보다. 데블랑의 누나는 생각보다 더 좋은 사람이었다.

"너희 누나 좋은 사람이네. 분명 성군이 될 거야."

"네? 네...감사합...니다?"

옐츠란은 내 덕담이 기가 막히는지 헛웃음 소리를 냈다.

"마법사 맞네. 마법사 맞아. 남의 말 안 듣고 지 생각만 하다가 툭툭 말 내뱉는 거, 완전 마법사들 어법이야. 아주 진절머리가 나는군."

놈이 사회부적응자의 의미로 마법사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아 나는 조금 불쾌해졌다. 옐츠란은 이거 완전 또라이네 하는 어조로 이거 완전 마법사네. 하고 한 번 더 말했다. 이젠 거의 욕처럼 들렸다.

"뭐 이 마법사야?"

내가 맞받아치자 옐츠란도 내가 느꼈던 기분을 똑같이 느끼는지 표정이 이상해졌다. 그래, 너도 사실이라서 반박할 수는 없는데 묘하게 기분이 더럽겠지. 마법사 같은 놈.

받아칠 말이 떠올랐는지 내게 손가락질을 하려는 옐츠란을 데블랑은 손짓으로 막았다.

"레티시아씨. 유물을 찾게 된다면 아까 말했던 대로 원하는 작위나 영지, 재산을 드릴 생각이에요. 찾지 못하게 된다 해도 충분한 사례를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대답해달라는 말이 아니니,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주세요."

길은 다시 좁아지고 이젠 어둠이 진득하게 깔려 달빛에 의지한 채 한 줄로 서서 천천히 말을 몰았다. 너무 가까이 붙으면 말 뒷발굽에 치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거리는 적당히 벌어졌다. 말을 걸기에 애매한 거리인지라 침묵 속에 말발굽 다그닥 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데블랑의 누나도 좋은 사람이고 데블랑도 좋은 사람이다. 교단의 억압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페르디낭은 좋은 왕 덕분에 평온한 나날을 누릴 것이다.

하지만 그거야 페르디낭의 사정이고. 난 다수의 행복보다 내 행복이 중요하다. 난 정말이지 연애가 하고 싶다. 쓸모없는 데에 시간을 낭비시간이 무한대로 있는 내가 낭비라는 표현을 쓰다니! 이것만 봐도 내가 얼마나 연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정말 다음 마을에선 이 놈들과 헤어질 거다.

옐츠란과 데블랑이 뒤에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우리가 제때 도망쳤나봐. 아무도 안 쫓아와. 그러게, 누가 따라오는 소리조차 안 들려. 근데 숄테나 영주가 왜 나 납치했는지 알아? 왜? ...

대화하느라 둘이 이쪽을 신경 쓰지 않자 그웬은 슬그머니 속도를 높여 거리를 더 벌렸다.

놈은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내게 바짝 붙이더니 머리카락을 넘겨 드러난 내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다.

"우리가 모든 걸 다 말해줬으니 그 쪽도 이제 비밀을 털어놔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야 공평하지. 안 그래?"

제법 깜찍한 짓을 하는군.

나는 흐흐흐 하고 소리 내서 웃었다. 데블랑과 옐츠란은 나에 대해 속 편하게 뛰어난 마법사라 결론내린 모양이지만 그웬은 더 깊게 의심하고 있었다.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동안 그것에 대해 고심했나보다. 정말 음흉한 구석이 있다.

"그웬,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거야. 몰랐어?"

달이 참 밝은 밤이라 고삐를 쥔 그웬의 손에 힘이 꽉 들어가는 것까지 잘 보였다. 아, 재밌다. 나는 남 놀리는 데에 큰 소질이 있는 게 분명하다.

그웬은 한쪽 팔로 내 어깨를 감싸 안아 자기 가슴팍으로 끌어당겼다.

"데블랑은 너를 믿지만 난 너를 믿지 않아. 태도를 확실하게 하는 편이 좋을 거야. 능력 있는 동료와 능력 있는 적은 대우가 다를 테니 말이야."

그웬은 곧바로 힘을 풀고 내게서 몸을 뗐다. 평민 운운하던 것치고 신사적인 협박이었다. 적어도 문장에 더러운, 천한, 평민, 속물 정도의 단어는 들어갈 줄 알았다.

조합해보자면 '고심하는 척하지만 네 더러운 속셈을 다 알지. 더 높은 몸값을 받으려는 천한 수작질인걸 누가 모를 줄 알고? 평민의 속물근성이란...' 정도가 되겠군. 난 귀족들의 뻔한 레퍼토리는 줄줄 외울 정도로 많이 들었다.

놈은 말의 속도를 줄이더니 다시 데블랑 네와 합류했다. 천연덕스럽게 좀 넓은 길이 나오면 멈춰서 말들에게 물을 먹이고 가자는 제안까지 했다. 나를 협박한적 없다고 말하듯 깔끔한 태도였지만 나는 남이 당한 불의는 참아도 내가 당한 불의는 넘어가지 않는 공명정대한 사람이다. 그웬은 아마 내가 협박당한 것에 대해 입을 다물 거라 생각했나보지만 절대 그럴 수야 없지.

"데블랑, 그웬이 너희들을 돕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는데?"

"네?!"

내가 곧바로 일러바칠 거라 예상 못 한 그웬과 생각지도 못한 소리를 들은 데블랑, 앞의 두 사람이 멈춰 서자 놀라 고삐를 당긴 옐츠란까지 전부 다 멈춰 섰다.

"너 진짜 그랬어?"

데블랑의 물음에 그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한 대답이었다. 내가 아는 그웬의 성격을 놈들이 모를 리가 없을 테니까.

데블랑은 옐츠란이 도둑질하려다가 걸렸을 때와 같이 자기 잘못이 아닌데 일단 사과부터 했다.

"죄송합니다. 레티시아씨, 정말 죄송해요. 돕지 않으면 죽이겠다니 아니 어떻게 그런... 그웬,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한거야?"

"와, 그웬 저 미친놈... "

옐츠란이 그웬을 발로 차주고 싶어 못 견디겠다는 말투로 몇 번 더 이죽 이는걸 듣고 있던 그웬은 헛웃음을 지었다.

"다들 눈이 멀었군.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정체도 모르는 사람에게 국비를 얘기하고 도와 달라 청하다니. 이 여자는 제대로 말한 게 하나도 없어. 가문도, 국가도, 마법사인지 아닌지도. 정체가 불분명한 사람에게 페르디낭의 일을 시키겠다고? 진짜 제정신이야?"

머리 위로 내 욕이 들리는 건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다. 이걸 앞담이라 해야 할지 뒷담이라 해야할지... 내가 듣는 데서 말하니까 앞담 같은데 그웬은 내 뒤에 있으니까 뒷담 같기도...?

옐츠란은 욱하는 목소리를 냈다.

"넌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원하는 곳으로 공간이동 하는 마법사가 흔한 줄 알아? 그 정도의 실력자라면 당연히 잡아야지."

"그게 이 여자가 부린 마법인건 어떻게 알고? 마법물품일지도 모르잖아."

"마법물품이 무슨 만능인줄 알아? 그게 가능하면 마법사가 왜 귀하겠어? 마법물품이 마법사보다 더 유능한데."

서로 목의 핏대를 세우며 싸우는 통에 나는 조금 짜증이 나긴 했지만 둘 다 일리가 있어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그웬의 말처럼 나는 놈들이 보기에 대단히 수상한 사람이다. 귀족인체 하지만 출신 국가도, 가문의 이름도 알려주지 않고 여행의 목적지도 없는데다가 알려준 것 중 사실이라곤 단 하나, 연애를 하기 위해 여행을 시작했다는 말 뿐이다. 놈들은 그것조차 믿지 않겠지만. 모든게 모호한데 몬스터를 일격에 죽이고 마법물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높은 곳에서 훌쩍 뛰어내리고 공간이동마법까지 쓴다. 나열하고 보니 말도 안 되게 수상하군. 아니, 이런 사람을 뭘 믿고 데블랑은 순순히 다 털어놓은 거지?

하지만 옐츠란의 말처럼 원하는 곳으로 공간이동을 할 수 있는 마법사는 흔치 않다. 흔치않은 정도가 아니라 손꼽는 정도다. 그 정도의 실력자라면 어느 국가를 가도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거기다가 외관상 어려보이니 옐츠란은 내가 범죄자라도 포섭해야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어린 나이에 그 정도 경지라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어마어마하니까.

서로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싸우다가 옐츠란이 분이 그대로 담긴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나랑 말을 같이 타자.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놈이랑 불안해서 어떻게 같이 타? 숄테나 추격도 없으니 천천히 가면 돼."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은 기특했지만 솔직히 그웬의 말이 편했다. 옐츠란의 기마술은 둘째 치고 놈이 탄 말은 비쩍 말라 몸무게가 가벼운 내가 타더라도 다리를 후들후들 떨 거같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가는 내내 세 놈들이 내 정체에 대해 다투고 왈가왈부하는 소리를 듣긴 피곤했다. 귀찮은 일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는데 오히려 더 귀찮아졌으니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었다.

"그웬은 별로 위협이 안 되니까 상관없어. 나에 대해 궁금한 거지?"

잠깐의 침묵이 흐르고 그웬이 하, 하고 헛웃음을 내뱉었다. 놈은 "자신감이 대단하군." 하고 빈정댔지만 나는 어른이었기에 범 무서운 줄 모르는 하룻강아지를 봐주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말의 배를 발로 살짝 쳤다. 말은 다시 따각 따각 말발굽 소리를 내며 걷기 시작했다.

"일단 출발"

말이 출발해버리자 데블랑과 옐츠란도 어쩔 수 없이 따라왔다. 뛰어난 지도자다운 모습에 질투가 난건지 그웬은 짜증 섞인 한숨을 다시 쉬었다.

꽤 오랜 시간을 혼자만 다닌 터라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 올 때마다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고민이 된다. 요 며칠간의 실패를 통해 본론부터 바로 말하면 안 된다는 법은 배웠다. 나는 발전하는 사람이니 이번엔 차근차근 처음부터 말할 거다. 아까 그웬이 가문도 국가도 마법사인지도 모를 사람이라 했지? 그럼 가문부터 얘기해야겠군.

"난 부모가 없어."

앗, 이게 아닌데.

아까완 다른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다. 데블랑은 내 말을 듣고 있다는 뜻으로 "네..."하고 대답하긴 했지만 묘한 어조였다.

"친척도 없고, 가문도 없고, 국가도 없어."

옐츠란이 작게 "싸가지도 없는데, 그럼 있는 게 뭐야?" 중얼거렸지만 나란히 같이 말을 몰던 데블랑이 다리를 걷어차 입을 다물었다.

"난 이 곳 사람이 아니야."

"그거야 생긴 거 보면 알지. 너는 페르디낭인 같진 않아. 생긴걸 보면 독크스 사람 같은걸."

"아니, 난 이 세계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야."

그럼 저세계 사람이냐? 하고 빈정댈 것 같던 옐츠란이 조용했다. 데블랑까지 조용해서 나는 그웬의 팔을 짚고 뒤를 돌아보았다. 둘 다 놀란 표정이었는데 옐츠란은 너무 놀라 거의 창백해졌다. 놈은 숨 쉬는 것마저 잊었는지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숨을 내뱉으며 헐떡댔다.

"잠깐..허억..잠깐만...나 현기, 현기증이 나서... 멈춰봐."

현기증이 날 만큼 놀랄 일인가? 그웬은 어떤가 싶어 올려다보니 표정이 굳어 있긴 해도 옐츠란만큼 호들갑스럽진 않았다. 옐츠란은 정말로 금방이라도 말에서 떨어질 것처럼 비틀거려서 우리는 적당한 곳에 말을 세우고 내렸다. 놈은 거의 말에서 떨어지듯 내려와 심장을 부여잡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계속해서 숨을 헐떡이던 옐츠란은 어린 동물처럼 덜덜 떨며 나를 쳐다봤다.

"그,그럼... 초월자라는 얘기야?"

초월자는 차원이동자를 높여 부르는 말이었다. 차원이동자는 한 가지씩 뛰어난 능력을 가지게 되니 그것을 보고 인간을 뛰어넘은 신의 능력을 가진 초월자라 부르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너무 유치한 작명이라 생각한다. 어쨌거나 사실이기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옐츠란은 눈을 느리게 깜빡이더니 뺨을 마구 내리치기 시작했다. 기이한 행위에 인상을 찌푸리는데 제일 먼저 놀라 왜 그러냐고 물을 법한 데블랑이 이상하게도 가만히 있었다. 오히려 한숨을 푹 쉬며 고개를 젓기까지 했다. 그웬은 짜증을 넘어 화가 났는지 휙 돌아 말에게 물을 먹이러 갔다.

"항상 이래? 때 되면 하는 미친 짓이야?"

"아니, 그건 아니에요..."

데블랑이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하나 하는 고민이 어린 표정을 지었다. 대단한 비밀이라서 망설이기보단 내가 구렁이만한 똥을 쌌어요 하고 굳이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인 듯 했다.

"초월자라는 거 진짜지? 초월자인걸 증명 할 수 있어?"

옐츠란은 뺨을 내리치던걸 그만두고 묘한 열기를 띈 눈으로 나를 보고 물었다.

증명을 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기에 나는 신발 한쪽을 벗었다. 그리고 잘 보이도록 빛으로 된 구를 띄우고 놈들에게 발목을 보여주었다. 아킬레스건을 따라 손가락 두마디 만한 황금빛 문양이 끊임없이 모양을 바꿨다.

차원이동자들의 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양이었다. 예쁘긴 하지만 소나 돼지에게 찍는 품질표시같아서 싫어한다.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건 차원이동은 무언가의 뜻이라는 얘기고, 그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좆같아졌다는 말이니까.

어떤 거창한 이유인지 몰라도 나를 다른 세계에 처박고 죽지도 못하는 몸으로 만들어서 고통 속에서 계속 구르게 만든 사실은 변함없다.

내가 구김살 없이 밝고 유쾌하고 선하게 지내고는 있지만 힘을 얻기까지의 삶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 했던 때, 살기 위해 버둥거리며 얼마나 진창을 굴렀던가. 나는 긴 시간을 살면서 많은 것을 잊었지만 아직도 처음의 순간들은 기억한다.

처음 이 세계로 왔을 때, 처음 칼에 찔렸을 때, 처음 강간당했을 때, 처음 사람을 먹었을 때, 처음 불에 타죽었을 때. 처음... 계속 하면 짜증만 나니까 관두자.

아무튼 누군가 나를 이 세계로 불러내 이 문양을 찍고 내팽겨쳐뒀다면 나는 그 시발 새끼를 꼭 족칠 것이다. 그 누군가가 신이나 우주의 흐름이라면... 운명에 순응해야지 뭐. 사실 지금은 사는 게 지루하긴 해도 나쁘진 않다. 나는 불가능한 일에 매달리며 심력을 소비하는 사람은 아니다.

옐츠란은 이제 거의 숨 쉬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들쭉날쭉하게 숨을 쉬었다. 급하게 들이켰다가 여러 번 나눠서 내뱉고, 길게 들이쉬고 짧게 내쉬고 짧게 들이쉬고 아주 제멋대로였다.

저러다가 터지는 건 아니겠지?

나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잽싸게 도망치기 위해 옐츠란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신발을 신었다. 말에게 물을 다 먹인 그웬이 꼴값 떨고 있는 옐츠란을 걷어찼다. 놈은 무릎을 꿇고 있었기 때문에 힘없이 옆으로 넘어졌다.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아, 옐츠란이 연구하는 분야가...마도시대인데.., 마도시대와의 연결고리가 초월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빛으로 된 구를 없애지 않았기에 내 눈치를 살피는 데블랑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다.

"마법 초월자를 통해서 마도시대를 재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옐츠란이 좀... 연구하는 분야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편이에요."

아, 알겠다. 마도라이군.

마법사들과 한때 어울려서 알고 있지만 마법사란 대개 사회성이 떨어지는 족속들이다. 언변이 뛰어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나와 달리 음침하고 자기 세상만 파고 드는 옐츠란 같은 마법사는 주력 연구 분야에 과하게 집착했다. 그 중에서도 마도시대에 눈이 뒤집혀서 다 던져두고 달려드는 마법사들을 마도시대에 미친 또라이. 줄여서 마도라이라고 불렀다. 그런 또라이가 한 둘이 아니기에 새삼스럽지도 않다. 나는 경멸 섞인 눈빛으로 옐츠란에게서 한걸음 물러섰다.

"내가... 내가 살아있는 초월자를 보게 될 줄이야..."

옐츠란은 바닥에 엎어진 채로 거의 흐느끼듯 말했다. 그 뒤로 감격의 말을 더 중얼거렸지만 우리 셋은 전부 신경 쓰지 않았다.

데블랑은 아아,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차원이동을 했으니 그러실 수밖에 없죠."

내 어떤 부분을 이해한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해했다니 다행이다. 한층 밝아진 데블랑의 표정과 다르게 그웬은 조금 미묘한 표정이었다. 옐츠란의 호들갑을 보면 내가 차원이동자가 확실한데 여전히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 모양이다.

"뭐야. 불만 있어?"

틱틱대는 내 말에 그웬은 감정을 숨기지 않은 채 나를 쳐다보았다. 버릇없는 놈. 단숨에 나와 놈 사이에 위험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번에는 날 말리는 침대도 없으니 저 놈 버릇을 고쳐놓을 테다.

데블랑이 긴장감을 읽었는지 나와 그웬을 번갈아봤다. 어느 쪽을 말려야하는지 고민하는 것 같았지만 난 충분히 그웬을 오냐오냐하며 늦둥이처럼 너그럽게 봐주었기에 데블랑이 말린다 해도 듣지 않을 거다.

팔을 잘라줄까. 놈은 오른손잡이니 왼팔은 없어도 되겠지. 인간이 팔이 두개인 이유는 하나를 예비용으로 가지고 있으라는 신의 뜻이 아니겠는가.

데블랑은 결정을 내린 모양인지 기특하게도 그웬의 앞을 막아섰다.

"그웬, 나는 레티시아씨를 믿기로 결정했어. 이런 태도는 나를 무시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웬은 나를 쏘아보던 눈길을 누그러트린 채 데블랑을 바라봤다. 놈은 길게 숨을 내뱉더니 머리를 쓸어넘겼다. 화가 났다기보단 망설이는 태도로, 할 말이 있는 듯 자꾸 입을 달싹거렸다. 사연 있어 보이는 깊은 눈빛에 나는 연장자답게 그웬의 팔을 자르는 일은 조금 미뤄주기로 했다. 뭐라고 하는지 들어나보자.

그웬이 드디어 마음을 굳히고 "나는..."으로 말을 시작했을 때 한 쪽에 엎어져있던 옐츠란이 갑자기 나에게 달려들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 한 일이었다.

생존에 관한 감각이 극도로 발달한 나는 당연히 검집 채로 옐츠란의 머리를 후려쳤다.그 와중에 검을 뽑지 않고 검집 채로 휘두른 나는 얼마나 상냥한지!

옐츠란은 일격에 기절해 헝겊인형처럼 폭삭 쓰러졌다.

황당한 표정을 한 두 놈과 눈이 마주쳤다. 나의 뛰어난 반사 신경에 감탄한 게 틀림없군.

"주..죽이신 건 아니죠?"

그웬은 옐츠란의 몸을 굴려 코 밑에 손가락을 대고 숨을 쉬는지 확인했다.

"아냐, 살아있어."

데블랑은 멍청히 입을 벌린 채 나를 쳐다봤다.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라 갈팡질팡하는 헤이즐넛색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웬은 옐츠란의 뒤통수를 더듬어 피가 나오진 않는지 확인하고 마찬가지로 황당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데블랑은 겨우 할 말이 생각났는지 입을 열었다.

"왜 갑자기 옐츠란을 공격 하신 거에요?"

"옐츠란이 먼저 나한테 달려들었잖아."

"네?"

별로 어려운 말도 아니었는데 데블랑은 눈을 깜빡이며 무슨 뜻인지 고민하는 눈치였다. 전부터 느낀 거지만 데블랑은 얼굴에 감정이 다 드러나는 편이라 그 점이 제법 귀여웠다. 오래 산 만큼 눈치가 늘어 남의 표정을 잘 읽어내는 나뿐만 아니라 눈치라곤 매일 똥에 섞어 싸버리는 것 같은 옐츠란도 알아챌 정도로 표정이 솔직했다.

"옐츠란이 달려들었다구요?"

음, 솔직히 말하자면 달려들었다는 표현은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다. 옐츠란은 벌떡 일어서서 조금 빠른 걸음으로 나에게 왔을 뿐이다. 내 손이 나간 건 그웬 때문에 조금 화가 나있는데 만만한 옐츠란이 사정권 안으로 걸어들어와서였다. 화풀이란 뜻이다.

"응."

하지만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다. 데블랑은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렇다면 옐츠란이 잘못했네요." 하고 인정했다. 그웬은 옐츠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뺨을 때려 깨워야하나 고민하는 듯 했다.

어쨌거나 옐츠란이 원치 않는 희생을 한 덕에 어둠 속에서 피어오르던 긴장감이 푸쉬쉬 꺼졌다. 모처럼 솟아오르던 감정을 배출하니 익숙한 권태가 찾아왔다. 너무 오랜 세월을 산 나는 긴 권태와 무심함, 아주 잠깐의 살아있는 감각을 오갔다.

그냥 그웬의 버릇을 고치는 건 관두자. 의미 없는 짓이다. 나한텐 턱없이 짧은 시간이지만 놈에겐 평생인 시간동안 저렇게 살아왔을 텐데, 뜯어 고치는 건 하루 이틀로 부족하다. 어차피 헤어질 놈들인데 신경 쓸 필요 없지.

나는 허공에 띄우고 있던 빛의 구를 없앴다. 금방 사방에 다시 어둠이 찾아왔다. 그웬은 옐츠란을 들쳐 업어 말 위에 짐짝처럼 내던졌다. 떨어지지 않게 밧줄로 묶어 단단히 고정하는 와중에도 옐츠란은 눈을 뜨지 않았다.

"그쪽...아니 레티시아씨는 옐츠란의 말에 타세요. 옐츠란이 깰 때까지 제가 태우고 가죠. 부지런히 가야 야영은 면할 테니까요."

어딘가 싱거워진 말투였다.

그웬은 옐츠란의 말을 내 앞에 끌고 오기까지 했다.

아까까지 날을 세우던 놈이라곤 생각 할 수 없을 정도로 누그러진 태도에 데블랑 혼자 어리둥절했다.

"아까 하려던 말은 뭐야?"

"별로 의미 없는 말이야. 생각해보니까 내가 굳이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겠더라."

데블랑은 그래도 듣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그웬이 입을 꾹 닫고 말에 올라타자 더 물어보길 포기했다. 나와 데블랑도 말에 오르자 그웬은 아까 전처럼 길잡이 노릇을 하느라 앞서나갔고 우리는 뒤따라 말을 몰았다. 데블랑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나를 향했을 때 귀찮은 질문을 받기 전에 내가 먼저 질문을 하려고 마음먹었다.

"페르디낭에 대해서 얘기해봐."

내가 페르디낭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긍정적인 뜻이라 판단했는지 데블랑의 표정이 밝아졌다. 데블랑은 차원이동자인 나를 배려해서 페르디낭의 역사부터 길고 긴 이야기를 시작했다.

데블랑은 특별히 이야기를 재밌게 하는 재주는 없었지만 재롱 피우는 강아지 같은 귀염성으로 시선을 끌었다. 나는 '오' 발음을 하느라 동그랗게 모은 입술이나 가끔 자기도 모르게 하는 손동작, 다양한 표정 같은 걸 구경했다. 데블랑은 페르디낭에 대한 호감을 갖게 하려는지 내가 별 다른 대꾸를 하지 않아도 주제를 바꿔가며 열심히 말했다.

대부분 흘려 듣긴 했지만 인종에 대해 얘기하다 페르디낭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 할 땐 흥미가 생겨 이것저것 물어보기까지 했다.

나는 옐츠란이 말했듯 뼈대가 가늘고 호리호리한 독크스인처럼 생겼다. 독크스인들은 대체로 날카롭게 생겼기에 전형적인 독크스인처럼 생기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론 독크스인 느낌이 많이 난다.

설명을 들어보니 그웬과 데블랑이 전형적인 페르디낭인이었다. 체모와 눈동자가 밝은 색이고 여남 할 것없이 부드러운 곡선이 있는 얼굴, 뼈대가 각이 잡혀 근육이 붙기 쉬운 몸, 속눈썹이 긴 것까지 페르디낭인의 특징이라 했다. 데블랑은 약간 쑥스러운 듯한 표정으로 "저도 앞으로 키가 많이 클 거예요." 라고 덧붙였다.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옐츠란은 조상 중에 먼 나라 사람이 있어 페르디낭인의 특징이 옅은 편이었다.

"페르디낭인은 특징이 뚜렷한 편이라, 가면 놀라실 거예요. 서로 너무 닮아서."

데블랑은 벌써 내가 합류해서 유물을 찾고 페르디낭에 귀환하는 상황을 그려본 듯 했다. 데블랑은 혼자 웃더니 "아마 누가 저인지 구분 못 하실 수도 있을걸요." 하고 덧붙였다. 아니 그럼 데블랑과 성격이 더럽지 않은 그웬이 페르디낭엔 무더기란 말이야? 갑자기 페르디낭에 약간의 흥미가 생기는군.

하지만 그 이후로 기억에도 안 남을 지루한 이야기들이 다시 이어졌으므로 나는 슬그머니 후드를 뒤집어썼다. 가끔씩 기절한 옐츠란이 헛구역질 소리를 내긴 했지만 그것을 제외한다면 조근조근하게 이어지는 데블랑의 목소리는 아주 좋은 자장가였다.

데블랑은 내가 후드를 뒤집어쓰자 "추우세요?"하고 물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고 눈을 감았다. 나이가 900살이 넘어가면 말 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잠들 수 있는 기술은 익히게 된다.

밤은 길고 데블랑의 이야기도 기니 잠깐 잠을 잔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다.

나는 순식간에 잠에 빠져 들었다.

"이건 어디까지나 내가 도와주는거야. 작위,영지,재산 다 필요없어."

나는 기다란 의자에 방만하게 늘어져 말린 살구를 입에 넣었다. 딱 적당히 말려서 식감과 맛 둘 다 좋군. 데블랑이 뭐라 말하려고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내 손짓에 손에 묻은 설탕이 후두둑 떨어졌다.

"내 마음이 비단결 같긴 하지만 단순히 선의로 받지 않겠다는 게 아냐. 작위를 받게 되면 페르디낭 사람이 되는 거잖아? 왕가의 아래로 들어가는 거고 명령을 받게 되겠지. 그런 건 사절이야. "

그웬이 살짝 불만스러운 눈빛을 했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런 기색을 억눌렀다.

"난 누군가의 명령이 아닌 내 의지로만 움직여. 내가 하고 싶으면 할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할거야."

난 말린살구를 한움큼 집어 입에 털어넣고 반쯤 우물거리는 발음으로 말을 이었다.

"게다가 영지는 관리하기 귀찮고 돈은 이미 많아. 필요없으니까 필요없다 하는거야."

창백한 안색의 옐츠란이 말을 하려다 말고 입을 틀어막았다. 놈은 텔른에 들어 설 때 쯤 정신을 차렸지만 풀어 달라는 소리를 우리가 무시했기에 계속 묶인 채로 덜렁거렸다. 맨 정신으로 흔들거리다보니 심하게 멀미가 왔는지 여관에 짐을 풀고 다시 모인 지금까지도 여전히 헛구역질을 해댔다.

"그럼 아무것도...우욱...아무런, 대가 없이...읍,...도와주겠다는 거야?"

기가 차는군.

나는 귀찮은 일에 대가 없이 뛰어드는 호구가 아니다.

필요 없는 것은 받지 않겠다는 말과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말은 다른 말이다. 생각 할수록 내 대화 방식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문제가 있는 건 이해력이 부족한 놈들이다.

나는 오면서 줄곧 생각했던 조건을 말했다.

"방탕하게 연애할 생각이니까 법으로 보호해줘."

놈들의 얼굴이 이상하게 일그러졌다. 방탕하게 라는 말이 좋은 어감은 아니니까 이해한다. 조금 순화해야겠다.

"아니다, 난잡하게? "

놈들의 얼굴이 더더욱 못 볼꼴이 되었다.

내가 큰 죄악이라도 짓는 듯이 쳐다보는데 기분이 나빠졌다. 어휘를 고르는데 서툴 뿐이지 내가 악마라도 소환해 난교파티를 하겠다는 말은 아니었다. 언젠가는 할 수도 있지만 방탕이나 난잡 같은 간단한 단어로 나의 심오한 뜻을 표현하려고 했으니 제대로 될 리가 있나. 나는 정의 내리길 포기하고 순수하게 풀어서 설명했다.

"다양하게 만나고, 동시에도 만나고, 책임은 안 질 거야."

세 놈은 대꾸도 못 하고 경악에 빠져 있었다.

싸늘한 침묵이 한 차례 휘몰아쳤다. 데블랑은 오..하고 소리를 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들 내 획기적인 생각에 감탄한 것이 틀림없다.

나는 스스로가 대견하고 뿌듯해졌다.

이 세계에는 연애라는 개념자체가 희박하다. 여러 신분으로 삶을 살아봤지만 전의 세계처럼 차 한잔 하러 가실까요? 하고 시작되는 연애는 없다.

평민의 경우 큰 도시라해도 5천명이 겨우 넘는 숫자고, 마을 단위로 보면 더 인구가 적다. 마을 안에 결혼 적령기인 남녀를 따지면 수가 더 적을 거고, 보통은 그 안에서 부모님끼리 얘기가 오간 남녀끼리 결혼하게 된다. 결혼 얘기가 나올 정도면 서로 막역지간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눈치껏 쟤랑 결혼하겠구나 의식하며 크게 된다.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란 연애라기 보단 미래 배우자를 향한 구애활동에 가깝다.

연애를 하기 위해 그들 사이로 뛰어든다면 나는 이방인 취급을 받으면서 남의 미래 배우자를 유혹하는 꼴이 될 것이다. 최악이군. 게다가 나는 결혼을 위해 연애를 하는 것이 아니다. 연애를 위해 연애를 하는 거지.

그렇다고 모험가와 연애한다는 건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모험가들은 자유로워 보이지만 한가롭게 여행이나 다니는 족속들이 아니다.

귀족들이야 필요에 의해 이동하는 동안을 여행으로 부르는 모양이지만 나머지는 그럴 여유가 없다. 모험가로 불리며 여기저기 떠도는 이들은 대부분 용병이고 상인이다. 정착하지 않고 떠도는 만큼 그들은 범죄에 거리낌이 없다. 잠깐 머물다가 사고가 일어나면 도망치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이들이 꽤나 많았다. 그들 틈에 섞여 연애니 뭐니 하고 어울려 다녀봤자 제대로 된 인간을 건지기 힘들 거다.

어리고 힘없을 때 그것들 사이에서 재수 없는 일을 많이 겪었다. 일단 그 족속들은 어리다하면 등쳐먹으려고 하고 여자라고 하면 손 한번 대보려고한다. 어린 여자라면 두말할 것도 없다. 강간하고 도망쳐버리겠지. 치가 떨리도록 더러운 인간 이하의 새끼들이 너무 많다.

귀족들은 결혼할 나이가 되면 적당한 가문끼리 결혼한다. 높은 직위일수록 절차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뿐, 기사와 레이디의 로맨스 같은건 없다.

그러나 계층을 따져서 보자면 가장 유사연애와 흡사한 짓을 하는 건 귀족들이었다. 어차피 대충 상대가 정해져 있으면서 사교계라고 부르는 파티를 열어 젊은 남녀들끼리 서로의 가치를 뽐낸다. 그러다보면 연애편지를 주고받고 손수건을 선물하고 꽃을 선물하고 정원에서 은밀하게 만나게 되는 것이다. 설령 그 사람과 결혼하지 못할지라도 그 행위자체를 즐긴다.

어쩌면 그걸 이 세계의 연애라고 부를 수 있을 거다. 역시 배부르고 등 따뜻해야 먹고 사는 일 외에 신경을 쏟아 붓는 법이다.

게다가 그들은 잘 씻고 잘 꾸미고 다닌다. 겉모습부터 관리 받은 태가 나고 기본교육은 다 받으니 몰상식함에 짜증날 일도 없다. 그나마 인간 축에 속하는 것이다.

결국 가장 적당한 연애대상은 귀족들인데, 작위가 있는 것들을 잘못 건드렸다간 귀찮아진다.

한 사람만 바라보며 연애하고 싶은 마음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 연애를 할 생각이다. 물론 나는 인성이 바른 사람이니 상대에게 미리 그 점을 고지하겠지만 귀족들끼리 사랑놀음으로 칼부림이 나는걸 자주 봤다. 범죄자로 몰리긴 싫으니 미리 나를 보호할 법적 수단을 마련해 놓는 건 아주 좋은 생각이었다.

놈들을 도와주면 작위가 없어도 신분은 확실히 보장될 거고, 페르디낭엔 데블랑과 그웬같은 놈들이 무더기라니 이보다 더 적합한 곳은 없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겨우 법적인 보호만을 바랐다면 굳이 복잡한 페르디낭의 일을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마음이 바뀐 건 어젯밤 데블랑이 한 이야기 때문이었다.

데블랑은 잠이든 나에게 페르디낭에 대해 이것저것 이야기해주다가 결국 맬런교에 대한 이야기까지 늘어놓았다. 주로 맬런교가 얼마나 부조리한지에 대한 설명이었다. 맬런교의 성서에 따르면 페르디낭인들은 전부 맬런의 자식인데, 높은 신분일수록 맬런의 피가 짙게 섞여 고귀한 존재라고 교리에서 신분 차별을 조장한다 했다.

하지만 같은 신분 내에서 누가 더 맬런의 피를 짙게 받았는지의 기준은 교단에서 정하는 거라 기부금을 많이 낼수록 고귀한 존재로 판정됐다. 데블랑은 사리사욕을 채우는 판단 기준만 봐도 맬런교를 믿기 어렵다며 격양된 어조로 말했다. 나는 슬그머니 눈을 떴다.

"맬런교의 주 교리는 뭔데?"

"아, 순결과 신실 그리고 다산이에요."

난 잠깐의 침묵 뒤에 뭐? 하고 다시 물었다. 순결과 다산이 한 문장에 들어가는 게 이상했다. 순결하면서 다산을 할 수 있나?

내 의문에 동감하는 모양인지 그웬도 피식 웃었다.

신성국가의 왕자답게 데블랑이 교리에 대해 잘 설명해주었다. 간추리자면 결혼 전에는 순결을, 결혼 후에는 다산을, 그리고 신을 향한 신실함을 지켜야한다는 말이었다. 아무리 들어도 괴상하기 짝이 없군.

다산의 경우엔 왕족의 경우 아예 법으로 정해져있는데, 아이를 몇 이상 낳으라는 비인간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배우자를 세 명 이상 들여야 했다.

"누님은 부마만 다섯이에요. 사실 누님은 맬런교를 믿지 않으니까 표면적 흉내만 내면 되니 다섯 명 까지 들일 필요는 없었지만..."

데블랑은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누님이 좋아서 하신 일이에요."

아주 멋진걸? 저렇게 참된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는 망하게 두어선 안 된다. 나는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

"근데 순결은 남녀 할 것 없이 다 지켜야 하는 거야?"

내 말에 담긴 은근함을 읽었는지 그웬이 고개를 돌려 눈을 찌푸리며 나를 쳐다봤다. 순진한 데블랑은 아무것도 모르고 밝게 "네." 하고 대답했다.

그 순간 나는 마법 유물을 찾는 것을 도와줘야겠다 마음먹었다.

데블랑의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에 깊게 감명 받아 페르디낭을 도와주는 것이지 절대 페르디낭이 동정남이 넘치는 꿈의 나라여서 도와주는 게 아니다.

데블랑을 두고 여자인 데블랑의 누나가 나라를 물려받는 것이나 교리에 대해 여남 차별이 없는 점을 본다면 성차별이 덜 한 나라라는 뜻이니 그것 또한 내가 페르디낭을 선택한 이유였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절대 순결한 미남자들에게 혹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다.

어쨌거나 의자에 축 늘어져있던 옐츠란이 제일 먼저 놀란 표정을 추스르고 입을 열었다.

"원래 세계에선 다들 그렇게 연애해?"

옐츠란의 말에 나머지 놈들도 아, 그럼 그렇지. 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뭘 자기들끼리 이해한 표정을 짓는지 모르겠다.

"아니?"

원래 세계라는 말에 지구를 떠올리는 게 어색할 만큼 여기서 오래 살았지만 그 정도는 기억났다.

"거기도 여기랑 비슷해. 좀 더 자유롭긴 하지만 동시에 여러 명을 만나진 않아."

셋 다 그럼 왜? 라고 묻고 싶은 표정을 지었다. 정말 궁금한 것도 많군. 내가 도와주겠다는데 감사하다고 박수를 치지는 못할망정 왜 자꾸 토를 다는지 이해 못 하겠다.

"뭐 문제 있어?"

"그럼 문제가 없다는 말이야? 차원이동자라서 그런가, 사고방식이 난해하네. 동시에 여러명을 만나는데다가 책임까지 안 질거라고?"

"한명만 만나지 않는 건 미리 얘기해줄거고, 내가 책임 지지 않는 대신 나를 책임지라고 하지도 않을 거야. 억지로 날 만나라고 강요할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반응이야?"

"그냥 정상적인,..원래 차원도 같다니까 쓰는 표현이야. 아무튼 정상적인 연애를 하면 안 되냐? 굳이 한 번에 여러 명을 만나야 해? 초월자들의 법칙 같은 거야?"

"아니, 그냥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페르디낭에선 교리 때문에 배우자를 여러 명 들인다면서? 내가 원하는 거랑 비슷한데."

"왕족만 그런 거고, 결혼을 여러 번 할 수 있는 거지 동시에 여러 명이랑 교제 할 수 있는 게 아냐. 교제 후엔 당연히 책임감 있게 결혼을 해야 한다고. 그게 상대에 대한 예의니까."

"난 그런 예의 지키기 싫은데. 되게 쓸데없네."

데블랑은 내 말에 상처받은 표정을 짓고 옐츠란은 인상을 찌푸렸다.

"네 차원의 사람들이 다 너 같진 않겠지."

당연히 칭찬으로 한 말은 아닐 테니 나도 같이 인상을 찌푸렸다. 옐츠란은 뭔가를 더 말하려다가 입을 막고 화장실로 뛰어갔다. 모든 게 신식으로 지어진 텔른의 고급여관이라 화장실이 방에 있다는 게 놈에겐 다행인 일이었다.

데블랑은 입을 꾹 다물고 입 꼬리를 내리고 있었다. 실연이라도 당한 얼굴을 계속 보고 싶진 않아 그웬에게로 눈을 돌렸다. 놈은 팔 받침대가 있는 의자에 푹 기대어 앉아 있었다. 내가 내건 조건에 대해 따져보는 중인지 생각에 깊게 빠져 시선은 저 멀리 가있었다.

데블랑은 비 맞은 생쥐 같은 표정을 정리하고 딱딱한 어조로 말했다.

"그런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페르디낭인은 레티시아씨의 장난감이나 꿈 속 인물들이 아니에요. 레티시아씨가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이곳이 현실입니다. 가볍게 얘기하지 마세요."

여관 주인의 귀여운 막내를 희롱하는 여행객이라도 된 느낌이군. 하지만 데블랑의 태도도 이해가 갔다.

차원이동자가 흔한 건 아니다보니 무슨 구전설화처럼 단편적인 정보가 후대에 전해졌는데, 가장 유명한 게 선녀와 나무꾼 같은 이야기였다. 무언가를 빼앗기진 않았지만 아이까지 낳고 살다가 어느 날 홀연히 본래 세계로 돌아갔다더라, 하는 식의 내용이라 흔히들 차원이동자는 본래 세계로 돌아간다고 착각한다. 혹은 본래 세계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거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이야기를 왜 의심 없이 믿는지 모르겠다. 적어도 당사자가 앞에 있으면 물어라도 보던지.

어느 쪽이건 나와는 먼 얘기지만 데블랑은 내가 무뢰한처럼 페르디낭인을 희롱하다가 어느 날 훌쩍 떠나버릴거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여행객들이 그러하듯, 잠시 스쳤다 가는 곳이니 가벼운 생각으로.

그건 아주 틀린 생각이다. 나는 절대 가벼운 마음으로 연애에 임하는 것이 아니었다. 내 테두리 안으로 누군가를 들인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결심이다. 자다 일어나서 정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짧은 시간동안 심사숙고 했다. 나는 아주 진심을 다해 페르디낭인을 희롱하다가 어느 날 훌쩍 떠나버릴 생각이다.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삶조차 건성으로 살게 된 내가 진심을 다한다는 건 큰일이다.

내가 살짝 억울한 표정을 지었지만 데블랑의 굳은 얼굴은 풀리지 않았다.

"가볍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는 정말 연애하고 싶어. 그게 삶의 이유야."

삶의 이유라고 말하니까 거창하지만, 이미 그럴싸한 이유들은 다 이뤘기에 연애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유일한 욕구인건 사실이다. 나는 모처럼 즐거운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오랜 시간동안 우울하고 무기력했기에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움직이는 자체만으로도 좋은 발전이다.

나를 쳐다보는 데블랑의 눈동자에 혼란이 그대로 드러났다. 잠자코 듣고만 있던 그웬이 입을 열었다.

"데블랑, 난 레티시아의 조건이 터무니 없는 건 아니라 생각해."

그웬은 반말에 높임말, 호칭도 섞어 쓰더니 이젠 아예 이름을 부르기로 한 모양이었다. 사실 공용어의 레티시아'씨'는 지나치게 간드러지는 발음이라 소름 돋는 구석이 있다. 어차피 가짜 이름이니까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라지.

"페르디낭을 마법도시로 재건하면서 한명을 예외로 두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야. 레티시아가 정말 원하는 게 그 것 하나뿐이라면, 우리가 맞춰줘야지."

'터무니없지 않다, 어렵지 않다, 맞춰줘야 한다.'가 아니라 나 정도의 인재가 치정에 관련된 면책권만 달라는데 당연히 쌍수 들고 환영해야 할 일이다. 그웬은 교묘하게 귀족적 어법으로 내 부탁이 힘들지만 노력해보겠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정도의 정치 질은 눈에 뻔히 보인다. 나는 말린 살구를 다 먹고 남은 설탕을 손끝으로 꾹꾹 찍어 먹었다.

한층 더 창백해진 얼굴로 입가를 닦으면서 나온 옐츠란이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으며 말했다.

"일단 폐하랑 상의 해야하지 않아?"

"맞아, 그게 먼저지."

그웬의 대꾸에 데블랑이 잊고 있었던 것이 기억난 얼굴을 했다. 데블랑은 나를 낯선 사람보는듯한 눈빛으로 쳐다봤다.

"성급하게 거절한 점 사과드릴게요. 숙소로 가서 상의 후 말씀 드릴 테니 저희에게 시간을 주시겠어요?"

내게 넘쳐나는건 시간이니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나는 관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데블랑은 차가운 태도로 쌩하니 나가버리고 그웬은 뒤를 따랐다. 옐츠란만이 비척비척 일어나더니 바로 나가지 않고 아쉬움이 묻은 손길로 괜히 침대보를 만지작거렸다.

"이렇게 부드러운 이불... 오랜만이네..."

내가 묵기로 결정한 곳은 텔른의 가장 고급 여관이니 좋은 것이 당연했다. 원래 살던 세계의 호텔에 비견될 정도로 호화찬란해서 돈이 아깝지 않았다.

반면에 놈들이 묵는 곳은 그저 그런 여관으로, 혹시나 따라 붙을 추적과 시선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셋의 신분을 생각하면 도시의 좋은 여관은 감시의 기본대상이라 돈이 있어도 묵을 수 없었다. 옐츠란은 침대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그웬의 눈총을 받고서나서야 우울한 기색으로 방을 나갔다.

대개 재밌는 일은 음습하고 낡은 술집에서 시작된다. 악당의 모의는 쿰쿰하고 냄새나는 구석이 있기에 밝은 햇빛 아래에선 곰팡이 꽃을 피울 수 없다.

번영한 텔른의 가장자리, 그보다 더 변두리에 위치한 술집의 구석에 나는 싸구려 술을 한잔 시켜놓고 이런 곳에나 들락거릴만한 수상한 자를 그럴싸하게 흉내 내는 중이었다.

로브를 머리끝까지 뒤집어쓰고 앉아 침울한 어깨를 하고 술이나 홀짝대고 있다는 뜻이다.

기척을 지우고 있으니 구석자리에 앉은 조용한 사람 따위에겐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이런 싸구려 술이나 마시려고 대낮부터 술집에 모이는 사람이란 뻔해서, 다들 수준 떨어지는 입담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랑해댄다. 하지만 술 취한 사람은 할 말 못 할 말 구분 없이 제멋대로 떠들기에 지금처럼 제법 쓸 만한 정보도 나오는 편이다.

마른 침 냄새가 나는 맥주를 수염에 축축하게 적신 채 고주망태 무리는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확실하게 들었다니까. 아는 친구의 가까운 친구의 사돈이 그...약을 구했대. 좀 비싸긴 한데 이따위 술이랑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좋은 느낌이라던데. 어?”

“아는 친구의 가까운 친구의 사돈이면 모르는 사람 아닌가?”

“아니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약을 구했다고? 어디서?”

“45번가 사이로 쭉 들어가면 번지도 없는 길 있지? 그 길 말이야. 맥주 여덟.. 아니 열 잔 가격이긴 한데, 같은 가격이면 맥주 열 잔보다 그게 더 낫지. 어? 자네들도 전에 폰네가 나눠준걸 해봐서 알겠지만... 알잖아. 어?”

“알지, 알지. 당연하지. 당연히 비교가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약을 어디서 구했다고?”

“아, 이 사람아. 45번가 사이로 쭉 들어가면..어? 번지도 없는 그 길! 아까 말해줬잖아.”

“아 그래, 그래. 내가 들어놓고 깜빡했네. 하하. 여기 한잔 더요.”

“폰네가 준 게 좋긴 했지만 맥주 열 잔 가격은 좀... 어차피 받아봐야 요만 할 건데.”

“요만한 걸로 시발, 이만한남자는 주먹을 세우고 사타구니를 탁탁탁 치는 행동을 취했고 나머지 수염쟁이들은 시뻘게진 얼굴로 웃었다. 저런 게 재밌단 말인가?재미가 오는데...어?”

그 뒤로는 데블랑 귓가에 속삭여 주고플 만큼 더러운 얘기들뿐이었으므로 생략한다.

수염쟁이들이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될 것처럼 ‘그..약’이라고 소리죽여 말하는 약은 마약인 게 분명했다. 나름 비밀스럽게 술에 취해 쩌렁쩌렁 소리 지르고 있긴 해도 말하는걸 보면 텔른에서도 마약이 금지인 모양이고.

이 세계의 마약은 만들 때 마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복용하면 환영마법에 걸린 것처럼 선명한 환영을 보게 된다. 그 때문인지 저렇게 쾌락만 쫓는 죽어 마땅한 머저리들보다 보고 싶은 게 있는 절박한 사람들이 질질 짜면서 약을 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절박함을 이용해 돈을 버는 건 좋은 장사수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절박함이 있어야 돈을 펑펑 쓰는 법이다. 그 때문인지 마약을 제재하는 도시가 많았다. 하긴, 전쟁이라도 일어났다하면 온 마을에 마약중독자가 들끓을 판인데 제재하는 게 맞지.

하지만 마약에 일가견이 있는 나로선 흥미가 생기는 얘기였다. 솔직히 천년에 가깝게 살았는데 마약한번 안 해봤을 리가, 인간은 호기심의 생물인데.

한때는 끝나지 않는 삶에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마약에 중독된 채 빌빌거린 적도 있었다. 마약 때문에 몇 번 죽자 내성이 생겨 그 짓조차 못하게 됐지만.

마약을 제조하는데 쓰이는 독초는 크게 세 가지인데 영양분도 아니고 골고루 마약을 섭취해 내성도 골고루 생겨버렸다. 난 늘 같이 걷는 우울을 위해 틈만 나면 내성이 없는 마약을 찾아다니는 습성이 있었고, 당연히 이번 기회도 놓치지 않았다.

아직까지 내성이 없는 신종 마약을 찾진 못했지만 잠들어 있는 동안 세상이 발전했으니 약도 발전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텔른은 큰 도시니까 찾을 수도 있다.

번호를 붙일 수 있을 만큼 길이 잘 정돈 되어있는 것만 봐도 텔른의 영주는 제 할일을 잘 하고 있었다. 길이 중구난방 식으로 나있는 큰 도시도 많은데 텔른은 계획도시처럼 제법 반듯한 사각형을 그리고 있었다. 영주가 일부러 길을 내지 않았다면 깔끔한 구획이 날 리 없다. 이렇게 훤한 길이라면 골목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범죄도 줄어들어 치안에도 좋다. 대낮이지만 도시의 외곽에선 밤과 같은 대담한 범죄가 일어나는 편인데, 예를 들어 강도라던가, 집단폭행같은. 하지만 텔른에선 여기까지 오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역시 잘 관리되는 도시...음.

너무 잘 관리돼서 탈이군.

45번가를 지나 수염쟁이가 말한 길로 들어서다 경비병들과 눈이 마주쳤다. 줄에 묶인 채 바닥에 꿇어앉은 사람들, 품을 뒤지고 있는 경비병, 신원파악 중인 기사. 어떤 상황인지 바로 짐작이 갔다. 내가 싸구려술집에서 들은 얘기는 쓸 만한 정보가 아니라 이미 단물 다 빨린 정보였나 보다. 마약 굴을 소탕하러 기사가 직접 행차할 정도면.

나는 실수로 길을 잘못 든 것처럼 자연스럽게 몸을 돌리려고 했다. 하지만 바닥에 꿇어앉아 있던 놈 중 하나와 눈이 마주친 순간 놈이 갑자기 아는 척을 했다.

“여기에요!”

그 외침에 사람들의 시선이 다 나에게 와서 꽂혔다. 같이 밧줄에 묶여있는 놈들과 달리 주변 풍경에 안 어울리게 제법 차려입은 그는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제법 생겼지만 기억에는 없는 얼굴이었다.

“제가 말했잖아요. 여기서 만나기로 한 사람이 있다고. 정말 저는 관계없다니까요.”

“사실입니까?”

놈은 간절한 눈빛을 나에게 쏘아댔고 갑자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과 만날 약속을 잡게 된 나는 몇 발자국 그에게 다가갔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주변의 의심이 짙어지는 게 느껴졌다. 갈색에 가까운 금발을 깔끔하게 넘긴 파란 눈의 사내는 눈매가 깊어 다정해 보이는 구석이 있었다. 아무리 봐도 모르는 얼굴이었지만 놈에게서 익숙한 냄새를 맡았다. 나는 친절을 베풀 기로 했다.

“그래. 45번가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45번가로 가는 중이었어요. 길을 잘못 든 것뿐이라니까요.”

놈은 눈치 빠르게 내 말을 재빨리 이어받았다. 기사가 탐탁지 않다는 눈빛으로 신상을 적어둔 종이를 더듬었다.

“만나기로 하셨다고요.. 그럼 이름정도는 알겠군요. 이 남자의 이름이 뭐죠?”

내가 당황하길 바라며 건넨 질문이겠지만 거짓말과 연기는 오랜 시간 갈고닦은 능력들이다. 나는 덮고 있던 후드를 벗고 난처한 듯 웃었다.

“오늘 처음 만나는 사이야. 친구의 소개로 만나기로 했지. 친구가 이름을 말해주긴 했는데.. 그러니까.. 프랭크? 제이미? 미안, 내가 이름을 기억하는 덴 영 소질이 없어서.”

내 웃음을 보아서인지 격식 없는 말투 때문인지 기사는 잠깐 얼빠진 표정을 짓다가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를 몇 차례 반복했다.

“이해가 됐다면 그를 풀어주겠어?”

기사는 듣다보니 기분 나쁘다는 얼굴로 자세를 고쳐 섰다.

“잠깐, 전에 우리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왜 하대를 하십니까?”

공용어의 예법은 한국어와 제법 비슷한 구석이 있어서 귀족들이 쓰는 격식체, 존대, 하대, 비격식체 등 상황에 따라 세세하게 나뉘었다. 존대를 들을 때는 좋지만 반대의 상황은 그다지 기분이 좋지 않아 나는 멋대로 말하는 편이었다. 듣는 놈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고조할아버지가 정자일 때에도 나는 몇 백 살이었을 텐데, 존대는 가당치도 않지. 게다가 나처럼 뛰어난 사람은 떠받들여지는게 옳지 누구를 떠받을 위치는 아니다.

하지만 겉으론 어려보이니 내가 다짜고짜 반말을 하면 대부분 기분 나빠한다. 그럴 땐 입을 닫게 할 마법의 카드가 있다.

“평민 출신의 준 남작이 나에게 존대를 받고 싶어 한다? 멋지군.”

기사의 얼굴이 단번에 굳었다. 신분제도라는 것은 편리하다. 어떤 불공정한 일에도 신분을 들먹이면 논리적인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빈민가에 가까운 뒷골목의 마약 상을 잡는 일에 나선 기사라면 출신이 뻔했다. 이런 지저분하고 위험한 일은 엉덩이 무거운 높으신 분이 하지 않는 법이다.

“기사 복을 입고 있어도 평민출신들은 숨길 수 없는 더러운 냄새가 나. 경에게도 나는군.”

페르디낭은 신분차별이 극심하다했으니 이정도만 해도 지레 겁먹고 움츠러들겠지. 예상은 적중해서 기사는 씁쓸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다. 좋은 선택이다. 마법의 카드가 통하지 않는다면 마법의 몽둥이를 쓰려고 했으니까.

“다시 한 번 말하지. 이제 이해가 됐다면 그를 풀어주겠어?”

———

내 덕에 풀려난 남자는 번지도 없는 골목에서 멀어질수록 표정이 점점 좋아졌다. 놈은 충분히 멀어져서 말소리가 들리지 않을 거란 확신이 들었는지 입을 뗐다.

“덕분에 살았어요. 아, 정말이지. 그대로 잡혀 들어가는 줄 알았네. 저 사람들이 왜 잡혀있는 줄 알아요? 마약 밀매라고요. 마약밀매 현장체포는 재판도 없이 사형이에요. 말 그대로 덕분에 살았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놈은 몇 가닥 내려온 머리를 손으로 쓸어 다시 넘기곤 나를 힐끔 쳐다봤다.

“사례라도 해드리고 싶군요. 그러니까.. 원하신다면...높으신 분의 눈에 찰만한 사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슬쩍 방향을 틀어 빈 골목 쪽으로 눈짓했다.

“이쪽으로.”

끝이 막힌 골목이라 잠깐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별 일이야 있겠어 하는 표정으로 놈이 앞장섰다. 나는 틈을 노려 녀석을 벽 쪽으로 거칠게 밀어 눌렀다.

“어엇! 아니 잠깐..!”

깜짝 놀란 듯 잠깐 몸을 들썩 거렸지만 내가 놈의 겉옷을 벗기자 갑자기 이해했다는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다.

“이런걸 원하실지 몰랐는데... 그래도 기꺼이...”

놈이 바지춤을 부여잡고 끈을 풀건말건 벗겨낸 겉옷을 더듬었다. 여기 있군. 모르는 사람은 그냥 천을 덧대어 두꺼워졌다고 생각하겠지만 내 손은 못 속인다. 나는 안감을 뜯어 작게 접은 종이를 꺼내곤 필요 없어진 겉옷은 다시 던져주었다. 놈은 겉옷에 얼굴을 얻어맞고 놀란 표정으로 내 손에 든 것을 쳐다봤다.

“아니, 어떻게..!”

나는 대답하지 않고 종이를 펼쳐 내용물을 확인해보았다. 약간 회색빛이 도는 고운 가루. 익숙한 냄새의 정체는 역시 마약이었다. 내가 이 냄새를 놓칠 리 없지.

놈은 바닥에 떨어진 재킷을 주섬주섬 주워 입으며 내 손에 든 것에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건 좀 곤란해요. 귀족님.”

놈이 갑자기 목소리를 깔며 험악한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아랑곳 않고 손가락으로 콕 찍어 약을 맛보았다. 잊을 수 없는 더럽게 쓴 맛과 이상한 뒷맛. 이번에도 꽝이다. 내성이 있는 독초 중 하나로 만들어진 약이다. 실망한 나는 제멋대로 종이를 접어 휙 하고 던졌다.

내가 마약을 찍어먹자 눈이 휘둥그레져있던 놈은 화들짝 놀라 몸을 날려 겨우 받아냈다.

“곤란하다니까 돌려줄게.”

“어..? 네?”

놈은 영문을 몰라 멍청한 표정을 짓다가 약을 잘 챙겨 넣고 내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이거... 어... 뭔가 보이지 않아요?”

마약 만드는 놈들은 왜 이렇게 게으르지. 지금쯤이면 새로운 약을 만들 때도 되지 않았나. 빨리 만들어서 절박한 사람의 전 재산을 갈취해야지. 다들 돈 벌기 싫은 모양이다. 직접 만드는 수고와 정성을 들일정도는 아니라서 생각 날 때마다 찾아보는데 번번이 꽝이라서 이제 좀 짜증이 난다.

“저기요... 괜찮아요? 이거 몇 개에요?”

사실 약은 심리적 도피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나에게 아주 객관적인 사람이니까 그 정도는 꿰뚫고 있다. 하지만 인정과 실천은 다르다. 마약이 도피처 중에 제일 최악의 선택지라는 것을 알고도 나는 마약을 찾는 것을 그만둘 수 없다. 앞으로도 끝이 없을 무한한 삶은 지나치게 길고도...

“제 말 안 들리세요? 이거 큰일이네.”

진지한 생각에 잠기는데 자꾸 훼방을 놓는군. 나는 불쾌해져 가까이 다가오려는 놈을 손짓으로 막았다.

“볼 일 끝났잖아. 그냥 가려던 길 가.”

“네? 아니, 나 참... 어이가 없네. 당신이 설탕 먹듯이 찍어먹은게 뭔지나 아십니까? 아니지, 아니까 옷까지 뜯어서 꺼냈겠지.”

놈은 심각한 고민에 빠진 얼굴로 안다면 왜 그걸 돌려줬지? 어? 어떻게 아는 거지? 하고 중얼거렸다.

멋대로 시작한 1인극에서 탈출해야겠다. 사실 볼 일이 끝난 건 이쪽이라 나는 좌표를 더듬어 워프를 시전 했다. 워프가 발동되며 빛무리가 떠오를 때 나를 쳐다보는 놈의 표정이 놀란 너구리같았다. 궁금증을 껴안은 채 혼자 남겨지겠지만 어쩔 수 없지. 볼 일도 끝났는데 실랑이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번거로운 일은 사양이다. 귀찮다고 놈을 죽일 정도의 인격파탄자는 아니기에 그냥 자리를 피하기로 했다. 게다가 지금쯤이면 데블랑네도 왔을 것 같고. 왕과 상의하러 간 놈들을 기약 없이 기다리기 싫어 마을을 둘러보러 나온 거지만 헛짓만 하고 가는군.

“아직도 이런 야만적인 방법이 최선의 계약방식이라니.”

겨우 짜낸 피 한 방울을 떨어트리니 색이 변하는 계약서를 보고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종이 가장자리에 나와 데블랑의 피로 이루어진 검붉은 테가 둘러지자 데블랑은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고 품에 넣었다. 옐츠란은 내 말에 눈을 빛내며 물었다.

“야만적인? 그럼 좀 더 고상한 방법을 알고 있다는거야? 어떤 마법이지?”

옐츠란은 아까 전부터 저런 식이었다. 빈정대고 버릇없는 구석은 줄었지만 왜요? 의 시기가 온 어린아이처럼 온갖 것에 마법을 결부시켜 지식을 캐내려들었다. 내가 초월자라는 사실에 참을 수 없이 흥분되나본데, 그냥 다른 방향으로 귀찮아진 거라 짜증 섞인 한숨이 나왔다. 데블랑은 여전히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는 태도를 유지했기에 나는 그웬을 쳐다봤다. 그웬은 내 시선을 눈치 채지 못한 척 했지만 내가 쳐다보자 몸까지 돌려 덩달아 쳐다보는 옐츠란 때문에 결국 눈을 마주치고 말았다. 그웬은 어깨를 늘어트리며 잠깐 다른 곳을 쏘아보다가 입을 열었다.

“옐츠란, 개인적인 질문은 나중에 해. 앞으로 같이 다니게 될 테니까 우리 일정을 설명하는 게 먼저지."

"아 그래, 맞아."

옐츠란은 약간 아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나를 쳐다보았다.

결국 페르디낭은 자국민의 동정을, 아니지 청춘을 팔아 나를 포섭하기로 결정 내렸다. 국가의 이해타산이란 자주 도덕을 앞서기 마련이다. 데블랑은 본인의 정의대로 행동하지 않는 국가에 실망한 기색이지만 착한 왕자님이니까 곧 현실을 이해할거다. 덩달아 나라는 사람까지도. 데블랑처럼 정석만 배운 아이들은 남을 오래 미워하지 못한다. 각자 사정이 있고 악인은 교화될 수 있고 모두 선의 씨앗을 품고 태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세상의 때가 묻어 그저 그런 어른이 되겠지만 데블랑은 아직 어른이 되긴 멀었다. 옐츠란은 국가의 결정에 그저 신이 난 마법사였다. 그웬은 나를 끌어들이려 데블랑을 설득해놓고 막상 소식을 전하러 왔을 땐 좋지도 싫지도 않은 표정이었다. 그웬은 원래 그런 놈이라 이상하진 않았지만 내 실력을 보증해 국왕의 결정에 긍정적 보탬이 되었다는 옐츠란의 말은 의외였다. 가만 보면 그웬이 제일 앙큼하다.

“우리는 내일 순간이동 마법진을 통해 페이퍼트로 이동할거야. 페이퍼트는 내 영지인데...”

“너 영지도 있는 귀족이었어?”

옐츠란이 어이없다는 듯 얼굴을 찌푸렸다.

“그래. 영지도 있는 귀족이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미안하군. 그저 그런 마법사 나부랭이여야했는데.”

“왜 이렇게 날이 서있어? 그냥 물어본거야.”

내 말에 옐츠란이 잠깐의 침묵을 유지했다.

“미안해. 너무 자주 듣던 소리라.. 괜히 화를 냈네. 영지가 있긴 해도 마탑에서 주로 지내서 자주 가지는 않아.”

“마탑? 너 마탑 소속 마법사야?”

옐츠란은 다시 인상을 찌푸렸지만 바로 화를 내지 않았다. 숨을 가다듬고 “그래.” 라고 대답했지만 나는 코웃음을 쳤다.

“쥐꼬리만 한 마나로 마탑소속이라고? 마탑도 한 물 갔군.”

마탑은 엄격하게 사람을 가려 뽑기로 유명해 ‘마탑의 입구는 개미 발가락만 하다’ 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마탑은 직위가 높다고, 혹은 돈이 많다고 또는 인맥을 통해 들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풍부한 마력과 학계에 기여한 업적, 그리고 평생을 마법에 바칠만한 열정이 있는 마법사만 들어갈 수 있었다. 마탑 소속의 마법사들은 마탑에서 나오는 연구비를 받아서 은둔자처럼 연구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한다. 원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받으니 마법사들에겐 꿈의 직장으로 불렸다. 평생 탑에 갇혀 공부만 하는데 뭐가 그렇게 부러운지는 몰라도.

나는 돈이 넘쳐나는데다가 영생의 비밀을 파헤치려는 마법사들에게 시달리기 싫었기에 마탑에 들어오라는 권유를 무시했지만 옐츠란 같은 그저 그런 마법사 나부랭이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란 건 안다. 모닥불 몇 번 붙이면 픽 하고 쓰러질 것 같은 마력인데 마탑 소속이라니, 마탑의 위세도 다 옛말이 되었나보다.

옐츠란은 이젠 화낼 순간이란 걸 깨달았는지 “뭐?” 하고 사납게 되물었다가 다시 한 번 “뭐?” 하고 깜짝 놀라 반사적으로 가슴을 가렸다.

“내 마력을 훔쳐봤던 거야?”

“훔쳐 본게 아니라 그냥 본건데.”

옐츠란이 가리고 있던 가슴께를 보던 그웬이 물었다.

“마력이 가슴을 통해 보여?”

“어? 아니...”

옐츠란은 귀 끝이 빨개져 팔을 내렸다. ‘내가 왜 그랬지..?’ 하고 중얼거리더니 “어쨌든.” 하고 다시 인상을 찌푸렸다. 화내고 당황하고 부끄러워하고, 혼자서 참 바빠 보인다.

“내 마나의 양을 느꼈다니 얘기가 빠르겠네. 내 마나는 이게 전부가 아니야. 마나의 대부분을 떼어 따로 저장해두었지.”

“왜? 그런 멍청한 짓을 왜 해?”

뛰어난 통찰력이 겉으로 드러나는 내 어조에 옐츠란은 잠깐 말문이 막힌듯했다.

현대의 마법사들은 체내에 마나를 저장해 마법을 부린다. 자연에 떠도는 마나는 마나를 끌어들이는 마법사의 역량, 즉 마나친밀감에 따라 체내에 쌓였다. 어릴 때부터 꾸준히 쌓아온 마력은 강함의 지표였다. 아무리 이론을 배워도 마나가 부족하다면 소용없었다. 하지만 사람마다 담을 수 있는 마나의 양은 정해져있어서 마나친밀감이 높다고 무조건 강한 마법사가 되는 것도 아니다.

마나’친밀감’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증명하듯 마나는 몸에서 멀어질수록 흩어지는 특성이 있다. 모을 수 있는 한계가 왔다고 마나를 떼어 저장해봤자 끌어다 쓸 수 없으니 애써 모아둔 마나만 풀어주는 꼴이다.

“그래, 내가 멍청한 짓을 했지. 나도 알아. 마도시대의 마법을 쓰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 네가 차원이동자라 마도시대에 대해 얼마큼 아는지 모르겠지만, 마탑은 아는 걸 보니 마도시대도 알 것 같은데? 아니야? 사실 너는 이 세계에 대해 되게 잘 아는 듯이 말하다가 어떨 땐 또 전혀 모르는 듯이 말해서 짐작이 안 돼. 도대체 이 세계로 넘어온 지 얼마큼 된 거야? 겉보기엔 어려 보이는데...”

옐츠란 답지 않게 예리한 지적이었다. 이 세계에서 산 지 굉장히 오래되었고 죽지도 않는 몸인걸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았기에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인간들은 사소한 차이는 인정하지만 다름은 두려워한다. 연애를 하려고 귀찮은 일을 뛰어드는 마당에 1000살 가까이 산 사람이라는 딱지를 달고 싶지 않았다. 누가 1000살 가까이 산 불사신과 연애하려고 할까? 바로 따끈따끈한 거짓말을 내뱉으려는데 그웬이 때맞춰 끼어들었다.

“개인적인 질문은 나중에 하자고 했을 텐데. 또 이야기가 샜잖아.”

옐츠란은 조금 불만이 서린 눈빛으로 그웬을 흘긋 쳐다봤다.

“...마나를 봉인해서 저장 해둔 거라 찾아서 다시 흡수해야 해. 마나를 봉인해둔 곳이 페이퍼트라 거기로 가는 거야.”

옐츠란에게 묶여있던 얇은 실 같은 기운이 이제야 이해가 갔다. 왜 길 찾기에 서툰 옐츠란이 길잡이 노릇을 했는지도. 어차피 목적지는 옐츠란의 마나가 봉인된 페이퍼트니 옐츠란이 기운을 더듬어 가까운 경로로 안내했던 거다.

“그리고 페이퍼트는 내 영지라서 안전지역이야. 맬런의 종들은 함부로 못 들어와. 지금쯤이면 왕가 쪽 귀족들이 많이 모였을 거야. 대부분 피신 온거겠지만.”

“페이퍼트를 전략본부로 삼고 거기서부터 일을 시작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페이퍼트에 도착하는게 우선이죠.”

줄곧 입을 닫고 있던 데블랑은 페르디낭에 관한 얘기가 나오자 겨우 입을 열었다. 기특해서 말린 살구가 담긴 접시를 앞으로 밀어주었더니 다시 방어적인 태세로 돌아갔다. 그웬은 전에 앉았던 의자에 전과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때는 생각에 잠긴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 푹신한 의자를 만끽하고 있었다. 평생을 귀족으로 자랐는데 의자는커녕 땅바닥에서 뒹굴었으니 오랜만에 만난 의자가 반가웠나보다. 놈은 티나지 않게 손가락으로 살살 의자 손받이를 쓰다듬고 있는 중이었다. 역시 그웬이 제일 앙큼하다.

“그럼 이제 사적인 질문을 해도 될까?”

옐츠란은 그렇게 게워내고도 안 피곤한지 자세까지 고쳐 앉으며 학구열을 불태웠다. 그래, 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어른이니까 대충 피해간 다음에 다 내보내지야지. 옐츠란이 질문세례를 퍼붓기 전에 선수를 쳤다.

“근데 마탑 소속 마법사라면서 어떻게 영지가 있어?”

마탑은 국적불문하고 실력 있는 마법사를 영입한다. 온갖 국적이 섞이기 때문에 마탑은 정치적 중립을 지향하고 마탑에 속한 마법사들도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했다. 국가 간의 전쟁이라도 일어나게 된다면 자국의 일이라고 해도 마탑 소속의 마법사는 참전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마탑을 나간 후에는 자유지만 마법사란 마탑을 버리고 나라를 도울 만큼 자기희생적이진 않다. 자국의 전쟁에 참전하지 않는 마법사에게 영지를 하사하는 나라 또한 없다.

“아, 내가 열여섯 살 때의 일인데, 난 아주 어릴 적부터 마탑에서 자라서 조국에 대한...”

옐츠란을 말을 하다 말고 눈을 가늘게 좁혔다.

“궁금해서 물어본 건 아니지?”

이래서 반복학습이 무서운 거다. 먼저 질문하는 방법을 몇 번 써먹었더니 옐츠란까지 의미를 파악하게 됐군. 나는 어깨를 으쓱였다.

“너도 궁금해서 물어본 건 아닐 테고?”

옐츠란은 조금 열이 받은 태도로 뭐라 말하려다가 입을 닫고 흠, 흠. 하고 머뭇거리더니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자연스럽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레티시아, 도와주기로..”

가만히 눈을 감고 의자에 파묻혀있던 그웬이 눈을 슬쩍 떴다.

“이름 하나 부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는데.”

“그웬.”

옐츠란이 낮게 그웬의 이름을 부르자 놈은 ‘이번에는 쉬운가보군.’ 하고 눈을 감았다. 놀려대는 게 수준급이라 평소에 어떻게 다녔는지 짐작이 갔다. 둘의 사이가 안 좋은 건 성격이 상극이기도 하지만 분명 그웬의 저런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쳤을 거다. 옐츠란은 그웬을 한번 노려보고 하던 말을 마저 꺼냈다.

“레티시아, 도와주기로 계약 했으니 협조 좀 해. 우리 상황은 다 설명했는데 너는 왜 계속 제멋대로야? 제대로 답한 게 없잖아.”

옐츠란이 진지하게 말하건 말건 나는 곁눈질로 데블랑이 말린 살구 하나를 집어먹는걸 훔쳐보며 웃음을 참고 있었다. 깨물어주고픈 우리 데블랑. 오물오물 대는 모습 좀 봐. 시선을 느낀 데블랑이 내 쪽을 쳐다봐 눈이 마주칠까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옐츠란의 진지한 눈동자가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난 한숨을 내쉬면서 의자에 몸을 깊게 기댔다.

“그래, 알겠어. 대신 하루에 한 가지만 질문해.”

“뭐?”

“네가 하는 질문이 마도시대 유물을 찾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야? 아니잖아.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이지. 그러니까 하루에 한가지씩이야.”

옐츠란은 허를 찔린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물었다. 놈은 잠깐 동안 조용하다가 눈에 띄게 밝아진 표정을 지었다.

“관련 있는 질문이면 상관없는 거지?”

핑계는 붙이려면 얼마든지 붙일 수 있는 거라 안 봐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귀찮게 할 게 뻔했다. 내가 귀찮다는 표정을 노골적이게 지었는지 입 안에 든 살구를 다 삼킨 데블랑이 옐츠란을 말렸다.

“레티시아씨가 곤란해 하시잖아.”

그래 맞아. 내가 곤란하다고.

데블랑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니 옐츠란이 차분하게 “알겠어.”하고 대답했다. 고분고분하게 나오니 갑자기 측은지심이 든다. 살짝 가련함이 감도는 표정이 더 잘생기기도 했고. 사실 그렇게 곤란한 일은 아니다. 어차피 같이 다니기로 한 이상 귀찮음은 감수하기로 했고 전과 다르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생활을 하려고 마음먹었지 않은가. 귀찮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꾸 대화를 생략해버리면 발전은 없겠지.

“그럼 오늘의 질문. 원래 살던 세계는 어떤 곳이야?”

아냐, 역시 귀찮다. 나는 옐츠란의 질문을 못 들은 척 하며 침대로 걸어가 드러누웠다. 옐츠란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따라와 침대 맡에 섰다. 대답을 듣기 전까지 거기 계속 서있을 기세였다.

그웬은 고개를 뒤로 젖힌 채 말했다.

“레티시아와 정상적인 대화는 불가능해. 쓸데없는 시도는 포기하는 게 좋을걸. 본인 하고 싶은 말만 한다고. 안 그래요, 릴리스?”

손깍지를 낀 채로 누워 나는 코웃음을 쳤다. 옐츠란은 나와 그웬을 번갈아보더니 괴상한 표정을 지었다.

“벌써 애칭을 부를 정도로 각별해진거야?”

침대에 한번 누우면 일어나기 힘든 나까지 일으키는 개소리였다. 나는 침대에 앉아 인상을 찌푸렸다.

“생각 좀 하고 말해. 릴리스가 어떻게 내 애칭이겠어?”

“아.”

옐츠란이 그럼 그건 어디서 나온 이름이냐고 그웬에게 묻는 동안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놈들을 쫓아낼 수 있을지 고민했다. 낮잠을 잔다고 하긴 애매한 시간이고 잠을 잔다기엔 이르고.. 배가 고프다고 하면 같이 먹으러 가자고 할 텐데...데블랑만큼 얌전하면 좋을 텐데 두 놈 다 시끄러우니 같이 있기 피곤하다. 그나마 그웬은 조용한 편이지만 옐츠란과 같이 있으면 빈정대느라 시끄러워졌다.

“목욕을 할 거야.”

쫓아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생각났다. 내 말에 세 놈 다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봤다.

“따뜻한 물로 씻고 싶어. 다들 나가.”

그웬이 봤어? 라고 묻는 듯한 표정으로 옐츠란을 쳐다봤다. 놈은 동감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어쨌거나 씻고 싶다는 말에 성별이 다른 세 놈은 아무런 말 못하고 방에서 나갔다.

“내일 해가 뜰 때 쯤 다시 찾아올게요. 해가 완전히 떴을 때 말고 뜰 때쯤이니까 미리 떠날 준비를 해두세요.”

문을 닫기 전에 데블랑이 조금 냉랭함이 가신 말투로 말했다. 내일쯤이면 전처럼 귀여운 데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다. 나는 말랑한 볼을 꼬집어주고픈 충동을 꾹 참고 고개를 끄덕였다.

새벽공기에선 새벽의 냄새가 난다.

이상한 표현이지만 빌어먹지도 못하는 내 말 주변으론 이게 최선이다.

새벽의 냄새는 이 곳이나 전의 세계나 같아서 맡을 때면 잊고 있던 것들이 떠오르기도 한다. 너무 오래돼서 끊긴 기억. 어렴풋하게 감정만 남은 예전의 삶들. 빛이 다 들어오지 않는 크리스마스 전구처럼 가냘프게 반짝이는 감정들을 이어본다. 모두 다 헛수고다. 기억들은 너무나도 멀다.

긴 잠을 자고 나면 이게 문제다. 잠이 없어지니 새벽에 깨게 된다. 새벽은 고요한데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아 지나간 세월이여.. 하고 추억만 곱씹는 거다. 괜한 생각도 하고. 나이 든 티를 너무 내는군.

어쨌거나 나는 새벽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더 이상 오를 경지가 있나 싶지만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선 원래 반성의 시간이 필요한 거다. 어제 잠깐 스친 생각을 곱씹으며 나는 내 실수를 인정했다. 나처럼 특수한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만 나는 아직도 견고하게 쌓은 성에서 고집스럽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연애를 하려고 던전에서 나왔는데 이러다간 친밀한 관계는커녕 저번과 똑같을 게 뻔했다.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흘러가는 대로 살자. 귀찮으니까. 하고 평행선을 긋겠지.

몇 십년간 멀리하고 살아서 까먹었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대화가 우선이지 않은가. 귀찮긴 해도 꾹 참고 앞으론 세 놈들과 대화를 해 볼 작정이다. 그러면 페르디낭 궁에 입성할 때쯤엔 말솜씨가 나아져있겠지. 예전엔 음유시인 하겠다고 설칠 정도로 물에 빠지면 동동 뜰 입을 가졌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

해가 뜰 때쯤이라는 애매한 약속시간을 정했지만 놈들은 딱 알맞게 여관 입구에 도착해있었다. 셋 다 여독을 풀지 못해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제대로 씻었는지 어제보다 봐줄만한 몰골이었다. 아침을 못 먹고 나왔는지 전부 손에 샌드위치를 들고 있어서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슬 배고픈데 잘 됐다.

나는 자연스럽게 옐츠란이 들고 있던 샌드위치를 받아들었다. 별 거 아닌 재료가 들었지만 금방 한 빵으로 만들었는지 고소한 맛에 먹을 만했다. 내가 샌드위치를 먹는 모습에 감명을 받은 건지 옐츠란은 입을 떡 벌리고 쳐다봤다.

“내 아침을 왜 자연스럽게 뺏어먹지?”

나는 한 입 더 베어 먹고 남은 샌드위치를 내밀었다. 남이 식사하는데 딴지를 걸다니, 정말 예의가 없군.

“그렇게 배가 고팠으면 말을 하지. 자.”

옐츠란은 샌드위치를 풀어야할 문제처럼 쳐다보더니 나를 보고 고개를 저었다.

“내가 생애 처음 만난 초월자가 이런 사람이라니, 안 돼...”

먹기 싫으면 말고. 나는 어깨를 으쓱한 뒤 샌드위치를 마저 먹었다. 데블랑이 양 손에 든 샌드위치 중 하나를 옐츠란에게 건넸다.

“레티시아씨 샌드위치는 여기 있는데... 많이 배고프셨나봐요.”

볼을 깨물어주고플 만큼 귀여운 미소와 함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얼핏 상냥함이 어린 시선이었다. 하루 만에 데블랑은 생각 정리를 끝낸 모양이다. 그래, 그렇게 의견 차이는 한쪽이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다. 내 경우엔 대체로 상대방 쪽이 인정하고 넘어갔지. 데블랑에게 상냥한 미소를 건네자 내가 데블랑을 잡아먹기라도 할 것처럼 그웬이 슬그머니 데블랑을 가리고 섰다.

“순간이동 마법진을 사용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질문이 하고 싶어서 앞으로 한발 나온 것처럼 굴었지만 내가 데블랑 쪽으로 다가가자 은근히 몸을 틀어 나와 데블랑 사이를 막아섰으므로 어이가 없어졌다. 방탕하게 연애를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당장, 데블랑처럼 어린 것을 발가벗겨 잡아먹겠다는 뜻이 아니었다.

하지만 데블랑과 그웬의 나이차이, 평소 태도를 보건데 그웬이 데블랑의 형처럼 살뜰하게 보살펴줬을 테니 예민한 반응은 이해하기로 했다.

“내가 마법사라는 걸 잊었나봐?”

“음, 그렇군요.”

별로 대화할 마음조차 없다는 게 티가 날 정도로 심심하게 대답하며 그웬은 고개를 돌렸다. 똥을 더러워서 피한다는 심정으로 나는 옐츠란 가까이 붙어 섰다. 옐츠란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샌드위치를 높게 들었다.

“어, 이건 안 돼. 각자 하나씩이라고.”

나는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해 내 샌드위치를 마저 베어 물었다.

순간이동 마법진의 이용절차는 예전보다 간편해졌다. 마법진의 보편화 덕이겠지만 나는 마법사로서 특별한 힘이 시시한 기술이 된 현실에 아쉬움을 느꼈다. 꽉 막힌 마법사처럼 마법은 마법사만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인들이 마법을 빌려 쓸 때 많은 돈을 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내 주머니로.

옐츠란이 간단한 서류를 작성해 담당 마법사에게 내밀자 졸려 죽고 싶어 하는 표정을 가진 놈이 대강 서류를 확인했다.

예전에는 순간이동 마법진을 쓰겠다고 귀족들이 순번을 기다리며 고상한 척 앉아 있는 게 흔한 풍경이었는데 이젠 여기도 고리타분한 마을회관과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담당 마법사가 하품을 슬금슬금하며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도장을 성의 없이 찍는 중이라 그 느낌이 더 했다. 누군가의 지루한 일상 속에 들어 온 거 같아 기분이 묘했다.

사실 감자영주가 그 날 이후로 너무 조용해서 먼저 텔른에 와 기다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다. 혹은 신전 떨거지들이라도.

길잡이가 옐츠란이라 애매한 경로로 움직이긴 했지만 조금만 머리를 굴려본다면 도착지가 텔른이라는걸 예측 못 할 정도는 아니었다. 병력을 풀어 기다렸다면 여기까지 오는 길이 조금 번거로워졌을 수도 있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보다.

하긴, 반대로 생각해보면 중간 마을을 거치지 않고 산길로만 요리조리 다닌 무리의 경로를 예측하기란 어렵다. 나는 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나 같지는 않다.

새벽에 했던 반성 중엔 제대로 살아보겠다는 결심도 포함되어있어 사무적인 태도의 담당 마법사만 마주하고 있자 슬 지루해졌다. 모험이라고 그럴싸하게 칭해도 부끄럽지 않을 과거의 삶과 비교해보면 지금은 거의 강가의 물결이다. 잔잔하고 살랑살랑한 게, 평화롭긴 해도 재미가 없다.

나는 지루함을 이기지 못하고 이동마법진 가장자리를 따라 한 바퀴 빙 돌며 술식이나 구경했다.

변한 게 없군. 이기적인 마법사들.

순간이동마법진이 보편화 될 정도로 시간이 흘렀는데 마법진은 여전히 부작용이 있는 술식 그대로였다. 보통 마법사들은 혼자, 혹은 원하는 동반자를 포함해 이동할 수 있는 순간이동 마법을 쓰지 진을 그려야하는 단체 순간이동 마법진을 사용하진 않는다. 그러니 굳이 부작용을 고쳐야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다. 조금만 붙잡고 연구하면 모두가 편안해질 텐데 다들 자기 시간은 무슨 금인줄 안다.

나는 그런 마법사들과 다르다. 너무 배려 넘치고 상냥해서 후대에 나올 이타심 넘치는 마법사가 세울 공을 뺏기 싫어서 더 나은 마법진을 알려주지 않는 것뿐이다.

옐츠란은 내가 마법진의 한 곳을 유심히 보고 있자 슬쩍 옆으로 와서 같이 구경했다.

“이 부분 왜 13번째 문자를 썼지? 이러면 피시동자에게 무리가 가지 않나? 보조 문자를 추가해주는 편이 나을 텐데.”

음, 이타심 넘치는 마법사가 옐츠란은 아닐 텐데... 아니어야 할 텐데.

잠깐 보고 남이 고안한 마법진의 문제점을 짚을 정도의 능력이 놈에게 있을 줄은 몰랐다.

나는 노력형 천재에 가깝다. 한 번의 자살이 기적처럼 모든 능력을 주진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죽었다 살아난다고 해서 원하는 만큼의 능력을 얻는 건 아니라서 따지자면 80%의 노력과 20%의 자살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마법 또한 그렇다. 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강한 건 사실이지만 역사에 남은 쟁쟁한 마법사들과 비교해본다면 조건이 열악하다. 나는 그들이 가진 명석한 두뇌나 번뜩이는 천재성, 타고난 마법적 재능이 현저하게 부족했다. 하지만 결국 승리하는 건 시간이라 걔네는 죽었고 나는 아직 살아있다. 자, 이제 승리자는 누구지?

넘쳐흐르는 시간동안 꾸준히 실력을 쌓은 나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앞으로 더더욱 그럴 것이다.

그래도 천재는 아니 꼽다. 내가 몇 년, 몇 십 년, 혹은 몇 백 년의 시간이 걸려 해낸 것을 그냥 해보니까 되던데요? 식으로 성공하면 아니꼬울 수 밖에 없다.

나는 슬쩍 옐츠란을 노려봤다. 멍청한 줄 알았는데, 천재는 아니겠지?

“왜 그런 표정으로 봐?”

“내 표정이 어떤 데?”

“재수 없다는 표정.”

“맞췄네.”

옐츠란은 나를 이해 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인상을 찌푸리며 한숨을 쉬었다. 그리곤 문제의 부분을 다시 들여다봤다.

“마법진에 대해선 물어봐야겠어.”

옐츠란은 그렇게 말하고 담당마법사에게 가다가 발을 헛디뎌 거의 넘어질 뻔 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걸핏하면 땅과 키스하려고 하다니, 재주라면 재주였다.

생각해보니 다른 부분이 저렇게 모자란데 마법적 재능마저 모자라면 억울한 인생이겠다. 놈이 천재라면 아주 적절한 능력치 배분이다. 아니라면 불쌍한 인생이고.

그웬 같은 놈이 천재이기까지 해야 불공평 한 거지.

옐츠란의 질문에 담당 마법사가 ‘규정이라서요.’ ‘전부터 사용하던 마법진이에요. 문제제기는 관련 부서에 하세요.’ ‘아, 글쎄. 지금 말씀하셔도 제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깐요?’ 하고 실랑이하는 동안 마법진 사용 준비가 늦어지기에 나는 슬며시 그웬 옆에 가서 섰다.

“너 천재야?”

“이상한 소리 할거면 말 걸지 마세요.”

참 비협조적이군. 고마워라.

사소한 대화부터 시작하려는 내 노력을 무시하네.

하지만 난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다. 언젠가 저 놈은 진짜 끝장을 보겠다.

“앞으로 같이 다닐 사이니까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잖아?”

저는 당신과 친해지기 싫은데요. 하고 딱 잘라 거절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웬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미미하게 눈가가 굳었지만 눈을 마주치는 건 대화의 준비단계이니 나쁘지 않다.

“아무래도 당신의 마법사적 어법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제 몫인 듯 하네요.”

그럼 내 말투를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리? 이상한 소리를 다 하네.

어쨌거나 털 세운 고양이처럼 경계하던 때보단 나았기에 나는 한 번 더 물어보았다.

“너 천재냐고.”

“구체적으로 질문해줄래요? 대뜸 천재냐고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합니까?”

나는 옐츠란을 말리는 데블랑을 보며 말을 정리했다.

“그러니까 검술 쪽으로? 숄테나에서 보니까 꽤나 하던데.”

그웬은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대답하기 애매하네요. 제 입으로 천재라고 말하는 건 우습지 않나요. 그렇다고 아니라고 말하기엔... 남들보다 성취가 빠른 편이긴 하죠. 천재라는 소리도 종종 들었고.”

와, 너 재수 없다. 라고 말하려는데 옐츠란과 분쟁을 끝낸 마법사가 “자, 마법진 안에 서주세요.” 하며 다가왔다. 옐츠란에게 시달려 5년은 늙은 듯 한 얼굴이었다.

우리가 전부 마법진 안에 서자 마법사는 사무적인 목소리로 주의 점을 줄줄 읊기 시작했다.

‘마법이 시동되는 동안 마법진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순간 이동 후 약간의 어지럼증을 동반한 멀미가 생길 수 있으며 드물게 구토, 미열 등의 증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도착한 곳의 담당 마법사에게...’ 어쩌고 저쩌고 하기에 나는 속삭였다.

“그웬 재수 없어.”

속삭였다고 하지만 다 들릴만한 목소리라 옐츠란은 이유도 모르면서 동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텔른에서 페이퍼트까지 먼 거리는 아니라고 했으니 부작용은 없을 것이다. 부작용은 이동하는 거리에 비례해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는 사람은 드물지만 나는 순간이동 마법진으로 몇 십번 왔다 갔다 한 사람에게 건너 들었다.

빨리 보내고 쉬어야지 하는 생각이 여실히 드러나는 얼굴로 마법사는 “그럼 이동합니다.” 하고 마법진을 발동시켰다. 언제 봐도 눈부신 빛 무리와 함께 우리는 워프 했다.

——

솔직히 왕가쪽 귀족이 많이 모였을 거라는 옐츠란의 말에 그래봤자 얼마나 되려고. 하는 마음이었다는 걸 인정한다. 세 놈을 보면 오합지졸이라는 말이 딱 떠오르는 게, 마도시대 유물을 찾아 마법도시를 세운다는 터무니없는 계획에 동참하는 귀족은 얼마 없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늘 상상을 뛰어넘는다. 놀라운 세상! 지금 내 눈 앞엔 데블랑을 환대하는 오합지졸로 가득했다. 적어도 스무 명쯤은 돼 보이는 숫자라 내가 모르는 엄청난 마도시대 유물이 있나보구나 짐작했다. 여기 모인 귀족들이 다 멍청이라 불확실한 도박에 뛰어들 진 않았을 테니까.

페이퍼트에 도착한 뒤 옐츠란이 성에 전갈을 넣어 성까지는 마차를 타고 왔다. 마차에서 내려 처음 본 모습이 환대하는 꽤 많은 수의 귀족들이었다. 나는 빠르게 그들의 얼굴을 훑었다.

잠깐 동안 사기당한 기분이었다.

또 다른 데블랑과 성격 더럽지 않은 그웬은 어디있는거지? 너무 닮아서 구분하기 힘들 거라더니 데블랑이 앞서 귀족들 사이에 서자 군계일학이었다. 다들 페르디낭인의 특징을 가지긴 했지만 눈에 띄게 귀엽거나 잘생기거나 예쁘진 않았다.

계약사기는 어디 가서 신고하지?

가까이 있는 옐츠란의 멱살부터 잡아야하나 고민하는데 앞줄에 있던 나이 든 귀족들이 좀 비켜서자 드문드문 젊은 귀족들이 얼굴을 비춰 조금 침착해졌다. 음, 나쁘진 않다. 다 잘난 건 아니었지만 다 나쁜 것도 아니었다.

나는 흘긋 옐츠란을 쳐다봤다. 이건 아주 뛰어난 쪽이라 기준으로 삼기에 애매하다.

좀 더 사근사근한 성격이었다면 내가 예뻐해 줬을 텐데. 아니지, 데블랑의 성격에 옐츠란의 얼굴, 그웬의 몸. 그런 조합이면 얼마나 좋을까.

북적대는 와중에도 귀족들이 힐끔힐끔 나를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다. 데블랑도 그걸 느꼈는지 나를 소개했다.

“미리 소식을 들었겠지만 이 분이 초월자 레티시아씨입니다.”

데블랑이 귀족들에게 쓰는 공적 높임말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 자신보다 낮은 계급의 사람에게 공적인 자리에서 쓰는 높임말이다.이 낯설게 들렸다. 항상 내겐 동등높임말본인과 상대가 동등한 계급에 있을 때 쓰는 높임말을 쓰기 때문에 조금 딱딱한 발음의 공적 높임말은 귀염성이 덜했다.

귀족들은 데블랑의 말을 듣고 환호했지만 글쎄, 데블랑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이 여기서 얼마나 될까. 인간들의 지독한 편견에 따라 어리고 약해보이는 여자로 변한 나는 겉보기엔 아주 무해해보였다. 마법을 쓰다가 픽 하고 쓰러질 것 같은 마른 소녀를 대단한 지원군으로 인정하긴 힘들 테지. 얼마 안 있어 능력을 증명해보라는 둥 귀찮은 요구가 들어올게 뻔했다.

그리고 정말 얼마 있지도 않아 능력을 증명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왔다. 짐을 풀고 옷을 갈아입고 다 같이 가벼운 점심을 위해 모인 자리에서였다. 예상보다 더 빨라서 누가 처음 말을 꺼낸 지 모르겠지만 조루 같은 인내심에 박수를 보내고픈 심정이었다.

적어도 이틀쯤은 눈앞에서 빈둥거려줘야 ‘당신이 어디서 온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하고 달려들 줄 알았는데. 나는 데블랑에게 정말 그러길 원하냐는 듯 한 시선을 보냈다.

음식이 다 나오기도 전이었다.

음식이 차례로 나오는 저녁과 달리 점심은 한 상 가득 차려놓고 각자 음식을 떠다먹는 형식이었고 그 말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모여 스프조차 못 떠먹었다는 뜻이었다. 식사를 하며 신변잡기식의 대화를 주고받고 본론을 꺼내는 게 귀족들의 방식인데 대뜸 능력부터 증명해보라니, 예의에 어긋나는 짓이다.

데블랑은 미안하다는 듯 난처한 미소를 지었지만 나서서 말리지는 않았다. 나머지 두 놈도 말리는 태도는 아니었다. 오히려 옐츠란은 부추기는 말까지 얹었다. 퍽이나 내 능력치가 궁금한가보다. 왕자가 잠자코 있자 그래도 된다고 판단했는지 나머지 귀족들도 한마디씩 보탰다.

‘뜻 깊은 자리인 만큼 초월자님의 능력을 보고 축배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초월자님의 힘을 보여주신다면 든든하겠네요.’ ...

왕의 인정을 받은 귀인이니 도를 넘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무례는 무례였다.

과연 내가 덩치가 엄청 크고 근육도 우락부락한, 겉보기에 엄청 강해보이는 사람이었다면 증명을 요구했을까? 자기네 왕도 직접 보지 않고 말 몇 마디를 듣고 인정했는데 밑의 귀족들이?

나도 내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일지 짐작 가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스푼을 들기도 전에 눈엣가시를 치워버리겠다는 태도는 어이가 없었다. 닭다리로 몬스터를 때려죽이고 높은 곳에서 뛰어 내리고 데블랑을 데리고 워프 한 걸로는 모자랐나보다.

동물원 원숭이처럼 능력을 증명하는 일이야 정말 별 거 아니지.

나는 헛웃음을 지으며 일어섰다.

“어떻게 증명하면 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목을 다 날리면 되나?”

순식간에 나름 화기애애하던 분위기가 굳었다.

“농담이야.”

진담이어도 상관없지만.

주요 위치에 있는 귀족들만 점심식사에 초대 했는지 수명을 다 못 누린다 해도 아주 조금 이른 죽음일 것 같은 사람들만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농담이라고 했는데도 녀석들은 불쾌감이 감도는 얼굴로 쳐다봤다. 농담이라잖아. 웃어.

“페르디낭은 초월자를 이렇게 대접해?”

나는 아주 깔끔한 마도어로 말했다.

내가 한 말 중 페르디낭 이라는 단어 빼곤 알아듣지 못한 귀족들이 의아한 얼굴을 했다.

마도시대 때 마법사들끼리만 썼던 언어라 지금은 사장되어 학계에서도 간단한 문장만 해독 가능한 정도니 알 턱이 없었다.

유물을 찾는 일은 보물찾기처럼 신나고 재밌는 일이 아니다. 과거의 기록들을 뒤져가며 종이와 씨름해야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다. 이들이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마도어가 툭하고 길을 가로막을 것이다. 뻔하게 예측되는 미래에 마도어 구사 자체만으로 내 능력은 증명된 셈이지만 역시나 알 턱이 없다. 나는 가치도 모르는 이들을 위해 능력을 쓰진 않을 거다.

요란하게 의자 넘어지는 소리에 시선을 돌리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옐츠란이 자리에서 일어나있었다. 뭔가 알아들은 모양이군. 나는 옐츠란과 시선을 맞추며 다시 또박 또박 마도어로 말했다.

“대접에 걸맞은 손님이 될 생각이야. 그릇이 작으면 그만큼만 담아야지.”

그들의 무례에 화가 난 건 사실이었다.

그렇지만 농담처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목을 날릴 정도로 화가 난 건 아니었다. 나는 꽤 오랜 시간을 살았고 이것보다 더 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수십 번은 겪었다.

새삼스레 이들의 도발에 넘어가 이곳을 불지옥으로 만들어주지 하고 유성을 떨어트리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는 거다. 나의 뛰어난 능력을 보아라 하고 뽐내듯 대단한 마법을 난사해 존경과 두려움을 받는 것도 유치한 일이고. 삼백 살에나 했던 짓이지.

식전 구경거리나 될 능력을 원하는 거라면 그만큼의 도움만 줄 생각이다. 아직 어린 초월자가 차원 이동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쌓은 마법능력이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날까. 기껏해야 이정도 될까.

나는 내 앞에 주먹 만한 마력측정구를 세 개 띄웠다. 뭐든지 정확히 수치를 매기길 좋아하는 마법사들이 마력을 측정할 수 있는 마법을 만들지 않았을 리 없다. 측정마법을 쓰면 정확한 양의 마나가 담긴 구체가 만들어진다. 마력측정구 세 개면 대형 마법100m제곱을 불로 가득 채우는 규모 세 개를 연달아 쓰고 지치는 정도다. 다른 말로 하면 전쟁에서 고등마법 시전을 준비하는 마법사를 위해 시간 끄는 보조 마법사급이다.

마법사가 워낙 귀하니 대단한건 맞지만 마법사들 사이에서 엄청난 건 아니다.

사실 이정도 마력 가지곤 한 명을 더 데리고 모르는 좌표로 워프 할 수 없지만 그런 사실을 모르는 귀족들은 놀라운 척 하며 박수를 쳐댔다. 개 중엔 그러면 그렇지. 하는 표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놈들도 있었다. “목을 날린다는 살벌한 농담을 하더니 인상적이네요! 식전에 작은 선물을 받은 기분입니다.” 하고 비꼬는 녀석도 있었다.

다들 각자의 방식대로 떠들썩한 분위기에 섞여드는데 옐츠란만 진심이 묻어나는 놀란 표정으로 멈춰있었다. 내가 자리에 앉았는데도 옐츠란은 계속 서있어 근처에 앉아있던 귀족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볼 정도였다.

데블랑은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지만 분위기에 맞춰 어색한 얼굴로 귀족들을 상대하는 중이었고, 그웬은...전혀 믿지 않는군.

나와 눈이 마주친 그웬이 미간을 찌푸리며 뭐라 말하려는데 거의 뛰어서 탁자를 돌아온 옐츠란이 내 어깨를 짚었다.

“아까 한 말 다시 해 봐.”

나는 옐츠란의 손을 툭 밀쳤다.

“페르디낭인은 한결같이 무례하네. 식사예절 몰라?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상대가 디저트 스푼을 들 때까지 기다려야지.”

“아까 한 말 마도어 맞지? 아는 단어가 들렸는데? 마도어를 할 줄 아는 거야?”

“예절교육부터 다시 받고 와.”

나는 황망한 표정으로 서있는 옐츠란을 무시하고 고개를 돌렸다. 사람들의 얼굴이 볼 만하다. 옐츠란에게 말했지만 비단 그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는 걸 다들 알 것이다. 그러니까 저렇게 울그락불그락하지. 데블랑은 이제야 내 기분을 눈치 챘는지 어쩔 줄 몰라 하며 “오, 어어...아! 레티시아씨. 죄송합니다..” 하고 입을 떼었다. 그 뒤로 아마도 길고 장황한 사과를 늘어놓으려는데 그웬이 말을 자르고 들어왔다.

“레티시아, 왜 실력을 숨기십니까?”

너무나도 귀족적인 그웬이 식사예절을 몰라서 하는 질문은 아닐 테고, 대접을 해주지 않는다고 투정부리냐는 소리로 들려 화가 조금 더 났다.

그웬은 인간의 껍집을 뒤집어 쓴 미지의 생물체를 보듯 나를 봤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당신이 그것보단 강하다는 걸 알아요. 실력을 숨기는 이유가 뭡니까? 뭐가 또 그렇게 불만인거죠?”

뭐가 또 그렇게 불만이냐고 묻는다니, 대답해줘야지.

나는 마력측정구를 그웬 뒤쪽으로 날려버렸다. 응축되어있던 마력은 바람으로 된 칼날이 되어 벽을 할퀴었다. 코끼리가 고양이의 발톱을 가지게 된다면 저렇게 해놓을까. 아주 매력적인 작품이다.

실내에 휘몰아친 바람이 빠져나갈 곳을 찾다가 유리창을 모조리 깨트리고 나갔다. 때 아닌 소란에 계급 막론하고 사람들은 머리부터 보호하며 소리 질렀다.

“내가 말했지, 이건 어디까지나 도와주는 거라고. 난 페르디낭인도, 페르디낭 왕가를 섬기지도 않아. 계약에 따라 국가가 요청한 세 번의 도움만 강제성을 띠는 거야. 설마 능력을 증명 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요청인가? 그럼 내 행동을 사과하지.”

혼란이 끝나고 침묵만이 감돌았다. 사람들의 표정은 참 다양하기도 하다. 생생한 감정은 파도처럼 높아졌다 부서지며 서로 섞였다.

“ 도와달라고 해놓고 먼저 쓸모부터 증명해라? 궁금하면 정중하게 물어봤어야지, 식전 구경거리로 소비할 게 아니라.”

페르디낭과 한 계약에 따르면 나는 국빈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 극진히 대접받지만 언젠가는 떠날 손님인데 왜 귀족들은 자기 밥그릇 빼앗기나 덜덜 떨까? 귀족들이 벌이는 눈치싸움은 정말이지 질린다. 식전부터 능력 증명을 요구했던 건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계산이 깔린 짓이다.

예법을 모르는 차원이동자를 깔보고 창피를 줘 기선 제압할 속셈이었던 거다. 감히 나에게 말이다.

하지만, 기선은 내가 잡은 거 같군.

나는 식탁을 짚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생각해보니...별로 배고프지 않네.”

나에게로 꽂히는 시선들을 뒤로 하고 문을 열고 나왔다. 잠깐의 침묵 후에 열띤 고성이 뒤섞였다.

저런 여자를 들일 생각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여자인지 몰라도 왕자님의 총기가 흐려지신 모양이군요!

시종일관 하대를 하면서 예절을 운운하다니요?

도와준다는 애매한 계약사항으로 초월자를 곁에 두긴 어렵습니다. 확실하게 잡을 것이 아니면 차라리 추방하는 편이 나아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실내에서 마법을 휘두르다니!

저런 여자를 들일 생각이냐 운운한 머리가 거의 벗겨져가는 놈은 며칠 뒤에 연못에 들어가 잉어가 몇 마리인지 저승 가서 세어보게 될 것이다. 빠지는 줄도 모르게 마법으로 밀어줄 거니까.

전쟁통 같은 홀을 뒤로 하고 가는 중인데 누군가 빠르게 뒤쫓아 오는 소리가 들렸다.

“레티시아!”

이 목소리는 옐츠란이군. 사실 제일 먼저 쫓아오는 건 데블랑일줄 알았다. 하긴, 넷이서 여행 다닐 때와 지금은 다르다. 데블랑은 달래야 할 귀족이 밑으로 줄줄 딸린 왕자님이다.

옐츠란은 잠깐 숨을 몰아쉬더니 옆구리를 부여잡고 입을 열었다.

“아까 그거 마도어 맞지? 제발 그것만 대답해줘.”

지금 상황에 참 적절한 질문이군.

방금까지 내가 화내면서 유리창 깬 자리에 같이 있었으면서 그건 안중에도 없나보다. 바람으로 날려버릴까 했는데 혼자 심각한 듯 미간을 찌푸린채 숨을 거칠게 쉬는 모습에 화가 풀려버렸다. 나는 잘생긴 것을 보면 화가 풀리는 병이 있다.

생각해보니 별 거 아닌 일에 요란하게 화낸 것 같기도 하다. 식사예절 안 지킨 게 뭐 대수라고. 쩝쩝 소리를 내면서 먹는다고 밥상을 엎어버린 것과 다를 게 뭔가.

그냥 어른답게 그건 식사 후에 보여주겠다고 하면 될 것을.

나는 배에 손을 올려보았다. 허전한 느낌이 드는 걸 보니 배가 고파서 예민한 탓에 그랬나보다. 참 귀여운 나. 요 매력 덩어리.

하지만 대접에 걸맞은 손님이 되겠다는 말은 사실이다. 아직 홀에서 들려오는 소리만 들어봐도 페르디낭 귀족들은 마음에 안 드는 족속이다.

여전히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옐츠란에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비슷하게 들렸는지 몰라도 원래 세계의 말이야.”

옐츠란은 눈에 띄게 실망한 태도로 “아...” 하고 한동안 말없이 서있었다.

“음식 따로 갖다 줄까?”

풀이 죽은 채로 옐츠란은 고작 그 말을 물어보더니 내가 됐다고 하자 고개를 끄덕이고 발을 질질 끌며 다시 홀로 들어갔다.

산들 바람에 나뭇잎들이 파삭파삭 스치는 소리, 알맞게 내려쬐는 햇빛, 정원사의 손길이 닿은 꽃들은 병든 부분 없이 활기차게 예쁘고, 소록소록 올라오는 흙냄새도 좋다.

나는 배가 고프지 않다는 말이 거짓이라고 시위라도 하듯 정원에 테이블을 펴고 앉아 주머니에서 음식을 꺼내 거나하게 한 상 차렸다.

음식만 보고 고른다면 당연히 이쪽이지. 페이퍼트는 마탑 소속 마법사에게 준 영지답게 작고 소박해서 점심으로 차려낸 음식들도 가정식 같았다. 구황작물은 다양하게 조리해봤자 구황작물이다.

하지만 내가 차려낸 상은 고기와 고기, 그리고 고기로 이루어져있다.

와인으로 목을 축이고 포크를 들었는데 어디서 목소리가 들렸다.

“와, 엄청나네.”

왜 내가 항상 제대로 차려놓고 먹을 때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 같지? 나는 일단 목소리의 주인이 등장하길 기다리며 부드럽고 여린 양고기 스테이크부터 썰었다. 일단 양고기를 먹은 다음, 소고기를 먹고, 닭고기를 먹는 거다.

장미 덤불 뒤 쪽에서 데블랑보다 어려보이는열 셋이나 열 넷쯤 됐을까.빨간 머리 쌍둥이 남매가 환한 얼굴로 나왔다. 창백할 정도로 하얀 피부에 콧잔등은 붉어서 작은 도자기 인형 한 쌍 같았다.

“여기서 그런 거 먹어도 돼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기를 작게 잘라 여자아이에게 내밀었다. 경계심이 없는지 발랄한 건지 여자아이는 냉큼 고기를 받아먹었다. 나는 한 점 더 잘라 남자아이에게도 먹여 주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맞은 편 자리에 앉았다.

“사실 맛있는 냄새 맡고 온 거에요.”

맛있는 냄새로 귀여운 쌍둥이 남매를 끌어들이다니, 헨젤과 그레텔에 나오는 마녀가 된 기분이군.

내가 주머니에서 식기와 와인잔을 꺼내 주자 박수를 치며 신기해해서 더 그런 기분이 들었다.

막상 식기를 들고 머쓱한 표정이었지만 여자 아이는 좀 더 낯 두껍게 “그럼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하고 스테이크 접시 하나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남자아이도 작게 감사합니다. 하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저는 브리기테고, 얘는 브린이에요. 쌍둥이에게 비슷한 이름을 지어주다니, 부모님의 잘못된 선택이죠.”

자신을 브리기테라고 설명한 소녀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끊임없이 말을 할 수 있는 재주를 가진 듯 했다. 입에 가득 넣고 우물대는 느낌은 아니라서 나는 적당히 맞장구 쳐줬다.

브리기테는 쫑알쫑알 제법 입담 좋게 얘기했다.

대끊기 희생자로 브리기테의 이름이 나왔지만 부모님은 가문을 물려받을 브리기테를 보낼 수 없었다. 그래서 교단을 설득해 쌍둥이인 브린을 보내기로 합의 봤지만 그건 또 본인이 싫었단다.

“브린이 저보다 조금 모자라긴 해도, 미안, 브린. 하지만 네가 공부를 안 한 탓이잖아. 그래도 그런 이유로 수도자가 되라고 할 순 없잖아요.”

브리기테는 그렇게 말하고 어깨를 으쓱했다. 브린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 푸딩을 떠먹으려다가 놓쳤다. ‘뭐... 나도 나름 열심히 했거든...’ 하고 중얼거렸지만 브리기테는 별반 신경 쓰지 않았다.

“그래서 브린이랑 같이 도망쳐서 페이퍼트에 온 거에요. 어른들끼리 하는 얘기를 몰래 들었거든요.”

“여기서 저희가 제일 어려서 사람들이 잘 해줘요.”

이런 게 진짜 요즘 애들인가... 겁도 없구나.. 내 눈빛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브리기테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부모님이 걱정되긴 하지만.. 잘 계실 거예요. 어른이니까, 알아서 하시겠죠.”

나는 빈 접시들을 한 쪽에 쌓고 주머니에서 후식을 마저 꺼냈다. 저절로 물이 끓는 찻주전자까지 꺼내자 아이들은 다시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언니는요? 언니는 누구에요? 당연히 마법사죠?”

“내가 도착했을 때 거기 없었어? 데블랑이 내 소개를 했는데.”

“왕자님이요? 음...아아! 알겠다.”

브리기테는 손뼉을 짝 쳤다.

“어제 도착했다던 성격파탄자 초월자님!”

난 브리기테 앞으로 쿠기 접시를 밀어주다 말고 눈썹을 올렸다.

“성격파탄자?”

“벌써 성 안에 소문이 쫙 깔렸어요. 막 바람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공격했다면서요?”

코딱지만 한 성이라서 그런가, 어떻게 소문이 그렇게 빨리 돌지. 내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팔짱을 끼자 브린이 찻주전자를 들고 예절에 맞게 순서를 지켜 차를 따랐다. 음, 예절공부는 열심히 한 모양이지.

브리기테는 내 표정을 살피더니 쿠키 하나를 건넸다.

“하지만 저는 언니를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렇게 멋진 점심식사를 처음 보는 저희에게 나눠주시다니.. 좋은 사람이잖아요? 소문만 듣고 남을 판단하는 게 제일 나쁜 거랬어요. 책에서요.”

역시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한다. 브리기테가 자기 얘기를 쫑알대서인지, 순진무구한 아이들의 눈이 빛나서인지 몰라도 나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으로 시작하는 말을 꺼낼 수 있었다. 데블랑네와 말을 주고 받은 게 효과가 있는지 벌써부터 말솜씨가 좋아진 것 같다.

제일 화를 북돋았던 그웬의 말을 다시 읊다가 조금 열이 올라와 커스터드 크림만 떠먹는데 브리기테가 ‘그렇지만,’ 하고 입을 열었다.

“세이모어 가문의 그웬 렌츠잖아요.”

그걸로 다 설명 된다는 식의 말투였다. 그건 그냥 이름 아니었나? 뭐 유자 드레싱과 발사믹 드레싱을 곁들인 계절 야채샐러드 같은 느낌인건가? 여기 세이모어 가문의 그웬 렌츠 하나요. 음, 렌츠 부분이 아삭하네요.

내가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는지 브리기테가 풀어서 설명했다.

“세이모어는 대대로 기사가 나오는 무신가문이에요. 제일 유명하죠. 렌츠라는 말은 세이모어 가문의 첫 번째 검, 후계자를 뜻하고요. 동시에 제일 강하다는 뜻도 돼요. 가문 내에서 시합을 열어 강한 사람을 후계자로 정하거든요. 솔직히 이해 안 가지만요.”

“브리기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브리기테는 브린을 노려보더니 브린의 접시에 쿠키를 왕창 놓아주었다. 조용히 해. 입모양으로 속삭였지만 나는 놓치지 않고 봤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지만, 유명해요. 그웬님이 렌츠가 될 수 있던 건 어릴 때부터 신전에 가둬놓고 수련만 시켰기 때문이래요. 어른들이 말하는 거 다 들었어요. 일 년에 한 번, 가족의 달에 모여서 식사를 하면 제일 먼저 그 것부터 물어봤대요.”

‘실력을 보여 다오. 얼마나 성장 했는지 궁금하구나.’

신전에서 자란 그웬은 식사를 하려고 모인 자리에서 검을 휘두르는 것을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았다. 일 년에 한번, 겨우 얼굴 보는 아버지가 그동안 잘 지냈는지, 키는 얼마나 컸는지, 제일 친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지 않아도 전혀 섭섭하지 않았다.

성취를 자랑하는 시간은 어린 그웬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었다. 열심히 수련해서 강해지면, 아버지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거기까지 듣다가 의아해져서 물어봤다.

“잠깐, 너희가 그 자리에 있었을 리는 없고 그웬이 자서전이라도 썼어? 그웬 생각은 어떻게 알아?”

줄곧 그웬의 어린 시절 상편을 읊는 것 같던 브린이 볼을 붉힌 채 대답했다.

“제 상상을 조금 섞어서 말씀 드린 거예요.. 그랬지 않았을까요?”

“브린이 상상력이 좀 좋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재밌게 해요. 집에 브린이 직접 지은 이야기도 있어요.”

“브리기테! 그걸 말하면 어떡해.”

“비밀로 하고 싶으면 나한테 말하지 말았어야지."

브리기테가 혀를 내밀고 제법 얄밉게 말했다. 브린은 화가 난 얼굴로 브리기테를 쳐다보았지만 그 뿐이었다. 브리기테는 브린이 자신에게 덤비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입모양으로 '어쩌라고' 하고 말했고 브린은 브리기테를 꼬집었다. "아야! 이게!" 브리기테도 화가 나서 브린을 세게 밀쳤다.

그대로 두다간 자기네들끼리 거하게 싸울 것 같아 나는 둘을 말리고 적당히 브린을 칭찬해주었다. 브린은 수줍게 웃었지만 브리기테는 자기가 칭찬을 받은 듯 더 들떴다.

아이들이란 피곤한 존재다.

“아무튼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브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웬님이 너무 불쌍해요. 아무리 수련을 위해서라지만 어떻게 자식을 신전에다가 처박아두고...”

“브리기테!”

브린의 목소리에 브리기테는 자신의 말이 너무 심했다는 걸 깨달았는지 ‘쿠키가 너무 맛있네요!’ 하고 말을 돌렸다. 나는 노력이 가상해서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사실 더 이상의 대화가 귀찮아진 탓도 있다.

나는 벌써 오늘 치의 사교성을 다 썼다. 급격하게 나태해진 내 태도에 눈치가 빠른 쌍둥이들은 할 일이 생각났다며 감사 인사 뒤에 왔던 길로 사라졌다.

병아리 같은 쌍둥이가 사라지자 피로가 몰려왔다. 다 큰 성인과 대화 나누는 것도 힘든데, 지금까지 어린 애들과 대화를 했다니. 정말 큰 발전이다. 그러니까 조금만 쉬자.

나는 적당한 곳에서 해먹을 발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일단 누웠다. 방까지 워프 할 생각이었지만 따뜻한 햇볕이 내려쬐는 바깥이 조금 축축한 실내보다 좋다. 어차피 페이퍼트 성에 있는 건 전부 옐츠란 꺼니까 함부로 막 쓰고 더럽게 해서 돌려줘도 된다.

배부르게 점심을 먹은 뒤 바로 낮잠을 자는 것. 오래 살면서 질리지 않은 것 중에 한 가지이다. 그럴 때면 언제나 행복해진다.

나는 산들바람을 느끼며 자세를 편하게 하고 눈을 감았다. 햇볕이 얼굴로 내리쬐어 눈을 감았지만 눈꺼풀 너머로 환한 빛이 보였다. 나른하고 따뜻한 오후다.

머리를 댄다고 아무데서나 바로 잠들 수 있는 신체를 가지지 못한 탓에 자연스럽게 방금 들었던 그웬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웬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해도 오, 너무나 불쌍한 사람. 하고 이해해줄 마음은 없다.

그래서 뭐. 난 980년 살았다. 난 항상 내가 제일 불쌍하고 가엾고 애틋하다. 거울로 스스로를 보면 남의 것이라도 빼앗아서 더 해주고 싶고, 거짓말을 해도 속아 넘어가주고 싶고, 나쁜 짓을 해도 이해해주고 싶다. 나는 나를 동정하느라 남을 동정할만한 여력이 없다.

그웬이 불쌍하진 않아도 왜 그렇게 성격이 배배 꼬였는지에 대한 답은 얻었다. 백날 천날 수련만 해댔으니까 당연하지. 기사의 수련은 뼈가 부러지는 고통이라고 얘기들 한다. 엄살이 심한거 같지만. 그런 수련을 어린 것이 내내 했다면 성격이 나빠질 수 밖에 없다.

내멋대로 성격이 나쁘지 않은 어린 그웬을 상상해봤다. 데블랑처럼 말랑한 볼, 조그마한 손, 외모와 어울리는 나긋나긋한 태도... 그런 그웬을 상상하고 있자니 슬슬 잠이 왔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에서 좋은 냄새가 난다.

신선한 풀과 꽃잎의 냄새, 새벽에 맺힌 이슬의 냄새, 잘 마른 빨래의 비누향이 남은 뽀송한 냄새.

꼭 그웬의 냄새 같군. 그웬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 코가 착각하나보다. 공기 중에 그웬의 냄새가 느껴지는 걸로 봐서.

하지만 곧 얼굴 위로 그림자가 져서 그런게 아니라 그웬이 진짜 옆에 서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다. 나는 슬그머니 눈을 떴다.

내 귀를 속이기 쉽지 않은데 살금살금 걸어 다니는 재주도 좋은 놈이었다. 역시 재수 없다. 모처럼 찾아온 단잠이 달아나 짜증이 확 났다.

나는 그웬이 왜 여기 서있는가 대한 단서를 얻으려 놈의 얼굴을 살폈지만 역광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를 내려다보다니, 기분이 더럽네.”

시비를 걸려고 왔다면 지금이라도 가는 게 좋을 거야. 하고 덧붙이려는데 그웬이 스스럼없이 한쪽 무릎을 꿇어 자세를 낮췄다. 점심 먹은 게 잘못 됐나? 나는 해먹에서 살짝 몸을 일으키려다가 자꾸 흔들리는 탓에 포기하고 다시 누웠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무례한 언사에 대해 사과드릴게요.”

역시 점심 먹은 게 잘못됐군. 유리 파편이라도 씹은 모양이다.

“네가 한 무례한 언사가 너무 많아서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점심 때 당신을 추궁하고 모욕을 줬던 일이요. 가능하다면 그 전에 했던 모든 무례한 언사도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웬은 외모와 어울리는 순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무슨 처사라도 달게 받겠다는 듯이. 그의 처진 속눈썹을 따라 또르르 하고 이슬이라도 흘러내릴 것같이 청초한 분위기였다.

“미인계를 쓰는 거야?”

그웬은 이해 할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의도치 않았지만, 그것도 사과드려야하나요?”

저런 부분이 앙큼하다니깐. 데블랑이나 옐츠란이었다면 쩔쩔 맸을 텐데.

“왜 갑자기 사과하는 거야?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함부로 군 거 아냐.”

“네, 이제는 그게 잘못이란 걸 알아서 사과드리는 겁니다.”

나는 다리를 꼬고 누워 계속해보라는 의미로 손가락을 까딱거렸다. 그웬은 순종하는 자세로 눈을 내리깔았다.

“저는... 어린 시절을 신전에서 보냈습니다.”

브리기테와 브린의 말이 사실인가보군. 그런 얼굴로 슬픈 과거를 읊는 건 반칙이야.

“맬런교는 신분에 따른 차이를 확실하게 가르칩니다. 지금은 맬런을 믿지 않지만 어릴 적에 들었던 가르침은 남아있죠. 데블랑은 그게 세뇌라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평민과 귀족의 피는 질적으로 달라요. 평민은 나태하고 포기가 빠르며 편하게 살 궁리만 하니까 의욕이 부족하죠. 여기까지 오면서 데블랑의 말처럼 다른 평민을 만나길 기대했지만, 한결같더군요.”

생각했던 내용과 달라 나는 해먹을 젖혀 우물 속 개구리를 구경하는 심정으로 그웬을 봤다. 귀족님이 우유로 목욕하는 동안 아이에게 먹일 젖도 나오지 않아 낳은지 얼마 안 된 생명을 떠나보내는 게 평민이다.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는 삶에 의욕과 인내는 사치이니 귀족의 눈으로 본 평민은 한결 같아 보이겠지.

시대적 한계에 갇힌 그웬의 생각은 한 자리를 뱅뱅 도는 장난감 같다.

“그래서 당신을 만났을 때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신은 보통 평민들과 달랐으니까요.”

“영광이라고 절이라도 해야 하나?”

“아니요, 레티시아. 당신은 여느 귀족들과도 달라요. 제 사고방식으론 그런 당신을 이해할 수 없었고,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고 하니 혼란은 더 커졌죠. 그래서 애매한 태도로 당신을 경계했습니다. 무례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동이었죠. 지난날의 제 행동에 대해 전부 사과드립니다.”

나는 그웬에게 팔을 뻗었고 눈치가 빠른 그웬은 그걸 붙잡아 나를 일으켜주었다. 몸을 일으킨 나는 해먹에 걸터앉았다. 너무 푹 들어가 자세가 이상해졌지만 몸을 둥글게 말아 편하게 자세를 바꿨다.

“그래서 지금은 태도를 확실하게 정한거야?”

“당신이 어떤 사람이건 페르디낭의 조력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합당한 예를 갖춰 대하겠습니다.”

그웬은 내 손을 끌어 손등에 가볍게 입맞춤 했다. 숄테나의 영주성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지만, 이번엔 그의 옷에 손등을 문질러 닦지 않았다.

나는 손가락 끝으로 그웬의 턱 선을 따라 부드럽게 쓸어내린 다음 그의 고개를 들어 좀 더 자세히 눈동자를 들여다보았다.

한 청년이 개인의 사상과 국익을 저울질 하다가 결론을 내린 모양이었다. 뼛속까지 귀족다운 결론이다. 본인의 감정은 접어두고 국가를 먼저 생각하다니.

“사과를 받아들이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보자. 진실 되게 답해야 사과를 받아줄 거야. 넌 여전히 내가 싫지?”

그웬은 부드럽게 내 손을 밀어냈다. 순종적인 태도를 지워낸 얼굴은 싸늘하게 빛났다.

“좋고 싫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당신의 연애놀음에 끼어 들 것도 아닌데. 하지만, 궁금하다니 답해드리죠.”

연애놀음이라니, 기가 찼지만 마땅한 단어 선택이었기에 나는 그저 팔짱을 끼고 뒤로 기댔다. 뭐 결혼을 할 것도 아니고 진지한 연애를 할 것도 아닌데, 놀이가 맞지.

“당신은 숨기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전 비밀이 많은 사람을 싫어합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비밀을 가졌다고 저렇게 호들갑인지 모르겠다. 그웬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린 듯 한 미소를 지었다.

”계속 그렇게 비밀을 유지하세요. 당신과 개인적으로 가까워지고 싶지 않으니까.”

결국 내가 싫다는 말이군.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할 순 없으니 이해한다. 특이취향이라는 게 있는 법이지.

“답이 되셨습니까?” 하고 가증스럽게 다시 순종적인 낯으로 그웬은 한 쪽 가슴에 손을 얹고 고개를 약간 숙였다.

어쨌거나 솔직하게 대답 했으니 나는 성의 없이 손목을 까딱거렸다.

“그래, 사과를 받아줄 테니 가봐.”

그웬은 그럼. 하고 예를 취하고 왔을 때처럼 쌩하니 사라졌다. 고약한 젊은이 같으니라고.

우르르. 성인 남자들이 뛰면서 만들어내는 땅 울림은 청력이 예민한 나에겐 거의 천둥소리처럼 들렸다. 선잠 위를 걷느라 눈만 감고 있었던 나는 결국 잠에서 깼다.

창문을 보니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새벽이었다. 나는 이불을 대충 몸에 칭칭 감고 테라스로 나갔다. 페르디낭은 대체로 온화한 날씨지만 새벽 나절엔 좀 춥다. 싸늘한 돌난간에 걸터앉아 아래를 내려다보니 그웬을 선두로 한 기사 같아 보이는 몸 좋은 젊은이들이 넓은 공터를 따라 달리고 있었다. 마법사가 주인인 저택에 훈련장이 있을 리가 없으니 정원을 다듬느라 비워둔 공터에서 아침 운동을 하는 모양이었다. 각자 열을 맞춰 달리는데 뒤꽁무니에 혼자 쳐져 발발 거리며 쫓아가는 옐츠란이 눈에 띄었다.

쟤가 저기서 뭐하는 짓이람.

마법사 치곤 체격이 좋다 생각했지만 기사들의 아침 수련에 끼어 드는건 좀 도를 넘은 거 아닌가. 몇 바퀴째인지는 몰라도 옐츠란은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이 얼굴이 달아올라 숨을 몰아쉬는 중이었다. 저러다 죽는 거 아냐?

결국 옐츠란은 겨우겨우 걸음을 떼며 걸어갔고 기사 무리는 놈을 지나쳐 한 바퀴 더 돌았다.

나는 난간 바깥으로 다리를 내놓고 발을 까딱거리며 그들을 지켜봤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시끄러운 잡음, 멀리서 풍겨오는 갓 구운 빵 냄새, 버터 냄새. 이제야 실감이 났다.

나는 기꺼이 바라만 보던 풍경 속으로 들어왔다. 특별히 감격스럽거나 어색하진 않았다. 다만 따스한 물속에 잠긴 것처럼 어떤 감정이 귓가에서 찰랑대는 기분이었다. 나는 새벽 공기를 마시며 잠깐 동안 그 기분을 만끽했다.

“아침부터 스스로를 고문하는 삶을 즐기는 거야?”

내 발치 아래까지 걸어온 옐츠란에게 물었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깜짝 놀랐다. 하지만 이내 놀라는 것도 힘에 부치는 듯 놈은 귀찮아하는 태도로 팔을 내저었다.

“위험합니다!”

뭣 모르는 기사 하나가 그렇게 외쳤다. 이정도 높이에선 거꾸로 떨어져도 죽지 않을 자신이 있다.

나는 이불을 감은 채로 보란 듯이 뛰어내려 완벽하게 착지했다. 내가 뛰어 내릴 때 비명을 지르던 녀석들이 완벽한 착지를 보고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벙 쪄 있었다. 다들 박수라도 쳐야지 뭐하는 거야?

그웬은 또 저러는군. 이라는 표정을 무료하게 지으며 “멈추지 말고 다시 뛰도록!” 하고 소리쳤지만 기사들은 다들 내가 서있는걸 구경하느라 정신이 쏙 빠진 상태였다. 내가 지금 첫 걸음마 걷는 중인건가? 슬쩍 맨 발을 내려다봤지만 언제나처럼 자연스럽게 땅을 디디고 있는 중이었다.

“마법사들은 다 저런 게 가능해요?”

어느 기사가 물었지만 옐츠란은 숨을 몰아쉬며 손을 내젓다가 그냥 자리에 주저앉아버렸다. 놈은 품을 뒤져 수통을 꺼내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누군가가 열심히 빤 이불을 땅에 질질 끌고 다닐 순 없기에 나는 허공에 몸을 띄워 옐츠란에게 다가갔다.

다시 달리기 시작한 기사무리가 나를 구경하느라 또 멈췄다. 그웬은 결국 그들을 내버려두고 혼자 달렸다.

“마법사가 몸을 쓰는 것보다 바보 같은 일은 없지.”

“쟤네가 무식하게 많이 뛰는 거라고. 벌써 스무 바퀴째야.”

옐츠란은 만사가 귀찮다는 표정으로 흙바닥에 드러누웠다.

“나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마나를 다시 집어넣으려면 힘을 버틸 수 있는 몸이 필요해.”

이런걸 보고 사서 고생이라 하는 거지.

나는 허공에 엎드려 누웠다. 옐츠란이 질린 표정으로 ‘놀리는 거야, 뭐야. 마나 낭비하네.’ 하고 중얼거렸지만 나는 무시하고 발로 옐츠란의 다리를 툭툭 건드렸다. 옐츠란은 잔뜩 짜증난 표정이었지만 막을 기운조차 없는지 그냥 한번 노려보고 말았다.

“저번에 제대로 듣지 못했는데, 왜 마나를 봉인해뒀다고 했지?”

“마나 운용법 때문에 그래. 현대의 마법은 체내의 마나를 이용하잖아? 마도시대엔 외부의 마나를 이용해서 마법을 썼대. 자연의 힘을 이용한 거지... 그래서 등급에 상관없이 큰 힘을 낼 수 있었던 거야. 바깥의 마나를 빌려 오니까...마도시대의 마법을 부활시키려고 연구하다가 체내의 마나가 걸림돌이라고 생각했어. 외부의 마나를 끌어오려고 할 때마다 내가 가진 마나가 밀어냈으니까. 그래서 그걸 내 속에서 빼내고 빈 상태로 만들면 마도시대의 마법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지. 실패했지만.”

숨 쉬는 것도 귀찮아보이던 놈은 마법 얘기가 나오자 잘도 입을 나불댔다. ‘꼭 지금 물어봐야했어?’ 하고 덧붙였지만 어쨌거나 나와 마법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게 싫은 눈치는 아니었다.

옐츠란 딴에는 꽤나 노력한 거 같지만 접근법 자체가 잘못되었다. 현대의 마법은 체내에 있는 마나를 배출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채워 넣는 방식이라면 고대의 마법은 떠돌아다니는 마나를 끼워 맞추는 방식이다. 색칠공부와 블록 쌓기 정도의 차이라고 할까.

체내에 마나를 얼마나 쌓았든 상관이 없다. 나만 봐도 사는 동안 열심히 마나를 쌓았지만 아직도 고대 마법을 쓸 수 있다.

옐츠란은 블록을 녹여 색칠하려는 무의미하고 불가능한 시도를 한 거다.

“아침부터 마법사적인 대화군. 다 좋지만 훈련을 방해하지 말고 나중에 마법사들이 오면 그때 하는게 어때?”

그웬은 벌써 한 바퀴를 다 돌고 우리가 있는 지점까지 왔다. 옐츠란은 그웬의 말에 일어서려고 노력하다가 거칠게 기침을 했다. 그웬 뒤에 서있던 기사무리들이 안쓰러운 눈빛으로 옐츠란을 쳐다봤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아침 수련을 위해 슈미즈 같은 얇은 셔츠만 걸친 그웬의 상체를 훑어봤다. 근육이 두툼하게 오른 팔뚝은 튼실한 칠면조 다리만큼이나 만족감을 준다. 그웬이 팔짱을 끼자 근육으로 이루어진 빵빵한 가슴골이 생기는 바람에 과도하게 집중하고 말았다. 온순한 얼굴 아래에 저런 몸이라니, 너무 앙큼하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도 있으니 나도 그웬의 몸은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

남의 몸을 오래 들여다보는 건 실례라는 걸 아는 상식을 가졌기에 겨우 시선을 떼자 그웬은 삐딱하게 고개를 들고 불쾌함이 서린 표정을 짓고 있었다. 페르디낭인답게 190 언저리의 장신이라 공중에 떠있는 나와 눈이 정통으로 마주쳤다.

뭐? 꼬우면 가리던가. 남자 주제에 예민하게.

“아, 오늘 오기로 한 거야? 드디어 말이 통할만한 마법사를 만나겠군.”

옐츠란의 물음에 그웬은 내게서 시선을 뗐다.

“전부는 아니고 제일 먼저 연락 온 사람들만.”

흠, 듣다보니 어이없군.

“나랑은 말이 안 통한다 이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마도시대의 유물을 찾는 일에 관해서 말이야. 너는 마도시대에 대해 연구 하지 않았잖아. 오늘 오기로 한 마법사들은 다 그 쪽으로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라고.”

한마디로 하자면 전부 마도라이라는거군. 눈앞에 마도시대에 살았던 사람을 두고 연구를 했느니 조예가 깊다는 둥의 말은 우스웠지만 티내진 않았다. 들키게 된다면 페르디낭과 깊게 얽힐 뿐만 아니라 옐츠란은 죽을 때까지 따라 붙을 것 같았다. 전혀 원치 않는 일이다.

“그 마법사들이 합류하면 마법사는 총 몇 명인데?”

“몇 명이 올 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럼 오늘 올 사람들을 제외하고 지금까진 몇 명이야?”

“두 명.”

나는 할 말을 잃고 몸을 똑바로 세웠다. 옐츠란이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그러니까 나랑 너.’ 하고 굳이 덧붙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을 말했다.

마법도시를 세우겠다는 놈들이 터무니없는 수의 마법사를 포섭해놓고 나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단 말이지? 한 명이 아쉬운 상황에 두 번째로 합류한 매우 유능하고 지적이고 이성적인 마법사에게 기선제압을 하려고 하다니!

이미 화를 낼만큼 내서 다시 화가 나진 않았지만, 데블랑과 얼굴도 모르는 데블랑의 누나가 불쌍해졌다. 그런 늙은이들을 데리고 나라를 재건해야한다니, 나 같으면 개혁 때엔 세대교체가 흔한 법이라며 뒤에서 전부 슥삭 해버릴 거다.

옐츠란이 기운을 차려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겠다며 성에 들어간 터라 놀릴 사람이 없어진 나는 방으로 돌아가 잠이나 마저 잘 생각이었다. 테라스로 날아오를 준비를 하는데 그웬이 날 불렀다.

“오늘 저녁은 다 같이 모이니까 레티시아도 꼭 같이 즐겼으면 해요. 이제 무례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가 어제 점심 때 한바탕 한 탓에 원래 저녁에 약속 되어있던 만찬은 취소되고 소소하게 데블랑과 나, 그리고 그웬이 같이 저녁을 먹었다. 거의 데블랑의 죄송해요 미안해요 돌림노래를 듣는 자리였다.

“별로 즐겁지 않을 거 같은데. 저번처럼 구황작물만 한가득 이라면.”

그웬은 이해한다는 듯 눈웃음을 지었다.

“오늘 점심쯤에 상인이 온다고 했으니, 식탁이 풍성해질 거에요.”

어차피 지금부터 괜찮은 녀석들을 점찍어 둘 필요가 있었으므로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곧바로 테라스로 날아올랐다.

내가 테라스로 무사히 올라섰는데도 그웬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뭐야? 할 말이 남은건가.

하지만 그웬처럼 멀거니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기에 그냥 무시하고 침대로 뛰어들었다.

역시...해가 뜨고 나서 움직이는 생활이 옳다...

잠이 일찍 깨서 방황하던 나는 옐츠란의 연구실을 찾아가 놈의 머리칼이나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냈다. 처음엔 성가시니 건드리지 말라고 내 손을 쳐내던 옐츠란은 머리카락을 잡아당겨도 모를 정도로 하던 일에 집중했다. 뭘 그렇게 열심히 쓰나 들여다봤더니 봉인해둔 마나를 안전히 몸에 넣는 술식을 짜는 중이었다. 다시 집어넣는 방법도 생각해두지 않고 일단 마나부터 빼내다니, 용감한 건지 대담한 건지. 무식하다고 말하고 싶지만 놈이 짜놓은 술식을 보면 차마 그런 말은 나오지 않았다.

제법 쓸 만한 술식에 옐츠란의 어깨에 업히듯 매달려 한참을 같이 들여다봤다. 이미 집어넣는 방법에 대한 술식은 끝냈는데 아직도 고대 마법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는지 마나를 넣었다 뺐다 가 가능한 술식을 만들려고 하니 어려운 모양이었다. 내가 몇 군데만 짚어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테지만, 애초에 저장해둔 마나를 따로 빼는 일 자체가 쓸모없는 일이었다. 마나는 다른 말로 하면 생명력이고 좀 더 와 닿는 말로 하자면 일종의 장기다. 내장을 탈부착 식으로 만드는 건 무슨 악취미란 말인가?

“포기하는 게 좋을걸.”

옐츠란은 귀 바로 옆에서 내 목소리가 들리자 깜짝 놀라 화다닥 일어나려고 했다. 타이밍 좋게 몸을 빼 놈의 어깨에 받쳐 혀를 씹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상황 판단을 끝낸 옐츠란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뭐, 뭐, 뭐야? 아직 여기 있었어?”

“왜 자꾸 쓸데없는 짓을 하려는 거야?”

옐츠란은 뚱한 얼굴로 종이를 황급히 뒤집었다.

“그냥 한번 해본거야. 아니, 그것보다 왜 여기 와서 이러는 거야? 할 일 없어?”

그걸 질문이라고 하나. 내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자 옐츠란은 아참. 하고 중얼거렸다. 뭐가 아참이야. 옐츠란은 잠깐 생각하다가 새 종이를 꺼내더니 펜을 들었다.

“심심한가본데 좋아, 그러면 나랑 재미있는 묻고 답하기 놀이하자. 내가 묻고, 레티시아가 답하는 거야.”

아이를 어르는 듯 한 말투라 나는 코웃음을 쳤다.

“하루에 질문 한가지씩이라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옐츠란은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손으로 얼굴을 감싸더니 한숨 쉬었다.

“너도 마법사니까 지식에 대한 욕구를 이해할 거 아냐.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대답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

고뇌에 빠진 잘생긴 얼굴을 구경하는 것도 충분히 재밌는데 내가 뭐 하러.

고개를 저으면서 손가락 하나만 올리자 옐츠란은 어깨를 축 늘어트리고 질문을 고르느라 고민했다.

“그럼 오늘의 질문, 원래 살던 세계에도 마법이 있었어?”

“아니.”

“그러면 이 세계로 넘어오고 나서 마법을 배웠다는 말이야? 언제쯤 넘어왔길래? 초월자에 대한 기록물을 본적이 있긴 한데 성취 속도에 대해 적혀 있지 않아서 짐작을 못하겠네. 자고 일어나면 알아서 마법이 습득되나? 와,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능력인데.”

옐츠란은 마법사라면 다들 가지고 있는 습관인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 정신없이 연구실 안을 서성거렸다. 답을 바라고 하는 질문은 아닌 것 같아 나는 책상 위의 책을 대충 밀어내고 그 위에 앉았다.

보통 마법사의 연구실이랑 별 다를 것 없이 생긴 방이라 둘러 볼 것도 없어 옐츠란의 생각이 정리 될 때까지 책장에 꽂힌 책 제목이나 눈으로 훑었다. 죄다 마도시대와 관련된 책들이라 옐츠란의 한결같음에 조금 질렸다. 나는 한 가지를 진득하게 붙잡고 있지 못하는 성격이라 옐츠란 같은 성향의 사람을 이해할 수 없었다. 분명 옐츠란은 마도시대 뿐만 아니라 꽂힌건 내내 놓지 않을 것 같았다. 예를 들어 스크램블 에그가 마음에 들면 십년 동안 아침은 스크램블 에그로 먹던지, 그런 거 말이다.

옐츠란은 드디어 생각 정리를 끝낸 모양인지 정신 사납게 서성거리던 짓을 그만하고 의자에 앉았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햇빛에 옐츠란의 얼굴이 흠 잡을 데 없는 조각상처럼 보였다.

“두 가지 가설을 세웠어. 첫 번째, 초월자의 성취 속도는 하나를 배우면 백을 알 정도라 차원 이동을 하고 빠르게 마법을 습득했다. 두 번째, 이세계인이라 신체 노화속도가 달라 겉보기엔 어려보여도 사실 나이가 많다. 어느 쪽이야?”

나는 그냥 어깨를 으쓱 하고 말았다. 옐츠란은 대답을 바라는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하루에 질문 한가지씩이라고 했잖아. 오늘 질문은 끝났어. 정 궁금하면 데블랑처럼 볼에 뽀뽀라도 해보던가.”

마지막 말은 순전히 놀리기 위해 덧붙인 말이었지만 옐츠란은 예상했던 대로 얼굴이 새빨개지거나 뭐? 하고 소리 지르지 않았다. 가만히 앉아 진지하게 고민하더니 “정말 그거면 돼?” 하고 되물어서 나는 인상을 찌푸렸다.

“되겠냐? 당연히 농담이지. 네가 데블랑처럼 귀엽거나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잖아.”

“와, 짧은 시간동안 일생일대의 고민을 했는데...”

옐츠란이 너무 필사적인데다가 오랜만에 맡는 책 냄새에 마음이 너그러워진 나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충고를 해주기로 했다.

“사람과 오래 대화를 하고 싶거든, 적어도 차와 디저트를 준비해서 대접이라도 하면서 뭔가를...”

창문 바깥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서 나는 말을 하다 말고 고개를 돌려 그 쪽을 쳐다봤다. 처음엔 오늘 온다던 마법사들인 줄 알았는데 짐을 가득 실은 마차가 줄줄이 들어오고 있어 그웬이 말한 상인이라는 걸 깨달았다. 나는 집중해서 냄새를 맡아보았다. 많은 냄새들이 뒤섞여 자세히는 알 수 없었지만 식재료가 되게 많다는 사실은 알 수 있었다. 어쩔 수 없네. 오늘 저녁은 같이 먹어야겠는걸.

옐츠란이 옆에서 “차와 디저트? 차랑 디저트가 있으면 된다는 거지. 지금 당장 준비하라고 할까?” 하고 물어봐서 다시 고개를 돌리려는 찰나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 마차에서 내렸다. 나는 옐츠란의 말을 무시하고 창가로 가까이 다가갔다.

쟤가 왜 여기 있는 거지?

가까이서 보니 마차가 아닌 마차 높이만큼 짐을 쌓아올린 수레여서 나는 그 솜씨에 감탄했다.

이 조그마한 영지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스무 명이 넘는 귀족과 귀족을 따라온 하인들, 페이퍼트에서 추가로 고용한 사용인들을 감당하긴 힘들 거란 생각은 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상인을 통해 사들이는 모양이었다.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돈인지는 몰라도 정말 별의 별 것이 다 수레에서 옮겨졌다. 심지어 살아있는 공작새까지 있어 나는 잠깐 동안 시선을 떼지 못 했다.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거지?

무질서하게 놓인 짐마차 사이로 옐츠란의 연구실에서 보았던 얼굴이 보였다. 확실하네. 그 놈이군.

모르는 척 할 줄 알았는데 놈은 나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거의 귀신이라도 본 듯 깜짝 놀라 손가락질 해댔다. 가서 아는 척 하기도 애매한 사이라 너 나 알지? 라고 물어봐야하나 고민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어? 어! 그 때...! 그 사람! 갑자기 사라졌던 마법사!”

목청도 좋은지 필요 이상으로 크게 소리를 내서 분주하게 짐을 나르던 사람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쏠렸다. 나는 태연하게 대꾸했다.

“너는 그 때 갑자기 바지를 벗었던 그 사람이네.”

이쪽을 구경하고 있던 누군가가 ‘세상에...’ 하는 소리를 냈다. 놈은 깜짝 놀라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소리쳤지만 다들 이쪽을 안 본 척 고개를 돌렸다.

마약 밀매는 태연하게 했으면서 변태로 몰리는 건 참을 수 없었는지 놈은 빠른 걸음으로 내게 다가와 소리 죽여 말했다.

“그렇게 말하면 제가 뭐가 돼요?”

“그럼 마약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 말할까?”

놈은 당황해서 헛! 어! 하는 소리를 내더니 쉿! 하고 나에게 주의를 주었다.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요.” 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 안 좋아... 안 좋아... 이건 절대 아니지... 여기로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누구보고 그러는 거지? 놈이 쳐다보고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기가 무섭게 누군가의 가슴팍이 내 시야를 가렸다. 고개를 들어 확인해보니 찌르면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이 생긴 남자였다. 어두운 다갈색 머리를 깔끔하게 넘긴 회색 눈의 남자는 시베리안 허스키를 연상시키는 외모를 하고 있었다. 딱딱한 무표정을 짓고 있긴 했지만, 근사하게 잘생겼다. 섬세한 부분을 따지자면 옐츠란이 더 잘생기긴 했어도 가까이 다가가면 냉기를 느낄 듯한 고고한 느낌이 매력이었다.

놈에 대한 친근감이 불쑥 솟았다. 당연히 얼굴을 보고 솟아난 거다.

나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서 놈을 위 아래로 훑어보고 씨익 웃었다. 누군지 몰라도 친구부터 시작하자.

“페스카인님...”

페스카인이라고 불린 남자는 눈썹을 한쪽만 슬쩍 올렸다. 오, 잘하는데?

“이 분은?”

“잘 모르는 분이신데요...”

나는 페스카인을 흉내 내어 눈썹 한쪽만 슬쩍 올렸다.

“은혜를 이렇게 갚으면 쓰나. 텔른에선 그렇게 필사적으로 아는 척 해놓고. 그러니까...프랭크? 제이미?”

“필립이, 무슨 결례를 저질렀습니까?”

필립에 유독 힘을 줘 말하기에 필립을 쳐다봤더니 놈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을 어색하게 지었다. 페스카인이라고 불린 남자의 하인쯤 되나본데 텔른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선 입도 뻥긋 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걸 보니 필립만 마약중독자인가 싶었지만 내 예민한 코는 페스카인에게서 나는 익숙한 냄새를 잡아냈다.

향수 냄새가 짓누르듯 마약 냄새를 덮고 있어도 내 후각을 속일 수 없었다.

마약 냄새가 몸에서 날 정도인데 마약 중독자들이 겪는 신체 이상이 필립이나 페스카인한테서 보이질 않는다니 신기한 일이었다.

나는 과장되게 친한 척 하며 필립의 어깨를 툭툭 쳤다.

“필립, 내가 마약 밀매 현장에서 빼내줬잖아. 까먹은 거야?”

페스카인의 눈매가 미세하게 좁혀졌다. 필립은 거의 기절하고 싶다는 표정으로 목 졸린 소리를 냈다. 페스카인이 확인 차 필립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필립은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네...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이거 참 제가 요즘 깜빡 깜빡 하네요!” 하고 대답했다.

“제가 필립을 대신해서 감사인사를 드리지요. 귀인의 성함이...?”

표면적으로 예의를 갖추고 있지만 페스카인은 나에 대해 계산 하고 있는 느낌이 물씬 났다. 놈 주변에 부드럽게 풀어진 분위기가 아니라 팽팽하게 당겨진 긴장이 떠돌았다. 말해주면 뒷조사를 하고 암매장 해버릴 느낌이라 별로 말해주고 싶지 않은걸. 이런 인상의 놈들은 집요한 구석이 있기 마련이다.

내가 대답을 하지 않자 나와 놈들 사이에 불친절한 침묵이 감돌았다. 필립은 도망치고 싶은 얼굴로 시선을 이리저리 굴렸다. 미미하게 사람다운 온기를 담고 있었던 페스카인의 얼굴이 청동조각상처럼 싸늘해졌다.

“여기 있었군요. 페스카인 씨.”

갑자기 끼어 든 목소리에 시선을 돌리자 페이퍼트 성의 집사장이 서있었다. 말이 집사장이지 얘기를 들어보니 옐츠란은 마탑에 내내 틀어박혀서 산 모양이고 방치되어있던 영지를 운영한건 저 집사장이었다. 옐츠란은 영지 운영에 별반 관심이 없어서 그녀가 실질적으로 영지를 다스리자 오히려 짐을 덜어 낸 듯 굴었다. 집사장은 현명한 사람인지 뒤로는 영지 일을 돌보면서 옐츠란이 내내 연구실에만 쳐박힐 수 있는 이유다. 아직까지 표면적으로는 한 번도 티를 내지 않았다. 신분을 생각한다면 그래야 계속 그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 테니까.

페스카인은 가면 같은 미소를 지었다. 나이가 백 살도 안 된 게 뭐 저런 표정을 짓는지 모르겠다.

페스카인이 마차들을 이끌고 온 상단의 주인이었는지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집사장과 주고받았다. 의외네. 장사꾼스럽지는 않았는데.

나는 슬그머니 뒤로 빠져 수레에서 사과 하나를 꺼내 옷에 슥슥 닦고 베어 물었다. 멀리서 봐도 훤칠하니 잘생겼지만 너무 인상이 더럽다. 길 가다가 부딪치면 쓰레기가 달려 들었군. 하고 총을 쏴죽일 거 같다. 이 세계엔 총도 없고 달리는 쓰레기도 없지만.

내가 점점 더 멀어지자 페스카인은 집요하게 나를 쳐다봤지만 제까짓 게 쳐다보면 어쩔 건데? 나도 너네한테 소소한 궁금증이 있는데 억누르고 가잖아.

앞으로 두고두고 볼 사이도 아닌데, 서로 비밀 한 가지씩 남기고 헤어지자.

나는 몇 입 베어 문 사과를 말에게 먹이로 줘버렸다.

할 일이 없으니까 그웬이나 놀리러 가야지.

안타깝게도 그웬을 놀린다는 건전하고 유익한 계획은 실행하지 못 했다.

옐츠란이 내 앞에 드러눕기라도 할 기세로 연구실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슬슬 배가 고팠기에 점심을 준비해놨다는 소리에 못 이기는 척 연구실로 따라갔다. 그리곤 옐츠란의 질문을 피하며 차려진 음식이나 마구 집어먹고 나왔다. 내 뒤통수에다 대고 제발 차도 같이 마시자고 사정하던 옐츠란은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른 모양인지 내 앞을 가로막고 섰다.

“너는 정말...!”

나에게 뭐라고 하려던 옐츠란은 무언가를 생각하며 머뭇거렸다. 궁금증을 해결 해주지 않는다고 상대를 욕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모양이지?

“...나빠.”

기가 막힌 것과 동시에 쀼루퉁한 옐츠란의 표정이 약간 귀여워서 웃음이 나왔다. 픽, 하는 비웃음이었지만.

“네가 다섯 살짜리 애야? 어휘 수준이 왜 그래?”

옐츠란은 네가 나에게 어휘수준을 논해? 라는 표정이었지만 ‘너는 정말 나빠’ 따위의 말을 방금 내뱉은 사람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었다. 내가 말주변 없는 건 인간미지만 옐츠란의 어휘력은 그냥 모자란 거다. 자길 무시하는 내 표정을 읽은 모양인지 옐츠란은 한숨과 함께 과장되게 손을 휘저었다.

“그래 가라 가! 같이 차 한 잔 하자고 빌다니 내가 미쳤지.”

전뜩 골이 난 옐츠란을 보자 갑자기 장난끼가 올라 불쑥 물었다.

“옐츠란, 지금 시간 있어?”

내가 변덕을 부려서 마음을 바꿨다고 생각했는지 옐츠란의 얼굴이 눈에 띄게 밝아졌다.

“많지. 여기서 같이 차 마시다가 자고 가도 돼. 덜 귀찮게 할게.”

“시간 많으면 아껴 써.”

이런 농담은 나이 많은 사람의 전매특허 아닌가. 형편없이 구겨진 옐츠란의 표정에 기분이 좋아진 나는 소리 내서 웃으면서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옐츠란이 창문틀로 달려와서 뭐라고 소리 질렀지만 허위사실로 나를 매도하는 내용이었으므로 귀담아 듣지 않았다.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나를 보고 하인 몇이 일을 하다가 깜짝 놀라 지르는 소리를 뒤로 하고 성이나 구경하기로 했다.

나는 성 창문에서 뛰어내려 다시 성으로 들어가는 의미 없는, 아니 대단히 획기적인 입장 방식을 취했다.

솔직히 성보다 저택이란 말이 어울릴만한 좁아터진 곳이라 별반 구경 할 건 없었다. 보잘것없는 성이 그렇듯 조금 축축하고 차가운 냉기가 떠도는 석재건물, 화려한 가구나 장식물도 없고, 그나마 옐츠란의 연구실이 제일 그럴듯하게 목적을 가지고 꾸며진 방이었다. 짧은 구경마저도 어딜 가나 마주치는 귀족들이 힐끗거려 결국 나는 다시 밖으로 나왔다.

옐츠란에게 돌아가긴 싫고 데블랑은 페이퍼트에 온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아 많이 바쁠 테니 자연스럽게 그웬이 다시 떠올랐다. 지금 내 인맥이 이렇게나 좁다. 심심한데 같이 놀아줄 사람이 싸가지 팔아먹은 그웬 밖에 없다니.

그웬의 방이 어디 있는지 관심이 없어 모르니 일단 연무장으로 쓰이는 공터로 항했다. 제각기 검을 휘두르던 무리가 나를 쳐다봤지만 그 속에 그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의외네. 그웬은 오늘도 훈련 내일도 훈련 모레도 훈련이다! 하고 혹독하게 연습할 성격처럼 보였는데.

한 쪽에서 자기네들끼리 나를 두고 ‘어린 초월자’라고 수군거리는 게 들렸다. 겉보기에 막 성인이 된 것처럼 어려보이는 건 사실이라 나를 보고 어리다고 하는 게 우습긴 했어도 별반 신경 쓰이진 않았다. 그냥 이것들이 어설픈 솜씨로 쇠꼬챙이를 휘적휘적 휘두르는걸 구경이나 해야겠다. 나는 적당한 나무 그늘 아래 앉았다.

하던 것들이나 마저 할 것이지 계속 나를 힐끔거리던 녀석들 중 하나가 내게 다가왔다.

“옆에 앉아도 될까요?”

어디에서 본 얼굴이다 했더니 새벽에 공터를 뛰던 사람들 중 하나였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호기심 어린 시선을 떼지 않고 적당한 거리에 앉았다.

“어제 마법으로 위원회 분들을 다 날려버렸다면서요?”

얘기가 왜 그렇게까지 와전 된거지. 겨우 하루만인데. 하지만 나는 부정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듣고 제 속이 다 후련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위원회에 속해있지만 그 분들은 하나같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 말문을 트기 기다린 듯 세 네 명이 우루루 근처로 몰려왔다. 내가 그쪽으로 시선을 주자 멋대로 말을 걸어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인 모양인지 ‘하늘을 날아다니신다면서요?’ ‘어떻게 데블랑 왕자님과 만나게 되신 건가요?’ 같은 내용의 질문들을 던졌다. 옐츠란을 피해서 여기 왔는데 옐츠란이 한 무더기군.

내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빤히 쳐다보자 다들 내 표정을 살펴보며 질문을 멈췄다. 대답을 재촉했으면 성격파탄자라는 소문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 시켜주려고 했는데, 다행이군.

침묵을 틈 타 옆에 앉아있던 여자가 자기소개를 했다.

“저는 레이첼 크리아나에요.”

웃을 때 생기는 인디안 보조개가 꽤나 매력적이었다. 나는 레이첼을 따라 살짝 웃었다.

“나는 레티시아.”

우호적인 반응을 보고 뻘쭘하게 서있던 녀석들도 앞다투어 이름을 말했지만 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다. 원래 일등만 기억되는 게 세상의 법칙이다. 나는 서있는 놈들을 새 쫓듯 쫓는 시늉을 했다.

“다들 가서 하던 일이나 마저 해. 사람이 너무 많으면 정신없으니까.”

얼쩡대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다들 표정이 안 좋아져서 자리를 떠났다.

레이첼은 내 관심을 독차지하게 되서 기뻤는지 아니면 내 말이 우스웠는지 웃음을 터트렸다.

“전 옆에서 그냥 조용히 있을게요.”

눈치가 빠른 사람이네. 마음에 든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어수선한 분위기가 정리되고 다들 훈련을 다시 시작했다.

급하게 땅을 정리하느라 뽑힌 식물이 한 켠에 쌓인 흙바닥에서 뿌옇게 먼지가 피어올랐다.

기본 동작을 반복하는 사람, 신체 단련을 위해 맨손 운동을 하는 사람, 대련하는 사람, 연장자에게 지도를 받는 사람, 훈련방법은 제각각이었다.

페르디낭에 마법사가 적은 대신 기사 양성엔 힘쓴 모양인지 그나마 우스꽝스럽게 검을 휘두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렇다고 대단한 구경거리가 되는 실력자는 없었다.

“다리를 베고 누워도 돼?”

“그러세요.”

레이첼은 내 물음에 선선히 긍정하며 내가 베고 눕기 쉽도록 다리를 폈다. 나는 머리칼을 한쪽으로 늘어트리고 그녀의 다리를 베고 누웠다.

레이첼은 조심스러운 손길로 내 머리카락을 살살 빗으며 넘겨주었다. 그녀의 손은 굳은살이 강하게 잡혀있어 거칠고 단단했지만 섬세한 손놀림이라 전혀 거슬리지 않았다. 나는 만족감에 눈을 감았다. 솔솔 올라오는 풀냄새와 햇빛이 만들어내는 온기가 느껴졌다.

“이러고 있으니까 제 동생이 생각나네요. 동생이 무릎을 베고 누우면 이렇게 머리를 만져달라고 했거든요.”

“동생도 페이퍼트에 같이 왔어?”

“아니요, 신전으로 불려갔어요. 지금쯤이면 신관이 되었겠네요.”

고개를 살짝 돌려 레이첼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내가 올려다보자 다정한 미소를 지었다. 동생에게도 이렇게 웃어줬겠지. 그녀의 눈빛이 말갛다.

“신전에 들어 갈 때, 에블린은 열두 살이었어요. 그 때 이후로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레이첼은 나지막이 덧붙였다. 동생이 많이 보고 싶어요. 그게 그녀가 페이퍼트에 오게 된 이유였을까? 나는 굳이 묻지 않았다.

고개를 돌려 햇빛 아래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봤다. 저들은 각자 무슨 사정으로 페이퍼트에 오게 된걸까?

단순히 귀족들의 권력다툼이라고 생각했는데, 한발짝 가까이 다가서니 사람들의 부딪침이고 투쟁이었다. 귀 기울여 듣지 않아도 바라만 보던 풍경 속으로 들어온 이상 나는 또 이들을 가여워하게 되겠지. 찰나의 순간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정말로 잘 한 선택이었을까? 갑자기 의문이 들었다. 나는 바닥에 박혀있지만 이들은 흘러간다. 바위가 강물을 사랑할 수 없는 노릇이다.

“레티시아, 괜찮아요. 저에겐 동생과 즐거웠던 기억이 아주 많아요. 에블린은 아마 잘 지내고 있을 테니까, 그걸 떠올릴 때 전혀 슬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나는 과거의 즐거웠던 기억만 떠올려도 아직 입맛이 쓰다. 늘 결정적인 순간에 끝을 보지 못하고 도망쳤지만 미완의 추억들조차 나를 괴롭혔다.

“나는 언제쯤 기억을 떠올릴 때 슬프지 않을 수 있을까?”

레이첼은 맥락 없는 내 질문에도 무슨 말인지 캐묻지 않았다. 갑자기 불어온 흙먼지에 내가 눈을 찌푸리자 그녀는 손으로 내 눈 앞을 가려주었다.

“글쎄요... 어른이 되면?”

나는 픽 하고 바람 새는 소리가 나는 웃음을 지었다.

그래, 누워서 고민해봐야 900살 이상 어린 사람에게 어른이 되라는 소리만 들을 뿐이었다.

앞으로도 내 삶을 누군가 대신 살아주진 않을 테니 궁금하면 별 수 없다. 직접 해보는 수밖에.

내 선택이 틀렸다면 그건 그때 가서 후회하자. 어차피 후회할 시간은 많으니까.

나는 내 험담을 하며 지나가는 하녀 두 명을 잡아다가 저녁 만찬을 위한 치장을 돕도록 명했다. 그녀들이 하는 험담이라 해봐야 윗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를 악의 없이 가십거리로 소비하는 것뿐이지만, 운이 나빴다. 마침 내가 그녀들이 지나치는 나무 위에 앉아 있었으니.

소문은 이리 구르고 저리 굴러 온갖 자극적인 요소들을 달아 돌아다니는 모양이었다. 브리기테가 말한 성격파탄자 호칭은 애교 수준이었다.

하녀들이 전해준 말에 따르면 나는 일단 제정신이 아니었다. 실력은 쥐뿔도 없는데 미인계로 세 놈을 낚았고, 혹은 실력이 너무 좋아 데블랑 왕자의 목숨을 두고 협박했다는 설도 있다. 괴이한 저주의 말을 달고 다니며 아마 마도어를 한 게 이렇게 와전됐나보다. 어쭙잖게 예의를 따지는 다른 차원의 사람이다. 게다가 어제 저녁 연못에 빠져죽은 푸텐경은 내가 죽였다는 말까지 떠돌았다.

음, 그건 사실이다. 대머리를 위한 자비심은 없다.

치장을 도와준다 해도 머리를 빗겨주고 크라바트를 매어주는 것뿐이라 그녀들은 내 앞에서 당당하게 내 욕을 조잘댔다. 내가 물어봤지만 너무 신나서 얘기하는 통에 조금 기분이 나빠지려고 했다. 어쨌거나 손끝이 야무진 두 사람 덕에 나는 깔끔하게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바지에 주름이 가지 않도록 밑으로 잡아당겨주던 애나는 나를 올려다보고 탄성했다.

“어머, 너무 멋있어요. 데블랑 왕자님도 이렇게 화려한 옷은 잘 입지 않으셔서 처음 옷을 봤을 때 걱정했는데,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내가 제국의 공작노릇을 할 때 입었던 옷이라 화려할 수 밖에 없었다. 제국은 결국 망했지만 지금 쓰는 공용어가 제국어일정도로 번영했던 곳이었다. 오래 전 옷이라 너무 옛 티날까 싶었는데 지배자의 옷은 역시 유행을 타지 않는다. 역대 왕의 초상화를 보면 다 거기서 거기인 옷을 입고 있지 않는가.

틸라는 크라바트가 제대로 묶였는지 한 번 더 점검하고 레이스 끝을 잔잔한 손길로 쓸어내렸다.

“정말 아름다운 레이스에요. 예술작품 같아요...제가 평생 돈을 모아도 꿈도 못 꾸겠죠?”

그녀들은 내가 근사한 옷을 입고 서있는 마네킹이라도 되는 듯 허리에 두른 장식 띠와, 보석 단추들, 허리춤에 찬 검, 금사로 놓인 자수 같은 것을 보며 탄성을 내질렀다.

“그만 구경하고 로브나 입혀줘.”

“아참!”

잊고 있었다는 듯 애나는 침대 위에 올려진 로브를 집어 들었다. 워낙에 작은 영지이고 영주인 옐츠란도 자주 오지 않으니 시종인들이 엄격하게 교육을 받진 않았나보다. 발랄한 모습이 보기는 좋지만, 페이퍼트에 몰려든 귀족 중엔 못마땅해 할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유세떨듯 한마디 하고 싶지도 않아 나는 그냥 잠자코 있기로 했다.

틸라가 로브를 살짝 벌어진 채로 고정해주는 동안 뒤에서 로브의 케이프 부분을 정리해주던 애나가 갑자기 짧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자수가 움직여요...!”

틸라도 이제 알아챘는지 로브의 깃 부분에 손가락을 가져다댔다.

“마법이에요? 신기하다...”

데블랑에게 빌려줬던 그 로브였다. 이것까지 두르면 장담하건데 오늘 나보다 더 지위가 높아보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황제라고 불려도 이상하지 않을 위엄을 보여줘야지. 워낙에 타고난 게 있으니까 하품만 해도 그렇게 보이겠지만.

준비를 끝마치고 심술을 부려 데려오긴 했지만 고생한 애나와 틸라에게 10라짜리를 하나씩 수고비로 줬다. 둘은 얼굴이 밝아져서 혹시 다음번에도 부를 일이 있다면 다른 사람 말고 꼭 자기들을 불러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문을 닫고 나간 뒤 복도에서 떠드는 소리를 들어보니 거의 한달 월급에 달하는 돈을 쉬운 일 하고 벌었다고 좋아했다. 그 뒤론 나에 대한 칭찬이 이어져서 흡족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사람은 돈으로 매수하는 거다.

마법사들이 온다 해서 그런지 식당은 공들여 꾸민 티가 났다.

깨진 창문의 유리창을 하루 만에 전부 갈긴 어려웠는지 얇게 비치는 커튼을 달아 식당은 우아하고 아늑해보였다. 바깥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흩날리는 흰 천들은 동화 속 모습 같기도 했다. 샹들리에에 초 대신 비싼 마법등이 달려 저녁인데도 실내는 낮처럼 환했다. 아직 음식이 나오기 전인데도 식당에는 식욕을 당기는 음식냄새가 가득 차있었다. 테이블 위엔 앙증맞은 꽃 몇송이와 공작새 깃털이 화병에 담겨 장식되어 있었다.

의도치 않게 내가 제일 늦게 들어왔는지 제각기 친목을 도모하며 떠들던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순식간에 공기 중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모두 내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멍청한 얼굴을 했다. 중간을 비운 사각형 모양으로 식탁이 배치되었던 그 전과 다르게 하나는 가로, 세 개는 세로로 배치되어 데블랑네가 앉은 테이블에서 앞을 바라보면 전체가 눈에 들어오도록 바뀌어 있었다. 나는 그 사이를 가로 질러 데블랑의 옆 자리로 갔다.

데블랑은 내 아름다움에 면역이 생긴 모양인지 얼빠진 얼굴이긴 했지만 내가 편하게 앉도록 직접 의자를 빼주었다.

“오늘 무척이나 근사하시네요. 너무 멋찟...머딧..멋,멋,못...”

“너무 멋지다고? 고마워. 데블랑도 오늘 예뻐.”

데블랑은 긴장한 나머지 말을 더듬고 손까지 달달 떨었다. 물이 담긴 컵을 불쌍할 정도로 흔들어서 손목을 잡아주니 이번엔 얼굴이 터질 것 같이 빨개졌다. 소년의 순정이란 이토록 귀엽다.

소리죽여 웃자 그웬이 엄격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기에 거기다 대고 윙크를 해주니 놈은 못 볼 걸 봤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옷이 어딘가 걸린 듯 한 느낌이 든다 싶었는데 옐츠란이 학문적인 얼굴로 내 로브 끝자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이거 그 때 그 로브지? 진짜 신기하다... 하루만 빌려주면 안 돼?”

나는 냉정하게 옐츠란의 손에서 로브 자락을 빼냈다.

“빌려주기 힘들면 입은 채로 하루만 같이 있어줄래? 연구실에서 자고 가.”

데블랑이 놀란 얼굴로 “옐츠란!” 하고 크게 놈의 이름을 불렀다. 옐츠란은 그제야 자기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깨달은 모양인지 얼굴이 새빨개져서 의자를 당겨 나와 조금 떨어져 앉았다.

“생각 없이 말해서 미안해.”

나는 많은 마법사들과 꽤 오래 살았고 넘치는 관용이 있기 때문에 너그럽게 사과를 받아주었다. 나 참, 마법사들이란.

셋 다 곱게 씻겨 꾸며놓으니 확실히 인물이 좋은 티가 났다. 데블랑은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왕자님 같은 옷을 입고 왕자님다운 연설을 했다. 대강 이렇게 모여 줘서 감사하고 어쩌고 하는 말이었는데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어서 앞에 놓인 식전 빵을 뜯어 먹었다. 음식이나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내가 지루한 표정을 하고 있다는 걸 눈치 채서 인지 몰라도 데블랑은 귀족들에게 다시 나를 정식으로 소개 했다. 미리 언질을 준 모양인지 저번처럼 무례하게 구는 사람은 없었다. 그렇다면 한명쯤은 무례한 사람이 있어도 될 것 같아 내가 그 역할을 맡기로 했다. 나는 귀족들의 환대에 대한 답으로 앉은 채로 성의 없이 손만 까딱댔다. 데블랑은 좀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착하게도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진 않았다. 화제는 금방 전환됐고 나는 자기네들끼리 신난 사람들을 살펴보다가 눈에 띄는 빈자리를 발견했다.

“옐츠란, 저긴 뭐야? 누구 자리야?”

“오늘 오기로 한 마법사들 자리.”

“늦어지나 봐? 아직도 안 왔어?”

옐츠란은 말없이 와인만 들이켰다. 별로 대답 하고 싶지 않아하는 태도라 나는 한 번 더 물어봤다.

“왜 아직 아무도 안 왔냐고 묻잖아?”

“...다들 일이 생겨서 두 세 달 정도 늦어진다더라.”

옐츠란은 빵을 거의 짓이기듯 뜯었다.

“ 불확실한 도박에는 섣불리 뛰어들기 싫은 거겠지. 페르디낭인이 아니거나 마탑 소속 마법사인 경우엔 더더욱. 페르디낭은 마법사에 대한 대우가 안 좋으니까, 일이 성공한다 해도 어떻게 될 지 모른다고 판단한 거 같아.”

내가 그런 사람들을 믿고 의지했다니, 실망스러워. 옐츠란은 그 말을 끝으로 몸을 뒤로 기대 와인만 들이켰다. 혼자 상처 받은 티를 역력하게 내고 있어서 네가 믿고 의지할 사람도 있었냐는 물음은 속으로만 생각하기로 했다. 역시 나는 착해. 대신 그의 어깨에 팔을 턱하니 걸치고 어깨가 높이 있어 조금 자세가 이상해지긴 했지만 눈웃음을 지었다.

“나한테 고맙지?”

“뭐?”

“페르디낭과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내가 도와주겠다고 나선 거잖아. 네가 믿고 의지한 사람들은 다 배신했는데.”

음, 마지막 말은 실수.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무심코 나간 말에 옐츠란이 너무 상처받은 표정을 했다. 옐츠란은 감정을 정리하고 미간을 찌푸린 채 입을 꾹 다물었다가 표정을 풀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너무 고마워. 계속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페르디낭인의 입장이 아니라 나 스스로도. 마도시대에 대한 연구는 오랜 꿈이었으니까.”

의외로 순순히 인정해서 나는 기분이 좋아졌다. 때마침 스프까지 나와 더욱 그랬다.

“하루 한 시간만 협조적인 태도로 내 연구를 도와준다면 더욱 고마울 텐데.”

“그러지, 뭐.”

기분이 좋아져서 즉흥적으로 한 허락에 옐츠란은 눈이 동그래져서 나를 쳐다봤다. 우리가 갑자기 조용해지자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던 데블랑과 그웬도 이쪽을 쳐다봤다.

확인 차 한 번 더 물어보면 내가 사실 거짓말이야. 라고 넘어갈까봐 걱정이라도 되는지 옐츠란은 진지한 눈빛으로 고개만 끄덕였다. 데블랑이 어리둥절한 태도로 우리 둘을 번갈아 쳐다봤다.

“그럼 오늘부터 당장 하는 건 어때? 저녁을 먹은 뒤 연구실로 가서... 아, 식후 주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늦어지겠구나.”

옐츠란은 낭패라는 표정으로 스프가 적이라도 되듯 노려봤다.

“식후 주?”

나는 와인 잔을 들어서 살짝 흔들며 물었다. 와인을 음식과 같이 마시면서 굳이 식후주까지 하냐는 뜻이었는데 데블랑은 무사히 이해했는지 올바른 답을 내놓았다.

“페르디낭에선 식후에 간단한 먹을거리를 내놓고 식후 주를 마셔요. 자유롭게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친해지기도 하죠. 저녁을 많은 사람과 나누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신전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다 같이 저녁을 먹는 일이 흔하거든요. 맬런교에서 나온 문화긴 한데, 굳이 그런 것까지 멀리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하, 어쩐지 스프가 너무 맛있더라. 식문화의 발달로 음식의 질까지 덩달아 좋아졌겠지. 서로 레시피를 나눴을 테니까.

데블랑은 나와 조금 더 말하고 싶어하는 기색이었지만 내가 계속 스프만 떠먹고 있고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꾸 말을 걸어서 결국 고개를 돌렸다. 옐츠란은 이 성의 영주고 둘 뿐인 마법사 중에 한 명이니 누군가 말을 걸 법 하건만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옐츠란은 멀뚱히 있다가 갑자기

“마법으로 사람을 죽여 본 적 있어?”

하고 질문했다. 저러니까 말 거는 사람이 없지. 옐츠란과 대화하면 나도 같은 취급을 받을까봐 그냥 조용한 식사를 하려고 마음먹었다.

공작새 구이까지 나오는 공작새 깃털이 장식되어 있어 조금 식욕이 떨어졌다. 대만찬이 끝나고 식후 주 준비가 마무리 되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끼리끼리 어울렸다. 아직 그 자리에 앉아있는건 나와 데블랑, 그웬, 옐츠란 뿐인 듯 했다. 데블랑은 곧 위원회 노인네들과 끌려가듯 합류했다. 그웬은 아침 운동을 같이 한 기사무리에 불려갔고솔직히 성격 나쁜 걸로 치면 옐츠란보다 그웬이 더 나쁜데 의외다. 결국 나와 옐츠란만 자리에 남게 됐다. 옐츠란이 퍽이나 나를 배려하는 투로 “사람들과 어울릴 생각이 없으면 연구실에 잠깐 들렸다가 가는 게 어때?” 하고 물어보는 것과 동시에 누군가가 나를 “언니!” 하고 해맑게 불렀다.

브리기테가 술기운이 올라 양 볼을 빨갛게 물들이고 나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쟤는 술을 마시기에 너무 어린 나이 아니야?”

내 물음에 옐츠란은 고개를 갸웃했다.

“너무 어린 나이? 너무 어린 나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페르디낭에는 음주에 딱히 나이제한이 없나보군. 브리기테는 내가 옆에 갈 때까지 손을 흔들 기세라 나는 내 술잔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난 사교적인 사람이라고, 마법사나리. 나랑 놀고 싶어 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가서 친구를 만들렴.”

옐츠란은 기가 찬 듯 웃었다. 브리기테는 내가 다가오자 자리에서 일어서려다가 곧바로 다시 주저앉았다.

“언니... 오늘 너무 예쁘고 멋져요... 동화 속에 나오는 황제폐하 같아요...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저에게 재상의 자리를 주세요...”

중얼거리긴 했지만 누가 들으면 큰 일 날 소리라 나는 브리기테의 볼을 꾹 눌렀다. 체온이 올라 따끈따끈한 볼은 말랑했다.

“황제라니,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그런 귀찮은 자리를 나한테 떠넘기려고 하지 마.”

브리기테는 내 손길을 피해 엎드린 채 알아듣기 힘든 말을 꿍얼거렸다. 저 쪽에서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터졌다. 술을 급하게 마시는 멍청한 문화가 있는지 벌써 몇몇이 술에 취해 목소리를 높였다. 고주망태 무리 속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페스카인은 주변과 어울려 미소 짓고 있었지만 남의 표정을 읽어내는데 도가 튼 나는 확신했다. 지겨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군. 왜 내가 멍청이들과 대화하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표정이었다.

브리기테는 내가 보는 곳을 같이 쳐다보았다.

“마법 왕국을 다시 세우면... 신분의 차이가 사라질까요... 아무리 자금을 많이 대어준 상인이라지만 평민인데... 귀족처럼 당당하게 이 자리에 있군요...귀족처럼 당당하게...? 귀족처럼이란건 뭘까요.. 신분이 사라지면 저는 어떻게 하죠?”

급기야 브리기테는 훌쩍거리기 시작해 나는 브리기테 근처에 놓인 술잔을 멀찍하게 떨어트려놓았다. 브리기테는 눈물을 콕콕 찍어 닦아내더니 “아, 힘들다.” 하고 엎드려서 순식간에 잠이 들었다.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야하나. 여기 두고 가도 되나. 나는 그걸 고민하면서 옆에 앉아 몇 잔을 홀짝였다. 내 잔에 들어있던 술은 목구멍이 타는 것처럼 도수가 높은데 브리기테의 술을 마셔보니 달짝지근하면서 향기로웠다. 이래서 취할 때까지 마신 모양이군. 어차피 나는 수많은 죽음으로 인해 알코올에도 내성이 생겨 웬만하면 취하는 일이 드물었다. 술에 취해 죽은 적이 한 두번이어야 말이지.

나 혼자 테이블의 술병을 다 비울동안에도 브리기테는 깨어나지 않았다. 얼굴을 덮은 머리카락을 넘겨보니 너무 곤히 잠들어 있어 나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브리기테와 똑닮은 브린이 기사무리에 끼여 헤헤헤 하고 웃고 있었다. 살짝 취한 것 같지만 사리분별은 하는 표정이라 나는 브린에게 가 어깨를 톡톡 쳤다.

“네 누나...가 아닌 브리기테가 술에 취해 뻗었어. 방에 데려다줘야하지 않을까?”

브린은 내가 가리킨 곳과 기사들을 번갈아 바라보다 아 진짜! 내가 못 살아! 하며 브리기테를 부축하러 갔다. 기사들이 신기한 것을 보는 듯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와중에 레이첼이 주변 사람을 헤치며 반갑게 인사했다.

“레티시아씨!”

차분한 성격인줄 알았는데 술을 먹어서 기분이 좋아진 건지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건지 레이첼은 길을 막는 남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비키라고 걸쭉하게 욕을 했다. 정강이를 차인 남자가 눈치를 보며 아무 말 없이 비켜서는걸 봐서 후자인 것 같다.

“짠 합시다!”

레이첼은 내가 대답 하지 않았는데도 강제로 잔을 부딪치고 시원하게 술을 들이켰다. 페르디낭에도 잔을 부딪치는 문화가 있구나. 술 좋아하는 나라는 어딜가나 비슷하네. 나는 어깨를 으쓱하고 그녀를 따라 술을 원샷했다.

“시원시원해서 좋네요. 이러고 있으니까 제 동생이 생각나요. 에블린도 술을 아주 잘 마셨는데...”

나는 형용할 수 없는 묘한 기분을 느꼈다.

열 두살 때 보고 마지막이라 하지 않았나...? 동생을 떠올릴 때 슬프지 않다는 말은 정말 진심이었나 보군... 그녀 옆에 서 있던 남자가 지겹다는 표정으로 또 동생타령이야? 라고 물어 이런 일이 자주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

콧잔등에 주근깨가 귀여운 남자가 내 잔에 술을 따라주었다. 빈센트라고 자기를 소개 했는데 은근슬쩍 다른 사람들도 자기 이름을 소개해서 나는 기억하기 싫어졌다.

“한 가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제법 공손한 어조였으므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법사라고 들었는데 검을 항상 차고 다니시더군요. 검도 쓸 줄 아시는건가요?”

옐츠란은 페이퍼트에 도착하자마자 검을 내려놓고 마법사답게 연구실에만 틀어박혔지만 나는 내 귀염둥이를 어딜 가나 허리춤에 매달고 다녔다. 마법이 좀 더 익숙한 것뿐이지 나는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으므로 생존에 관해선 못 하는 게 없었다. 뭐라고 대답해주는 게 좋을까. 내 뛰어남을 뽐내면서 페르디낭에 발목 잡히지 않을 선이여야 하는데.

“멋있어서 차고 다닌다던데.”

고민하는 사이 그웬이 대신 대답하며 이쪽으로 다가왔다. 귀도 좋은 새끼.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며 쳐다보건 상관없지만 그웬의 비웃는 태도는 짜증났다. 그냥 무게감이 좋아서 차고 다닌다는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할 예정이었음에도 역시 짜증났다.

“그웬, 함부로 남을 단정하는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구나.”

“저한테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성의 없는 태도로 너를 대하고 있다는 걸 언제쯤 알아챌 생각이야?”

그웬은 전혀 몰랐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가슴에 손을 가져다댄 채 살짝 고개를 숙였다.

“미욱한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제넘게 나섰으니 하던 얘기 나누세요.”

무례하게 굴지 않겠다더니 티나게 빈정대는 태도라 주변 사람들이 시선을 어디 둘 지 몰라 갈팡질팡했다. 떠들썩하던 분위기가 한껏 가라앉았지만 레이첼은 아랑곳 않고 크게 웃었다.

“레티시아씨, 검을 쓸 줄 아세요?”

나는 검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 손에 감겨 들 듯 익숙한 감촉이 닿았다. 마법사임에도 검을 익혔던 건 내게 마법에 대한 재능이 없어 성장이 더뎠기 때문이었다. 나는 죽고 되살아날 때까지 늘 한계의 벽을 마주보며 달렸고 검은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 중 하나였다. 아무리 나라도 죽음이 달가울 리는 없으니, 결국 죽는 순간을 늦춰 주는 건 검 밖에 없었다. 나는 심장이 꿰뚫리면서도 남을 찌르는 방법을 전쟁터에서 구르며 익혔다. 생사를 넘나들면서 배운 검술은 날카롭고 무자비했다.

“아주 잘 쓰지. 여기 있는 아무도 나를 못 이길 걸.”

어린아이의 치기쯤으로 여긴 건지 와하하 하고 웃음이 쏟아졌다. 그웬조차 비스듬히 서서 웃었다.

누가 웃음 속에서 그웬경도요? 하고 소리 지르듯 물었다.

“그걸 말이라고 해. 그웬정도는 우습지.”

아까보다 더 큰 웃음이 터졌다. 그웬 한방 먹었네 하며 그웬의 어깨를 치는 사람도 있었다. 어려보이는 외형은 불편하다. 사실을 말해도 진지하게 듣는 사람이 없다.

“그웬이 진다니. 꼭 보고 싶은걸요. 저희들 중에 아무도 그웬을 이긴 사람이 없거든요. 저 새끼는 어릴 때부터 재수 없었어요.”

빈센트가 웃으며 술을 들이켰다. 그 말에 너도 나도 그웬이 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놈을 욕하다 어느 순간 다들 입을 모아 “대련해! 대련해!” 하고 구호처럼 외치고 있었다. 다들 술을 마셔서 그런 거겠지만 정말 대책 없군. 기사도 아닌 마법사에게, 그것도 아직 어려보이는 사람에게 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기사와 싸우라고 부추기는 꼴이라니.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그웬의 눈이 일순 날카롭게 빛났다.

“내가 이겨봤자 얻을 것 없는 싸움을 왜 해. 다들 취해서 헛소리 하지마.”

그웬은 날카로운 눈빛을 미소로 숨기며 대꾸했다. 자신이 이길 거란 걸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말투였다. 저러다 팔 다리 잃어봐야 질질 짜면서 정신을 차리지. 놈들이 일으켰던 소란 탓에 데블랑이 이쪽 테이블로 다가왔다.

“갑자기 왜 대련해라고 소리를 지른 거야? 누가 누구랑 대련해?”

다들 말도 안 되는 요구였다는걸 아는 듯 우물쭈물하며 입을 떼지 않았기에 데블랑은 제법 엄격하게 말했다.

“술 마시고 대련을 빙자해 주먹질 하는 건 안 된다고 누누이 말했어. 꼭 다치는 사람이 나오잖아. 진검을 사용하는 건 더더욱 안 돼. 지금은 너희 몸이 재산이니까, 정 하고 싶으면 다치지 않게 술 깬 다음에 해. 누구랑 누구라고?”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나와 그웬에게 향했다. 데블랑은 잠깐 동안 눈을 가늘게 뜨고 우리를 보다가 깜짝 놀란 표정을 했다.

“설마 레티시아씨랑 그웬은 아니겠지?”

내 손이 검 손잡이에 가있는걸 본 데블랑은 눈치 챘는지 화가 나서 인상을 잔뜩 찌푸렸다.

“다들 술을 마셨어도 정도가 있지! 레티시아씨께 무례하게 굴지마라고 당부를 한지 하루도 안 지났어!”

목소리를 높였어도 내 눈에는 강아지가 삑삑대는 걸로 밖에 안 보여 나는 자세를 누그러트리고 검 손잡이 위에 올려놓았던 손을 내렸다. 마법등의 불빛이 데블랑 얼굴 위를 감싸며 부드럽게 덧그렸다. 나는 어느새 재롱이라도 보듯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데블랑을 보고 있었다. 데블랑이 내 표정을 보고 움찔하며 시선을 피했다.

“레티시아씨, 무례한 요구는 무시하세요. 다들 술에 취해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네요.”

나는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으면 대체로 너그러운 편이었고 못생겼다면 예외다. 데블랑의 귀여움을 봐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 내 성격 상 한번 검을 부딪치면 적당히 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웬은 기회를 잡은 듯 정중하면서도 빈정대는 태도를 잃지 않았다.

“맞아요. 당신이 다치면 아주 큰일이죠. 물론 다치지 않게 제가 신경 쓰겠지만, 술기운에 혹시...모르잖아요?”

내 표정이 단번에 굳어졌다.

“그웬, 무례는 거기까지야. 네 입으로 예의를 갖춘다고 해서 사과를 받아준 건데, 전과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되지.”

그웬놈은 피식하고 웃었다. 못마땅한 태도에 절로 얼굴이 찌푸려졌다. 은근히 피어오르는 긴장감에 대련하라고 부추겼던 녀석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우리를 번갈아 봤다.

“기억력이 좋지 않아 했던 말을 종종 까먹곤 하네요. 이제야 기억이 났는데, 뭐 어떻게 해드릴까요..? 다시 사과라도...?”

얼굴로 용서받을 수 있는 무례의 선은 이미 지났다. 그웬은 옐츠란에 비해 똑똑한 줄 알았는데 놈도 똑같이 멍청한 게 분명했다. 내가 그웬이었다면 마음에 안 들어도 감정을 숨기고 깔끔하게 공적으로 대했을 텐데, 늘 먼저 이를 드러내고 빈정거리는 건 그웬이었다.

“취해서 나한테 졌다는 핑계거리라도 있어야 하잖아? 검을 뽑아.”

그웬은 거절하는 기색도 없이 기다렸다는 듯 단번에 검을 뽑았다. 놈의 검이 나를 향했고 뒷목에 소름이 바짝 섰다. 몸이 맡는 위협의 냄새였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데블랑이 뭐라고 우리를 말리는 말을 했지만 나는 흘려들으며 검을 뽑았다.

검은 소리도 없이 미끄러지듯 검집에서 나왔다. 빛이 반사된 검날은 유난히 새하앴다. 내 감정에 동조한 듯 검이 요사스러운 소리를 내며 진동하자 주변에 서있던 사람들이 심상치 않다 생각했는지 몇 발자국 뒤로 물러섰다. 기사라면 더욱 예민하게 느낄 지도 몰랐다. 이 검을 가지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죽은 만큼 피냄새를 잔뜩 머금고 있었다.

그웬은 여전히 재수 없게 여유로운 얼굴이었다. 힘을 맹신하는 어리석은 자, 더 큰 힘이 나타났을 때 무참하게 깨질 거란 것을 추호도 생각치않는다. 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이지만 목숨이 일회용인 것들에게 나를 갖다 댈 순 없지.

나는 검을 늘어트렸다. 먼저 오라는 소리였지만 그웬은 달려들지 않았다. 제까짓 것도 나를 비꼬는데 내가 비꼬지 못 할 이유라도 있나? 나는 방만하게 검 끝을 까딱거리며 웃었다.

“역시 이대로는 흥이 나질 않지? 넌 눈앞의 이득이 있어야 몸을 움직이니까. 원하는 것을 걸어, 네가 이겼을 때 그것을 주지.”

주변의 공기를 맛본다면 시큼한 긴장의 맛이 날 것 같았다. 그 속에서 웃고 있는 건 우리 둘 뿐이었다. 하나도 즐거울 것이 없는데 서로 거울이라도 보듯 입 꼬리를 올렸다.

“페르디낭에 충성 서약을 하세요. 조력자가 아니라 가신으로, 합당한 위치에 가서 고개를 숙이십시오.”

빈정대는 말로 받아칠 줄 알았는데 미리 생각이라도 해둔 듯 매끄럽게 답이 나왔다. 술판에서 벌어진 칼놀이에 거는 상품 치고는 무게가 상당했다. 계속 그 점이 못마땅했던 게 틀림없다.

“기회는 놓치지 않는군. 그렇다면 나도 비슷한 걸 걸어야겠지? 뭐가 좋을까...”

칼을 들고 있음에도 여전히 순한 눈매의 그웬을 느긋하게 훑어봤다. 말 잘 듣는 대형견 같은 얼굴인데 꼿꼿하게 고개를 쳐들고 있으니, 목줄을 매어 주는 게 마땅하다.

“나한테 지면 넌 내 노예가 되는 거야.”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이 헛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자비를 베풀어 덧붙였다.

“아, 노예제는 불법이 된 지 오래되었지? 그렇다면 내 시종으로 쓰겠어.”

말이 끝나자 누군가 휘파람을 불었다.

내가 이길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서 다들 내 조건을 장난처럼 생각하는 게 분명했다. 레이첼은 레티시아씨 꼭 이기세요! 하고 응원까지 했다.

기다려봐야 그웬은 어쭙잖은 우월감으로 선공하지 않을 테니 자세를 고쳐 잡고 놈에게 달려들었다.

나는 일부러 맥없는 검을 툭 내질렀다. 그웬은 수월하게 검을 받아냈고 놈의 미소는 짙어졌다.

나는 두 번째 공격에서 어딜 공격해야 모르는 사람처럼 어설프게 경로를 바꾸기까지 했다. 그웬은 자신의 승리를 짐작하는 얼굴로 이번에도 부드럽게 받아냈다. 놈이 내 검을 파악했다 생각하듯 나도 두 합만에 놈을 간파했다. 내가 싸워본 수백 명 중에 한두 명쯤은 비슷한 법이다.

몇 번 장단을 맞춰서 알량한 자존심을 세워주고 그걸 깨부수는 것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옐츠란처럼 어설픈 칼질을 계속 시도했다. 그웬은 어린아이 대하듯 가볍게 받아쳤고 대련이 아니라 그웬이 일방적으로 나를 가르치는 것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장난처럼 나를 응원했다. 주변이 온갖 소리로 떠들썩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웬은 인상을 찌푸리더니 매섭게 공격하기 시작했다. 나는 우연처럼 막아냈지만 어설픈 검으로 그웬의 공격을 막아내는 일이 반복되자 이상한지 나를 응원하던 소리도 점점 줄어들었다. 번번이 공격은 막히는데 내가 하는 공격은 형편없으니까 그웬이 이를 악 물었다. 이번 공격으로 끝내고 싶어 하는 듯 온 힘을 실어 아래에서 위로 내 검을 쳐냈지만 나는 검을 놓치지 않고 손목을 틀어 공격을 흘렸다.

“계속 장난치고 있었군요. 제대로 할 마음이 없습니까?”

“이제 알았어? 해 뜨고 나서 눈치 챌 줄 알았는데.”

그웬은 이를 빠득 갈았다. 이가 빠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선명한 소리였다.

“장난치지 마세요.”

“뭐, 그렇게 원한다면.”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땅을 박차고 순식간에 간격을 좁힌 나는 위에서 아래로 가볍게 휘둘렀다. 그웬은 재빠르게 반응해서 내 일격을 받아냈지만 힘을 예상치 못했는지 놀란 표정이었다.

마나를 체내에 운용해 근육을 움직이는데 쓰는 경지에 도달하면 체격 차이나 성별 차이는 의미 없었다. 오랜만에 온 몸의 근육에 마나가 돌며 넘치는 힘이 느껴졌다. 내 검을 받아내느라 그웬의 검이 끼기긱 비명을 내질렀다.

이대로 눌러버려도 되지만 무식하게 힘겨루기로 끝낼 순 없지.

그웬이 힘에 밀려 조금 주춤하는걸 느꼈지만 나는 그대로 밀어붙이지 않고 이번엔 옆구리를 노려 빠르게 그었다. 이번에도 그웬은 재빠르게 막아냈다. 반응 속도가 꽤나 좋은걸?

나는 튕겨 나오는 검 날의 경로를 순식간에 바꾸어 반대쪽으로 그었다. 이번엔 그웬이 버겁게 따라와 막았다. 나는 수백 년간 함께한 검이 알려주는 길을 따라 검을 휘둘렀고 그웬은 막아내기에 급급했다.

챙챙 하고 맑은 소리가 아니라 그웬의 검이 혼자 사투라도 벌이듯 듣기 싫은 금속성의 신음을 냈다.

반전된 상황이었지만 어설프지만 제 때 받아냈던 나와 달리 그웬은 아슬아슬하게 받아내고 있었다. 내 검은 자비가 없었고 어딜 향해도 꿰뚫을 듯 매서웠으므로 놈은 조금씩 피를 내비치고 있었다.

뚜렷한 실력 차를 느꼈는지 그웬의 안색은 어두웠다. 나는 여유를 부리며 한 발짝 물러섰다.

“장난치지 말고 제대로 해야지, 그웬.”

나는 아까와 같이 검을 늘어트리고 일부러 놈에게 빈틈을 보였다. 그웬의 여유는 무참히 구겨져 나뒹굴었다. 놈은 제대로 해 볼 생각인지 진지한 표정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뛰쳐나왔다. 하지만 목숨이 오가는 비열한 전쟁도 겪어보지 못한 풋내기가 뭘 알겠는가? 그저 몬스터나 상대했던 검으로는 나를 이길 수 없었다. 꽤나 유연한 검로와 힘 분배는 좋았지만 두 수 정도는 어디로 검이 향할지 훤히 보였다. 그웬의 검이 예상했던 대로 옆구리를 찔러 들어왔다. 나는 검을 거꾸로 들어 막고 그대로 위로 추켜올려 그웬의 목을 노렸다. 그웬은 목이 베이기 직전 내 검을 밀어냈다. 자기 검에 눌려 그웬의 목에서 실 같은 핏줄기가 흘렀다.

그웬의 검이 내 어깻죽지를 노리고 쐐애액 하는 바람 가르는 소리와 함께 날아 들어왔다.

그웬의 일격을 힘을 실어 날려 버리자 놈은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두 세 걸음 뒤로 걷다 자세가 흩뜨려졌다. 나는 그 때를 노려 재빨리 그웬의 품으로 파고든 뒤 허벅지를 내려찍었다.

팔을 베는 게 차라리 쉽지만 잘린 팔을 마법으로 이어붙이는 것보다 허벅지에 뚫린 구멍을 메우는 게 더 쉬우니까 현명한 선택이었다.

“크윽!”

그웬은 신음을 흘렸지만 무릎을 꿇진 않았다. 피가 쏟아지자 주변에서 비명이 터지고 나는 눈앞에 다가온 승리에 주인이 누군지 그웬에게 알려주기로 했다. 검을 거칠게 뽑은 뒤 허벅지의 상처를 노려 강하게 걷어찼다. 그웬의 표정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거의 반쯤 자세가 허물어지고 나는 무릎으로 놈의 명치를 올려붙였다. 그웬은 숨을 급하게 들이마시며 결국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침 시중부터 시작해.”

대련을 하면 종종 피를 보기 때문에 그웬의 허벅지를 찔렀다고 나를 비난할 순 없었다. 그렇다고 승자를 위한 축하의 말도 들려오지 않았다. 사방은 비난도 축하도 없이 침묵에 빠져있었다. 저 멀리 테이블에 앉은 고주망태 무리만 웃음기 섞인 목소리로 처음 듣는 노래를 불렀을 뿐이다.

그웬은 피가 줄줄 흐르는 허벅지를 하고도 나를 노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놈이 명백하게 졌기 때문이다. 그웬은 속에서 올라오는 신음을 참느라 어깨를 들썩이며 벌벌 떨었다.

눈빛이 마음에 안 드는데 반대쪽 허벅지도 찍어버릴까... 내가 슬쩍 칼을 들어 올린 것만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챘는지 데블랑이 소리쳤다.

“대련은 끝났습니다! 레티시아씨!”

데블랑이 그렇게 말한다면, 하는 수 없지.

나는 얌전하게 검 날에 묻은 피를 떨쳐내고 검을 집어넣었다.

그래도 페르디낭의 제일 실력자라고 불리는 그웬을 어린아이 다루듯 한 걸 보고 사람들은 뭐라 생각할까. 내가 능력을 보였을 때 들은 제일 황당한 소리는 귀신이야였다.

사람들은 아직도 침묵을 유지한 채 멈춰있었다. 다른 표정을 짓는 법을 까먹은 듯 했다. 데블랑만이 혼란이 뒤엉킨 얼굴로 비척비척 가까이 다가왔다. 데블랑의 눈길이 피가 울컥울컥 쏟아져 나오는 그웬의 허벅지에서 떨어질 줄 몰랐다.

“치료를 부탁드려도 되나요?”

내가 찔러놓고 내가 치료하는 게 우스운 일이지만 나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었다.

“그럼. 아랫사람을 잘 돌보는 것도 주인의 도리지.”

성의 없게 대강 손짓 몇 번 하자 그웬이 이를 악물었다가 표정을 서서히 풀었다. 단기간에 상처를 낫게 하는 치유마법은 고통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그웬을 굴복시켰지만 사람들이 겁에 질린 건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쳐다만 보는 통에 흥이 식어버렸다. 한 발짝 내딛자 닿으면 안 될 것처럼 사람들은 몇 발자국 뒤로 물러나 길을 터줬다. 다시 그들과 나 사이에 선이 그어졌다. 익숙한 거리감이라 울적하진 않았지만 술을 마시고 싶다는 생각은 더 이상 들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내버려 두고 방으로 올라갔다.

역시 새벽부터 잠에서 깬다는 건 인생의 낭비다.

휴일에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늘어지게 자는 게 인생의 낙인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바깥은 아직 새도 울기 전, 깜깜과 새푸름을 반반 섞은 하늘이었다. 억지로 잠을 청해봐야 눈만 감고 있을 텐데... 그렇다고 생산적인 일을 하기도 싫었다.

오늘도 기사들이 새벽훈련을 할 테니까 헉헉 대는 옐츠란이나 구경할까. 시간을 때울 방법을 고민하는데 바깥에서 미약한 기척이 잡혔다.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장기투숙 방문객의 수 때문에 전담하인을 붙여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갑자기 일손이 남아돌아 누가 내 방문 앞에 서있는 건 아닐 테니, 새벽부터 문 앞을 지키고 선 건 어제의 패배자겠지.

나는 굳이 소리 내어 부르지 않고 진짜 시종을 부르듯이 박수를 두 번 쳤다. 본래라면 종을 흔들어야 하지만 옐츠란이 영주인 페이퍼트성에 그런 게 있을 리 없다. 귀가 밝은 그웬은 문을 아주 조용히 열고 들어왔다.

“일어나셨습니까.”

아침도 아닌 새벽에 일어나 그웬의 문안인사를 받게 될 줄은 몰랐다. 솔직히 술을 먹고 한 대련이니 무효라던가원래 대련은 술을 마시고 하면 안 된다. 증인 두 명을 대동해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법적 효력이 있다. 점심쯤에 느적느적 나와 아니꼬운 태도로 비꼬는 말이나 틱틱 댈 줄 알았는데.

“이른 시간이라 손 씻을 물을 바로 준비하지 못 했습니다. 일러두었으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시중을 받는 귀족나리여서 그런지 별다른 교육을 받지 않았을 텐데도 알아서 잘 하네. 그웬이 순종적인 태도를 취하면 괜히 성질을 긁고픈 기분이 든다. 순하게 쳐진 눈꼬리와 어울리지 않게 맑은 눈동자가 짜증을 담는 게 재밌기 때문이다. 신관 같은 얼굴이 분노에 찰 때면 짜릿했다. 이건 절대 변태 같은 생각이 아니다. 나는 결백하다.

“싫어하게 된 사람의 시중을 들게 된 기분은 어때?”

“승부의 결과이니 제가 입을 댈 필요가 있습니까? 그저 따를 뿐이지요.”

“그래도 얌전히 따르다니 의외네. 인정 할 수 없다고 다시 대련하자 할 줄 알았는데.”

“당신이 강한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웬은 담담한 표정이었다.

“다만 제가 질 정도로 강한지 몰랐을 뿐입니다. 이미 정해진 결과를 다시 확인하자고 달려들 만큼 멍청하진 않아요.”

그웬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나가서 세숫물을 가지고 들어왔다. 물은 딱 좋을 정도로 따뜻하고 레몬향이 나서 나는 오래간만에 시중 받으며 살 때의 생각이 났다. 이 닦는 것마저 남이 해주던 때가 있었는데...

내가 세수를 끝내자 그웬은 깨끗한 천을 나에게 내밀었다. 얼굴을 닦고 건네주니 그 천을 물에 담궈 꽉 짠 뒤에 내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다.

“발을 닦아 드리겠습니다.”

나는 묘한 기분을 느끼며 침대에 걸터앉았다.

“시종이 천직 아니야?”

그웬은 내 말에 대답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발목을 끌어 발을 꼼꼼히 닦기 시작했다. 처음엔 간지러워서 자꾸 발을 이리저리 움직였는데 그웬은 발을 꽉 쥐는 법 없이 참을성 있게 다시 내가 그웬의 손에 발을 올려놓을 때까지 기다렸다. 따뜻한 물에 담갔다 뺀 천과 그웬의 손은 따뜻했고 다 닦고 나서 꾹꾹 눌러 안마까지 해준 덕에 나는 다시 침대에 드러누웠다. 온 몸이 나른한 게 잠이 올 것 같다. 나는 웅얼거리듯 말했다.

“사실대로 말해... 너 시종과 영혼이 바뀐 거지? 아니면 그웬을 닮은 시종이 대신 온 건가? 어느 쪽이야...?”

나는 그웬의 대답을 듣지 못했다. 다시 잠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웬의 안마 덕에 해가 중천에 떠있을 때 깨진 못했지만 남들 일어나는 시간에 엇비슷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 내가 일어나는 기척을 기민하게 알아 챈 그웬은 다시 세숫물을 준비할지를 묻고 준비가 됐다면 나를 만나고 싶다는 데블랑의 말도 전했다.

그웬을 시종으로 쓴 지 몇 시간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손이 열개는 더 생긴 듯했다. 뭐 저렇게 편리한 거야? 싸가지 없는 놈이 대련 한 번에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꿀 줄 알았다면 진작 할 걸 그랬다. 옐츠란이랑도 대련을 해볼까? 페르디낭인의 특징일 수도 있으니까. 나는 대충 눈을 비비고 세숫물은 필요 없고 데블랑은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레티시아씨!”

허락을 하기 무섭게 데블랑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눈썹이 아래로 쳐진 게 꼭 부탁을 할 것 같은 표정인걸. 침대에서 벗어나기 싫은 나는 일부러 목 끝까지 이불을 끌어올렸다.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데블랑은 이불에 푹 파묻힌 나를 보고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하셔서 들어왔는데 때가 좋지 않다면 몇 시간 뒤에 다시 올까요?”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말해. 나는 이대로 들을게.”

데블랑이 음...하며 고심하는 표정을 지었다. 생각은 짧게 끝났다.

“아침부터 찾아온 건 다름이 아니라...그웬의 일 때문입니다. 저도 어제 그 자리에 있었으니 대련 조건에 대해 모르는 건 아니지만...”

조건을 물러달라는 뜻인가? 나는 한쪽 눈썹을 치켜올렸다. 그건 안 될 소리지. 저렇게 편리한 시종은 놓칠 수 없다. 비록 인성이 후져도 이젠 내 앞에서 나를 욕하지 않을 테니까 더더욱.

데블랑은 내 표정을 본 건지 자기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내 눈치를 봤다.

“대련의 법적효력을 따지러 온 것이 아니라... 그웬도 맡은 일이 있어 하루 종일 레티시아씨의 시중을 들면 일에 차질이 생겨서요... 그웬이 하루치 일 정도는 끝낼 수 있게 매일 개인 시간을 주실 수 있나요?”

나는 조금 떨어져 서있는 그웬을 손짓으로 불렀다.

“못 들은 척 시치미 떼는 표정 짓지 말고, 넌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만 해주신다면...감사한 일이죠.”

“그럼 웃어봐.”

그웬은 잠깐 멈칫했지만 내 말대로 얼굴에 웃음을 뗬다. 하지만 시켜서 한다는 기색이 역력해서 미소는 어색했다.

“좀 더 제대로.”

이번엔 제법 그럴 듯한 미소가 됐다. 아래로 내려간 눈꼬리라 웃기만 해도 얼음이라도 녹일 듯한 눈웃음을 저절로 지었다.

“앞으로 부탁을 할 땐 그렇게 사근사근하게 웃으면서 하는 거야.”

그웬은 미소 지은 채로 얼굴을 굳혔다. 내가 그걸 보며 웃자 나와 그웬의 얼굴을 번갈아보던 데블랑의 표정이 스르르 풀어졌다. 내가 웃는 걸 보고 본인도 모르게 그러는 것 같았다.

아침에 해준 발 마사지가 마음에 들었기에 나는 흔쾌히 허락했다. 어차피 옐츠란과 약속한 것도 있으니 그 시간동안 그웬은 자기 볼 일을 보기로 했다. 솔직히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모를 놈이 쫄쫄 따라다니는 게 신경 쓰이기도 했고.

“그웬, 배가 고프니까 아침을 준비해줘. 참고로 나는 아침이라고 가볍게 먹진 않아. 채소는 고기 장식용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점 유의해서 준비해줘.”

그웬은 군소리 없이 문을 닫고 나갔다. 데블랑은 그웬이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다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레티시아씨께 그웬이 계속 무례하게 구는 줄 몰랐어요. 진작 말리지 못 해 죄송해요.”

“괜찮아. 그래서 유능한 시종을 얻었잖아. 저렇게 조용해질 줄 알았다면 진작 때려 팰걸.”

데블랑은 조용히 때려 패... 하고 중얼거렸다.

“그웬은 반대하는 일도 한번 결정되면 조용히 따르는 편이거든요. 아마 어릴 적에 신전에서 살아 그런 성격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봐온 그웬은 여태껏 그랬어요. 그래서 레티시아씨께 도움을 청한 일도 이미 결정됐으니 순응한줄 알았는데... 계속 어제처럼 무례하게 굴었나요?”

“그제는 예를 갖춰 대하겠다는 둥 무릎까지 꿇더니 어제는 빈정대더라. 그러고 오늘은 또 순종적이군. 그웬은 진짜 이상한 애야.”

나는 사람을 잘 판단하는 편이었지만 그웬은 태도를 휙휙 바꿔 정의내리기가 어려웠다. 그냥 제멋대로라는 것만 알겠다. 데블랑은 아, 그건 아마도... 하고 입을 뗐다가 망설이는 표정으로 이불 끝자락만 만지작댔다.

“어제는 술을 마셔서 과해진 것 같아요. 그웬은 술을 마시면 빈정대거든요...그래서 쓸데없는 시비가 자주 붙는 편이죠. 뭐, 술자리에서 대련하는 건 그냥 기사들끼리 하는 장난 같은 거지만...”

나는 어이가 없어져서 헛웃음을 지었다. 그럼 걔 술주정에 넘어가 싸웠단 말이야? 그웬은 술주정 따위 없을 것처럼 생겼고 어제는 전혀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술만 마시면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는 사람이라, 최악이군. 표정에서 생각을 읽었는지 데블랑은 그웬을 두둔했다.

“그웬도 자기 술주정을 알아서 원래 술은 입에도 안 대요. 술도 약한 편이거든요. 어제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다들 한잔하라고 억지로 먹여서...”

“너 그웬한테서 돈 받았어? 왜 그렇게 그웬이 착한 사람이라는 걸 강조 못 해 안달이야?”

데블랑은 화들짝 놀라 한걸음 뒤로 물러나기까지 했다.

“아, 아뇨. 돈이라니.. 아니요... 그런...”

나는 몸을 일으켜 침대에 기대앉았다. 데블랑은 혼자서 버벅대다가 순진한 왕자님 같은 말을 했다.

“그냥 저는 레티시아씨가 페르디낭인에 대한 나쁜 편견을 가지지 않았으면 해서요...사람들과 전부 친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데블랑은 손끝에 뭐라도 묻은 듯 자꾸 손가락을 만지작댔다. 나라를 생각하는 왕자님의 마음은 알겠지만 언제는 페르디낭인은 장난감이 아니라는 둥 곁에도 못 가게 할 것처럼 굴더니 이제는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말은 우스웠다. 다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나? 페르디낭인에 대한 나쁜 편견이 벌써 생긴 것 같다.

“네가 그러지 않아도 친하게 지낼 생각이야. 사귀려면 일단 친해져야지. 안 그래?”

데블랑은 순식간에 침울한 표정을 지었다. 눈이 촉촉해져서 아침 햇살이 그렁그렁 눈동자에 맺혔다. 잊고 있었는데 내가 얘기를 꺼내서 겨우 생각난 모양이었다. 아, 그렇네요... 하고 조용히 대꾸하더니 데블랑은 침대에 걸터앉았다. 팔로 한쪽을 짚고 상체를 내 쪽으로 기울이자 얼굴이 가깝다고 느껴질 만한 거리였다.

“여전히 여러 명과 동시에 연애하겠다는 생각은 변함 없으신 거죠?”

“당연하지.”

데블랑은 고개를 틀어 찬란하게 부서지는 아침햇살을 잠깐 동안 바라봤다. 햇살 속에서 가냘픈 먼지가 평화롭게 떠다녔다. 나는 창문께를 바라보는 데블랑의 얼굴을 바라봤다. 햇빛은 소년의 속눈썹 끝에서 뛰놀고 투명한 복숭아 껍질 같은 머리칼에서 손을 잡고 빙빙 돌고 있었다. 데블랑은 고개를 돌려 내 눈을 쳐다보며 잠깐 숨을 골랐다.

“그렇다면 연애하는 상대의 신분은 상관 없으신 건가요?”

나는 이제야 데블랑이 꺼내려는 말이 짐작이 갔다.

줄곧 데블랑을 어린 소년으로만 생각했기에 언젠가 다 크면 모를까, 지금 당장 연애대상으로 생각해본 적은 없었다. 대답에 따라 당장이라도 고백할 분위기라 나는 물끄러미 데블랑을 응시했다.

옅게 탄 커피 같은 향긋한 헤이즐넛 눈동자가 대답만 기다리며 가만히 머물러 있었다.

“신분은... 상관없지.”

데블랑은 체중을 실어 좀 더 가까이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침대의 한 쪽이 기우는 것이 느껴졌다. 팔랑팔랑, 데블랑이 눈을 깜빡일 때마다 속눈썹이 나비가 되서 날아올 듯 했다. 볼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잔뜩 긴장한 얼굴로 데블랑은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입을 떼려는 순간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가겠습니다.”

그웬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리자 데블랑은 죄라도 지은 것처럼 화다닥 침대에서 일어섰다.

트롤리를 밀고 들어오던 그웬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 조금 헐떡이는 데블랑을 의아한 시선으로 바라봤다. 의아한 시선은 점점 차가운 눈빛으로 변해 나에게로 돌아왔다. 나는 괜히 찔려 먼저 말했다.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전 아무 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침대의 이불을 걷자 그웬은 이번에도 능숙하게 침대 위에 아침식사를 차려주었고 슬슬 의심스럽다. 사실 그웬은 시종장이 아니었을까? 데블랑은 간식을 원하는 강아지처럼 계속 침대 주변을 맴돌았다. 아까 하던 말을 이어 하고 싶어 하는 게 뻔히 보였지만 나는 그렇게 되도록 놔두지 않았다. 아침부터 논하기엔 너무 피곤한 주제다.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했다.

“데블랑? 같이 아침을 먹겠냐 물어보고 싶지만 침대에서 아침식사를 같이 하긴 쉽지 않을 것 같네. 이만 나가주겠어?”

데블랑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싹 가셨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알 정도로 확연히 충격 받은 표정이었다. 데블랑은 횡설수설 인사를 하고 도망치듯 떠나버렸다. 그웬은 많은 게 궁금한 표정으로 인상을 찌푸렸지만 내가 못생긴 표정 하지 말고 생글생글 웃으라고 으름장을 놓자 뭔가를 묻길 포기했다.

달달한 차를 한 잔 마시는데 데블랑의 반짝이던, 풋내가 날 것 같은 눈동자가 떠올랐다. 경험 없는 이의 서툰 감정, 설익은 사랑. 내가 가져본지 오래된 것들이었다. 찬란한 때를 살고 있는 사람을 보면 나는 미약한 질투심과 애틋한 보호심을 느꼈다. 끝이 있는 자의 삶은 자주 찬란했으므로 결국 나는 거의 모든 사람들한테 그런 감정을 느낀 셈이다.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에 비해 나는 나태와 타성에 젖어있고 권태에 빠져있으며...

한 입 베어 문 구운 메추라기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생각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급전환 되었다.

너무 잘났지. 나는 너무 잘났어. 암, 그렇지. 게다가 나도 한 때 엄청 치열하게 살았어. 인간들도 늙어 죽어갈 때면 아무것도 안 하고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는데 뭐가 문제야.

빨리 아침이나 먹고 단순한 옐츠란이나 놀리면서 이상한 부담감을 떨쳐버려야겠다.

옐츠란은 내가 연구실에 들어왔다는 걸 모를 정도로 수식에 매달려 있었다. 뭔가 해서 들여다보니 아직도 마나를 넣었다 뺐다 하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었다. 쓸모없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네. 하지만 테이블 위에 달콤한 말린 과일들이 종류별로 한가득 이었으므로 나는 조금의 도움을 주기로 했다.

“줘봐.”

옐츠란은 숨을 갑자기 들이키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심장을 부여잡았다. 한참 후에 겨우 파들파들 떨리는 숨을 내쉰 옐츠란은 “문 두드리는 방법 몰라? 제발 인기척 좀 내고 다녀.” 하고 투덜거렸다.

나는 대꾸 없이 연구실에서 못 보던 의자를 끌어다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옐츠란은 투덜거리면서도 종이와 마법펜을 나한테 건넸다. 나는 그가 막히던 부분을 하나씩 고쳐주었다. 사각사각 종이 긁히는 소리만 들리고 옐츠란은 내가 적는 글자들에 집중했다. 나는 자꾸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면서 꾸준히 적어 나갔다.

마나를 넣었다 뺐다 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비효율적이라 조금 더 고쳐 외부의 마나가 몸을 통과해 흐르게 하되 본인의 마나도 지닐 수 있는 쪽으로 바꿔주기까지 했다.

옐츠란이 모르는 부분을 손으로 찬찬히 짚으며 생각하기에 이왕 하는 김에 친절을 더 발휘해서 나는 차근히 설명해주었다. 말주변을 발휘해야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문장들은 매끄럽게 나왔다. 나는 이해를 돕기 위해 종이의 빈 부분에 다른 술식들을 예시로 써주었다. 잘 따라오고 있는지 고개를 들어 옐츠란의 얼굴을 살펴보는데 놈은 종이가 아니라 나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겨우 넘겨놓았던 머리카락이 다시 사락 흘러내리며 턱을 간지럽혔다.

“옐츠란?”

“어? 어...”

나는 한숨을 크게 쉬었다. 이 넘치는 매력을 어쩌면 좋으리. 나는 죄많은 사람이다.

“나한테 반한 거면 고백은 오늘 말고 다른 날에 해줘. 오늘은 한도초과야.”

옐츠란은 얼굴이 새빨개져 길길이 날뛰었다. 예상을 전혀 벗어나지 않는 반응이었다. 옐츠란은 단순해서 편하다.

“누가 너한테 반했다고 그래! 안 반했어! 왜 반해! 그냥 의외라고 생각했던 거야!”

“뭐가 의외인데?”

나는 아주 위대하다. 라고 이마에 붙여놓고 다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펜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팔짱을 꼈다.

“마법사들은... 자기 지식을 다른 마법사에게 전해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근데 너는 스스럼없이 설명해줬고 호의적이라서 그 점이 의외라고 생각했어.”

옐츠란이 평생을 노력해봐야 어차피 나를 따라잡지 못 할 거고 늙어 죽을 테니까 지식의 일부의 일부를 나눠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마법사들은 욕심만 뒤룩뒤룩 쪄서 언젠간 멸망할 거다. 소통이 없는 문화는 사라지기 마련이다.

“내가 좀 착해. 그래서 네 연구도 도와주려고 온 거잖아?”

옐츠란은 떨떠름하게 으응과 응의 중간쯤 되는 대답을 했다. 나는 앞에 놓인 말린 살구를 집어먹었다. 내가 아주 좋아하면서 텔른에서 먹었던 그 말린 살구와 맛이 똑같았다. 내가 몇 개 더 집어 입에 넣자 옐츠란이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거 어디 꺼인지 찾느라 고생했다고. 텔른에서 맛있게 먹었던 살구 맞아.”

토하느라 정신없었을 텐데 의외로 눈썰미가 좋네. 나는 개를 칭찬해주듯 설탕이 잔뜩 묻은 손으로 옐츠란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옐츠란은 기겁하며 내 손길을 피했다. 토도독. 설탕 몇 톨이 옐츠란의 머리에서 테이블로 떨어졌다.

옐츠란은 짜증 섞인 손길로 머리에서 설탕을 털어내며 거의 얇은 책 두께쯤 되는 종이뭉치를 자기 앞으로 끌어왔다. 거기 적힌 건 온통 나에게 할 질문들이었다. 나는 시작도 전에 질리는 느낌을 받았다.

“오늘 하루 만에 끝낼 양은 아니지?”

“나도 이만큼 말을 많이 하긴 힘들어.”

그렇다고 하면 도망치려고 하는데 아니라니까 그냥 얌전히 말린 바나나나 하나 집어먹었다. 식감이 별로네.

“마법을 배운지는 얼마나 됐어?”

나는 속으로 조용히 년 수를 꼽아보았다.

“한...840년 정도?”

“거짓말 치지 말고. 도와준다고 했잖아.”

사실을 말했는데도 전혀 믿질 않는군. 옐츠란은 잠깐 고민하는 태도로 시선을 내리깔았다가 얼굴이 심각해졌다.

“...진짜야?”

“아니, 장난이야.”

옐츠란은 그럼 그렇지 하는 표정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레티시아씨.” 하고 툴툴댔다.

페르디낭에 머무는 기간이 꽤 길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지만 내가 불멸의 존재라는 건 절대 밝히지 않을 생각이었다. 마탑 소속의 옐츠란한텐 더더욱. 내 연애 사업의 걸림돌이 될까봐 라는 이유는 제쳐두고. 나는 한 때 마법사 무리에게 불사신이라는 걸 들켜서 실험체로 산 적이 있었다. 아니지, 그걸 살았다고 해야 하나. 그 때도 꽤 강했던 나를 온갖 방법으로 잡아두고 죽기 직전까지 괴롭혔다. 죽어서 어떻게 빠져나오긴 했지만 아직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릴 정도로 끔찍한 기억이다.

그리고 남을 괴롭히며 쌓은 우정으로 후에 지금의 마탑이라고 불리는 단체까지 세운 모양이었다.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마탑에 찾아가 탑을 무너트리려고 했지만 이름과 다르게 진짜 탑이 아니고, 마탑 소속의 마법사와 동행한 사람만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포기했다. 페르디낭은 후에 마법국가가 된다고 하니, 괜히 사실을 밝혀 위험부담을 감수하기 싫었다. 지금은 잡히더라도 당연히 빠져나올 수 있지만 기껏 건국을 도와준 나라를 내 손으로 망하게 한다면 잠자리가 몇 년 동안 불편할 것 같다.

“사실 8년이야.”

나는 년 수를 후하게 깎아 대답했다.

“그래? 정확히 어느 정도의 성취가 있는 거야?”

“정확히 대답하긴 싫은데.”

“뭐, 좋아... 일부러 숨기는 마법사들도 많으니까 계속 묻진 않을게.”

옐츠란은 질문이 적힌 종이를 살펴보다 말고 내려놓았다.

“안되겠다. 도저히 집중이 안 돼. 오늘은 이쯤하고 내일 다시 만나는 게 어때?”

“왜?”

“빨리 가서 이대로 해봐야겠어. 정말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 그리고 이걸 응용할 수 있는 곳도 떠올랐거든. 뒷마당에 내가 그려놓았는데...아, 너도 같이 가서 보고 이상한 부분 좀 얘기해줄래?”

옐츠란은 내가 술식을 적어준 종이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안절부절 못 하는 게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어 하는 기세라 나는 창문을 활짝 열었다. 어차피 할 일도 없고, 무슨 헛짓거리를 하는지 가서 구경이나 하지 뭐. 옐츠란에게 창문 가까이로 오라고 손짓하자 그는 의아해하는 표정으로 다가왔다.

“왜? 누가 불러?”

나는 옐츠란을 창밖으로 밀어버렸다. 창문턱이 내 무릎께에 올 정도로 낮아서 가능한 일이었다. 옐츠란이 비명을 지르며 떨어지고 나는 바로 따라서 뛰어 내렸다. 혼자라면 그냥 착지를 하면 될 일이지만 떠들썩하게 옐츠란을 살인하고 싶지 않았으므로 짧은 추락은 금방 비행으로 바뀌었다. 바닥에 부딪치지 않고 두둥실 떠올랐는데도 옐츠란의 표정은 안 좋았다.

“너...!”

옐츠란은 공중에서 나를 돌아보다가 입을 틀어막았다. 단순히 추락사할 뻔한 사람치고 표정이 너무 안 좋은걸. 옐츠란은 텔른에서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헛구역질을 시작했다. 다른 손으론 빨리 내려 달라는 손짓을 하기에 바로 땅에 내려주었다. 토사물비는 좀 아니지. 그런 걸 본다면 옐츠란에게 붙었던 미약한 정주로 얼굴에 붙은도 떨어질 것 같았다.

옐츠란은 땅에 발이 닿자마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우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던, 아니 날아서 내려오는 것을 구경하던 사람 몇 명이 놀라 이쪽으로 다가왔다.

“난... 비행 멀미가 있단 말이야...그리고... 그렇게 무식하게 창밖으로...으으.. 밀어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뭐? 비행멀미?”

나는 어이가 없어져서 하, 하고 짧게 비웃었다. 마법사가 비행멀미를 한다니, 기사가 첨단공포증이 있다는 말처럼 어이없었다. 마법사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비행마법일정도로 비행은 마법사의 생활과 밀접해있었다. 일단, 마법사들은 걸어 다니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유에 대해 그럴싸하게 말하자면 전쟁에서 땅바닥에 붙어있는 것보다 하늘에 떠있는 게 칼 맞을 확률이 적고 사실대로 말하자면... 마법사이기 때문이다. 마법을 쓸 수 있는데 누가 무식하게 몸의 근육을 움직인단 말인가? 머리를 써야지.

“그렇게 보지마. 남이 걸어주는 비행마법에만 멀미가 나는거야. 내가 나한테 거는건 멀쩡하다고.”

“그게 더 이상한걸.”

“이렇게 된 데엔 다 긴 사연이 있어...”

옐츠란은 좀 진정됐는지 비척비척 일어섰다. 다가오던 사람들은 옐츠란이 일어나는 걸 보고 자기네들끼리 괜찮으신가보네. 하고 옐츠란의 상태에 대해 떠들다가 다시 가던 길을 갔다. 옐츠란은 화가 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 사연은 다 너같이 막무가내로 사람을 떨어트리고 비행마법을 거는 마법사들 때문에 생겼어. 도대체 너희 마탑 마법사들은 뭐가 문제야? 나도 마탑 마법사이긴 하지만, 그 부분은 이해를 못하겠네. 남이 떨어지는 게 재밌어?”

나는 뛰어난 청취능력과 매력적인 말주변을 지녔으므로 가치 없는 옐츠란의 시비는 다 걸러듣고 듣고 싶은 부분에만 답했다.

“마탑마법사라고? 내가?”

“어? 마탑 소속 아니야?”

옐츠란은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흠과 음의 중간정도 되는 소리를 냈다.

“난 당연히 네가 마탑 소속 마법사인줄 알았는데...걷는 대신 늘 날아다니고 귀찮다고 마법 난사하고 괴상한 생활마법을 쓰고 생각치도 못한 마법 응용에.. 마탑에서 다들 그러거든.”

말하고 보니 자기소개 급이라 민망한지 옐츠란은 괜히 옷자락만 털었다.

“그럼 네 스승님이 마탑소속 마법사였나 봐. 바깥에서 제자를 만들어 마탑으로 데려오는 경우도 종종 봤어.”

옐츠란은 뚱한 내 표정을 한번 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와, 스승님이라니. 너랑 정말 안 어울리는 단어네. 땅에서 솟아나서 하루아침에 마법을 깨우친 것처럼 구는데.”

나는 단번에 옐츠란을 허공에 띄워버렸다. 품 속의 종이를 곰돌이 인형처럼 꼭 끌어앉은 옐츠란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미안! 미안! 내가 경솔했어!” 하고 필사적으로 소리 질렀다.

흥, 마법사라는 놈이 저렇게 학습능력이 없어서야.

나는 얌전히 옐츠란을 내려줬다. 옐츠란은 잠깐의 비행에도 멀미를 하는지 배를 움켜잡고 으으, 하고 토할 것 같은 표정을 했다. 잠시 뒤에 한결 표정이 나아진 옐츠란은 따라오라며 발걸음을 옮겼다.

“부탁인데 다시는 하지 마. 진짜 토할 거야.”

“부탁이니까 거절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지?”

옐츠란은 포기한 태도로 한숨을 쉬었다. 내가 너한테 뭘 바라겠냐 라는 듯한 표정을 짓던 옐츠란이 갑자기 멈춰 섰다.

“그러면 마탑에 한 번도 가본 적 없어?”

“응.”

“아, 이거 큰 일 났네...마탑에 있는 내 방에 마도시대에 관한 책이 많아서 옮기는데 도와 달라 하려고 했는데... 무한의 주머니에 다 넣으면 옮기기 쉬울 거 아냐. 거의 책장 네 개 정도 되거든.”

그 놈의 마탑을 찾으려는 시도를 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마탑을 나온 마법사들에겐 위치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금제가 걸려있고 마탑에 악감정이 많이 남아있을 때라 마탑마법사와 사이가 안 좋았다. 내가 마탑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 지 짐작하기에 아무도 나를 마탑에 초대하지 않았다. 뭐,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탑에 대한 악감정도 사라졌다. 그냥 마법을 병적으로 좋아하는 변태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 같은 느낌이다.

“그게 왜 큰일이야? 도와줄게. 마탑이 어떻게 생겼는지 항상 궁금했거든.”

“마탑에 처음 간 사람들은 구경하느라 정신이 팔려서 거기 사는 마법사들과 자주 문제가 생기거든. 그리고 레티시아는 문제가 생긴다면... 절대 조용히 해결하진 않을 거 같은데...”

옐츠란은 말을 끝내다말고 한걸음 물러서며 헉 미안! 비행마법은 안 돼! 하고 소리쳤다. 누가 보면 내가 심하게 괴롭힌 줄 알겠네. 나는 어이가 없어서 옐츠란은 허공에서 몇번 짤짤 흔들어주었다. 이번엔 회복하는데 오래 걸려서 나는 길에서 시간을 한참 낭비 했다.

옐츠란은 뒷마당을 보고 소리 질렀다. 기사들의 연무장이 될 공터를 만드느라 옐츠란이 마법진을 그려놓은 곳에 정원수를 옮겨 심었기 때문이다. 마력을 부어넣어 발길질 몇 번에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마법진은 강했지만 이정도로 땅을 뒤엎으면 효력이 없어지는건 당연했다. 영주처럼 하인들도 정말 막무가내군. 영주가 마법사인데 누가 봐도 그리다 만 마법진이 있는 바닥에 정원수를 옮겨 심을 생각을 했지?

“안 돼... 내 마력수련터가...”

얘기를 들어보니 마나가 한 곳에 모이게 만들어 마나를 쌓기 쉽게 하려는 계획이었나 보다. 좋은 계획 같지만 마나라는건 생명력이고 주변의 생명력을 빼앗아서 한 곳에 가둔다는 건 위험한 발상이었다. 내가 그 점을 지적하자 옐츠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 생각 못 한건 아니지.. 그래서 아직 미완성이었던 거야.. 네가 알려준 방식대로 한 곳에 모이되 흘러가도록 변형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산 꼭대기도 아니고 애초에 모일 마나가 적은 곳에 그런걸 설치해봤자 원하는 만큼의 효과는 안 날거야.”

옐츠란은 불퉁하게 그냥 실험 단계라 엄청난 효과를 기대한 건 아니야..하고 중얼거렸다.

“이렇게 못 쓰게 돼버린 게 차라리 잘 된 건가...”

옐츠란은 그러고도 미련이 남은 눈빛으로 마법진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을 한참 바라봤다.

“보여주려던 것도 없어졌으니... 나는 마나를 다시 집어넣으러 가볼게. 성공하면 마탑에 가서 책을 가지고 오자.”

되게 이상하게 들리네. 내 표정을 본 옐츠란은 인상을 찌푸렸다.

“왜 그렇게 봐? 아.. 잠깐...잠깐... 무슨 생각하는지 알겠다. 그건 안 되지!”

옐츠란은 그렇게 외치고 비행마법을 써서 하늘로 떠올랐다.

“하하! 이젠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다!”

나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왜 혼자 저러는지 모르겠다. 옐츠란이 바보짓을 하건 말건 나는 그냥 내버려두고 성으로 들어갔다.

“레티시아님. 잠깐 시간 내주실수 있겠습니까?”

중앙현관에 있는 계단으로 가려고 복도를 지나치고 있는데 누가 나를 정중하게 불렀다. 그늘 속에서 한 발짝 페스카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오늘도 귀족보다 더 귀족같이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어서 눈이 즐거웠다. 외모로는 전혀 다른 인상이지만 페스카인은 볼 때마다 그웬같은 느낌을 풍겼다. 조금 재수 없는 부류.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페스카인은 제법 능숙하게 그 기색을 숨길줄 알았다. 내가 대답 없이 빤히 쳐다보자 페스카인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아주 잠깐이면 됩니다.”

커피에 우유를 탄 것처럼 미소 하나에 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첫인상만 아니었다면 나도 깜빡 속을 만큼 다정해보였다. 숄테나에서 나를 설득하려고 친절하던 척 했던 그웬이 떠올랐다. 그웬, 이 정도는 했어야지.

나는 스스럼없이 놈을 따라갔다. 놈은 오늘도 옅은 마약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무슨 얘기를 할 지 뻔히 짐작 갔기 때문이다. 나도 똑같은 게 궁금했으니까.

이야기를 하기 위해 들어간 곳은 먼지 냄새가 조금 나는 창고로 쓰이는 방이었다. 손님방이 모자라서 응접실까지 사람이 들어찼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빈 방을 만들기 위해 치운 가구를 여기 둔 모양인지 먼지가 쌓인 잡동사니와 반들반들 윤이 나는 가구들이 멋대로 섞여 있었다. 페스카인은 그 중에서 의자 두 개를 끌어다가 하나를 내 앞에 놓아주었다. 의자에 앉자마자 페스카인은 입을 떼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립에게 들었는데, 마약을 하신다지요? 데블랑 왕자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른 질문이네. 재밌어지겠는걸.

나는 다리를 꼬고 편하게 앉았다.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야?”

“제가 어떻게 감히 레티시아 님께 그런 무례를 범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제안을 하는 겁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페르디낭을 도와주는 대가로 직위도 재산도 약속받지 못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나를 위한 특별법을 만든다고 하면 떠들썩하게 들고 일어나 반대부터 할 게 뻔해서 공표하지 않기로 미리 얘기가 된 상태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더 얕잡아 보는 것도 있다. 작위나 재산도 받지 않고 모종의 대가아마도 형편없을 게 뻔한만 암중에 약속됐다고 하니, 순진한 차원 이동자 한 명을 곧 내전이 일어날 나라에 묶어둔 거라고 얘기들 했다. 모든 게 끝나면 작위를 내려줄 수도 있지만 그건 그때 돼야 아는 거라고 걱정을 빙자한 비꼬는 소리도 덧붙였다.

내 방 창가 쪽에 산책로가 지나가서 귀족과 사용인들이 하는 대화가 심심치 않게 들리는 편이라 아는 얘기들이지만, 굳이 정정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 내버려 두었는데 페스카인도 그 얘기를 들었나 보다.

“그래.”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별로.”

페스카인은 내가 그렇게 대답할 걸 예상하였다는 듯 친근하게 웃었다.

“레티시아 님, 저에겐 편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전 당신의 비밀을 이미 하나 알고 있지만 발설할 마음은 없습니다. 비밀을 몇 개 더 안다 해도 그 마음은 같습니다.”

아이를 달래려는 것처럼 달콤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내 겉모습만 보고 대처하는 사람이 또 나왔군. 내가 980년이나 살았다는 것을 딱 보고 알길 바라는 건 말도 안 되지만 딱 봐도 현명해 보이지 않나? 현자의 지혜는 범인이 헤아리지 못한다더니.. 딱 그 꼴이었다.

대체로 키가 큰 페르디낭인들 사이에서 나는 더 어려 보이는 편이어서 어제저녁 만찬에서 나만 디저트가 세 종류 더 나올 정도였다. 아닌가, 그건 그냥 데블랑이 신경 써 준 거 일수도.

“내가 비밀을 확실하게 지키는 방법을 아는데.”

나는 페스카인이 어느 쪽에 붙은 놈인지 궁금해졌다. 귀족도 아닌 상인 놈이 신전에 붙어봤자 받아먹을 건 없을 거고, 왕가 쪽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방금 전의 대화로 모든 건 불투명해졌다. 페르디낭을 크게 신경 쓰는 건 아니지만, 남 일처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페스카인이 사과를 파먹는 벌레라면 잡는 게 마땅하다.

“비밀을 아는 사람을 없애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하지?”

나는 검을 뽑아 들며 웃었다. 말처럼 죽일 마음은 없었지만 약간 손봐줄 의향은 있었다. 진실을 토해내게 하는 방법 중 제일 쉽고 빠른 방법은 고문이니까.

페스카인은 내가 검을 뽑아 들었는데도 상인다운 침착함을 유지하며 품속에서 작은 종이쪽지 같은 걸 꺼내 들었다.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쪽지 끝이 파르르 떨려서 예민한 후각에 미약한 냄새가 잡혔다. 뻔하게도 마약이어서 뭘 하려나 싶어 나는 검을 살짝 내렸다.

“제가 첫 마디를 잘못 꺼낸 것 같군요. 저는 정말로 레티시아 님께 제안을 하러 왔습니다. 사과의 의미로 이걸 드릴 테니 기분 푸세요.”

중독자들끼리 통하는 정인가. 이걸 왜 나한테 주지. 그래도 일단 선물을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서 나는 검을 집어넣고 약을 건네받았다. 페스카인의 눈매가 보기 좋게 휘었다.

“좋습니다. 그럼 이번엔 실수하지 않게 제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레티시아 님께 주기적으로 약을 드릴 테니 제 사소한 부탁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과거의 경험으로 무슨 상황으로 흘러가는지 감이 왔다. 나는 주머니에 약을 쑤셔 넣고 페스카인의 손을 잡아다 끌었다. 놈은 나에게 손을 맡긴 채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봤다. 나는 페스카인의 장갑을 벗기고 손끝을 살펴보았다. 결 좋은 손톱은 바짝 깎아놓았음에도 가장자리가 시퍼런 색으로 물들어있었다. 확인 차 냄새를 맡아보자 마약의 주재료인 독초 냄새가 강하게 났다.

역시 이놈은 그냥 중독자가 아니라 마약 제조자였다. 동시에 공급업도 맡고 있겠지. 상인이 귀족을 도와줄 정도로 막대한 자금을 가지려면 사람을 팔든가 마약을 팔든가 아무튼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야 하는데 왜 의심해보지 않았을까. 아 참, 관심이 없었지.

페스카인은 내게서 손을 부드럽게 빼서 장갑을 가져가 꼈다.

“취미로 그림을 그리느라, 물감 색이 빠지질 않네요.”

천연덕스러운 태도라 나는 피식 웃고 말았다.

“마약 복용자는 영지에 따라 처벌이 다른데, 마약을 만든 사람은 무조건 처형인 거 알지?”

페스카인은 당황한 기색 없이 잔잔하게 웃었다. 점점 미소는 짙어져 이를 드러내 보이며 웃을 정도였지만 반대로 눈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마약을 팔려면 당연한 말이지만 소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구하기도 어려운 마약을 너도나도 기호식품처럼 소비하는 건 아니어서 마약상들은 비통에 잠겨 인생의 낙이 없는 자들을 살살 꼬드겨 마약에 빠지도록 유도했다. 처음엔 호의로 도와주는 척하며 옆에 붙어 중독 될 때까지 약을 건네주다가 나중엔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요구하고 더 나올 것이 없을 때 중독자를 파멸로 이끈다. 대륙 곳곳에 팔려나가는 노예 중 유독 마약중독자가 많은 것도 그 이유였다. 환상을 보는 대가로 남은 인생을 팔아넘기는 건 균형이 맞지 않는 가혹한 일이다. 페스카인은 남의 인생을 구렁텅이로 넣는 전형적인 마약상의 제안을 내게 건넨 거고 나는 똑똑하니까 기민하게 알아챈 거다.

“아주 재밌지. 처형하기 전에 손가락을 잘라서 불태우거든. 피를 너무 흘려서 처형하기 전에 죽는 경우도 있대.”

나는 페스카인의 손가락을 다정하게 쓸어주었다.

“손가락이 참 예쁘던데, 안타깝게 됐네.”

페스카인은 긍정도 부정도 하기 어려운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는 일어서서 놈의 뒤로 가 손톱 끝으로 목을 쓸어 올리고 어깨를 짚었다.

“도대체 뭘 믿고 나랑 거래하려고 한 거야? 내가 마약을 한다는 단 하나? 어리니까 협박 조금만 하면 넘어올 줄 알았어? 똑똑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멍청하게 굴어.”

페스카인은 대범하게 어깨에 올려진 내 손에 자기 손을 겹쳤다. 놈의 손에 내 손이 다 덮였지만 눌린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가벼운 손길이었다.

“바로 알아채실 줄 몰랐지만, 오히려 잘 되었습니다. 서로 비밀 한 가지씩이니 공평하네요. 제 제안을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생각해보십시오.”

마약의 품질에 자신 있어서 내가 약을 한 뒤 또 달라고 매달릴 때를 기다리나 본데, 마약상들은 이래서 문제다. 중독자들만 대하다 보니 무조건 자기가 우위인 줄 안다. 나는 주머니를 뒤져 다시 약을 페스카인의 손에 올려주었다.

“근데 나 약 안 하는데. 필립이 잘못 가르쳐줬나 보다.”

페스카인의 어깨가 서서히 굳는 게 느껴졌다. 이번에도 여유롭게 웃고 있으려나. 표정이 궁금해져 의자에 다시 앉았다. 페스카인은 굳은 입매로 미소 짓고 있었다. 워낙 생김새가 날카로워 그렇게 웃으니 무슨 음계를 꾸미는 것 같았지만 당황에 젖은 눈동자가 갈 곳을 잃은 채 주르르 아래로 자기 손으로 향했다.

뭐야, 왜 점점 더 허술해지는 것 같지? 페스카인의 첫인상이 강렬해 주의 깊게 보지 않았지만 지금 보니 딱딱한 자세는 긴장해서 그런 것 같고 의뭉스럽게 웃는 건 그냥 단순한 습관인 것 같았다. 아까 장갑을 벗겼을 때 손이 땀으로 조금 축축했던 거 같기도 하고...쪽지 끝이 파르르 떨렸던 건 손을 떨어서 그런 거였나...

나는 첫인상을 지우고 페스카인을 다시 바라봤다. 태연함을 가장하고 있지만, 많이 긴장했는지 허리를 바짝 세우고 불편한 자세로 앉아있었다. 그 때문에 덩치가 더 커 보여 오히려 위압적으로 보였지만 어디까지나 겉모습만 그랬다. 내가 다시 검을 뽑아 들기라도 한다면 또다시 손을 달달 떨겠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을 욕했는데 나도 똑같이 그러고 있었군. 나는 맥이 풀려서 한숨을 내쉬며 이마를 짚었다.

“페스카인, 거짓말 아니야. 나 진짜로 약 안 해.”

“그럼...”

페스카인은 입을 떼려다 말고 침묵했다. 놈이 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계산을 위해 시간을 끈다 생각하겠지만 그냥 말문이 막혀 입을 다물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겠다.

나는 확인을 위해 일부러 표정을 굳히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인의 말 한마디를 듣고 나를 협박하려 들다니, 게다가 마약을 권유하기까지 했어. 데블랑에게 알리면 어떻게 될까? 네가 마약상인 것까지 말이야.”

나는 극적인 효과를 위해 걷어져 있던 창문의 커튼을 마법으로 다시 쳤다. 차례로 거친 소리를 내며 커튼이 빛을 가리고 어슴푸레한 비밀이 우리를 감쌌다. 나는 페스카인의 다리 사이에 드러난 의자 부분을 퍽 소리 나게 밟았다. 놈은 약간 움찔하며 하체를 뒤로 뺐다.

“네 잘난 제안이 뭐였는지부터 들어보자.”

페스카인이 한쪽 손이 미약하게 달달 떨리기 시작했다. 더 떠볼 것도 없이 확실해졌군. 저 정도 간으로 왜 내전을 일으키려는 왕가에 붙은 거지? 큰 규모의 상단은 어떻게 이끄는 거고? 아무리 봐도 이놈은 상인체질은 아니었다. 상인들은 대부분 느물거리고 속을 알 수 없어서 대하기 짜증 날 정도였는데 페스카인은 그럴듯하게 흉내만 내고 있을 뿐 이런 일에 익숙해 보이지 않았다. 좀처럼 대답할 기색을 보이지 않아 나는 발을 좀 더 내밀었다. 발끝에 무언가 살짝 닿았지만 당황한 페스카인이 의자 등받이를 짚고 일어나서 금방 그 느낌은 사라졌다.

“필립한테 내 성격에 대해선 듣지 못 했나 보지? 그 소문들이 제일 재밌던데 말이지.”

“...얘기해드릴 테니 발 좀 치워주시겠습니까?”

나는 씨익 웃으면서 발을 내렸다. 더러운 농담을 하고 싶지만 참아야겠지. 페스카인은 내 미소에서 뭔가를 느낀 건지 아예 의자에서 멀어졌다. 그러곤 잠깐 뜸을 들이다가 품에서 손바닥만 한 노트를 꺼내 무언가를 찾아 읽고 갑자기 여유로운 자세로 말했다.

“제 제안이 궁금하다는 걸 긍정적인 검토를 하시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그건 들어보고 내가 판단할 일이지.”

“그렇다면...”

페스카인은 말을 하다 말고 다시 노트를 꺼내 살펴보더니 노트를 집어넣고 이어 대답했다.

“단편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 불리해지고 싶지 않아서요.”

“그럼 네 제안이 너를 불리하게 만든다는 거군.”

페스카인은 표정을 굳힌 채 가만히 있다가 다시 노트를 꺼내 들었다. 무시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

“그거 뭐야?”

“그냥 제 일정표를 적어놓은 겁니다.”

“그걸 왜 지금 확인해?”

말문이 막힌 듯 페스카인은 나를 가만히 쳐다봤다.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입 닫으라고 협박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흉흉한 눈빛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헛손질해가며 급하게 노트를 품에 넣는 것을 봤다.

달라고 해봤자 곱게 주진 않을 것 같아 달려들어 단번에 엎어 쳤다. 덩치가 커 조금 묵직했지만 방심한 놈을 엎어 치는 건 쉬운 일이었다. 나는 페스카인의 팔을 꺾어 깔아뭉갠 뒤 품을 더듬어 노트를 꺼냈다. 안주머니에 손을 넣자마자 노트를 바로 찾았지만 의외로 가슴이 판판해 조금 더 더듬긴 했어도, 어쨌거나 내 행동은 빠르고 신속해 페스카인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페스카인이 내 밑에 깔려 나지막한 신음을 내는 동안 나는 빠르게 노트를 훑어보았다.

‘말을 하기 전 한 박자 쉬면 좀 더 진중한 느낌을 준다. 입은 웃지만, 눈은 웃지 않는 법을 연습해라. 상대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내 조건을 확실하게 말하지 않는다...’

이게 뭐야? 좋은 상인이 되는 법을 모아놓은 책 같은걸. 자필로 빼곡하게 쓴 노트를 뒤로 넘겨보자 회화책처럼 상대가 한 말에 올바른 대답까지 적혀 있었다.

페스카인이 일어나려고 꿈틀대기에 힘으로 누른다면 모를까 단순히 몸무게로 누르기엔 역부족이라 나는 얌전히 비켜줬다.

“필립이 말한 것처럼 정말 귀신같은 솜씨군요...”

“이건 뭐야? 되어보자 상인 초급편?”

페스카인은 한숨을 내쉬며 내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놈에게 노트를 건네주기 전에 한 번 더 훑어보았다. 페스카인이 운영하는 상단에 대한 것과 왕가에 합류해서 앞으로의 방향까지 적혀있어서 더 이상했다.

“그건... 페스카인의 노트입니다.”

자신을 삼인칭으로 부르기엔 너무 컸지 않나?

내 표정을 읽었는지 페스카인은 깔끔하게 넘긴 머리를 흩트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쌍둥이 형제의 노트란 뜻입니다. 쌍둥이는 이름을 똑같이 짓는 게 집안 전통이라서요.”

‘아직 귀족들은 모르지만, 어차피 숨기는 일도 아니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입을 뗀 페스카인의 이야기는 이랬다.

페스카인의 쌍둥이 형제 페스카인, 헷갈리니까 중간이름인 루카스로 부르겠다. 루카스는 재능을 타고나서 아버지의 상단을 물려받았다. 그에 비교해 페스카인은 상인 일에 재능이 없고 적성에도 안 맞았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해온 소소한 취미를 일로 삼고자 먼 길을 떠났다. 하지만 어느 날 급히 돌아오라는 연락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 보니 루카스는 죽어 장례를 치렀고 루카스가 벌여놓은 일은 산더미였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상단이 망하는 건 볼 수 없다고 간곡히 부탁과 협박을 하는 바람에 페스카인은 루카스의 자리를 떠맡게 됐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지라 루카스인 척하진 않았지만 서툰 모습을 보일 순 없어 능숙한 척 굴다 보니 전부 페스카인도 루카스처럼 피도 눈물도 없는 상인인줄 알게 되었다. 게다가 루카스가 죽었는지 모르는 사람은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인지 구분 못 해 어영부영 넘겨왔다는 것이다.

“전 사실 협박도 협상도 해본 적 없습니다...평생 좋은 요리사가 되는 게 꿈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손이 이래서야... 뭘 만들어도 마약을 넣은 듯 중독되는 맛이 아니라 진짜 마약을 넣은 음식이 되어버리잖습니까.”

페스카인은 울적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다. 제가 왜 이런 것까지 말했죠? 한번 말하다 보니 끝이 없네요. 하고 팔짱을 끼기에 나는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시베리안 허스키 같이 생겼다고 생각은 했었지만 축 처진 모습을 보니 머리에 귀가 달린 것 같아 슬쩍 만져 보느라 그랬다. 페스카인은 내가 머리를 쓰다듬어도 피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결국, 네가 마약을 만든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거잖아.”

“변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손재주가 좋은걸요... 손으로 하는 건 전부 다 잘합니다. 못하는 척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잘 만드는 걸 어떡합니까.”

그거참 뻔뻔하고 말이 되는 변명이네. 나는 페스카인이 처음 하고 있던 머리처럼 흐트러진 머리를 뒤로 넘겨보았다.

“얼굴은 진짜 1 벨도 안 깎아주게 생겼는데.”

페스카인은 눈을 휘며 웃었다.

“얼굴 덕을 크게 봤죠. 웃지만 않아도 다들 무서워하더라고요.”

“지금 웃을 상황이 아닌 건 알지? 약점을 잡으러 왔다가 약점만 잔뜩 잡혔는데.”

페스카인의 얼굴에서 웃음이 점점 사라졌다.

“저를 이용하실 생각입니까?”

솔직히 나는 페르디낭에서 한 자리 잡을 생각이 없다. 상단을 굴려 돈을 벌고 싶지도 않고 마약을 이용해 구정물 나오는 세계에서 한몫하고 싶은 생각도 없기에 페스카인은 이용가치가 없었다. 데블랑에게 페스카인 상단을 자세히 살펴보라는 얘기는 해둘 거지만 아예 쳐내라고 날뛸 만큼 페르디낭의 일에 의욕이 넘치지도 않았다.

하지만 굳이 잡은 약점을 내버려 두는 건 약점에 대한 도리가 아니었다. 약점도 일해야 생겨난 보람이 있을 것 아닌가.

“그래.”

페스카인은 또렷한 회색빛 눈동자로 나를 쳐다보기만 했다. 어떤 말에도 따르겠다는 의미로 보이기도 했고 어떤 말이든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보이기도 했다.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려 쓰다듬었다. 반죽하느라 다져진 근육인가, 손에 감겨오는 느낌이 마음에 들었다. 난 상냥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니까 좋은 요리사가 되고 싶다는 사람한테 꿈을 되찾아줄 수 있지.

“내 요리사로.”

의아한 빛을 띠는 페스카인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경고처럼 한마디 덧붙였다.

“시종은 이미 있으니까 하고 싶어도 안 돼.”

나는 실력 검사 차 페스카인이 구워준 쿠키의 마지막 조각을 입에 넣으며 일어섰다. 요리 실력이 시원치 않으면 네가 했던 얘기는 다 지어낸 거로 알고 목을 쳐버린다는 농담에 페스카인이 손을 덜덜 떨며 반죽을 치대 구워준 쿠키였다. 레스토랑의 분점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더니 정말이었는지 실력이 상당했다. 역시 협박과 윽박은 최고의 방법이다. 별 대가 없이 좋은 요리사를 구하다니. 페스카인은 내가 쿠키를 한 입 먹기 직전까지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다. 마약을 먹어도 상관없다고 아무 설명 없이 본론만 얘기한 바람에 내 말을 못 믿었기 때문이다. 쿠키가 너무 맛있어서 내가 입을 와앙 벌려 두 개쯤 집어먹어도 아무 이상 없자 놈은 감격한 표정으로 내가 먹는 걸 계속 구경했다. 아주 침착한 태도지만 목소리는 들뜬 걸 숨기지 못한 채 저녁까지 자기가 준비해도 되냐고 물어봐서 그냥 그러라고 했다.

쿠키를 먹는 동안 반지에 약한 마력을 흘렸음에도 그웬은 나타나지 않았다. 노예호출기라 불리는 물건으로 반지와 팔찌가 한 쌍인데 반지에 붓는 마력의 양에 따라 처음에는 진동, 약한 전기, 마지막엔 고통을 느낄 정도의 전기가 팔찌에 흐르게 된다. 과거엔 말을 안 듣는 노예에게 교육할 때도 쓰인 물건이었다. 나는 그웬의 기분을 생각해 노예라는 단어를 떼서 호출기라고 그웬에게 선물해주었다. 앞의 두 글자를 뗀다고 물건의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어찌 됐건.

가고 있다는 뜻으로 팔찌의 튀어나온 부분을 그웬이 눌렀다면 핑하는 맑은소리가 반지에서 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세 차례 약한 마력을 더 흘려보냈지만, 반지는 잠잠했고 그웬이 의도적으로 호출을 무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무리 자유시간을 줬다지만 내 시종이면서 너무 자유시간을 즐기는 거 아닌가. 자기 할 일 다 하고 한가한 시간에 내 시중을 들면 그게 시종인가, 부업이지.

쿠키를 먹는 데 우유를 갖다 줄 그웬과 다 먹은 쿠키 그릇을 치워줄 그웬이 없다는 건 큰 손해였다. 우유 없이 완벽한 쿠키를 다 먹었다는 사실에 분노를 담아 마력을 조금 더 반지에 흘려보냈다. 여전히 반지에선 아무 소리가 없었다.

좋아, 나를 무시한단 말이지.

나는 호출기에 걸려있는 추적마법을 따라갔다. 화장실이었으면 이해해주려고 했는데 그웬답게 연무장이었다.

뒷마당은 정원수가 뽑혀나간 바닥을 정돈하고 개인 물품을 둘 수 있는 테이블과 쉴 수 있도록 의자도 갖다 놓아 이제 제법 연무장 같은 느낌이 났다.

다들 원을 둥글게 만들어 무언가를 구경하고 있어 내가 연무장 한 편에 놓인 의자에 앉을 때까지 아무도 나를 보지 못했다. 원의 중앙에 서 있는 건 그웬과 조금 앳돼 보이는 소년이었다. 둘은 서로를 향해 검을 겨눈 채 대치하고 있었다. 대련 중독증 같은 건가, 왜 저래. 몇 번 검을 맞대고 그웬이 소년의 자세를 지적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검술 지도 중인 걸 깨달았다.

이게 그웬에게 얼만큼의 의미가 있는 일인인지는 몰라도 내 호출을 무시할 만큼 대단히 중요한 일은 아닌 것처럼 보였다. 미래의 페르디낭을 이끌어 갈 인재를 키우는 일에 시간을 투자할 바에야 쿠키와 함께 먹을 우유를 갖다 주는 일을 하는 게 더 보람찰 텐데, 내가 그 우유를 먹을 테니까.

나는 그늘 속에 앉아 반지에 마력을 흘려보았다. 남들은 보지 못했겠지만 그웬의 검 끝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발견했다. 그웬은 짜증 섞인 손길로 팔찌를 빼내려고 했지만 당연히 팔찌는 빠지지 않았다. 놈은 하던 일을 마저 진행하려는지 팔찌를 빼는 것을 포기하고 다음으로 지도받을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 그웬은 바람 때문에 흐트러진 머리를 넘기던 순간 나를 발견했다. 놈이 짓이기듯 욕을 중얼거리는 것이 들렸다. 그래, 사람이 갑자기 한순간 바뀔 리는 없지. 데블랑은 착하긴 해도 사람을 파악하는 재주는 없어 보였으니까.

요 며칠 비도 오지 않고 날씨가 맑은 덕에 바깥 공기는 제법 후끈해져 있었다. 비교적 기후 변화 없이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는 곳 치고 이례적인 날씨였다. 아직 맹렬히 내리쬐는 햇볕 아래서 그웬은 눈살을 찌푸리며 나를 못 본 척 고개를 돌렸다. 검술 지도를 위해 그웬은 다시 누군가와 검을 맞댔고 나는 강한 마력을 반지에 흘렸다.

갑자기 들이닥친 고통 때문인지 그웬의 자세가 무너졌다. 기사라고 용케 검을 놓치진 않았지만 당해봐서 아는데 그 고통은 갑자기 근육이 당길 때와 비슷해서 태연하게 넘기 어려울 만했다.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절로 악 소리가 나올 만큼 아팠다. 그웬이 갑자기 팔 한쪽을 잡고 비틀거리자 가르침을 받던 사람은 오히려 당황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 했다. 그웬은 아무것도 아니니 계속 진행하자고 검을 고쳐잡았다.

아무것도 아니긴, 계속 참겠다는 뜻인가?

나는 다리를 꼬고 앉아 마력을 흘릴 때마다 고통에 차서 굳어지는 그웬의 어깨를 바라봤다. 얇은 천 너머로 그의 어깨 근육이 뭉쳐졌다가 풀어지는 걸 구경하는 건 계속 봐도 재밌었다. 혼자 윗옷이 다 젖을 정도로 땀을 흘리는 그웬이 나를 가끔 노려보자 주변의 시선이 내게 모였다 흩어졌다. 나는 손을 들어 티 나게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그웬에게 웃어주었다. 그러게 왜 나를 무시해.

그웬은 놀라운 인내심으로 검술 지도를 할 동안 고통을 참아냈다. 목의 핏줄이 바짝 서긴 했지만 검은 항상 올바른 궤적을 그렸다.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그웬의 지도를 받는 기사가 다칠 수도 있는 상황에 계속 진행하는 건 고통을 참을 수 있다는 오만인지 시작한 일을 끝내야 한다는 책임감인지 알 수 없었다. 확실한 건 나를 무시하는 일을 미련하게 고집했다는 거다.

그웬은 마침내 마지막 지도를 끝내고 검을 집어넣으며 곧장 나에게 왔다. 시큼한 땀 냄새가 날 줄 알았는데 다행히 기운의 냄새가 더 강하게 났다. 꼭 새벽이슬이 맺힌 들판의 풀잎을 헤치며 달려온 것 같았다.

그웬은 잔뜩 화난 표정으로 숨을 거칠게 쉬다가 내 얼굴을 들여다보곤 한숨을 크게 내쉬면서 표정을 누그러트렸다.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시종이지 당신의 노예가 아닙니다.”

“아, 네가 시종인 건 기억하고 있었어? 아무리 불러도 안 오길래 까먹은 줄 알았어.”

“저는 시종이지만 동시에 기사단장이고 위원회의 일원이며 군수품과 전투훈련을 담당합니다. 대련에서 건 조건은 기억하지만 제가 맡은 일을 내팽개칠 수 없습니다.”

“그럼 애초에 대련하지 말았어야지. 대련했으면 지지 말든가.”

그웬은 대답할 말이 없는 듯 눈을 내리깔았다. 그의 턱을 타고 땀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해가 진 이후부터 아침나절까지 당신에게 충실하게 봉사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젖어서 반쯤 비치는 상의를 입은 몸 좋은 남자가 오해할 만한 말로 애원하는데 야한 상상을 하는 건 건강한 여성으로 당연한 일이었다. 나는 저절로 올라가는 입꼬리를 자꾸 아래로 내렸다.

“네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알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텐데...”

그웬이 고개를 들어서 나와 눈을 마주쳤다. 그늘에 그의 눈동자는 녹음이 짙어져 있었다. 파스스, 스쳐 가는 바람에 나뭇잎이 간지러운지 소리를 냈다.

“압니다. 제게 낮 동안 자유를 주신다면 밤에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페스카인이 준비한 저녁은 먹지 못했다. 내가 별다른 언질을 안 했고 따로 허가도 받지 못한 페스카인을 주방에 들여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페스카인은 별 것 아닌 듯 내게 그 사실을 전했지만 방에서 나가지 않고 자꾸 머뭇거려서 아쉬움이 많이 남은 티를 냈다. 오늘은 그러지 못 했지만 내일은 미리 말해둬서 꼭 그가 만든 저녁을 먹겠다고 약속하자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페스카인은 떠났다.

그웬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문을 돌아봤다.

“의외의 인맥을 가지고 계시군요.”

“그렇게 됐어.”

“신뢰할만한 자는 아닙니다.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탐욕스러운 사람이지요. 독을 탈 수도 있으니 그가 만드는 음식은 먹지 않는 게 좋아요.”

그웬은 침대를 정리하던 손길을 멈추고 의자에 앉은 나를 쳐다봤다.

“독은 통하지 않는다 하셨으니까 쓸데없는 말인가요.”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웬도 더 말을 붙이진 않았다. 조용한 방 안에 시트가 스치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신발을 벗고 그웬이 열심히 정리해둔 이불을 마구 흐트러트리며 안으로 파고들었다. 매일 가는 이불과 시트에선 좋은 냄새가 났다.하인들은 고생하겠지만. 하지만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냄새가 나는 게 저기 서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물러나 있는 그웬을 불렀다.

“침대로 들어와.”

그웬은 침묵을 유지하다 크게 숨을 들이켰다 내쉬었다. 드물게 경직된 표정이었다. 거의 소리가 나지 않는 발걸음으로 침대를 빙 둘러 옆으로 왔지만, 그는 침대를 처음 본 사람처럼 가만히 서 있었다.

“뭐해?”

“...이불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이불을 덮지 않고…?”

처음으로 그웬이 귀엽게 느껴졌다. 나는 피식 웃으면서 손가락을 까딱거렸다. 그웬은 소리없는 독촉에 조심스럽게 침대 한쪽에 엉덩이를 걸쳤다. 무게 때문에 침대가 기우는 것이 느껴졌다. 그웬은 얌전히 이불 속으로 들어왔다. 나는 한쪽 팔을 괸 채 그웬을 바라봤다. 인간 방향제를 침대에 두고 자주 잠을 청했기에 한 침대에 다른 사람과 누워있는 건 내게 익숙한 일이었다. 그웬은 그렇지 않았는지 신경을 곤두세운 채 굳어 있었다. 눈을 살짝 내리깔고 의미 없이 벽의 무늬만 쳐다보길래 고개를 부드럽게 내 쪽으로 돌렸더니 보석 같은 눈동자가 나를 향했다. 설익은 과일처럼, 눈동자에서 풋내가 가득 풍겼다. 언제 보아도 싱그러운 색이었다. 나는 손끝으로 그의 눈 주변과 눈꺼풀을 더듬었다. 조금 촉촉하고 연약한 피부가 느껴졌다. 손가락은 얼굴선을 타고 내려가 그의 입술 위에 닿았다. 다소 까칠했지만 말랑한 입술을 덧그리다가 나는 그웬의 입술 안쪽 여린 살을 손톱으로 살짝 긁었다. 그웬의 뜨거운 숨이 손가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이불 속을 더듬어 그웬의 손을 쉽게 찾아냈다. 손을 끌어다가 손목에 코를 박고 숨을 들이마셨다. 기운의 향기는 향수처럼 맥이 뛰는 곳에서 진하게 났다. 이슬비로 젖은 꽃밭을 헤쳐가며 맨발로 가로지르는 느낌이었다. 와작와작, 짓이겨진 꽃은 진한 풀냄새를 풍겼다. 무릎 아래가 꽃의 피로 흠뻑 젖을 때쯤 꽃밭은 어느 순간 잘 마른 천이 나부끼는 빨래터로 바뀌고, 나는 순백의 천에 휩싸였다.

그웬의 목을 감싸 안고 끌어당기자 그는 내가 끄는 대로 순순히 끌려왔다. 숨결이 서로의 코끝을 간지럽히는 거리가 되었을 때 그웬은 눈을 내리깔았다. 나는 가만히 입술을 맞대었다. 마른 입술은 부딪쳐도 닿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나는 욕심쟁이처럼 그의 아랫입술을 한껏 베어 물었다. 빗물에 젖은 꽃잎처럼 그웬의 입술이 벌어졌다. 미적지근하면서도 뜨거운 입속의 여린 살은 처음엔 아무 맛도 나지 않았지만, 서로의 숨을 주고받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뭉근한 단맛이 돌았다. 혀를 세워 여린입천장을 긁자 그웬이 잠깐 숨을 멈췄다가 뜨겁고 무거운 숨을 내뱉었다. 나는 입을 떼고 살짝 달아오른 그웬의 얼굴을 예술작품 보듯 감상했다. 성자 같은 얼굴에 세속적인 욕망이 스쳤다. 그를 화나게 하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짜릿했다.

나는 단단한 가슴팍에서 손가락이 사이에 들어갈 것같이 도드라진 복근을 따라 손을 아래로 미끄러트렸다. 그웬의 얼굴에서 욕망이 가시고 체념한 듯 담담한 얼굴을 했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보였다. 그는 자신의 일부분을 떼어 죽이고 있었다. 그웬에게서 과거의 내가 보였다. 나는 손을 거두었다.

내가 막상 밤이 되면 아무것도 못 할 것이라는 계산을 밑에 깐 채 건넨 제안이라 생각해 건방을 밟아주려고 했다. 분위기가 잡히면 놀라 뒤로 빼든가 길길이 날뛰던가, 의외로 응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물이 된 것처럼 처연하게 굴지는 몰랐다.

그 자존심 높던 그웬이 밤 시중을 들겠다고 몸을 바칠 정도로 페르디낭 일이 중요한가? 나도 나랏일에 애착을 가진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건국에 매달려 일궈낸 곳이었다. 궁전이 지어졌을 때 처음 가져보는 벅찬 감격은 아직도 기억난다. 하지만 그 이후로 수많은 국가와 얽혀 살았어도 단순히 내가 사는 곳이라고 발 벗고 나서 도와준 적은 없었다. 본인이 다스리는 나라도 아니고 전쟁 중도 아닌데 고작 몇 가지 일에 왜 이렇게까지 하지? 그웬의 충성을 이해할 수 없었다.

“페르디낭이 그렇게 중요해?”

그웬은 천천히 내게로 눈을 돌렸다.

“이상한 말을 하시는군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가 내 밤 시중을 들겠다 할 정도로 중요하냐고. 네가 하는 일들, 후임자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을 텐데... 네가 없을 때도 페이퍼트는 돌아갔던 걸 보면 너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잖아. 자유시간을 주지 않겠다 한 것도 아닌데, 빠질 수 없는 일에만 시간을 투자해도 충분하잖아.”

그웬은 침묵을 지켰다.

지금의 대화는 전제조건부터 잘못되어있었다. 대련의 조건은 꼭 지켜야 할 불가침의 영역으로 정해놓고 나온 대화였기 때문이다. 그웬의 시건방짐을 생각했을 때 맡은 일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법적 효력도 없는 대련의 조건은 내팽개쳐야 마땅했다. 그편이 몸을 파는 것보다 합리적이니까.

“아니지, 애초에 데블랑에게 부탁해 대련을 없었던 일로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권력이란 그렇게 쓰는 거잖아?”

“그 대련이 법적 효력이 없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겼다면 법적 효력과 관계없이 제조건을 당신에게 강요했겠죠. 그러니 저는 지킬 수밖에 없어요.”

정말 개미 간만큼의 우연으로 내가 졌다면 나는 지키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원래 사람은 모순된 생물이다. 나는 되지만 너는 안 돼 논리가 나쁘다는 것은 알지만 어쩌겠는가. 누구나 마음속에 있다는 양심의 돌은 이미 동글동글한 구슬이 되어버려서 내가 움직이는 대로 도르르 굴러가는데.

하지만 그웬이 어떤 마음인지는 알 것 같았다. 그웬 같은 사람은 신념이 강했다. 귀족적인 태도로 똘똘 뭉쳐지긴 했지만 쌓아온 가치관에 따라 제법 공정한 편이었다. 심판 대상이 본인이라고 해도 타협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웬은 엉터리 대련이라 할지라도 조건에 승복했고 본래 맡은 일을 책임감 없이 떠넘길 수 없어 결국 자신을 희생하기로 마음먹은 거다. 단순히 자존심 때문에 나를 무시하고 건방지게 굴었던 거라면 오늘 홀딱 벗겨 버릇을 고쳐놓으려고 했는데... 나는 한숨을 쉬며 몸을 뒤로 뺐다. 나는 그를 강제할 힘과 조건과 위치를 가졌고 그웬은 국가를 위해 원치 않는 희생을 하기로 했다. 지금 그에게 밤 시중을 들게 한다면 그건 강간이었다. 그럴 수는 없었다.

갑자기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그웬은 건방지지만 올곧았고 데블랑과 다른 페르디낭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제 위치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다들 자기 삶을 사느라 바쁜데 그걸 붙잡아두고 억지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설핏 들었다. 짜증 나게도 일부분은 사실이었다. 나는 약함을 드러내 보이는 것들과 삶을 치열하게 사는 자들에게 약했다. 언제나 그렇듯 이번에도 자비를 베풀기로 했다.

"됐어. 키스하는 것만 봐도 알겠어. 계속하다간 봉사를 받는 게 아니라 봉사를 하게 되겠군."

그웬이 곤혹스러운 듯 눈썹을 아래로 늘어트렸다.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

잠깐의 침묵이 이어졌다.

"이론적으로는..."

"그거 봐. 이런 애를 데리고 내가 뭘 해."

이런 애라는 단어에 그웬의 눈썹이 움찔거렸지만 결국 그는 죄인처럼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나는 그웬의 품으로 파고 들어가 얼굴을 묻었다. 아늑한 따스함이 몰려왔지만 그웬이 지나치게 몸을 긴장시키는 게 느껴졌다.

"내가 잠들 때까지 머리카락을 만져줘."

굳이 고개를 들어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웬의 표정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설탕으로 만들어진 실을 만지듯 아주 조심스럽게 머리를 쓰다듬는 손길이 느껴졌다.

누군가의 품에 안겨있는 건 안온한 평화로움을 내게 선사해줬다. 나를 보호해줄 것 같은 믿음. 아주 어릴 적 부모에게 안겨있던 기억이 그런 감상을 불러일으키는지도 몰랐다. 잠귀가 밝은데도 남의 품에서 오히려 잠이 잘 오는 건 그런 이유에서였다. 서로의 체온이 맞닿아있자 눈이 사르르 감겼다. 나는 코끝을 그의 옷깃에 비비며 좀 더 깊게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웬은 내가 편하게 누울 수 있도록 자세를 고쳐 안았다. 나는 그웬의 향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반쯤 웅얼거리는 말투로 말했다.

“나는 잠귀가 아주 밝으니까 적당히 하다가 도망칠 생각은 접는 게 좋을 거야.”

그웬은 낮은 목소리로 얌전히 대답했다. 그가 대답할 때 가슴께가 웅웅 울렸다. 그웬의 몸이 느슨하게 풀어질 때쯤 나는 잠에 빠져들었다. 부드러운 적막 속에 새벽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내 숨소리가 고르게 퍼져도 머리칼을 넘기는 손길을 멈추지 않았다. 다정하고 따스한 손길이었다.

오랜만에 성은 떠들썩해져 있었다.

옐츠란이 며칠 간의 연구 끝에 힘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지하인지 숲인지 어디에 처박혀서 연구만 하더니 결국 성공한 모양이었다. 어제는 그것을 축하하는 저녁 식사를 거창하게 했다. 나는 같이 먹지 않았지만, 새벽까지 이어진 술자리에 고래고래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내 방까지 들렸다.

옐츠란을 만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나는 그동안 방에 틀어박혀 책이나 읽었다. 페스카인이 있었다면 재밌었을 수도 있지만 페스카인은 며칠 전에 내게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꽤나 미안한 말투였다.

“기사단 측에서 급하게 요청한 물건이 있어 가지러 가야 해요.”

나는 읽던 책을 덮으며 웃었다.

“나한테 그런 걸 보고하러 올 필요는 없는데.”

“제가 없으면 식사는 어떻게...”

페스카인은 장갑 낀 손을 꼼질대다가 시무룩한 투로 “...알아서 잘 하시겠지요.” 하고 고개를 숙였다. 얼핏 보면 몇 명을 죽일까... 하고 고심하는 얼굴 같았지만 나는 페스카인의 표정을 읽어내는 데 익숙해져서 그게 그저 실망한 얼굴인 걸 알았다. 나는 페스카인을 달래기 위해 짐짓 궁금한 투로 물었다.

“네가 만든 미트 파이가 먹고 싶은데, 언제쯤 돌아오는 거야?”

미트 파이를 먹고 싶다는 말에 페스카인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예정에 없던 일이라, 4일은 지나야 할 것 같아요. 별로 급한 물건은 아닌 것 같은데 하도 재촉을 해서...”

페스카인은 계약에 관한 이야기와 여유 기간, 상인의 고충에 대해 말을 꺼냈지만, 상단에 관한 이야기를 구구절절 듣고 싶지 않아 나는 설명은 그쯤하고 그냥 가라고 했다. 페스카인은 조금 시무룩해져서 4일 뒤에 최고의 미트 파이를 만들어 바치겠다며 떠났다.

그웬과는 매일 밤에서 새벽까지 한 침대에서 잤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 그냥 그웬이 무슨 방법을 터득한 것인지 새벽 일찍 깨던 내가 아침까지 곤히 자게 됐다는 게 다른 점이었다. 그 덕에 요즘 기분이 매우 산뜻했다. 게다가 아침마다 그웬이 해주는 발 마사지는 거의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 들었다.

“레티시아 씨.”

생각에 빠져있던 나를 부르는 목소리를 듣고 결국 그 날이 오고 말았다는 걸 깨달았다.

데블랑이 내게 똑바로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마음의 짐을 푸는 일을 최대한 뒤로 미루는 안 좋은 습관이 있었다. 어차피 끝없이 이어지는 삶이었으므로 잘만 미룬다면 해결해야 할 때는 영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안 좋은 습관을 발휘해 데블랑이 고백을 암시한 이후로 나는 의도적으로 데블랑을 피해다녔다. 데블랑이 나를 만나려면 일부러 없는 틈을 내어 찾아와야하니 피해다니긴 쉬웠다.

하지만 미루는 것도 결국 오늘이 한계였나보다. 아무리 둘러봐도 도망칠 창문이 보이지 않아 미약하게 인상을 찌푸렸다. 데블랑은 조금 급한 걸음으로 다가와 내 옷깃을 붙잡았다.

“도망가지 말아 주세요. 아무것도 묻지 않겠습니다.”

나는 애처로움이 담긴 데블랑의 눈동자를 거부하지 못했다.

“도망갈 생각 없었어.”

데블랑은 고개를 끄덕이며 옷자락을 쥐고 있던 손에서 힘을 풀었다. 잠깐 우리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옐츠란의 연구실로 들어갔다.

오늘은 나와 옐츠란이 마탑에 가기로 한 날이었다. 옐츠란은 뭐가 그리 바쁜지 마력을 되찾은 이후로 머리 꽁무니조차 보지 못했다. 오늘의 약속도 하인을 통해 잡은 약속이었다. 어제 저녁 식사 자리엔 갔겠지만 내가 데블랑을 피하느라 가지 않았으므로 일주일 만에 보는 거였다.

건방지게도 옐츠란을 사람을 불러놓고 연구실에 없었다. 연구하느라 그동안 제대로 치우질 못했는지 바닥까지 온갖 책이며 종이가 널브러져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대충 발로 밀며 의자를 끌고 왔다.

“아, 감사합니다.”

데블랑을 맞은편 자리에 앉히고 나자 순식간에 적막이 낮게 깔렸다. 보통은 데블랑이 먼저 말을 걸어 대화가 진행됐는데,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는 말을 의식한 듯 데블랑은 입을 꾹 다물고 손가락만 만지작대고 있었다.

“너도 옐츠란이 부른 거야?”

“아, 아니요... 그게... 그러니까...”

데블랑은 어색하게 내 시선을 피하며 발끝으로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툭툭 건드렸다.

“오늘 마탑에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배웅을 할 생각이었어요.”

내가 요즘 너무 피해 다니니까 일부러 찾아온 건가. 하인들이 전한 말은 높은 사람의 귀에 들어가기 마련이니까 데블랑이 이야기를 들은 건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다. 신경 쓰이는 건 소년의 투명한 순정 쪽이었다. 데블랑의 귀 끝이 달아올라 있었다.

“데블랑.”

내가 이름을 부르자 데블랑은 고개를 들었다. 헤이즐넛 색 눈동자에 기대와 슬픔이 뒤섞여 담겨 있었다.

“그 날 하려다가 못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하지만 계속 모르는 거로 할게.”

데블랑이 입을 꾹 다물었다.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려고 했지만 귀여운 데블랑이 혼자 옆에서 희망을 품었다가 상처받고 지쳐서 도망치길 원하지 않았다. 첫사랑은 달콤한 만큼 강렬해서 금방 타버릴 테니 장작을 넣어주지 못할 거라면 애초에 끊어버리는 게 나았다. 나는 착하고 상냥한 데블랑을 오래 보고 싶었다.

“네가 싫은 건 아닌데, 그냥... 넌 아직 어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데블랑은 외관상 자기 또래거나 더 어려 보이는 내 모습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맑은 눈동자가 가라앉는 게 보여 양심의 가책이 조금 느껴졌다. 나는 일어서 꽃잎 색의 데블랑의 고운 머리칼을 쓰다듬었다.

게다가 나는 연애를 한 지 너무 오래되어 어떻게 연애를 시작하는지 가물가물했다. 어린 귀염둥이로만 생각하는 데블랑이 고백했다고 만나면 그게 연애인가? 연애는 서로 좋아야 시작하는 거지... 아냐, 그냥 서로 좋다고 하면 그날부터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거였나? 애초에 연애를 시작하겠다고 정해놓던가?

내가 기억을 떠올리느라 손을 멈춘 사이 데블랑은 내 손을 잡아끌어 손등에 입 맞췄다. 그는 내 손을 꽉 쥐지도 못한 채 거의 손가락을 얹고만 있었다.

“어설픈 감정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레티시아 씨께 어울리는 사람이 된다면 그때 못다 한 말을 하겠습니다.”

데블랑은 서글픈 듯 웃었다.

“무례는 아니겠지요?”

그 미소를 보고 데블랑이 어떤 어른으로 자랄지 어렴풋이 짐작 갔다. 데블랑의 단정한 이마에 내려온 앞머리를 넘겨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미소 짓는 데블랑을 어떻게 거절할까. 난 도의적으로 거절의 뜻을 밝혔어. 계속 혼자 짝사랑하든 말든 이제 데블랑 문제야.

“근데, 어디서 맛있는 냄새 안 나?”

나는 코를 킁킁대며 의자에 앉았다. 데블랑은 잠깐 냄새를 맡아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잘 모르겠는데요... 책 냄새는 나는 것 같은데.”

연구실에 들어올 때부터 계속 달콤하면서 맛있는 냄새가 공기 중에 떠돌고 있었다. 어디서 쿠키를 굽나... 쿠키 냄새라기엔 좀 더 복잡하고 근사한 냄새였다. 나는 연구실을 돌아다니며 어떤 음식이 숨겨져 있는지 뒤지기 시작했다. 이 정도의 냄새라면 정말 끝내주는 음식일 텐데, 옐츠란 혼자 먹으려고 숨겨뒀나... 왜 안 보이지.

“왜 남의 연구실을 뒤지고 그래.”

나는 열었던 서랍을 닫으며 고개를 들었다. 옐츠란이 눈살을 찌푸리며 연구실로 들어오는 순간, 정체를 알 수 없는 맛있는 냄새가 훅 풍겼다. 잘 익은 과일에 코를 박고 맡았을 때 나는 냄새 같기도 했고 초콜릿의 쌉싸름한 냄새 같기도 했고, 막 구운 쿠키 냄새 같기도 했다. 어느 쪽이든 군침이 도는 냄새였다. 나는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 왜 이런 냄새가 옐츠란에게서 나는지 살펴보았다.

“데블랑? 여기 있을 줄 몰랐는데. 어쩐지 리덱경이 네가 어디 있는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옐츠란이 비어있는 의자에 풀썩 앉는 순간, 맛있는 냄새는 다시 코를 자극했다. 나는 침을 꼴깍 삼키면서 옐츠란에게 다가갔다.

“마탑에 간다길래 배웅하러 왔어.”

“금방 갔다 올 건데 뭐.”

“그래도...”

“아무튼, 고마워.”

나는 옐츠란의 팔을 낚아채 데블랑의 코 앞에 들이밀었다. 둘 다 눈이 동그래져서 나를 쳐다봤다.

“맡아봐.”

“네?”

내가 강요하듯 옷까지 걷어 옐츠란의 팔을 들이밀자 데블랑은 어색한 표정으로 냄새를 맡았다. 옐츠란은 질색하며 내게서 팔을 빼냈다.

“뭐 하는 거야.”

언제나 그렇듯 옐츠란의 말은 내게 잡음일 뿐이었다. 나는 가볍게 무시하며 데블랑에게 물었다.

“무슨 냄새 안 나?”

“아무 냄새 안 나던데요...”

옐츠란은 내 말을 듣고 조금 심각해져 킁킁거리며 자기 냄새를 맡았다.

“나한테서 냄새나? 아침에 씻었는데...”

나는 옐츠란의 팔을 끌어 팔뚝의 냄새를 맡아보았다. 입안에 군침이 가득 돌아서 한 입 베어 물고 싶을 정도였다. 이 냄새를 나만 맡는다는 건 결국 옐츠란이 가진 기운의 향기라는 뜻이었다. 사람한테서 맛있는 냄새가 날 수 있나... 그웬처럼 포근한 향이나 진한 꽃향기, 과일 향기까진 맡아봤어도 맛있는 디저트 같은 냄새가 나는 사람은 처음 봤다. 술식을 짜는 솜씨만큼 마법에 대한 재능도 상당했는지 쌓아놓은 마나의 양이 꽤나 많았다. 이정도의 기운이 뭉쳐있으니 맛있는 냄새를 풀풀 풍길 수밖에. 내가 너무 강렬하게 팔뚝을 쳐다봤는지 옐츠란과 데블랑의 표정이 이상해졌다.

“왜 내 팔을 그렇게 봐…? 깨물고 싶어 하는 표정인데…?”

나는 예의를 아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의 팔을 덥석 물 수는 없었다. 하지만 옐츠란이 굳이 입 밖으로 소리 내 물어봤다는 건 기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기대하고 있는 사람을 실망 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나는 옐츠란의 팔을 덥석 물었다. 잘 익은 사과를 깨물었을 때처럼 새콤하고 단 과즙이 터지거나 따뜻한 파이 속의 초콜릿이 흘러나올 것 같았는데 실망스럽게도, 그리고 당연하게도 별 맛이 나지 않았다. 옐츠란은 기겁하며 일어서서 팔을 박박 닦았다.

“뭐야! 배고프면 음식을 달라고 해! 왜 사람을 물어!”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안 할게.”

마력은 그냥 향기에만 영향을 주는 모양이었다. 아니지, 피가 나올 정도로 깨물면 좀 다를지도…? 내가 하는 생각을 알아챈 것인지 옐츠란은 황급히 옷을 내려 팔뚝을 숨겼다. 내가 아쉬운 표정으로 눈길을 돌리자 데블랑이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제 팔뚝도 필요하신가요…?”

귀여운 것. 내가 웃으면서 데블랑의 볼을 아프지 않게 꼬집자 옐츠란이 왕자님을 그렇게 대하지 말아줄래? 하고 투덜댔다.

“너는 가끔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 그리고 자주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매일 정신 나간 행동을 하지. 전형적인 마법사야.”

옐츠란은 정강이 세 대쯤 걷어차이고 거의 무릎 꿇을 기세로 사과했다. 나는 그 사과를 바로 받아 주지 않고 옐츠란을 창문 밖으로 날려 거꾸로 탈탈 털어주고 나서야 마음을 좀 풀었다.

멀미를 겨우 가라앉히고 배가 고파서 신경이 날카로워진 것 같으니 이른 점심을 먹고 가자는 권유를 몇 번 거절한 뒤에야 옐츠란은 마탑으로 가는 문을 열었다. 목에 걸고 있던 작은 수정을 쥐고 몇 마디의 시동어를 읊자 고풍스러운 문이 바닥에서 올라왔다. 나무결을 살려 짙게 칠을 한 문에는 아름다운 금색 문양이 조각되어 있었다. 손으로 쓸어보니 섬세하게 새겨진 나뭇가지가 하나하나 다 느껴졌다. 실체가 느껴지는 환상 마법이라, 폐쇄적인 마법사 집단다운 취향이었다.

“정말 배 안 고파?”

옐츠란은 문을 열기 전 한 번 더 나에게 물어보았다. 내가 아무 대답하지 않고 쳐다보자 혼자 찔린 모양인지 안 물어볼게... 하고 시선을 돌렸다. 데블랑은 옅은 미소를 띠며 손을 흔들었다.

“잘 다녀오세요. 돌아오면 바로 드실 수 있게 점심을 준비해둘게요.”

옐츠란이 문을 열자 낯선 복도가 보였다. 옐츠란은 익숙하게 모르는 풍경으로 들어갔고 나는 풍경 안으로 들어서며 마지막으로 데블랑을 돌아보았다. 데블랑은 그림처럼 문 너머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곧 문은 닫히고 순식간에 페이퍼트 성의 사람들이 내는 작은 소음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다. 살아있는 생물체가 없는 것처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마탑에 들어 온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했지만, 전혀 소름 끼치지 않았다. 마탑 안은 마나가 풍족하게 차 있어 물속에서 걷다가 물 밖으로 나와 뛰는 처럼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다. 마도 시대 이후로 이런 느낌은 오랜만이었다. 옐츠란도 같은 기분을 느끼는지 표정이 부드럽게 풀어져 있었다.

우리가 나왔던 문을 다시 열어보니 그곳엔 옐츠란의 연구실이 아닌 처음 보는 방이 있었다.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된 듯 조금 퀴퀴한 먼지 냄새가 났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구나.”

“그래, 신기하지? 하지만 넋을 빼놓고 구경하다가는 금방 길을 잃을 테니까 나만 잘 따라와. 마탑은 미로처럼 되어있는 데다가 여기 사는 마법사들의 편의에 따라 매번 길이 바뀐다고. 처음 오는 사람들은 갇힐 수도 있어.”

복도는 따스한 톤의 나무 바닥으로 되어있었다. 반질반질 윤이 나서 신발을 신고 다니기 미안할 정도였다. 여덟 명 정도가 팔짱을 끼고 걸어도 남을 정도로 널찍한 복도는 드문드문 아름다운 곡선을 가진 기둥이 천장을 받치고 있었다. 가끔은 기둥이 아니라 빛이 쏟아져 내리는 나무이기도 했다. 그 나무 아래를 지날 때면 빛이 눈처럼 어깨에 소복소복 쌓였다가 녹아 사라졌다.

한쪽 벽엔 커다란 창문이 끝도 없이 이어졌는데 풍경이 뒤죽박죽 섞여서 현실감이 없었다. 걸음을 뗄 때마다 푸른 새싹이 돋아난 여름의 숲속이었다가 눈 내리는 호숫가였다가 동굴 속이 되었다. 옐츠란은 푸른 회색기가 도는 기둥 앞에 멈춰서 발을 두 번 굴렀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뭐지? 여기 맞는데?”

옐츠란은 당황한 표정으로 다시 발을 두 번 굴렀지만, 이번에도 사방은 잠잠했다. 그는 초조한 얼굴로 기둥을 한 바퀴 돌고는 내 어깨를 짚었다.

“방으로 가는 계단이 내려오질 않아서 물어보러 가야겠어. 잠깐 갔다 올 건데 여기 가만히 있어야 해. 절대, 절대로 움직이면 안 돼. 잠깐 둘러보고 다시 와야지는 불가능해. 길을 잃을 테니까. 알겠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온순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도 옐츠란은 의심스러운 얼굴로 내 눈을 쳐다봤다.

“진짜 잠깐이니까 얌전히 기다려줘.”

옐츠란은 복도에 불규칙적으로 나 있는 문 중 하나를 열어 들어가 버렸다. 문 너머에는 빛이 쏟아지고 있어서 다른 곳으로 이어져 있구나 어렴풋이 짐작됐다.

나는 미궁 수준의 던전을 만들어 내 집으로 쓰는 사람이었다. 그저 신기해 보이는 마탑도 조금만 자세히 본다면 규칙성을 알 수 있었다. 옐츠란은 길을 잃는다고 얘기했지만 그건 나를 모르고 하는 소리였다. 원리만 파악한다면 나는 마탑의 어디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아주 잠깐 갔다 온다고 했으니까, 나도 아주 잠깐 구경하지 뭐. 옐츠란이 몇 번 당부했다고 해서 내가 지킬 이유는 없으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길을 잃었다.

몇 번 보다 보니 마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강 마나 구조는 파악했다.

바닥에서 의자를 소환해내거나 나무에서 꽃이 피게 하거나 심지어 번개도 내릴 수 있었지만, 여전히 길은 알 수 없었다. 나처럼 주변 환경에 무심한 사람은 아무리 통찰력이 뛰어나도 길 찾기에 서툴 수밖에 없었다. 그건 절대 내 잘못이 아니었다.

배가 고프지 않다고 옐츠란에게 몇 번이고 말한 것과 다르게 갑자기 고기를 두툼하게 끼운 샌드위치가 생각나서 먹을 만한 장소를 찾아본 게 문제였다.

창밖으로 마침 소풍하기 딱 좋은 언덕이 보였고 바깥 날씨도 화창했다. 창문을 열어보니 기분 좋은 바람도 솔솔 불고 있어서 나는 나무 그늘 밑이 점심을 먹기에 제격이라 생각했다. 창 하나의 크기가 내 상반신보다 컸기에 바깥으로 나가기도 수월했다. 안전하게 잔디 위에 착지해 뒤를 돌아봤을 때 내가 나온 창문은커녕 건물의 외벽조차 보이지 않을 줄 누가 알 수 있었을까.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 어쩌겠는가. 나는 일어난 일에 대해 걱정하기보다 태연자약하게 미리 봐뒀던 나무 그늘로 가 손수건을 깔고 샌드위치 두 개를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서 나는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을 따라 걸었다. 구름은 현실과 다르게 솜사탕을 대신 띄워놓은 듯 여러 가지 색을 가지고 있었다. 하늘이 끝날 때까지 달리다 보면 세상의 끝에서 거인이 완벽한 솜사탕을 만들려다가 실패해서 계속 실패작을 하늘에 날리고 있을 것 같았다. 고운 잔디는 밟고 지나가도 곧 소록소록 올라왔다. 공기 중엔 어슴푸레한 빛의 입자가 떠다녔고 나무들은 통일성을 잃어버린 듯 산호초보다 찬란한 이파리 색을 뽐냈다. 한편으로 흐르는 강물의 색은 하늘과 잔디를 칠한 붓을 헹군 것처럼 뿌연 비리디안 빛이었다.

낙원이 있다면 이런 곳일까.

마도 시대가 종말을 맞이할 때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이곳은 분쟁지역이었다.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많은 피가 흘렀지만 직접 보니 이해가 갔다. 마나가 풍족한 땅 위에 세워진 마탑은 아직도 아름답고 찬란한 그 시대에 머물러 있었다.

나는 걷다가 현실감 없이 덩그러니 놓여있는 문을 발견했다. 마탑으로 넘어올 때 봤던 그 문이었다. 아름다운 금빛 문양을 가진 문은 꽃밭 한가운데 뜬금없이 세워져 있었다. 미적 감각 없는 놈들 같으니라고. 잘 꾸며놓고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나는 인상을 찌푸리며 문을 열었다.

문을 열자마자 옐츠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문 너머는 또 다른 곳이었다.

나는 텅 빈 로비에 덩그러니 서 있게 되었다.

샹들리에 모양을 한 마법등이 떠 있고 바닥은 아름다운 무늬를 가진 반질반질한 돌바닥에 그림들이 벽을 따라 쭉 걸려있는 곳이었다. 살롱 같은 덴가.

아치형의 통로와 기둥들이 즐비해서 나는 어디로 나가야 할지 잠깐 망설이는데 저 멀리서 말소리가 들렸다. 귀 기울여보니 말하는 목소리는 하나뿐이었지만 인기척은 여럿이었다. 나는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림뿐만 아니라 대리석으로 만든 흉상이나 술식을 적은 양피지, 유리에 금으로 새겨놓은 마법진 같은 것이 실드 안에 전시되어 있었다. 샬롱이 아니라 박물관인가. 나는 마도 시대 유물이라고 적힌 물건 앞에 잠깐 멈춰섰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들에게 마나를 다루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보조도구였다. 비유하자면 글씨 교정기 같은 정말 별거 아닌 물건이었다.

그 시대의 아이들은 모두 마나 친화력을 타고났기 때문에 뒤집기를 할 때쯤 마법으로 바람을 일으킬 줄 알았다. 이런 것도 여기서 보관하고 있다니. 쓸데없다는 생각과 동시에 이 앞에서 코 박고 마도 시대 유물들을 구경하고 있을 옐츠란이 떠올라 슬쩍 웃음이 나왔다. 그놈이라면 분명 그러고도 남았을 터였다. 주머니를 뒤져보면 이런 것쯤은 나올 텐데 나중에 옐츠란한테 하나 줘볼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졌다.

고장 난 것처럼 버벅대려나 눈물을 줄줄 흘리려나 신나서 웃으려나... 그러고 보니 옐츠란의 웃는 얼굴을 본 적이 있던가? 놈이 잘생긴 건 알았지만 평소 어떤 표정을 하는지 관심이 없어 기억이 흐릿했다.

소리 죽여 움직였기에 내가 공간 안에 들어온 걸 알아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가 앞에 서서 허공에 금으로 그린 듯한 마법진을 보며 설명하고 열댓 명쯤 되는 데블랑 또래 아이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아이들 뒤에 서서 일단 설명을 듣는 척했다. 금빛 마법진이 남자의 말에 따라 형태를 바꿔 새로운 마법진을 그려냈다. 부가적으로 동물의 형태나 식물의 형태로 바뀌기도 했다. 하지만 남자가 설명하는 내용은 내가 다 아는 거라서 지루하기만 했다. 남자가 설명하는 중간에 ‘아카데미에서 배웠겠지만’, ‘오늘 견학은’ 같은 말을 했기에 나는 남자가 마탑의 마법사이고 아이들은 마탑을 견학 온 아카데미 학생이라는 걸 알아챘다. 견학 중에 미안하지만 나는 이제 길이 어딘지 물어봐야겠다. 더는 지루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었다.

“이 마법진은 옐츠란 페이퍼트가 고안한 마법진이죠. 기존에 있던 소토의 중력마법진에 마도어를 접목해 시전자의 부담을 덜어주었어요. 이 뒤로도 옐츠란씨의 업적이 더 나올 텐데, 혹시 옐츠란 페이퍼트가 누군지 모르는 학생?”

아니다. 조금만 더 듣자.

마탑에서 마도라이짓만 한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옐츠란을 모르는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 그럼 내가 손을 들지 뭐. 나는 멍청한 옐츠란은 알지만, 업적이라고 부를만한 거창한 일을 한 옐츠란은 모르니까.

내가 손을 들자 남자가 나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음... 학생은 계속 같이 다녔던 거 맞나요? 왜 낯선 얼굴 같지.”

뒤를 돌아보는 학생들도 나를 보곤 당황한 표정이었다.

나는 별 대답 없이 이때껏 나를 못 봤냐는 듯 천연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학생 한 명이 옆에 선 친구에게 누구지? 하고 속삭였지만 남자는 듣지 못했다.

“옐츠란 페이퍼트가 누군지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최연소로 마탑에 들어와 교과과정에 실릴 만큼 훌륭한 발견을 많이 한 마법사죠. 특히 마도 시대에 관한 연구를 많이 진행했는데, 마도어 해석에 공로가 큽니다. 마도어 초읽기의 저자이기도 하죠. 선택 과목으로 배우나요? 아, 필수 과목이 되었나요? 음, 그는 술식 구성에도 뛰어나서 선형 술식에서 요구하는 대칭의 가변성을 논리적 추론하는 방법을 입증했습니다. 현재도 마탑 소속으로 활동 중이며 지금 보이는 술식은 그의...”

옐츠란 열심히 살았네... 나는 끝도 없이 이어지는 옐츠란에 대한 설명에 표정관리를 하기 힘들었다. 설명만 들으면 위대한 천재 마법사에 마탑에서 밀어주는 인재 같은데 옐츠란이 마탑을 나오기로 한 이유가 말도 안 됐기 때문이다. 그웬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옐츠란은 그저 마도시대의 재림을 꿈꾸며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마법 도시를 세우는 데 공헌하고 싶을 뿐이었다. 고작 그런 이유로 대단하다는 마도 시대 유물의 존재 여부도 모른 채 안정적인 자리를 포기한 거다. 아직 물 밑 작업 중이라 옐츠란은 마탑을 드나들 수 있었지만 내전이 터지고 거기 옐츠란이 끼어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바로 자격 박탈이었다. 평생의 노고가 한순간에 날아가게 된다.

내 앞쪽에 서 있던 학생이 입을 가리고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옐츠란님은 제자를 들이지 않는 걸까. 지나가다가 마주쳤으면 좋겠다. 물어라도 보게.”

“아직 제자를 들일만 한 나이는 아니지 않아? 전에 아카데미에 잠깐 왔을 때 봤는데 엄청 젊던데. 그리고 엄청 잘생겼어.”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크게 안 날 때 제자로 들어가야지. 사실 잘생겼다는 소문만 들었지만. 얼마큼 잘생겼어?”

“일단 그게 얼굴이면 우리 반 남자애들은 쿠키 반죽이야.”

“그 정도야?”

“거기 조용!”

남자의 지적에 점점 목소리가 커지던 학생 둘은 입을 다물었다. 남자가 얼추 설명을 다 끝낸 모양인지 허공에 떠다니던 금빛 가루가 사르르 공기 중에 녹아들었다.

“질문 있는 학생 있나요?”

나만 지루함을 느낀 게 아닌지 질문하겠다고 손을 드는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 다들 다음 전시장으로 넘어가길 고대하는 느낌이었다. 이제 길을 물어봐도 되겠군. 나는 한 발짝 앞으로 나갔다. 남자가 내 질문을 기다리듯 눈썹을 들썩거렸다.

“옐츠란의 방으로 가야 하는데.”

남자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는 어휴 또 야. 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는 듯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개인 연구실이 어딘지는 알려 드릴 수 없습니다. 지나가다 존경하는 마법사를 만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자리를 무단이탈하는 학생이 매년 나오던데, 마탑은 매우 넓어 우연히 마주칠 확률은 극히 드물고 길을 잃을 확률만 매우 높습니다. 헛된 희망 품지 말고 잘 따라서 오세요.”

“난 이미 길을 잃었어.”

남자는 내 말에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도대체 왜 다들 나랑 대화만 하면 저 표정이지? 요점은 정확히 말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죠?”

전시장에 잠깐 침묵이 감돌았다. 아까 전부터 남자의 가까이 서 있던 학생 하나가 어색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기... 쿤 포세님... 저 사람은 아카데미 학생이 아닌 것 같은데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쿤 포세라는 이상한 이름을 가진 남자는 깜짝 놀라며 내게 물었다.

“누구시죠?”

학생들이 다시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봤다. 아까 친구에게 누구지? 라고 속삭였던 학생이 거 봐, 모르는 사람 맞잖아. 하고 다시 친구에게 속삭였다.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다. 여기서 레티시아라고 대답하면 안 되겠지? 이름을 물은 건 아닐 테니까. 내가 뭐라 대답할지 고민하는 사이 허공에서 손이 쑤욱 나타나서 내 어깨를 짚었다.

“찾았다.”

곧이어 완전히 기진맥진한 얼굴의 옐츠란이 모습을 드러냈다.

“내가 가만히 있으랬지? 찾으라고 얼마나 고생을... 왁! 뭐야! 지금 내 손목 자르려고 한 거야?”

“그렇게 불쑥 다가오니까 그렇지.”

나는 싱겁게 마법을 해제했다. 갑자기 다가오는 기척에 예민한 편이라 옐츠란의 맛있는 냄새를 맡지 못했다면 진작에 그의 손은 바닥에 구르고 있었을 것이다. 옐츠란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투덜거리려다가 주변의 상황을 파악했다.

“어...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눈을 동그랗게 뜬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자 옐츠란은 당황한 듯 몸을 바로 세웠다. 옐츠란님이다 누가 그렇게 속삭였다. 동요가 퍼지며 학생들은 한결 더 열렬한 표정으로 쳐다봤다.

“옐츠란씨의 손님인가 보죠?”

“아, 네. 제 손님입니다. 오늘이 견학 날인가 보네요.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옐츠란과 쿤 포세가 이러저러한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 학생들은 입을 가리고 자기네들끼리 속닥거렸다.

우리 형 나이쯤 돼 보이는데... 엄청 젊네.

와... 미쳤다. 진짜 잘생겼네.

우린 저 나이에 뭐 하고 있을까? 마탑에 소속될 수 있으려나?

저 여자애는 누구지? 제자인가? 제자를 들이시냐고 지금 물어볼까?

제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아는 사람 아냐?

속닥거리는 목소리들이 이리저리 섞이자 웅성거리는 소음이 되었다. 쿤 포세와 대화를 끝마치고 옐츠란은 학생들에게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다.

“다들 유익한 시간 되세요.”

내가 참지 못하고 바람 새는 소리를 내며 웃자 옐츠란은 내 팔을 톡톡 건드리고 나지막이 “이번에는 잘 따라와.” 하고 경고했다. 나는 종을 부리듯 손등으로 그의 팔을 툭툭 쳤다.

“안내해.”

옐츠란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표정이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전히 학생들은 우리를 주시하고 있었고 속닥거리는 소리는 계속 들렸다. 나는 먼저 발을 떼는 옐츠란을 따라 몇 걸음 걸었지만 이곳에는 내 눈길을 사로잡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가령 저 그림이라던가. 되게 잘 그렸네. 움직이는 건가? 천이 휘날리는 거 같네.

그림을 구경하느라 발걸음이 느려지자 앞서가던 옐츠란은 빠른 걸음으로 다시 돌아와 내 손을 잡고 깍지를 꼈다.

뒤에서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려보니 깜짝 놀란 표정을 한 학생 몇 명과 눈이 마주쳤다.

“한눈판 사이에 자꾸 없어지니까 안 되겠어. 이래야 안 도망가지.”

“난 도망간 적 없어.”

“지금 너랑 말다툼할 힘도 없어. 마탑에선 탐색 마법이 안 되니까 일일이 다 뒤져야 했다고. 진짜 겨우 찾은 거야. 길을 잃었으면 한 자리에 있어야지 자꾸 돌아다니면 어떡해?”

옐츠란은 잡은 손을 놓지 않고 걷는 속도를 조절해 나와 나란히 걸으면서도 거침없이 문을 벌컥벌컥 열었다. 맨땅에서도 발을 헛디디는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확고한 걸음걸이였다. 자기가 자란 곳이라는 건가.

주변 환경이 휙휙 바뀌어서 눈앞에 대고 누를 때마다 필름이 넘어가 다른 장면이 보이는 장난감 속에 들어온 것 같았다.

“걷다 보면 언젠가 만났겠지 뭐. 늙어 죽는 건 너지. 내가 아니잖아.”

“내가 늙어 죽으면 너도 늙어 죽거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날 죽을 사람 취급이야.”

“글쎄, 늙어 죽을 때 되면 알려 줄게.”

진실을 말했는데도 옐츠란은 얼토당토않은 시비로 치부하며 넘겼다.

다시 하나의 문을 넘자 끝이 없을 것만 같은 어두운 복도가 나타났다. 마법등이 아니라 기름등이 복도를 밝히고 있어 공기 중엔 눅진한 기름 타는 냄새가 났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복도를 줄곧 걸었다. 옐츠란이 마탑의 마법사들은 걷는 대신 줄곧 날아다닌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이제 알겠다. 마탑은 지나치게 넓었다.

옐츠란의 손이 거의 내 손을 감싸듯 덮고 있었다. 우리가 걸을 때마다 깍지 낀 손이 달랑달랑 흔들렸다. 미지근한 온기와 바싹 마른 손바닥, 펜을 잡는 손가락에 박힌 굳은살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옐츠란은 걸음을 멈추더니 눈 한쪽을 살짝 찡긋거렸다. 조금 민망해하는 표정이었다.

“역시 손잡는 건 좀 그렇지?”

옐츠란은 손을 거의 놓을 듯 느슨하게 힘을 풀었다. 계속 잡아야 할지 말지 고민하는 태도였다. 내가 손가락을 움직이자 지레 찔렸는지 내 손을 놓았다.

“미안해. 내가 너무 지나쳤네. 네가 없어졌을 때 내가 얼마나 걱정을...”

옐츠란은 말을 하다 말고 잠깐 침묵을 유지했다.

“마탑에는 정말...미친 사람들이 많아. 그런 사람들이 네가 초월자라는 걸 알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너를 잡으려고 했을 거야. 머릿속에 자꾸 최악의 상황만 떠오르더라.”

그의 눈동자가 가라앉아있었다. 옐츠란은 인정하기 싫은 태도였지만 숨기지 못한 걱정이 얼굴에 고스란히 묻어났다. 불빛이 흔들릴 때 얼굴에 드리운 음영도 흔들렸다.

“손잡기 싫다면 한눈팔지 말고 잘 따라와야 해. 빨리 짐을 정리해서 성으로 돌아가자.”

드디어 길고 길었던 복도가 끝나고 꺾는 길이 나왔다. 나는 그동안 얌전히 옐츠란의 등만 보며 걸었다. 걱정하는 사람을 대놓고 무시하기엔 양심이 찔렸기 때문이다. 세상을 살기엔 내가 너무 착한 게 아닐까?

막 모서리를 보는데 어디서 쨍그랑하는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보니 새가 우는 소리였다. 새는 신기하고 우습게도 유리 깨지는 소리를 내며 울고 있었다. 마법사가 만든 생명체라면 정말 악취미다. 유리 깨지는 소리를 내는 새라니.

다시 고개를 돌렸을 땐 그곳에 아무도 없었다. 아니, 잠깐 한눈판 사이에 사라지다니 재주도 좋지. 이러니까 내가 길을 잃는 거다.

하필이면 문이 두 개여서 나는 잠깐 고민에 빠졌다. 옐츠란의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이미 문을 건너간 뒤라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두 개의 문은 똑같이 생겼지만 하나는 살짝 열렸다는 점이 달랐다.

굳게 닫힌 문과 살짝 열린 문.

문이 닫히는 소리는 듣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열린 문이겠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제대로 짚은 듯 마법사의 연구실처럼 보이는 방에 드디어 나타났다.

이곳의 시간은 오후에 가까운지 기력을 잃은 태양의 불그스레한 빛이 사방을 훑어내리고 있었다. 방이 아니라 집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안은 넓었다.

처음 나를 반겨준 거실 겸 연구실로 보이는 방은 나무로 지어진 집처럼 짙은 고동색 판자벽이 두 면을 차지하고 나머지 두 면은 책이 빼곡하게 들어간 책장이 대신했다.

바닥은 뭔가 떨어트리면 거창한 소리를 내며 깨질 법한 투박한 돌로 되어있었지만 반질반질하게 닳은 원목 가구랑 어울려 제법 분위기 있었다.

거꾸로 묶어 말린 식물들이 모빌처럼 늘어져 잿빛 냄새를 풍겼다. 벽에 달린 선반엔 작은 토기 항아리가 줄지어 서 있었고 드문드문 놓인 유리병엔 정체를 알 수 없는 것이 담겨 있었다.

ㄷ자 모양으로 놓인 책상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질서를 모르고 섞여 있었다. 양피지와 정제된 종이로 만들어진 책, 백여 년 전의 지명을 표기한 지도, 멋들어진 신식 만년필 같은 것들이.

나는 그 속에서 낯익은 동전 하나를 발견했다. 나는 책상에 다가가 돌멩이처럼 가치 없이 놓여있는 마나석을 헤치고 동전을 짚어 들었다. 마나석 하나가 달그닥거리면서 책상에서 굴러 떨어졌다.

그 소리를 들었는지 저쪽 방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그사이 재빠르게 차를 준비한 걸까? 따뜻한 차 냄새가 풍겼다. 이쪽을 향해 걸어오는지 걸음마다 찻잔이 미약하게 달칵거리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이 찻잔을 들고 나타나 나도 상대도 놀라고 말았다.

금을 녹여 만든 것 같은 금발에 녹안, 연하게 잡힌 쌍꺼풀 때문에 짙은 얼굴에 익숙해진 내 눈에 이질적인 인상을 풍겼다. 왼쪽 눈 아래에 하나, 오른쪽 눈썹 아래에 하나, 오른쪽 볼 중앙에 하나 찍힌 점 때문에 더 묘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았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나는 당황해서 일단 앉을 의자를 찾았다. 손님용 의자를 오랫동안 쓰지 않았는지 한쪽 벽에 바짝 붙여 밀어놓았길래 마법으로 끌어당겼다. 나는 집주인처럼 의자에 편히 기대앉아 다리를 꼬고 물었다.

"너 누구야? 여긴 어디지?"

남자는 당황한 표정을 풀고 천천히 꿀이 흐를 듯한 달콤한 미소를 지었다. 살짝 벌어진 입 사이로 입 동굴이 보였다.

"귀한 손님이시네요. 너무 오래간만이라 조금 놀랐네요. 차를 드릴까요? 아니면..."

찻잔을 둥근 테이블에 내려놓는 남자의 손가락은 하얗고 길었다. 나는 잠깐 놈의 얼굴에 홀려 뚫어지게 쳐다보다 손에 동전을 쥐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손에 힘을 뺐다. 맑은 금속성을 내며 동전이 떨어졌다. 동전은 돌바닥을 재주 좋게 굴러 남자의 발치에 가서 닿았다. 놈이 물끄러미 아래를 내려다봤다.

"훔치려고 한 거 아니야."

남자는 허리를 굽혀 동전을 집어 들었다. 길게 늘어진 노을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동전에 닿았다.

"오랜만에 보는 테란 동전이죠?"

오랜만에? 테란은 백여 년 전 망한 나라였다.

테란은 화폐 개편 이후 불순물이 섞인 값싼 금속으로 동전을 마구 찍어냈다. 모양만 다른 동전이 금화를 대신한다는 게 권력자들에겐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보였던 모양이지만, 많이 만들어 낸다고 돈이 많이 생기는 것은 아니었다. 가치를 잃은 돈 때문에 테란은 급속도로 무너졌고 땅을 차지하러 전쟁이 터지자 사람들은 동전을 죄다 긁어모아 무기를 만들어 냈다. 테란 동전은 이제 와서 쓰이지도 않고 보기도 쉽지 않았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물건인데 오랜만에라고?

"난 처음 보는걸."

남자는 다 이해한다는 듯 따스한 눈빛으로 웃었다.

“누구인지 물어보셨으니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주마법을 연구하는 헤나드라고 합니다. 여긴 제 연구실이고 당신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귀하신 분의 성함은…?”

“레티시아.”

“레티시아, 차를 드릴까요? 아니면 다른 마실 걸 드릴까요?”

“둘 다 필요 없어.”

헤나드는 쌀쌀맞은 내 태도에도 전혀 인상을 찌푸리지 않았다. 그는 내려놓은 찻잔을 들고 나를 마주 보고 책상에 살짝 걸터앉았다. 헤나드는 잠깐 나를 쳐다보다가 못 참겠다는 듯 소리 내 웃었다. 뭐야 미친놈인가.

“당신이 찾아와줘서 기뻐요. 제 예상과는 조금 다르지만, 상상을 뛰어넘는 게 현실의 즐거운 점 아니겠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영문 모를 소리에 나는 인상을 찌푸렸다.

“너를 찾아온 게 아닌데. 옐츠란 연구실로 가려고 했는데 문을 잘못 열었어.”

“아, 옐츠란...”

헤나드는 옐츠란을 아는 듯 이름을 친근하게 불렀다.

“어쨌거나 당신은 저 문을 열었잖아요.”

“그게 뭐.”

내 말에 대꾸는 하고 있지만 묘하게 자기 할 말만 하는 태도에 짜증이 났다. 내가 평소에 저딴 식으로 말하던가? 확신하건대 저거보단 나을 것이다. 난 예의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닫혀있던 문을 열면 옐츠란 방이겠지. 짜증 나는 건 그냥 피하자. 나는 복도로 돌아가려고 들어왔던 문을 열었지만 문밖엔 사막이 펼쳐져 있었다. 헤나드는 약간 미안한 투로 말했다.

“문이 변덕이 심해서 계속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럼 다시 그 자리로 돌려놔. 내가 또 사라진 걸 알면 옐츠란이 기겁을 할걸.”

헤나드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옆에 내려놓았다.

“옐츠란에게 모셔다드릴 테니 그 전에 저와 잠깐만 대화를 나누시겠어요?”

나는 문을 닫고 몸을 돌려 헤나드를 마주 보았다. 놈은 여전히 설탕과 견주어볼 정도로 달콤한 낯이었다.

“오래 사는 일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 같아요. 그렇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헤나드는 살짝 고개를 옆으로 기울였다.

“저만 그런가요?”

“마탑엔 수많은 방이 있고 대부분은 길만 알면 그냥 들어갈 수 있지만, 마법사의 개인 연구실은 달라요. 방의 주인이 건 조건에 맞는 사람에게만 열리죠. 이곳은 120년 이상 산 자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제 나이만큼 제한선을 정해뒀으니까.”

사방을 찬란한 붉은 빛으로 물들이던 해는 순식간에 졌다. 바깥이 어두워지자 연구실 안의 마법등은 천천히 불을 밝혔다. 이곳의 마법등은 특이하게도 허공에 떠다니는 아주 작은 크기여서 창밖의 밤하늘이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다. 마법등이 별빛처럼 반짝였다.

“레티시아, 그 문을 당신이 열었어요.”

별빛 아래서 헤나드는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즐겁다는 듯 웃었다. 그의 얼굴에 수많은 감정이 스쳤지만 가장 뚜렷한 건 감격이었다.

“100살이 넘은 이후엔 아주 오랫동안 문을 열고 들어올 손님을 기다렸어요. 손님이 온다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 사람도 나와 비슷한 삶을 살았을 테니까. 우린 닮은 부분이 아주 많을 거예요, 레티시아.”

헤나드는 열의에 차서 말했지만 난 그딴 건 신경 쓰지 않았다. 이제 와서 영생이 얼마나 힘든지 남과 나눠서 뭐하겠는가? 헤나드는 아직 백살쯤 살아서 괴로움을 나누고 싶은 모양이지만 나는 그것조차 받아들인 나이가 됐다. 무엇보다도 길이 엇갈리기 전에 빨리 옐츠란에게 가야했다.

“나 지금 바빠. 옐츠란한테 빨리 보내주기나 해.”

헤나드의 빛나던 웃음이 사라졌다. 금방이라도 왕관을 쓰고 액자 속으로 들어가 왕자행세를 할 것 같은 얼굴이 수심에 가득찼다.

“저에게 찰나의 시간도 허락해주지 않으실 건가요?”

다정한 미소가 어울리는 헤나드에겐 안된 일이지만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응.”

“그것참... 애석한 일이네요.”

그리고... 헤나드의 말투가 이상한 일이기도 했고. 놈은 격식을 갖춘 편지에서나 쓸 법한 말투를 쓰고 있었다. 백 년 전쯤엔 다들 저렇게 말하긴 했지만 지금 들으니 연극을 하는 것처럼 어색했다.

헤나드는 쓸쓸한 얼굴로 다가와 문고리를 잡았다.

“원치 않는 일을 강제로 요구할 순 없죠. 알겠습니다. 옐츠란에게 모셔다드리겠습니다.”

요즘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일단 반발하고 보는 것들이랑 같이 지내다 보니 순순히 수긍하는 헤나드의 반응에 오히려 얼떨떨해졌다. 이렇게 쉽게? 20년 정도는 나를 기다린 게 아닌가?

“정말 내가 그냥 가버려도 돼?”

에메랄드 같은 눈동자에 애원하는 듯한 빛이 들어찼다. 헤나드는 입술을 달싹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을 간절히 기다렸으니까요. 그만큼 귀한 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듣는 귀한 분 마음이 간지럽네. 잘생긴 남자가 애원하니까 그까짓 남아도는 시간은 기부하고 싶어졌다. 옐츠란이 제법 진지하게 걱정하는 티를 내기 전이라면 그랬을 것이다. 아니, 옐츠란이 조금만 덜 잘생겼더라면...

“좋아, 헤나드. 예쁜이.”

내가 예쁜이라고 불렀음에도 헤나드는 아랑곳하지 않고 “네, 말씀하세요.” 하고 내 말을 기다렸다.

“그냥 가려고 했는데 네가 너무 간절해 보여서 기회를 주는 거야. 지금은 내가 진짜로 바쁘거든? 얼마나 거창한 대화인지 몰라도 한가해지면 그때 얘기할까?”

헤나드가 다시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아무한테나 저런 눈빛을 보낸다면 그건 반칙이었다. 나는 순간 헤나드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내게 바짝 다가와 문을 여는 헤나드의 눈빛은 설탕에 푹 절인 복숭아보다 달콤하고 눅진했다.

옐츠란은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처박고 있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에 얼굴을 들었다.

나와 눈이 마주친 옐츠란의 얼굴에 안도감이 들어찼다. “너…!”하고 일어서던 옐츠란이 내 뒤에 서 있는 헤나드를 보고 경악하며 멈춰섰다.

“뭐 저런 걸 달고 들어와?!”

“사람한테 저런 거라니, 말버릇이 고약한걸. 어린 옐츠란.”

여태껏 들었던 다정하고 부드러운 말투와 전혀 다른 차가운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내가 고개를 돌려 바라보자 헤나드는 버릇처럼 달콤한 미소를 지었다.

옐츠란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내 손을 잡고 끌어 자기 뒤에 서게 했다. 흡사 나를 보호하듯 한 모양새였다.

“무슨 일이지? 왜 여기 온 거야?”

“레티시아가 네게 데려다 달라 해서 온 거야. 나를 악인 취급하는 건 매우 불쾌하군.”

옐츠란은 질린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며 속삭였다.

“그새 어디 가서 뭘 했길래 저런 놈이랑 통성명을 한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고 어깨만 으쓱했다. 서로 사연이 많은 것 같은데 알아서 풀던지. 옐츠란도 나에게 별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던 모양인지 헤나드를 향해 경고했다.

“그러면 이제 내 연구실에서 나가주겠어? 쫓아내기 전에.”

“왜 항상 그렇게 화가 나 있는지 모르겠군.”

옐츠란은 어이없다는 듯이 헛웃음을 지었다.

“오랜만에 봤는데도 변한 게 없네. 네가 한 짓은 생각 못 하고 왜 그렇게 화가 났냐고? 내가 이 정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게 더 신기한 일이야.”

흠,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군. 옐츠란의 냄새를 맡으니 초콜릿이 먹고 싶어져 나는 주머니에서 포장된 초콜릿 쿠키를 꺼냈다. 열심히 포장을 푸는데 바스락거리는 소리 때문인지 둘의 시선이 나한테로 집중됐다.

“신경 쓰지 말고 하던 사랑싸움이나 계속해.”

내 말에 둘의 표정이 순식간에 똑같아졌다.

짧은 침묵을 깨트리건 헤나드의 웃음소리였다. 헤나드는 입 동굴이 보일 정도로 웃으며 견딜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당신은 너무 귀여워요.”

옐츠란의 표정은 한층 더 엄청나게 변했다. 어쩌겠어. 내가 귀여운 탓인걸. 내가 헤나드를 쳐다보며 씩 웃자 헤나드는 나에게 반한 사람처럼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옐츠란은 허탈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악몽을 꾸고 있는 건가...”

헤나드가 한 걸음 다가오자 옐츠란은 경계하며 빈틈없이 나를 막아섰다. 옐츠란의 등에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나는 그의 등에 이마를 비비며 불만을 드러냈다. 누가 누구를 보호하겠다고 막아서는지?

“이제 잊을 때도 됐지 않나? 어린 옐츠란. 짧은 생을 살면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너무 오래 추억하는군.”

“그놈의 어린 옐츠란 소리나 작작해. 내가 어린 시절을 추억한다고? 내가?”

헤나드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나 지우고 싶은 기억인가? 꽤 좋은 스승과 제자 사이였다고 생각했는데... 애석하군.”

나도 모르게 헉 소리를 냈다. 이 드라마 점점 더 재밌어지는군. 나는 슬쩍 옐츠란 팔 사이로 헤나드를 쳐다봤다. 애석하다고 말한 사람치곤 청동상처럼 차가운 표정이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내내 웃고 있던 사람이 무표정으로 있으니까 화난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다정한 빛을 띠고 있었다.

“아동 학대범과 불쌍한 어린아이였겠지. 내가 아직도 당신 때문에 비행 멀미를 겪어.”

“거듭 말하지만 그렇게 작고 어린 사람은 처음 봐서 대하는데 미숙했어. 너는 그걸 알고도 나를 스승으로 선택했잖아.”

옐츠란은 인정하기 싫은 투로 대답했다.

“실력이 좋으니까 어쩔 수 없었지.”

“사과도 받아줬잖아.”

“받아 주긴 했는데 아직도 화가 나네. 뭐 나는 화내면 안 되는 사람인가?”

옐츠란이 평소 투덜대긴 했지만 이렇게 억지 부리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기에 자기도 모르게 어리광을 부리는 모양이었다. 진심으로 싫었다면 말다툼을 할 시간에 진작 내쫓았어야 했다. 초콜릿 쿠키를 먹으면서 구경하다가 헤나드와 눈이 마주쳤다. 나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의 얼굴에서 눈이 녹듯 차가운 무표정은 사라지고 봄 같은 웃음이 찾아왔다.

옐츠란이 헤나드의 웃음을 보고 윽, 하고 어디 얻어맞은듯 진저리쳤다.

“레티시아, 옐츠란이 저렇게 싫어하니 연구실에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여전히 그 기회는 유효한 겁니까?”

“음, 그래.”

“당신을 만나게 돼서 정말 기뻐요. 기다리는 시간 또한 즐거울 것 같습니다.”

헤나드는 한껏 다정한 말투로 속삭인 뒤 올 때처럼 문을 열고 사라졌다.

옐츠란은 할 말이 많은 표정으로 나를 돌아봤다. 할 말이라면 나도 만만치 않게 많았다. 나와 옐츠란은 거의 동시에 입을 열었다.

“방금 저놈이 한 말이 무슨 뜻이야?”

“어린 옐츠란? 너 헤나드한테 학대 당했어?”

옐츠란은 대답을 기다리는 표정으로 쳐다봤지만, 대답이라면 옐츠란이 먼저 해야 했다. 내 궁금증을 해소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이다. 남의 질문에 답해주는 게 좋으면 진작 현자를 했지 그냥 살진 않았을 것이다. 잠깐의 침묵 후 한걸음 물러선 건 당연히 옐츠란이었다.

“학대...까진 아니야. 아깐 화가 나서 말을 좀 심하게 했어.”

“와, 인성... 어릴 적에 만난 스승이면 거의 부모처럼 돌봐준 거 아냐?”

옐츠란은 미간을 구겼다.

“헤나드는 나를 어른과 똑같이 대접하며 가르치기만 했지 돌보지 않았어. 어린아이라고 차별하면 안된다 생각해서 그랬다고 했지만 나는 그때 여섯 살이었어. 진도를 따라잡지 못하면 밤을 새우거나 술식을 외울 때까지 식사를 거르는 일은 힘들 수밖에 없었어. 비행마법을 배우는 일에 유독 더디니까 죽기 직전이면 깨우칠 수 있을 거라고 절벽에서 밀어버리기까지 했어. 스무 번 정도를 떨어졌는데 효과가 없었지.”

학대 맞지 않나? 나는 옐츠란이 조금 버릇없게 굴어도 이해해주기로 했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니 인격이 제대로 형성됐을 리 없다.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면 무표정으로 죽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고, 그만 괴롭히라고 하면 왜 그런 소리를 하죠? 괴롭습니까? 라고 해서 난 저놈이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 새끼인 줄 알았어. 감정이 없어서 나를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는 거라 생각했지. 그런데 그렇게 웃다니.”

옐츠란은 헤나드의 웃음을 떠올렸는지 억울한 표정을 짓다 진저리를 쳤다. 그러고는 책장의 책을 되는대로 꺼내서 하나로 쌓아 끈으로 묶기 시작했다. 바쁘게 손을 움직이던 옐츠란은 끈을 묶다 말고 허공을 멍하니 쳐다봤다.

“그렇게 웃을 줄도 아는 사람이었다니... 사랑에 빠진 사람 같았잖아.”

둔한 옐츠란에게도 그렇게 보였나 보다. 내 착각이 아니었군. 하지만 헤나드는 나에게 첫눈에 반할 사람 같아 보이진 않았다. 데블랑과 비교해봐도 그의 반응은 막을 하나 친 듯 의문스러운 구석이 있었다.

옐츠란은 부산스럽게 일을 하다가 고장 난 것처럼 갑자기 멈추고 생각에 잠기는 일을 반복했다. 포장을 끝마친 물건을 주머니에 넣는 동안 자꾸 손이 꼬여 조금 짜증이 났지만 옐츠란의 불우한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참았다. 여섯 살에 절벽에서 스무 번 넘게 떨어졌으니까 뇌에 이상이 온 거다. 그런 거야.

옐츠란은 겨우 정상적으로 돌아온 손놀림으로 책상의 서랍에 있는 물건을 다 꺼내기 시작했다.

“저놈이 여전히 그 기회는 유효한 거냐고 했지? 너 설마 이상한 계약을 한 거야?”

“페르디낭이랑 한 것처럼?”

“그건 이상한 계약이 아니잖아. 아니지, 좀 이상한가…?”

옐츠란은 계약 내용과 계약의 대가를 떠올린 모양인지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튼, 초월자라는 걸 들켜서 이행하지 않으면 심장이 터진다든가 하는 저주가 얽힌 계약을 한 건 아니겠지? 헤나드가 그쪽으로 전문가거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대화 좀 하자고 해서 알겠다고 한 거야.”

“말해봐야 어차피 당신은 이해하지 못 합니다가 입버릇인 사람이? 되게 이상하네.”

나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고 옐츠란도 더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얼추 정리가 끝나고 옐츠란은 손에 들고 있던 마지막 책을 넘겨주는 걸 한참이나 미뤘다. 내가 인상을 찌푸리며 손짓했음에도 옐츠란은 계속 삐져나온 가름 끈만 잡아당겼다.

"할 말 있어?"

"할 말은 있는데... 이걸 말해도 되는지 고민 중이야."

간단하네.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문을 열었다. 문 너머로 바로 헤나드의 연구실이 보였다. 간단한 요깃거리를 준비하는지 근사한 냄새가 났다.

"그런 거라면 말하지 마."

내 충고에도 불구하고 옐츠란은 뭐라 말을 꺼냈지만 다 듣기도 전에 문을 닫아서 무슨 말인지 제대로 듣지 못했다. 뭐, 옐츠란의 헛소리겠지.

헤나드는 본래 축복마법을 익힌 자였다.

그 시대엔 마나의 속성을 나누고 축복마법을 선, 저주마법을 악으로 여기던 때라 헤나드는 어딜가나 환대받았다. 하지만 같은 마법사인데도 어두운 골목으로만 다니는 쥐처럼 숨어 사는 저주 마법사를 보고 의문이 생겼다.

정말 축복마법은 선이고 저주마법은 악일까?

축복마법은 선의 마나를, 저주마법은 악의 마나를, 자연 마법은 자연의 마나를 쓴다는데 왜 어떤 마법을 쓰든 마나가 빠져나가는 감각은 같을까?

마법은 어떻게 쓰냐 따라 축복마법이 될 수도 저주마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건 선의 마나를 쓰는 건가 악의 마법을 쓰는 건가, 그 경계는 무엇일까?

예를 들면 사막에서 몸 온도를 올려주는 추위 저항 축복을 건다면 그건 저주가 아닐까? 혹은 설산에서 더위를 느끼게 하는 저주를 건다면?

의문은 의문에서 끝났다. 그가 맡은 일은 너무 많았고 사람들의 호의 어린 시선은 어딜 가나 따라다녔다.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저주마법에 손댄 타락한 마법사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꽤 오랜 시간 동안 양지바른 곳만 걸었다.

축복 마법사 세력이 강해질수록 저주마법사들은 더 숨어다니게 되었다. 저주마법사가 마법학회 참가 자격을 박탈당했을 때 그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저주마법사인 걸 들킨 자가 돌팔매질을 당했을 때 그는 조금 심하다고 생각했다. 저주마법사가 화형을 당하는 수준에 이르자 그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했다.

마나의 속성에 관한 이론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그런데도 마나무속성설은 금기처럼 취급돼 아무도 연구하지 않았다. 드물게 목소리를 내던 학파는 역사에서 지워졌다. 마법사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림자가 있어야 빛이 밝을 테니 저주마법사를 박해했다.

헤나드는 몇백 년간 지속 된 차별의 굴레를 깨고 싶었다. 화형당하던 마법사의 타는 살냄새를 맡은 순간, 그 일이 자신의 숙명처럼 느껴졌다. 옐츠란의 오지랖 넘치는 성격이 누구 영향이었는지 알겠군.

그래서 그는 스스로 타락한 마법사를 자처하며 저주가 되는 축복과 축복이 되는 저주를 연구했다.

선과 악이 섞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를 거부하고 끌어내렸지만, 연구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축복과 저주마법은 역사가 깊어 세상에 공표되지 않은 술식을 찾는 것만으로 성과가 좋았기 때문이다.

헤나드는 여기까지 말하고 주방에 들어가 진하게 내린 커피를 들고 왔다. 그가 구워준 두껍게 자른 식빵은 별 것 안 한 거 같았는데 맛의 조화가 기가 막혔다. 버터를 바른 팬에 소금과 설탕 조금 뿌려 굽기만 했다는데 상상할 수 있는 맛의 최대치가 느껴졌다. 솔직히 먹느라 그의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했는데도 헤나드는 뭐가 좋은지 나를 보고 자꾸 웃었다.

“다행이네요. 음식을 안 한 지 오래돼서 간단한 요리도 망칠까 봐 걱정이었는데.”

“너무 쳐다보는 거 아냐? 한 입 줄까?”

“당신이 먹는 걸 구경하는 게 더 좋아요.”

이상한 취향이군.

어쨌거나 헤나드는 타락한 마법사가 되었지만 쌓아둔 좋은 평판과 꽤 높은 신분 덕에 신분 덕이 더 크겠지. 신분제 사회에서 귀족의 범죄 하나둘쯤은 미덕이니까! 참 편리한 세상이다. 화형은 면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성과에 관심이 있는 사람마저 생겼다. 관심을 발판으로 저주마법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했다. 노화를 시키는 저주로 과일을 빨리 익게 하거나 녹을 때까지 불태우는 저주로 대장간 일을 도와주는 식이었다. 사람들은 한번 도움받기 위해 많은 돈을 지급해야 하는 축복마법보다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저주마법을 가까이 어기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자 더는 화형 당해 죽는 저주마법사는 없었다. 그것만으로도 큰 수확이었지만 헤나드는 이상적인 마법사 사회를 꿈꿨다. 지금의 병폐가 모조리 사라진 평등한 사회.

마법사들은 폐쇄적이고 좁은 사회에서 전공이 같은 자끼리만 어울리고 그 속에서조차 파를 나누고 기밀을 훔쳐갈 적을 보듯 서로를 견제했다. 세가 강한 전공은 명성을 독차지했고 그렇지 못한 세력이 차별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헤나드는 축복마법사로 권세를 누리고 살았지만, 항상 마음 한쪽에 짐을 얹고 지냈다. 그래서 타락한 마법사로 질타받았을 때 오히려 마음이 편했고 꾸준한 노력에 저주마법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자 희망을 느꼈다. 연구는 계속 되어야 했다.

나는 토스트를 다 먹고 번들번들한 손가락을 대강 헤나드의 책상에 문질러 닦다가 물었다.

“너 무슨 병 걸린 거야? 뭐더라, 착한 사람 되기 병? 그런 비슷한 이름이었는데.”

헤나드는 더없이 재밌는 소리를 들은 듯 웃었다.

“아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실 만해요. 저도 과거의 저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아무도 주지 않은 사명감을 혼자 느꼈던 거 같아요. 저 혼자 세상을 바꾸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오만이죠.”

그는 내가 하는 짓을 보고 품에서 손수건을 건네주었다. 이미 책상에 버터를 다 닦았기에 나는 손수건을 받아 대강 닦는 시늉만 하다 말았다.

헤나드는 자신을 낮잡아 말했지만 글쎄, 오만은 아니었다. 실제로 한 명에 의해 모든 게 바뀌었다. 그때의 혼란을 마법사 사회의 주류가 아니었던 나조차 기억한다. 저주마법사들을 시작으로 음지에 숨어있던 마법사들이 양지로 나와 권리를 주장했다. 편견 없는 젊은 마법사들이 협력해 지식을 나눌 수 있는 마법 아카데미를 세웠다. 그들의 스승이거나 상관인 늙은 마법사들은 규율을 외쳤지만, 시간은 언제나 젊은 자들의 편이다. 결국, 모든 건 차차 변했다.

그 사람이 헤나드였다니, 나는 그런 일은 하늘의 사명을 받았다고 떠들어대는 자칭 용사만 하는 줄 알았다. 내가 이타적인 일이 바보짓이라 생각하건 말건 헤나드가 대단한 일을 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헤나드의 얼굴엔 뿌듯한 기색 없이 체념 섞인 우울함이 떠올라 있었다.

“저는 제 오만 때문에 벌을 받은 겁니다. “

연구를 계속하던 와중 헤나드는 새로운 던전을 발견했다. 당연히 그는 연구를 위해 던전으로 들어갔고 비극은 그 때 일어났다.

축복과 저주는 별 조건 없이 발동되는 것이 많다. 헤나드가 받은 300살까지 살게 하는 축복 또한 같은 종류였다. 기둥에 손을 얹자 그는 과거의 잔재로 인해 아마 마도 시대 때 멸종 직전인 종자를 위해 사용되던 축복이었을 거다. 300살까지 살게 되었다. 헤나드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몇 년간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 강제로 받았지만, 여분의 시간은 항상 고마운 존재 아닌가, 그는 축복을 감사히 여겼다.

멍청한 생각이지. 나는 측은하게 헤나드를 바라봤다. 헤나드는 내 눈빛의 의미를 알아채고 자조적으로 웃었다.

하지만 사람은 예기치 못하게 병에 걸리거나 다치거나 혹은 늙게 된다. 축복은 단순히 그를 살게 할 뿐, 병과 노화를 물리쳐주지 않았다.

헤나드를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만큼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다. 적이 많이 생긴다는 건 독이 섞인 음식을 먹게 된다는 말과 같다. 몇몇 시도는 빗나갔으나 몇몇 시도는 성공했다.

내장이 녹는 듯한 고통에도 그는 죽지 않았다. 몸이 썩는 저주에 걸렸을 때도 그는 죽지 않았고 심장을 멈추게 하는 독에는 동료 마법사가 치료해주기 전까지 두 달 넘게 식물인간으로 살긴 했지만 결국 죽지 않았다.

그는 시력의 절반을 잃고 몸에 구더기가 끓고 한쪽 다리는 질질 끌고 다녔지만 죽을 수 없었다. 자살하기 위해 성벽에서 뛰어내리기라도 한다면 온몸이 박살 난 채 살게 될 걸 알았기 때문이다.

헤나드는 저주가 되는 축복이 어떤 의미인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늘 그를 도와준다 생각했던 마법이 목을 조여왔다. 사람들은 살아있는 시체 같은 모습에 다 그를 멀리했다.

평등한 사회를 꿈꾸는 젊은이는 이제 존재하지 않았다. 헤나드는 허공을 더듬어 다리를 질질 끌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듣다 보니 조금 꺼림칙한 기분이 들어 물었다.

“혹시 지금도 구더기랑 몸을 나눠 써?”

토스트는 맛있었지만, 구더기 얘기를 듣고 나니 기분이 좀 그렇다. 혹시 한 마리라도 섞여 들어갔다면... 혹시 토스트가 맛있었던 이유가 그의 삶의 역경이 한 마리 들어갔기 때문일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에 공감하고 싶진 않은데.

“아니요, 그렇게 남은 생을 살 순 없으니까요. 방법을 찾아서 치료했습니다.”

음, 그렇다면 다행이고.

내 말에 헤나드가 약간 상처받았을 수도 있지만 긴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으니 그 정도는 이해해야 한다.

헤나드는 화병에 담긴 꽃 하나를 뽑아 올렸다. 밖에서 막 꺾어 온 듯 생기 돌던 꽃은 순식간에 바싹 말라 그의 손에서 시들었다.

“이게 그 방법입니다.”

건조기가 됐다는 뜻은 아니겠지.

그러고 보니 방에는 유달리 바짝 마른 것들이 많았다. 마른 식물과 말라 비틀어진 과일, 작은 동물 박제 같은 게 이제 와서 새삼스레 눈에 들어왔다.

“마나를 빨아들여 생명을 유지하는 저주를 스스로 걸었습니다. 마물로 만드는 끔찍한 저주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때 맞춰 마나만 흡수한다면 죽을 때까지 이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축하한다고 해야 하나? 내가 마땅한 대답을 고민하는 사이 헤나드는 소리죽여 내게 다가왔다.

그가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다가와서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축복이 되는 저주이길 바랐지만, 불행의 불은 쉽게 꺼지지 않더군요.”

저주는 그에게 젊음을 돌려주었지만 모든 것을 앗아갔다. 손을 맞잡을 때의 감각, 차가운 눈을 밟을 때의 느낌, 향기로운 꽃의 냄새, 갓 구운 빵의 맛 같은 것들. 촉각과 미각, 후각이 현저하게 떨어져 그가 느낄 수 있는 건 배가 창으로 꿰뚫리거나 살을 불로 지지는 등의 극단적일 때뿐이었다.

헤나드는 남의 몸을 보듯 손가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쓸모없는 가죽 주머니에 영혼이 담긴 것 같아요.”

그는 잠깐 아무 말 없이 자기 손을 보며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이렇게 서 있어도 늘 허공을 붕 떠 있는 느낌입니다. 바닥을 딛는 감각이 없으니까요.”

죽음 이후 의식 덩어리로 지낼 때 비슷한 느낌을 겪기에 어렴풋이 어떤 느낌인지 짐작이 갔다.

그래서 식탁이 없었구나. 주방은 있는데 식탁이 없다고 해서 책상을 대강 치우고 거기서 토스트를 먹었다. 먹는 걸 구경하는 게 더 좋다는 말도 이제야 이해가 갔다.

헤나드는 나를 지나쳐 천장에 거꾸로 매달린 마른 꽃다발에 손에 들고 있던 꽃을 꽂아 넣었다.

재수 없는 추측이 슬그머니 머릿속에서 고개를 들었다. 젊음을 유지할 정도로 마나를 빼앗아야 하는데 그게 과연 저런 풀 쪼가리의 마나로 가능할까? 좀 더 마나를 많이 담는 생명체여야 하지 않을까? 식물보단 동물, 동물 중에서도 마나를 스스로 끌어모으는... 이를테면 마법사 같은 존재. 게다가 백 년이 넘게 마나를 모은 마법사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먹잇감이겠군.

나는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섰다.

“긴 과거사를 나한테 말한 이유가 뭐지? 힘들게 살았으니까 네 젊음을 위해 얌전히 마나를 내놓아라, 그런 뜻이야?”

나는 이렇게 말하면 헤나드가 이제야 알아채다니! 같은 말을 하며 당장 달려들줄 알았다. 그래서 나는 공격마법을 위해 내 마나를 조금 풀어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놀랍게도 헤나드는 오히려 눈썹을 애처롭게 늘어트리고 슬픈 얼굴로 뒤로 물러섰다.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해를 사게 말을 했군요. 저는 사람의 마나를 빼앗지 않습니다.”

음, 그럼 그렇지. 사람을 죽이는 살인마가 저런 표정을 할 리 없지.

나도 모르게 헤나드의 얼굴에 홀려 경계를 누그러트리려다가 정신을 차렸다.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헤나드는 아예 물러나 나에게 조금의 위협도 되지 않겠다는 듯 벽에 붙어 섰다.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한 거대한 내 마나를 느꼈겠지만, 그는 아무런 방비도 하지 않았다. 얄팍한 방어결계조차도.

“못 믿으시겠죠... 나가고 싶으시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렇게 말하며 그는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다. 미인이 흐느낌도 없이 처연하게 눈물을 흘리자 당황스러운 와중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헤나드, 그렇게 울면 내가 너무 당황스럽잖아.”

“제가 울고 있나요?”

그는 자기 볼을 더듬더니 눈물을 훔쳐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닦은 보람도 없이 그는 더 많은 눈물을 쏟아냈다. 그가 내 시선을 피하려고 고개를 숙이자 눈물이 후두둑 바닥에 떨어졌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마나 그까짓 거 빨리면 좀 어때, 내가 죽기라도 하겠어?

나는 결국 헤나드의 얼굴에 항복했다. 표정을 누그러트리며 그에게 다가갔다.

“울지마. 울 일은 아니잖아?”

좀 더 부드럽게 말하고 싶었는데 빌어먹지도 못할 말솜씨. 항상 말썽이다. 헤나드는 작게 수긍하며 고개를 들었다. 눈물 때문에 꼬리가 길게 빠진 눈은 발갛게 물들어 있었다. 우는 사람한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미안하지만 참 야하게 생긴 얼굴이다.

“죄송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제가 너무... 너무 쓸데없는 기대를 한 탓입니다.”

무슨 기대를 했냐고 물었지만 헤나드는 고개를 저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아마 나를 보고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자기만큼 힘들게 살았겠지 싶어서 자신을 이해해주고 공감할 거라 믿었던 모양이다. 120살은 넘은 사람이 여전히 어린 모습이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누가 그런 모습을 하겠는가?

남들과 다른 시간을 산다는 건 정처 없이 떠도는 일이다. 악마로 몰려서 죽고 싶지 않다면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기 전에 떠나야지, 어쩔 수 없다.

치열하게 사는 남들을 보고 있자면 결국 죽는 건 그들이지만 내가 죽어있는 것 같다.

구천을 떠도는 귀신처럼 현실감 없이 살다 보면 존재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간절해진다. 헤나드의 경우 더더욱 그랬을 것이다.

모든 비밀을 알고도 다 받아줄 사람, 끝까지 함께 해 줄 사람, 나를 나로 사랑해줄 사람.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내가 옛 저녁에 버린 희망을 헤나드는 아직도 품고 사는구나.

“맞아, 쓸데없는 기대야.”

헤나드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에 젖어 축축한 속눈썹이 애처롭게 보인다.

불쌍한 놈.

그렇다고 헤나드가 바라는 것처럼 그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역할은 맡지 않을 거다. 헤나드가 불행에 절여져 쓸데없는 기대를 하건 말 건 180년 정도만 더 살면 죽을 건데, 왜 혼자 어리광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원래 남의 상처보다 내 손톱 밑의 가시가 더 아픈 법이다. 그는 남에게 구구절절 풀어서 말할 근사한 사연이라도 있지만 나는 그냥 인생이 한순간 좆된거다. 달리 표현할 말도 없다.

게다가 그가 야하게 울어서 경계를 풀긴 했지만, 놈을 믿는다는 뜻은 아니었다. 식충식물도 곤충을 유인하려고 좋은 냄새를 풍기는데 마나를 빼내려고 눈물을 짜내는 건 일도 아니지.

“내가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해 실망했나 봐?”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헤나드는 나와 거리를 두며 괜히 죄인처럼 움츠렸다. 나한테 돈 빌린 것도 아니고 왜 저러지?

나는 멀어진 거리 만큼 가까이 다가갔다. 헤나드는 손을 뒤로 숨기며 벽을 따라 뒷걸음질 치다 구석으로 몰렸다.

내가 아주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는지 헤나드는 변명처럼 덧붙였다.

“마나를 빼앗는 손이니 꺼림칙하실까 봐...”

“조절이 불가능한 거야? 손만 갖다 대면 무조건 마나를 빼앗는 건가?”

“아니요, 제가 원할 때만...”

그러면 문제가 없지 않나? 남이 불편할까 봐 한발 앞서 배려하는 건 나로선 이해할 수 없는 태도다. 데블랑마저 그러진 않았던 거 같은데... 내가 빤히 바라보자 그는 송구합니다 라고 덧붙이기라도 할 것 같은 표정이었다.

나는 헤나드가 떠들어댄 말을 반쯤은 믿기로 했다.

저게 연기라면 정말 수준급이니 내가 아무리 날 세워봐야 의심스러운 구석을 찾기 힘들 터였다.

“그래, 믿을게.”

그는 내 말에 표정이 밝아져 움츠렸던 어깨를 바로 폈다. 생각해보니 마탑에 마나 주머니들이 널리고 널렸는데 굳이 120살 이상으로 제한을 걸어두고 기다릴 이유는 없다. 백 살이 넘는 마법사가 흔한 것도 아니고, 수명을 늘릴 정도로 성취를 이룬 마법사라면 유명인사일 텐데 갑자기 실종되면 수상하기만 하다. 괜히 죄 없는 애만 울린 것 같아 조금 겸연쩍어졌다. 나는 헤나드에게 그의 미모와 그가 구워준 토스트 덕에 생긴 호감만큼 마음을 너그럽게 쓰기로 했다.

“그럼 도대체 나를 왜 부른 거야? 정말 대화나 하자고 부른 건 아닐 테고, 원하는 게 뭐야? 들어줄 테니까 말해.”

왜인지 내 말은 항상 협박처럼 들리는군. 페이퍼트성에 돌아가면 어법에 관한 책이라도 읽어야겠다.

주저하던 헤나드는 내 눈빛을 보고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걸 알아챈 모양이었다.

“레티시아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묻기 전에 제 이야기를 하는 편이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네 과거사를 듣고 동정심에 대답해줄 거 같아서?”

헤나드는 대놓고 조롱하는 말에 부정하지 않았다.

그가 묻고 싶은 말이란 건 너무 뻔해서 짐작하기도 쉬웠다.

살아있다는 감각을 돌려받고 싶은 거겠지.

삶의 행복은 의외로 사소한 곳에서 온다.

좋은 향기가 나는 이불, 목까지 푹 담근 노곤한 목욕, 여름철 차가운 물 한 잔, 선선한 바람에 잠깐 청하는 낮잠.

헤나드는 그걸 송두리째 잃어버렸다. 아무리 늙지 않고 오래 살아도 별로 신나는 삶은 아닐 것이다. 난 그래도 힘을 갖게 된 이후로 백여 년쯤은 혹은 그 이상 재밌게 살았다.

“창문을 열었을 때,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가는 감각을 그리워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저주를 건 이후로 그립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이젠 꿈속에서조차 아무것도 느낄 수 없습니다. 제 영혼을 둘러싼 안개를 걷을 방법을 아신다면 동정심에라도 대답해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풀어주세요. 제발...”

거의 무릎이라도 꿇을 듯한 기세였다.

헤나드에겐 안타깝게도 마물로 만든다는 저주는 처음 듣는 저주였다. 아무리 나라도 세상 모든 것을 알 순 없는 법이다. 게다가 단순히 저주를 푼다고 상황이 해결되는 건 아니었다. 그에겐 아직 180년의 시간이 더 남아 있었다. 저주를 풀었을 때 닥칠 문제점도 무시할 수 없었다. 가장 끔찍한 경우 헤나드는 멈춰두었던 시간을 찰나에 보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짝 마른 나뭇가지보다 못한 몸으로 남은 생을 살아야겠지. 잃었던 감각 중 고통은 확실히 돌려받겠군.

하지만... 내 보금자리에 쌓은 책과 양피지와 마법 도구 중에 하나쯤은 그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었다. 나에겐 깜찍한 물욕이 있어 뭔지도 모르고 일단 창고에 넣어둔 물건이 꽤 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어렴풋이 생명을 늘려주는 축복에 대한 구절을 읽었던 게 기억이 났다. 저주의 조건을 없애지 못하면 축복이라도 없애면 된다.

한때 정말로 죽으려고 무던히 노력하며 닥치는 대로 끌어모았던 자료 중 있을 것이다.

“그런 방법은 몰라. 하지만 내 창고에서 도움이 될 만한 걸 찾을 수도 있을 거야. 적어도 축복을 없애는 방법은 확실하게 찾을걸.”

내 말을 듣고 헤나드가 기적을 목격해 옷자락이라도 잡으려는 환자처럼 간절하게 손을 내밀 줄 알았다. 그게 아니라면 감격한 표정이라도 짓던가.

헤나드는 단지 가라앉은 눈으로 물끄러미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축복을 없앤다면... 죽게 되겠군요.”

담담한 어투였다. 삶에 대한 미련을 읽을 수 없었지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나서지 않는 거로 봐서 죽음이 최선의 해결책은 아닌 모양이었다. 하긴,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정말요? 기뻐요. 하고 나설 사람이 몇이나 될까.

대뜸 죽을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되기 싫었으므로 희망을 주기 위해 나는 가벼운 어조로 말했다.

“그건 정확히 몰라. 마나를 흡수하면 생명이 연장되는 거 아냐? 그러면... 적어도 원하는 때에 죽을 수 있겠네.”

“아니요, 저주는 젊음을 유지하게 해줄 뿐입니다.”

음, 확실하게 죽겠네. 120년이면 수명보다 더 살았을 테니까, 순식간에 흙이 돼서 무너질지도 몰랐다.

나는 마땅히 답할 말을 잃고 침묵을 유지했다. 적어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죽는 거니까 나쁘지 않다고 얘기해볼까? 어차피 더 살아봤자 가치 없는 삶이라고? 아니야, 나쁘군...

“생각해보니… 좋은 탈출구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만 생각했지 어떻게 죽을지는 고민해본 적 없거든요.”

“죽는 게 괜찮다는 말이야?”

헤나드는 양손을 들어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을 쳐다봤다.

쓸모없는 가죽 주머니. 눈빛으로 그렇게 말하는 듯했다.

팔을 타고 흘러내린 통 넓은 옷 소매 사이로 흉터가 얽힌 팔이 보였다. 깊은 상처들로 빽빽이 들어찬 살갗은 울긋불긋했다.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 스스로 몸을 찌르는 헤나드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어쩌면.”

그는 내 시선을 느꼈는지 슬쩍 소매를 내려 팔을 감췄다.

“당장은 하기로 약속한 일이 있어 어려울 것 같아요. 이왕이면 레티시아의 창고에 도움이 될 만한 물건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별로 기대하는 어투는 아니었다. 헤나드는 일이 잘 풀릴 가능성을 낮게 측정한 듯했다. 건방진 태도지만 몇십 번을 기대했다 실패한 과거가 있어서 놈이 일부러 그런다는 걸 알 수 있었기에 그냥 넘어갔다. 나 또한 이미 옛 저녁에 포기한 일이 꽤 되니까.

“그럼 죽지 않아도 되잖아요?”

헤나드는 그게 농담인 것처럼 웃었다. 웃기진 않았지만 나도 따라 웃었다. 창고를 뒤지는 건 귀찮은 일이지만 저렇게 예쁘게 웃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충분히 귀찮음을 감수할 가치가 있었다.

“나도 이왕이면 헤나드가 살았으면 좋겠어.”

마주 보고 웃던 헤나드는 나에게서 무언가를 읽은 듯했다.

그의 눈 안에 미약한 희망의 불씨가 피어나고 있었다. 눈물로 젖은 눈이 휘어지고 입 동굴이 보이게 활짝 웃는 얼굴은 향기가 날 것처럼 달콤했다.

“찾는다면 그때 연락을 주시겠습니까?”

“그러지 뭐.”

헤나드는 모처럼 모습을 드러낸 희망을 주체할 수 없는 듯했다. 아까 전처럼 담담하게 굴려고 노력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한 뒤에 급하게 다른 방으로 건너갔다. 벽을 넘어 물건을 찾는 소리가 들렸다. 이것저것 다 섞어두는 헤나드의 책상을 보건데 물건을 찾기까진 오래 걸릴 거 같아 나는 느긋하게 그의 책장이나 구경했다. 내게 했던 말이 전부 거짓말은 아닌 듯 축복과 저주에 관련된 책이 대부분이었다.

나는 책 사이에 이질적이게 꽂혀있는 액자를 발견하고 끄집어냈다. 초상화 같은 그림이 있을 거로 생각했지만 액자의 빈 곳엔 떠오르는 태양을 형상화 한 듯 방사형으로 퍼지는 모양의 화려한 펜던트가 있었다. 금과 백금이 예술적으로 섞인 펜던트는 어디선가 본 것 같이 묘한 익숙함이 있었다.

내가 이걸 어디서 봤더라... 별 의미 없이 지나치며 봤던 것인지 머리를 쥐어짜 내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이쪽으로 오는 헤나드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 나는 액자를 제자리에 다시 꽂아놓았다.

헤나드의 시선이 슬쩍 내가 액자를 꽂아 넣은 책장에 닿았지만,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그는 거절 당할까 봐 살짝 머뭇거리는 태도로 나에게 작은 진주를 꿴 팔찌를 내밀었다.

“받아주시겠어요?”

연한 분홍빛이 도는 진주를 큰 알과 작은 알 번갈아 꿰어놓은 팔찌는 깔끔한 멋이 있었다. 값도 깔끔하게 비싸게 받을 것 같았다. 선물을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팔찌를 냉큼 받았다. 휴, 나는 정말 손해 보고 사는 성격이라니까. 헤나드는 내가 팔찌를 스스럼없이 받는 걸 보고 정말 기쁜듯한 표정으로 웃었다.

“연락용 장신구입니다. 팔찌를 끊으시면 제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슬쩍 추적마법을 걸어놓은 건 아니겠지. 팔찌를 살펴보니 헤나드의 말대로 물리적 충격을 가할 때 일회성으로 위치를 알려주는 알람용 마법만 걸려있을 뿐이었다.

이걸 끊으면 진주 알이 죄다 달아나버릴 텐데, 누가 고안한 방식인지 정말 멍청하다. 어쨌건 나는 그걸 주머니에 잘 넣어두었다. 내가 팔찌를 찰 거라고 기대도 하지 않았는지 헤나드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저 웃음이 무참히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내 삶은 곪아있지만 그는 다시 바른 궤도로 올라서길 바란다.

그와 나의 불행은 비슷했고 외로움까지 닮았으므로.

헤나드가 바라는 이해하고 동감하는 역할은 맡지 않을 거라 해놓고 어느새 동질감까지 느끼고 있었나 보다.

나는 아직도 길가에 핀 풀꽃에도 아름답다고 마음을 주는 사람인가보다.

결국, 마음은 제자리걸음이다.

처음 옐츠란의 연구실에 들어섰을 때 도둑이라도 든 줄 알았다. 원래도 마탑의 짐을 죄다 옮겨놓아 시장바닥처럼 어지럽긴 했지만, 지금처럼 전부 쏟아져서 나뒹굴진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어지럽게 뒤섞인 책과 양피지, 마나석, 갖가지 가죽 조각, 가치 없는 보석 원석 같은 것들 속에서 드러난 바닥을 찾다가 포기하고 그냥 다 밟으면서 앞으로 걸어갔다.

옐츠란은 책으로 둥글게 쌓은 요새 속에서 정신없이 책을 넘겨보고 뒤로 던지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하나 는 거의 내 쪽으로 날아와 나는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책을 낚아챘다. ‘마나석의 종류’ 뭐야? 나는 책을 바닥에 내던졌다.

“뭐 하는 거야?”

옐츠란은 내가 들어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다. 제발 인기척 좀 내고 다녀. 하고 투덜거리던 놈은 눈썹을 아래로 늘어트리고 한숨을 쉬었다.

“그 책이 없어.”

“무슨 책?”

“메빌 실리어의 위대한 유언. 유물의 위치에 대해 적어놓은 암호로 된 자서전인데... 마지막 권이 없어.”

“마탑에 두고 온 거 아니야?”

“그런 줄 알고 가서 이미 확인해봤지. 우리가 다 털어와서 방에 먼지 밖에 안 남았던데... 가져온 짐 중에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책이 없어.”

나는 폭풍이라도 휘몰아친 것 같은 주변을 돌아봤다. 내 시선에 옐츠란도 주변을 돌아보더니 조금 민망한지 큼, 하고 헛기침을 했다.

“여기서 찾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정리하고 찾는 게 더 빠를 텐데.”

“그것도 이미 해봤지. 싹 정리해서 분류를 해봤는데 없더라고, 그래서 다 뒤엎은 거야.”

정리했을 때 없던 책이 뒤엎는다고 나올 리가. 벌써 눈빛만으로 대화하는 사이가 된 건지 옐츠란은 말하지 않았는데도 뜻을 알아채고 투덜거렸다.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 중이야. 비논리적인 건 나도 알거든?”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어깨를 으쓱했다. 옐츠란은 불퉁한 표정으로 다시 책을 살펴보고 뒤로 던지는 일을 마저 했다. 나는 딱 알맞게 쌓아놓은 책을 의자 삼아 걸터앉았다.

“의자를 두고 왜 하필 책 위에 앉는 거야? 책은 읽는 거지 깔고 앉는 게 아니야.”

옐츠란은 헛웃음을 짓다가 내가 들은 체도 하지 않자 바닥의 물건들을 발로 밀면서 의자를 직접 끌어다가 내 옆에 놓았다. 책보다 의자가 편하긴 했기에 나는 곧장 의자로 엉덩이를 옮겼다. 옐츠란은 다시 책의 요새 속으로 돌아가 책 한 권을 집으려다 말고 머리를 마구 헝클어트렸다.

“망했어... 어디서 잃어버렸든지 누가 훔쳐갔든지 내가 흘린 게 확실해. 이제 어쩌지? 유물의 위치는 마지막 권에 적혀있다고 했는데...”

옐츠란은 혼잣말할 때 으레 그랬듯이 정신 사납게 방을 빙빙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바닥이 난장판이라 네 걸음도 못 떼고 한 자리에 멈춰섰다. 어딜 디뎌야 할지 고민하는 표정이었다. 결국, 옐츠란은 원을 그리길 포기하고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한 자리에서 계속 서성였다.

“마탑의 마법사들한테 연락을 돌려볼까? 아니야, 쓸데없는 책이라며 다들 떠넘기는 통에 나한테 넘어온 거였잖아. 필사본이... 있었던가? 있어야 할 텐데... 설마 한 권 뿐인건 아니겠지.”

메빌 실리어의 위대한 유언이라... 처음 들어보는 책이었다. 마도시대 때 메빌 실리어라는 이름의 첫 글자도 들어본 적 없으니 유명한 자는 아니었다.

확신하건대 자서전에 ‘위대한 유언’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작자는 별 볼 일 없는 자기 성애자 놈팡이일 확률이 높았다. 그런 책을 믿고 나라의 운명을 맡기다니. 나는 잠깐 페르디낭의 미래에 애도를 표했다. 망하지만 말아다오.

“책 장수들한테 수소문해봐. 필사본 한 권쯤은 있겠지.”

옐츠란은 곰곰이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눈가를 찌푸렸다. 생각은 길어져 나는 심심함을 견디지 못하고 옆에 쌓아진 책더미에서 책 한 권을 집어 들었다.

‘완벽한 밤을 위하여.’

멋진 선택이군.

이런 책이 마법에 미친 것 같은 옐츠란에게 있다니, 역시 사람이면 공통된 흥미 분야가 있기 마련이다.

나는 어떤 책을 읽는지 옐츠란에게 들키지 않으려 책 표지를 다리에 바짝 댄 불편한 자세로 책장을 넘겼다.

‘완벽한 밤을 위한 마법이 수면 마법이라는 사실에 반박할 자는 없을 것이다. 이 책에선 수면 마법에 대한 열 두 가지 술식에 대해 설명하고 응용 사례를...’

나는 곧바로 흥미를 잃고 책을 바닥에 떨어트렸다.

“라무에는... 있을 지도 몰라.”

혼잣말이었는지 옐츠란은 아주 작게 중얼거렸지만 나는 알아듣고 되물었다.

“라무?”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옐츠란의 얼굴에 낙관적인 빛이 들어찼다.

“책들의 도시, 라무. 몰라?”

책들의 도시라고 하니 대강 짐작 가는 곳이 있었다. 그곳을 한 번쯤 거치지 않은 책은 없을 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책 거래만 주업으로 삼는 자들이 모여 사는 도시였다. 나도 어렴풋이 이야기만 건너 들어서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된 도시인지는 자세히 몰랐다. 책만 파는 도시라, 문맹률이 지나치게 높은 현시대에 그처럼 굶어 죽기 딱 좋은 도시처럼 들리는 곳도 없었다.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은그때 당시엔 도시라고 부를 수 없는 작은 마을이었다.반은 인간, 반은 염소라 책을 뜯어먹고 산다는 농담을 했었다. 마을이 도시로 자라기까지 옐츠란같은 얼빠진 마법사들이 돈을 퍼부은 모양이다.

“라무에 가봐야겠네. 오랜만인걸.”

중요한 책을 잃어버렸지만 옐츠란은 라무에 간다는 이유로 금세 약간 들뜬 모양이었다. 약간 리듬감이 느껴지는 동작으로 옐츠란은 바닥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놈은 정리하는 책의 이름을 훑으며 다른 한 손으론 라무에 가서 살 책의 목록을 적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헤나드가 갑자기 떠올랐다. 던전에 돌아가 창고를 뒤지기 전에 라무에서 관련된 책을 찾아보는 것도 썩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았다.

헤나드가 진작에 찾아봤을 것 같지만 물건이 사람 가린다는 말이 있듯이 내가 찾으면 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고 갑자기 나타날지도 몰랐다.

“나도 갈래. 사고 싶은 책이 있어.”

옐츠란은 더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와락 인상을 구겼다. 그의 손 아래에서 펜대가 비틀거리다 펜촉 사이로 잉크를 토해냈다.

놈은 손가락으로 자기 얼굴을 가르쳤다.

“지금 내 표정 보이지? 안돼, 싫어, 하지 마.”

옐츠란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된 일이 있던가? 나는 팔짱을 끼며 슬쩍 웃었다. 어쨌거나 나는 따라갈 거다. 옐츠란은 필사적으로 덧붙였다.

“마탑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눈만 떼면 자꾸 사라져서 찾으러 다니는 데만 한나절이었어. 제발, 부탁이건대 성에 얌전히 있어.”

나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옆에서 책을 하나 더 집어 들었다. ‘상대를 달아오르게 하는 법.’ 이건 정말 그런 부류의 책이다. 느낌이 왔다. 나는 그냥 살펴보는 척 책장을 대강 넘겼다.

‘상대를 달아오르게 하고 싶은가? 아주 뜨겁다 못해 녹여버리고 싶은가? 재도 남기지 않고 태워버리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 책을 고른 건 아주 좋은 선택이다. 이 책에선 단계별로 화력이 높아지는 불의 마법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마지막 단계에선 물에도 꺼지지 않는 마계의 업화를 사용할 수 있다. 불이란...’

지독한 마법사 새끼.

나는 다시 책을 성의 없이 바닥에 던졌다.

옐츠란은 어떻게든 나를 설득하려고 회유하다가 아무것도 통하지 않자 협박까지 하는 중이었다.

“페르디낭과 한 계약을 지켜. 세 가지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지? 첫 번째 부탁을 지금 하겠어. 유물을 찾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줘.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의 협조야.”

“너는 그렇게 말할 권한이 없잖아. 왕족만 나와 협상할 수 있어. 계약의 내용을 너도 알 텐데?”

옐츠란은 그냥 되는대로 지껄인 모양인지 나의 논리적인 대답에 입을 다물었다.

“어쨌건, 어쨌건 안돼!”

라무가 얼마나 복잡하고 따분하고 도시인지, 내가 페이퍼트에 남아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외치는 소리를 뒤로하고 연구실 문을 닫고 나왔다.

새로운 도시로 여행 가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이다.

“라무에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그웬의 말에 안마를 받다 말고 발을 빼냈다.

“이 성은 벽에 귀가 달려있나? 소문이 엄청 빠르네. 낮에 옐츠란과 한 이야기를 어떻게 벌써 알아?”

“옐츠란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데블랑에게 올리는 말은 같이 들으니까요.”

흠, 그렇군. 나는 다시 발을 그웬에게 맡겼다. 그웬은 장미 향이 나는 향유를 내 발에 정성스레 바르기 시작했다.

“저도 같이 갈 생각입니다.”

“네가 왜?”

“검을 쓰는 사람이 한 명쯤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토당토않은 소리였다. 그웬은 시중을 들게 된 이유를 까먹은 게 분명했다.

나는 침대 맡에 풀어놓은 검을 끌어당겼다.

“나도 검을 쓰는데? 너보다 훨씬 잘 써. 까먹었어?”

그웬은 대답 없이 잠자코 하던 일을 마저 끝냈다. 마땅한 대답을 찾는 것인지 놈의 표정이 미약하게 굳어 있었다. 그가 향유로 번들거리는 손을 깨끗한 천에 닦는 동안 나는 발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꾸물꾸물 몸을 올려 침대에 누웠다. 방 안엔 향긋한 장미 향과 그웬의 냄새가 섞여 떠돌고 있었다. 열어둔 창문 사이로 선선한 바람이 들어왔다. 몸이 노곤하게 풀려 침대 속으로 가라앉는 느낌이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내 시종 노릇도 못하겠다며? 네가 맡은 일은 어쩌고 따라오겠대?”

턱을 괴고 옆으로 몸을 굴리자 평소처럼 빠르게 뒷정리를 끝내지 못하고 여전히 한쪽 무릎을 꿇은 채 굳어 있는 그웬이 보였다. 그웬은 주저하는 태도로 입을 뗐다.

“제가 없으면... 잠은 어떻게 주무실 겁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그웬이 그런 헛소리를 할 줄 몰랐기에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다. 그웬의 얼굴에 읽을 수도 없는 찰나에 어떤 감정이 스치고 지나갔다. 너무 순식간이라 나는 그웬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그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봤다.

“너 없을 때도 잠은 잤어.”

그웬이 있으면 수면 향을 태우는 것처럼 편안하게 잠에 빠져드는 건 사실이지만 없다고 잠을 못 자는 건 아니었다. 다만 잠이 들어도 계속 예민한 상태로 불편하게 잘 뿐이었다.

그웬은 드물게도 시선을 회피하며 내 집요한 시선을 모르는 척 뒷정리를 했다. 향유병 뚜껑을 닫는 유리 부딪치는 소리만 작게 들렸다. 그웬은 캐묻는다고 냉큼 대답할 성격도 아니라 나는 놈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벌써 깜빡깜빡 눈이 감겼기 때문이다.

그웬이 합류하면 여행길이 편해질 테니 말릴 이유도 없었다.

순간이동 마법을 쓰지 않고 사람들과 섞여 이동하는 건 나에겐 지나치게 피곤한 일이라 귀찮은 일을 대신할 사람이 있으면 편했다.

“네 마음대로 해.”

“같이 가겠습니다.”

마법등의 조도를 낮춘 그웬이 침대로 올라왔다. 익숙한 체온이 내 몸을 감싸는 게 느껴졌다. 머리를 쓰다듬는 손길을 느끼며 나는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다.

그웬이 어떻게 말을 전했는지 몰라도 하루가 멀다 하고 옐츠란은 내 방에 찾아와 온갖 투덜거리는 소리를 늘어놓았다. 다양한 헛소리를 하나로 압축하자면 너 데려가기도 힘든데 그웬까지 같이 간다니 재앙이 따로 없다는 소리였다. 옐츠란은 귀찮게 굴면 짜증난 내가 따라가길 포기하던가 그웬을 따라오지 못하게 할 거라고 생각했나보다.

하지만 나는 빌빌거리는 헤나드의 모습을 머릿속에서 좀처럼 지우지 못한 터라 창고에서 가져온 책을 읽는 일 외엔 신경을 쏟아붓기 싫었다.

그래서 옐츠란을 창밖으로 던져버리거나 그웬에게 해결을 요구하기보단 옐츠란에게 소리차단마법을 거는 방법을 택했다.

축복과 저주에 관련된 책은 눈에 띄는 대로 들고 와서 방 안은 점점 옐츠란의 연구실과 다른 바 없는 풍경으로 변했다. 옐츠란은 이틀간은 소리 없는 불평불만을 늘어놓다가 방 안의 책이 점점 늘어나자 호기심 어린 얼굴로 기웃대기 시작했다. 마도어로 쓴 책이 섞여 있을까 봐 건드리지도 못하게 해서 놈은 지붕 위의 떡 아니지, 개가 못 먹는 닭이었던가? 을 쳐다보듯 책표지만 힐끔댔다.

옐츠란의 투덜거림이 나에게는 통하지 않았지만 데블랑과 다른 사람들에겐 통한 모양이다. 결국 그웬은 같이 가지 못하게 됐다.

옐츠란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방으로 찾아와 그 소식을 전했다. 내가 그웬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명령했고 그웬이 그러겠노라 했어도 결국 최종결정자는 데블랑이었다. 데블랑은 여전히 신전의 수배를 받고있는 그웬이 페이퍼트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라무는 타국의 도시지만, 지금은 조심해야 할 때였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소식에 조금 짜증이 났다. 그웬이 같이 가면 편한 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데블랑을 설득까지 해서 판단을 바꾸어놓고 싶지 않았기에 나는 책을 읽으며 시큰둥하게 알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날 저녁, 평소와 같이 시중을 들기 위한 준비를 해 온 그웬의 뒤로 잔뜩 심통 난 표정의 옐츠란이 따라왔다.

옐츠란은 남의 침실로 불쑥 들어온 주제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의 본론만 말했다.

“라무에 그웬도 같이 가게 됐고, 우리는 내일 아침 바로 출발할 거야.”

내가 인상을 팍 찌푸리자 그웬은 알아서 의미를 파악하고 풀어서 얘기했다.

“신전 쪽에서 페이퍼트로 성직자를 파견한다더군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대꺾기 도망자들은 잠깐 페이퍼트를 떠나 있어야 합니다. 페이퍼트는 마법사의 도시라서 허락받지 않은 외부인은 들어올 수 없지만, 파견 후에 통보하는 과격한 방식으로 방문을 알렸습니다. 맬런교의 요청을 거절할 수도 없어서 결국 허가를 내린 상태입니다. 명목은 교리 설파라지만, 2품의 고위급 성직자가 이 먼 곳까지 교리를 설파하러 내려오진 않겠죠.”

아무리 입단속을 하고 외부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해도 한적하던 페이퍼트 성에 사람이 자꾸 드나드니 소문이 퍼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그 부분을 대비해 데블랑이 왕위를 노려 세력을 모으고 있다는 말을 일부러 같이 흘려놓았다. 가끔 그 소문에 홀려 데블랑에게 도박을 걸어보려 페이퍼트를 찾는 하급 귀족처럼 맬런교도 데블랑의 가능성을 점쳐보려 이곳에 오는 게 분명했다.

신전에 명백하게 적대적인 데블랑의 누이 에슬라네 보다 태도가 모호한 데블랑이 왕위에 오르는 게 신전 측에선 이득이었다. 적지 않은 세력이 이곳에 모여있는 것을 보면 데블랑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안달일 것이다. 데블랑 쪽에서 보자면 번거롭고 경계해야 할 참견이지만.

이곳에 모인 귀족들은 마법왕국을 재건한다는 사명을 짊어진 채 에슬라네의 지휘 아래 움직이고 있었다. 마도시대의 유물을 찾아 그것을 이용한다는 세세한 계획은 데블랑, 그웬, 옐츠란 그리고 나까지 네 명밖에 모르는데도 불확실한 미래에 사활을 걸 만큼 믿을만한 자들이었다.

하지만 국교를 저버리는, 신을 등지는 일을 할 만큼 권력욕이 강한 자들이었다. 마법 왕국을 재건하는 것보다 데블랑을 왕위에 올리는 게 더 이득이라면 데블랑을 꼬드길 수도 있었다. 데블랑은 넘어가지 않겠지만 얘기해보니 애초에 별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에슬라네 입장에선 부담을 껴안고 자기 팔 한쪽을 떼어준 것이다. 신성 국가에서 신성을 없애버릴 결정을 한 사람답게 대범한 처사다.

속으로 잘됐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시큰둥한 태도로 대답했다.

“그래? 그럼 출발할 때 나를 깨워.”

가져왔던 책을 다 읽고 전부 필요 없는 것뿐이라 전부 다시 창고에 갖다 놓아서 방 안은 휑해져 있었다. 옐츠란은 책이 사라져 깨끗해진 탁자를 조금 섭섭한 눈길로 바라보다가 그웬이 내 시중을 드는 모습을 보고 기겁했다.

“뭐야, 왜...? 왜 레티시아의 발을 네가 씻겨주는 거야?”

그웬은 평소와 같이 자기 일을 할 뿐이었다. 옐츠란이 끔찍하다는 듯 몸서리를 쳐도 그웬은 어디서 개가 짖네. 하는 표정으로 내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닦고 있었다.

옐츠란은 우리를 아주 이상하다는 얼굴로 쳐다보고 있지만 내 눈엔 옐츠란이 더 이상했다.

“내 시종이니까?”

“뭐야, 잠깐... 그러면 내가 들었던 소문이 농담이 아니라 진짜였다고?”

“무슨 소문?”

“그웬이 너랑 한 대련에 져서 시종이 됐다는 소문...”

“그거라면 사실 맞아. 너는 그 자리에 없었던가? 처음 다 같이 모였던 연회에서 식후주 할 때 말이야.”

옐츠란은 기억을 더듬는 듯 살짝 인상을 찌푸렸다.

“아, 그때... 난 다 같이 술 마시는 자리는 싫어해서 먼저 방에 들어갔어.”

대충 설명을 듣고 나자 그웬이 내 발을 씻겨주는 모습이 더는 이상해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옐츠란은 웃음을 참는 표정으로 아예 구경할 생각인지 그웬의 얼굴이 잘 보이는 각도에 의자를 끌어다 앉았다.

“직접 못 본 게 아쉽네. 그렇게 재밌는 일이 있었는지 알았다면 계속 남아 있을걸. 그웬, 지금 모습 딱 보기 좋네. 하는 김에 내 발도 씻겨줄래?”

그웬은 다 씻긴 내 발을 마른 천으로 감싼 뒤 비눗물이 담긴 대야를 들고 차분하게 일어섰다. 대야를 든 그웬이 가까이 다가오자 불안감을 느낀건지 옐츠란이 슬쩍 몸을 뒤로 뺐다.

“뭐야? 왜 가까이 오는 거야?”

그웬은 한 손을 오목하게 만들어 물을 퍼담더니 옐츠란에게 뿌리기 시작했다.

옐츠란은 기겁하면서 피했지만 그웬이 작정하고 뿌리는 터라 옷소매로 얼굴을 가리는 게 고작이었다. 종일 침대에서 뒹굴거려서 더럽지도 않은데 왜 저렇게 질색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발 씻은 물이면 성수급 아닌가?

그웬은 물을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야째로 부으려고 자세를 잡았다. 옐츠란은 결국 욕을 퍼부으며 방 밖으로 도망쳤다.

나는 팔짱을 끼고 쳐다보다가 옐츠란을 쫓아가려는 그웬을 불렀다. 그웬은 나를 돌아보더니 웃음을 얼굴에서 지우며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난 타박하려고 그를 부른 게 아니었다. 옐츠란과 그웬은 한창 장난칠 나이 아닌가.

“아니, 쫓아가서 부으려면 제대로 부으라고 말하려고 했어.”

그웬의 얼굴에 장난기 가득한 웃음이 서서히 번졌다. 그웬은 금세 몸을 돌려 옐츠란을 쫓아갔고 얼마 못 가 허약한 마법사는 따라잡혔다. 발걸음이 뒤엉키는 소리, 물이 쏟아지는 소리와 옐츠란이 비명 지르는 소리가 한데 섞였다. 옐츠란이 소리 높여 그웬의 정신상태를 의심하고 공감 능력의 결핍을 걱정하는 동안 그웬은 큰 소리로 웃었다. 처음 들어보는 웃음소리 위로 아까 보았던 장난기 가득한 얼굴이 겹쳐졌다.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를 듣고 나서야 나도 모르게 따라서 웃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과거 그웬의 오만방자한 모습을 조금 용서해주기로 했다.

우리는 새벽이라고 부르기도 모호할 때 짙게 깔린 어둠을 융단 삼아 말을 타고 성에서 빠져나왔다. 한참 말을 달리다 보니 새벽의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조금 축축하고 시원한 냄새. 새소리가 귀 따갑게 들리고 사방이 밝아왔다.

완연한 아침이 되었을 때 우리는 페이퍼트에 오기 위해 이용했던 순간이동 마법진에 도착했다. 날이 밝았지만 아직 담당마법사가 출근하지 않아 문이 잠겨있었다. 이렇게 작은 영지에서 순간이동마법진을 이용하는 일은 흔치 않기 때문이리라. 옐츠란은 품을 뒤지더니 열쇠를 꺼내 들었다.

“내가 이러려고 영주를 맡은 거 같아.”

옐츠란은 문을 열며 소소한 권력에 기뻐했다. 내가 이곳의 총 관리를 맡고 있거든, 영주라서. 라고 덧붙였지만 내가 보기엔 일손을 줄이기 위해 마법사인 옐츠란에게 떠맡긴 게 분명했다.

옐츠란은 한 두 번 해본 게 아닌 솜씨로 익숙하게 마법진 발동을 위한 준비를 끝마쳤다. 종종 영지로 와 손을 빌려주는사실은 부려먹는 모양인데, 영주만큼 영지인들도 뻔뻔하다 해야 할지 담이 크다 해야 할지. 옐츠란은 내 표정에 의아한 낯을 하며 나와 그웬이 마법진 안에 제대로 서도록 이끌었다.

“라무에는 마법진이 설치되어있지 않아서 제일 가까운 마을으로 워프할거야. 거기서 반나절 정도 걸어가면 라무야.”

“왜 라무에는 마법진이 없어? 책을 파는 도시인데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기 쉽게 하나쯤 설치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음... 가서 보면 알 텐데, 도시가 되게 방화에 취약하게 생겼어. 가끔 불 지르려는 미친 사람이 들어와서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편이야. 개인 구매자는 나처럼 믿을만한 단체가 공증을 해줘야 거래할 수 있어.”

“도시에 불을 왜 질러?”

옐츠란은 별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는 표정을 지었다.

“몰라. 그러니까 미친놈이지,”

그런 미친놈이 나오는데 활활 탈 만한 걸 잔뜩 쌓아두고 사는 라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도시를 계획하고 만드는게 아니라 방화에 취약한 구조가 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쳐도 직접 보진 않았지만, 터무니없는 구조일 게 뻔했다. 책을 판다고 해서 책을 많이 읽는다는 뜻은 아닌가 보다. 하긴, 글도 모르면서 책을 파는 책장수를 본 적도 있었다.

옐츠란은 직접 이동시키는 일엔 익숙지 않아 멀미가 나고 구토를 할 수 있으니 또? 하는 표정으로 옐츠란을 쳐다보자 옐츠란은 나뿐만 아니라 전부. 하고 인상을 썼다. 토할 것 같으면 회관에 있는 구토 통으로 곧장 뛰어가라고 말했다.

옐츠란은 구토 통이 어떤 모양인지 보여주고 토하는 시늉까지 하며 절대 자기를 향해 토하지 말라고 세 번이나 당부했다.

그 꼬락서니가 재수 없어 옐츠란이 마법진에 박힌 마나석에 마나를 채우는 사이에 나는 슬쩍 그웬에게 사탕 하나를 건넸다. 마법진 부작용에 의한 멀미를 없애주는 멀미 사탕이었다. 마법길드에서 하나 당 1벨이라는 저렴한 가격이 살 수 있고 상큼한 레몬 맛도 났다. 내가 사탕을 입에 털어 넣자 그웬은 눈치 빠르게 아무 말도 묻지 않고 따라서 사탕을 입에 넣었다. 우리가 아무 일도 없는 척 감쪽같이 서 있는 동안 옐츠란은 마법진을 발동시켰다. 옐츠란은 도착하자마자 혼자 창백한 안색으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바닥을 뒹굴다시피 해서 겨우 구토 통으로 가 토하기 시작했다. 회관에 있던 담당 마법사와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 몇이 옐츠란을 쳐다봤다.

“우욱... 우웨엑.”

나는 옐츠란이 아침에 뭘 먹었는지 굳이 확인하고 싶지 않아 멀리 비켜섰다. 혐오스러운 시선으로 옐츠란을 보는 그웬도 나를 따라왔다. 옐츠란은 얼굴을 처박고 토하는 와중에 눈을 모로 뜨고 우리를 쳐다봤다. 왜 너희는 멀쩡하냐고 묻는 듯한 눈빛이라 나는 딴청을 피우며 사탕을 입안에서 굴렸다. 그웬은 낮게 으. 하는 소리를 낼 뿐이었다. 옐츠란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듯했지만 입은 하나뿐이라 토하면서 동시에 말할 순 없으므로 놈에겐 안타까운 일이었다. 나는 우리에게 쏟아지는 시선 때문에 입을 열었다.

"별로 친한 사이는 아니니까 쳐다보지 마."

옐츠란은 걸어가는 내내 투덜거렸다.

‘라무에 데려가는 것도 나고 마법진을 발동 시킨 것도 난데 나만 빼놓고 멀미 사탕을 먹어?’ ‘담당 마법사가 오니까 왜 나를 모르는 척해?’ ‘세 명 이상 다니면 한 명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이죠. 그게 할 소리야?’

나와 그웬은 듣는 척하면서 옐츠란의 뒤로 빠져 입 모양만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별 내용은 아니었다. 시끄러워. 언제 끝나? 듣기 싫다. 같은 것들. 간간이 대꾸를 원하는 옐츠란이 눈을 부라리며 뒤를 돌아보면 우리는 참회하며 길을 걷는 순례자처럼 땅만 보고 걸었다. 괜히 옐츠란의 화를 돋워 투덜거리는 소리를 더 듣거나 두고 간다고 훌쩍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옐츠란은 얼마 안 가 기분이 풀렸는지 라무에 관해 떠들기 시작했다. 참 다루기 쉬운 놈이다.

“둘 다 라무에 가본 적 없다 했지? 가면 정말 신기할 거야. 왕궁에 드나드는 책장수도 주문 받은 책에 몇 권만 더 해서 가지고 오잖아. 기껏해야 열댓 권 정도? 근데 라무에선 책을 쌓아두고 팔아. 마법사의 연구실처럼. 거기다가 각자 책 창고가 따로 있대.”

뭐, 서점만 모인 도시 같은 느낌인가? 전의 세계가 책이 그리 귀했던 곳이 아니라서 아무리 옐츠란이 대단한 곳을 얘기하듯 해도 감흥이 오지 않았다. 책에 별 관심 없어 보이는 그웬도 마찬가지인지 옐츠란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고 풍경이나 구경했다. 드래곤의 보물창고를 가는 것처럼 들뜬 건 옐츠란뿐이었다.

“정말 별의 별책이 다 있어. 책 제목을 몰라도 읽고 싶은 내용을 말하면 책을 찾아주더라. 없다면 써주기도 한대.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 들어가는 책은 불가능하지만, 소설 같은 건 돈만 주면 된다더라. 라무에는 작가들도 꽤 살고 있다나 봐. 관심 있으면 괜찮은 작가를 알려줄게.”

“주문해본 적 있어?”

“아니, 다른 사람이 주문한 책을 읽어 본 적은 있어. 꽤 잘 썼던데.”

“무슨 내용이었는데?”

옐츠란은 대답을 머뭇거리는 태도였다. 완벽한 밤을 위하여 라는 제목을 보고 내가 떠올린 내용이었나? 내가 음흉하게 웃자 옐츠란은 의아한 표정을 짓다가 자리에서 거의 펄쩍 뛰었다.

“그런 내용 아니야! 그냥... 현대의 마법사가 마도시대로 시간 역행을 해서 비밀을 푸는 소설이었어!”

나는 시치미를 뚝 떼기로 하고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런 내용 아니라니?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거지?”

옐츠란이 민망한지 입을 꾹 다물길래 더 놀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나는 옐츠란 놀리기 자격증이내가 발급한 있는 그웬을 끌어들였다.

“그웬, 옐츠란이 말한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글쎄요... 저는 옐츠란이 말했을 때 당연히 현대의 마법사가 마도 시대로 시간 역행을 해 비밀을 푸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해서 잘 모르겠네요.”

“그렇지? 나도 딱 그렇게 생각해서 옐츠란의 말을 이해 못 하겠네.”

옐츠란은 손발이 척척 맞는 그웬과 내가 기가 찬 지 팔짱을 끼고 빠르게 걸어가 버렸다. 더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의미 같았지만 별 소용은 없었다. 다듬어 놓은 흙길에서조차 미끄러져 넘어지려고 해서 내가 놈을 붙들었기 때문이다. 잡을 데가 마땅치 않아 로브의 모자 부분을 잡았기에 옐츠란은 한동안 목을 만지며 켁켁 대는 소리를 냈다. 그웬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옐츠란을 봤다.

옐츠란은 발밑을 조심하면서 걸었지만, 마차 바퀴 때문에 파인 땅을 밟다가 다시 한번 비틀거렸다. 나는 황당해서 중얼거렸다.

“중간 이름이 꽈당 아니야? 옐츠란 꽈당 페이퍼트.”

“구토도 들어갈 거 같은데요. 옐츠란 꽈당 구토 페이퍼트.”

옐츠란은 “마음대로 생각해.” 하고 대답했지만 민망한 낯은 숨기지 못했다. 남자가 저렇게 하체가 부실해서 어디다 쓸꼬... 쯧쯧. 그웬은 이해할 수 없다는 투로 물었다.

“신발에 기름칠이라도 했어? 세 살짜리 어린애도 너보다 잘 걷겠다.”

“그런 거 아니거든.”

그렇게 대꾸해놓고 옐츠란은 슬쩍 발을 들어 밑창을 확인했다. 밑창은 홈도 없이 매끈해서 나와 그웬은 동시에 어이없어져 헛웃음을 터트렸다.

“너 왜 그런 신발을 신고 온 거야?”

“왜? 무슨 문제 있어?”

그웬은 발을 들어 자기 신발의 밑창을 보여줬다. 일부러 홈을 내어 거칠게 만든 밑창이었다. 옐츠란이 나를 쳐다보길래 나도 마찬가지로 거친 밑창을 보여줬다. 옐츠란은 잠깐 생각하는듯 하더니 어어, 하고 멍청한 소리를 냈다.

“한 번도 왜 그런지 생각해본 적 없어서 그냥 무늬라고 생각했어.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렇게 만들었구나. 왜 그 생각을 못 했지?”

옐츠란이 정말 마탑에서만 살았다는 것이 실감 났다. 유물을 찾을 때까지 이런 놈이랑 같이 다녀야 한다는 거지? 이미 한 배를 탔으니 이제 와서 도망가진 않을 거지만 앞길이 구만리처럼 느껴졌다. 아무것도 모르는 놈을 데려다가 쓸만하게 만드는 일은 취향이 아니었다. 그래서 최근 몇십 년간 노련한 용병이나 모험가와 같이 다녔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에 관해 묻지 않는 만큼 나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줄곧 평행선을 그리다 결실 없이 헤어졌다. 사람과 섞여 살려면 이것 또한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겠지. 무심코 피곤한 표정을 지었는지 그웬과 옐츠란이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왜?"

"아니,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방금 되게 나이 든 사람 같았어. 늙어 보인다는 말이 아니라... 표현하기가 어렵네. 연륜?"

나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도 들은 듯 웃었다. 옐츠란은 이상 한데서 예리한 구석이 있었다.

"연륜이 눈에 보인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그웬 너도 느꼈지?"

그웬은 나를 쳐다봤다. 어떻게 대답해야할지 내 표정을 살피는 눈빛이었다. 그웬은 옐츠란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원하는 답을 얻어갔다.

"다른 사람도 아닌 네가 그런 걸 느꼈다고? 일단 내 표정부터 읽어보는 게 어때? 이게 무슨 표정인 줄 알아?"

그웬은 자기 얼굴을 가리키고 억지 미소를 지었다.

"빨리 가자는 표정이야."

빨리 가지 않으면 칼로 찌를 것 같은 표정이었기에 옐츠란은 입을 꾹 다물고 걸음을 재촉했다. 제일 말이 많은 옐츠란이 조용해지자 라무로 향하는 길은 평화로웠다.

단 한 가지,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큰 문제가 있다면 아무도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아침은 먹었고 라무까진 걸어서 반나절이니 라무에서 점심을 해결하면 된다는 계획이 화근이었다. 운동량이 많으면 당연히 배가 빨리 꺼진다. 우리는 가야 할 길의 절반쯤 걸었을 때 손을 덜덜 떨면서 작은 열매라도 맺힌 게 없나 샅샅이 살피고 있었다.

“맨날 주머니에서 음식을 쏟아내더니만 왜 하필 오늘은 없냐.”

“주머니에 물건을 너무 많이 넣으면 찾기 힘들단 말이야. 특히 음식은 더 짜증 나. 손거울을 잡으려다가 칠면조 다리를 잡으면 얼마나 짜증 나는지 알기나 해? 당연히 모르겠지.”

“그럼 적당히 넣어놓으면 되잖아. 왜 하나도 없어?”

“빠진 만큼 채워 넣어야지 있지. 너희가 돼지처럼 다 처먹었잖아.”

“저희가 다 먹진 않았습니다. 레티시아.”

그동안 고분고분하더니 배고프다고 나한테 말대꾸를 해? 내가 노려보자 그웬은 “네... 제가 돼지처럼 다 처먹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하고 마지못해 잘못을 시인했다. 옐츠란은 그웬에게 대련의 대가로 영혼을 저당 잡힌 거냐는 헛소리를 지껄였다. 배고파서 예민해진 내 귀엔 그 소리도 고깝게 들렸다. 한 번 더 헛소리를 했다간 옐츠란의 팔을 뜯어먹을 거다. 진심이다.

지금 같은 경우엔 텔레포트도 소용없었다. 마법에 대한 문외한은 순간 이동해서 라무에 가면 되는거 아니냐고 생각하겠지만 아까 그웬처럼 장거리 이동은 고정된 좌푯값이 필요했다. 고정된 좌푯값이란 이동할 물체 부피만큼의 좌표 범위였다. 자전 때문에 생기는 오차의 여유 공간도 포함해서. 순간이동은 여기에 있는 나를 저곳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지정된 좌푯값에 나를 소환하는 마법이다. 쉽게 말하자면 이동할 물체의 부피만큼 좌푯값의 공간을 교환하는 일이라는 뜻이다. 그 때문에 몇 가지 문제점을 초래하는데, 내가 이동할 위치에 성벽이 있다면 영락없이 몸에 꽉 맞는 돌로 된 관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곳에 사람이 있었다면 남의 따뜻한 뱃속에 내 오른손이 들어갈지도 모를 일이다. 나는 배가 좀 사실 많이 고프다고 남의 장기 위치를 재배치할 만큼 성격파탄자가 아니다.

현재 내가 아는 고정좌표는 던전과 페이퍼트뿐이었다. 음식을 죄다 쓸어와서 던전은 텅 비어있고 페이퍼트에는 파견된 성직자 때문에 갈 수 없었다. 옐츠란은 라무의 좌푯값을 알겠지만 마법진 없이 세 명을 텔레포트 시키는 일은 나같은 분이 아니고서야 어려운 일이다. 좌푯값은 이름과 다르게 숫자로 된 수치가 아니라 스스로 느끼는 감각 같은 거라 남에게 전해 줄 수도 없었다. 쓸모없는 옐츠란.

반나절이라더니 너희 다 죽고 나서 도착하겠다고 옐츠란의 다리를 걷어차 주려는데 눈에 보일 만큼 라무가 지척이었다. 생각보다 더 터무니없게 생긴 도시었다. 건물들이 하나의 벽으로 다 이어진 것 같았다. 이어진 벽은 성벽이라고 할 만큼 높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발돋움을 해 안을 들여다볼 만큼 낮은 담장도 아니었다. 사람 키의 1.5배 정도 되는 벽은 산호초와 조개 부스러기를 섞은 흙으로 만들어져 우둘투둘하고 적색 빛이 돌았다. 별로 심미적이진 않았지만 특색있긴 했다.

얼마 안 가 옐츠란 눈에도 보이는 모양인지 반가운 목소리를 했다.

“저기야, 저기가 라무야.”

옐츠란은 라무가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편이라고 했지만, 전혀 아니었다. 라무에는 성문이나 문지기조차 없었다. 도시 밖으로 난 길이 너무 많아 어딜 지켜야 할지 헷갈리니 아예 포기한 건가. 흠, 일리가 있는 말이다. 나는 가끔 소름이 끼칠 만큼 예리하다. 우리는 누구의 제지 없이 손쉽게 라무에 들어갔다. 가벼운 무장을 한 경비병 두어 명이 우리를 보고 눈짓으로 인사했다. 그웬이 옐츠란에게 비아냥댔다.

“정말 삼엄한 경비군.”

“라무의 정확한 위치를 아는 것 자체가 거래가 가능한 사람이란 뜻이야, 그리고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이 둘레엔 마탑에서 설치한 결계 마법이 있어. 경비병이 없다고 아무나 들여보내 주는 건 아니야.”

옐츠란은 페이퍼트보다 라무를 사랑하는 것 같았다. 그게 아니라면 제가 욕먹은 것처럼 변명할 이유가 없었다. 옐츠란이 옆에 붙어 결계 마법의 원리에 관해 설명하는 동안 그웬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듯한 표정으로 경비병력을 꼼꼼히 살폈다. 옐츠란과 주고받는 얘기를 들어보니 페르디낭의 수도에 결계마법을 도입할 수 있느냐에 대해 실랑이를 하는 듯했다. 옐츠란은 마법사답게 일반인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하며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그웬은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막무가내식으로 옐츠란을 닦달했다.

우리는 한 줄로 서서 사람 두 명이 간신히 지나갈 정도의 좁은 길을 걸었다. 큰길을 두고 왜 샛길로 들어왔지? 라고 생각했지만 얼마 안 가 라무에는 큰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라무는 녹아내린 엿가락을 이리저리 늘여서 제멋대로 방치한 것처럼 길이 나 있었다.

나는 라무를 왜 도시라고 부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도시가 아니라 미로라고 불러야 하는 거 아닌가? 만약 도시인 척 실력 있는 작가들을 꾀어내 라무에 가두려는 목적이라면 감옥치곤 훌륭한 위장이었다.

골목길엔 드문드문 이 벽과 저 벽을 이은 차양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늘을 지나갈 때면 머리 위를 달구는 햇빛이 사라져 답답한 좁은 길이지만 걸을 만 했다.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사람과 마주칠 때면 우리는 모퉁이를 돌아 다른 길로 돌아갔다.

길 사이로 가끔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별다른 처리를 해놓지 않았는지 벽에 바른 흙은 살짝 닿기만 해도 푸스스 마른 모래를 떨궜다. 길은 규칙성 없이 사방으로 이어져 있었다. 나는 옐츠란이 올바로 가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심지어 우리는 남의 집 앞마당을 가로지르기까지 했다. 옐츠란은 남의 집을 가로지르는 길은 라무에서 흔하다고 말했다. 안뜰과 바깥뜰이 구분되어 있는데 바깥뜰은 보행자들을 위해 내어준 곳이라고 했다. 애초에 집에서 집으로 이어지는 형식으로 길이 생겼기 때문이다. 집 하나를 더 지나고 나서야 우리는 식당에 도착했다. 멋들어진 글씨로 '예제프의 라자냐'라고 적힌 간판이 달린 곳이었다. 옐츠란은 들어가면서 동시에 주문을 크게 외쳤다.

"아무거나 제일 빨리 되는 거로 적당히!"

제일 빨리 되는 거로 아무거나 적당히라는 주문으로 나온 건 오래 끓여 건더기가 두부처럼 풀어진 스튜였다. 당근이고 감자고 할 것 없이 죄다 흐물흐물하고 바닥에 눌어붙어 탄 덩어리 같은 것도 있었지만 우리는 얼굴을 처박고 대화 없이 스튜를 퍼먹었다. 오래 끓여서 그런지 진하고 깊은 맛이 있어서 꽤 먹을 만했다. 배가 고파서 맛을 느낄 새도 없이 삼켜서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다.

급하게 배는 채웠지만 아쉬운 얼굴로 앉아있으니 수염 자국이 가득한 남자가 아마 이 가게의 주인 예제프겠지. “라자냐?” 하고 물어봤다. 우리는 망설임 없이 라자냐를 시켰다.

점심때를 조금 넘긴 시간이라 그런지 가게는 한산했다. 보통 여관과 식당을 겸업하는데 예제프의 라자냐라는 식당만 하는 곳인 것 같았다. 음식 냄새가 밴 닳아서 반질반질한 나무식탁이 실내장식 전부였다. 나는 좁고 보잘것없는 내부에 금세 가게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렸다.

하긴 라무는 숙박업이 성행할 도시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길이 이렇게 거지 같은 동네에서 누가 오래 묵으려고 하겠는가, 라무에 주로 오는 사람들이 상인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도둑이라도 들면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도시에서 하루빨리 뜨고 싶을 거다.

옐츠란은 혼자 놀이동산이라도 온 듯 설레는 표정으로 품에서 사고 싶은 책을 적어놓은 종이를 꺼냈다. 나도 본질은 검사보다 마법사에 가까웠기에 덩달아 슬그머니 기분이 좋아졌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쿰쿰한 책 냄새가 좋았다. 책을 펼쳐놓고 볼 때의 무게감도 좋았다. 이 세계로 넘어오기 전 삶 혹은 과거의 시간 중 어떤 기억이 영향을 끼쳐서 그런 거겠지.

나는 돈을 낭비하고 싶을 때 질 좋은 정보를 담은 책이 드물어도 책을 한껏 사들이곤 했다. 그렇게 산 책 대부분이 내 창고에 처박혀있다.

식당 가득 토마토소스 냄새가 퍼질 때 손님이 한 둘씩 들어오더니 라자냐가 나왔을 땐 가게의 절반이 차 있었다. 예제프가 닫힌 문을 두드리자 자다 나온 듯한 소년이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주문을 받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시키는 음식은 죄다 똑같았다. ‘토마토 스파게티.’

갑자기 라자냐를 시킨 게 잘못된 선택 같았다. 우리는 서로 눈짓으로 의아함을 주고받았다. 예제프의 라자냐인데 왜 다들 토마토 스파게티를 시키지?

하지만 이미 음식이 나왔기 때문에 주문을 취소할 수 없었다.

라자냐는 의혹을 잠재울 만큼 맛있어 보였다. 그웬의 손만 한 크기의 사각 접시에 담긴 라자냐는 거짓말로도 적다고 할 양이 아니었다. 위에 듬뿍 올린 모차렐라 치즈는 오븐에서 노릇노릇 녹아 라자냐를 덮고 있었다. 뜨거운 그릇 때문에 눌어붙은 가장자리가 식욕을 돋우는 갈색빛을 띠었다.

먹어보고 맛없으면 그웬 줘야지. 나는 마음을 편하게 갖기로 했다.

“여기 유명한 곳인가 봐?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손님이 많네.”

“유명하다기보단 라무에 식당이 몇 개 없어. 여기랑 코첼라랑 또 어디더라... 아무튼 한 네 곳쯤 될걸? 꽤 큰 도시인데 식당이 별로 없더라.”

“다들 책만 사서 바로 가니까 그런가?”

내 혼잣말에 갑자기 건너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자가 불쑥 끼어들었다.

“그건 라무의 길 때문에 그렇소. 집을 통과해서 지나가니까 서로 다들 친하거든. 음식을 많이 해서 나누고, 저녁을 함께 먹고 하니 굳이 돈 주고 식당을 갈 필요가 없지. 식당에선 이렇게 우리처럼 식사 때를 놓친 사람들이 끼니를 때우는 정도요.”

그 남자를 시작으로 우리에게 관심 없는 척하고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이쪽을 향했다. 우리를 쳐다보지 않는 건 오직 종업원 혹은 예제프의 아들뿐이었다. 소년은 하품을 쩍하며 오크통에서 맥주를 따르고 있었다. 남자는 은근슬쩍 의자를 끌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그는 곁눈질로 옐츠란의 책 목록을 살펴보더니 “마법사 나리시군.” 하고 반가운 기색을 했다. 그리곤 저 쪽 테이블에 앉은 사람에게 손짓했다.

“해밀턴! 이리 와 봐! 자네 손님인 거 같은데.”

해밀턴이라 불린 사내는 옐츠란과 안면이 있는지 친근한 태도로 “오랜만에 라무에 오셨네.”하고 인사했지만 옐츠란은 전혀 기억 못 하는 표정이었다.

“전에 우리 가게에서 책을 서른 권 넘게 사 갔잖습니까.”

“아, 이제 기억나네요.”

여전히 기억 못 한 얼굴이었지만 옐츠란은 그렇게 말하며 해밀턴과 악수를 주고받았다.

해밀턴까지 우리 테이블로 오자 근처에 앉아있던 여자마저 우리 쪽으로 의자를 돌렸다.

“해밀턴네에서 서른 권? 마탑 분이신가? 내가 마법사분을 위해 부족하지만 글 몇 자 적어드릴 수 있는데... 마법사 전문으로 주문 제작 받는 작가라오. 리엘히라는 이름 못 들어보셨나?”

옐츠란은 순식간에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였다. 옐츠란은 처음 보는 사람이 말 붙이기 어려울 만큼 잘생긴 데다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날카로운 인상이었지만 장사꾼들은 놈이 호구라는 걸 단번에 간파한 듯했다. 옐츠란이 작성한 종이가 팔랑팔랑 이 사람 저 사람의 손에서 돌아다녔다. 옐츠란은 포크를 든채로 라자냐엔 손도 못 대고 있었다.

나는 그러건 말건 일단 라자냐에 집중하기로 했다. 라자냐는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었다. 고기 기름이 많긴 했지만, 잡내는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페스카인의 완벽한 미트 파이를 맛보고 난 이후라 미트 파이와 라자냐는 전혀 다른 요리인데도 비교돼서 입맛이 떨어졌다. 나는 몇 번 먹다가 말고 그웬에게 접시를 밀었다.

“입맛에 안 맞으십니까?”

“페스카인의 미트 파이가 갑자기 생각나서.”

“아...”

그웬이 이해한 표정을 하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며칠 전 페스카인은 내게 완벽한 미트 파이를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단지 너무 완벽해서 문제였다. 그 때문에 페이퍼트 사람들이 ‘완벽한 미트 파이’ 사건이라고 불리는 일이 발생했다

내가 퍼먹다가 배불러서 두 숟갈 정도 남겼는데 먹다 남은 음식임에도 먹음직스러워 시종장이 남은걸 먹었던 게 화근이었다. 끔찍할 정도로 재수 없는 놈이라는 악평을 듣던 그는 페스카인의 미트 파이를 먹고 눈물을 줄줄 흘리며 페이퍼트 성을 활보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반죽하던 모습이 생각난다고 아버지! 아버지! 하고 외치면서. 너무 선명한 아버지의 모습에 포옹할 거라며 그는 연못에 뛰어들었다. 시끄러운 소란에 모여들었던 구경꾼들이 겨우 그를 건져놓았다.

그는 파이의 맛이 너무 환상적이어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였다고 했지만 나와 페스카인은 파이에 들어간 소량의 마약 때문이라는 걸 알아챘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입을 닫았다.

시종장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정직당했고 사람들은 신분의 고저 할 거 없이 떠들썩한 문제를 일으킨 미트 파이의 맛을 궁금해했다. 내가 페스카인에게 미트 파이를 또 만들어달라 요청했을 때 어떻게 알고 왔는지 모여든 사람 때문에 주방에 갇혀서 못 나갈 정도였다. 세 개의 미트 파이가 만들어질 동안 재밌는 일이 있었지만 중요한 일은 아니니까 생략하고, 어쨌거나 그웬은 페스카인의 미트 파이를 맛본 행운아 중 한 명이었다. 그웬은 미트 파이를 떠올리는지 은근한 눈매로 입맛을 다셨다.

“페스카인 그자가 그런 재주가 있는지 상상도 못 했는데, 썩... 괜찮았죠.”

그 날 저녁 시중드는 내내 미트 파이 얘기만 했으면서 입은 살아서. 나는 어이없어서 피식 웃었다. 사실 훌륭했습니다. 그웬은 내 웃음에 말을 정정했다.

나와 그웬 사이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감돌자 말을 붙여볼 만하다 여겼는지 어느 상인 한 명이 친근하게 말을 건넸다.

“미트 파이? 요리법이 적힌 책을 찾고 계시는가? 에밀! 이쪽으로 와봐!”

이쪽을 보며 기회만 노리고 있었는지 부르는 소리를 들은 빨간 머리가 빠른 걸음으로 의자를 헤치고 왔다. 종업원이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토마토 스파게티를 내려놓고 “주문하신 음식 나왔습니다!” 하고 신경질적이게 소리쳤지만 다들 안중 밖이었다.

“무슨 파이? 무슨 파이라고 했죠? 말만 해요. 원한다면 개구리 파이를 만드는 책까지 있으니까요.”

그는 누가 요리책을 원했는지 가늠하는 얼굴로 나와 그웬을 번갈아 보다가 그웬의 곁에 섰다.

“아휴, 인물도 좋고 몸도 너무 좋으시네. 요리에도 관심 있다니 일등 신랑감이시네요.”

목록을 짚어가며 책이 있는지 없는지 해밀턴과 얘기하던 옐츠란은 당치도 않다는 듯 웃었다.

"쟤가 무슨 일등 신랑감이야. 그웬은 재료를 다 때려 넣고 끓이는 것밖에 할 줄 몰라요. 어울릴 것 같은 재료만 넣으라고 하면 먹고 안 죽으면 됐지. 하는 수준이라고요."

그웬은 거리낄 것 없다는 표정으로 대꾸했다.

"나는 전투 식량을 만드는 법밖에 몰라. 요리가 본업이 아니니까. 그래도 내가 맡은 일을 충실히 수행한 덕에 네가 아직 살아있는 거 아닌가? 너는 전혀 쓸모가 없었잖아."

괜히 그웬에게 시비를 걸었던 옐츠란은 본전도 못 찾고 입을 다물었다. 분위기가 조금 싸늘해졌지만, 에밀이 개의치 않는 척 웃으며 내게 말을 걸었다. 까칠해 보이는 그웬을 빠르게 포기하고 내게 책을 팔아볼 속셈인 듯했다.

"아가씨는 무슨 책을 사러 라무에 오신 건가요?

찾는 책이 있는지 없는지도 불확실한 마당에 책장수가 대신 찾아준다면 귀찮은 일을 덜게 될 터였다. 나는 정직하게 대답했다.

"생명력을 흡수해 영생을 사는 방법이나 모든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저주에 관한 책."

부산스럽던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직접 쓸 건 아니고 선물용인데."

내가 한마디를 덧붙였음에도 사람들은 나를 몹쓸 인간을 보듯 했다. 허무맹랑한 소문을 믿고 사술을 찾아다니는 부류인 줄 아는 모양이었다. 옐츠란과 그웬만이 내가 하는 말이 헛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듯 심각한 표정이었다.

"그게 왜 필요해?"

나는 대답하지 않고 입 주변만 대충 문질러 닦았다. 그리고 손에 묻은 소스는 그웬의 옷에 닦았다.

해밀턴이 내키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너 나 할 것 없이 호객행위를 하는 와중에 묵묵히 토마토 스파게티를 먹고 있던 사람을 불렀다.

"솔비아, 당신 손님인 거 같은데."

솔비아는 포크로 스파게티 면을 돌돌 말면서 담담하게 대꾸했다.

"비슷한 책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못 팔아. 며칠 전에 죽었거든."

책이 죽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는데 상인들은 아, 그럼 어쩔 수 없지 하는 기색으로 수긍했다. 내가 잠든 후 생긴 표현이라 이해 못 하는 건가? 살펴보니 그웬과 옐츠란도 영문을 모르는 표정이었다.

해밀턴이 우리 표정을 보고 식당이 떠나가라 껄껄대며 웃었다.

"아이고, 미안해요. 책이 죽었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됐겠지. 몇 달 전부터 이상한 도둑놈들이 말썽이라... 책을 그냥 훔쳐가는 게 아니라 찢고 불태우고 망쳐놓지. 우리끼리는 그걸 책을 죽였다고 한다오. 읽을 수 없게 된 책은 수명을 다 한 거나 마찬가지이니... 솔비아도 책학살단한테 거하게 털린 것 같군.”

토마토소스가 얼룩덜룩하게 묻은 앞치마를 입은 예제프가 주방에서 나와 질색하는 소리를 했다.

“책 학살단이라니, 하여간 책 장사꾼들은 뭐든 과장해서 말하길 좋아하지. 그냥 미친놈이지 책을 살해한다느니 학살이라느니 왜 그러나 몰라.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주니까 신나서 더 말썽인 거 아냐.”

리엘히는 콧잔등을 찌푸리며 두 손을 들었다.

“낭만을 전혀 모르는군.”

해밀턴도 한마디 거들었다.

“자네가 당해보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걸세. 책 한 권, 한 권 전부 내용을 훑어보고 들여오는 거라고. 그런 책이 너덜너덜하게 찢겨서 처형장에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에 미어지는 줄 아나?”

예제프는 솥뚜껑만 한 손으로 해밀턴의 등을 떠밀었다. 해밀턴은 예제프가 밀어대는 힘 때문에 거의 넘어질 듯 비틀댔다.

“내가 키운 토마토로 만든 스파게티를 퉁퉁 불리고 있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니니까 썩 먹고 꺼져. 여기가 무슨 시장바닥이야? 장사가 안 되는 건 알겠지만 오래간만에 온 손님 좀 편하게 드시게 두라고.”

“우리는 손님 아닌가?”

예제프는 말없이 나무주걱을 들어 올렸다. 토마토소스를 열심히 저었을 우람한 팔뚝에서 근육이 도드라졌다. 빨리 먹지 않으면 뺨이라도 후려치겠다는 뜻이 보여 상인들은 투덜대면서도 본인 자리로 돌아갔다. 해밀턴은 입에 파스타를 거의 욱여넣으면서 말했다.

“음식이 빨리 나오는 데다가 저렴한 가격만 아니었으면 여기 안 왔어. 우리 덕분에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사는데 손님을 이렇게 대하다니.”

“토마토 스파게티의 가격을 올리지 않은 게 뭐 때문이라 생각하나?”

“그렇게 말하면 할 말 없지. 고맙네, 친구.”

해밀턴은 목소리만큼이나 시원시원한 성격 같았다. 예제프는 순식간에 상황을 정리시키고 우리에게 편하게 드시라는 말과 함께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다. 종업원은 이제야 여유가 생겼는지 닦았던 테이블을 또 닦으며 우리를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다.

옐츠란은 치즈가 조금 굳은 라자냐를 먹으며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에 귀를 세우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 듯 소리를 낮춰 말했다.

“생명력을 흡수해 영생을 사는 방법이나 모든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저주에 관한 책? 그게 왜 필요한 건데? 네가 산다니까 진짜 할 것 같잖아. 누구한테 저주를 걸려고?”

그냥 순수하게 지적 호기심을 채울 수도 있는데 당연히 내가 저주를 걸 거라는걸 염두에 둔 표현이군. 그렇게 인성이 안 좋아 보이나? 내가 삐딱하게 그를 쳐다보자 옐츠란은 “설마 나?” 하고 두려운 표정을 했다.

“내가 관심 가지는 것을 일일이 너한테 보고할 필요는 없잖아. 신경 꺼.”

옐츠란은 순식간에 얼굴을 굳혔다. 화가 난 것 같기도 상처를 받은 것 같기도 한 표정이었다.

“보고? 내가 지금 너한테 보고하라고 한 거야? 나는 단지 궁금해서...”

놈은 말을 하다 말고 입을 다물었다. 잠깐 생각에 잠긴 듯했다. 맑은 하늘빛 눈동자가 내 얼굴을 살피다 시선을 돌렸다.

“아냐, 됐어. 그래. 신경 끌게.”

옐츠란은 섭섭한 티를 내며 말없이 라자냐를 먹었다. 이번엔 내가 말이 심했던 거 같긴 하다. 그웬은 우리가 하는 대화를 듣고 말이 조금 심하셨네요. 라고 말할 법도 한데 옐츠란이 상처를 받든 말든 관심도 없는 듯했다. 그냥 옷에 묻은 토마토소스를 보며 여기에 언제 묻었지? 하고 중얼거릴 뿐이었다.

해밀턴은 슬그머니 테이블째로 우리 쪽으로 붙어 옐츠란에게 말을 건넸다.

“잠깐만 기다려주시게. 빨리 먹을 테니 식사가 끝나면 같이 내 가게로 가세.”

우리 중 아무도 그러겠다고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해밀턴은 허겁지겁 스파게티를 입안에 넣었다. 너무 급하게 먹어 거의 세 번 만에 음식을 다 먹은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노력이 가상해서인지 옐츠란은 그에게 본론을 꺼냈다.

“사실 이 종이에 적힌 책은 있으면 사고 없으면 말 책들이지만 단 한 권. 꼭 사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메빌 실리어의 위대한 유언인데 있습니까?”

“메빌 실리어의 위대한 유언이라... 들어 본 거 같기도 하고... 나라고 책 제목을 전부 외우는 건 아니라서 말이요. 가서 확인해드릴게요.”

내 눈엔 어떻게든 가게로 끌어들여 책을 팔아보려는 수작 같아 보였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우리는 해밀턴을 따라가기로 했다. 가게를 나서려는데 솔비아가 내게 다가와 속삭였다.

“살해당한 책 말고 온전한 책 중에서 당신이 관심 가질 만한 책들을 골라놓을게요. 해밀턴네에서 볼일이 끝나면 들려주세요.”

그걸 왜 비밀이라도 되듯 속삭이는지 모르겠다. 미심쩍었지만 나는 그러겠노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해밀턴은 식당을 나오자마자 인상을 찌푸리고 문을 주시하며 투덜거렸다.

“다 같이 책 팔아 사는 처지지만 솔비아 가게에 가는 건 말리고 싶구려. 금서도 판다는 소문이 돌던데, 까딱하면 판매자고 구매자고 다 지하감옥행입니다. 라무의 지하감옥에 대해 들어보셨소?”

우리의 표정을 보고 유추한 것인지 해밀턴은 혼자 말을 이어나갔다.

“하수도와 함께 있어서 코가 썩을 정도의 악취가 나는 곳이라오. 벌금을 내면 쉽게 나올 수는 있지만, 간수를 만나기가 쉽지 않지. 간수조차 밑으로 잘 내려가지 않거든.”

한번 가 본 적이 있는데 한 달 동안 몸에서 악취가 얼마나 나던지! 해밀턴은 진저리치며 우리 보고 잘 따라오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길이 좁아 엇갈릴 일은 없을 테지만 꺾는 길이 많아 발걸음을 늦췄다간 길을 잃고 말 거라는 이유에서였다.

바깥은 여전히 건조하고 텁텁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나는 잠깐 서서 이국적인 풍경을 감상했다. 붉은빛이 도는 흙으로 지은 벽 때문에 사방이 노을에 잠긴 듯 보였지만 한편으론 삭막한 사막의 도시 같기도 했다. 펄럭이는 차양. 누군가의 집에 널어놓은 빨래도 같이 나부꼈다. 라무는 바깥으로 드러난 흰 개미집처럼 생겼다. 골목과 골목을 누비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소음이 귓가를 어지럽혔다.

인간들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국가를 세우고 성을 짓고 도시를 만들고, 잠깐 눈을 떼면 허물어져 초원이 되거나 다른 나라가 세워져 있다. 이 세계에서 천년에 가까운 시간을 살았지만 지겨운 풍경은 없었다. 조악한 솜씨로 나무와 진흙으로 집을 짓던 인간들이 독자적인 문화를 가질 정도로 발전하다니, 신기한 일이다.

내가 가만히 서 있자 옐츠란은 해밀턴을 따라가려다 말고 내게 다가왔다.

“벌써 한눈팔고 있군.”

옐츠란은 식당에서 한탕 한 게 생각 난 듯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손을 내밀었다.

“길을 잃을까 봐 그래. 마탑도 아니고 라무에서 길을 잃는다면 정말 찾기 힘드니까.”

나는 펜을 잡는 곳에 굳은살이 배긴 그의 손을 물끄러미 쳐다봤다.

“무슨 의미인지 몰라? 손을 잡자는 뜻이야.”

옐츠란은 영 어색해하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조금 부끄러워하는 기색이었다.

“또 신경 쓰지 말라고 할 거야? 이건...”

나는 옐츠란이 더 나불대기 전에 그의 손을 잡았다. 민망함을 참지 못해 아무 말이나 지껄이던 입이 다물어졌다. 옐츠란은 좀 더 편하게 내 손을 감싸 쥐었다. 해밀턴을 따라가던 그웬이 나와 옐츠란을 보고 미세하게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왔다. 갑자기 혼자 기분이 나빠진 듯한 그웬은 옐츠란의 손에서 내 손을 빼냈다.

“무슨 짓이지?”

그웬은 옐츠란이 파렴치한 짓이라도 한 듯 내 앞을 지키고 섰다. 전에 데블랑을 싸고 돌 때와 비슷한 느낌이었다. 나를 지켜야 할 대상에 포함이라도 한 것인지 그웬은 내 손을 붙잡은 채로 놓지 않았다. 그의 손바닥은 예쁜 선홍빛을 띠는 손톱과 다르게 두꺼운 굳은살 때문에 거칠거칠한 느낌이 들었다.

“눈만 떼면 딴 데로 사라져서 손을 잡고 가려고. 길 잃으면 큰일이니까.”

옐츠란은 그웬이 자길 대하는 태도 때문에 조금 짜증이 난 듯했다.

“내가 무슨 전염병이라도 걸렸어?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네.”

“그런 이유면 내가 보필할게.”

“보필?”

옐츠란은 어이가 없는지 한쪽 입꼬리만 올리며 헛웃음을 지었다. 싸늘한 인상이긴 했지만 맨날 멍청한 짓만 해서 몰랐는데 그런 표정을 지으니 정말 재수 없어 보였다.

“대단한 시종 납셨네. 적성에 맞나 봐?”

“맨땅에서도 혼자 넘어지는 네 손을 잡고 걷는 건 위험한 일 아닌가?”

옐츠란은 그 말에 화가 단단히 났는지 비어있는 내 손을 잡았다. 둘 다 찰흙이라도 쥐듯 살살 쥐고 있긴 했지만 나를 가운데 두고 서로 손을 잡겠다고 기 싸움을 하는 게 어이없었다.

내가 장난감도 아니고, 의사도 묻지 않고 자기들끼리 싸워? 건방진 놈들.

이번엔 내가 짜증을 낼 차례였다.

나는 마력을 실체화해 빛나는 끈을 만들어 옐츠란과 그웬에게 목줄처럼 채웠다. 손을 빼낸 다음 끈을 두 바퀴 감아 팽팽하게 쥐고 순식간에 잡아당겼다. 갑자기 내 쪽으로 허리를 숙이게 된 놈들이 놀란 표정으로 날 쳐다봤다.

“나한테 묻지도 않고 왜 너희끼리 손을 잡네 마네 하며 싸우는 거야? 누가 잡고 간대?”

나는 흥미진진하게 이쪽을 보고 있는 해밀턴 쪽으로 턱짓했다.

“그만 싸우고 앞장서.”

순식간에 산책하러 가는 개 처지가 된 그웬과 옐츠란이 멍청한 얼굴로 나를 쳐다봤다. 해밀턴은 껄껄껄 소리 내 웃고 있었다. 두 놈 다 좀처럼 발을 뗄 생각을 안 하길래 말을 다루듯 끈을 채찍처럼 휘둘렀다. 마력으로 만든 끈에 얻어맞은 옐츠란은 윽 하는 소리를 냈고 그웬은 눈살을 살짝 찌푸렸다. 움직일 때까지 찰싹 찰싹 때렸기에 내 성격을 잘 아는 그웬은 포기하고 먼저 움직였다. 학습을 모르는 옐츠란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그래봤자 나한테 종아리를 까일 뿐이었다. 옐츠란은 걷어차이다 못해 결국 도망가듯 앞장섰다. 나는 폭력적인 사람이 아닌데 정말이지, 때려야 말을 듣는 옐츠란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해밀턴은 젊음이란 좋은 거지 같은 잘 모르는 소리 하며 웃어댔다.

흐뭇한 미소로 앞장서는 책 장사꾼. 그 뒤를 따르는 목줄 매인 미남 두 명과 줄을 쥔 채로 느긋하게 걷는 위대한 나라는 조합은 이색적이었으므로 넓은 길을 걸을 때면 어김없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누군가의 앞뜰을 지나갈 때면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떨던 사람들도 대화를 멈추고 눈을 휘둥그레 떴다. 휘파람을 불고 지나가거나 손뼉을 치는 사람도 있었다. 그대로 끌고 갈 수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너무 눈에 띄었기에 옐츠란과 그웬의 거듭된 사과와 다시는 유치하게 싸우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풀어줬다. 혹여라도 그웬과 옐츠란의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결국, 불퉁한 표정으로 목을 매만지는 옐츠란과 인생에 깊은 회의감을 느끼는 듯한 그웬의 사이에서 가기로 합의 봤다.

지름길로 빠르게 가로지른다는 해밀턴의 말이 사실인지 우리는 얼마 안 가 해밀턴이 입안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그의 가게에 도착했다. 마법 서적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서점답게 짙은 칠을 한 나무 간판에 금빛으로 멋들어지게 해밀턴의 마법 서점이라고 적혀있었다. 음, 직관적인 이름이군.

마탑의 마법사들에게 책을 꽤 팔아먹었는지 서점은 웬만한 여관보다 컸다. 일반적인 라무의 건물과 다르게 하얗고 구멍이 뚫린 돌을 쌓아 올려 그사이를 적색 흙으로 메꾸는 방식으로 건물을 지었기에 서점이라고 생각 못 할 정도로 아름답기까지 했다. 지나치면서 봤다면 라무시의 행정건물이거나 역사에 관련된 건물인 줄 알았을 거다. 해밀턴은 가게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지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벅찬 모양이다.

"아, 이제 기억나네."

옐츠란은 가게를 보고 나서야 해밀턴을 기억해내고 고개를 끄덕였다. 해밀턴은 옐츠란의 말을 들었지만 별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하긴 손님한테 책을 많이 파는 게 중요하지 자길 기억하건 말건 상관없지. 해밀턴은 닫힌 문을 열려다가 말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왜 문이 열려있지?"

그는 갑자기 불안감이 덜컥 밀려오는 듯 눈을 좌우로 빠르게 굴리다가 용기 내 문을 활짝 열었다. 지켜보던 우리가 더 긴장될 정도로 겁을 먹은 모습이었다. 아무런 이상이 없는지 해밀턴은 한숨을 내쉬며 웃음 지었다.

"휴, 들어오세요. 문이 열려있어서 책 학살단이 다녀간 줄 알았네."

서점 안에 들어서자마자 책 냄새가 물씬 풍겼다. 의외로 가게 안은 소박했다. 외관만 보면 안은 으리으리한 왕실 도서관 같지 않을까 싶었는데 좁아 보이기까지 했다. 얘기를 들어보니 공간을 분리해서 3분의 1은 일반 손님들을 위해 쉽게 구할 수 있는 책을 들여놓고 마법사나 희귀도서를 찾는 사람을 위해 안쪽으로 들어가야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했다. 나나 옐츠란에겐 일반적인 서점 같은책을 책장에 빽빽하게 꽂아놓고 파는 풍경이 익숙했지만, 그웬은 비싸게 거래되는 책이 이렇게 많은 풍경은 처음 봤는지 생소한 표정을 지었다.

해밀턴은 종이표지로 된 얇은 책 하나를 꺼내 펼쳐 보였다.

“요즘은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요. 인쇄 책인데, 인쇄가 뭔지 들어보셨소?”

“글자판을 만들어서 잉크를 묻혀 찍어내는 거 아닙니까?”

“역시 마법사 나리라 그런가? 잘 아시네. 나무판으로 찍어낸 건데 제법 깨끗하게 찍혔지 않습니까? 그런 책들이 쏟아져 나오니 책 가격은 낮아지고 팔아도 남는 게 없어요. 책 장수들은 뭘 먹고 살라는 건지 원. 그나마 제가 마법 서적을 다뤄서 다행이지, 교양서를 파는 서점은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잔뜩 들여와 봐야 전의 매출 절반 정도만 번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목판인쇄나 금속활자인쇄에 대해 예전에 어렴풋이 배웠던 기억이 났다. 앉아 있는 사람을 금으로 조각한 그 종교가 뭐였지, 거기서 뭔가를 했던 것 같은데... 인쇄술의 발전으로 지식의 보급은 예상했던 일인데 책 장수들은 어떻게 될지 생각해본 적은 없었다. 책 가격이 낮아지면 그만큼 많이 팔아야 할 텐데 라무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니 매출이 반 토막이 난 듯했다. 뭐, 알아서들 하겠지.

우리에게 동정심을 얻어 책을 팔아보려는 수작인지 해밀턴은 끊임없이 인쇄 책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았다. 옐츠란은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슬금슬금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빨리 책을 사서 나가고 싶어서 하는 게 분명했다. 옐츠란이 명백하게 지겨워하는 기색을 보이자 해밀턴은 겉보기에 자기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은 그웬에게 말을 걸었다. 나는 두 놈이 해밀턴에게 잡혀있는 동안 희귀도서가 있다는 곳으로 통하는 문을 열었다. 문은 잠그거나 별다른 마법 장치를 해놓지 않았는지 쉽게 열렸다. 여기처럼 책들로 꽉꽉 채워져 있을 거라는 예상과 다르게 안쪽은 듬성듬성 자리가 빈 책장이 더 많았다. 책의 도시로 위상이 높은 라무라할지라도 마법사들이 수기로 적은 마법서를 충분히 확보하긴 어려웠나보다. 해밀턴을 무시하려는 건 아니었지만 기대와 다른 모습에 나는 입 밖으로 생각을 소리 내어 말했다.

"생각보다 책이 적네."

해밀턴은 당치도 않다는 듯 웃으며 다가왔다.

"저희 서점 책이 적다니요? 라무 어딜 가도, 아니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저희 서점만 한... 헉!"

자신만만하던 해밀턴의 목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그의 손에서 스르륵 책이 떨어졌다. 눈치 없는 옐츠란이 해밀턴의 표정을 보고 말했다.

"도둑이라도 든 것 같은 표정이네. 잠깐, 어…?“

해밀턴은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라무사람도 아닌 그가 자본금 하나 없이 라무에 들어와 번듯한 마법 서점을 낼 수 있었던 건 매일 하루를 바쁘게 산 덕분이었다. 누굴 만날 시간도 없이 매일 일해 혼자 외롭게 늙어갈 처지지만 해밀턴은 이때껏 한 번도 자신의 과도한 성실함을 탓해본 적 없다고 했다.

“근데 이번만큼은 원망스럽네요.”

해밀턴이 부지런하게 희귀도에 따라 책등에 라벨을 붙이고 분야에 따라 책장을 다르게 쓰고 이름순으로 꽂아둔 탓에 값이 나갈만한 책은 빠짐없이 털렸기 때문이다. 해밀턴은 한숨을 푹푹 쉬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다는 이유로 책이 빠진 자리를 보기 좋게 메꾸고 있었다.

옐츠란은 정신 사납게 서점 안을 빙빙 돌고 있고 그웬은 심각한 얼굴로 한 곳을 노려보고 있었다. 해밀턴의 인생에 대해 함께 걱정해주는 건 당연히 아니고, 도난당한 책 중 메빌 실리어의 위대한 유언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라무에 왔던 목표를 잃자 옐츠란과 그웬은 나침반을 잃어버린 배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여기 정박해버렸다. 몇 분에 한 번 한숨을 푹푹 내쉬는 해밀턴보다 옐츠란의 얼굴이 더 심각해 보일 정도였다.

메빌 실리어의 위대한 유언이 흔한 책이면 좋았겠지만, 해밀턴이 호언장담한 바로는 라무에서 오직 한 권뿐이었다. 그걸 해밀턴 서점이 보유하고 있었고.

그는 라무에서 유일하다는 의미의 금박으로 만든 라벨을 메빌 실리어의 위대한 유언에 붙였던 때를 똑똑히 기억한다고 했다. 책 내용이 별 볼 일 없어서 그럴 줄 알았다. 금박라벨이 좀 아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헛소리만 늘어놓은 일기라도 어쨌든 한 권뿐 이기에 붙이기는 했지만.

나는 옐츠란에게 손짓해 이쪽으로 다가오게 했다. 말 많은 해밀턴이 들으면 한참을 우는소리를 할 만한 말이기에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그웬과 옐츠란이 잘 듣기 위해 내 쪽으로 몸을 숙였다.

“라무에 있는 마법 서점을 다 돌아보는 건 어때? 해밀턴 말만 믿고 포기할 순 없잖아.”

“해밀턴 말이 맞을걸, 서점끼리 연합이 있거든.”

옐츠란은 금방이라도 머리를 쥐어뜯을 것 같은 표정이었다. 그웬이 한숨을 내쉬었다.

“연합에 보고하지 않고 숨겨둘 수도 있지. 일단은 뭐라도 해보자.”

“제발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

옐츠란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별로 기대하는 표정이 아니었다. 옐츠란은 죽상으로 먼지떨이를 들고 돌아다니는 해밀턴을 불러 몇 가지 책을 주문한 뒤 길잡이를 불러달라 요청했다. 워낙에 길이 복잡해 돌아다니려면 길잡이와 같이 다녀야 하는 모양이었다. 기다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까무잡잡하게 탄 소년이 가게로 들어섰다. 소년은 곧장 안쪽으로 들어와 우리를 발견하고 통제하지 못한 감탄을 흘렸다. 나와 옐츠란에서 눈을 떼지 못해 해밀턴이 렌! 렌! 하고 소년의 이름을 몇 차례 크게 불렀다. 흠, 아직도 내 외모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유효한 것 같군.

해밀턴은 손을 크게 내저어 길잡이 소년을 정신 차리게 하더니 우리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주문하신 책은 다 챙겨놓겠습니다. 저래 보여도 렌은 길을 한 번도 헤맨 적 없는 라무 토박이니까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해밀턴은 렌의 팔을 잡아채 귓속말을 했다. 자주 오시는 손님이니 실례하지 말고 어쭙잖게 길을 돌아가지도 말고 원하는 곳으로 안내해드리라는 말이었다. 그렇다고 말하지 않은 서점까지 들릴 필요는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렌은 그럼요 그럼요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해밀턴은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배웅하다가 곧바로 상심한 얼굴이 되어 가게로 돌아갔다. 도둑맞은 만큼의 손해를 메꾸려면 몇 년간 고생해야 할 거다.

"어디로 모실까요?"

서점을 나오자마자 렌은 햇빛 때문에 눈 한쪽을 찌푸리며 물었다. 나와 그웬은 라무가 처음이고 옐츠란도 해밀턴 서점만 아는지 우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눈빛만 교환했다. 어린 남자들이란, 늘 누군가 자길 통제해주길 원한다. 이럴 땐 연장자인 내가 나서야겠군.

"라무에 있는 마법 서점은 다 둘러볼 생각인데, 오래 걸려?"

"라무에 있는 마법 서점이라 해봤자 여기를 제외하면 세 곳 밖에 안 되는 걸요. 마법 책은 특수서적이라 허가받은 사람만 서점을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것참 다행이면서 안타까운 소리였다. 하루 만에 다 돌아보지 못할 만큼 많지 않아 다행이었지만 세 곳밖에 안 되면 책이 있을 확률도 줄어드니 말이다. 렌은 가까운 곳부터 안내하겠다며 짧은 다리를 열심히 놀려 제법 빠르게 걸었다. 내가 렌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다리가 짧은 것도 아니고 게다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빠르게 걸을 수 있었지만 옐츠란과 그웬은 자연스레 나를 사이에 두고 한줄로 걸었다. 이것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고 대하는걸까? 모셔야 할 사람? 내가 존경받아 마땅할 면모가 좀 있긴 하다.

길잡이 업무엔 관광도 포함이 되어있는지 렌은 그냥 지나쳐버릴 것들도 하나하나 설명해주었다. 조금 지나칠 정도로.

벽을 짚고 걷다가,

"라무는 책의 도시라 부르지만 붉은 도시라고도 불려요. 산호석이랑 붉은 흙을 섞어서 집을 짓잖아요. 멀리서 보면 온통 빨갛대요. 빨간색보단 주황색에 가깝지 않나? 붉은 도시라고 부르는 건 순 억지라고 생각해요. 아, 형이 그러는데 라무가 아주 옛날엔 바다였을 거래요. 그래서 땅을 파면 산호석이랑 조개가 나오는 거래요."

담장에 있는 붉은 칠을 보곤,

"담장은 자주 허물고 새로 짓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도 항상 다니는 길만 기억해요. 여기 그림이랑 숫자 보이죠? 왼쪽 뿔 염소 14. 담마다 문양과 숫자가 달라서 길잡이들은 보통 이걸 보고 구분해요. 이게 그려진 담은 허물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수십 개가 넘기 때문에 머리가 나쁘면 길잡이를 못해요. 우리 집은 대대로 길잡이를 했어요. 엄마가 하는 말이 제가 엄마 머리를 닮았다면 이름 날릴 길잡이가 될 거고 아빠 머리를 닮았다면 쫄쫄 굶을 거래요.”

같은 식이었다. 새로운 나라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집은 허구한 날 부부싸움만 하다가 한 명이 나가 어느 도시에서 크게 성공했다더라. 같은 쓸데없는 이야기도 가끔 들어야 했다. 렌은 손짓 발짓까지 해가며 열성적으로 설명했지만 대부분 옐츠란의 등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나에겐 다행이었다.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는 거기서 거기라 너무 지루했기 때문이다. 렌이 반응을 바라는 눈빛으로 돌아봤다면 불쑥 짜증을 냈을 거다. 나는 애초에 사교적인 성격이 아니다. 옐츠란은 쓸데없는 얘기도 잘 들어주는 편이라 렌과 주거니 받거니 하며 어린 길잡이에게 보람을 주고 있었다.

해밀턴의 보증대로 렌은 돌아가거나 헤매는 일 없이 길 안내를 했다. 처음 들린 곳은 알레나의 서점이으로, 해밀턴 네만큼 크진 않았지만 작다고도 할 수 없는 크기였다. 넓은 마당에 거대한 차양을 드리운 서점은 라무의 건축 방식대로 붉은기가 도는 벽으로 지어져 주변의 풍경에 자연스레 녹아들어 있었다. 새 책이 들어오는 날이었는지 마당에서 이리저리 책을 나르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렌은 붙임성 있는 미소를 지으며 일을 지시하던 여자에게 다가갔다.

"손님 받으세요. 마법사님들이래요."

부스스한 짧은 머리를 가진 마른 여자는당연히 알레네겠지. 불쾌하지 않을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우리를 쓱 훑어보더니 인부에게 하던 일을 마저하라 전하고 미소를 지었다. 그새 인성을 본 건 아닐 테니 우리가 입은 값비싼 옷이 마음에 들었나 보다.

"어서 오세요. 날도 더운데 땡볕에 서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시죠."

문과 창문은 다 활짝 열어놔서 안이나 밖이나 공기는 똑같았지만 고른 그늘이 있다는 것만으로 더위가 한결 가신 느낌이었다. 알레네가 손짓하자 레몬을 띄운 미지근한 물을 시종이 가져왔다. 텁텁한 공기 때문에 입안이 버석한 느낌이라 기꺼이 잔을 받았다. 입을 헹구고 시종이 들고 있는 그릇에 물을 뱉고 고개를 드는데 벌컥벌컥 물을 마신 옐츠란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봤다. 놈은 겸연쩍은 기색으로 빈 잔을 시종에게 돌려주었지만 알레네도 시종도 신경 쓰지 않았다. 사실 손님이 입 헹굴 물을 마시든 얼굴에 붓든 돈만 쓴다면 별 상관 없는 게 상인들이다. 시종은 바닥에 쌓인 책의 탑을 요리조리 피해 바깥으로 다시 나갔다.

"안이 좀 어수선하죠? 책을 다 빼는 중이라 구경하긴 힘드실 거에요. 찾는 책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꺼내드릴게요."

책장에 책이 듬성듬성 꽂혀있고 바닥에 쌓아놓은 책도 많아 해밀턴과 반대로 정리를 지독히도 안 하는 성격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가 보다. 알레네와 대화하는 와중에도 일꾼들은 가게를 들락날락하며 책을 바깥으로 빼냈다. 공기 중에 먼지가 떠다녀 나는 옷소매를 내려 코를 막았다.

"메빌 실리어의 위대한 유언이라는 책을 찾는데..."

알레네는 처음 들어보는 제목인데... 하고 보유한 책의 제목을 적어놓은 장부를 뒤적이더니 고개를 저었다.

"그런 책은 없어요. 원하신다면 구해보도록 할게요. 요금만 내시면 저희가 찾아서 연락드려요. 분실 위험 때문에 배달하지 않으니 다시 라무로 오셔서, 아."

알레네는 말을 하다 말고 곤란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서점을 라무 밖으로 이전할 계획이라서 터를 잡고 안정화가 되려면 오래 걸릴 텐데..."

"얼마나 걸리는데요?"

"못 해도 몇 년은..."

그웬이 작게 환장하겠군. 하고 중얼거리며 혀를 찼다. 옐츠란은 마음만 급한지 돈이 든 가죽 주머니부터 꺼냈다.

"돈을 더 드리면 책부터 찾아 주실 수 있습니까?"

"돈을 더 주신다고 해도 이미 라무 쪽 사람은 다 정리해서 힘들어요. 연락을 다시 돌리려면 몇 달은 걸릴 테고... 급하면 해밀턴 서점에 가보는 건 어떠세요? 희귀 서적을 많이 취급하니까 찾는 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 갔다가 책을 도난당했다고 해서 다른 서점을 도는 중입니다. 해밀턴 씨 말로는 라무에서 한 권뿐인 책이라고 하던데, 사실인지 확인하는 중이에요.”

알레나는 놀란 얼굴을 했다.

“거기도 털렸어요? 마법 장치를 해놔서 괜찮다고 호언장담을 하더니... 책 학살단짓 맞죠?”

그웬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그럴 겁니다. 서점 밖과 안이 별다른 흔적 없이 깨끗했었는데 책 학살단에 마법사도 있는 모양이군요. 혹시 무슨 마법이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억지로 문을 열면 전기가 흐르는 마법이라 했던 거 같은데...”

마나가 눈에 띄게 헝클어진 흔적이 없었던 걸 보면 적어도 마법 파훼법을 정식으로 익힌 마법사가 책학살단에 있는 듯했다. 책 가격을 올리기 위한 어느 서점의 작당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큰 단체인가보다. 그들이 하는 일에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

“해밀턴 씨가 라무에서 한 권뿐이라고 했다면 사실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일에 대해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신용을 목숨처럼 여기죠.”

우리는 잠깐 침묵에 빠졌다. 옐츠란은 실망감에, 그웬은 원래 말이 적고, 나는 하품을 하느라 그랬다. 시발 메리어가 뭐라 했는지 관심 없으니 성으로 돌아가서 낮잠이나 자면 좋겠다. 여긴 너무 건조하고 덥다.

렌이 우리 눈치를 보더니 “그래도 직접 확인하고 싶으시면 안내해드릴까요?”하고 물었다. 아마 들리는 서점이 많을수록 삯을 더 받는 모양이었다. 옐츠란이 고개를 젓자 렌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심부름 값을 줄 테니 네가 갔다 오거나 다른 사람을 보내 확인해줄래? 그게 더 빠를 거 같구나.”

값은 후하게 쳐주마. 하는 옐츠란의 말에 렌의 얼굴이 다시 밝아졌다. 옐츠란은 해밀턴 서점에서 주문하지 못한 책 두 권을 사서 품에 챙겼다. 두 권이라 해도 가격이 상당해 알레네의 태도가 극진해졌다.

여기서 기다릴 것인지 다른 곳으로 안내할지 묻는 말에 솔비아의 서점으로 가자 했더니 렌이 기겁한 표정을 지었다.

“저주서점이요?”

“응, 거기 맞을걸.”

렌은 목을 움츠리며 두려운 표정을 지었다.

“안내는 해드릴 수 있지만 같이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그건 상관없는데...”

솔비아의 성격이 괴팍한가? 왜 다들 솔비아를 꺼려하는 느낌이지? 식당에서도 사람들이 솔비아의 테이블은 피해 앉았던 것이 기억났다.

“솔비아가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거기 손님들이 무섭거든요. 칸타아저씨가 거기에 책 배달을 하다가 손님이랑 시비가 붙었는데 저주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코가 엉덩이에 붙어있었어요. 칸타아저씨가 똥 쌀때마다 욕하는 소리가 저희집까지 들렸어요. 그리고...”

렌은 말을 하다말고 눈치를 보며 주변을 살폈다. 이쪽을 빤히 쳐다보던 알레네는 편하게 얘기하라며 웃는 낯으로 물러났다. 렌은 알레네가 간 후에야 소리 죽여 속삭였다.

“소문에는 솔비아 씨가 학살단 중에 한명이래요. 단장일 확률이 높다는데요. 서점 하는 사람 중에 솔비아씨 돈을 안 빌린 사람이 없어요. 다들 그 돈이 어디서 났겠냐고, 딴 사람들 책을 다 없애고 한 권밖에 안 남은 책을 비싸게 파는 거래요. 이번에 이사한다고 알레네 아주머니가 제일 돈을 많이 빌렸을걸요.”

허무맹랑한 소리도 잘 믿어버리는 어린아이다운 낯으로 렌은 말을 이었다.

"이건 소문이 아니라 제가 친구한테 들었는데요, 저쪽 구역에 애 몇 명이 없어졌는데 그것도 솔비아씨가 그런 거래요. 새로운 저주를 실험하기 위해서라던데... 엄마한테 말했더니 헛소리 하지 말래요. 근데 우리끼리는 다 아는 사실이에요. 어른들은 돈 빌리려고 모르는 척 하는 거 같아요."

렌은 어디 가서 제가 말했다고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저도 들은 얘기라고요. 하고 덧붙였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구나. 하고 듣고 있는데 옐츠란의 표정이 수상했다. 귀찮은 일을 하자고 할 거 같은데... 그웬도 옐츠란과 같은 생각을 하는지 자기들끼리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난리 났군. 조만간 애도 낳겠다.

아니나 다를까 렌을 따라 가게를 나서면서 옐츠란이 내게 말을 걸었다.

“책학살단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지 않아? 아직 책이 처형장에 걸리지 않았으니까 훔친 책을 어디다 보관하는지만 알아내면 다시 훔치자.”

너무 도덕적이고 부지런한 사람들과 다녀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나는 노골적으로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한테 왜 물어봐? 어차피 할 거면서."

"맞아."

버석한 모래바람에 나는 짜증 낼 기력조차 잃었다. 어차피 내가 하겠다고 한 일이고 귀찮다고 미뤄봐야 기간만 늘어질 뿐이니 뭐든 간에 하루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야 연애를 할 테니까.

“저기가 처형장이에요.”

처형장은 단어가 주는 느낌만큼 참혹했다. 본래 사람을 처형하던 곳이라 그런지 나무로 된 단상은 피로 얼룩져 거뭇거뭇 불길한 얼룩이 배어있었다. 책등이 해체된 책은 바람에 거세게 팔락거리고 불에 군데군데 탄 책은 잿가루만 날렸다. 누가 멀리서 던지고 간 듯 질서 없게 널려있어 책이 아니라 사람 시체가 대신 있는 장면이 얼핏 떠올랐다. 상상력이 풍부한 편은 아니지만, 전쟁터에서 흔히 보는 풍경이었기 때문에 저절로 생각이 났다.

그저 책을 못 읽게 만들고 쓰레기를 던져놓은 거지만 까마귀마저 피해갈 썩은 냄새가 나는 풍경이었다.

책에 담긴 정보의 가치를 아는 옐츠란은 수 백 개가 되는 책의 시체에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고 그웬마저 미간을 찌푸렸다. 렌은 도통 이해가 안 간다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렇게 떠들썩하게 일을 벌여놓았는데도 본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책이 도난당한 후에 며칠 뒤면 어김없이 처형장에 버려지니까 밤새워서 누가 오나 기다린 적도 있었는데 아무도 못 봤대요. 귀신도 이렇게 감쪽같지 않을 거예요.”

학살단원이 평범한 서점 주인이라면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처형장에 책을 버리고 가는 일이 가능할까? 점점 더 범인의 정체가 모호해졌다.

나는 처형장에 가까이 다가가 잉크 자국이 번진 책을 발로 툭툭 건드려보았다. 별다른 마나의 흔적은 느껴지지 않았다. 렌은 깜짝 놀란 얼굴로 내게 손짓했다.

“빨리 나오세요! 저주받을 수도 있어요!”

나는 두려움에 가득 찬 렌의 얼굴을 보고 웃었다. 비마법사들이란.

솔비아가 책학살단 단장이라는 소문과 더불어 처형장의 책을 건드리면 저주받는다는 소문까지 도는 모양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마법에 무지한 사람들은 모든 불행을 마법사의 탓으로 돌리고 싶어한다. 저주는 축복 못지않게 품이 드는 일인데 어떤 마법사가 돈과 시간이 남아돌아 저주를 남발하고 다닌단 말인가?

헤나드의 몸을 바친 노력 덕분에 마법사 사회에선 차별이 많이 사라졌지만, 일반인들의 인식을 통째로 바꾸진 못했다. 사람들은 눈에 띄게 혐오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여전히 저주를 꺼림칙하게 여겼다. 사실 저주가 남을 해하는데 특화돼있어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똑같은 자연계 마법이지만 물보다 불의 마법을 더 두려워하듯이.

나는 렌의 손짓을 무시하고 더 안쪽까지 들어갔다. 나무 단상 위엔 책이 한 무더기로 쌓여있었다. 대충 살펴봐도 멀쩡한 책은 한 권도 없어 보였다. 빗물에 나무가 삭았는지 책 사이로 언뜻 구멍 난 부분이 보였다. 조만간 책 무게 때문에 우르르 무너져 안으로 들어가겠네. 더 가까이 가 살펴보려고 했지만 렌이 호들갑을 떨며 부르는 통에 어쩔 수 없이 몸을 돌렸다.

“뭐 이상한 게 있었어?”

“아니.”

옐츠란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에 하는 꼴을 보아하니 자기가 직접 살펴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렌이 소란을 피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집 밖으로 나와보는 탓에 시선이 모였으니 나중에 다시 오자고 할 게 뻔했다. 그렇게 될까 봐 나는 한 번 더 힘주어 말했다.

“이상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

옐츠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법사들이 그러하듯 직접 확인해야 직성이 풀릴 표정이라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다. 놈들과 부딪쳐 의견을 바꾸기보다 그냥 생각 없이 따라다니는 편이 덜 귀찮다는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처형장에서 솔비아네 서점은 별로 멀지 않은 거리였다. 마을 사람들이 부정적인 어조로 솔비아의 가게를 저주서점이라 부르는 줄 알았더니 ‘예제프의 라자냐’처럼 ‘저주서점’이 가게 이름이었다. 솔비아는 서점 이름을 지을 때그녀가 지은게 맞다면 고민을 한 적 없는 게 분명했다. 무척이나 직관적인 이름이다. 두꺼운 천에 대충 휘갈겨 쓴 저주서점이라는 글자가 바람에 나부꼈다.

가게의 규모는 아담했고 바깥에 쌓인 책 표지가 우중충한 색인 걸 제외하면 라무의 보통 서점과 다를 바 없었다. 차양의 색도 알록달록했고, 차양 끝을 고정하기 위해 달아놓은 산호석들이 자기들끼리 부딪쳐 둔탁하면서 텅 빈 소리를 내었다.

하지만 렌은 마당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담장 근처에서 우물우물 말을 전하더니 쫓기는 듯 후다닥 가버렸다. 렌이 하는 짓이 귀여운지 옐츠란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저주 마법도 다룬다는 걸 알면 기겁을 하겠네.”

그러고 보니 헤나드가 옐츠란의 스승이었지. 옐츠란은 헤나드의 사정을 알고 있을까? 그때 한 말을 생각하면 나한테 처음 털어놓은 것 같지만 옐츠란이 제자로 있는 동안 이상한 점을 알아챘을 수도 있다.

옐츠란은 차양에 달린 산호석을 살피다가 다른 산호석에 뒤통수를 얻어맞고 말았다.

아니, 옐츠란이라면 알아채지 못했을 거다. 이 모습 그대로 한 십 년쯤 지나면 나보고 머리카락이 늦게 자라는 편인가 봐? 할 놈이다.

“어서 와요. 아까 라자냐 식당에서 뵌 분들이군요.”

바깥의 인기척을 느꼈는지 솔비아가 문가에 서서 우리를 반겨주었다. 그녀는 구부정하게 팔을 감싸 안은 채로 피곤한 낯이었다.

“남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어린 길잡이가 안내했나 보네요. 제가 무섭다고 도망갔나요?”

옐츠란은 뒤통수를 문지르며 대답을 망설였지만 나와 그웬은 스스럼없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어린 길잡이가 뭐라 했건 신경 쓰지 마세요. 아이들 사이에서 이곳이 무슨 악의 소굴로 소문난 모양이더라고요. 며칠에 한 번씩 문에 돌을 던지는 통에 잠을 제대로 못 잘 지경이에요.”

솔비아는 내려오는 머리카락을 힘없이 넘기며 중얼거렸다.

“누군지 걸리기만 해봐라, 모든 음식에서 똥 맛을 느끼게 해주마.”

솔비아가 저주마법을 쓸 줄 안다는 소문은 사실인가보다. 게다가 남에게 사용하길 주저하지 않는 듯했다. 렌이 도망친 건 옳은 선택이었다.

그녀는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다. 가게 안에선 짓이긴 풀냄새가 났다. 실제로 약초인지 독초인지 모를 것을 절구에 넣고 곤죽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솔비아는 테이블에 올려진 절구를 대충 옆의 선반에 얹었다.

“안이 좀 어둡죠? 촛불을 켜드릴까요?”

훤한 대낮이지만 솔비아의 말대로 서점 안은 어둑어둑했다. 창문이 몇 없는 데다 그것마저 얇은 천을 쳐놓아서 어슴푸레한 빛만 들어왔다. 앞을 못 볼 정도는 아니라 고개를 저었다.

“오래된 책이 많아서 빛을 쬐면 상할까 봐 창을 가려놓았어요. 불편하셔도 양해 바랄게요.”

솔비아는 내가 사고 싶은 책이 있다는 말을 했다는 걸 기억했는지 내 쪽을 보며 응대했는데 불쑥 옐츠란이 끼어들었다.

“우리가 다 들은 바가 있어 물어보는 거니까 모르는 척 하지 말고 대답하십시오. 메빌 실리어의 위대한 유언은 어딨지?”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은 옐츠란이 첫발부터 잘못 내디뎠다. 솔비아는 경계하는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았다.

문득 내 집 앞 숲에서 검부터 들이밀고 봤던 옐츠란이 생각났다. 그때나 지금이나 끔찍한 사회성이다. 옐츠란은 엄격한 얼굴로 솔비아를 노려보고 있었다. 변함없는 것 중에 잘생김도 포함되어 있어 그나마 다행이네.

그웬은 웃는 낯으로 옐츠란의 옷을 잡아당겨 뒤로 보냈다.

“원래 인성이 그른 사람이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다른 서점은 창고처럼 별도로 책을 두는 공간이 있던데... 여긴 없는 건가요? 귀한 책을 따로 두고 있다면 그걸 보고 싶습니다. 찾는 책이 워낙에 희귀해서... 값은 부르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웬이 어느 틈에 풀어낸 옐츠란의 돈주머니를 테이블에 얹자 묵직한 쇳소리가 울렸다. 옐츠란이 어? 하고 자기 허리춤을 더듬었다.

솔비아는 쉽게 의심을 풀지 않고 한참 말없이 우리를 쳐다봤다.

“아까 도망친 어린 길잡이, 렌이죠?”

렌의 신변을 위해 대답하지 않았지만 솔비아는 확신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럴 것 같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손님을 두고 도망칠 만큼 어린 길잡이는 렌 밖에 없거든요. 그 집 사람들은 온갖 가십을 손님한테 떠들길 좋아하죠. 무슨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어디보자... 제가 책학살단 중 한 명이라고 하던가요?”

솔비아는 한층 더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한숨을 쉬었다.

“아니면 제가 아이를 납치한다던가? 제 저주에 걸린 사람들이 돈을 매달 보낸다는 재밌는 소문도 있던데...렌이 한 말이야 뻔하죠. 제가 다 들어본 소문일 테니까요.”

솔비아가 너무 피곤해 보여서 나까지 피곤해지는 느낌이라 어디 앉고 싶어졌다. 손님용 의자는 없는지 등받이 없는 작은 의자 하나뿐이라 그걸 끌어다가 앉았다. 옐츠란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나에게 눈치를 줬다.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

옐츠란은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다. 말을 못 할거면 눈치도 주지 말던가. 솔비아는 별 신경쓰지 않는 기색으로 말을 이었다.

“렌의 말을 믿고 저를 의심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손해가 막심해요. 저주책은 워낙에 귀해서 한권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추적마법을 걸어놓은 책들도 있는데 어떻게 알고 그건 빼고 가져갔더라구요. 아마 책 학살단중에 마법사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책 학살단에 마법사가 있는 건 확실해졌다. 추적마법이 걸린 책이 비쌌을 텐데도 마법을 해지한 게 아니라 빼놓고 가져간 걸 보면 실력이 썩 좋은 마법사는 아닌듯했다.

“그리고 아이를 납치한다는 허무맹랑한 말에 반박하자면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다른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진짜 납치범이요?”

그웬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평민 아이가 납치 되는게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걸까? 나는 그웬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졌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엔 가짜 같은 표정은 아니었다.

“라무에는 남의 아이를 데려와서 키우면 말년에 호강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옐츠란과 그웬은 괴상한 표정을 지었다. 솔비아도 왜 그런 표정 짓는지 동감 간다는 얼굴이었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라 웃기지도 않는 미신을 사실처럼 여기는 마을이 대부분이다. 라무정도면 그래도 양호한 편이었다.

“제가 라무 사람이 아니라 왜 그런 옛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남의 애를 납치해서 키우는 일이 빈번한가 봐요. 소문은 그렇게 빨리 돌면서, 남의 집 애를 키우는 건 어떻게 숨기는지... 이상하기도 하지.”

라무에 대한 정이 별로 남아 있지 않은 표정으로 솔비아는 고개를 저었다. 결혼하게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거에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녀가 중얼거리는 소리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라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수록 살기 좋은 곳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해밀턴은 썩 적응을 잘 한 듯 보였지만 솔비아는 외지인에 대한 차별 때문에 아직 고통을 받는 듯했다.

그웬은 테이블에 올려둔 돈주머니를 옐츠란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결국 메빌 실리어의 위대한 유언은 없다는 말이군요.”

“저주에 관한 책이에요?”

“아니요, 그냥 마도 시대에 산 마법사의 일기에요.”

“저주에 관한 책이 아니라면 아예 들어오지도 않아요.”

옐츠란과 그웬은 더는 실망할 여력도 남아 있지 않은 듯 침묵만 유지했다. 둘은 나에게 앞으로의 일정에 관해 얘기하고 있을 테니 볼일을 보고 오라는 말을 하곤 바깥으로 나갔다.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니 그웬선생의 예절 교실 수준이었다. 충고치곤 신랄하게 비꼬는 말투였지만 옐츠란은 욕 좀 먹고 사회성을 기를 필요가 있다.

내가 그웬과 옐츠란에게 신경을 쏟자 솔비아가 고개를 살짝 기울여 나와 눈을 마주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생명력을 흡수해 영생을 사는 방법이나 모든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저주에 관한 책이라 하셨죠? 재밌는 걸 찾으시네요. 영생이라...”

솔비아는 나를 은근한 눈빛으로 살폈다.

“벌써 영생을 원할 나이가 되신 건가요? 시간의 이기심을 빨리 깨달으셨네요. 영생을 위한 방법이 구체적인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정확히 설명 못 하겠지만 솔비아가 나를 떠본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입구에서 쏟아 들어오는 빛에 그녀의 눈동자가 번들번들 빛났다. 나는 대답 없이 솔비아의 눈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다.

솔비아는 조심스러운 성격인지 무언의 대답을 읽었음에도 알고 있는 것을 곧바로 털어놓지 않았다. 그녀는 책장으로 가 책 한 권을 꺼냈다.

“영생을 원한 마법사는 꾸준히 존재했지만 다들 한 줌의 흙이 되었죠. 그걸 보면 영생은 정말 어려운 길이에요. 이 책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시간은 저주다.’ 시간이 흐르는 게 저주로 인한 거라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쓴 책이에요. 색다른 접근법이죠.”

내가 별 관심 없는 티를 내어도 솔비아는 나름 붙임성있게 책을 설명했다. 하지만 책을 팔기 위한 상인의 태도는 아니었다. 그녀는 나를 뚫어지라 쳐다보며 다소 집요한 기색으로 들고 있는 책을 볼 것을 요구했다.

책장을 넘기며 내용을 언뜻 보여주는데 빠르게 넘어가는 책장을 넘기자 특정한 페이지가 펼쳐졌다. 종이를 중간에 끼워둬서 책갈피처럼 그 페이지가 펼쳐진 듯했다.

종이에는 금빛과 은빛의 잉크로 복잡하면서 아름다운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떠오르는 태양을 형상화한, 헤나드의 연구실에서 봤던 팬던트와 똑같이 생긴 모양이었다. 이게 무슨 의미지?

궁금해할 새도 없이 뚫어져라 내 얼굴을 바라보는 솔비아의 시선이 느껴졌다.

나는 본능이 주는 느낌에 따라 감쪽같이 처음 본 척을 했다.

“이 그림은 뭐지? 삽화인가?”

“다른 책에 들어가야 할 것인데 잘못 들어갔나 보네요.”

솔비아는 내 반응을 살피다가 별다른 기색을 눈치채지 못하고 책을 덮었다. 그녀의 의심이 수풀 속을 기는 뱀처럼 사라졌다.

잠깐 가라앉았던 공기가 다시 느슨하게 풀렸다.

“별로 관심이 없으시니 이 책은 어떠세요?”

그 뒤로는 여상스레 이 책 저 책 추천하다가 맥없이 대화가 끝났다. 나도 몇 번 대꾸를 해주다가 바깥에서 렌의 목소리가 들려 찾은 책이 없는 것 같다고 저주서점을 나왔다.

나를 배웅해주겠다고 나온 솔비아를 보고 렌은 천적에게 노려지는 소동물처럼 잔뜩 굳어 어찌할 줄을 몰라 했다. 솔비아는 어이없다는 듯 콧바람만 픽 내쉴 뿐 당장 저주를 걸 마음은 없어 보였다. 어차피 저주 마법이란 남에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는 만큼 시작하기 전 필요한 것이 많았기에 렌의 걱정처럼 저주를 남발하긴 어려웠다. 무엇보다 돈 낭비니까.

나는 오랜만에 마나에 대한 감각을 기민하게 열어두었다. 온갖 것들의 정보가 넘쳐나는 가운데 솔비아의 마나를 찾아냈다. 희뿌옇고 탁한 마나였다. 그녀는 평생을 노력해도 좋은 마법사는 되지 못할 것이다. 그걸 일찍 깨닫고 서점을 차린 거겠지. 나는 만일을 대비해서 솔비아의 마나를 기억해두었다. 무슨 일이 생기거든 흐름을 거슬러 솔비아가 어디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었다.

옐츠란은 그웬의 잔소리가 지겨웠는지 렌이 온 것을 지나치게 반기고 있었다. 렌의 속삭이는 재촉에 따라 우리는 빠르게 저주서점에서 멀어졌다. 골목을 돌아 서점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솔비아는 이쪽을아마도 나를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었다.

“이런 모양의 브로치를 본 적 있어?”

옐츠란은 내가 그린 그림을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내가 그렸지만 과감한 선과 균형잡힌 형태감이 볼만한 걸작이었다.

빼어난 예술 작품이라 눈을 못 떼겠는건 알겠지만 대답하기까지 지나치게 오래걸리는군. 나는 기다리는 사이에 지루해져서 옐츠란의 침대로 터벅터벅 가서 누웠다.

“그림이 형편없어서 못 알아보겠는걸. 렌이 그린거야?”

옐츠란은 종이를 나에게 건네주려다가 허공에 헛손질을 했다.

형편없는 그림이라니? 나는 침대에 올려진 옐츠란의 짐들을 발로 다 밀어 떨어트렸다. 놈이 또 왜 그러는거야 하고 눈치도 없는 소리를 했다.

그웬은 내 표정을 보고 대강 알아챘는지 그림을 보지도 않고 휼륭한데요? 하고 말했다. 그러곤 가까이 가서 보더니 애매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강아지의 항문을 그리신건가요?”

나는 어처구니가 없어졌다.

옐츠란은 또 거기다 대고 “그 말을 듣고 보니 이제 알겠다.” 같은 소리를 해댔다.

그웬의 짐도 죄다 걷어차고 싶었지만, 그웬은 여관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한 곳에 정리해뒀기 때문에 침대 위가 깨끗했다. 재수 없는 새끼.

그림을 못 그려서 죽은 적은 없기에 솔직히 그림 실력이 좋은 편은 아니었다. 나라고 모든 걸 잘할 순 없는 노릇이다. 나의 인간적인 부분이지만 놈들처럼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 어떻게든 흠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다. 나는 힘주어 한 번 더 말했다.

“브로치라고 했어. 누가 강아지 똥구멍을 브로치로 만들어?”

옐츠란은 내 그림이란 걸 알아챘는지 떨어진 책을 주우면서 “그럼 그렇게 그리지 말던가.” 하고 낄낄거리다가 나한테 결국 어깨를 걷어차였다. 쟤는 꼭 맞아야 말을 듣더라. 그웬은 옐츠란이 건네준 그림을 들고 보다가 해독을 끝낸 사람처럼 외쳤다.

“이제 보니 거미를 그리신 거군요! 맞죠?”

나는 옐츠란이 대충 개어둔 옷을 그웬의 얼굴에 정확히 던졌다. 그웬은 뭔가 날아오자 반사적으로 피해 더 화를 돋웠다. 저놈의 반사신경!

나는 때리기 힘든 그웬 대신 옐츠란을 한번 더 걷어찼다. 옐츠란이 얻어맞고 억울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차피 그 놈이 그 놈 아닌가.

무엇을 그린 것인지 손으로 짚어가며 설명해주고 나서야 둘은 고개를 끄덕였다. 옐츠란은 여상스러운 투로 말했다.

“태양이 들어가는 문양을 상징으로 쓰는 단체는 많아. 빛의 마법사나 축복마법사나 예언 마법사 단체는 대부분 다 넣을걸. 너무 많아서 나도 다 몰라.”

생각해보니 태양, 달, 별 같은 건 마법사가 환장하는 것들이었다. 나도 이 문양을 쓰는 비슷한 단체를 많이 본 거 같았다. 솔비아와 헤나드의 공통점은 저주마법이니까 저주 마법사 단체 뭐 그런거겠지. 저주 마법사 평등 단체라던가.

나는 형편없다는 소리를 들은 그림을 구겨서 창밖으로 던져버렸다. 그림을 버리면서 동시에 그것에 대한 의구심도 버렸다. 중요한 것이었다면 뛰어난 기억력을 가진 내가 기억 못 할 리 없었다. 분명 별거 아니니까 잊어버렸을 거다.

우리는 이른 저녁을 먹은 뒤 다시 여관을 나섰다. 여관에서 처형장까지 가는 길은 꽤 복잡했지만 헤매지 않고 곧장 찾아갈 수 있었다. 그웬와 옐츠란은 믿지 않았지만, 나는 한번 지나갔던 길은 완벽하게 기억할 수 있었고마탑에선 길이 자꾸 바뀌어서 길을 잃었던 거다. 그웬은 본래 길눈이 밝은 편이고 옐츠란은 복잡한 마탑에서 단련된 턱에 라무의 지리를 금방 익혔기 때문이다.

슬슬 저녁을 준비할 시간이라 그런지 마을 전체에 맛있는 냄새가 감돌았다. 빵 굽는 냄새와 매운 향신료 냄새에 저녁을 먹고 나왔는데도 군침이 나올 정도였다. 옐츠란은 흥미롭다는 눈빛으로 마당에서 음식 준비를 하는 사람들을 살폈다. 라무 사람들도 어김없이 우리를 구경했다.

라무의 해는 사막만큼 집요해서 저녁이 가까워졌지만, 낮처럼 환하고 뜨거웠다. 하지만 주머니에서 꺼낸 두건을 둘러맨 덕에 전처럼 덥고 건조하지는 않았다. 내 것은 통풍이 잘되고 차가운 성질을 유지하도록 마법을 건 사막용 얇은 두건이고 놈들이 두른 건 그냥 천이었지만 그것만으로 감지덕지했는지 그웬과 옐츠란은 나의 자비로움에 살 것 같다는 표정이었다.

다들 저녁준비를 하느라 집에 갔는지 처형장 근처엔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았다. 그 덕에 그웬과 옐츠란은 눈치보지 않고 처형장을 헤집고 다녔다.

나는 놈들이 그러는 동안 젊은이의 의욕을 따라가지 못하고 적당한 그늘에 앉아 쉬었다. 저렇게 뽈뽈 거리는 것도 다 한 때다.

연한 하늘색으로 곱게 염색한 두건을 나풀거리며 분주한 모습이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예뻤다.

꼭 꽃잎을 두른 멀대 둘이 춤 연습을 하는 것 같았다. 여기에 노래가 있으면 딱 일텐데. 나는 콧노래를 부르려다가 마땅한 노래가 생각나지 않아서 관뒀다. 음악을 즐기며 산지 너무 오래되었다.

둘을 구경하다 보니 시선이 자연스레 놈들의 얼굴로 갔다. 그웬은 성자 같은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닥을 살피고 있었다. 놈은 나와 눈이 마주치자 습관처럼 한쪽 눈썹을 올려 보였다. 내가 입 모양으로 ‘뭐?’하고 묻자 그웬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시선을 돌렸다. 이제 슬슬 자기 위치를 자각하는 모양이다. 아직도 건방진 옐츠란과 다르게.

나는 시선을 돌려 옐츠란의 얼굴을 쳐다봤다. 평소에 햇빛을 못 봐 하얗던 피부가 발그랗게 콧잔등과 볼이 타있었다. 그 때문에 첫사랑에 열이 오른 소년 같아 보였다. 볼 때마다 느끼지만 껍데기는 정말 좋군.

옐츠란이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려 뭐라고 외쳤다. 그웬이 옐츠란에게 다가가고 옐츠란이 가리킨 곳을 쳐다봤다. 그러고 둘은 나를 보고 계속해서 팔을 휘저었다. 흠, 멍청해 보이지만 잘생겼군.

나는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다섯 번 듣고 나서야 그게 나를 부르는 몸짓이라는 걸 깨달았다. 너무 넋 놓고 얼굴을 구경하고 있었나 보다. 난 또, 손목 운동을 하는 줄 알았지.

나는 인상을 찌푸리며 몸을 일으켰다. 별 것 아닌 일로 오라고 부른 거면 거꾸로 들어 올려 허공에서 탈탈 털어줄 의향이었다. 속에 든 것을 전부 게워내면 나에 대한 존경심이 솟아날 거다.

옐츠란이 가리킨 곳은 내가 낮에 보았던 구멍이었다. 옐츠란은 겁도 없이 삐걱대는 처형대로 올라갔다. 나무가 많이 삭아있었지만 옐츠란을 보고 괜찮다고 판단했는지 그웬도 올라갔다. 그웬이 나를 향해 손을 내밀었지만 나는 놈들보다 더 쉽게 훌쩍 뛰어 위로 올라갔다. 놈은 조용히 손을 거두었다. 우리는 구멍이 무너질 때를 대비해 무게를 분산해 서로 떨어져서 섰다.

“처형대에 딱 붙어야 구멍이 보이더라. 교묘하게 가려놨어.”

옐츠란은 구멍을 가리듯이 얼기설기 덮인 책을 치워냈다. 나무로 단을 올려 만든 처형대에 난 구멍이니 속에는 광장바닥이 보여야 마땅한데 끔찍한 곳으로 통하는 입구처럼 어두컴컴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둠만 도사린 구멍에서 퀴퀴하고 눅눅한 지하의 냄새가 올라왔다.

“어디로 통하는 걸까?”

옐츠란이 몸을 숙여 더 가까이서 들여다보려는데 놈의 발아래서 우두둑하고 나무 꺾이는 소리가 났다. 그웬이 뒤로 물러나라고 손짓했다.

“지하감옥? 하수도? 그런 게 있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내 말에 옐츠란이 고개를 끄덕였다.

“해밀턴이 코가 썩을 정도로 악취가 나는 곳이라 했는데 그런 냄새는 나지 않는걸. 들어가 봐야 하냐?”

옐츠란이 금방이라도 뛰어내릴 듯한 태도를 보이자 그웬은 인상을 찌푸렸다.

“하수도라면 라무의 길보다 훨씬 복잡할 텐데, 어디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들어가? 뭔가를 찾기는커녕 길을 잃지 않으면 다행이지. 못 빠져나오고 죽는다 해도 네 시체는 찾지 않을 거야.”

옐츠란은 신랄한 그웬의 말에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물러섰다.

더럽고 부패한 것이 모여있는 곳은 마나가 희박하다. 그 말은 같은 마법을 사용해도 훨씬 마나가 더 많이 든다는 뜻이다. 나라면 가능하지만 옐츠란은 하수도에서 길을 잃으면 순간 이동마법으로 나오기 힘들 것이다. 그웬의 말대로 거기서 영영 못 나올 수도 있다.

“그럼 어쩌지?”

옐츠란은 초조한 얼굴로 되물었다. 그웬은 솜씨 좋게 처음 봤던 상태대로 구멍을 책으로 얼기설기 덮었다.

“잠복하자. 도난당한 책은 며칠 뒤에 처형장에 걸린다며? 며칠 전에 도난당한 책이 있다는 얘기를 여관에서 들었어. 오늘 처형장에 걸리겠다고 하더라. 위대한 유언이 처형장에 걸리기 전에 놈들에 대한 실마리를 잡아야 해.”

침대에서 자긴 글렀네. 나는 노골적으로 귀찮은 티를 내며 말했다.

“라무 사람들이 며칠 밤새워서 기다렸는데 아무도 못 봤다며? 여기서 기다린다고 뭐가 나올까?”

“이 구멍을 통해서 드나드는 게 확실해요. 잘 살펴보시면 이 근처만 모래 먼지가 없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았다는 뜻이죠.”

그웬의 말대로 다른 데는 버석거리는 모래 먼지가 내려앉아 있는데 구멍 부근에만 누가 손으로 털어낸 듯 깨끗했다. 구멍에서 올라오느라 손이나 무릎으로 짚어 저절로 그렇게 된 듯했다. 관찰력도 좋네. 사람이 너무 유능하면 재수 없는 법이다. 아휴 재수 없어.

“이렇게 트인 공간에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못 봤다는 건... 환영 마법을 쓴 것 같은데?”

옐츠란은 스캔 마법을 해보곤 고개를 저었다.

“설치된 건 아닌가 봐. 느껴지는 건 없어.”

“이곳에서 누가 환영 마법을 사용해서 나온다면 레티시아 님이 간파할 수 있으시죠?”

“나도 할 수 있어.”

옐츠란이 자랑스럽게 대답하자 그웬은 무미건조하게 응, 그래. 하고 대답했다. 나는 내키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뭔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여관으로 돌아가 잠복 할 동안 먹을 요깃거리와 바닥에 깔 부드럽게 가공한 나무껍질과 그 외 잡다한 것을 샀다. 그리고 내 주머니에 다 넣었다. 조만간 주머니세를 받아야겠다.

다시 처형장에 도착했을 땐 해가 지는 중이었다. 처형장 위로 깔리는 노을빛은 술잔에 담고 싶을 만큼 아름다웠다. 그 술을 마시면 패이고 딱지 진 상처도 잊고 평온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다.

수 백 년을 살아온 나에게도 감흥을 주는 풍경들이 있다. 난 이런 순간을 위해 아직 살아있나 보다. 나를 짓누르는 지루함과 무기력함이 한결 가시는 기분이었다.

우리가 말없이 서서 해가 빚어낸 색깔을 구경하는 사이 눈 깜짝할 새 붉은빛이 보랏빛으로 넘어가더니 사방에 어둠이 깔렸다.

미리 봐뒀던 담벼락 뒤로 이동하려는데 그웬이 멀리 떨어진 담벼락을 가리켰다.

“옐츠란, 너는 저기서 기다려.”

“왜?”

“다 같은 곳에서 보면 놓치는 부분이 생기기 쉬우니까.”

“그럼 다 흩어져서 기다리는 거야?”

“아니, 나랑 레티시아 님이랑 같이 기다리고 너만 저쪽에서.”

옐츠란이 어이없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다.

“네 말대로라면 다 흩어져서 봐야 하는 거 아냐? 왜 나만 따로 떨어져?”

그리곤 질문하면서 추론이 끝났는지 곧바로 스스로 답했다.

“네가 마법사가 아니라서 그렇군.”

그웬이 묵묵히 자기를 쳐다보자 옐츠란은 툴툴댔다.

“진작에 마법 좀 배워놓지 그랬냐. 나만 혼자 심심하겠네.”

그웬은 어이가 없는지 헛웃음을 지었다. 어쨌거나 그웬은 거기서 한마디를 더 얹지 않았다. 라무 사람들이 하나둘 거리로 나오고 있었다. 괜한 말싸움을 벌이기엔 시간이 모자랐다. 우리는 사람들 눈에 띄기 전에 황급히 흩어졌다.

내 생각엔 무슨 일이 일어나려면 적어도 사람들이 잠들 때쯤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제 막 해가 졌으니 한참 기다려야 한다. 좀 더 늦게 나오자고 했더니 그웬이고 옐츠란이고 산책을 기다리는 강아지마냥 몇 분마다 내 방에 찾아와 귀찮게 굴길래 그냥 나와버렸다. 학살단원이 잠의 소중함을 알고 일찍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 사람도 내일 일을 해야 하고 자기 생활이 있을 텐데, 빨리 잡히는 편이 낫지 않을까.

그웬이 깔아준 나무껍질 위에 앉아 처형장을 주시하고 있자니 옛날 생각이 났다. 의뢰로 몬스터를 처리하기 위해 생애 처음으로 잠복했던 날.

누가 내 옆에 있었더라, 이젠 많은 게 흐릿하지만, 그때 느꼈던 불안감과 초조함, 긴장감은 잊어버리지 않았다. 우둔하게 남은 감정들은 그 날의 냄새도 가지고 있다. 코끝에 숲의 눅눅한 안개 냄새와 털 가진 짐승의 누린내가 스쳤다. 어릴 땐 모든 게 새로웠는데... 옛날 생각을 하며 나도 모르게 웃고 있었는지 나를 쳐다보던 그웬이 따라서 웃었다.

"왜 웃어?"

"그냥요."

그웬의 눈빛이 촉촉하다. 반달로 휘어 눈 밑 살이 올라오는 눈웃음이 의뭉스럽기 그지없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웬에게서 떨어져 앉았다. 이 놈은 이러다 칼로 푹 찌르고 그냥요. 기분이 좋아서 한번 찔러봤습니다. 할 것 같다.

그웬은 나를 빤히 쳐다보다 말했다.

"밤이 늦어지면 추울 거에요."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몰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는 제 곁에 와서 앉으세요."

내가 무슨 표정을 지었는지 몰라도 그웬은 소리 내어 가볍게 웃었다.

"물론 당신은 괜찮으시겠죠. 레티시아님은 늘 준비된 사람이니까요. 다만 이 불쌍한 시종을 위해 자비를 베풀어달라 청하는 겁니다. 제가 옆에서 얼어 죽으면 레티시아님도 기분이 조금...언짢으시잖아요."

진짜로 자기 안위가 걱정돼서 하는 말도 아니면서 앙큼한 짓을 하는 게 귀여워 나는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가 죽으면 슬플 테니까."

그 말이 의외였는지 그웬은 천둥소리라도 들은 사람처럼 쳐다봤다. 나는 씩 웃으며 덧붙였다.

"데블랑이."

잠깐의 침묵이 지나고 그웬이 그래도 옐츠란 이름은 안 대셨네요. 하고 대답했다.

"글쎄, 네가 죽으면 옐츠란이 슬퍼할까?”

그웬은 깊게 생각해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옐츠란이 슬퍼하든 말든 별 상관없습니다.”

하긴, 옐츠란이 죽는다면 그웬은 먼지 한 톨만큼도 슬퍼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

나는 별 대답하지 않고 슬쩍 몸을 옮겨 그웬의 옆에 붙어 앉았다. 그웬은 내가 편하게 기대앉도록 어깨를 틀었다. 그웬의 단단한 가슴팍은 안정감 있게 나를 받쳤다.

삼삼오오 떠들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저 멀리서 들린다. 저녁 잘 먹었어. 다음번엔 룬네 집에서 먹자. 소란스러움이 한 곳에 뭉쳤다 흩어졌다.

“좀 더 늦게 나왔어야 했는데.”

“많이 피곤하시면 한숨 주무세요. 누가 나타나면 깨워드릴게요.”

“잠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침대에 누워서 빈둥대고 싶어. 간식이라도 먹으면서... 입이 심심해.”

그웬은 나를 감싸 안은 채 살짝 뒤로 기대앉았다. 침대에 누운 것만은 못하지만 한결 편안해졌다. 그웬의 체향이 공기 중에 부드럽게 떠돌며 안정감을 선사했다.

“입이 심심하다는 표현에 재밌네요. 해결하려면 입이랑 놀아드려야 해요?”

나는 그웬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숨결에 내 속눈썹이 흔들리는 게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였다.

“그게 어떻게 들리는지는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웬은 전혀 모르는 척 시치미를 뗐지만, 그냥 넘어가기 힘들 정도로 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순진하기는. 온갖 앙큼은 다 떨면서 정작 판이 깔리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동정다웠다. 나는 그의 가슴팍을 톡톡 쳤다.

“지진인가? 어디서 쿵쿵쿵 소리가 들리지?”

그웬은 입을 꾹 다물고 시선을 먼 곳에 두었다.

“근처에서 북 연주하는지 알아봐. 소리가 되게 크네.”

내가 한마디를 더 하자 놈은 포기한 모양인지 크게 숨을 내뱉으며 대답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내뱉었습니다.”

정직한 대답이 돌아와 흥이 식어버렸다. 그웬은 눈치가 빨라서 그런지 반응을 하면 할수록 내가 더 신이 난다는 사실을 벌써 알아챈 것 같다.

내가 콧방귀를 끼며 고개를 돌리자 그웬의 시선이 느껴졌다.

“제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군요.”

“그래. 재미없는 대답이었어.”

“어떤 대답을 원하세요? 아까 전 대답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원하는 대답을 다시 해드릴게요.”

공손한 어미만 빼면 눈치 없이 역할놀이를 망쳐버려 토라진 아이를 달래는 듯한 어조였다. 기가 막히는군. 나는 뭐라고 쏘아붙이려다가 문득 나란히 놓인 그웬과 내 손의 크기 차이를 보고 그만두었다. 그웬이 손이 큰 편이라 그런지 유난히 내 손이 작은 힘껏 말아쥐고 때리면 피떡을 만드는 손도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어린아이의 손처럼 보였다. 성인식을 치렀을 나잇대긴 해도 작은 몸집이 약해 보이는 건 사실이다. 내가 그웬을 보고 쟤는 열다섯 대는 견디겠다. 옐츠란은 일곱 대, 데블랑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자고 정해놓는 것처럼 사람들이 외관으로 나를 판단하는 건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모두가 나처럼 혜안을 가지고 있진 않으니.

역시 어린 몸은 불편하다. 버리고 싶다.

“말투가 왜 그래?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레티시아님이요.”

“어린아이 다루듯 하지 마.”

“지금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부리고 계시잖아요.”

“내가 하는 건 투정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을 둔 지적이야. 고칠 건 고치자.”

그웬은 대답 없이 부스럭대더니 종이로 싼 말린 과일을 꺼냈다.

“드실래요?”

사과도 인정도 하기 싫어서 수를 쓰는 것처럼 보였지만 수 백 살을 더 먹은 내가 너그럽게 이해해줘야지 어쩌겠어.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웬은 손을 잘 닦더니 설탕물 때문에 약간 끈적이는 과일을 입에 넣어줬다. 음, 뭔가 아쉬운데... 달고 짠 게 필요해. 여관에서 봤던 말린 과일이 박힌 치즈가 문득 떠올랐다.

“그건 안 챙겨왔어? 이런 게 들어간 치즈. 사람들이 먹고 있던데.”

그웬은 한 차례 더 부스럭거리더니 당연하다는 얼굴로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 잘린 치즈를 꺼냈다. 좀처럼 이런 말을 하지 않지만, 이번엔 현명한 연장자로서 진로에 대해 조언을 해야겠다.

“너 진짜 기사는 그만두고 시종을 하는 게 어때? 내가 폴론다의 후궁만큼 돈을 줄게.”

폴론다의 후궁은 한때 유명했던 사람인데, 왕이 국고를 털어주다 못해 국토까지 팔아 사치를 감당했다. 알고 보니 그 국토를 사들인 게 후궁이었고 결국 후궁이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됐지만. 사람들은 뒷이야기를 홀라당 까먹고 나라를 말아먹을 만큼 사치를 부리는 사람이란 뜻으로 폴론다의 후궁이라고 말했다. 아니, 이젠 아닌가…?

그웬이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으로 허리를 세워 나를 조금 떼어놓고 쳐다봤다.

“폴론다의 후궁을 모르는구나? 나라를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주겠다는 말...”

“폴론다의 후궁이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왜 자꾸 저를 시종으로 회유하시려는 겁니까? 제 검술 실력이 그렇게 못 미더우십니까? 물론 레티시아님께는 졌지만 그래도...”

“아니, 넌 시종 일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 물론 검술도...재능이 있다고 하려다가 기고만장해질까 봐 표현을 바꿨다.못 봐줄 정도는 아니지만, 네 영혼은 시종으로 태어났어. 배운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내가 말하지 않은 것까지 다 알아? 주인이 원했는지도 모르게 해결하는 거, 시종의 첫 번째 덕목 아냐?”

그웬은 어딘가 착잡한 표정이었다. 듣고 보니 내 말이 일리가 있겠지. 평생 해온 일을 하루아침에 바꾸려니 힘들만도 하다.

“내가 수백... 아니 그간 시종을 많이 부려봤는데 너는 손에 꼽힐 정도로 훌륭해. 맨 처음 배운 말이 엄마 아빠 대신 ‘필요하신 게 있습니까?’라고 해도 될 정도야.”

하마터면 수백 년 동안이라고 말할 뻔했지만 겨우 멈췄다. 그웬은 여전히 좋지 못한 안색이었다.

“참고로 난 칭찬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이야.”

난 설득력이 좋은 편이었으므로 내 말을 듣지 않곤 못 배길 거다. 휴, 한 사람의 꿈을 포기하게 만들었지만 앞으로 내 몸은 편할 테니 그걸로 됐다. 누군가가 행복해야 한다면 그건 바로 나다.

“천부적인 재능이 아니라 어릴 적에 시종 일을 배웠습니다. 여덟 살부터 열 두 살까지 신전에서 지내면서 최고위 신관의 수발을 들었죠. 아직도 그 습관이 남아있나 봅니다.”

그건 처음 듣는 소린데?

그웬은 떠올리기 싫어 머릿속 깊이 처박아 두었던 기억을 꺼내는 사람처럼 차갑고 굳은 표정이었다.

“하긴, 학대를 당하면서 배웠으니 잊을 수가 없죠.”

더 묻지도 않았는데 그웬은 내 입에 치즈 한 조각을 넣어주며 말을 시작했다.

브리기테가 말했던 것처럼 그웬이 신전에서 지내게 된 건 검술을 수련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신전엔 일반인이 머무를 수 없어 그웬은 신관의 수도생 신분으로 들어갔다. 그를 담당한 신관이 신앙에 충실한 자였다면 그 맬런교라고 해도 그웬이 할 일은 고작해야 아침 세숫물을 떠오기, 기도 전 기도서를 펼쳐놓기 같은 잡다한 일 뿐이었을 거다. 하지만 콧대가 높은 1품의 최고위 신관은 돈과 권력에 충실한 자였고 귀족 사이에서도 이름을 날리는 세이모어 가문의 자식을 노예처럼 부리는 데서 희열을 찾았다. 교단과 귀족은 항상 대립 관계이므로 어쩔 수 없이 귀족에게 고개를 숙이고 온 날이면 그는 더 심하게 그웬을 부렸다. 세이모어 가문의 아들을 채찍질할 순 없지만, 자신의 오물이 묻은 속옷을 손빨래시키고 하루에 다섯 번씩 침대 시트를 갈고 음식을 엎고 새로 만들게 하는 건 수도생에게 내리는 가르침이라는 명분으로 가능했다.

그웬은 새벽 늦게까지 그가 시킨 일을 하다가 동이 밝아올 즘에 창고로도 쓰지 않는 춥고 더러운 다락방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해가 뜨자마자 일어나 세숫물부터 준비했다.

가만히 듣다가 문득 그런 의문이 솟아올랐다.

흠, 불쌍하긴 한데 왜 그러고 살았지? 갇혀있던 건 아니었으니 얼마든지 부모한테 말할 기회가 있었을 텐데... 어릴 땐 좀 멍청했나?

“그 눈썹 모양만 봐도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지 알겠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검술에 큰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검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땐 새장 속 새나 토끼 같은, 집에서 키우는 작은 동물이나 귀여워하며 지냈죠.

세이모어 공작과 세이모어 공작부인은 냉정한 사람들입니다. 자식이라도 쓰임새를 생각하고 곁에 두죠.”

부모를 평가하는 것도 신랄하기 그지없었다. 그웬은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처럼 그들을 거론했지만, 혐오감을 무심한 태도로 가리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았다. 아직도 식지 않은 분노가 잔잔히 느껴졌다.

“전 곁에 둘 가치조차 없는 자식이었고 그래서 버려졌습니다. 학대당한다고 말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신전에 버린 것이니 어떻게 쓰던 신전 몫이니까요.”

언젠가 옐츠란이 지긋지긋한 세이모어!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야. 끔찍하지.

나는 그 말이 그웬을 욕하기 위해 가족들을 싸잡아 말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날은 세이모어 가문에서 답신이 온 날이었고 옐츠란과 데블랑이 편지를 읽고 화가 난 기색으로 변절자라는 호칭에 대해 열을 올렸던 게 기억났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절할 때까지 검을 연습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빨래하느라 튼 손으로 검을 놓지 않았죠. 렌츠가 되어 이곳을 나가 복수하겠다는 생각이 저를 집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웬은 고요히 어둠 속 처형대를 쳐다보고 있었다. 대충 덮어놓은 처형대의 구멍에서 바람이 빠져나가려고 쉭쉭 대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다. 복수를 생각하는 사람은 저 구멍 뚫린 처형대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 의도치 않아도 음울한 소리를 낸다.

단정한 그웬의 옆얼굴 위로 구름의 그림자가 얼룩처럼 드리웠다.

“그웬 렌츠 세이모어... 이름에 렌츠를 달았네. 복수는 했어?”

그웬은 처형대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웬은 대답하는 걸 망설이지 않았다.

“아직 세이모어를 물려받지 못해서요.”

“최고위급 신관을 처벌하려면 세이모어의 이름이 필요할 정도야? 확실히 신성 국가가 맞네.”

그웬은 잠깐동안 침묵했다.

“아니요. 그는 이미 죽었습니다. 제가 열 살이 되는 해에.”

그웬은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지만 나는 놈의 눈을 보고 숨겨진 의미를 알아챘다. 죽은 게 아니라 죽였구나. 하지만 신관을 죽인 건 복수의 시작일 뿐이었다. 그웬은 세이모어의 이름을 물려받는 즉시 부모에게 진 빚을 갚을 것이다.

신전에서 왜 신전 파인 세이모어 가문의 후계자를 대 꺾기 희생자로 지목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갔다. 그웬은 속을 잘 드러내지 않지만, 적의를 감추는 데는 서툴렀다. 지금도 제대로 못 해내는데 어릴 때는 더 심했을 거다. 공작 부부를 만날 때마다 얼굴에 쓰여있었겠지. 안녕? 난 세이모어를 물려받을거고 당신들을 죽일 거야.

나는 농담조로 말을 건넸다.

“나한테도 복수하려고 생각 중인 건 아니겠지?”

“아니요, 저는 사실...”

그웬은 무심코 대답하려다 말고 입을 다물었다.

“사실?”

“아닙니다. 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네요.”

“그럼 애초에 말을 꺼내지 말던가, 궁금하게 왜 하다가 말아. 마저 말하는 게 너한테 이로울 거야.”

말을 꺼낸 걸 약간 후회하는 눈빛으로 그웬은 내 입가에 묻은 설탕을 털어주었다.

“사실, 레티시아님의 시중을 들면서 어릴 적의 저를 돌보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돌봐주지 않았는데 이제라도 보살핌을 받는다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내가 어딜 봐서 남의 똥 묻은 속옷을 빨 사람으로 보여?”

“그렇게 받아들이실 줄 알고 말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나는 그웬의 말에 기분이 더 나빠졌다. 본인이 재수 없는 건 생각 안 하고 누가 뭘 닮아? 그웬은 내 표정을 보고도 나를 자신의 품으로 당겨서 끌어안았다.

“다락방에서 혼자 웅크리고 잘 때마다 사람의 온기를 간절하게 바랐습니다. 다정하지 않아도 좋으니, 함께 누워 숨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으면 좋겠다고. 가끔 레티시아님이 넓은 침대에 누워 먼저 잠들어있으면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당신을 끌어안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좋은 꿈을 꾸도록 빌어주고 싶어요. 제가 어릴 적에 원했듯이.”

나는 얼마든지 그웬에게 짜증 섞인 한마디를 할 수 있었다.

'누구 맘대로 나를 치료용 대역으로 쓰는 거야?' '내가 끌어안는 헝겊 인형이야?' 같은 말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던 건 그웬이 어떤 의미를 품고서 내 시중을 들었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웬이 어리고 감상적인 생각에 빠져 내 발가락 사이까지 씻어주었다면 나야 좋지. 우리 딸 또래네 하고 과일 하나를 더 얹어줄 때 마다하지 않는 것처럼 침묵이 나을 때도 있는 법이다.

나는 나를 끌어안은 그웬의 팔을 힘주어 꼭 잡고 그웬이 내 행동을 오해하기 충분하도록 허공을 바라보며 딴생각을 했다. 내일 아침은 뭐 먹지? 오랜만에 엄청 매운 게 먹고 싶은데. 여긴 매운 음식이 있나? 아, 매운 냄새를 맡았던 것 같은데.

그웬은 조금 있다 살짝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뭐가 그렇게 고마운지 모르겠지만 나는 팔 한번 잡아주고 충실한 시종을 얻었다.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다.

그웬이 적극적인 자세로 한쪽에 치워뒀던 간식들을 더 드실래요? 하고 권하는데 옐츠란이 어떤 사람과 언성을 높여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굳이 귀 기울여 듣지 않아도 될 만큼 큰 소란이었다.

옐츠란의 다리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 도대체 왜 이 밤에 사람들 다니는 길목에 앉아 있냐고 시비를 걸고 있었다. 대충 사과하고 조용히 시켜야 할 텐데 옐츠란은 적반하장으로 그러는 당신은 왜 사방에 뚫린 게 길인데 넓은 길 두고 외지고 으슥한 이 길로 지나가냐고 따지고 들었다. 그웬이 묵직한 한숨을 내쉬었다. 이 정도의 소란이라면 쥐도 나오다가 다시 들어가겠네.

상대의 목소리가 너무 커지자 옐츠란이 마법을 쓴 건지 둔탁한 소리와 함께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옐츠란이 마법을 썼나 보네요."

"그런가 봐."

혼자 담아두고 있었던 생각을 고백한 탓인지 그웬이 잠깐 어색하게 군 것 빼곤 시간은 무난하게 잘 갔다. 그리고 지루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마을의 불이 모두 꺼지고 사람들은 단잠에 빠져들었다. 늦은 밤이 되니 정말 추워져서 나는 두르고 있던 로브를 펼쳐 그웬과 나를 감쌌다. 방한처리가 된 로브라 "제가 레티시아님 곁에 가서 앉았어야 했네요." 하고 그웬이 깨달은 소리를 했다. 지루한 나머지 그웬과 도란도란 말을 주고받으며 이대로 허탕을 치는 건가 하던 차에 처형대 쪽에서 이상한 마력의 흐름이 잡혔다. 나는 조용히 그웬의 팔을 툭툭 쳐 처형대 쪽을 가리켰다.

우리는 실마리를 잡은 즉시 현장을 덮치는 아마추어 같은 짓은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몸을 낮추고 조용히 처형장을 주시했다. 예상했던 대로 분주히 움직이는 누군가는 환상 마법과 투명화 마법을 섞어 시전해서 마나의 흐름은 강하게 느껴졌지만,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집에 돌아가는 길을 찾기 위해 빵 부스러기를 흘렸던 동화처럼 학살 단원이 지나간 자리에 처형된 책만 하나둘 허공에서 떨어질 뿐이었다.

나는 제일 먼저 솔비아의 마나가 어디 있는지 확인했다. 솔비아는 얌전히 저주 서점에 붙박혀 있었다. 아마 잠을 자는 거겠지. 그녀가 학살 단원 중 한 명이라는 의심은 반쯤 접혔다. 이 마나는 적어도 라무에서 마주친 적 없는 사람의 마나였다. 본인이 마법을 쓰는 게 아닌 마법 물품에서나 나올 법한 연하고 약한 마력이었다.

나는 그웬의 귓가에 얼굴을 바짝 대고 속삭였다.

"덫을 설치해둔 보람이 있었어. 마법사가 아니라 눈치채지 못할 거야."

우리는 두 가지 경우를 대비해서 이중 덫을 쳐놓았다. 피시전자가 마법진 위에 서면 타이밍을 맞춰 추적마법을 거는 마법진을 구멍 근처에 그려두고 옐츠란이 만들어 두었던 탈취가루를 주변에 뿌려뒀다. 전자는 학살 단원이 마법사가 아니라 마나의 흐름을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를 위한 확실한 추적 방법이었고 후자는 마법사일 경우를 위한 방법이었다. 탈취가루에 담긴 마나는 워낙에 미약해서 나처럼 뛰어난 감지자가 아니라면 마법사라 할지라도 눈치채지 못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신발 바닥에 묻은 가루가 어디까지 붙어있을까 하는 점이었다. 어느 순간 흔적이 뚝 끊기면 감에 의지해서 찾으려고 했는데 일을 쉽게 만들어주려는지 비 마법사가 왔다.

내 눈엔 전혀 투명이 아닌, 연기를 담은 비눗방울같이 생긴 사람 형태가 처형대의 구멍 앞에 서길 기다렸다가 제때 마법진을 발동시켰다. 나만 느낄 수 있는 빛이 거미줄처럼 이어졌다.

성실한 학살 단원이 우리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충분히 멀어졌다 싶을 때 우리는 정해둔 장소로 모였다. 아니, 정확히는 나와 그웬만 모였다. 기다려도 옐츠란이 나타나지 않아 놈의 자리로 가보니 추위 때문에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인상을 찌푸리고 잠들어있었다. 나는 상냥한 발길질로 옐츠란을 단번에 깨웠다. 그웬이 옐츠란의 입을 틀어막았기에 힘껏 차기 수월했다.

옐츠란은 절뚝거리며 일어서서 연신 허벅지를 문질렀다. 한마디 하고 싶은 얼굴로 아무 말도 못 하고 나를 노려보는 게 웃겨서 빙그레 웃어주었더니 과장되게 다리를 질질 끌면서 왔다. 참 웃기는 놈이야.

한 두번 다녀간 게 아닌 듯 구멍을 내려가면서 그럴싸하게 책으로 덮어놔 추적마법이 없었다면 못 찾을 뻔했다. 혹시라도 근처에 사람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우리는 서로에게 눈치를 줬다. 밑에 어떤 덫이 설치되어 있을지 모르니 먼저 내려가서 확인할 기회를 양보하는 미덕의 현장이었다.

“밑에 마법 장치는 없어. 확인 끝냈어.”

먼저 내려갈 것처럼 몸을 굽히고 아래를 살펴보던 옐츠란이 다시 일어나서 속삭였다. 옐츠란이 조금 못 미더웠던 나는 한 번 더 검사를 끝냈다. 그웬도 확인 차 나를 쳐다보길래 내가 작게 고개를 끄덕여주었다.

마법 장치가 없다면 물리적 장치가 있을 확률이 높았다. 구멍 안에 끝없는 어둠 속으로 이어진 사다리가 보였다. 잠깐 생각해봐도 내려갈 때 밟아야 하는 규칙이 있어서 잘못 밟으면 창이 날아온다던가 마법으로 곧장 내려가면 불이 붙는다든가 하는 함정이 수십 가지가 떠올랐다.

일단 두 발 두 손 다 사다리를 짚고 있으면 무력해지는 그웬은 안 되겠다. 내 발닦개에 구멍을 낼 순 없지. 나는 그웬을 뒤로 보냈다. 자기 딴엔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옐츠란이 나를 바라봤다. 어휴, 됐다. 저런 걸 보낼 바에야 내가 먼저 가는 게 낫다. 나는 파리를 쫓아낼 때처럼 성의없이 손을 휘저어 옐츠란을 물러서게 했다.

“내가 앞장설게. 너넨 내 뒤만 졸졸 따라와.”

그웬과 옐츠란이 서로를 마주 보길래 합심해서 나를 말리기 전에 구멍으로 뛰어들었다. 잠깐은 비행마법을 시전 하지 않았으니 난 거의 떨어지고 있던 셈이다. 배가 간질간질하며 내장이 뒤집히는 듯한 느낌이 났다. 나는 그 느낌에 킬킬대며 웃다가 비행마법을 이용해 빠르게 바닥을 한번 찍고 다시 지상으로 올라갔다. 머리를 맞대고 아래를 쳐다보고 있던 놈들이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사다리는 건드리지 말고 비행마법으로 곧장 내려와.”

나는 마차에서 어린아이를 내려줄 때처럼 그웬의 손을 잡고 아래로 이끌었다. 천천히 내려갔지만 어쨌거나 추락한다는 느낌이 들어서인지 그웬의 표정은 좋지 않았다. 구멍은 일직선으로 나 있었고 꽤 깊었다. 달빛도 닿지 않는 깊이라 사방은 칠흑처럼 검었다. 나는 초식동물처럼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서 괜찮지만 그웬과 옐츠란은 아닐 거다. 그웬이 내 손을 힘주어 잡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그웬을 끌어당겨 속삭였다.

“이제 곧 바닥이야.”

그웬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텐데도 바닥을 제대로 딛고 섰다. 옐츠란이 잘 내려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놈이 내려올 위치를 계산해 나는 그웬을 끌어 좀 뒤로 물러섰다. 금방 내려올 줄 알았는데 옐츠란은 바닥과의 충돌을 두려워하며 아주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아니지, 저게 내려오는 거라면 깃털은 내리꽂는 우박이다. 조금 더 기다리다가 나는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올라가서 멱살을 잡고 끌고 내려왔다. 옐츠란이 비명을 지르려다가 어윽, 하고 겨우 참았다.

옐츠란은 양팔을 쭉 뻗고 다리는 개구리처럼 벌린 볼썽사나운 자세로 착지했다. 나는 툭 튀어나온 엉덩이를 걷어차 주려다 말고 그냥 한 대 툭 치고 끝냈다. 그러면 고마워해야 마땅한데 옐츠란은 얼굴이 시뻘게져서 씩씩거리며 허공을 향해 소리죽여 “뭐 하는 거야!” 하고 씨근덕댔다. 참 나,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더러운 엉덩이에 깨끗한 내 손을 비볐으니 화낼 건 나다.

그웬은 기척을 읽었는지 우리가 어디 서 있는지는 짐작했지만 고개를 돌리며 어둠 속을 보려고 애쓰고 있었다. 이것들을 어떻게 데려가야 하지. 나는 일단 한 손엔 옐츠란물론 옐츠란의 엉덩이를 때린 손이다, 다른 한 손엔 그웬의 손을 잡았다.

“어쩔 수 없네. 불을 켜자.”

너무 작게 속삭였는지 내 말을 듣겠다고 두 놈이 고개를 숙이다가 머리를 박았다. 듣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소리가 났다.

“누구 돌이 단단한지 겨루는 건 나중에 해.”

“지금 마법사의 머리를 돌에 비유한 거야?”

나는 옐츠란의 말을 무시하고 반딧불이만 한 아주 작고 연한 불을 세 개 만들어냈다. 하나는 우리 사이에 띄우고 나머지는 옐츠란과 그웬의 발치에 띄우니 그나마 두 놈이 걸음마 할만한 밝기는 됐다. 저 멀리서 누군가 온다 해도 횃불을 들고 있을 테니 이 정도 밝기라면 우리의 빛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손 안 잡아줘도 걸을 수 있지?”

“그걸 말이라고.”

옐츠란은 부아가 치민 듯 황급히 손을 빼냈지만, 그웬은 머뭇거리며 내 손을 놓지 않았다.

“뭐야? 혼자 못 걷겠어?”

“그게 아니라...”

그웬은 스르륵 내 손을 놓았다.

“조심하십시오.”

왜 저러는 거람? 옐츠란도 나와 같은 생각을 했는지 요상한 표정을 짓다가 나와 눈이 마주쳤다.

“시중을 들더니 정도 들었나 봐? 아주 애틋해서 눈물이 다 나오네.”

옐츠란은 빈정대다 그웬에게 팔꿈치로 얻어맞더니 갈비뼈가 부러진 거 같다고 앓는 소리를 했다. 그러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놈을 내버려 두고 앞장섰다.

지하는 퀴퀴하고 눅눅하고 쥐똥 냄새가 심하게 났다. 돌바닥은 사방이 물이끼와 다른 것들로 미끈거렸고 간신히 길만 내어놓은 벽은 가끔 얼굴을 찌를 듯 위협적으로 튀어나오기도 했다. 옐츠란은 바닥만 보며 걸었기 때문에 그웬이 아니었다면 두 번쯤 박았을 거다. 그래도 출발하기 전 신발을 바꾼 덕에 옐츠란은 넘어지지는 않았다. 걷다가 물컹거리고 움직이는 것을 밟기도 했지만 당연히 쥐겠지. 그런 일이 하도 반복되자 다들 무덤덤해졌다. 거미줄이 얼굴에 들러붙는 건 예사였다.

추적마법을 따라 안으로 들어갈수록 형용할 수 없는 냄새가 났다. 하수구의 썩은 물에 달걀과 요거트와 식초를 섞고 가장 더운 여름 한 달간 푹 썩히고 오물과 뒤섞은 것 같았다. 이 길은 해밀턴이 전에 말한 지하감옥과 이어지는 게 분명했다. 나는 밟으면 차박차박 소리가 날 정도로 얕게 깔린 구정물의 정체를 모르는 척하고 싶어졌다. 이건 그냥 지하수일 거야.

코를 틀어막고 있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멈춰섰다. 그웬과 옐츠란의 표정도 좋지 않았다. 옐츠란은 자주 보여줬던 구역질을 참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와, 이건 진짜...”

나는 말하다 말고 입을 다물었다. 말한 만큼 숨을 더 들이마셔야 했기 때문이다. 입안에도 공기가 들어와 기분이 더러워져 침을 뱉었다.

지금 상황에 마법은 소용없다. 마법은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라 항목이 많아도 답이 아니면 쓸 수 없다. 정화 마법의 경우 질병이나 독은 막아주지만, 악취에는 효과가 없고 공기 순환 마법의 경우 멀리 있는 공기까진 끌어 올 수 없다. 이 안에서 공기를 뒤섞어봐야 냄새가 더 심해질 뿐이다. 혹시나 해서 짓이겨놓은 박하가 있는지 주머니를 뒤져보았지만 그렇게 잡스러운 물건은 항상 주변 사람들이 챙겼기에 없었다. 그웬에게도 물어보았지만 이런 일을 대비해 따로 여행 장비를 챙긴 건 아니라서 가지고 있지 않았다.

“빨리 처리하고 빨리 나가는 수밖에 없어.”

여기 그걸 모르는 사람? 하고 토를 달고 싶었지만 입을 열기 싫어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그웬도 같은 마음일 거다. 옐츠란도 말을 하고 나서 깨달았는지 이미 찌푸린 얼굴을 한껏 더 찌푸렸다.

습관적으로 적이 어디 있는지 마나를 더듬어보았지만, 모든 것이 썩어나가는 곳이라 사방에 안개처럼 희뿌연 마나가 떠다녀 인기척을 찾기 힘들었다. 생존을 위해 초식동물 같은 체질을 지닌 나는 저절로 시각과 청각이 예민해졌다.

떨어지는 물소리, 쥐들이 지나가는 소리, 벌레가 시체를 갉아먹는 소리, 사람의 목소리. 저기다. 추적마법도 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목소리가 꺾는 길을 세 번만 돌면 만날 정도로 가까워졌을 때 나는 손짓으로 주의를 시켰다. 그렇다고 옐츠란이 혼자 첨벙첨벙 촤악 하는 소리를 내는 것을 막을 수 없었지만 말이다.

그 목소리들은 이제 대화 내용이 들릴 정도로 가까워졌다. 다행히 옐츠란의 물장구 소리가 묻힐만큼 큰 목소리로 둘은 싸우고 있었다. 새어 나오는 빛에 사람 그림자 두 개가 일렁거렸다. 나는 반딧불이 같던 빛 마법을 해제한 뒤 고개를 살짝 빼서 주변을 확인했다.

그닥 넓지 않은 공간에 방치된 썩은 가구에 걸어앉아 싸우고 있는 남루한 검은 옷의 남자 두 명이 다였다. 훔친 책은 아쉽게도 보이지 않았다. 놈들은 얼마나 씻지 않은 건지 엉겨 붙은 머리에 얼굴 기름과 먼지가 섞여 검게 번들거리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멍청한 녀석! 그렇게 일러주었건만 또 실수를 해?"

남자 중 늙고 다리 한쪽이 없는 쪽이 소리를 지르며 다리가 멀쩡한 남자의 어깨를 밀쳤다. 밀친 사람도, 밀쳐진 사람도 비틀댔다.

젊은 쪽은 짜증 난 얼굴로 어깨를 문질렀다. 내 추적마법이 놈과 연결되어 있었다.

"한 권 정도는 모를 거야. 요즘은 잘 내려오지도 않던데, 어떻게 알겠어?"

"퍽이나 그러겠다. 이 개새끼야. 너 때문에 평생 여기서 못 나가게 생겼어."

들키지 않고 가까이 매복하려면 물속에 숨거나 썩은 빈 책장 뒤에 숨는 방법뿐이었다. 나는 알아서 따라서 오라고 속삭인 뒤 순식간에 책장 뒤로 이동했다. 그웬도 날듯이 내 뒤를 따라왔고 옐츠란은 후다닥 뛰어왔다. 학살 단원으로 보이는 남자 둘은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이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젊은 놈에게 손가락질하며 일러주었다. 쟤가 아까 위에서 책 던지고 간 놈이야. 옐츠란이 미미하게 낯을 찌푸렸다. 여기서 사는 것 같은데?

"하여간에 밖에서 온 놈들이란. 글도 몰라서 남의 나라 감옥에서 썩고 있지."

"거 씨발, 글 읽을 줄 안다고 되게 유세 떠네. 그러면 영감이 가던가."

놈들의 대화 내용을 듣고 그웬은 거의 입 모양으로 말했다. 지하감옥으로 이어지는 게 맞았군요. 죄수들일까요?

그건 아직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는 놈들이 정보를 더 던져주길 기다리기로 했다. 썩은 책장 뒤에 옹기종기 모여 서서 소리에 집중하는 동안 나는 한결 숨쉬기 편해진 것을 깨달았다. 옐츠란과 그웬의 향기가 시궁창 냄새를 중화시켜 주고 있었다. 나는 옆에 서 있던 옐츠란의 팔을 들어 코를 가렸다. 아, 이거네. 옐츠란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잠깐 봤지만 다시 학살 단원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못 가지? 다리 병신이면서 존나 잔소리만 많네."

늙은 남자는 젊은 남자의 머리를 뻑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내려쳤다. 분노한 얼굴로 머리를 문지르던 젊은 남자는 품에서 단검을 빼 들더니 갑자기 상대를 찔렀다. 일격이 아닌 감정이 담긴 난도질이었다. 늙은 남자는 비명도 못 지르고 젊은 남자 쪽으로 허물어졌다. 젊은 남자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이를 악 문 채 웃고 있었다. 살인자의 얼굴이었다.

"그러게 사람을 때리긴 왜... 억…!"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젊은 남자는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힘겹게 한 두발짝 뒤로 걷다가 쓰러졌다. 쓰러진 놈의 가슴에 단검이 꽂혀 있었다. 늙은 남자가 앞으로 고꾸라지며 겨우 찔러넣은 듯했다. 경련과 함께 고통스러워하던 남자는 곧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순식간에 살아있던 사람들이 시체 두 구로 변했다.

옐츠란이 멍한 얼굴로 목소리를 낮추는 것도 까먹고 말했다.

"뭐야..."

옐츠란은 믿지 못하고 한 마디 덧붙였다.

“진짜 죽은 거야?”

그웬은 검을 뽑아든 채로 시체에 다가갔다. 발로 차 뒤집었지만 죽은 자들이 그렇듯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웬은 맥을 짚어 확인했다.

“진짜 죽었어.”

옐츠란은 터덜터덜 걸어서 아무 의자에나 걸터앉았다. 쏟아진 내장을 보지 않으려 시선을 다른 데 두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웬은 시체 수색을 끝낸 뒤 옐츠란과 시체 사이를 가리듯 섰다.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더 들어가 볼 거야? 아니면 나가서 준비한 뒤 들어갈래?”

“잠깐 생각한 뒤에 말해줄게.”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쭈그려 앉아 시체의 품을 뒤졌다. 내가 난폭하게 다리나 팔을 들었다 놓을 때마다 피가 줄줄 쏟아졌다. 그웬이 손을 더럽히실 필요 없다고, 특별한 것은 보지 못했다고 말해도 나는 멈추지 않았다. 옐츠란이 발 밑까지 기어온 피를 피하려 애쓰며 창백한 안색으로 말했다.

“윽, 뭐 하는 거야.”

“찾았다!”

내가 찾던 것을 들고 신이 나서 외치자 옐츠란은 벌떡 일어났고 그웬은 두 세 걸음 만에 가까이 다가왔다. 더러운 시체를 뒤진 보람이 있었다.

“무언가 도움 될 만한 걸 찾으셨어요?”

“그럼, 아주 유용한 거지.”

나한테.

나는 찾아낸 작은 유리병을 열어 박하를 코 밑에 찍어 발랐다. 그웬이나 옐츠란으로 코를 막는 것만 못했지만 어느 정도 견딜만해 졌다. 이젠 시체가 된 남자 둘이 코 밑에 박하를 바르고 있길래 몇 대 때려서 뺏으려고 했는데 수고를 덜었다.

그웬이 순간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나를 쳐다봤다. 옐츠란은 어둠 속에서 집중해서 쳐다보느라 눈살을 찌푸리다가 말했다.

“이젠 화도 나지 않아. 하도 한결같아서.”

“그래서 필요 없어?”

옐츠란은 불퉁한 얼굴로 손을 내밀었다.

“화 안 난다 했잖아. 나도 줘.”

사이 좋게 코 밑에 까만 박하즙을 묻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옹기종기 모여 섰다. 그웬과 옐츠란은 심각하게 들어갈지 말지를 논의했지만 나는 웃음을 참느라 목이 아플정도였다. 내 얼굴은 안 봐도 귀엽고 사랑스러울 테지만 그웬과 옐츠란은 매직으로 가짜 수염을 그린 것처럼 어색하기 그지없었다. 쟤네는 절대 수염을 기르면 안 되겠다.

“어쩔 수 없어. 오늘을 놓치면 책이 처형될지도 몰라. 들어가야 해.”

운이 좋으면 지하감옥과 이어지는 길을 찾아 바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운이 나빠 학살단원을 만난다면 생포해서 나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다. 냄새나는 하수도에 영원히 갇힐 거라는 불길한 추측은 외면한 채 그웬과 옐츠란은 긍적적인 면만 보기로 했다. 놈들에겐 말하지 않았지만, 진짜 갇히게 된다면 순간 이동마법으로 손쉽게 빠져나올 생각이었다. 예상보다 내가 더 대단하다는 걸 두 놈이 알게 되겠지만 태양을 한 손으로 가릴 순 없다. 나는 워낙에 위대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드러날 뿐이다.

지하감옥 일부인지 학살단의 본거지로 쓰이는 곳인지 몰라도 확실히 사람의 손길이 많이 닿은 티가 났다. 두세 명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길은 넓었고 동굴 벽엔 그을린 횃불 걸이가 못 박혀 있었다. 다 녹은 밀랍 초, 말라 비틀어진 옥수수 심 같은 것만 봐도 사람이 꽤 오래 드나들었던 것 같다. 우리는 촛불이 밝히는 곳을 벗어나 서서히 어둠에 잠식되어 갔다. 그웬과 옐츠란의 걸음이 느려지더니 어느 순간부터 옐츠란은 한걸음 떼기도 머뭇거렸다. 반딧불이 같은 빛을 켜줬지만, 바닥이 고르지 않은 전보다 더 걷기 힘들어했다.

“아까는 그웬만 따라가면 됐는데...”

옐츠란의 걸음이 답답했는지 그웬은 친절을 베풀었다.

“이번에도 그냥 내 뒤를 따라와. 앞장설게.”

“고마워.”

옐츠란은 마다하지 않고 그웬의 뒤로 가서 섰다. 하지만 달팽이가 기어가는 속도처럼 걷는 건 여전했다.

떠들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옐츠란은 굳이 목소리를 죽여서 투덜댔다.

“뭔가 잘못 밟아서 함정이 발동될까 봐 함부로 발을 못 딛겠어. 아예 바닥이 안 보일 땐 그냥 막 걸었는데 이젠 튀어나온 돌만 봐도 신경 쓰여.”

옐츠란을 기다리느라 잠깐 멈췄다 다시 출발하고 멈췄다 다시 출발하는 일을 반복하다 세 번째가 되었을 때 나는 참지 못하고 옐츠란의 손을 잡았다. 소스라치게 놀라며 반사적으로 손을 빼려길래 꽉 잡고 끌어당기며 앞으로 걸었다. 옐츠란은 거의 질질 끌려왔다.

“이제 손잡았으니까 안 무섭지? 그러니까 그만 조잘대.”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무섭대? 하고 옐츠란은 거칠게 반응했지만, 정곡을 찔린 사람의 호들갑 정도로 느껴졌다. 놈이 아무리 몸을 비틀어봤자 내가 꽉 쥐고 있으면 마법사의 완력으론 절대 벗어나지 못했다. 옐츠란은 끙끙대다가 포기하고 얌전히 내 손을 잡은 채 걸었다. 그래, 말 잘 들어야 착한 아이지.

그웬의 시선이 잠깐 나와 옐츠란이 잡은 손을 향했다 떨어졌다.

자연스럽게 그웬이 앞장서고 중간은 나, 옐츠란이 마지막에 선 구조가 되었다. 길은 이제 돌바닥을 지나 벽돌이 깔린 곳으로 접어들었다. 하수도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한기가 밀려왔다. 구정물에 잠겼다가 나온 발이 끈적이는 차가움에 절로 곱아들었다. 발에 냄새가 배일거야. 옷에도, 머리에도, 몸에도. 이게 무슨 끔찍한 개고생인지. 이런 걸 모험이라 부르며 설렐 때는 지났는데 말이다.

줄곧 하나이던 길이 처음으로 갈라졌다.

“어디로 가야 하지?”

옐츠란은 어느 길을 고를까요 하는 운율에 맞춰 선택하려는 사람처럼 손가락으로 양쪽 길을 번갈아 가며 가리켰다. 그웬은 벽면에 가까이 다가가 무언가를 살펴보았다.

“이쪽일 겁니다. 이쪽이 횃불 걸이의 그을음이 더 짙어요. 사람이 자주 드나들었다는 뜻이죠. 해밀턴이 지하감옥엔 간수들조차 잘 돌아다니지 않는다고 했으니 돌아다닐 사람은 학살단밖에 없죠.”

그럴싸한 소리라서 그 길로 가기로 했다. 몇 번 갈림길이 더 나왔지만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다. 어쩐지 계속 왼쪽으로 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놈들의 본거지로 들어가는 건 분명했다. 더러운 지하에 어울리지 않는 고급 양장본이 너덜너덜해진 채로 바닥에 나뒹구는 게 심심치 않게 보였다.

옐츠란은 혹시 그중에 찾던 책이 있을까 싶어서인지 그웬이 시체를 확인할 때처럼 죽은 책을 발로 톡톡 건드려 제목을 확인했다. 나는 옐츠란이 그럴 때마다 힐끔 제목을 구경했다. 하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책들이었다. 그래서 처형장에도 올리지 않은 걸까?

드디어 길이 아닌 문이 보였다. 정확히는 문 크기로 뚫린 구멍이었지만 어쨌거나 방과 이어져 있었다. 작은 방에는 그나마 멀쩡한 책상과 의자, 그리고 다 낡아빠진 침대가 있었다. 입구 쪽에 파인 홈을 보건데 원래 감방으로 쓰이던 곳을 창살을 떼내어 쓰는 듯했다. 그웬은 빠르고 신속하게 책상을 뒤지더니 장부 하나를 찾아냈다. 상등품의 종이로 만들어진 장부엔 훔친 책의 제목과 훔친 날짜, 훼손 날짜, 처형장에 올린 날짜, 본래 소유자까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라무 사람이라 그런가, 체계적이네요.”

옐츠란은 제일 마지막 장에 적힌 메빌 실비어의 위대한 유언이라는 글자를 찾아냈다. 훔친 날짜는 적혀있었지만 다른 항목은 공란이었다.

“책은 아직 멀쩡해.”

책을 보관하는 곳은 아주 지척에 있을 거란 예감이 들었다. 그웬과 옐츠란은 발도 대기 싫은 침대까지 들춰보는 중이었다. 나는 놈들이 그러는 사이 어떤 소리를 들었다. 소리가 너무 울려 처음엔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인 줄 알고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쥐보다, 너구리보다 무거운 어떤 것이 달려오는 소리였다. 사람의 뜀박질 소리라는 걸 눈치챘을 땐 소리는 이미 너무 지척이었다. 그웬과 눈이 마주쳤다. 이 방 안은 숨을 곳이 없었다. 일단은 우리 셋만 서도 꽉 차는 방에서 나가야 했다.

나는 장부를 본래 자리라 생각되는 서랍에 넣고 그웬과 옐츠란은 침대를 빠르게 정리하고 복도로 나왔다. 이대로 정면으로 맞이하는 건가. 심지어 발소리는 두 명 이상인 것 같았다. 그웬이 검을 소리 없이 뽑았고 옐츠란은 중얼거리며 마법 두 가지 정도를 준비했다.

크게 다치지 않게 생포하려면 기습이 딱인데. 아쉬워하던 차에 바로 몇 걸음 앞에 오른쪽 벽에 있는 입구가 보였다. 내가 손짓하자 그웬과 옐츠란도 입구를 발견했다. 우리는 황급히 억지로 벌린 모양의 쇠창살 사이로 들어가 복도 쪽 벽에 딱 기대어 섰다. 마법 불까지 끄고 나자 간발의 차이로 환한 등불 한 개가 휙 하고 지나갔다. 젊지도 늙지도 않은 남자 한 명과 머리를 바짝 깎은 여자 한 명이었다. 놈들은 조금 전 우리가 있었던 방으로 들어갔다. 몇 번 서랍 여닫는 소리가 들리고 여자가 의아한 듯 말했다.

“장부가 왜 여기 있어?”

옐츠란과 그웬의 눈동자가 나를 향했다. 나도 아차 싶었다. 어디다 뭘 뒀는지까지 기억할 줄 난들 알았겠어? 솔직히 물건을 어디에다 뒀는지 기억하는 건 강박증 가진 사람이나 그러는 거 아닌가? 난 중요한 물건도 아무 데나 휙휙 던져두는데 말이다. 원래 사소한 것에 신경 쓰면 성공하지 못하는 법이다.

다음 말이 이어지기 전까지 극도의 긴장감이 흘렀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그웬이 검을 꽉 쥐었다. 손등의 힘줄이 도드라지는 것이 보였다.

“또 칼븐 짓이군. 그놈은 뭐든 제자리에 두는 법이 없다니까.”

그 말이 다였다. 그리고 다른 주제로 대화 화제는 넘어갔다. 흠, 대범한 성격이군. 마음에 든다. 하는 일 다 잘 되시고 도둑질 번창하세요.

좀처럼 소리 죽여 움직이지 못하는 옐츠란은 두고 나와 그웬이 먼저 몰래 움직이기로 했다. 신발이 젖어서 조심하지 않으면 짜박 찌걱 하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몇 걸음 안되는 거리인데도 오래 걸렸다. 멀리서 고개를 빼어 우리를 쳐다보는 옐츠란의 얼굴에 걱정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저런 건 좀 귀여운데.

"잠깐. 이게 뭐야?"

여자의 말에 그웬은 몸을 낮추고 당장이라도 쳐들어갈 듯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마법 책을 왜 훔친 거야? 마법 서점은 피하라고 했잖아. 전달 안 했어?"

"전달했는데요."

"확실하게 말한 거 맞아?"

"네. 여자가 주인인 마법 서점은 훔치지 말라고 전했어요. 레이슨이 훔친 거죠? 저번에도 실수했던데."

저들이 말하는 곳은 솔비아의 서점이 분명했다. 왜 솔비아의 책은 훔치지 말라고 하는 걸까? 나는 솔비아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보려고 했지만, 지하의 음습한 마나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솔비아가 학살단원이거나 단장일 경우를 염두에 뒀다. 마을 사람들이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찾지 않을 테니 움직이기 쉬울 테고 저주 서적이라는 은밀함 때문에 책의 재고는 솔비아를 제외하고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다른 책 한 두 권을 섞어 팔아도 누가 알겠는가? 그렇다면 다른 상인에게 빌려주고 남을 만큼 막대한 자금의 출처도 설명되었다. 자금과 마법적 지식을 섞으면 못 해낼 속임수가 없다.

“더이상 둘러댈 말도 없다고 레이슨한테 전해. 위쪽엔 사실대로 보고할 거야. 그놈은 평생 여기서 썩겠군. 그러게 글도 모르는 놈은 감옥에서 꺼내지 말라고 했잖아."

"위쪽에서 뽑은 걸 왜 저보고 그러세요. 저도 그놈 마음에 안 든다고요. 어디서 확 뒤졌으면 좋겠구먼."

실제로 죽었으니 축하한다고 해야 할지.

둘은 두런두런 책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책은 따로 보관하고, 이것도. 그리고... 이거.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다 태워버리자. 여자의 말에 따라 사각사각, 종이가 긁히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그들이 방에서 나오는 순간 덮칠 생각이었다. 그 때문인지 침묵이 유독 길게 느껴졌다. 옐츠란도 아니고 내가 하는 일에 실수가 있을 리는 없었다. 나는 태평하게 하품이나 했다. 그웬도 준비는 하고 있지만 그닥 긴장한 기색은 아니었다. 옐츠란 혼자 코 밑에 까만 박하를 바르고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어둠 속에서 이쪽을 보느라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다.

그리고 두 놈이 나오자마자 우리는 턱 아래에 검을 겨눴다. 조금만 더 앞으로 나온다면 그대로 베일만큼 검을 바짝 붙였지만 둘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표정을 짓다가 어둠 속에서 예리하게 빛을 반사하는 검날을 보고서야 “누구냐!”하고 외쳤다.

“여긴 어떻게 들어온 거지?”

그웬은 질문에 질문으로 답했다.

"훔친 책은 어디에다 뒀지?"

둘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우리를 노려보았다. 겨우 목에 검을 겨눈다고 대답할 눈빛은 아니었다.

나는 빠른 판단을 끝냈다.

"둘은 관리하기 어려워. 둘이나 필요 없으니까 하나는 죽이자."

알아들었을 텐데 그웬은 잠깐의 침묵 후 반문했다.

"네?"

기회만 엿보고 있던 놈 중 남자 쪽이 그웬의 정신이 흐트러졌다고 생각했는지 뒤로 빠르게 물러나며 검을 뽑아 들었다. 검을 겨눈 상대가 어린 여자인 나라서 빠져나가기 쉽다고 판단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짚을 베는 것보다 더 쉽게 놈의 심장에 검을 찔러넣었다가 뺐다. 죽음의 손길이 소리 없이 놈을 스치고 지나갔다.

"거봐, 내가 둘은 관리하기 어렵다고 했잖아."

숱한 사람을 죽여왔으면서 그웬은 형용할 수 없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검을 허공에 휘둘러 피를 떨쳐냈다. 이쪽으로 오던 옐츠란이 놀란 표정으로 멈춰서 있었다.

"게롤드!"

여자가 분노에 휩싸여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드는 귀찮은 일이 벌어지기 전에 나는 아직 피에 젖은 검을 놈에게 겨눴다. 여자는 씨근덕거리긴 했지만, 사리판단을 끝냈는지 냉정한 얼굴이었다.

"안내해. 거부한다면 이번엔 쉽게 죽여주지 않을 거야."

우리는 장부를 챙긴 뒤 놈의 무장을 다 해제하고 앞장서 걷게 했다. 갑자기 앞으로 달려나가면 등 뒤에 칼을 맞게 될 거라고 일러줬기에 얌전히 걸음걸이였다.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듯했다.

"이 안으로 들어가야 해...합니다."

빈 참나무통만 줄줄이 놓인 창고를 앞두고 놈이 갑자기 멈춰섰다. 옐츠란이 내 팔을 붙잡지 않았다면 난 진짜로 여자를 찔렀을 거다. 그것을 알아챘는지 놈은 조금 두려운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왜 들어가지 않지? 먼저 들어가."

설마 함정으로 안내하는 뻔한 수를 쓰는 건가? 그 정도의 얕은 사고방식은 아니었는지 놈은 보란 듯 먼저 들어갔다. 옐츠란이 들고 있는 등불의 빛에 여자의 얼굴이 싸늘하게 빛났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무표정으로 가장하고 있지만 한 꺼풀 벗겨낸다면 그 아래 숨어 있는 것이 있었다. 그게 뭘까? 아마도... 그래. 여자는 무언갈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경고를 하기도 전에 이때껏 유지해온 순서대로 그웬이 앞서 나갔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째에 함정은 발동됐다. 벽에서 쏘아진 화살은 그웬을 똑바로 노리고 날아왔다. 뿌리치기 위해 검을 휘둘렀지만 철로 만들어진 화살은 쉽게 튕겨 나가지 않았고 심장을 피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화살은 그웬의 왼쪽 팔을 스치고 지나가 벽에 박혔다. 여자는 크게 웃더니 어둠 속으로 달려나갔다.

"여기로 오지 마세요!"

그웬이 왼쪽 팔을 늘어트린 채 외쳤다. 아래로 뚝뚝 떨어지는 피는 얼핏 봐도 심상치 않아 보였다.

"다른 함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 가만히 계세요."

"너는 거기 가만히 서 있다가 과다출혈로 죽게?"

나는 방어막을 두르고 가서 그웬을 복도로 끌어냈다. 왼쪽 소매가 피로 흠뻑 젖을 정도로 팔은 심각했다. 살점이 뜯겨나간 듯했다. 그래도 내 치료마법이라면 이 정도는 순식간에 낫는다. 익숙하게 치료마법을 펼쳤지만 파란 방어막이 생성되며 마나를 튕겨냈다.

"뭐지?"

나는 다시 한번 마나를 때려 부었다. 여전히 방어막이 마나를 튕겨냈다. 그웬이 인상을 찌푸리며 미치겠네. 하고 작게 중얼거렸다.

“소용없습니다. 세이모어 공작 부부가 제 몸에 신성진을 새겨서 신성력 외의 힘은 튕겨내거든요."

“그때는?”

나는 그웬의 허벅지를 뚫어놓았던 대련을 떠올렸다. 내 마법 덕에 흉도 남지 않고 깨끗하게 아물었다.

“여행 동안 혹시 모를 위급 상황을 생각해 신성진을 불로 지졌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재구축된 것 같군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처음으로 그웬이 불쌍해졌다. 기사에게 이런 짓을 한다는건 그냥 죽으라는 뜻 아닌가. 태평성대라 할지라도 기사들은 주군의 명에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다 자주 다쳤다. 치명상을 치료할 만큼 고위급의 신관들은 죄다 신전에서 한자리 꿰차고 앉아 엉덩이가 무거워 제때 도착하지 않는다. 신관만 믿고 기다리다간 진짜 신의 곁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전쟁이라도 벌어진다면 더했다. 덕을 쌓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평신관들만 전쟁터에 내몰 뿐 진짜 신성력을 행세할 수 있는 자들은 안으로 숨어든다. 이건 그웬의 부모가 그웬에게 보내는 경고이자 낙인이었다. 전쟁터에 신관을 대동할 수 있을 정도로 신전과 긴밀한 관계를 맺던지, 그냥 거기서 죽던지. 나는 동정의 눈빛으로 그웬을 바라보며 말했다.

“다시 지지면 안 돼?”

“그땐 마비약을 먹고 지졌습니다. 살을 지지는 고통을 견딜지 살이 찢어진 고통을 견딜지 고르라는 뜻이라면 너무 설레서 고르기가 힘드네요.”

하여간에 요, 요 주둥이만 살아서!

나는 그웬의 입을 탁탁 두 대 때렸다. 그웬은 입을 맞고도 뭐가 좋은지 미소를 지었다. 아직 살만한가 보네.

나는 종아리에 감아 두었던 붕대를 풀어 옐츠란에게 건넸다.

"지혈되도록 이걸로 꽉 묶어. 붕대 감는 법은 알지?"

옐츠란은 별로 신뢰가 안 가는 표정으로 끄덕였다. 넘겨주고 가기엔 불안하지만 도망간 학살단원을 쫓아야했다. 나는 방어막을 두르고 거의 바람처럼 날았다. 화살이 날아오고 불이 솟아오르고 바닥이 무너졌지만, 아무것도 내게 해를 끼치지 못했다. 곧 놈은 나에게 금방 따라잡혔다. 나는 뛰어올라 놈을 쓰러트렸다. 여자가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뻔한 수에 우리 쪽이 당했네."

놈은 악을 쓰며 내 밑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다. 나는 정신 없이 움직이는 머리통을 밟았다. 얼굴이 짓눌린 녀석이 신음을 냈다.

"이번에도 개수작 부리면 재미없을 줄 알아."

진부한 말이었지만 나는 상황을 더 진부하게 만들 수 있었다. 비밀을 발설하지 않는 사람을 고문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뻔하고 지루한 상황 말이다. 나는 마력의 끈으로 놈을 칭칭 감았다.

돌아가 보니 옐츠란은 그웬에게 혼나면서 엉망으로 붕대 매듭을 묶는 중이었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비켜봐. 선물 포장하냐?"

옐츠란이 피에 젖은 손을 어찌할 줄 모르며 서 있는 동안 나는 힘주어 붕대를 감았다. 내가 전에 마법을 걸어두었던 붕대는 저절로 넓게 펴지며 지혈과 고정을 위해 완벽한 모양새가 됐다. 원래는 치료도 겸해야 하지만 그웬의 몸에는 마법이 통하지 않으니 소독이 고작인 듯했다. 상처에 강한 압박이 가해지자 그웬이 이를 악물며 고통을 참아냈다. 벌써 안색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재수 없으면 죽겠는데."

"뭐 그런 말을 하냐?!"

옐츠란이 화들짝 놀래며 나를 나무랐다. 저승으로 가는 예비번호를 받은 그웬이 힘없이 웃으며 그러게요. 하고 대꾸했다.

"진짜 죽을 거 같으면 말해. 신관을 납치해서라도 살려줄게."

“든든하네요.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옐츠란이 짜증이 난 얼굴로 말했다.

"그걸 지금 농담이라고 주고받는 거야?"

그웬은 자기가 죽은 뒤 옐츠란이 슬퍼하든 말든 상관없다고 했지만 옐츠란은 적어도 사흘 밤 낮을 슬퍼할 것 같았다. 오지랖이 넓은 만큼 정도 많아서 집에 살던 쥐가 죽었다 해도 그립던 찍찍 소리가 들리지 않네 할 놈이다. 과장을 보태자면

그웬이 죽으면 슬퍼할 사람이 둘이나 되니 가능한 한 빨리 움직여야 했다.

머리 굴리는 게 보일 정도로 심상치 않은 표정을 짓고 있던 여자의 종아리를 걷어찼다.

"이제 출발해."

"어디에서 온 놈들인지 몰라도 절대 알려줄 수 없다!"

나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다. 우리 나쁜 짓을 하다가 협박받으면 이렇게 말하자. 하고 악당끼리 입을 맞추기라도 한 걸까? 몇백 년 동안 수십 번은 같은 말을 들은 것 같다.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 안 보여? 우리 진짜 급하거든?”

여자는 악에 받친 얼굴로 나를 노려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쏟아냈다.

“게롤드를 죽이다니! 게롤드가 죽다니...!”

아까 전엔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같더니, 갑자기 어색해지게 왜 그래? 나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사람 하나 죽인 거로 모자랐나, 도둑 집단에 무슨 고귀한 충성심이 있다고 목숨을 걸까? 나는 쉽게 가는 길을 택했다. 놈의 어깨에 칼을 박아넣고 한 바퀴 돌리면서 빼냈다. 어깨뼈가 바스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놈은 고통에 겨운 비명을 내지르며 무너져내렸다.

“게롤드 곁에 가기 싫으면 빨리 안내해. 재미없다고 했잖아, 피곤하게 굴지 말자.”

뒤에서 옐츠란이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다. 옐츠란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나를 낯선 사람 보듯 보고 있었다. 나는 볼에 튄 피를 닦아냈다.

“싫어?”

나는 검을 치켜들었다. 놈은 이제야 말을 알아들었는지 벌벌 떨며 길을 알려줄 테니 살려달라고 외쳤다. 옐츠란의 눈빛이 계속 떠올라 기분이 더러워졌다.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거 같잖아.

그웬이 말했다.

“잘됐네요. 갑시다.”

그웬의 말에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나는 검을 집어넣고 마력 끈을 이용해 여자를 억지로 일으켰다. 놈이 비틀거리면서 걸을 때마다 바닥에 피가 떨어졌다. 금방이라도 기절할 것 같은 표정이라 내키지는 않았지만 죽지 않을 만큼 치료했다. 살이 억지로 붙는 고통에 여자가 비명을 질렀다. 저러다 기절이라도 하면 낭패인데... 다행히 놈은 땀을 뚝뚝 흘리면서 다시 걸었다. 옐츠란은 여자가 불쌍해서인지 계속 힐끔거렸다. 땀 흘리는 거라면 그웬도 지지 않는다고. 걷는 진동만으로 상처가 아픈지 가끔 억눌린 숨소리도 내지, 야하게. 어느 쪽이 먼저 죽을 것 같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그웬인데 옐츠란은 오늘 처음 본 사람까지 동정할 여력이 남아있나 보다.

길은 지하감옥으로 다시 이어졌다. 감방 대부분은 죄수가 지냈던 흔적은 있지만, 문이 열려있었다. 드물게 몇몇 감옥은 문이 닫혀 있었고 수감된 죄수들은 숨만 겨우 쉬는 시체와 다름없었다. 한 죄수가 인기척이 들리자 쇠창살 쪽으로 기어와 팔을 뻗었다. 나뭇가지같이 앙상한 팔이 허공을 휘저었다.

“이보게! 론다! 나 진짜 잘 할 수 있어, 제발 꺼내줘!”

론다라고 불린 여자는 흠칫하고 놀라더니 짜증 난 기색으로 죄수를 노려봤다. 백발로 쉰 머리와 수염을 마구잡이로 기른 죄수는 눈이 보이지 않는지 뿌연 눈으로 허공을 쳐다보고 있었다.

“살 날도 남지 않은 늙은이를 불쌍하게 여겨서라도 꺼내주게. 자네나 나나 어차피 다 같은 죄수 신분 아닌가. 내 몫은 바라지도 않으니 그저 단원 명단에 내 이름만 올려주게. 제발...”

론다는 대답하지 않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죄수는 론다의 이름을 연이어 부르다가 잠깐 멈칫하더니 미친 듯이 킁킁대며 냄새를 맡았다.

“피 냄새가 나는군. 론다, 심하게 다쳤나? 나를 꺼내주면 좀 봐줄 수 있는데... 물론 진짜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손은 제법 꼼꼼하다네."

죄수는 주름진 손으로 쇠창살을 꽉 잡더니 앙상해서 해골에 살가죽만 얹은 것 같은 얼굴을 어떻게든 그 사이로 빼내려고 애쓰며 중얼거렸다.

"가만... 이건... 다른 냄새야... 신선한 냄새... 지하의 냄새가 아닌데... 거기 누구 있소? 새로 온 간수인가? 걸음 소리도 한 명이 아니군그래. 거기 가는 당신들은 누구요? 새로 온 간수가 맞는다면 제발 나 좀 풀어주시오.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여기 갇힌 지 오래되었소! 이제 얼마나 지났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요. 12년이 되었던가? 13년이 되었던가... 제기랄. 정말 오래되었군."

나는 고개를 돌려 그웬의 상태를 살폈다. 많이 안 좋아 보였지만 그웬이니까 잘 견디리라 믿는다. 마력 끈을 힘주어 당기자 론다가 비명을 지르며 멈춰섰다. 혼잣말에 반응이 돌아오자 죄수가 흥분해서 미친 듯이 말을 쏟아냈다. 나는 그놈의 말을 적당히 끊었다.

“무죄든 유죄든 관심 없으니 아까 하던 얘기나 마저 해봐. 학살단원이 죄수 신분이라고? 쓸만한 정보를 말하면 꺼내주지.”

“드디어…! 드디어 내가 필요한 사람이 나타났군…! 본래 여기 수감 돼 있던 죄수를 누군가가 풀어줬소. 자기가 하는 일을 도우면 보석금을 내주거나 도망쳐서 기반을 잡고 살만큼 보상을 준다고 했소. 그 제안을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훔친 책의 희소성이 오르면 다시 되판다고 하는 걸 봐서 책상인 중 한 명인 것 같소. 처형된 책일수록 더 비싸게 팔린다고 하는 소리도 들었소."

죄수는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끊임없이 실토했다. 비밀을 지키기 위해 제롤드, 아니다 게롤드라고 했지. 게롤드까지 잃은 론다는 화나서 입만 싼 노인네라고 욕을 퍼붓고 감옥에서 나오면 바로 죽여버릴 거라고 경고했다. 죄수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내 욕을 하는 저 여자는 이름이 론다인데 학살단원들을 관리한다오. 이름이 뭔지 어떻게 생겼는지 가족이 있는지 어떤 일을 맡았는지 줄줄이 꿰고 있지, 학살단을 전부 잡으려면 저 여자를 고문하시오. 입이 무거운 자니까 아주 혹독하게 고문해야 할 것이오. 원하는 정보를 다 얻거든 죽여버려야 해. 복수심이 강한 자거든. 유명한 도둑 길드 출신이니 어디에 가둬놔도 빠져나와 당신들을 죽이러 갈 거요."

론다는 등불을 등지고 죄수를 노려보았다. 복수의 대상이 지금 정해진 듯했다. 죄수는 미친 사람처럼 웃었다.

"속이 다 시원하다. 이 악마 같은 자식들이 망할 때가 왔군."

죄수는 그 뒤로 아는 것을 전부 말하려는 듯 칼븐이라는 자는 다리 하나가 없고 레이슨은 발소리를 거의 내지 않고 걷는다는 둥 쓸데없는 얘기를 이어갔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다 얻은 것 같아 나는 감옥 문을 열어주었다. 오래된 문은 몇 번 힘주어 당기자 덜컹거리다가 쇠창살이 통째로 흙에서 들려졌다.

론다는 문이 열리자마자 물어뜯기라도 하려는 사람처럼 달려들었다. 나는 론다를 멀리 걷어찼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건 나중에 해도 된다. 그웬이 신음을 흘리며 허리를 구부린 채 비틀대고 있으니 빨리 나가야 했다.

노인은 몇 발자국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바닥을 더듬으며 기었다. 나를 바깥으로 데려가 주시오! 여보게! 절망 섞인 소리를 질렀지만 우리는 행여나 잡힐세라 조심히 빠져나왔다. 꺼내준다고 했지 데려가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으니 약속은 지킨 셈이다. 쇠창살만 사라졌지 감옥과 다른 바 없는 어둠 속에서 우두커니 앉아있는 게 우리가 본 죄수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론다는 멀어지고 나서 차갑게 중얼거렸다. 스물아홉이나 되는 여자를 죽인 살인범입니다. 꺼내주지 말았어야 해요. 죄책감을 달고 걷던 옐츠란의 얼굴에서 차츰 표정이 사라졌다.

끔찍한 냄새가 옅어지고 신선한 공기가 조금씩 불어왔다. 지하에 어울리지 않는 깨끗하고 반듯한 돌계단이 나타났다.

론다는 내키지 않는 듯 입을 열었다.

"훔친 책은 지상에 보관하고 있어요."

"지하가 본거지면서 왜 책을 지상에 보관하지? 또 거짓말을 하는 건가?"

옐츠란이 꽤 날카로운 투로 물었다.

"거짓말 아니에요. 책에 하수도 냄새라도 배면 어디서 왔는지 눈치를 챌 테니까 지상에 두기로 한 겁니다."

책이 있든 없든 우리는 일단 나가기로 했다. 그웬이 여관에 신성력 포션을 챙겨 온 게 있다 했으니 올라가서 그웬을 치료하고 나와 옐츠란, 혹은 나 혼자 다시 내려와도 된다. 사실 그 멍청한 책을 포기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옐츠란은 힘 닿는데까지 해볼 생각인 듯했다. 그냥 나라 없이 살지.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돌아가는 거야. 나는 다 이길 자신이 있다. 그냥 나처럼 나라 없이 살면 편하다는 말에 옐츠란과 그웬은 못 들은 체했다. 다 때려 패면 그게 내 나라인데 왜 편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지? 돈도 안 주는 사명감이 항상 문제다.

나는 그웬과 옐츠란을 먼저 올라가게 했다. 그웬은 다시 선두에 서면서도 두려움이라곤 한 톨도 없는 표정이었다. 옐츠란은 그웬이 혹여나 계단에서 굴러떨어질까 걱정되는 얼굴로 뒤를 따랐다.

둘을 먼저 보낸 이유는 론다를 죽이기 위해서였다. 아까 그 죄수는 눈이 보이지 않아 알아서 죽게 내버려 두었지만, 론다는 지금 처리해야 뒤가 깔끔하다.

옐츠란이 계단을 올라가다 말고 나를 돌아보았다. 나와 눈이 마주친 순간 옐츠란은 내가 어떤 일을 하려는지 깨달은 듯했다. 나는 그가 여자를 그냥 경비대에 넘기자던가 어색하게 안 올라와? 하고 물어볼 걸 기다렸다. 하지만 옐츠란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사람처럼 고개를 돌렸다. 덕분에 나는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었다. 조용한 지하에 시체 넘어지는 소리가 유독 크게 울렸다.

다행히 론다는 두 번이나 우리를 속일 만큼의 배짱이 없었다. 위로 들리는 묵직한 나무 덮개를 열고 숨통 트이는 지상으로 올라가자 작은 도서관을 방불케 하는 풍경이 펼쳐졌다. 고요하게 줄을 맞춰 달빛을 맞고 서 있는 책장은 엄숙함까지 느껴졌다. 조금 전까지 더럽고 음습한 지하감옥을 지나왔지만, 먼 과거 일 같았다. 관리를 꾸준히 하는 듯 먼지도 쌓이지 않은 책장엔 장부의 목록대로 잘 분류된 책이 얌전히 꽂혀있었다. 장부와 대조해가며 책을 찾던 옐츠란이 중얼거렸다.

“라무 사람은 범죄자들까지 꼼꼼하네. 사람은 역시 배워야 하나 봐."

우리도 페르디낭을 다시 세우면 글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 학교를 세우자. 책을 읽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옐츠란이 모처럼 마법사답지 않은 말을 했다. 하긴, 옐츠란은 마도라이지. 마법사가 길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흔한 시절을 낙원처럼 여기는 것만 봐도 특권의식이 없는 것 같다. 옐츠란이 멍청하지만 착하다는 걸 나는 겨우 인정했다.

그웬이 조용히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치는 바람에 그런 일들을 레티시아 님이 떠맡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 말이야?"

"제가 본래 해야 했을 일들이요. 괜히 레티시아 님의 손만 더럽혔군요."

나는 손을 들어 보였다. 손은 그웬의 피로 얼룩져있었다. 내가 물끄러미 손을 바라보는 걸 오해했는지 그웬은 떨리는 손으로 감싸 쥐었다. 열이 오른 그의 손은 따뜻했다.

"내 손은 더러워지지 않았어."

사람을 고문하고 협박하고 죽이는 일에 이제 아무런 감흥이 일지 않았다. 내 생명의 값어치가 곤두박질친 만큼 모든 이의 생명이 하찮아졌다. 한때는 이런 내가 끔찍해서 나름의 이유를 대며 합리화했다. 저 사람은 악인이니까 죽어도 돼. 저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했었잖아, 반격한 것뿐이야.

하지만 죽어도 되는 사람은 없다. 내가 영원히 되살아나야 할 이유가 없듯이. 필요하기에 사람을 죽였을 뿐이다. 그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엔 너무 먼 길을 걸어왔다. 신을 믿는 자들은 지옥이 두려워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하겠지만, 지옥이 있다 해도 내가 심판받는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 테니까.

"메빌 실리어의 위대한 유언만 없어."

옐츠란이 절망적인 어조로 말했다. 하필이면? 여기까지 왔는데도?

처음엔 일이 쉽게 풀린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젠 누가 일부러 우리를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옐츠란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다가 어디선가 맡아 본 적 있는 냄새를 맡았다. 근래였는데... 나는 냄새가 나는 책 하나를 꺼냈다. 마른 풀잎이 끼워진 페이지가 저절로 펼쳐졌다. 잎의 모양을 보니 기억이 떠올랐다. 저주 서점에 갔을 때 솔비아가 빻고 있던 약초인지 독초인지 모를 풀이었다. 이게 왜 여기 끼워져있지? 저주 의식 중 하나인 건가? 마력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저주마법은 준비 단계에서 마법을 사용하지 않는 일이 흔했기에 그것만으로 알 수 없었다. 나는 잎 하나를 챙겨 주머니에 넣었다.

"왜 메빌 실리어의 책만 없지?"

옐츠란은 빠르게 한 번 더 책장을 훑기 시작했다. 그 순간 쿵 하고 묵직한 소리가 들렸다. 기어코 그웬이 쓰러진 것이다. 옐츠란은 사색이 되어 그웬에게 달려갔다.

"그웬? 그웬! 죽은거 아니지? 죽었다면 대답해!"

너무 놀라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다. 아주 잠깐 의식을 잃었던 건지 그웬은 끙끙거리며 눈을 떴다. 옐츠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마법을 써서 그웬을 허공에 띄웠다. 누운 채로 내 앞에 배달된 그웬이 중얼거렸다.

"시체처럼 운반하진 말아 주세요..."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는 그웬을 세웠다. 허공에 떠 있는 그웬에게 쭈뼛쭈뼛 다가온 옐츠란이 눈치를 보며 말했다.

"한번만 더 확인하고 싶은데, 버틸 수 있지? 버텨야 해, 힘내!"

옐츠란은 대답을 듣기 싫은 사람처럼 후다닥 뛰어갔다. 걱정과 마도 시대에 대한 탐구는 별개인가보다. 그웬은 고통을 억누르는 와중에 어이가 없는 표정 그대로 진짜 기절해버렸다.

그웬은 라무에서 죽을 운명이 아니었는지 본인의 철저한 준비성 덕인지 몰라도 신관을 납치하지 않아도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혹시나 해서 챙겨온 신성력 포션이 여관에 있었기 때문이다. 신성력은 마력과 달라서 믿음이 없는 무생물에선 쉽게 도망가버린다. 그런 이유로 만든 지 꽤 된 신성력 포션 한 병을 통째로 붓는다 해도 상처를 완벽하게 치료하진 못하겠지만, 살이 차오를 정도는 될 거다. 본래는 옐츠란이 처치를 하는 동안 나는 깨끗하게 씻고 한숨 푹 자려고 했는데 이런 일은 처음 해봐서 쏟을까 무섭다며 손을 사시나무처럼 떨어대서 내가 맡게 되었다. 씻지도 못하고 그웬과 옐츠란의 방에 끌려온 나는 짜증 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그냥 붓기만 하면 되는 건데 뭐가 그리 무섭다고.

겨우 정신이 들어 침대에 기대어 앉아있는 그웬이 벌레라도 되는 듯 옐츠란은 멀찍히 떨어져서 서있었다. 나는 치료를 위해 붕대 매듭을 풀었다. 붕대는 매듭을 풀자마자 뱀처럼 스르륵 스스로 움직여 전부 풀리더니 침대에 떨어졌다. 붕대를 풀자마자 아주 징글징글한 상처는 다시 피를 뱉어냈다. 옷 위로 포션을 부을 수 없는 노릇이니 단검으로 그웬의 옷을 조각조각 잘라 상의를 벗겨냈다. 등 쪽에서 벗겨냈기 때문에 먼저 드러난 조각 같은 등판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걸 참았다. 나는 옷을 벗기는 체하며 그웬의 등을 더듬었다. 이야, 죽인다. 매일 연무장에서 뒹구는 놈의 살결이 어쩜 이렇게 좋지. 손가락이 등 근육의 굴곡을 덧그리는 듯 움직였다. 허리선을 따라 엉덩이로 뻗는 근육이 참 곱다. 오른쪽 허리 아랫부분에 그웬이 말했던 신성진이 있었다. 화상 흉터 위로 도드라진 신성진은 노예의 낙인처럼 보였다. 사람 몸에 이런 걸 새기다니... 불현듯 내 발목에 있는 표식이 떠올랐다. 내 손길이 너무 노골적이었는지 옐츠란이 헛기침을 큼큼했다. 그웬도 아니고 네가 왜?

아무튼, 나는 그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탁자 위에 올려 두었던 신성력 포션을 집었다. 다시 그웬을 보니 등근육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복근은 당연히 완벽하리라 예상했지만 가슴 근육이 예술이었다. 와, 가슴 존나 크네... 그웬이 흘린 땀 때문에 가슴은 전체적으로 반들거렸고 가슴골 사이로 땀 줄기가 선명하게 보였다. 남자의 가슴이란 신기하기도 하지. 단단하면서 한편으론 말랑해 보인다. 꾸준히 단련해야 얻을 수 있는 남자의 봉긋한 가슴은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지방이 있는 여자의 가슴과 달랐다. 여자의 가슴이 신체 일부라면 남자의 가슴은 성적인 매력을 과시하기에 제격인 곳이다. 젖을 줄 필요도 없는데 젖꼭지가 있다는 것만 봐도 그렇다. 분명 남자의 가슴을 볼 때 심심하지 말라는 누군가의 친절일 거다. 그웬의 가슴에 기댔을 때 무언가 내 머리를 안정감 있게 받쳐준다 생각했는데 그게 가슴이었구나.

나는 걷는 중이었다는 것도 잊고 멍하니 그웬의 가슴만 바라봤다. 그웬이 음식도 아닌데 왜 침이 고이는거지? 그웬과 옐츠란이 입 모아 나를 부르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옐츠란은 나를 파렴치한으로 생각하는게 틀림없는 눈빛으로 보고 있었다. 그웬도 나를 약간 책망하는 얼굴이었다.

나는 포션 병을 열다가 그웬의 움직임에 따라 말랑해 보였다가 단단해 보였다가를 반복하는 가슴에 다시 시선을 빼앗겨버렸다. 찌르면 어떤 느낌일까?

"지금 제 가슴 보시는 거예요?"

가슴이 말을 했다. 아니, 그웬이 말을 했다. 표정을 보니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았다.

"뭐라고? 가슴 보느라 못 들었어."

옐츠란이 기가 찬 듯 웃음을 지었다. 뭐, 왜. 한 눈 좀 팔 수 있는 거지. 그웬이 깊은 한숨을 푹 쉬었다. 가슴이 크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만 보시고 치료 부탁드립니다."

나는 그웬의 어깨 쪽에 포션 입구를 바짝 대고 살살 상처 쪽으로 포션을 흘려보냈다. 팔근육을 타고 흘러내린 포션이 상처에 닿자 가슴 근육에 힘이 들어가며 단단해지는게 보였다.

"와 이 씨..."

"욕하신 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지금 욕 나올 거 같아."

내 손길에 따라 포션을 부을 때마다 신음을 참는 상체 탈의한 남자가 눈앞에 있는데 욕을 참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다. 그웬도 나도 참고 견디는 시간이 끝나고 팔은 무사히 새 살이 돋았다. 예쁘게 본래 모양대로 차오르진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빨간 새살도 자리를 잡을 것이다. 나도 그웬의 가슴에 내 손을 자리 잡게 하고 싶다.

그웬이 치료받는 동안 으으! 거리며 더 호들갑을 떨던 옐츠란이 나를 밀어서 쫓아냈다.

"그웬 가슴 좀 그만 봐, 이 변태야. 적어도 숨기려는 노력이라도 하던가. 왜 그렇게 당당해?"

"억울하면 너도 가슴 근육 단련하던지!”

문은 내 앞에서 쾅 소리 나게 닫혔다. 남자의 질투란, 참 추하다! 만지지도 못했는데!

세 번이나 몸을 씻고 다섯 번이나 머리를 감았는데도 끔찍한 악취는 빠지지 않았다. 그래도 이런 경우를 위한 마법은 만들어놨다. 마법의 힘이 한차례 휘감고 가자 아기한테서 나는 살 내음보다 더 포근해졌다. 몸은 잠이 필요하지 않지만, 정신이 피곤하므로 한숨 자야겠다. 도난된 책을 보관한 창고에서 나오면서 지나가던 사람에게 그게 누구 건물인지 들은 덕에 잠깐 눈 붙일 시간은 벌었다. 우리는 잠깐 쉬고 체력을 회복한 뒤, 학살 단원이 윗선이라고 불렀던 책 상인이자 창고의 주인을 찾아가기로 했다. 옆 방에서 씻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잠을 청했다. 성에 돌아가면 기필코 그웬의 가슴을 만지며 잠이 들 것이다. 침대에 눕자마자 잘 거니까 깨우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은 것과 달리 눈이 말똥말똥했다. 한동안은 불면증도 없이 잘 잤는데 왜 이러지? 아무리 잠을 청하려고 해도 뭔가 허전한 기분이다. 곰곰이 생각하다 그웬이 옆에 없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다. 와, 같이 잔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허전하다니. 편한 건 정말 금방 익숙해진다. 옆 방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렸다. 다 씻었어? 응, 너 들어가면 돼. 조금의 시간이 더 지나자 조용해졌다. 둘 다 잠들었구나.

바깥은 환하게 밝아왔다. 나는 잠자는 걸 포기하고 창가로 갔다. 도시는 따스한 물결에 사로잡힌 듯 연한 햇빛 색으로 물들어있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구경하다가 불현듯 라무에 온 적이 있다는 게 떠올랐다. 그때는 저 멀리 바다가 보이고, 이렇게 큰 도시가 아니라 덩그러니 건물 몇 채만 놓인 곳이었다. 그게 수도원이었던가. 그래, 맞아. 수도원에서 수도자들이 매일 신의 말씀을 글로 옮겼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듯 조용한 곳이라 답답해서 일행들에게 빨리 다른 도시로 넘어가자고 했었지. 근처로 하나둘 글을 아는 사람이 모여 이렇게 큰 도시를 이루었나 보다. 지금은 지하감옥에서 악취만 나지만 그땐 와인 창고로 쓰던 곳이라 관리가 잘 됐었다. 그런 때도 있었는데... 같이 다녔던 일행의 얼굴을 떠올리려고 노력했지만 그웬의 가슴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어휴, 잠이나 자자.

간신히 잠을 청하기가 무섭게 이제 움직일 시간이 되었다고 옐츠란이 나를 흔들어 깨웠다. 니들만 자면 다냐? 나는 연기력을 펼쳐 좀처럼 잠에서 깨지 못하는 척했다. 나는 지금 아주 깊은 잠을 자고 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너무 곤히 자고 있는데? 그냥 우리끼리 갔다 오자."

이럴 때는 옐츠란의 눈치 없는 면이 참 유용하다. 나는 더 최선을 다해 잠이 든 척했다. 옐츠란이 작게 키득거렸다.

“자는 얼굴만 보면 그런 성격인지 전혀 모르겠네.”

"레티시아님, 깬 거 다 알아요. 일어나세요."

한두 번 나와 같이 잔 게 아닌 그웬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고개가 뒤로 젖혀지면 눈을 뜨는 인형처럼 번쩍 눈을 떴다,

“그런 성격이 어떤 성격인데?”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있던 옐츠란이 기겁하며 일어났다.

“예고 좀 하고 눈을 떠!”

“눈을 뜨는데 예고씩이나 해야 해?”

나는 우습다는 얼굴로 손가락으로 내 눈을 가리켰다.

“자, 지금부터 눈을 감습니다... 이제...눈을 뜹니다. 아, 또 감습니다. 다시 눈을 감...을 것 같지만 뜹니다!”

나는 낄낄대면서 웃었고 옐츠란은 그런 말이 아닌 거 알잖아. 하고 툴툴대며 나를 억지로 일으켜 앉혔다. 그웬은 여전히 피곤함이 가시지 않은 안색이었다. 과다출혈로 죽을 뻔한지 세 시간도 안 지났으니 서 있는 것만으로 많은 기운을 쓸 거다. 나는 그웬을 대신 침대에 앉혔다.

“너는 그냥 더 자. 아까 피를 많이 흘렸잖아.”

“그래, 더 자.”

옐츠란도 맞장구를 쳤다. 그웬은 일어나려고 했지만 내가 어깨를 꾹 눌렀기에 몇 번 시도하다가 포기했다.

“그러면 쉬도록 할게요. 더 버티다간 레티시아 님이 제 어깨를 부술 것 같네요.”

옐츠란이 그웬의 말에 호기심 어린 얼굴로 나를 훑어봤다.

“원래 힘이 센 거야? 아니면 초월자라서 얻은 능력이야?”

“드래곤 두 마리를 구워 먹었더니 이렇게 세졌다. 왜?”

“진짜야?”

진짜겠냐.

아침 먹고 갈 시간이 없어 토마토를 베어 물면서 여관 밖으로 나왔다. 여전히 텁텁한 모래바람은 한차례 빙그르르 제 자리를 돌다 떠나갔다. 나는 마구 휘날리며 얼굴에 엉겨 붙는 머리카락을 로브 안으로 쑤셔 넣었다. 옐츠란은 토마토를 한입에 집어넣어 볼썽사납게 볼이 불룩한 얼굴이었다. 데블랑도 아니고 그런다고 귀여워 보이지는 않았다.

마을 전체에 어수선한 술렁임이 감돌았다. 하루의 시작을 맞이해서 분주한 것과 어딘가 달랐다. 분노와 확신에 찬 얼굴을 한 남자 몇이 몽둥이를 들고 어디론가 뛰어갔다. 간밤의 일을 속삭이는 사람들의 표정은 거칠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낯으로 여관 입구에 서 있자 마을의 소란보다 돈 버는 게 중요한 길잡이들이 슬금슬금 다가왔다. 눈치를 보며 우리를 주시하는 길잡이 사이로 바쁘게 뛰어가는 렌이 보였다.

“렌!”

옐츠란이 이름을 부르자 렌은 우리와 앞을 번갈아 보다가 이쪽으로 왔다. 어쩔 수 없이 왔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지금 길 안내를 맡기시려는 거에요?”

“아니, 좀 소란스러운데 무슨 일이야?”

렌은 안심했는지 표정이 밝아졌다.

“드디어 책 학살단의 두목이 잡혔대요. 다들 처형장으로 구경하러 가고 있어요. 저도 거기 가는 중인데 같이 가실래요? 특별히 안내비는 안 받을게요.”

벌써? 우리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직접 본거지로 쳐들어가 확실한 꼬리를 밟은 우리도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어제까지 아무것도 모르던 마을 사람들이 해가 뜨자 모든 걸 알게 됐다는 건 인형극에나 나올 이야기였다. 지나치게 빨랐다.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구요. 제가 맞았어요. 책만 파는 우리 마을에 저주마법사가 왜 이사 왔겠어요? 드디어 처형장을 원래 용도로 쓰겠네요. 책이 아니라 사람이 처형돼야 한다구요.“

예상이 맞는군. 생각한 대로 일이 흘러가고 있었다. 안내를 해주겠다기에 렌을 앞장서게 했지만 옐츠란은 마음이 급한 나머지 렌을 앞질렀다. 나도 옐츠란과 보폭을 맞추기 위해 자연스레 걸음이 빨라졌고 우리는 어느새 뛰고 있었다. 렌의 말대로 처형식이 진행된다면 그 전에 도착해야 했다.

삶이란 같은 순간들을 되풀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특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인간이 거기서 거기인 순간을 다르게 기억하려 노력할 뿐이지, 실상 느끼는 감정은 다 똑같다.

라고 세상의 쓴맛과 매운맛만 본 내가 말했을 때 얘기를 들어주던 사람은 웃었다. 내가 틀렸다고. 세상의 앞뒤만 보지 말고 옆과 위아래도 봐야 한다고. 하얀 백발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얼굴로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이 진짜 같았다. 그 사람은 여든이었고 나는 쉰 언저리쯤 됐으니까. 아무래도 오래 산 사람이 현명하겠지.

하지만 기억 속 한 장면을 재연하는 것처럼 익숙한 순간이 오면 나는 그 사람의 무덤에 대고 소리지르고 싶어진다. 봤지? 내가 맞고 네가 틀렸어! 내가 이걸 서른여섯 번째 다시 보는데 이래도 다르다고 할 거야? 난 너무 지겨워! 하고.

바로 지금 같은 순간에 말이다.

처형장을 빙 둘러서 사람이 아주 바글바글했다.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라무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곳으로 몰려온 듯했다.

모든 비밀을 파헤치려는 집요한 햇살 아래에 선 그들은 진실을 알아냈다고 굳게 믿는 얼굴이다. 모두 저마다의 확신을 토해내느라 불쾌한 소음을 만들었다.

‘그 여자의 재산을 몰수하고 다 나눠 가지자!’ ‘재판을 받게 해야 해!’ ‘처형장에 목을 매달아!’

몇십 년 전 성행했던 저주마법사 사냥이 다시 시작된 느낌이 들었다. 헤나드가 평범한 죽음과 맞바꾼 미개한 자들의 여흥 말이다.

사람들의 체온 때문에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뜨거웠고 발밑으로 모래 먼지가 뿌옇게 피어올랐다. 몰려든 인파를 비집고 장정 몇이 솔비아를 끌고 나왔다. 아까 몽둥이를 들고 달려갔던 그놈들이었다. 누군가 욕을 하며 돌을 던졌지만, 솔비아는 남자들한테 거의 짐처럼 들려서 온 데다가 깡 말랐기 때문에 그녀의 왼편에 서 있던 남자가 다리에 대신 맞았다.

“누구야? 돌을 던진 게!”

남자가 사납게 몽둥이를 휘두르며 눈을 부라렸기에 덩달아 돌을 주워들었던 사람들이 손을 슬그머니 내렸다. 옐츠란이 아직 무사한 솔비아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다. 안 늦어서.”

“당신들도 저주마법사가 처형된다는 소식을 듣고 왔수?”

옆에 서 있던 남자가 옐츠란의 말을 듣고 친근하게 말을 걸었다.

저질러 본 악행이라곤 돼지의 엉덩이를 마구 친정도일 것 같은 전형적인 소시민 행색을 한 남자였다. 그는 들뜬 어조로 말했다.

“굉장한 구경거리지. 젊었을 적 다른 도시에서 본 이후로 처음이야. 라무같은 평화로운 도시에 저주마법사가 들어 올 때부터 불길했어. 드디어 앓던 이가 빠지는구먼.”

옐츠란은 심각하게 굳은 얼굴로 남자를 노려봤다. 하고 싶은 말을 간신히 참는 듯했다.

“왜 그렇게 보는가? 혹시 저주마법사를 두둔하는 족속들은 아니겠지? 처형식을 방해하러 온 거면 그런 생각 접어두라고. 저 여자는 저주마법사라서 처형 당하는 게 아니라 남의 생계를 끊고 자기 배만 채운 도둑이라 처형당하는 거니까.”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목소리를 높여 “저주마법사를 불에 태워 죽이자!” 고 외치고선 우리를 돌아보며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저주마법사는 불에 태워 죽이지 않으면 되살아나거든."

“당신은 지독한 편견과 끔찍한 무지로 되는대로 말하는군.”

옐츠란은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다. 남자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는 표정을 짓다가 길길이 날뛰며 소리 질렀다.

“뭐라고? 왜 대뜸 욕질이야? 당신 뭐야? 당신도 저주마법사야?”

“내가 언제 욕했어? 그리고 그렇다면 어찌할 거고 아니라면 어찌할 건데?”

“저주마법사라면 신고해야지! 여보시오, 동네 사람들! 여기 저주마법사가 또 있소!”

“내가 진짜 저주마법사라면 당신부터 개구리로 만들 거야!”

나는 혹시라도 일행으로 오해받는 불상사가 일어날까 봐 뒤로 슬그머니 빠졌다. 옐츠란과 남자는 주변의 눈총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없는 대화를 계속 이어나갔다. '거 참, 싸울 거면 저기 어디 먼 곳으로 가서 싸우쇼!' 누군가 투덜댔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들을 계속 구경하는 대신 바닥에 내팽개쳐진 솔비아를 바라봤다. 그녀는 옷을 추스르며 분노에 찬 얼굴로 일어났다. 두려움과 영문 모를 표정을 지을 거로 생각했기에 의외였다. 굳게 다문 입에서 금방이라도 저주의 말이 쏟아져나올 듯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표정에 더욱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다. 죄인이 죄인답지 않다는 게 그 이유일 거다. '저주마법사를 불에 태워라!' 여기저기서 질러대는 고함 사이로 아는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게, 길튼! 싸움을 멈추게! 그분들은 내 손님이야!"

길튼은 치켜들었던 주먹을 내리고 옐츠란도 주문을 읊던 것을 멈추고 놀란 얼굴로 소리가 들린 쪽을 쳐다봤다. 해밀턴이 사람을 헤치며 헐레벌떡 뛰어왔다. 꽤 멀리서부터 우리를 보고 뛰어온 모양인지 해밀턴은 얼굴에 흐른 땀을 소매로 훔쳤다.

"아주 귀하신 분들이라고. 무례를 저지르지 말게."

마을에서 해밀턴의 위치가 꽤 높은 모양인지 길튼은 '다음부턴 조심하쇼!' 하고 사람들을 비집고 사라졌다. 해밀턴은 본인이 대신 사과라도 하는 듯 미안한 기색으로 웃었다.

"아직 라무를 떠나지 않으셔서 다행입니다. 제가 손님들을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왜 우리를 찾은 거지?"

사방에서 저주 마법사를 태워죽이라고 소리를 질러대는 상황이라 옐츠란이 제대로 대화를 이끌어 갈 것 같지 않아 내가 나섰다. 예상대로 옐츠란은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표정이었다.

"메빌 실리어의 위대한 유언을 찾으셨죠? 영락없이 책 학살단이 훔쳐간 줄 알았는데, 제가 책을 지하에 둔 것을 깜빡하고 있었지 뭡니까. 이번엔 잘 챙겨 왔습니다. 빠른 거래를 원하실 것 같아 여기, 가져왔지요."

해밀턴이 허리춤에 달랑거리는 책 주머니 가죽으로 책 크기로 만든 주머니였다. 라무 사람들은 참 괴상한 것도 만드는군. 살짝 열어 책을 보여줬다.

"주변이 너무 시끄러우니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겨 거래할까요?"

나는 처형장 쪽을 힐끔 쳐다봤다. 솔비아는 남자들에게 머리채를 붙잡혀 무릎을 꿇고 있었다. 내 시선을 제멋대로 해석했는지 해밀턴이 미소 지었다.

"마저 보고 갈까요? 보기 드문 구경거리죠."

해밀턴은 여전히 친절한 낯이었다. 나는 그가 참 더럽고 비열하게 상인의 자질을 타고났다고 생각했다. 유독 돈만 주면 제 목숨이라도 팔 듯 구는 놈들이 있다. 그런 놈들이 실제로 파는 건 대개 제 목숨이 아니라 남의 목숨이다.

"책 학살단장이라던데, 어떻게 잡힌 거야?"

"책을 본인의 서점 지하에 보관하고 있었나 봐요. 이번에 처형된 책에서 솔비아가 취급하는 약초 냄새가 강하게 났대요. 마른 잎 몇 개가 발견되기도 했고요."

"겨우 그걸로?"

"겨우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큰 단서인데요, 책은 얼굴에 가까이 대고 보는 것이니 내용만큼 책에서 나는 향기도 중요하지요. 손님의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고급서점에선 고유의 향을 책에 잘 배어들게 처리를 해둬요. 솔비아는 훔친 책까지 꼼꼼하게 처리했나 봐요. 간도 크지, 장물에다가. 절대 안 잡힐 거로 생각했나?"

"그러게, 간도 크지. 어떻게 훔친 책을 자기 창고에 보관할 생각을 했을까?"

그러게요. 여상스레 대꾸하던 해밀턴은 나와 눈이 마주쳤다. 내가 무언가를 요구하듯 빤히 쳐다보고 있었기에 조금 당황한 눈치였다.

"제 얼굴에 뭐가 묻었나요? 아, 별로 재미 없으신가? 그냥 바로 자리를 옮길까요?"

마지막 단서를 얻어 확신했기에 이쯤 해두고 해밀턴의 말대로 자리를 옮겨 마저 처리할 생각이었다. 일부러 소규모로 움직인 만큼 큰 소란은 옐츠란에게 달갑지 않을 테니까. 나는 옐츠란의 멱살을 쥐고 끌어 내려 속삭였다.

'소란 일으키지 말고 여긴 그냥 두고 자리를 옮기자.'

'그냥 두고?'

옐츠란은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솔비아 쪽을 쳐다봤다. 솔비아는 악에 받쳐 소리 지르고 있었다.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라고!"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다. 그녀는 적법한 재판 없이 몇 시간 뒤에 잿더미가 될 것이다. 라무가 속한 톤다국은 미신이 성행하는 나라라 재판 없이 저주마법사를 태워죽인 일을 아무도 문제 삼지 않겠지. 그녀는 맨발로 남자들에게 처형대로 질질 끌려갔다. 마른 흙이 묻은 발은 온통 찢어진 상처투성이였다.

"안돼, 이번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옐츠란의 얼굴에 결심이 어렸다. 아닌 척해도 지하 감옥에서의 일을 아직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나 보다. 젊고 어린 것들은 정의감이나 양심 같은 지키기 어려운 추상에 매달린다. 나는 뒤로 한 발짝 물러났다.

시선을 끌면 안 되는 건 내가 아니니 옐츠란이 알아서 하겠지!

해밀턴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다. 눈칫밥 먹고 사는 상인답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빠르게 알아챈 듯했다.

“저걸 막으시게요?”

해밀턴은 그렇게 물어보고 한 마디 덧붙이려다가 입을 닫았다. 숨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놈의 코가 벌름거렸다. 눈을 가늘게 뜨고 허공의 냄새를 맡던 해밀턴의 표정이 굳었다.

“어디서 끔찍한 냄새가 나네요. 지하 감옥에나 날 법한...”

순간이 유독 길게 느껴졌다.

해밀턴의 시선이 옐츠란에게 가서 닿았다. 순식간에 판단을 끝낸 해밀턴이 몸을 돌려 도망쳤다. 하지만 마법은 발보다 빨랐다. 옐츠란이 귀신같은 솜씨로 해밀턴을 마법으로 낚아채 처형대에 패대기쳤다. 목제 단상이 무너질 듯 크게 부딪치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은 갑자기 날아온 무언가에 깜짝 놀라 소리질렀다. 사람을 헤치고 처형대 근처로 갈 자신이 없어 비행마법을 써 사람들을 훌쩍 뛰어넘었다. 옐츠란은 공중에 떠서 아래로 외쳤다.

“집행을 멈춰라! 솔비아는 학살단장이 아니야!”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라니,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솔비아의 팔을 꽉 쥐고 있던 남자들이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봤다. 처형대에 처박혔던 해밀턴은 비틀거리며 겨우 일어섰다.

“누구요?”

옐츠란은 대답 없이 지하감옥으로 통하는 입구를 가리고 있던 책을 걷어찼다. 무너진 책 중 몇 개가 구멍 안으로 떨어져 한참 뒤에 둔탁한 울림을 냈다.

“이게 학살단의 본거지로 들어가는 입구다. 나는 어젯밤 여기로 들어가서 진실을 확인한 사람이지.”

남자 중 하나가 구멍을 들여다보았지만, 그 안은 까만 어둠뿐이었다. 서서 들여본다고 보일 리가 없었다. 옐츠란은 품속에서 장부를 꺼냈다.

“이게 바로 이때껏 저지른 범행이 적힌 장부다! 해밀턴의 관리 아래 아주 꼼꼼하게 작성되어 있지, 충분한 증거가 될 거다!”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처형대 가까이 몰려들었다. 처형대에 가장 가깝게 선 사람들이 뒤에서 미는 사람들 때문에 몸이 눌려 비명을 지를 정도였다. 오래된 처형대가 무너질 듯 끼이익 불길한 소리를 냈다.

“그럼 해밀턴이 학살단장이란 말이오?”

누군가 사람들 사이에서 외쳤다.

옐츠란은 모처럼 총명으로 빛나는 얼굴로 대답했다.

“그렇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지하감옥을 지나 학살단의 본거지에 도착했고 해밀턴이 지하감옥의 죄수들을 부려 책 학살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잘생긴 놈이 무게 잡고 대답하니 벌써 타당성이 느껴졌다. 게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마법사가 아닌가? 방금까지 사람을 불에 태워죽이자고 외칠 정도로 흥분했던 마을 사람들은 놀란 기색으로 수군댈 뿐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다.

떨어질 때 코를 부딪쳤는지 피가 줄줄 흐르는 코를 틀어막은 해밀턴의 표정이 절박해졌다.

“아니야!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다고! 예제프! 자네 나를 잘 알지 않은가 내가 그럴 사람인가?!”

이름을 불린 예제프는 사람들 사이에 묻혀 보이지도 않았다. 대답이 돌아오지 않자 해밀턴은 눈물을 줄줄 흘리며 무릎을 꿇었다.

“저자는 같은 마법사라서 두둔하는 거야! 솔비아의 죄를 뒤집어씌우는 거라고! 난 아니야!”

해밀턴은 연기하는 것처럼 크게 허우적댔다. 그가 입을 열수록 거짓말인 게 티가 났다. 죽음을 눈앞에 두자 해밀턴은 침착함을 잃고 발버둥 치고 있었다.

옐츠란에게 장부를 건네받은 남자가 빠르게 내용을 훑었다. 그는 충격에 휩싸여서 외쳤다.

“마법사님의 말이 사실이다!”

감히 ‘마법사님’의 증거를 못 믿겠다고 나선 사람은 없었다. 솔비아가 비명을 지르며 자길 붙잡고 있는 남자들의 손을 떨쳐냈다. 한쪽 눈은 터질 듯 부어올랐고 코와 입 주변이 온통 피범벅이었지만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 해밀턴과 달리 그녀는 울지 않았다. 솔비아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옐츠란을 따라 얼떨결에 따라서 온 것 같은 나를 전하고 싶은 뜻이 있는 것처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뭐야, 왜 저러는 거지. 내가 그냥 두고 가자고 한 소리를 들은 건가.

옐츠란은 여기서도 지붕이 보이는 큰 창고를 가리켰다. 우리가 간밤에 출구로 썼던 책 학살단의 장물 보관소이자 해밀턴의 창고인 곳이었다.

사실 창고에서 나올 때만 해도 학살단장은 솔비아라고 생각했다. 미심쩍은 구석은 있었지만, 가령 하수도의 냄새가 배지 않게 책을 따로 보관할 정도로 치밀한데, 출처가 뻔한 약초를 책 사이에 꽂아둔 점이라던가, 꼼꼼한 성격처럼 보이진 않았는데 장부도 장물보관도 체계적이었다는 점 같은.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추리는 힘든 일이니까. 하지만 옐츠란이 이상하다는 얼굴로 근데 저 책들, 해밀턴의 서점에 있던 책 목록이랑 아주 비슷하네. 라고 중얼거렸을 때 도끼날과 도낏자루가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그게 확실하냐고 옐츠란에게 확인한 뒤 한번 보고 책 제목을 다 외웠단다. 재수 없어. 천재는 다 그런가? 길 가는 사람을 샅샅이 뒤져 창고의 주인이 누군지 확인했다. 두 번 물어볼 필요도 없었다. 물지게를 지고 바쁘게 가던 사람들이 입 모아 해밀턴의 창고라고 대답했다.

“해밀턴은 저 창고에 학살단은 훔친 책을 보관하고 있었다! 그는 일부러 솔비아에게 덮어씌우기 위해 책 사이에 예펜 약초를 끼워 넣기까지 한 악독한 범죄자다."

처형대에 올라온 남자 하나가 성벽 무너진 건 알아도 내 집 불탄 줄 모른다더니... 하고 중얼거렸다. 적법한 절차 없이 솔비아를 잡아 올 땐 앞장섰으면서 해밀턴의 짓으로 밝혀지자 몽둥이를 든 놈들은 망설이는 기색이었다. 해밀턴은 마치 피해자처럼 가슴을 치며 울고 있었다. 이러다가 책학살이 좋은 장사수단이라고 봐주자고 하는 사람도 나오겠네. 나는 턱짓으로 해밀턴을 가리켰다.

"안 잡아?"

놈들이 어차피 처형대에 올라와 있는데 이걸 잡아야 하나... 라고 생각하는 표정으로 주춤대는 사이 해밀턴은 책 주머니에서 메빌 실리어의 책을 꺼내 들었다. 그러길 줄곧 생각했던 사람처럼 빠른 손놀림이었다.

"가까이 오지마! 가까이 오면 바로 불 질러버릴 거야!"

내가 저럴까 봐 조용히 처리하려고 한 건데.

해밀턴은 한 손에 인질처럼 책을 꽉 움켜쥐고 다른 한 손에 불을 피우는 마법 물품을 꺼내 들었다. 성냥같이 아무 데나 긋기만 하면 불이 붙는 돌이었다. 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탐욕이 개기름처럼 번들거렸다. 옐츠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상황을 똑바로 이해하는 건 우리뿐이었다. 저게 무슨 책이야? 뭐길래 저러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남자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해밀턴에게 다가갔다.

"잠깐만! 해밀턴의 말대로 해라! 가까이 다가가지 마라!"

옐츠란이 펄쩍 뛸 기세로 남자들을 막자 해밀턴은 한결 긴장이 누그러진 얼굴로 입에 고인 피를 뱉었다.

"이 책을 무사히 건네받고 싶다면 내 요구사항에 따라라!"

듣지 않아도 뭘 요구할지 뻔했다. 살려달라고 하겠지. 모두가 심각한 가운데 나는 한가롭게 사람들의 표정을 구경하다가 솔비아와 다시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줄곧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가 입을 뻐끔댔다. 뭐라고 말하는 거지?

"내가 여기서 도망칠 수 있게 도와줘!"

웅성거림이 커지더니 꺼졌던 분노에 다시 불이 지펴졌다. 솔비아의 목소리는 소란에 파묻혀 들리지 않았다.

손해를 많이 본 것 같은 사람 몇이 처형대로 올라오려고 버둥대다가 옐츠란이 일으킨 바람에 바닥에 내팽개쳐졌다. 세 명정도 나동그라지자 사람들은 마법사의 힘을 두려워하며 더는 시도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멋대로 해밀턴이 든 책이 아주 귀한 책일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 절반 정도는 해밀턴을 저주하고비 마법적인 의미로. 절반 정도는 책에 대해 떠들어대는 소리로 아주 시끄러웠다.

북새통 속에서 옐츠란이 나를 쳐다봤다. 어떻게 해야 할지 내 의견을 묻는 얼굴이었다. 뭘 고민해? 나는 속삭였다.

"죽여. 그게 싫으면 살리던가. 네가 선택해."

옐츠란의 실력이라면 책에 불붙일 틈도 주지 않고 해밀턴을 처리하는 게 가능할 거다. 그리고 내 실력이라면 죽이지 않고 책을 뺏을 수도 있다. 하지만 더 옐츠란이 떠넘기는 책임을 지기 싫었다. 어쩌면 나는 어쭙잖게 신념을 지키려는 옐츠란에게 심통이 난 건지도 모른다. 원하는 게 감자샐러드처럼 소박한 것이라면 모를까 한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라면 항상 선한 편에 설 수 없다. 옐츠란도 잘 알 거다. 단지 합리화에 도움이 될 변명을 찾고 싶겠지. 가엾어하며 옐츠란을 배려해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를 극단적인 상황에 몰아넣었다. 그래, 나는 삐뚤어진 사람이다. 지하감옥에서 옐츠란이 나를 힐난하듯 쳐다봤을 때부터 이런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초조한 고심이 스쳐 지나간다. 옐츠란의 시선이 피를 줄줄 흘리고 있는 해밀턴과 성난 고함을 지르는 군중, 누구에게도 사과받지 못한 솔비아를 지나 해밀턴의 손에 들린 책에서 멈췄다. 그의 표정이 서서히 차분해졌다. 이때껏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다. 옐츠란은 고대에 말하는 법을 가르쳤다는 벽화 속 지식인처럼 이상향을 그리는 듯했다. 마법사의 지식을 향한 욕구 앞에서 인간의 목숨은 하등 가치 없는 것이다. 옐츠란은 이미 마음속으로 해밀턴을 죽였다.

너도 나와 같은 편에 섰구나. 묘한 만족감이 차올랐다.

해밀턴이 우리의 눈치를 살피며 뒷걸음질 쳤다. 일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거라 짐작한 걸까, 그는 돌을 책에 아주 가까이 대고 소리 질렀다.

"빨리 대답해!"

옐츠란의 마나가 해밀턴을 향해 슬그머니 뻗어갔다. 마나의 속도가 느린 건 최소한의 양심 같았다. 죽음의 냄새를 담고 있는 안개에 닿는 순간 해밀턴은 뻣뻣하게 굳은 채로 독에 중독되어 죽을 것이다. 솔비아가 별안간 웃었다. 저주마법사는 저주의 기색을 빠르게 알아채기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느꼈나 보다. 이대로 해밀턴이 죽는다면 모든 게 쉽게 끝날 듯했다. 놈이 마나에 민감한 체질만 아니었다면 말이다.

해밀턴은 창에 꿰뚫린 사람처럼 퍼드득 몸을 떨더니 소리 질렀다.

"비열한 마법사 자식!"

놈은 밀려드는 독안개가 보이기라도 하는 듯 불안하게 두리번거리며 계속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낡아빠진 처형대는 지금 올라선 인원만으로 포화상태였고 처형대를 에워싼 사람들은 얼마 안 되는 날붙이를 꺼내 해밀턴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해밀턴은 거의 물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식은땀을 뚝뚝 흘리면서 보는 사람이 불안할 정도로 정신없이 두리번거렸다.

나는 한심하단 투로 옐츠란에게 말을 건넸다.

“일을 만드는구나. 죽이기로 마음먹었으면 순식간에 처리했어야지.”

옐츠란은 죽인다는 말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처럼 미미하게 인상을 찌푸렸다. 해밀턴은 헐떡이다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나 싶을 정도로 빠르게 처형대에 난 구멍을 향해 달렸다. 옐츠란이 덮어둔 책을 발로 찬 탓에 한 발 내딛기만 하면 까만 어둠 속으로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았다. 해밀턴은 떨어져서 다리뼈가 다 부러지는 게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마나의 언어를 익힌 마법사는 만만한 존재가 아니다. 옐츠란이 손짓 한 번에 구멍을 막았다. 해밀턴은 크게 발을 내디뎠다가 앞으로 한 바퀴 굴렀다. 책을 놓쳤으면 좋으련만 해밀턴은 책을 놓치는 대신 손등이 까지는 걸 택했다.

“포기하고 책을 넘겨라! 학살단의 잔당을 잡아야 하니 생포해서 재판에 넘기도록 하겠다!”

재판이 끝난 뒤엔 죽는다는 소리처럼 들리는데. 아니나 다를까 해밀턴도 같은 뜻으로 이해한 듯 얼굴이 사색이 됐다. 벼랑 끝에 몰린 놈은 마지막 발악처럼 괴성을 질렀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단단히 일어날 소리였다. 해밀턴은 결국 책에 불을 붙였다. 이건 순전히 옐츠란 탓이다. 그러게 왜 사람을 토끼몰이해? 더운 날에 책을 장작으로 쓰라고 부추긴 꼴이지.

“안 돼!”

당황한 옐츠란은 거의 오크통 하나 정도의 물을 해밀턴에게 퍼부었다. 물이 불을 끄기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하나 저러면 잉크가 번질 텐데. 마법사라면 더 좋은 방법을 떠올렸어야 한다. 순간의 판단을 잘못한 옐츠란은 자책하는 표정이었다.

폭격에 가까운 물이 사방으로 퍼지고 당연히 불이 꺼졌다고 생각했다.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랬을 거다. 하지만 젖은 책에서 거짓말처럼 불은 여전히 활활 타올랐다. 작은 책에서 시작된 것치고 너무 크고 거센 불은 요사스럽게 날름거리다 해밀턴의 손을 타고 그의 젖은 옷에 옮겨붙었다. 뱀이 기어가는 듯 작위적인 움직임이었다. 불은 삽시간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커졌다. 해밀턴이 산채로 불에 타는 고통에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쳤다. 책을 내던지고 물에 젖은 바닥에 굴렀지만 불은 꺼지지도 옮겨붙지도 않고 그의 몸과 책만 태웠다. 나는 다시금 솔비아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보란 듯이 입술을 달싹이며 퉁퉁 부은 얼굴로 웃었다. 솔비아가 속삭이는 말은 마나의 힘을 담은 언어라 사방이 시끄러워도 귓속말을 하는 것처럼 선명하게 들렸다.

마계의 업화여, 죄를 불살라라, 한 점 없이 말끔하게 태워라. 더 큰 불을 불러라.

솔비아는 책에 끼워졌던 예펜을 매개로 마계의 업화를 불러내어 해밀턴을 태우고 있었다. 바다에 담근다 해도 마계의 업화라면 해밀턴과 책을 다 태우기 전엔 꺼지지 않을 거다. 구경꾼들은 처음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지만 곧이어 앞다투어 좋은 자리에서 구경하려고 몰려들었다.

결국, 죄인은 화형으로 죗값을 치렀다. 저주마법사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겠다는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부터 해밀턴의 최후는 정해진 건지도 모른다. 확실하게 죽일 수 없다면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자들은 저주마법사니까 말이다.

옐츠란도 솔비아의 주문을 들었는지 그녀를 향해 그만두라고 외쳤다. 솔비아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해밀턴이 나에게 치러야 할 몫이야."

마계의 업화는 이미 해밀턴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이제 와서 손을 쓴다 해도 늦었다. 어렵게 찾은 책이 잿더미가 되는 걸 지켜봐야만 하는 현실에 옐츠란은 한 손으로 눈을 덮으며 괴로워했다. 저 책을 찾기 위해 냄새나는 하수도까지 들어갔던 나도 조금 짜증이 났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페르디낭에 세울 내 연애 뷔페는 물 건너가는 건가? 책 한 권 없다고 나라 재건을 포기할 정도로 대책 없진 않겠지.

까무잡잡한 피부에 유난히 눈이 크고 동그래 착해 보이는 라무인들은 사람이 불에 타죽는 걸 보고 박수까지 쳐가며 즐거워했다. 비명을 지르는 해밀턴만 아니라면 제법 흥겨운 축제 분위기가 났을 거다. 그 속엔 렌과 예제프, 그리고 해밀턴과 친했을 이름 모를 사람들도 있다. 거봐, 똑같잖아. 자기 고통만 아니라면 누가 죽어도 그저 여흥 거리로 소비하는 사람들.

매캐하고 기분 더러운 고기 타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옐츠란은 소매로 코와 입을 틀어막았다. 사람들을 훑는 그의 눈에 숨길 수 없는 경멸이 묻어났다. 성대도 화상을 입어 괴이한 소리를 내는 해밀턴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었는지 옐츠란은 결국 놈의 목을 벴다. 마법을 시전하는 손끝이 작게 떨렸다.

“재판도 없이 사람 한 명이 불에 타서 죽었어. 끔찍한 일인데 다들 뭐가 그렇게 즐거운 거야?”

“재판도 없이 사람 한 명이 불에 타서 죽은 거.”

옐츠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극도의 흥분 상태였던 사람들은 구경거리를 빼앗아 간 옐츠란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욕설은 금방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져 우리에게 돌이 날아들었다. 돌은 보호막에 막혀 발치에도 오지 못하고 떨어졌지만 나를 화나게 하기엔 충분했다. 감히 나한테 돌을 던지다니, 감히!

내 손짓에 떨어지던 돌이 우뚝 멈추고 바닥에 있던 돌까지 떠올랐다. 누가 던졌는지 상관없다. 저들도 누가 맞든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던졌지 않은가? 몇십 개가 되는 돌이 허공에 떠오르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견한 사람들이 앞다투어 도망치려고 소란이었다. 허공에 띄운 돌을 그대로 던지려는 찰나 옐츠란이 나를 끌어안았다.

“뭐야? 놔.”

“미안해. 하지만 오늘은 더 죽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

무시하려고 했지만 나를 껴안은 옐츠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옐츠란은 애원하는 눈빛으로 덧붙였다.

“제발.”

그 얼굴로 이러는 거 불법 아닌가? 나는 던지려던 돌을 한쪽에 곱게 쌓았다. 그래,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참된 사람이지. 나는 몸을 돌려 옐츠란을 마주 안고 등을 토닥여줬다. 옐츠란은 얌전히 내게 등을 맡겼다.

“여관으로 돌아갈까?”

옐츠란은 내 어깨에 이마를 대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기억해둔 좌표를 따라 워프했다.

야만스러운 풍경은 순식간에 고요한 여관방으로 뒤바뀌었다. 아래층에서 빵을 굽는지 사방에 고소한 버터 냄새가 가득했다. 옐츠란은 여전히 나를 끌어안고 내 목덜미에 고개를 박고 있었다. 옐츠란의 머리카락이 턱선을 간지럽혔다. 나는 어린아이 달래듯 떨고 있는 등을 살살 쓸어주었다. 내 손길에 따라 그의 숨이 천천히 차분해지는 게 느껴졌다. 그러고 보니 언젠가 옐츠란이 마법으로 사람을 죽여본 적 있냐 물었었지, 그저 대화 주제를 형편없이 골랐다고 생각했는데 걱정돼서 물었던 걸까? 결코, 피할 수 없는 일이란 걸 짐작했을 테니 말이다. 옐츠란이 드디어 조금 머쓱한 표정으로 나에게서 떨어졌다.

“미안.”

“처음 사람을 죽인 거야?”

“응...”

빈번하게 사람이 죽어 나가는 세상이긴 해도 기사나 전투마법사가 아닌 마탑의 마법사가 사람을 죽여봤을 리가 없지. 옐츠란은 죄책감에 나조차 똑바로 보지 못했다.

“어차피 네가 안 죽였어도 죽을 사람이었어.”

“솔비아가 저주를 걸기 전부터 죽이려고 했었어.”

나는 무른 마음을 드러낸 옐츠란을 괴롭히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억눌렀다. 옐츠란은 그웬이 아니다. 괴롭히면 통하고 튀어 오르긴 하겠지만 상처 입고 뒤에선 빌빌댈 게 뻔했다.

“어쩔 수 없었잖아. 범죄자가 도망치도록 도와줄 순 없으니까.”

“머리론 아는데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되게 비이성적이네... 아까는 그대로 기절하는 줄 알았어. 갑자기 어지럽더라고.”

옐츠란은 아무 생각 없이 손안에 쥔 것을 만지작거리다가 그게 내 손이라는 걸 깨닫고 화들짝 놀라 손을 뒤로 뺐다.

“와, 뭐야. 언제 잡고 있었지?”

“네가 잡았잖아.”

“내가? 그랬던가?”

옐츠란은 아무것도 없는 곳을 쳐다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다. 무언가를 찬찬히 생각하는 표정이었다.

“맞아, 그랬었지. 나도 모르게 계속 네 손을 잡네.”

옐츠란이 여전히 잠에서 덜 깬 것처럼 맹하게 굴기에 아량을 베풀기로 했다.

“잡는다고 닳는 것도 아니니까 무서울 때마다 내 손 잡아도 돼. 하긴, 내가 든든하긴 하지.”

옐츠란은 토 달고 싶은 얼굴로 나를 빤히 쳐다보다가 별안간 얼굴을 감싸 안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책이 다 타버렸어. 이제 어쩌지?”

“일단, 나는 모르지.”

“좀 성의있게 대답해 줘.”

왜 자꾸 나한테 어리광이야? 나는 콧방귀를 꼈다. 약속한 것이 있어 그웬과 옐츠란을 따라다니며 거드는 척은 했지만 크게 와닿지는 않았다. 나한텐 그냥 누군지 모를 사람의 일기장이 탄 정도의 일 뿐이다. 금방 어떤 일에 몰입할 만큼의 열정은 나에게 남지 않았다.

옐츠란은 힘없이 침대에 걸터앉더니 팔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 뭐지?

“왜 그렇게 봐? 잡아도 된다며? 무서운 건 아니지만 아직도 진정이 안 돼서 그래.”

민망한 사람들이 으레 그러는 것처럼 옐츠란은 목소리를 높여 크게 변명을 늘어놓았다. 아예 거짓말은 아닌 듯 나를 올려다보는 얼굴엔 평소의 퉁명스러운 기색이 빠져있었다.

“그래.”

나는 그냥 그렇게 대답하고 옐츠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옐츠란은 얌전히 내 손길에 머리를 맡겼다. 갈색이 도는 잿빛 머리칼은 아주 얇고 촘촘하고 부드러워서 순한 늑대를 쓰다듬는 것 같았다. 위에서 내려다보니 긴 속눈썹과 곧은 콧대가 그려내는 곡선이 예술이었다.

“마탑에서 줄곧 지낸 게 나에게 독이었어. 나는 마탑이 고향이라고 생각할 만큼 오랫동안 거기에서만 지냈거든. 안전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진 또 다른 세계, 마법사들이 다 부러워하는 곳... 그곳에서 산다는 걸 자랑스럽게 여겼어. 바깥에서 일어나는 온갖 불행한 일들을 피해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래서 나는 마 탑에서만 완전한 반쪽짜리 마법사가 되어버렸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허둥대느라 알고 있던 마법도 까먹어버려.”

옐츠란은 고개를 숙였다. 후회로 깊은 눈빛이 허공에 흩어졌다.

“방금 일만 해도 그래. 해밀턴이 들고 있던 점화석을 날려버리는 게 먼저였어. 아니, 적어도 책에 불이 붙었다고 물을 뿌리는 멍청한 짓은 하지 말았어야지. 심지어 물을 뿌리기 전부터 마계의 업화인걸 알고 있었어. 꺼지지 않는 걸 아는데도 당황해서 물을 뿌린 거야. 한심한 행동이지. 더 효과적인 마법 수식을 대라고 하면 지금은 수십 개도 더 떠오르는데.”

나는 손가락 끝으로 옐츠란의 턱을 쓸어올려 고개를 들게 했다. 나를 쳐다보는 보석 같은 눈동자. 손가락을 대면 손끝에 색채가 묻어 나올 것만 같았다. 옐츠란이 당황했는지 두어 차례 눈을 깜빡였다.

“옐츠란, 이미 일어난 일이야. 누구나 서툰 순간을 지나 자신의 방법을 찾아가는 거야. 너는 늦게 발을 뗀 것뿐이니 너무 자책하지 마.”

내가 이토록 상냥한 건 드문 일이었다. 나는 언제나 약한 것 앞에서 마음이 풀어진다. 의지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듯 쳐다보는 그 눈빛이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느낌이 든다.

“앞으로 나아질 일만 남았으니까. 그렇지?”

옐츠란은 어색하게 내 위로를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찌푸렸던 미간이 펴지고 차차 눈빛이 온화해졌다.

“고마워. 너한테 위로를 기대하고 한 말은 아니었는데.”

괜한 소리를 하네. 나는 손끝으로 옐츠란의 코끝을 튕겼다. 옐츠란이 아야 하고 코끝을 문지르며 불시에 환하게 웃었다. 그대로 떼어다가 마음의 어두운 곳에 걸어두면 구석구석까지 빛이 닿을 듯한 환한 미소였다. 불에 타 죽어가는 해밀턴의 비명, 라무 사람들의 표정 같은 끔찍한 기억이 저 멀리 사라졌다. 나는 홀린 듯 옐츠란의 볼을 어루만졌다. 뭐를 생각한 것인지 옐츠란이 흠칫하고 뒤로 물러서려다 멈춰섰다.

별 거 아닌 위로 한 마디에 예쁜 미소라,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네. 나는 싱겁게 손을 떼며 웃었다.

“오! 위대하여라, 끝 간데없는 영생이여!”

“탐욕을 드러내고 취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누구보다 낮은 곳에 머무른다면 영생을 얻을 것이니, 이는 우리의 뜻이라.”

나는 인상을 찌푸리며 책장을 넘겼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너와 함께하리라. 항상 볕이 드는 쪽을 바라보며 어둠 속에서 움직여라. 구원은 우리의 힘이요 권능이다.”

숨겨진 뜻이 있는 걸까? 조금만 더 읽어보자. 나는 다시 한 장을 넘겼다.

“영생을 얻은 자는 은혜로 충만하여 세상 시름 다 잊고 진리에 이르리. 세속적 욕망을 버리고…”

거기서 더 읽는 걸 포기하고 책장을 빠르게 넘겨보았지만, 온통 영생이니 구원이니 뜬구름 잡는 소리뿐이었다.

“온통 개소리뿐이네.”

“그래? 나도 볼래.”

나는 솔비아가 준 책을 옐츠란에게 넘겼다. 목숨을 구해준 대가라며 거창하게 말하길래 엄청난 책인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사기를 당한 것 같다. 신이 나서 책을 펼친 옐츠란의 표정도 점점 뚱해졌다.

“어떤 종교의 율법서 같은데... 제대로 붙잡고 연구를 해봐야 알겠지만, 딱히 눈에 띄는 암호는 없어.”

"내가 보기에도 그래. 솔비아가 나한테 전도했나 봐."

내가 영생을 사는 법 운운해서 포교의 가능성을 느꼈나. 좀 더 알아보겠다는 옐츠란의 손을 쳐내고 책을 주머니에 넣었다. 일단은 안전하게 보관해야지. 다시 열어 볼 일은 없겠지만. 나는 침대에 얼굴을 파묻고 누웠다.

페이퍼트 성에 돌아온 이후로 시간은 한가롭게 흘러갔다. 신관이 수도로 돌아간 뒤 멈췄던 것들을 정상화한다고 남들은 바쁜 모양이지만 우리에겐 별세계 이야기였다.

나와 나머지 놈들은 휴가를 받았다. 책을 사 오겠다던 사람들이 너덜너덜해져 돌아오자 데블랑이 펄쩍 뛰며 내린 결정이었다. 마음 급한 옐츠란이 자꾸 연구실로 향하자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으니 거의 근신으로 보였지만 말이다. 어쨌거나 두 놈은 휴가도 즐기지 못하고 빌빌대더니 이젠 제법 빈둥대는 서식이 나왔다. 문제는 두 놈 다 내 방에서 휴가를 만끽한다는 거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나는 남이 게으름 피우는 게 꼴 보기 싫었다. 내가 누구보다 더 성실하게 빈둥대야 하는데! 남이 노는 꼴 보기 싫어! 나는 베개에 얼굴을 마구 비비다 괜히 그웬을 불렀다.

"그웬."

창가에서 기사단의 수련을 지켜보다 꾸벅꾸벅 졸던 그웬이 눈을 떴다. 불러놓고 보니 할 얘기가 없군.

"그냥 불러 봤어."

이 짓도 몇 번 반복해서 그웬은 그럼 그렇지 하는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수식 계산도 금지라고 옐츠란은 지루하면 새로운 마법진을 짠다. 세상에. 종이와 펜을 빼앗긴 옐츠란이 과일에 묻은 물방울로 탁자에 무언가를 끄적이고 있었다. 또 머리 쓰는 일을 하고 있겠지. 저게 가능키나 한 일인가? 마탑의 마법사들은 참 상종 못 할 인간이다. 내가 자기를 빤히 쳐다보는 걸 느꼈는지 옐츠란은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무슨 부탁인지 뻔히 짐작이 가서 내가 먼저 선수를 쳤다.

"아, 심심하다. 심심해서 누구 부탁 들어줄 기분이 아니야. 나갈까?"

훅 불면 날아가는 쓸데없는 짓을 하던 주제에 옐츠란은 갑자기 방의 모든 게 흥미로운 척 표정을 꾸며서 말했다.

"와, 저거 봐. 신기하네."

옐츠란이 가리킨 건 고작해야 구겨진 이불이 나뒹구는 침대였다.

"침대가 갑자기 신기해?"

어설프기 짝이 없네. 그웬도 픽 하고 헛웃음을 지었다. 옐츠란은 겸연쩍은 얼굴로 괜히 턱을 만지다가 말했다.

"왜 갑자기 계속 돌아다니려고 그래? 전에 하던 것처럼 그냥 계속 잠이나 자."

"내가 누누이 말했지.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눈을 감고 명상을 하는 거라니까 왜 못 알아들어?"

"명상을 너무 편하게 해서 주무시는 줄 알았어요.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나는 몸을 일으켜 옐츠란이 탁자에 끄적이던 걸 손가락으로 마구 문질렀다. 귀여운 곰돌이 얼굴이 금방 물방울로 흩어졌다. 앗, 술식이 아니네.

"나 참, 심술은.”

옐츠란은 팔짱 낀 채로 일어서서 다른 의자로 가서 앉았다.

“내가 심술부리는 게 싫으면 네 방으로 돌아가. 왜 자기 방 두고 여기 와서 얼쩡거리는 거야?”

“이유는 너도 알잖아."

"데블랑한테 먼저 허락을 받고 와. 그러면 해준다니까?"

옐츠란이 슬그머니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렸다.

옐츠란이 이 방에 붙어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메빌 실리어의 앞 권을 읽으려면 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며칠 전 옐츠란은 데블랑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몰래 마도어를 해독하다가 쓰러졌다. 라무에서 돌아오자마자 밤새워 책만 읽어댔으니 그럴 만도 하다. 귀여운 데블랑의 부탁으로 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책에 일시적인 봉인을 걸었다. 이틀 뒤면 자동으로 풀리는 봉인이지만 옐츠란은 그 새를 못 참고 내 방으로 달려와서 무언의 시위를 하는 중이었다. 옐츠란의 말에 따르면 화나면 무서운 데블랑보다 나를 설득하는 편이 쉽다고 생각했나 보다. 차라리 애교를 떨지, 옐츠란은 참 세상 사는 법을 모른다.

이젠 내가 어떻게 괴롭혀도 재미없게 반응하는 법을 터득한 그웬과 비교하면 옐츠란은 굴러들어온 떡이었다. 아니다, 수박이었나? 나를 따라 다니면 부탁을 들어줄 거라고 여겼는지 졸졸 따라다니는 옐츠란을 매달고 산책하러 나간 주인처럼 페이퍼트 성을 쏘다녔다. 얘 좀 봐, 털이 참 윤기 나지? 아직 입질을 좀 하는데 조만간 말을 잘 들을 거야. 그렇게 자랑이라도 하듯 사람들 앞에서 옐츠란을 놀려대도 놈은 좀처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번듯한 옐츠란의 옆얼굴을 보며 또 어떻게 놀려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연무장에서 팔씨름이나 시킬까? 오늘은 정말 한스를 이길 수도 있다. 옐츠란에게 내깃돈을 거는 사람도 점점 늘고 있으니 이긴다면 우리끼리 떠들썩하게 축배를 들어도 재밌을 거다.

"좋아. 오늘도 팔씨름이다."

옐츠란은 얼굴이 사색이 돼서 나를 쳐다봤다. 그웬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서서 탁자 위에 3 벨을 올려놨다.

"한스한테 3 벨. 내 이름으로 걸어놔."

절대 옐츠란을 믿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웬답다. 나는 흐뭇해져서 말했다.

"너희들은 진짜 친구다."

용서할 수 없는 끔찍한 모욕을 들은 것처럼 둘은 서로를 쳐다봤다. 내가 봤을 때 둘은 태생적으로 안 맞다. 붙어 다닐 수록 서로를 혐오하면서 저렇게는 안 살아야지. 생각할 게 뻔했다. 그러니까 더 붙여두고 싶다. 재밌잖아.

"끔찍한 소리는 하지 말아 주세요. 레티시아 님."

그웬이 선수를 쳤다. 옐츠란이 어이없다는 얼굴로 입을 열려던 찰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레티시아 씨, 들어가도 될까요?"

데블랑의 목소리였다. 내 턱짓에 그웬이 가서 문을 열었다. 데블랑은 당황한 표정으로 방을 둘러보고 말했다.

"여기 전부 모여 있을 줄은 몰랐는데 잘됐네요. 어느 정도 체력은 회복한 것 같아 오늘부터 본래 자리로 돌아가 주었으면 하는데 다들 어떠세요?"

옐츠란은 밝은 표정으로 숨을 크게 내쉬었다.

"제발. 제발 그래 주라."

그웬도 기다렸다는 듯 검을 챙겨 일어섰다. 틈만 나면 방에서 팔굽혀펴기 같은 운동을 하긴 했어도 연무장에서 직접 검을 휘두르는 것만 못하니 마음이 조급했을 거다. 검사는 크게 다친 후에 몸을 움직여주지 않으면 몸놀림이 둔해지기 쉽다.

"연무장이랑 연구실로 뛰어가지 전에 잠깐. 오늘 회의가 있어."

"지독한 영감들이랑?"

옐츠란은 싫은 기색을 확 내며 콧잔등을 찌푸렸다. 그웬도 별로 좋은 표정이 아니었다. 내 일도 아니라서 나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심정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데블랑이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레티시아 씨도 이번부터 회의에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귀찮으실 테니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을 때와 다른 확고한 태도였다.

"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레티시아 씨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내 입지를 넓힘과 동시에 발 뺄 타이밍을 보라는 배려였다. 참 정직한 데블랑. 데블랑이 왕이 될 마음이 없다는 것과 그의 위에 든든한 후계자 에슬라네가 있어서 다행이다. 데블랑이 왕이 된다면 가엾게도 끊임없이 상처만 받고 온정을 베풀길 두려워 할 테니까 말이다.

회의는 생각보다 조촐하게 진행됐다.

보안을 위해 몇 안 되는 사람만 모여서 도저히 분위기가 안 났다. 그나마 있는 인원끼리 긴 테이블에 모여 앉으니 빈자리가 눈에 띄게 보였다. 도란도란한 티타임 같아 보여도 오가는 이야기는 무거웠다.

"각 지방에서 거둬들이는 헌금이 늘었다고 합니다. 빈민 구제에 힘쓰겠다는 명목이라던데, 작년보다 성기사를 더 뽑았다고 하더군요. 신전 측에서도 내전을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왕가가 저주를 받았다는 소문이 아직도 돌고 있습니다. 공주님께서 신을 거부했고, 왕자님께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입니다. 신전 측에서 악의적으로 뿌린 소문 같습니다. 이번 여름에 가뭄과 폭염이 없어 대부분 믿지 않지만, 신전과 가까운 일부 귀족이 성실한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관이 다녀간 이후로 데블랑이 왕위를 노리는 줄 알고 접촉 시도를 하는 귀족이 있다. 현재 자금이 어떻게 쓰인다, 훈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현재 병력은 이러하다 등의 보고가 주를 이뤘다. 유물을 찾는 일이 오리무중에 빠진 것과 별개로 에슬라네가 수도에서 초석을 잘 쌓아 올리고 있었다. 날이 갈수록 왕가를 향한 민심이 두둑해지는 게 사소한 얘기에서 느껴졌다. 신성국에서 신을 몰아낼 계획을 추진하는 사람다웠다. 수완이 아주 뛰어났다.

"전에 온다고 했던 마법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화살이 갑자기 옐츠란에게 튀었다. 세세한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느 대단한 마법사를 포섭하러 간 줄 알고 있었다. 그 일에 실패했다 하자 옛 저녁에 무례하게 약속을 어긴 마법사들이라도 불러오고 싶은 모양이다. 아무리 내가 일당백이라 해도 마법사가 둘 뿐인 건 터무니 없긴 하다.

옐츠란의 낯빛이 눈에 띄게 안 좋아졌다. 별다른 연락이 없구나. 대답을 듣지 않아도 전부 그 뜻을 알아챘다.

"혹시 도움 될 만한 마법사를 알고 계시는가요, 레티시아 님?"

나한테까지 물어볼 줄 몰랐는데.

나는 몇몇 얼굴을 떠올리다가 그만두었다.

"다 죽었을걸."

내가 마법사들이랑 친하게 지낸 건 마도 시대쯤이었다. 사실 그땐 모두가 마법사였으니 굳이 콕 집어 마법사라고 말하기도 그렇다. 내 말에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데블랑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내 말을 받았다.

"다른 세계의 마법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뭐, 그런 거로 하지. 내가 성의 없이 고개를 까딱이자 '참, 초월자셨지.' 같은 반응이 나왔다. 내가 위대하다는 걸 어떻게 까먹을 수 있지? 하여간 마음에 안 든다.

옐츠란은 떠들썩한 와중에 조용히 한 곳을 바라보고 있다가 별안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다.

"아? 아아아! 맞다! 내가 왜 이걸 까먹고 있었지?"

놀란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옐츠란을 쳐다봤다. 백발이 지긋한 늙은 귀족 한 명은 가슴에 손을 얹고 헐떡이기까지 했다.

"무슨 일입니까?"

뭐가 생각난 것인지 활짝 미소 짓고 있던 옐츠란은 자기에게 모인 시선을 의식했는지 얌전히 자리에 앉았다.

"곧 학회가 열려 마법사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잘 설득만 한다면 우리 쪽으로 많은 마법사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살인미수치고 싱거운 얘기인데. 옐츠란의 성격을 모르는 사람들은 잘 됐다고 맞장구를 쳤지만 저 정도로 호들갑 떨 놈은 아니었다. 옐츠란은 뭐가 좋은지 여전히 웃음을 꾹 참는 얼굴이었다.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회의가 끝나고 흩어지려는 우리를 옐츠란은 따로 불러모았다.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메빌 실리어의 위대한 유언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났어.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내가 전에 학회에 들고 갔던 걸 깜빡했지 뭐야. 저번 학회 때 썼던 방의 책장에 두고 그냥 나왔어."

데블랑의 표정이 확 밝아졌다. 아휴, 귀여워. 말은 안 했지만, 데블랑이 제일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다.

"그러면 그냥 이번 학회에 가서 들고 오면 되는 거야?"

"아니, 방은 그냥 무작위로 주니까 작년이랑 같은 방을 받진 못할걸. 그 방을 쓰는 마법사 몰래 들어가서 책을 빼 와야 할 거야. 중요한 연구를 발표하는 자리라 다들 엄청 날카로워져서 내 책이라고 달라 해도 의심할 게 뻔해. 방 근처에도 못 오게 할걸."

"방에 몰래 들어가긴 쉬워?"

"엄청 어렵지. 발표 직전에 연구 자료를 도둑질해서 대신 발표하는 일도 있었으니까 겹겹의 보안마법을 걸어둘 거야. 그래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야."

아무렴 책 학살단한테서 책을 훔치는 일만 할까. 그래도 영영 책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것보다 나았다. 그웬이 옐츠란에게 물었다.

"그러면 학회가 끝난 뒤에 찾으러 가는 게 낫지 않아? 아니면 학회가 열리기 전에 빨리 찾아오던지."

"그 건물은 학회가 열릴 때만 개방되는 건물이야. 마탑에서 관리비를 대주고 있거든."

지금이 아니면 하반기에나 열린다고 하니 빨리 해결해버리는 게 나았다. 옐츠란은 망설이는 기색으로 입을 뗐다.

"학회에 참가한 마법사는 보통 일정에 따라 움직여. 방에 몰래 들어갈 만큼의 틈은 나지 않을 거야. 그렇다고 내가 오래 자리를 비우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마법사가 같이 가서 내가 일정에 따르는 동안 책을 대신 가져와야 해."

그러고선 나를 봤다. 자연스레 데블랑과 그웬도 나를 쳐다봤다.

"아, 그러니까 위험한 일은 내가 다 해라?"

데블랑이 미안한 기색으로 말했다.

"네, 부탁드려요."

죄송해요,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같은 말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였다. 여기서 물러난다면 다른 수가 없기 때문일 거다. 학회는 오직 마법사만 참여 가능해서 그웬이 대신 갈 수도 없었다. 내가 쉽게 대답하지 않자 데블랑이 내 손에 손을 얹었다.

"왕가의 첫 번째 부탁입니다. 레티시아 씨, 도와주세요."

그렇게까지 나온다면 할 말이 없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약은 계약이니까."

데블랑이 한시름 던 표정으로 감사해요. 하고 손을 뗐다. 옐츠란이 품을 뒤져 작은 깃펜 하나를 꺼냈다. 도저히 사람이 쓸 수 없을 만큼 작은 크기였다. 옐츠란은 테이블 위에 있는 보고한 내용이 적힌 종이 한 장을 뒤집어 깃펜을 올려두었다. 마나를 주입하고 '학회 초대장'이라고 말하자 깃펜이 스스로 일어나 유려하게 글씨를 적어냈다. 옐츠란 페이퍼트 님께. 로 시작하는 마법 학회 초대장이었다. 학회가 열리는 날짜를 확인한 뒤 옐츠란은 깃펜을 품에 다시 넣었다.

"일주일 뒤에 열리네. 가는 길이 복잡해서 이틀 전엔 출발해야 해."

이틀씩이나 걸리는 거리라니, 벌써 귀찮다는 마음이 드는 것과 동시에 적어도 덜 지루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법 학회가 열린다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한 번도 참가한 적 없었다. 제일 큰 후원자가 마탑인 행사에 내가 뭐하러 내 발로 찾아가겠는가? 마법사가 그렇게 많이 모이는데 언제 한번 싸움 크게 안 나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어디서 열리는 건데?"

내 질문에 옐츠란은 조금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표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옐츠란의 말을 듣고 바로 깨닫게 되었다.

"마법 아카데미."

마탑에 소속되는 인재를 많이 배출하는 곳이자 대륙 유일의 마법 아카데미 뤼네 아비에.

저주 마법사들의 평등 투쟁 이후 젊은 마법사들이 '지식은 나누는 것'이라며 건립했다. 건립 이념에 따라 아카데미 안에선 직위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공부할 수 있다. 그 때문에 건립 초엔 작위 없고 재능 있는 자들이 모여 소소하게 토론회나 열었던 모양이지만 지금은 누가 뭐래도 명실상부한 양질의 교육을 자랑하는 아카데미였다.

모든 마법사가 열망하는 곳, 그 도도한 콧대가 거대하고 시원하게 뻗은 성벽의 선에서도 드러났다. 본래 밝은 회색의 돌로 지어졌을 성은 이젠 색이 바랬지만 성을 몇 개 합쳐 놓은 듯한 크기만은 그대로였다. 바람에 뤼네 아비에의 깃발이 펄럭였다.

파랗고 보란 색의 꽃을 피운 덩굴이 성벽을 멋들어지게 장식하고 있어서 마나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했다. 이틀이 걸리는 거리라 했지만, 국경을 넘은 이후 몇 가지 일에 휘말리는 바람에 우리는 사흘 만에 도착했다.

본래는 내 신분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였다. 뤼네 아비에가 있는 헨데니아국은 뭐든지 절차가 까다로운 곳이라 순간이동마법진을 쓰는 것조차 확실한 신분을 요구했다.

귀족일 것, 문제가 생길 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확실한 거주지가 있을 것. 귀족도 아니고 집을 알려줄 수도 없는 나는 일단 돈부터 내밀고 봤다. 돈으로 해결 못 하는 일은 없다.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건 돈이 부족해서다. 나는 돈 그리고 많은 돈 그다음 더 많은 돈을 내밀다 결국 경비병과 맞닥뜨리게 됐다. 경비병이 온 건 내 잘못이 아니라 옆에서 학회초대장이 있다고 확인하라고 강요한 옐츠란 탓이다. 뇌물 수수 혐의라고 한 건 그냥 헷갈려서 한 말이고 사실은 다 옐츠란 탓이다. 그래 뭐, 조금은 내 탓도 있다 하자. 그래야 공평하니까.

어쨌거나 거기까지였다면 이틀씩이나 더 걸리지 않았다. 마음 급한 옐츠란이 탈옥을 시도했고 어이없게 들켜서 문제가 더 커졌다. 이건 순전히 옐츠란 탓이 맞다. 경비단 전체와 싸우게 될 지경에 이르렀을 때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된 영주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전에 아들의 저주를 옐츠란이 풀어줬다나 뭐라나. 거기서 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으련만 우리 때문에 탈옥한 정치범 한 명을 잡느라 온 도시를 뒤지다가 겨우 마무리 짓고 뤼네 아비에에 도착하게 되었다. 진작에 영주의 이름을 댔다면 모든 게 순탄했을 텐데 말이다.

학회가 시작한 뒤 도착했기 때문에 옐츠란이 말했던 화려한 성대와 학생들의 환영 공연 같은 건 볼 수 없었다. 안내를 위해 나온 마법사만이 흥분을 억누르는 태도로 우리를 맞이했을 뿐이다. 그는 본래 안내는 시종이 하는 허드렛일이지만 옐츠란을 만나기 위해 자처했다면서 옐츠란을 자꾸 흘긋댔다. 신경 쓰지 않기 어려울 정도였는데 옐츠란은 익숙한지 시선을 받아넘기며 아까 하던 이야기를 계속했다.

“우리가 그 자를 잡지 못했다면 성공했을까?”

“아니.”

“탈옥했다는 소식에 순식간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 그만큼 모였잖아. 시간이 더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몰라.”

“바늘로 드래곤 찔러 죽이기야.”

옐츠란은 탈옥범의 이상향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우리는 모두 공평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로 시작하는 계몽가의 뜬구름 잡는 주장이지만 원래 있어 보이는 문장은 사람을 홀리는 법이다.

게다가 우리는 그 순간에 함께 있었다. 신념을 위해 사람들이 목숨을 내거는 순간.

낡은 술집에 빼곡하게 들어찬 사람들, 먹고 살기도 바쁜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후대에 물려주고 싶다는 이유로 그곳에 모였다. 소음은 하나가 되고 남루한 옷차림이지만 다들 눈이 별보다 빛났다. 희망과 강한 열망이 그곳에 있었다.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금방 싸늘하게 식었지만. 불에 몸을 내던지는 날벌레처럼 몇 번이고 그 불길 속에서 타올랐던 적이 있었다.

과거의 나처럼 옐츠란은 그 순간에 매료되었다. 자연스레 페르디낭을 떠올렸을 거다.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내 말에 계속 '만약에'로 시작하는 말대꾸를 하겠지.

"왜 자꾸 안된다고 단언해? 미래는 공상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거야 마법사들끼리 하는 이야기고."

그녀와 비슷한 계몽가들이 그동안 꾸준히 나왔지만 모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계급을 없애고 법과 규율을 지키며 살자? 지금은 불가능한 소리다. 왕권은 날이 갈수록 강해졌다. 똥 싸는 절차마저 법전에 적혀있다는 소리를 듣는 헨데니아여도 당장 계급이 사라진다면 모든 게 혼란에 빠질 것이다.

앞서가던 마법사가 우리 이야기를 듣고 앞 상황을 유추했는지 슬그머니 끼어들었다.

"벨린다령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탈틴이 탈옥했단 말입니까?"

옐츠란이 그렇다고 대꾸하자 자신감을 얻었는지 조심스럽던 목소리에 힘이 붙었다.

"정말 참신한 생각 아닌가요? 법만 있으면 국가가 제대로 작동한다니, 작동이라는 단어를 쓴 것도 기발해요. 저도 옐츠란님 말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탈틴은 뛰어난 문장가라서 사람을 쉽게 홀렸죠. 수감 전의 상황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첫 번째로 잡혔을 때 말이에요. 그때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대응이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벨린다는 헨데니아에서 최초로 평민에게 성을 빼앗긴 영지가 됐을 거예요."

"내 말이 그 말이야. 저랑 말이 좀 통하시네요.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옐츠란은 의기양양한 낯이었고 옐츠란의 관심을 받은 마법사는 들떠서 이름을 알려주었다. 그래, 너희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대화 좀 나눠라. 나는 여정 동안 도진 옐츠란의 질문병때문에 대화에 질려있는 상태였다. 모처럼 찾아온 조용히 있을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금방 까먹어버린 흔한 이름을 가진 마법사는 혼자 두 시간을 떠들 수 있을 정도로 말이 많았기에 내가 입을 벙긋할 필요도 없었다. 옐츠란이 조금 지친 기색을 보일 때 우리는 배정받은 방에 도착했다. 내 방과 옐츠란의 방은 마주 보고 있었다. 나는 어리둥절한 기색을 꾸며내서 말했다.

"어? 동관의 302호라고 하지 않았어?"

동관의 302호는 옐츠란이 책을 놓고 왔다던 지난번 방이었다. 눈치가 없는 옐츠란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안내한 마법사가 그 표정을 보기 전에 팔꿈치로 옆구리를 약하게 쳤다.

"억!"

한 대 쳐주니까 정신이 든 건지 옐츠란은 장단을 맞췄다.

"아, 그건 저번 학회에 배정받았던 방이라는 말이었어."

아픔을 삭이느라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얼추 원하는 대답이 나왔다. 나는 세상에 더 없을 순진한 태도로 물었다.

"그럼 지금은 그 방 누가 쓰는데?"

옐츠란이 옆구리를 부여잡고 숨을 몰아쉬는 동안 안내 마법사는 해맑게 대답했다.

"아, 헤나드님이 쓰세요. 옐츠란님과 사제관계시죠? 이것 참 기막힌 우연이네요."

일이 쉽게 풀리려나 보다. 이렇게 되네. 나는 은근한 반가움이 들었다. 헤나드에게 아무것도 털어놓지 않았지만 비슷한 불행을 떠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친근하게 여기고 있었다. 옐츠란은 눈에 띄게 표정을 굳혀 안내 마법사를 당황하게 했다. 그는 어색한지 약간 빠른 말투로 '저녁은 방에서 드시거나 홀에서 드실 수 있습니다.' 하고 시종을 부르는 법을 가르쳐준 뒤 쭈뼛대다가 물러갔다. 나는 네가 내쫓은 거라고 옐츠란을 타박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그가 빨리 떠나길 바랐으므로 효과적인 타박은 아니었다. 옐츠란은 자기 방문 문고리를 잡고 물었다.

"어떻게 할래?"

"방에 들어가서 쉬고 싶구나? 그러면 홀에서 저녁을 먹자."

옐츠란은 눈으로 뜻을 전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나는 그 눈빛을 당당하게 받았다.

"책 받으려면 헤나드도 만나야 하잖아. 밥 먹으면서 겸사겸사 얘기하면 좋지."

"아, 마법사들 만나기 엄청 피곤한데..."

옐츠란은 한숨 쉬며 얼굴을 문지르다 결국 나를 데리고 홀로 들어섰다. 어차피 못 이길 거 고민은 왜 한지 모르겠다.

사교성이 떨어지는 마법사들이니까 한산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홀은 북적북적했다. 애초에 학회에 초대받은 마법사가 적다는걸 고려하면 놀라울 정도로 많은 수였다.

그리고 믿기 어렵게도 거기에서 옐츠란은 누구든 닿고 싶어 하는 떠오르는 샛별이었다. 아니, 이미 떠오른 지 오래됐으니 '떠오르는'이 아니라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이라는 표현이 맞을 거다. 비 마법사 사이에서 옐츠란은 뭐든 허둥대고 다루기 쉬운 어설픈 사람이었다면 마법사 사이에서 옐츠란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였다. 옐츠란이 홀에 들어서자마자 작은 파문이 일더니 여기저기서 의자 밀리는 소리가 났다. 서로 자기 옆에 앉으라고 그를 불러댔다. 옐츠란은 조금 피곤하고 날카로워 보이는 얼굴로 사람들을 훑었다. 그 표정을 보니 옐츠란을 처음 만났을 때로 되돌아간 것 같았다. 오히려 그때보다 더 낯설어 보였다. 그를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쉽게 말 붙일 생각조차 못 할 거다.

옐츠란은 능숙하게 빈자리를 찾았다. 이쪽 테이블로 넘어오려고 흘긋대는 사람이 많았지만, 옐츠란이 그런 시선을 전부 무시하는 탓에 아무도 시도하지 못했다. 나는 그런 옐츠란에게 속삭였다.

"너 마법사 사이에 있으니까 정상인 같아."

"원래 비정상 같았다는 얘기야?"

"알아들었으면서 왜 다시 물어?"

옐츠란은 뭐라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이유를 물으니 나랑 똑같은 사람이 되기 싫어서란다. 참나, 되기 싫은 게 아니라 되지 못하는 거겠지. 옐츠란이 입을 다물자 의미 없는 말싸움은 금방 끝이 났다.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헤나드를 찾으려고 애썼다. 내가 시선을 어디에 둘 때마다 어김없이 사람들과 눈이 마주쳤다. 다들 호기심 어린 얼굴이었다. 나한테 입 모양으로 안녕하세요하고 말을 거는 정신 나간 놈도 있었다. 눈이 한 번 더 마주쳐도 그런 짓을 하길래 나도 입 모양으로 미친 새끼. 라고 답해주었다. 뜻이 통했는지 그놈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나는 마침내 헤나드를 발견했다. 120살이 넘는 마법사가 오기만을 방에 처박혀 기다리던 음침한 놈이니까 구석에 혼자 있을 거란 예상과 달리 많은 사람과 어울리고 있어 빨리 발견을 못 했던 거였다. 헤나드는 화제의 중심에 있었다. 그 식탁에 앉은 사람은 모두 헤나드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인 모양새였다. 그는 무슨 말을 들었는지 고개를 끄덕이다가 나와 눈이 마주쳤다. 당연히 놀란 얼굴로 아는 체하며 이쪽으로 올 거라 여겼지만 그는 모르는 사람처럼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렸다. 뭐지?

나는 뚫어져라 헤나드를 쳐다봤다. 헤나드도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자연스레 나와 다시 눈이 마주쳤다. 잠깐 시선이 머물긴 했지만 네가 나를 계속 쳐다보니까 나도 쳐다본다는 정도의 의미일 뿐, 다른 뜻은 없는 듯했다.

"저기 헤나드가 보이는데 나를 아는 체도 안 하네. 왜 그러지?"

"그 악마 같은 놈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

옐츠란은 헤나드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전채 요리로 나온 수프를 떠먹었다. 브로콜리 수프 냄새가 끝내주긴 했지만, 지금은 수프나 먹을 기분이 아니었다. 나를 바로 앞에 두고 무시하다니, 내가 헤나드를 위해 어? 그러니까... 책은 못 찾았지만 어? 아무튼,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는데.

나는 무릎 위에 올린 테이블 냅킨을 거칠게 내팽개치고 헤나드를 향해 똑바로 걸었다.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는 것이 느껴졌다. 내가 헤나드 앞에 당도했을 때 그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은 먹는 것도 멈추고 나를 빤히 쳐다볼 정도였다.

"나한테 인사 안 해?"

헤나드는 담담한, 그래서 시켜서 한다는 게 느껴지는 어투로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눈마저 녹일 듯한 눈빛은 어디에도 없었다. 첫눈에 반한 것처럼 굴던 태도가 내 상상인 것처럼 헤나드는 무표정했다. 헤나드의 옆에 앉은 자가 나에게 들리게 물었다.

"아는 자인가요?"

헤나드는 대답하지 않고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기만 했다. 사람들은 그 눈빛의 의미를 부정의 뜻으로 받아들였다. 여기저기서 수군덕대는 소리가 들렸다. 옐츠란과 같이 등장한 처음 보는 마법사. 옐츠란이 저렇게 티를 내는데 그와 옐츠란의 사이가 틀어졌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테고, 다들 열심히 입방아를 찧으며 나와 옐츠란과 헤나드의 관계를 유추했다. 헤나드 옆에 앉은 자가 나에게 물었다.

"누구시죠?"

나는 그 말을 무시하고 뒤로 돌아 원래 자리로 갔다. 헤나드가 짜놓은 판이 있을 거란 직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내 직감은 거의 예언과 같다. 나는 감정 때문에 일을 그르칠 만큼 어리지 않았다.

하지만 헤나드는 내 동정심을 시험한 값을 톡톡히 치러야 할 거다.

긴 잠에 빼앗긴 하루가 자리를 찾아가는 게 느껴진다. 나는 선잠 사이에 종종 깊은 잠을 잤고 때에 맞춰 배가 고팠고 적당히 먹었다. 좋은 징후다. 이번에도 내 마법은 성공했다는 뜻이니까. 단 한 가지 거슬리는 점이 있다면 얕은 잠과 깊은 잠을 오갈 때 꿈을 꾼다는 거다. 어렴풋이 남은 꿈은 정신이 들면 누가 후하고 불어버린 것처럼 저 멀리 달아나고 말았다.

오늘도 찝찝한 기분으로 눈을 떴다. 분명 아까까지 뭔가를 본 것 같았는데... 떠올리려고 집중할수록 잠이 깼다. 햇빛이 한창 쏟아지는 걸 보니 점심 때쯤 된 것 같았다. 나는 눈을 비비고 하품을 하며 창문을 열었다. 이곳은 수업이 이뤄지는 본관이나 학회발표가 주로 이루어지는 동관과 떨어져 있어 평화롭고 고요했다. 산들바람에 푸른 숲 냄새가 났다.

옐츠란은 학회 일정에 따라 새벽부터 준비해서 나갔을 거다. 그러고 보니 이른 아침에 복도에서 ‘잠도 없는 늙은이들.’ 하고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었지. 정작 진짜 늙은이는 한나절 자다가 지금 일어났는데 말이다.

나는 시간을 확인했다. 떠오르는 열시. 옐츠란이 안내 마법사를 잘 구슬려서 알아낸 바에 의하면 헤나드가 방을 비우는 시간은 저무는 세시다. 아직 세 시간의 여유가 있었다. 늦은 점심을 먹고 설렁설렁 가면 딱 알맞을 시간이다. 안내해준 마법사가 시종을 부르려면 어쩌고저쩌고 설명해주었지만, 당연히 제대로 듣지 않았다. 옐츠란을 걷어차서 시키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주방을 찾아봐야겠다.

나는 창문을 닫으며 몸을 부르르 떨었다. 여긴 날씨가 좀 쌀쌀한걸. 주머니엔 너무 두꺼운 옷뿐인데 적당한 게 없을까. 방에 있는 옷장을 뒤졌더니 운 좋게 얇고 짧은 망토가 나왔다. 남색의 윤기가 돌고 끝단에 금실로 추상적인 식물이 수놓아진 고급 품질의 옷이었다. 가슴팍 쪽에 달린 넓고 부드러운 천끈으로 묶어 여미는 형식이라 리본으로 매듭지어 입으니 내가 너무 귀여웠다. 정말 깜찍하고 사랑스럽군! 영지로 돌아갈 때 챙겨가야겠다.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나를 보고 달래야지.

나는 일단 무작정 계단으로 내려가서 1층을 돌아다녔다. 하릴없이 돌아다니다 보면 누군가 마주치겠지 싶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중앙 계단이 있는 곳을 지나고 있을 때 누군가 “거기 너!” 하고 나를 불렀다. 데블랑의 또래쯤 됐을까, 앳돼 보이는 얼굴은 엄격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 애는 빠른 걸음으로 나에게 왔다.

“여긴 어떻게 들어온 거야? 학회가 열리니 당분간 북관은 학생 출입금지라는 말 못 들었어?”

그 애는 내가 입은 망토와 똑같은 망토를 입고 있었다. 한가지, 가슴팍에 ‘도와드릴까요?’라고 적힌 붉은 리본을 달고 있는 점만 달랐다. 아, 어떻게 된 일인지 알겠군. 나는 대답을 고민하다가 아까 전보다 배가 고파오는 걸 느꼈다.

“그런 말 못 들었는데. 나는 지금 주방에 가려는 중이야.”

“주방? 주방은 왜 가? 식당을 말하는 거야?”

나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애는 ‘아~.’ 하고 뭔가 깨달은 목소리를 냈다.

“길을 잃었구나, 나도 길을 외우기 전까진 자주 그랬어.”

“응. 그랬나 봐. 배고파.”

그 애는 뒷짐을 지고 가슴팍을 쭉 내민 다음 좌우로 까딱까딱 몸을 흔들었다. ‘도와드릴까요?’의 리본이 팔락댔다.

“식당까지 데려다줄까? 학회 도우미로 뽑혀서 길을 다 외웠거든. 장학생만 도우미로 뽑히는 거 알지?”

비어져 나오는 웃음을 억누르는 얼굴에서 자부심이 엿보였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내 대답이 이상해도 신경 쓰이지 않나 보군. 어린애들이란.

“그렇게 해. 장학생.”

그녀는 코를 잠깐 찌푸리더니 장학생이라는 말에 표정을 풀었다.

“같은 학생을 도와주는 것도 내 일이거든. 보통은 여기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지만. 고맙다는 말은 생략한 거로 알게.”

마음대로 생각하라지.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사람들은 착각이 심해서 잠자코 입을 다물고 있으면 자기 말이 다 맞는 줄 안다.

“물어볼 게 있는데 학회가 없을 때 이 건물은 어떻게 써?”

그녀는 음... 하고 말을 고르느라 미간을 찌푸렸다.

“이상한 질문을 하는데... 졸업생보다 입학생 수가 많을 때 임시 기숙사로 쓰잖아.”

“그럼 이건 교복이야?”

입고 있는 망토를 가르치며 묻자 소녀는 떨떠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옷장에 왜 교복이 있었나 했더니 어떤 멍청한 학생이 짐을 싸면서 놓고 갔나 보네.

“아, 알겠다! 너 입학생이구나! 요즘 결원이 많이 생겨서 학기 중이지만 입학생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 전공이 뭐야?”

거봐, 사람들은 착각이 심하다니까. 갑자기 영혼만 학생 몸에 들어온 것처럼 굴어도 다 알아서 이해하잖아.

“고대 마법…?”

떠오르는 거로 대충 둘러대려니 옐츠란의 전공밖에 생각나지 않았다. 현대의 마법사가 제멋대로 한 분류를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고작해야 한 두 가지 재주밖에 없어 위안 삼아 만들어낸 전공을 기억할 필요가 없다. 나처럼 모든 마법에 능통하면 전공을 만들지 않았을 텐데 말이지.

“고대 마법? 되게 어려운 길을 가네.”

그러더니 그녀는 코를 찡긋하고 웃었다.

“사실 나도야. 나도 고대 마법이 전공이야.”

“아, 하필이면...”

“하필이면 장학생이랑 같은 전공이라니... 라고 말하려고 한 거지? 어쩌겠어. 그렇게 됐네.”

하필이면 같은 전공이어서 가는 내내 짹짹대겠구나 하는 의미였지만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래, 지금 아니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을 언제 느끼겠어. 어른인 내가 귀엽게 봐줘야지.

같은 전공인 걸 알고 나자 내가 친근하게 느껴지는지 그녀는 발걸음을 맞춰서 걸었다. 야무진 솜씨로 높게 꽉 묶은 머리가 살랑살랑 흔들렸다.

“난 글린다야. 너는?”

레티시아는 흔한 이름이 아니라서진짜 내 이름도 아니지만 여기저기 알려주기 곤란했다. 안 그래도 나란 분이 쉽게 잊기 어려운 인상인데 이름마저 특이하면 많은 사람이 나를 그리워할 거다.

“어...릴리.”

“얼리? 올리? 아니다, 엘리?”

“응. 맞아. 엘리야.”

정말 편한걸. 글린다는 내가 놓친 거짓말의 빈틈을 꼼꼼하게 메꾸었다. 비록 거짓말인지 모르고 하는 일이긴 해도, 글린다와 함께 다니면 귀찮은 일을 아주 많이 덜 수 있을 거다.

“왜 나를 그렇게 봐? 아~, 나랑 친해지고 싶구나? 그래. 우리 친하게 지내자. 내 친구도 소개해줄게.”

나는 곧바로 어렴풋이 그리던 모습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 글린다가 조금 조용하고 조금 덜 자신을 맹신했다면 서른 여섯 번째 가짜 신분이 완벽해질 수 있었는데, 아깝군. 글린다한테도 큰 불행이다. 나를 보필할 기회를 잃었으니 말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글린다는 내가 관심도 없는 교내 안내에 열을 올렸다. 내게 진심으로 알려주고 싶은 게 아니라 얼마나 완벽하게 외웠는지 자랑하고 싶은 것처럼 보였다. 나는 성취를 자랑하는 마법사의 말을 막으면 들을 때까지 얼마나 시달리는 줄 알기에 적당히 대꾸했다. 다행히 글린다는 상대방 반응 따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면 되는 전형적인 마법사였다. 제인 호코먼스가 387년 동안 마법등을 켤 수 있을 만큼 큰 마법석을 기증해서 밤낮없이 밝은 '빛의 구름다리'를 건넌 후에 식당에 도착했다. 하필이면 학생들 점심시간이랑 겹쳤는지 안은 입맛이 싹 달아날 만큼 혼잡하고 시끄러웠다. 주변을 둘러보던 글린다는 아는 얼굴을 발견했는지 나를 그쪽으로 이끌었다. 여자아이 둘과 남자아이 하나가 점심을 먹다 말고 나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인사해, 이쪽은 엘리. 고대 마법 신입생이래."

"고대 마법? 우리가 배우는 그 고대 마법? 와, 전혀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

고대 마법을 전공 할 것 같은 생김새는 따로 있나? 나는 눈썹을 까딱했다. 성인도 못 버텨내는 내 은근한 압박을 어린 남학생이 견뎌낼 리가 없었다. 소년은 괜히 안경테를 매만지며 대답했다.

"기분 나빴다면 사과할게. 세련돼 보인다는 뜻이었어. 고대 마법은... 인기 있는 전공은 아니거든. 좀 고리타분하다는 인식이 있어. 요즘은 옐츠란 페이퍼트님 덕분에 많이 바뀌긴 했지만..."

옆에 앉아있던 다른 학생이 기침하는 것처럼 외쳤다.

"마..도라히! 마..도라이 전공!"

"아니야! 고대 마법은 그냥 마도 시대의 마법을 연구하는 것뿐이야!"

글린다가 발끈한 투로 말했다. 다른 아이들이 웃지도 않는 걸 보니 이렇게 글린다를 놀린 게 한 두 번이 아닌 듯했다. 어린애들은 오래된 것보다 새것, 변하지 않는 것보다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걸 더 좋아하니 고대 마법이 구닥다리 전공이 된 건 당연했다. 나는 갑자기 나온 옐츠란의 이름에 장난스러운 마음이 들어 천연덕스럽게 물었다.

"옐츠란 덕분에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그 사람도 인상이 별로지 않아? 고집불통에 싸가지 없는 마도라이잖아."

넷은 동시에 숨 쉬는 것조차 잊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던 모든 학생이 떠들던 걸 멈추고 나를 쳐다봤다. 갑자기 모인 수많은 시선에 춤이라도 춰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나도 참 유쾌한 사람이란 말이야.

"너 말이 좀 심하다? 옐츠란 님을 직접 봤어? 그분이 마도라이, 아니 마도시대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건 맞지만 고집불통에 싸가지 없는 걸 직접 봤냐고."

글린다가 어깨라도 밀칠듯한 공격적인 어조로 말해서 나는 "아니면 말고." 하는 가벼운 투로 넘겼다. 마도라이 전공이라고 글린다를 놀렸던 아이가 나를 보고 ‘글린다가 좀 유난이지?’하는 표정으로 입을 삐쭉거렸다. 아무래도 옐츠란은 마법사 사회에서 선망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듯했다. 마법이 망하고 검술이 흥하려는 징조인가보다. 나는 검이 허리춤에 얌전히 있는지 확인했다. 성으로 돌아가면 아침 수련을 같이해야겠어.

근거 없는 옐츠란 비방이나 하며 점심시간을 즐겁게 보내려는 내 의도는 수포가 되었다. 대신에 웃기지도 않는 옐츠란의 업적을 내내 들어야 했다. 그래그래, 옐츠란님은 나뭇잎 하나를 타고 툴른강을 건너시고 도토리로 폭탄을 만들어 적을 물리치셨겠지.

갑자기 과거의 대화가 번뜩 떠올랐다. 내가 역사에 남을 만큼 유명했을 적 대화였다. 부하 중 하나가 일은 안 힘든 데 사람들을 만나면 내 밑에서 일한다는 얘기를 듣고 부러워하는 게 너무 짜증 난다고 그랬다. 온통 칭찬뿐인데 실제로는… 개... 하고 내 눈치를 보더니 더 훌륭하십니다. 하고 말을 끝맺었다. 이제야 감히 내 앞에서 내 욕을 하던 심정이 이해가 갔다. 성벽에 이틀만 매달아 놓을 걸 그랬네.

아이들한테 시달린 만큼 돌아가면 옐츠란을 조져놓기로 다짐하며 죄 없는 토마토를 포크로 찌르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쑥덕이는 대화가 들렸다.

"너희 그거 들었어? 르네도 수업 안 나온 지 몇 주째 됐나 봐."

"르네? 르네 델라민?"

"응, 르네 델라민 말이야. 도망친 다른 애들처럼 짐도 거의 안 챙겨서 나갔대."

"르네까지 그랬다니 믿기지 않네. 난 걔는 죽어도 도서관에서 죽을 줄 알았어."

"그치? 나도 듣고 깜짝 놀랐어. 르네까지 포함하면 벌써 열 두 명째인가... 어렵게 들어와서 왜 도망치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네. 게다가 르네는 창조마법 수석이었잖아. 학회 도우미로 뽑혔던 것 같은데..."

"학회 도우미로 뽑힌 게 부담이 컸나 봐."

스쳐 가는 대화 화제였는지 아이들은 금방 다른 이야기를 떠들어댔고 그 주제는 내가 앉은 무리로 흘러들어왔다.

"르네도 도망갔다고? 말도 안 돼. 글린다, 학회 도우미 교육받을 때 르네 못 봤어?"

"첫날부터 없었어. 그래서 난 그냥 르네는 수업 듣는다고 거절한 줄 알았지. 도망쳤을 줄이야..."

나와 눈이 마주치자 글린다는 “너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나.” 하고 친절한 어조로 말을 건넸다. 내게 설명해줘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는 것 같았다.

"아까 결원이 많이 생겼다. 그랬잖아. 르네처럼 다들 도망가버렸어. 열 두 명이나... 정말 이례적인 일이야. 처음엔 실종인 줄 알고 온통 난리가 났었어. 떠난다는 편지를 남기고 짐도 없어져서 도망친 거란 게 밝혀졌지만... 도망이 무슨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정말 무식하고 책임감 없어. 그런 애들은 일찌감치 도망치는 게 나아."

다른 애들도 같은 의견인듯했다. 어리고 학생이어도 마법사는 마법사였다. 어떻게 하나같이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재수 없는 족속으로 자라나는지... 나는 마법사지만 저런 인간은 아니다. 마법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능통해서 마법사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탈피한 것인지도 모른다. 혹은 천성이 이타적이거나.

헤나드가 머무는 동관은 숙소만 있는 북관과 다르게 큰 강당과 연구실이 많아 학회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곳이었다. 학생과 교수, 학회에 참가한 마법사들이 정신없이 오가서 그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들었다. 북관처럼 출입을 제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행이었다. 이곳에 오기 위해 내가 겪은 어려움이란 글린다 무리를 몰래 떼어놓는 것뿐이었다. 어린 참새들이 얼마나 말이 많은지, 내내 조잘조잘. 아직도 그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다.

302호. 친절하게 호수가 적힌 문 앞에 섰다. 이대로 문을 열고 바로 들어가서 책을 꺼내오면 모든 일이 끝날 것 같지만, 아니었다.

일단 문 전체에 걸린 보호 마법 하나, 잠금장치에 걸린 잠금 마법 하나, 문손잡이를 잡으면 약한 전류가 흐르게 되어 있고 문에 강한 충격을 준다면 알람이 울리도록 설정되어 있다. 게다가 좌표는 알아보지 못하게 뒤엉켜있는 데다가 문의 빈틈으로 마나를 집어넣지 못하도록 결계마법까지 걸려있다. 문이 이 꼬락서니라 창문은 어떻게 해놨나 바깥에서 봤더니 문 못지않게 삼엄했다. 하나 같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마법이다. 내가 해제 못 할 정도는 아니지만, 보안마법은 보통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있어 시간을 가지고 차근히 순서대로 풀어야 한다. 3층은 큰 강당이 있는 층이라 몇 분에 한 번씩 큰 무리가 우르르 지나갈 정도로 복잡했다. 남의 방문 앞에 오래 서서 해제 마법을 연발하면 누가 봐도 수상해 보일 거다. 2층이나 4층에서 뚫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천장과 바닥마저 보호 마법을 걸어놨다. 왜 이렇게까지 해놓은 거지? 도대체 뭘 숨기고 있길래?

홀에서 나를 모른 척하던 헤나드의 모습이 떠올라 모든 게 수상하게 느껴졌다. 헤나드는 이번 학회에 참관만 한다고 들었다. 발표자처럼 방에 몇 겹의 보안마법을 걸어놓을 필요가 없었다.

"거기서 뭐 하고 계시죠?"

싸늘한 얼굴. 저 멀리서 헤나드가 흔들림 없이 걸어왔다. 꿀에 담갔다 뺀 살구 같은 미소는 어디에도 없었다. 다정하고 상냥한 태도가 부드러운 깃털로 만들어진 탓에 바람에 날아가 버렸나 보다. 놈은 세 걸음 정도의 거리에서 멈춰섰다.

"거긴 제가 배정받은 방입니다. 저한테 무슨 볼일 있습니까?"

“헤나드.”

헤나드는 내 부름에 대답하지 않고 나와 눈을 맞추고 지긋이 쳐다봤다. 한동안 불편한 침묵이 계속됐다. 나는 눈빛만 보고 무슨 말을 하려는지 맞추는 재주가 없기에 한 번 더 입을 열었다.

“안녕.”

헤나드는 잠깐의 침묵 뒤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나한테 할 말 없어?”

헤나드는 고개를 저었다. 하고 싶은 말은 없어도 해야 할 말은 있을 텐데. 하지만 그 점을 굳이 지적하지 않았다. 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르는 척했어? 전에는 나한테 반한 것처럼 비위를 맞추더니? 물어보기에 너무 사소하고 별거 아닌 질문이었다. 그 정도로 공개적으로 모욕당했다 느낄 만큼 치졸한 인간도, 배신감을 느낄 만큼 깊은 사이도 아니니까 말이다. 단지 부탁을 해놓고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라기엔 너무 건방져서 거슬릴 뿐이다.

“잘됐네. 나도 너랑 대화할 마음 없어. 방에 들어갈 거니까 문이나 열어.”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

헤나드는 또 내 질문을 무시했다. 놈은 여전히 세 걸음의 거리를 유지한 채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시선이 내가 입고 있는 망토로 향했다가 다시 내 얼굴로 올라왔다. 순간 표정이 누그러지더니 미간을 미세하게 찌푸리고 눈썹을 늘어트렸다. 뭐 하자는 거야? 갑자기 짜증이 확 났다. 나는 힘껏 문을 걷어찼다.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이 깜짝 놀라 주저앉을 정도로 큰 소리가 나며 문이 흔들렸다. 보호 마법 덕에 형태를 보존한 문은 삐 하고 고음의 거슬리는 알람 소리를 냈다.

“이렇게까지 해놓은 이유가 뭐야? 숨겨 놓은 거라도 있어?”

헤나드는 우리에게 몰린 시선을 살피며 나에게 다가왔다. 지나치게 가깝다고 느낄 정도로 다가와서 나는 문을 등지고 서게 되었다. 문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귀청이 터질 것 같았다. 모든 게 나를 화나게 만들고 있었다. 거슬리는 것들을 전부 으스러트릴 수도 있지만 오랜 연륜으로 화를 다스렸다. 나는 페르디낭과 약속한 것을 잊지 않았다. 사소한 감정 변화 때문에 이때껏 쌓아 올린 것을 무너트리는 건 미련한 짓이다.

헤나드는 손을 뻗어 문을 짚었다. 끔찍한 알람 소리는 삽시간에 뚝 멎었다. 내가 턱을 조금만 치켜든다면 오르락내리락하는 헤나드의 가슴팍에 코끝이 닿을 듯했다. 나를 내려다보는 헤나드의 눈동자에 망설임이 보였다. 놈은 입술을 열 듯 말 듯 망설이고 있었다. 나는 헤나드의 입술을 바라보며 속으로 숫자를 세었다. 1, 2, 3, 4, 5.

정확히 5초의 시간이 지난 뒤 나는 매섭게 놈의 가슴을 밀쳤다. 어찌나 세게 밀쳤던지 갈비뼈가 부러지는 느낌이 손바닥에 선연하게 느껴졌다. 5초면 충분히 자비로운 시간이다. 그 시간 안에 입도 뻥긋 못 할 말이라면 굳이 기다려서까지 듣고 싶지 않았다.

강한 압박 때문에 몸이 반응하는지 헤나드가 움츠러들었다. 나는 봐주지 않고 곧바로 무릎으로 놈의 턱을 치켜세웠다. 턱이 어긋나거나 부서진 게 틀림없을 소리가 들렸다. 몸이 뒤로 젖혀졌을 때를 놓치지 않고 옆차기로 멀리 날려버렸다. 아마 갈비뼈가 전부 내려앉고 폐에는 구멍이 뚫렸을 거다. 보통 사람이라면 턱을 처 올렸을 때 뇌진탕에 걸려 죽었을 텐데 헤나드는 초점이 안 잡히는 눈으로 비틀비틀 일어나려고 애썼다. 놈이 숨을 쉴 때마다 죽어가는 짐승의 신음 같은 게 났다.

“진짜 안 죽네.”

헤나드는 내가 때린 것보다 그 말에 더 아픔을 느낀 듯했다. 맞는 동안 변함없던 얼굴에 둑을 연 듯 감정이 확 쏟아졌다. 가슴을 갈라 심장을 움켜쥐었다 해도 그만큼 상처받지 않았으리라. 그러나 아무 마음도 동하지 않았다. 티끌만큼 남아있던 동정심마저 헤나드가 대답을 머뭇거릴 때 사라져버렸다.

헤나드가 숨을 몰아쉬며 긴 주문을 외우고 나자 뼈가 맞춰지는 소리가 들렸다. 부서진 뼈만 대강 붙인 듯했다. 입에 고인 피를 뱉는 헤나드에게서 고통스러운 기색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놈은 나를 바라보며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나는 떠오른 생각을 거르지 않고 내뱉었다.

“하나도 안 아프지? 그건 편하겠네.”

상처 주기 위한 뾰족한 말에 일부러 한 말인 걸 짐작할 텐데도 헤나드는 피하지 못하고 꿰뚫렸다. 놈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한참을 나를 쳐다보기만 했다. 눈동자가 깊은 비애의 호수에 덩그러니 떠 있는 달 같다. 나는 한 번 더 말했다.

“문 열어.”

헤나드는 고개를 젓고 이쪽으로 다가왔다. 다시 우리의 거리가 세 걸음 정도 되었을 때 누군가 퍽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헤나드 님.”

기이한 자였다.

숱이 없는 검은 머리카락은 착 가라앉아 목덜미를 덮었고 눈동자는 아주 밝은 회색이라 흰자밖에 없는 눈에 검은 동공만 박힌 것처럼 보였다.

깡 마른 몸은 엉성하게 엮은 뼈다귀 같았는데 얇은 피부 때문에 전체적으로 푸른 회색빛이 돌았다. 귀가 있어야 할 자리엔 뭉텅한 굴곡과 구멍만 뻥 뚫려 있었다. 느껴지는 마나는 뿌옇고 차가워 뱀의 등을 훑는 것 같았다.

툴륜. 저것의 이름이 기억났다. 인간이 툴륜이라 부르는 것이었다. 인간이 기상천외한 것을 보양식이라고 먹듯 드래곤도 보양식을 만들어 먹는다. 튤륜은 9개월 정도 된 인간의 태아를 삼익조의 배 속에 넣고 한 달 동안 뱀의 젖과 마력을 먹여 만드는 드래곤의 ‘음식’이었다. 그렇게 나온 툴륜은 산 것도 죽은 것도 인간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무언가다. 보통은 바로 드래곤에게 먹히거나 만드는 데 실패해서 썩은 채로 버려진다. 그게 저렇게 성인의 외형을 할 정도로 자랐다니... 나는 조금 전까지 화내던 것도 잊고 툴륜의 뒤에 서 있던 마법사가 “정말 무례하군!” 하고 대신 화를 낼 때까지 그것을 빤히 쳐다보았다.

“친분이 있는 학생인가요?”

툴륜은 집요한 시선 정도는 익숙한 듯 헤나드에게 말을 붙였다. 헤나드는 어느새 감정을 추슬러서 낯빛이 싸늘했다. 창백한 얼굴에 피가 묻은 입술만 반드레하게 빛났다. 문득 심장과 눈에 거울 조각이 박혀 마음이 얼음처럼 변한 소년이 나오는 동화가 떠올랐다. 그 소년은 결국 어떻게 됐었지? 죽었었나?

"아니요. 모르는 자입니다."

닭이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셈인가, 하지만 이제 별 상관없다.

헤나드와 나는 교차점이 없는 일방적인 관계였다. 놈은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지만 나는 없으니 끊기 쉽다. 알량한 동정심도 오늘부로 끝이다.

헤나드는 걸음을 옮겨 나와 툴륜 사이에 섰다. 뭐야, 안 보이잖아. 나는 인상을 찌푸리며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섰다. 툴륜이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았다.

"젠 님은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십니까?"

헤나드의 말에 툴륜의 고개가 다시 돌아갔다. 놀랍게도 툴륜은 이름까지 가진 마법사였다. 나는 아까까지만 해도 마법사들이 실험 표본을 옮긴다고 생각했다.

"제2강당에서 열리는 강연을 보러 갈 생각입니다."

"저도 그 강연을 보러 가던 길이였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합류해도 되겠습니까?"

툴륜은 대답을 미루고 다시 한번 나를 쳐다봤다. 나는 여전히 툴륜을 뚫어지라 보고 있었으므로 우리는 눈싸움을 하는 꼴이 되었다. 툴륜은 눈썹도 속눈썹도 없어 표정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실례입니까?"

헤나드는 이 자리를 빨리 뜨고 싶은 건지 전에 나에게 그랬듯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지 재차 물었다. 툴륜의 눈에 불투명한 막이 눈 앞머리와 눈꼬리에서 나와 눈을 덮었다. 내가 짐작하는 게 맞았다면 저건 의심하는 얼굴이었다.

"항상 단독행동을 하시더니 오늘은 저희와 함께 다닐 마음이 생기셨나 보네요."

헤나드는 대답하지 않았고 툴륜은 내게 은밀하게 정령을 보냈다. 오로지 진실만 말하게 하는 진실의 정령이었다. 마법사들은 툴륜이 나에게 정령을 보낸 걸 꿈에도 모르는 눈치였다. 정령은 사고하는 것들의 머리에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부리는 데 마나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마찬가지로 정령을 부리는 나만 툴륜의 저질스러운 행동을 보았다. 나는 툴륜의 정령을 내게 가까이 다가오지도,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게 꽉 잡아챘다. 이걸 가져가서 분해해보면 정말 재밌을 거다. 이게 툴륜의 머리에서 나온 거면 저자의 진실 하나를 보게 될 테니까. 툴륜의 진실이라니, 간만에 마법사적인 호기심이 불탔다. 어떻게 여태껏 살아 있는지에 대한 해답이 될 수도 있다.

"학생, 헤나드 님과 친분이 있는 사이입니까?"

헤나드가 한 발을 축으로 몸을 돌렸다. 놈은 소리 없이 입 모양으로 내게 뜻을 전했다. 뭐라고 했는지는 눈여겨보지 않아서 모르겠다.

"알아서 뭐하게?"

툴륜 옆에 서 있던 놈이 갑자기 흘러내리는 땀을 닦아내더니 안절부절못하며 말했다.

"허허, 평등을 기본으로 교육하고 있지만 본래 신분이 높은 학생들은 높임말이 서투릅니다. 젠 님이 이해해주십시오."

툴륜은 네, 괜찮습니다. 하고 대답하더니 말을 이었다.

"당신이 헤나드 님과 친분이 있다 하면 제 권한으로 강연에 데려가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 해도 보는 것만으로 도움이 될 겁니다."

"내가 대답하면 너도 내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할래?"

"어떤 질문이지요?"

"툴륜인데 어떻게 살아 있어?"

다들 숨을 들이쉬고 내뱉는 걸 잊은 사람처럼 굴었다. 아주 잠깐 숨소리조차 없이 고요했다. 이쪽을 지나가려던 학생 하나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돌아가는 게 보였다. 아까 땀을 흘리던 남자는 이제 얼굴이 검붉어졌다.

"그런 무례한 말을 하다니! 학생 이름이 뭡니까?"

"마음대로 생각해."

"당장 반성실로 가서 아놀드 교수님이 보냈다고 하고 기다리고 있으세요!"

그런다고 내가 가겠냐마는 못생긴 남자가 날뛰는 걸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에 나는 그래. 하고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했다.

"그 질문에 대답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나도 대답 안 할래."

"무척... 특이하군요."

툴륜의 눈꺼풀이 사르륵 열렸다. 너도 그래. 나는 툴륜이 자신의 정령을 잃어버린 걸 알아채기 전에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었다.

"나는 반성실로 가야 해. 안녕, 나중에 또 봐."

나중에 또 보자는 말은 진심이었다. 기왕이면 내 연구실이 있는 던전에서. 신선한 툴륜을 가진다면 정말 재밌을 거다. 어쩌면 숨어버린 드래곤을 꾀어낼 수도 있다. 나조차도 찾을 수 없게 감쪽같이 숨어버린 드래곤이 나온다면 진짜 차원의 틈에 숨어있었냐고 물어봐야지. 그리고 그 틈에 신도 존재한다는 인간의 생각이 옳다면 누구 머리에서 차원 이동이라는 빌어먹을 생각이 나왔는지 알아낼 거다. 나는 신을 죽일 생각에 모처럼 들떴다. 뒤에서 '나중에 또 봐…?' 라고 중얼거리는 툴륜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하고 옐츠란 방으로 내달렸다.

옐츠란은 침대도 아닌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다가 문이 벌컥 열리자 깜짝 놀라 일어났다.

"뭐야? 아, 그럼 그렇지."

옐츠란 방으로 온 건 내 방에는 없는 마력석이 박힌 책상 때문이었다. 나는 뾰족한 마력석 끝에 정령을 꽂았다. 꿰뚫린 정령은 비명을 지르며 갈래갈래 나뉘었다. 도대체 비명은 왜 나는지 모르겠다. 전혀 그렇게 안 생겼는데. 나는 올이 풀린 리본 같은 정령의 끝을 잡고 하나하나 들여다보았다. 쨍그랑. 그릇 하나가 깨졌다. 어려운 살림살이 중에 가장 고급스러운 도자기 그릇이었다. 작은 손은 그릇을 주워다가 땅에 묻는다. 장소가 바뀌고 식탁에서 어떤 여자가 묻는다. '루인스, 찬장 위에 있던 그릇은 못 봤니?' 작은 손을 가진 아이가 대답한다. '저는 못 봤어요.' 기억은 거기서 끝이었다. 정령은 공기 중에 흩어졌다.

들떴던 기분이 확 가라앉았다. 작은 손은 툴륜이 아닌 인간의 손이었다. 루인스라는 자를 죽이고 빼앗은 잔챙이 정령이군. 나는 침대로 향하던 옐츠란을 밀치고 내가 먼저 침대에 엎드려 누웠다.

"네 방에도 침대 있잖아."

"지금 내 눈앞에 없잖아."

옐츠란이 헛웃음을 짓는 게 들렸다.

"책은 갖고 왔어?"

"아니, 헤나드가 문에 몇 겹이나 보안 마법을 쳐놨더라. 보는 눈이 많아서 못 가져왔어."

"헤나드가…? 왜지?"

나는 몸을 빙글 굴렸다. 옐츠란은 곰곰이 생각하는 얼굴이었다. 고민에 빠진 조각 같군.

"너 툴륜 마법사를 알아?"

"툴륜? 아, 그... 툴륜. 얘기는 들었어. 정령을 주로 부리니까 마법사라고 하긴 모호하지. 마탑 소속은 아니야. 그자도 학회에 초대 받았나 보네."

"헤나드랑 친해 보이던데 너는 실제로 본 적 없어?"

"응, 본 적 없어. 의외의 인맥이 있네. 헤나드가 축복마법사였던 시절에 친했었나 봐. 툴륜은 치료마법사니까. 치료마법사랑 축복마법사는 친목 모임도 자주 갖거든."

툴륜이 치료마법사라, 가장 보수적인 마법사들 사이에서 교수가 쩔쩔댈 만큼 자리를 꿰차다니 인간보다 낫네. 옐츠란은 미간을 찌푸린 채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침대 맡에 서 있었다.

"헤나드가 작정하고 문을 잠근 거면 풀기 힘들 텐데..."

나는 꿈질꿈질 몸을 움직여 옆을 두드렸다.

"일단 여기 누워봐."

"왜?"

"누워."

내가 강하게 말하자 옐츠란은 일단 엉거주춤하게 몸을 눕혔다. 페이퍼트 성처럼 넓은 침대가 아니라 좁은 1인용 침대라 옐츠란은 자꾸 굴러떨어지려는 몸을 다리로 지탱했다. 나 참, 남자가 답싹 답싹 안기는 맛이 있어야지. 멱살을 잡아 옆에 끌어다 놓자 처음에는 일어나려고 퍼드득대던 몸이 얌전해졌다. 어떻게 움직여도 나랑 닿는다는걸 깨달아서일 거다. 나는 배 위에 얌전하게 모은 옐츠란의 팔 한 짝을 들어 올려 팔베개를 했다. 옐츠란이 긴장한 탓인지 어떻게 자세를 잡아도 불편했다.

"피곤해 보여서 누우라고 한 거야. 탈옥범을 잡느라 며칠 동안 밤낮없이 뛰어다녔잖아. 오늘도 일찍 일어났고. 나는 너무 착하고 배려심이 넘쳐서 탈이야."

"그러면 네가 일어나고 나만 누우라고 하면 되잖아."

"그러게, 그 생각을 못 했네."

나는 하려던 말만 하고 나갈 생각이었으므로 대충 대꾸했다. 내 대답에 뭐라고 토를 달아야 정상인데 옐츠란은 묘하게 아무 말도 없었다.

"오늘 밤에 헤나드 방을 털 거야."

"불가능할걸. 헤나드는 마나에 엄청 예민해. 자기 마법이 해지되는데 모를 리가 없어. 그냥 내가 가서 달라고 할게."

나한테 불가능한 일은 거의 없는데 뭘 모르네. 나는 눈썹을 까딱하며 고개를 돌려 옐츠란을 쳐다봤다. 옐츠란은 내 쪽으로 눈도 못 돌리고 멀거니 천장만 보고 있었다. 됐다. 이런 애랑 말싸움해봤자 나만 격이 떨어진다.

"그래도 되는 거였어?"

"헤나드는 입이 무거워서 괜찮을 거야. 내가 그놈한테 부탁을 해야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지만 어쩔 수 없지."

나는 옐츠란의 가슴팍을 짚고 몸을 일으켰다. 허약한 마법사니까 갈비뼈가 그대로 만져질 줄 알았더니 그래도 뽈뽈거리며 기사들 쫓아다녔다고 제법 탄탄했다.

"왜 그렇게 봐?"

"아냐, 아무것도. 운동 열심히 해. 기껏 돌려놓은 마나가 흩어지면 안 되잖아?"

옐츠란은 다소 충격받은 얼굴로 되물었다.

"운동 안 하면 그렇게 되나? 그런 오류는 찾지 못했는데."

나는 콧등을 찌푸리며 안타깝다는 표정을 꾸며낸 뒤 옐츠란의 가슴을 두어 번 토닥거렸다. 무럭무럭 자라라.

"응, 그렇게 될 거야."

나는 바짝 마른 숲길을, 흙이 푸스스 떨어지는 비탈길을 마구 달려간다. 나는 언덕 위에 도달한다. 저 멀리 마을이 보인다. 마을 밖에 산처럼 쌓인 것도.

오늘 밤도 유난히 길었다. 아침 해가 떠올라 모든 게 선명해지기 전에 새벽의 어스름을 틈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또 후회할 짓을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있나? 아니야. 저건? 저것도 아니야. 그 옆엔? 맞아. 있네. 그래. 있었어.

집중해 바라본 순간 그것은 하얀 로브로 바뀌며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돈다. 빙글, 한번. 빙글, 두 번. 빙글, 세 번. 그리고 쩌렁쩌렁하게 외쳤다. “비야, 내려라!” 비는 내리다가 빨간 와인으로 바뀐다. 내가 든 잔으로 쏙 들어왔다. 와인잔을 바라보다 보니 어느새 퀴퀴한 냄새가 나는 술집이다. 빗자루 두 개가 나를 보고 쑥덕댄다.

“그거 알아? 톤다에선...”

그리고 나는 꿈에서 깼다. 꿈이 드문드문 기억난 것인지 애초에 개꿈을 꾼 건지 헷갈렸다. 마지막에 빗자루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 그거 알아? 다음 부분부터 기억나지 않는다. 아니다, 빗자루가 아니라 삽살개였나?

나는 바닥에 널브러진 이불을 끌어 올리려고 헛손질을 하다가 꿈 내용을 또다시 잊어버리고 말았다.

나는 이틀간 메빌 실리어의 책을 찾는 일은 옐츠란에게 떠맡기고 툴륜이나 쫓아다녔다. 학회에 참가한 마법사 무리와 학생 무리를 오가며 열심히 툴륜과 마주치려고 애썼지만 모두 허사였다. 툴륜의 꼬리라도 밟을까 싶으면 누가 방해라도 하는 듯 기가 막히게 엇갈렸다. 덕분에 시답잖은 소문이나 주워듣게 되었다.

가령 '헤나드님을 피 토할 때까지 때린 미친 학생이 있다더라.' '젠님 앞에서 툴륜인데 왜 안 죽어? 내가 죽여줄까? 하던 미친 학생이 있다더라.' 같은 거나 글린다는 그 학생이 금발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너지? 뭔가 너일 거 같아. 하고 정확한 추리를 했다. '옐츠란님이 동행으로 어린 제자를 데리고 왔다더라' '옐츠란님의 동행이 헤나드님에게 제자로 받아달라고 협박한다더라.' '옐츠란님과 동행이 같은 방을 쓴다던데 연인이 틀림없다.' 같은 거 말이다. 하지만 똑같이 영양가 없는 가십을 떠들어도 마법사들은 그저 유흥이었고 학생들은 불안함을 감추려는 노력이었다.

벌써 열 세 번째 가출 학생이 나왔다. 르네가 가출한 지 5일밖에 안 됐으니까 가출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글린다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었다. ‘경쟁자가 줄어드는 건데 왜 기쁘지 않고 불안한지 모르겠어.’ 까만 머리를 양 갈래로 곱게 땋은 학생 하나가 샐러드를 포크로 찌르며 중얼거렸다.

가출이 아닌 거겠지. 나는 당연한 추론을 떠올렸지만, 굳이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뭐, 내 일 아니니까. 교수들이 알아서 처리하겠지.

나를 보고 배웠는지 옐츠란도 이틀 동안 허탕만 쳤다. 급기야 옐츠란은 헤나드가 자기를 피해 다니는 게 분명하다며 틈만 나면 스승과 제자였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로 시작하는 욕을 해댔다. 하지만 오늘은 헤나드도 툴륜도 우리를 감당해야 할 거다. 학회에 참가한 마법사라면 꼭 참석해야 하는 혁신, 창조, 재탄생의 발표 중 혁신을 발표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름 참 구리다. 누가 마법사 아니랄까 봐. 평소라면 필참이라고 옐츠란이 왈왈대도 몸만 쏙 빠져나갔을 텐데 이번엔 미리 준비를 끝마치고 옐츠란의 침대에 앉아있었다.

"기분이 안 좋아."

나는 옐츠란처럼 모든 게 불만인 어조로 중얼거렸다. 옐츠란은 손목의 단추를 채우다 말고 나를 쳐다봤다.

"가기 싫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라면 별로 좋은 핑계는 아닌걸. 넌 항상 기분이 안 좋잖아."

나는 끈을 제대로 묶지 않아 달랑거리는 가죽신을 앞으로 차서 멀리 던져버렸다.

"그게 아니라 기분이 정말 안 좋다고."

옐츠란은 한숨을 내쉬면서 내 신발을 주워왔다. 그리고 내 발 치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서툰 솜씨로 신발을 신기려고 애썼다.

"기분 나쁜 꿈을 꿨어."

내가 발을 이리저리 꺾어대는 탓에 고전하던 옐츠란은 픽 하고 웃더니 물었다.

"무슨 내용이었는데?"

"그게..."

나는 갑자기 변한 기온 탓에 까슬하게 올라온 입술을 혀로 꾹꾹 누르며 꿈 내용을 떠올려보려고 애썼다. 안개 속에서 헤매는 듯하다. 어렴풋한 윤곽만 떠올랐다.

"옛날 일인데..."

나는 거기까지 말하고 빗자루 두 개를 겨우 떠올려냈다. 뭐야? 빗자루?

"개꿈이야."

싱겁게 말이 끝나자 옐츠란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러면 마음에 담아둘 필요도 없겠네. 너무 신경 쓰지 마. 원래 성장기에는 불안한 꿈도 꾸고 하니까.”

성장기. 그토록 옐츠란의 입에서 나오는 게 어색하고 나와 먼 단어가 없다. 마탑에서만 내내 지내 걸음마도 겨우 뗀 옐츠란이 세상을 다 살아본 체하며 으스대는 게 우스워서 웃음을 꾹 참았다. 조금, 귀엽기도 했고. 이 얼굴이 뿌듯한 미소를 짓는 걸 본다면 누군들 그렇게 생각할 거다. 눈꼬리는 빼쭉 올라갔지만, 어딘가 불퉁한 소년 같은 귀여움이 있다. 나는 옐츠란과 다시 '물어와' 놀이를 하려다가 신발을 발목까지 끈을 꽁꽁 묶어주는 탓에 얌전히 발을 내렸다.

"나도 어릴 땐 자주 그랬거든. 주로 꿈에 헤나드가 나와서... 아, 헤나드."

옐츠란은 얼굴을 확 찌푸리며 짜증 난 어조로 중얼거렸다. 그놈한테 내가 부탁을 해야 한다니. 그러더니 황급히 덧붙였다.

"네가 책을 못 가져왔다고 탓하는 말은 아냐. 알지?"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나는 그렇게 대답하는 대신 입바람을 훅 불어 옐츠란의 머리를 흩트려놓았다. 옐츠란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했다. 강아지도 아니고 다 큰 남자가 왜 저러는 거야. 징그럽게. 하지만 생각과 다르게 참았던 웃음이 터졌다. 옐츠란의 눈매가 느슨해졌다.

"그래, 기분이 좋아져서 다행이네... 얼른 갔다 오자."

한순간의 변덕으로 옐츠란의 어깨를 발로 힘주어 밀었다. 예상치 못한 공격을 당한 옐츠란이 옆으로 픽 쓰러졌다. 나는 손가락질까지 해가며 그 꼴을 비웃었다. 옐츠란은 포기한 얼굴이었다. ‘즐거워졌다니 더 좋고...’ 그렇지만 별로 좋아하는 말투는 아니었다.

이미 가기로 마음먹었는데 옐츠란은 나를 어르고 달래야 데려갈 수 있다는 착각하나 보다. 하여간 눈치가 없으면 몸이 고생한다. 그웬이라면 이미 눈치채고 살랑살랑 웃고 있었을 거다. 갑자기 그 미소가 보고 싶어졌다. 지금쯤 뭐 하고 있으려나.

옐츠란은 으구구구 같은 앓는 소리를 내며 일어났다. 왜 그러냐 물었더니 잠깐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어젯밤에 운동을 좀 했어. 마나가 흩어질 수도 있다는 네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웃음을 참느라 입에 힘을 꾹 주고 말했다.

“그래, 열심히 해. 너도 빨리 커야지.”

가슴이. 나는 뒷말을 뚝 떼놓았다. 옐츠란은 의아한 눈빛이었지만 이제 내 말에 하나하나 토 달지 않을 정도로 버릇이 들었다. 역시 반복훈련이 제일이다.

발표는 생각보다 조촐하게 진행됐다. 학술회에 초청받은 마법사가 다 합쳐서 서른도 못 넘기는 인원이였기때문이다. 꽤 크게 지어진 원형 극장에 다닥다닥 당겨 앉은 마법사들은 빈 곳과 대비되어 볼품 없어 보였다. 우리가 들어오는 걸 본 몇몇이 화색을 띠며 자기 옆자리에 앉으라고 아우성이었다. 옐츠란은 죄다 모르는 사람인데 아는 척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중앙과 너무 멀지도, 누군가 친근하게 말 걸 정도로 너무 가깝지도 않은 적당한 자리에 앉았다.

옐츠란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중얼거렸다.

“항상 혼자 앉았으면서 하필 오늘 치유마법사랑 같이 앉아있네. 귀찮게.”

헤나드와 툴륜이 붙어 앉아있는 걸 보고 한 말이었다. 둘은 어색한 침묵의 순간 없이 대화를 나눌 만큼 친밀한 사이로 보였다. 주변이 시끄러워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다. 옐츠란은 귀찮다고 말했지만, 나한텐 잘된 일이었다. 하나를 잡으면 다른 하나가 따라온다니, 놓치고 싶지 않은 구성이지.

“발표 끝나고 나면 내가 툴륜을 맡을 테니까 네가 헤나드를 처리해.”

“처리라니, 어감이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약탈이라고 하자.”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 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발표를 맡은 마법사는 가엾게도 창백한 얼굴로 달달 떨고 있었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발표 내용을 적은 종이로 계속 땀을 닦아대서 이마에 ‘감사’ ‘여기서부터’ ‘합니다’ 같은 글자가 찍혀 땀과 함께 까맣게 흘러내렸다. 그가 입을 열었을 때 나는 염소와 목소리를 바꾸는 마법에 대해 발표하는 줄 알았다.

그는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로 시작하는 식상한 내용을 염소와 양, 가끔은 모기소리로 줄줄 읊어댔다. 뛰어난 청각을 가진 나는 불행히도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지? 라는 듯한 게슴츠레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에 집중하기 위해 주변은 부스럭 소리만 내도 눈총을 받을 만큼 조용해졌고 더욱 긴장한 발표자는 음 이탈까지 했다. 삶은 문어처럼 달아오른 얼굴은 곧 터질 것 같았다.

“이거 공간 낭비 아냐? 저 사람한테 여기가 너무 넓은데? 차라리 난로 가에서 진행하는 게 낫겠다. 담요를 하나만 주면 서로 조금이라도 더 덮으려고 바짝 붙어 앉을걸. 듣기 싫으면 한숨 잘 수도 있고.”

“너무 한걸.”

옐츠란은 그렇게 대답해놓고 웃음을 참는 얼굴로 발표자의 그림자를 가리켰다.

“저 사람 그림자 보여? 저기서 움트헷을 불러낼 거래. 꽤 크다는데.”

자세히 집중해서 보니 그것은 그림자치고 너무 짙어 까맣게 그을리거나 물감으로 덧칠해놓은 것처럼 이질적이었다. 자연스럽게 움트헷이 사는 그림자 숲의 그림자가 떠올랐다. 까만 종이를 오려 붙여놓은 것처럼 선명한 그림자들. 그림자 숲 가까이 사는 사람은 절대 아무 그림자나 함부로 밟지 않았다. 움트헷이 그림자 사이를 옮겨 다니기 때문에 혹여 움트헷의 집을 밟게 되면 공격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발표자의 그림자는 선명하진 않았지만 무언가 튀어나올 것 같은 꺼림칙한 느낌이 드는 게 그림자 숲의 그림자와 비슷했다.

“움트헷을 진짜 불러내면 혁신이라고 할 만하네.”

"그렇지?"

별다를 것 없이 시시한 인사말이 끝나갈 때쯤 발표자의 목소리도 커졌다. 떠들다 보니 긴장이 풀리는 듯했다. 그는 그림자 숲에서 벗어나지 않는 움트헷을 자기 그림자에 담아 수족처럼 부릴 방법을 찾아냈다고 말했다. 이미 발표 내용을 알고 모였음에도 제 각자 그 활용도에 대해 떠들어대며 아는 척하기 바빠서 주변이 술렁거렸다.

"모르는 분이 계실 거로 생각하지 않지만,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움트헷에 대한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움트헷은 기원에 대해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만, 이지 있는 존재가 극복한 두려움이 세상의 틈으로 흘러 들어가 마나와 결합하여 생명을 얻었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이론에 대한 증거로 가장 쉽게 내세우는 것은 움트헷의 외형입니다. 붉게 빛나는 눈, 바람이 나무에 스치는 소리 같은 숨소리, 늑대나 까마귀와 비슷한 울음소리, 비정상적으로 긴 팔다리 등 전부 모습은 다르지만, 인간이 두려워하는 요소를 조합한 생김새입니다. 움트헷은 생김새와 달리 성격이 매우 온순하고 평화롭습니다."

발표자는 거기까지 말하고 예고 없이 움트헷을 소환했다. 움트헷이 소환되는 장면은 역겨웠다. 시체를 삼킨 구더기가 다시 시체를 토해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의미 없는 살점 조각이 모여 아름드리나무만 한 흑표범처럼 생긴 움트헷을 만들어냈다. 목덜미를 단번에 뚫을 것 같은 엄니와 바깥으로 드러난 어깨뼈가 인상적이었다. 뚝뚝 떨어지는 녹빛 침은 산이 섞였는지 떨어지는 자리를 녹였고 주변을 살피는 눈동자는 가로로 동공이 긴 염소의 눈이었다. 가까이 앉아있던 마법사들이 갑자기 나타난 움트헷을 보고 비명을 질러댔다. 발표자는 웃음을 참는 듯 입꼬리에 힘을 주고 말했다.

"먼저 공격받기 전까진 말입니다. 움트헷은 공격을 받은 즉시 흉포해져 강한 공격성을 띱니다."

저건 분명히 미리 준비해온 거다. 이상한 놈. 하긴, 정상인이라면 움트헷을 연구하지도 않았을 거다. 본능적으로 움트헷에게 거부감을 느끼니까 말이다. 놈은 움트헷이 애완동물인 것처럼 앉아, 일어나 따위의 명령을 내리며 성취를 뽐냈다. 심지어 움트헷의 이름을 샤샤로 붙였다. 역시 세상은 넓고 이해 못 할 마법사는 많다. 저놈이 갑자기 훼까닥 돌아 '샤샤, 다 죽여!' 해도 놀랍지 않을 거다.

그리고 눈 깜짝할 새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실제로 샤샤 다 죽이라고 외친 건 아니지만, 징그러울지언정 얌전했던 샤샤가 갑자기 이를 드러내더니 앞자리에 앉은 마법사 하나의 머리를 물어 뜯어버렸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비명은 뒤늦게 터져나 왔다. 샤샤가 씹고 뱉은 머리가 곤죽이 되어 굴러갔고 엄니에 가슴을 꿰뚫린 몸은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다. 앞에 앉은 마법사들은 정신없이 뒤로 물러나며 방어막을 쳤다. 우왕좌왕하던 와중에 두 번째 희생자가 나왔다. 샤샤가 휘두른 앞발에 얻어맞아 멀리 날아가더니 척추가 꺾여 죽었다. 난장판 사이에 발표자가 필사적인 얼굴로 "샤샤, 앉아! 샤샤, 앉아!"라고 외쳐댔다. 그런다고 앉겠냐? 어이가 없네. 옐츠란도 당황해서 "뭐야?" 하고 일어나더니 계속 앉아있는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여상스레 대꾸했다.

"통제를 잃었나 본데."

"뭘 그러고 앉아있어? 위험하잖아!"

안 위험하니까 이러고 있지. 옐츠란은 내 실력에 대해 대충 짐작하고 있을 텐데도 추운 날 꼼꼼하게 옷깃을 여며주는 것처럼 제 손으로 내게 방어막을 둘러주었다.

샤샤는 방어막을 치고 날아오른 마법사 하나를 잡아 장난감처럼 입에 물고 거칠게 고개를 흔들었다. 급조한 얄팍한 방어막이 깨지며 마법사는 샤샤의 이빨에 꿰뚫렸다. 침에 녹은 살점이 샤샤의 턱 아래로 줄줄 흘러내렸다. 공기를 가르는 소리와 함께 어느 마법사가 날린 얼음 화살이 샤샤를 공격했다. 샤샤는 목을 180도로 돌려 공격의 근원지를 찾았다. 괴이한 광경이었다. 아무리 학회에 초대받을 만큼 실력 있는 마법사들이어도 주문을 외울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황에선 속수무책이었다. 마나의 언어를 익힐 만큼 성취를 이룬 자는 극소수였기 때문이다. 긴 주문을 외워 공격하는 대신 마법사들은 방어막을 치고 도망치는 길을 택했다. 옐츠란은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움트헷을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해. 학생들 쪽으로 가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거야."

말이 끝남과 동시에 수십 개가 되는 빛으로 된 화살이 허공에 만들어졌다. 마법사들이 왜 옐츠란을 천재라며 떠받드는지 알 수 있는 깔끔한 솜씨의 고대 마법이었다. 화살은 제각기 명사수가 쏘는 것처럼 급소를 향해 날아갔다. 순식간에 여기저기가 꿰뚫린 샤샤가 몸을 비틀며 고통의 울음소리를 냈다. 뚫린 구멍 사이로 반대편이 보일 정도의 공격이었지만 그것만으로 쓰러트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죽음을 체감한 샤샤가 마지막 발악처럼 맹렬한 속도로 이쪽을 향해 달려왔다. 옐츠란은 피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옐츠란은 나를 지키듯 앞에 서서 허공에 술식을 그려 마법진 몇 개를 띄웠다. 마력을 먹은 마법진이 웅웅댔다. 이제 남은 건 확실한 때를 기다리는 것뿐이다. 샤샤가 코앞에서 옐츠란의 상체를 한 번에 집어삼킬 만큼 커다란 입을 벌렸을 때 옐츠란은 아래에서 위로 손을 그었다. 그 손길에 따라 바닥에서 날카로운 뿔처럼 생긴 돌이 튀어나왔다. 샤샤는 꼬치처럼 턱 아래에서 머리까지 꿰뚫렸다. 거대한 몸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는 내며 쓰러지고 파란 피가 돌을 타고 흘렀다. 한번 늘어진 몸은 더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살짝 고개를 빼서 보니 정말 아슬아슬한 거리였다. 샤샤가 입을 벌렸을 때 그 숨결에 머리카락이 날릴 정도였으니 조금만 늦었다면 옐츠란은 그대로 샤샤의 입속으로 들어갔을 거다. 물론 방어막이 있지만, 방어막째로 삼켜버리면 뱃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다. 평소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의외지만, 옐츠란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움트헷을 혼자 처리해버렸다.

"능숙해 보이네."

"마탑에서 가끔 마수가 탈출하는 일이 생기거든. 구역을 폐쇄하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 바쁘길래 거의 내가 처리했어."

참 부지런하네. 나라면 싫어하는 사람을 거기다가 집어넣었을 거 같은데. 옐츠란이 샤샤를 죽여 문제를 해결했지만, 환호성이나 박수는 나오지 않았다. 죽은 마법사가 너무 많아서일 거다. 도망쳐서 돌아오지 않는 마법사도 많고. 바로 옆에 서 있었으면서 샤샤에게 공격당하지 않은 발표자가 피 웅덩이 속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었다. 마나가 튀거나 꼬이는 건 보지 못했는데 고분고분하던 샤샤가 왜 갑자기 흉포하게 변한 걸까? 다시 생각해보니 단순하게 통제를 잃었다기엔 석연찮은 구석이 있었다. 나는 시선을 옮기다가 헤나드와 툴륜을 발견했다. 그 둘도 우리처럼 도망가지 않았다. 툴륜이 입을 가리고 있던 손을 내렸다. 슬쩍 미소가 보였다가 사라진 것 같았다. 미소? 의아해진 찰나 툴륜이 심각한 상처를 입은 마법사에게 다가가 치료마법을 행했다. 미소는 아니겠지. 사실 툴륜의 표정은 알아보기 어려워서 그게 웃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다. 사람이 죽어 나자빠지는데 웃고 있던 놈이 구태여 치료하러 돌아다니지도 않을 테고.

다친 사람들 치료하고, 시체는 지인이 수습하며 대충 상황이 정리되는 것 같았는데, 발표자가 거의 뒤로 넘어갈 듯 헛숨을 들이켰다.

"빨리... 빨리 대공연장으로! 대공연장에 다른 움트헷을 묶어 두었습니다! 출입이 통제되어있지만, 혹시 외부 자극으로 바깥으로 탈출한다면..."

그는 옐츠란이 구원의 손길이라도 되는 것처럼 쳐다보았다. 더불어 옆에 서 있던 나도 시선을 받게 되었다.

나와 그나마 쓸만한 옐츠란, 그리고 형편없는 떨거지들은 뤼네 아비에에서 최선인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아주 세련되고 날렵하게, 두 발로 뛰는 방식 말이다. 뤼네 아비에에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마법이나 비행마법을 막는 마법진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격렬하게 뛰어본 지 오래된 마탑의 마법사들은 이미 녹아내린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뒤처졌다. 실전을 뛰는 전투 마법사 몇과 헛구역질을 하면서도 달리는 움트헷의 주인 펄만, 헤나드와 툴륜만이 우리 뒤를 겨우 쫓아왔을 뿐이다. 옐츠란은 아침 운동에 투자한 노력의 빛을 보는지 내 시야 가장자리에 잡힐 만큼 속도를 맞췄다.

나야 말할 필요도 없이 활강하는 듯 빠르면서 우아한 발놀림이다. 예술적인 날갯짓이란 내 달리기 솜씨를 보고 말하는 거다.

대공연장의 그림자에 묶어둔 움트헷은 한 마리뿐이었지만 굳이 따로 둔 이유가 있었다. 루루는, 그러니까 대공연장에 있는 움트헷은 너무 컸다. 펄만이 작은 탑만 한다고 묘사한 건 과장이 아니었다. 대공연장이 어딘지 몰랐지만, 삐죽 솟은 머리와 몸통을 이정표로 삼을 정도로 거대한... 아주 거대한 사마귀였다. 원형극장은 객석은 많아도 무대로 쓰이는 공간은 넓지 않았으니 거기서 루루를 꺼냈다면 전부 깔리고 말았을 거다.

어디를 쳐다보는지 도통 모르겠는 눈이 내 몸보다 컸다. 사각사각 거슬리는 소리를 내는 집게 입과 몇 번 휘두르면 작은 언덕은 벌거숭이로 만들만한 낫과 같은 앞발. 차라리 샤샤가 이름과 훨씬 어울린다. 저딴 게 왜 루루야?

못 보고 지나칠 수 없는 크기였기에 대공연장 근처는 아비규환이었다. 모두 도망치는 와중에 반대로 거슬러 가는 기분이 새로웠다.

움트헷이 더듬이를 움직이거나 연두색의 통통한 배를 꿀렁일 때마다 사방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나마 다행인 건 끔찍한 외형 덕분에 여태껏 아무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거다. 움트헷은 공격당하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는다. 샤샤만 이상했던 거다.

별일 없이 이대로 잘 달래서 다시 그림자 안으로 집어넣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

펄만이 무릎을 짚고 쓰러질 것 같이 헐떡이면서 말했다.

"다시..통제권을...헉...가져...허억,..헉..오는...허억...동안... 공격하지 말라고..허억..."

놈은 더는 말하기가 힘든지 내 마음 알죠? 같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저었다. 그 말을 알아들은 마법사 하나가 '대공연장에 나타난 거대한 사마귀, 움트헷을 공격하지 마십시오.'라고 확성 마법으로 외쳤다.

안타까운 점은 그 마법사마저 헐떡이고 있어 공지가 꽤 외설적으로 들렸다는 거다. 이것들끼리는 같이 신음 같은 숨소리를 내는 중이라 모르는 것 같지만 나는 무척 신경 쓰인다.

마법사의 외침은 '대공연장에... 허억...나타난...사마귀,...후으... 움트헷을...공..격 하지...마하...아.. 십시오...읏...' 에 가까웠다. 마치 움트헷에게 다른 의미로 공격당하는 것 같지 않은가? 부적절하군.

창백한 안색으로 아예 바닥에 드러누운 펄만은 침을 줄줄 흘려대며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하려고 애썼다. 나는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다. 차라리 루루를 보자.

"루루를... 절대 공격하면... 허억... 안 됩니다. 루루는...마법을 무효화 시키는...능력이 있어요. 물리...저헉...인 공격만 통하니 루루를 죽이기 전까지 큰 인명 피해가 날 겁...니다. 제가...휴우... 집중하는 동안 아무도 루루를 공격 못하게 부탁드립니다..."

마법 방어력까지 갖췄다고? 아주 가지가지 하는군. 나는 나뭇잎과 닮은 날개가 파스슥 하늘이 찢어지는 것 같은 소리를 내며 서로 스치는 걸 바라봤다. 그 크기에도 불구하고 햇빛은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철사 같은 다리를 투과했고 앞다리는 여린 연두색으로 빛났다. 루루는 외형이 주는 선입견을 떼어놓고 생각하면 꽤 순진무구해 보였다. '저는 인간에게 관심 없어요. 작고 여린 수컷 사마귀란 말이에요.' 하는 듯한 눈동자.

생각해보면 움트헷은 잘살고 있던 고향에서 납치당해 끌려온 게 아닌가? 아무 죄도 없이 마법사의 욕심을 위해서. 어쩐지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더듬이가 슬퍼 보였다. 저쪽에 모여있던 학생 무리에서 "악! 징그러워! 큰 벌레! 진짜 징그러워!" 하는 외침이 들렸다.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 나뿐인가 보군.

어느 정도 숨을 가다듬은 마법사들이 모여 혹시 모를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 움트헷 반경으로 방어막을 쌓아 올렸다.

나는 문득 든 생각에 펄만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입가에 흐른 침을 닦으며 몸을 일으키는 중이었다.

"너를 죽이면 움트헷은 그림자 숲으로 돌아가나?"

그게 이 모든 소동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같았다. 펄만은 내 표정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저었다. 두려워하는 눈빛이다. 내가 당장이라도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걸 안다는 듯이.

"아뇨…!,아뇨."

처음의 대답은 반사적인 대답이었고 뒤의 대답은 생각한 뒤 나온 진실이었다.

"돌아갈 그림자가 사라져 날뛰게 되겠죠."

그러면 별 의미가 없겠군. 나는 저 멀리 보이는 학생들을 바라봤다. 그들은 도망가다 말고 멈춰 서서 움트헷을 구경 중이었다. 교수들이 진땀을 빼며 학생들을 대피시키려고 노력했지만, 마법사의 호기심을 생명의 위협 정도로 누를 수 없었다. 움트헷이라는 단어를 내뱉는 입 모양이 보였다. 실제로 움트헷을 볼 일이 드물 테니 교내에 울려 퍼진 마법사의 신음을 들은 사람이라면 멀리 도망갔다가도 오히려 이쪽으로 달려올 거다.

마법사가 똑똑하다고? 천만에, 마법사는 불에 뛰어드는 부나방같이 제 명을 재촉하는 존재들이다.

나는 그 멍청이들 사이에서 안면을 튼 학생 몇을 발견했다. 아는 얼굴들은 사람이 모일수록 점차 늘었다. 생각보다 학생 흉내를 활발하게 내고 다녔나 보다. 저 어린 것들의 이름까지 언뜻 기억나는 거 보니.

펄만의 마력이 그물처럼 펼쳐져 움트헷을 향해 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에 따라 그림자도 주욱 늘어났다.

나는 꺼림칙한 기분을 느꼈다. 목에 무언가 걸린 듯 불편한 기분.

이번에도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다.

목숨을 끔찍이 아끼는 본능이 그것을 알려주었다.

"준비해."

"뭐를?"

"다시 싸워야 할 거야."

옐츠란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작은 돌 하나가 움트헷에게로 날아갔다. 내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였으니 돌보다는 돌멩이라고 해야 할 거다.

돌멩이는 완만한 포물선을 그리며 내로라하는 마법사들이 세운 방어막을 간단하게 통과해 움트헷을 쳤다. 톡 하는 소리도 안 날 정도로 미약하게 닿았지만, 외부의 자극에 예민한 움트헷이 공격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했다.

가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한다. 그렇게 똑똑하다는 마법사들은 공격마법에 대비해 이중 삼중으로 방어막을 쌓아 올리면서 아무도 비마법적 공격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

루루가 낫같은 앞발을 들어 올리고 날개를 펼쳤다. 눈알 같은 무늬가 그려진 날개가 징그럽게 반짝였다. 날갯짓 몇 번에 강한 바람이 불었고 거대한 송곳 같은 네 개의 다리가 제각기 움직이자 땅에 뾰족한 구멍이 뚫렸다. 사마귀의 표정은 알 수 없지만 빠각거리며 거세게 움직이는 턱을 보건대, 루루는 분노한듯했다.

"갑자기... 갑자기 왜 저러는 거지?"

누군가 던진 돌멩이를 보지 못한 펄만이 얼이 빠져 루루를 올려다보았다. 다른 마법사도 마찬가지였다.

공격하지 말라고 당부까지 했는데 굳이 돌멩이를 던지리라고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을 거다. 반항기의 학생을 상대해봤어야 알지.

움트헷이 팔을 한번 휘두르자 나무, 건물 할 것 없이 반경에 있던 모든 게 여린 민들레 홀씨처럼 우르르 무너졌다. 크기가 커진 것만으로 하찮던 벌레는 작은 재난이 되어 본격적으로 모든 걸 파괴했다. 방어막을 구축하느라 바로 아래에 서 있던 마법사가 루루의 다리 중 하나에 비참하게 꿰뚫렸다. 도망치지 못해 급하게 자신 앞에 방어막을 쳤지만 루루가 마법을 무효로 만든 탓이었다.

루루는 발에 사람을 꼬치처럼 꿴 채로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을 향했다. 교수와 학생들이 마법을 난사했지만,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다.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 얼굴이 사색이었다. 가장 자신 있는 능력이자 전부인 마법이 통하지 않으니 다들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얼뜨기들. 나는 혀를 찼다.

"물리적 공격은 통한다 했지..."

옐츠란이 마법 주문을 중얼거리자 건물 잔해들이 떠올랐다. 거대한 바위들은 루루가 알아채기 전에 그대로 루루 위로 떨어졌다. 루루는 갑자기 얹어진 무게에 비틀거리긴 했지만 금세 물방울을 털듯 돌덩이를 털어버렸다. 루루가 너무 거대한 탓에 단번에 깔아뭉개려면 탑 하나는 통째로 갖다 박아야 할 거다.

움트헷의 본성대로라면 더 강한 공격을 한 자를 표적으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루루는 학생을 죽이라는 명령을 들은 것처럼 이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림자 숲에서 멀어진 움트헷은 본성을 잊게 되나? 아무래도 이상하군.

옐츠란이 "빨리 이쪽으로 와라."라고 중얼거리며 다시 건물 잔해를 들어 올렸다. 하지만 움트헷은 똑같은 수법에 두 번 당할 정도로 멍청한 생물이 아니다. 루루는 허공에 뜬 바위를 발견하고는 앞다리를 휘둘러 잘게 부셔버렸다.

도망가는 학생 중 한 명이 하늘에서 떨어진 돌덩이에 머리를 부딪쳐 쓰러지는 게 보였다. 죽기에는 너무 어린 창백한 얼굴.

눈앞에 기억이 스쳤다. 비쩍 마른 땅. 산처럼 쌓인 시체.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죽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그러니까 그게 언제였더라?

나는 검을 뽑았다.

샤샤에게 마법사 몇이 죽어도 그게 그놈 명이려니 했지만, 제대로 삶을 살아보지 못한 어린 학생들이 죽는 것마저 지켜볼 정도로 감정이 결핍된 사람은 아니다. 땅을 박차고 내달리며 시야를 확보했다. 어디를 밟고 올라가야 하는지 어디를 노려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였다. 내가 지나칠 때마다 모두 놀란 표정이다. 누군가 소리쳤다. 위험해! 돌아와! 저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비죽이 올라온 채로 무너진 돌기둥을 박차고 나뭇가지를 딛고 계속 위로 올라갔다. 가볍게 허공으로 떠오르는 몸과 달리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다.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사실 확신할 수 없다.

내 배를 채우기 위해 남의 입에 든 것마저 빼앗을 만큼 추악했던 시절과 돌처럼 심장이 차가웠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와 지금의 나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만약 움트헷을 죽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면, 나 자신을 더 숨겨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 외에도 쓸데없는 이유가 붙었다면, 걸음마를 떼지 못한 아기가 죽는다 해도 내버려 뒀을 거다. 이들을 도와주는 건 아주 얄팍한 변덕이었다.

내가 손해 보지 않는 한에서 부리는 위선.

뭐, 하지만 수십의 목숨을 구한다면 위선도 선이다. 기력을 잃은 벌에게 꿀물을 먹여 살리는 것처럼, 강자의 은혜를 베푸는 거다.

나는 자꾸 진득해져 가는 생각을 떨쳐냈다. 지금은 본질에 대한 탐구보다 움트헷을 해체하는 데에 집중할 시간이었다. 나는 뛰어올라 루루의 다리 하나를 베어냈다. 내 아름다운 검으로 베어내는데도 저항이 거셌다. 게 껍데기를 박살 내는 소리가 들리고 단면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체액이 쏟아져 나왔다. 나는 그걸 피하고자 루루의 옆구리를 딛고 허공에서 한 바퀴 돌아 착지했다. 체액을 뒤집어쓰지 않은 건 좋은 선택이었다. 고기 기름과 노란 위액을 섞은 것으로 보이는 그것은 닿은 자리에 불꽃을 피워 올렸다.

와,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 이런 걸 두렵다고 상상하는 거야? 상상력도 좋네.

네 개의 다리로 서 있던 루루는 다리 하나를 잃고 고통에 버둥거리며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했다. 나는 눈먼 작두처럼 무자비한 공격을 여유롭게 피했다. 내가 피할 때마다 실패할 거라 예상한 놈들이 있는지 자꾸 어디선가 비명을 질러댔다. 이딴 걸로 누가 죽는단 말이야? 내 머리보다 큰 돌 조각이 날아다니고 흙먼지가 피어오르고 불똥도 튀지만, 나한텐 별 위협도 되지 않는 것들이다.

나는 무너지는 나무를 피해 훌쩍 뛰어올라 뒤로 물러서다가 격전지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오들오들 떨고 있는 학생 셋을 발견했다.

죽음에 대한 공포로 얼룩진 얼굴이 그 와중에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본다. 너희가 이해할 것이 뭐 있겠어?

나는 애들이 눈치채지도 못할 순식간에 마력으로 한데 묶어 옐츠란 쪽으로 던져버렸다.

알아서 잘 받으리라 믿는다. 못 받으면... 살인자는 옐츠란이다.

허공에 살아있는 미끼가 날아가자 움트헷이 잠깐 정신이 팔려 공격을 멈췄다.

그사이에 멀쩡한 다리 하나를 외줄처럼 딛고 내달렸다. 철갑옷처럼 딱딱한 껍질을 지닌 루루는 내가 자기 다리를 타고 올라가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몸이 점점 뒤로 젖혀져 도저히 밟고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가팔라졌을 때 나는 마법을 이용해 루루의 등에 올라섰다. 자신을 스스로 움트헷의 등에 떨어트렸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거다.

나는 안정적인 착지 후에 머리를 향해 달렸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머리를 자르는 게 낫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루루는 내가 자신의 등 위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고 거세게 날갯짓하며 몸을 흔들었다.

아무리 나라고 해도 발밑의 모든 것이 흔들리는 와중에 균형을 잡을 순 없다. 마법을 써봤지만 헛수고였다. 루루와 너무 가까워 마력이 저절로 흩어졌다.

어쩔 수 없군.

나는 검을 힘껏 박아넣었다.

루루가 절대 사마귀의 울음소리로 들리지 않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떨었다. 그것을 무시하고 검을 박아넣은 채로 계속해서 달렸다. 내가 지나간 자리에서 체액이 쏟아져나오며 불길이 치솟았다. 나는 흘긋 아래를 봤다. 온통 불바다가 됐잖아? 하지만 마계의 업화는 아니니까 마법으로 끌 수 있을 거다.

스스로 등을 긁을 수 없는 사마귀의 구조 덕에 루루의 목을 베어내는 일은 수월했다.

어마어마하게 징그럽고 큰 눈이 달린 머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윽, 눈알이 터진 소리가 났어. 나는 점점 허물어져 가는 몸을 딛고 뛰어올라 사뿐히 바닥에 내려섰다. 눈알 터진 자리를 피하려다 보니 공교롭게도 학생들이 모여있는 자리였다. 내가 움트헷을 때려잡는 동안 멀리 도망갔어야지 다들 얼빠진 표정으로 뭐 하는 거야? 몇 번 오가다 안면을 튼 학생 학생 하나가 깜짝 놀라 어? 어! 하고 소리 질렀다.

하여간 요즘 애들은 목숨 귀한 줄 모른다니까. 연장자답게 한 소리를 해주려는 찰나 부욱 하고 뭔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닌데? 내가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겼다는 걸 예감했기에 일부러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미루고 싶었기 때문이다. 착한 일 하기가 이렇게 힘드네.

아이들의 얼굴이 제각기 새파랗고 새하얗고 새빨갛게 변하더니 비명을 내지르며 손가락질했다.

“으아악! 저기! 저기!”

그러더니 거대한 사마귀가 나타났을 때도 슬금슬금 다가오던 것들이 도망치기 시작했다.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호들갑이야? 뒤를 돌아본 순간 나는 한숨을 내쉬며 머리카락을 쓸어올렸다.

쓰러진 움트헷의 배를 가르고 알 무더기가 쏟아져나오고 있었다. 약간 투명한 노랗고 길쭉한 알들은 배에서 나오기가 무섭게 거품에 휩싸였고 그 거품 사이에서 꿈틀대며 나온 것은 개구리가 되다 만 올챙이처럼 생긴 생명체였다. 까맣고 미끈하고 터질 듯 부풀어 오른 몸체에 바둥거리는 두 다리. 얼굴은 푹 불린 단팥처럼 울퉁불퉁하고 눈은 폭파인 단춧구멍 같았다. 가장 이상하게 생긴 건 입이었다. 도저히 어떻게 생긴 것인지 설명할 수도 없게 이상했다. 어떤 건 이상하게 오그라든 앞다리까지 달렸고 어떤 건 다리 하나가 작아 절뚝이며 걸었고 어떤 건 꼬리가 짧아져 제법 팔딱대며 튀어 올랐다. 저것도 모두 움트헷이겠지?

위협적인 속도는 아니지만 움트헷들은 착실하고 징그럽게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시험 삼아 가까운 움트헷 한 마리에게 전격 마법을 던져보았다. 미끈한 몸체를 보아하니 아주 잘 구워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루루와 다르게 내 마법은 원하는 곳에 정확히 꽂혔다. 전격을 느낀 움트헷이 튀어 오르더니 펄떡대다가 새까맣게 타서 떨어졌다. 공교롭게도 제법 군침 도는 냄새가 났다. 역하지 않아서 다행이군.

나는 하늘로 날아올랐다.

물을 내리고 불을 피우고 전류를 흘리는 등의 자연계 마법은 창조마법처럼 없는 걸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 자연에 분포한 인자를 잘 달래 자연 현상을 일어나게 하는 마법이다. 고로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당연히 번개를 만들어 내야지.

내 입으로 말하기에는 좀 뻔한 이야기지만, 나는 날씨를 조종하는 마법을 기가 막히게 한다. 사실 무슨 마법인들 못하겠냐마는 날씨 마법은 특히나 마법사, 비 마법사 할 것 없이 깜짝 놀랄 만큼 극적인 효과가 있기에 갈고 닦기까지 했다. 다들 어릴 때 신 노릇 하면서 마음에 안 들면 번개로 후려치는 추억쯤은 있지 않은가? 위대한 존재라면 말이다.

몸에 익은 대로 구름을 불러왔다. 삽시간에 맑던 하늘이 어두워지며 검은 구름이 들어차고 온 사방이 캄캄해졌다. 나는 꾸역꾸역 쏟아져나오는 움트헷을 발아래에 두고 내려다보면서 손을 들어 올렸다. 번쩍. 눈이 멀 듯한 섬광과 함께 내 손에 제멋대로 날뛰는 번개가 맺혔다. 번개에서 새어 나오는 빛에 아래가 환하다.

밤바다처럼 출렁이는 움트헷들과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한 마법사들의 얼굴. 그 사이에서 옐츠란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인다. 다른 자들이 두 눈을 가리거나 고개를 돌린 반면에 옐츠란은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홀린 듯이. 하얗게 빛나는 얼굴에서 강한 힘에 대한 갈망과 환희가 느껴졌다.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천둥소리가 울리고 나는 그 소리가 신호라도 되는 듯 번개를 아래로 내리꽂았다. 한 줄기로 뻗어져 나간 번개는 몸을 뒤틀며 잔가지가 많은 나무처럼 여러 갈래로 꽂혔다. 엄청난 빛과 함께 불똥이 튀었다. 번개를 직격으로 맞은 움트헷들들은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터지거나 까맣게 숯 더미가 됐다. 팝콘 튀기는 걸 실패한 거 같다. 못 먹는 건 똑같네.

모든 것이 끝나자 다시 하늘은 찌푸린 적 없는 것처럼 맑아졌다. 나는 깨끗한 땅 위에 내려섰다. 사방이 매캐한 연기로 가득했다. 연기를 멀리 날려 보내며 너무 과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축축하고 꿈틀대는 움트헷을 최대한 빨리 치워버려야 할 것 같았다. 곧 점심때거든.

연기가 다 걷히고 옐츠란에게 걸어가는데 사방에서 시선이 꽂혔다. 다들 얼빠진 채 입을 헤 벌리고 무의식적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이 얼굴들이 어떻게 변할지 안다. 한 두 번 겪어본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의 이용가치를 따져 시험하거나 옆에 덥석 붙어서 자기 욕구를 채우거나 나를 두려워하며 죽이려 들겠지. 지겨운 답습이다.

이성이 돌아오고 싸늘한 기운이 머릿속에 한바탕 몰아치자 괜히 나섰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필이면 집요한 마법사들 앞에서.

나는 옐츠란의 손목을 잡아챘다. 당장 쏟아지는 관심을 피하려면 이들이 정신을 차리기 전에 빠져나가야 했다. 그대로 뛰어가려는데 옐츠란 옆에 눈물범벅으로 앉아 있는 학생 셋이 보였다.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나는 손을 뻗어 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브리기테와 브린 또래쯤 되어 보이는 동그래한 얼굴에 두려움이 걷히고 안도가 들어차고 있다. 나를 올려다보는 눈동자에 푸릇한 생명력이 보인다. 아이는 내게 고맙다는 듯 어색하게 웃는다.

저 얼굴을 보고 싶었던 적이 있었는데.

구원자가 되어 알량한 우월감을 얻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살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는 옐츠란을 거의 질질 끌다시피 뛰었다. 마음먹고 뛰는 내 속도를 감당하지 못해 놈이 어디 얻어맞는 거 마냥 윽,욱. 하는 소리를 내서 어깨에 들쳐메고 뛰었다. 여전히 윽,욱,악. 하는 소리가 났다. 내가 발을 타악,탁 세게 굴렀기 때문이다.

나는 내 생각에 빠져 신경 써줄 여력이 없다.

나는 누구를 구하고 싶었던 걸까?

너무 많이 써 내려간 기억은 가끔 절뚝이며 멍처럼 예상치 못한 곳에 떠올랐다.

잊고 사는 과거가 너무 많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은 팽창하는 우주에 떠 있는 행성처럼 서로 너무 멀어진다. 하나의 별에서 또 다른 별로 가려면 몇 광년의 노력이 필요하다.

나는 굳이 힘들이지 않고 쉽게 떠올리기를 포기해버렸다. 이미 지난 일이다. 다시 묻어두자.

나를 쳐다보던 학생들의 얼굴을 다시 떠올려보았다. 살 수 있음을 기뻐하는 얼굴. 나한테 무가치한 시간이 그들에게 가서 보석처럼 빛나던 순간.

그래, 그걸로 되었다.

25명.

반나절 만에 벌써 25명째다. 설치해둔 마법도 눈치 못 채고 문을 두드리다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는 마법사가. 게 중에 나를 보러 온 학생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다. 그러게 글을 잘 읽어봐야지. ‘문을 두드리지 마시오.’라고 써 붙여둔 쪽지는 장식용이 아니다.

모든 방문을 거부하고 안에 틀어박히자 내 몫까지 시달린 옐츠란은 하루 만에 몇 년이나 늙은 얼굴이었다. 심지어 내 집 앞 숲에서 구를 때보다 수척해 보였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런지 주방에서 올라오는 옐츠란의 식사는 점점 양이 늘어갔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많이 먹고 쑥쑥 크라고 놀려도 옐츠란은 입맛이 없다는 둥 나약한 소리를 하며 내게 음식을 양보했다. 나는 옐츠란의 권유도, 주방 일꾼들의 성의도 무시할 수 없었기에 고기만 빼먹고 나머지를 돌려주었다. 맛있는 채소를 양보하다니 이 얼마나 자비로운 처사인가, 잘 구운 아스파라거스와 깨물면 즙이 터져 나오는 구운 버섯, 앙증맞은 방울양배추, 겉을 살짝 그을린 토마토... 나는 옐츠란의 접시를 다시 뺏어왔다. 황당한 눈빛으로 나를 보았지만 뭐? 어쩌라고?

어쨌거나 옐츠란은 묘지기 엘리랑 친하게 지내는 거다. 그러니까 제 무덤 제가 파는 꼴이란 말이다.

피곤해서 죽을상을 하는 게 한심했다. 그렇게 시달릴 필요 없이 책만 찾아오면 이곳을 뜰 수 있는데 그 간단한 걸 못한다. 빨리 해결하라고 닦달해도 옐츠란은 난처한 얼굴로 말했다.

“헤나드가 꼭 너를 만나야겠대. 책은 직접 만나서 전해준다고 하더라.”

왕가의 부탁이고 나발이고 나는 헤나드에게 신경 쓰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책이 아니라 메빌 실리어를 전해준다 해도 놈을 만날 일이 없을 거다. 놈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면 더더욱. 옐츠란만큼 나도 페이퍼트성으로 돌아가고 싶고 내가 헤나드를 만나면 모든 일이 쉽게 해결될 것을 알지만 싫은 건 싫은 거다.

“책을 약탈하겠다던 사람은 어디 갔어? 그냥 유리창을 깨부수고 들어가. 뭘 해도 어차피 이미 유명인사니까.”

“그것 때문이 아니야. 게다가 학회 기간에 다른 마법사의 방에 강제로 침입하는 건 재판감이야. 책을 계속 품에 넣어 다니는 것 같으니 굳이 들어갈 이유도 없고.”

“그럼 더 쉽네. 쥐어패서 뺏어와.”

옐츠란은 코끝을 문지르면서 먼 곳을 바라봤다. 눈동자가 밝아오는 새벽하늘처럼 예쁘다.

“그게... 일단 그놈은 오래 살았잖아? 나보다 마법을 훨씬 오래 공부했어. 게다가 요즘은 치유 마법사들과 계속 같이 다니고...”

“그래서?”

“...헤나드랑 싸우면 내가 져.”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옐츠란에 대한 평가를 다시 수정해야겠다. 그나마 쓸만한 놈에서 예쁜 쓰레기로.

옐츠란은 남이 먹는 걸 구경하는 괴악한 취미가 있는 사람처럼 나를 한참 노려보더니 말했다.

"네가 힘을 숨기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 번개를 불러낼 정도로 강할 줄은 몰랐지만, 적어도 전에 보여줬던 마력구보다 더 큰 힘을 가졌다는 걸 우리 모두 알아. 그것 외에 말하지 않은 게 많다는 것도. 네가 일부러 숨긴 비밀까지 굳이 캐내려고 물어볼 생각 없어. 뭐, 그웬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는 우리를 믿지 못하잖아. 그래서 모든 걸 말하지 않는 거잖아?"

나는 옐츠란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고 웃었다.

"나는 원래 나만 믿어."

채소를 뒤적거리다가 포크를 내려놓았다. 갑자기 입맛이 뚝 떨어졌다.

"게다가 너희한테 전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말할 거라 예상했어. 우리가 페르디낭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이 네게는 관계없는 일이잖아. 네 나라도, 네가 살던 세상도 아니니까. 잘못되면 그냥 발 빼서 도망가버리면 되고.“

옐츠란은 답지 않게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놈은 의외의 부분에서 가끔 예리한 추측을 꺼낸다. 전부 맞는 말이라서 나는 웃음을 지우지 않고 어깨를 으쓱했다. 그래도 너희는 내가 필요하잖아? 옐츠란은 내 표정을 알아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우리는 네가 필요해. 마법사 한 명 한 명이 아주 절실해. 네가 무슨 비밀을 숨기고 있건, 모든 걸 성의 없는 태도로 임하건 우리에게 힘이 되어줘서 고마워. 하지만..."

옐츠란은 다 먹은 접시를 한곳에 모으며 망설였다. 방울토마토 하나가 접시를 벗어나 통통통 튀다가 떼구르르 멀리 굴러갔다.

"우리는 네 존재를 유물을 찾기 전까지 숨겼어야 했어. 나는 내전 직전까지 마탑 소속으로 남아있는 게 여러 방면에 이득이었고, 레티시아. 이제는 모두가 너에 관해 물어봐.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초월자인지 심지어 드래곤인지, 페이퍼트에 오가는 손님이 많아진 걸 아는 마법사들은 내게 정치를 할 생각이냐고 물어. 페르디낭이 신전과 힘겨루기를 하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니까 갑자기 나타난 강한 마법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측해서 캐묻지. 마법사들은 영민하고 정치적이야. 마탑의 마법사는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 쳐도 워낙에 떠드는 걸 좋아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페르디낭의 수도까지 소문이 돌 거야."

나는 속이 뜨끔 찔렸다. 사실 번개를 불러오며 예상했던 일이었다. 예상했지만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거고. 제가 얻을 이득에 대해 마법사만큼 집요한 족속은 없을 거다.

옐츠란의 말대로 페르디낭의 내전이니 재건이니 하는 것은 나한테 어린애 칼 장난이었다. 어설프기 짝이 없는 계약 조건처럼 어설픈 마음가짐.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고 미안하지도, 제대로 임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옐츠란이 눈치챌 정도라면 전부 다 알고도 내게 손을 내민 거겠지. 내가 구태여 이것들 눈치를 보며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릴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미리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움트헷을 거하게 처리할 건데 괜찮지?' 하고 형식적으로 물어라도 볼 수 있었잖아."

나는 팔짱을 낀 채 등받이에 기대앉으며 옐츠란의 시선을 외면했다. 확연히 거절하는 태도에 침묵이 한차례 머물렀다가 다시 접시 부딪치는 소리가 들렸다. 빈말이라도 '그래, 내가 내킬 땐 그렇게 할게.' 하고 답할 수 있었지만 나는 그냥 입을 다무는 쪽을 택했다. 그나마 그게 진실이었으니까.

"이틀 내로 책을 어떻게든 가져올게. 페이퍼트로 돌아가자."

옐츠란은 접시를 챙겨 들고 방에서 나갔다. 나는 갑자기 답답한 마음이 들어 환기도 할 겸 바깥 풍경을 보려고 창문을 열었다. 아래에 서 있던 놈들이 나를 보고 손가락질하며 떠들어댔다. 나는 거센 바람을 일으켜 그놈들을 모조리 뒤로 넘어트리고 창문을 닫았다. 이틀이라고? 이틀이나 여기에 있어야 한다고?

26번째 마법사가 방문을 두드리다 비명을 질렀다. 문을 두드리면 가시가 튀어나와 손을 찌르도록 마법을 걸어놨기 때문이다. 그 정도는 견딜만한지 26번째 마법사는 바깥에서 목청 높여 마법사님! 마법사님! 하고 불러댔다. 아예 심장에 구멍을 뚫었어야 했는데. 겨우 건진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26번째 마법사는 째지는 목소리로 마법사님! 마법사님! 연신 불러댔다.

나는 견디다 못해 문을 벌컥 열고 문밖에 서 있는 놈에게 사과를 집어 던졌다. 머리에 부딪힌 사과가 파삭 부서지고 놈은 그대로 기절했다. 허약하고 창백한 놈. 나는 걸리적거리지 않게 놈을 발로 쭈욱 밀어 계단 밑으로 굴려버렸다. 유독 귀찮게 굴어 먼저 던져놓았던 15번째 마법사 위로 26번째가 포개졌다. 쟤는 왜 아직도 못 깼지? 나는 다른 놈도 마찬가지인가 싶어서 복도 쪽 창문을 내다보았다. 저녁에 와서 시끄럽게 굴길래 죄다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는데 그놈들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

모두가 나에 관해 물어본다고?

그래서 옐츠란이 한심하다는 거다. 물어볼 틈도 없이 전부 처리해버리면 되지 왜 그걸 하나하나 대답해주고 있냐, 뒷수습 따위 알게 뭔가. 나는 이제 힘을 쓰는 데에 거리낌 없었다.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으려고 허둥댈 바에야 그 위에서 물장구를 치는 게 훨씬 재밌다.

나는 창밖으로 훌쩍 뛰어내렸다. 내 발밑에 깔린 누군가가 욱하는 소리를 냈다. 나는 까맣게 덮인 하늘을 올려다 봤다. 숨을 내쉬자 뿌연 입김이 흩어진다.

이러다 27번째까지 나온다면, 그때도 지금처럼 평화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 내가 마음이 넓으니 이 정도까지 참았지 보통 인내심이라면 진작에 난리가 났을 거다.

나는 발밑에 마법사를 빨래처럼 자근자근 밟으며 스스로 물었다.

내가 5분 만에 처리 할 수 있는 일을 옐츠란에게 이틀 동안 맡겨야 할까? 아니지. 여기에 계속 있는 것과 책을 훔치는 것 어느 쪽이 더 귀찮지? 당연히 계속 들이닥치는 마법사들이 더 귀찮지. 그렇다면 아무리 헤나드가 꼴 보기 싫어도 책을 찾는 게 먼저 아닐까? 음...

결국, 나는 한밤중에 벽을 타게 됐다.

아무리 생각해도 옐츠란보다 내가 움직이는 게 빠르다. 하지만 여전히 헤나드는 꼴 보기 싫다. 그럼 어쩌겠어? 헤나드가 자는 사이에 훔쳐와야지.

황궁 수준의 보안마법을 해제하느라 창문에 붙어있으면 누군가 나를 발견하겠지만 내가 왜 도둑질을 하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를 거다. 알 수가 없지.

누가 ‘저건 페르디낭이 신성국에서 마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마도 시대의 유물 위치가 적힌 책을 도둑질하는 거야!’ 하겠어? 그냥 ‘저분이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구나!’ 하겠지.

내가 보기에 페르디낭인들은 너무 몸을 사려서 탈이다. 나의 빼어난 행동력을 반만 닮았다면 진작에 마법국가를 세우고 영토 전쟁까지 시작했을 거다.

나는 돌 틈 사이에 손을 박아 넣다가 멈칫했다.

아 맞다, 옐츠란이 미리 말이라도 하랬지? 나는 살짝 고개를 들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헤나드 방의 창문이다. 슥 옐츠란 품에 책을 찔러 넣어주며 갔다 왔다고 말하면 될 거 같았다. '헤나드를 거하게 처리했는데 괜찮지?' 약간 다르기만 할 뿐 비슷한 말이잖아. 어차피 그러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왜 내가 스스로 변명을 하고 있지? 이건 다 옐츠란이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그렇다.

나는 더러운 창문을 살짝 닦아내고 그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켜놓은 마법등 하나 없이 방은 어두컴컴했다. 자는 건가 싶어 침대를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이 늦은 밤에 어딜 돌아다니는 거지? 걱정되니까 돌연사라도 했으면 좋겠다.

나는 상체를 살짝 들어 창문에 걸린 보안마법을 확인했다. 밀봉이라도 하듯 아주 꼼꼼하게 마력으로 휘감은 창문 중 부실한 한 곳이 보였다.

놈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실수를 하는 사람으론 보이지 않았다. 저 정도의 틈은 그냥 힘으로 밀어도 열린다. 휘황찬란한 마력 없이 휑한 창문은 마치 밤손님을 반기는 입구 같았다. 혹은 너무 뻔해서 위험한 덫 같기도 했고.

덫은 걸리는 사람한테나 위험한 거다. 나는 힘주어 창문을 열었다. 나무로 된 창틀은 이음새가 맞지 않는 것처럼 살짝 덜컹거리다 열렸다.

스스로 의심할 만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움직임으로 방 안에 들어섰다. 나는 안정적으로 착지한 뒤 찬바람이 들어오는 창문을 닫았다. 날이 점점 더 추워지는 것 같다. 더더욱 페르디낭이 그리워졌다.

방 구조는 큰 책장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내가 배정받은 방과 비슷했다. 크고 넓은 방에 반들반들 윤이 나는 짙은 색의 가구들. 나는 지체하지 않고 곧장 책장으로 향하려다가 미약한 인기척에 몸을 돌렸다. 침대 옆에 있는지도 몰랐던 작은 테이블과 의자, 그곳에 헤나드가 앉아 있었다. 달빛도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숨죽인 채 놈은 뚫어져라 테이블 위에 흰 로브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내가 몰래 들어온 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헤나드는 금빛으로 반짝이는 무언가를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눈을 내리깔았다. 깊은 생각에 잠긴 얼굴이었다. 고요 속에 있으니 놈이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니라는 게 확실히 느껴졌다. 나조차 집중해서 들어야 할 미약한 숨소리 사이로 느리게 뛰는 심장 소리가 섞였다.

나는 책장에서 원하던 책을 찾아냈다. 다른 책을 밀어내고 위대한 유언을 꺼내는 소리에 헤나드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놈은 태양을 똑바로 응시하려는 사람처럼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믿기지 않는다는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레티시아?"

헤나드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로브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웬이 강아지 똥구멍 같다고 한 그 브로치가 분명했다. 나는 헤나드의 부름을 무시하고 나가기 위해 창문을 열었다.

"레티시아, 잠깐만요!"

순간 마력이 휘몰아치며 내가 나가려고 했던 창문이 마법으로 잠겼다.

"가지 마세요. 전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나는 헤나드를 돌아보았고 동시에 그는 벽으로 날아가서 처박혔다. 줄 끊어진 꼭두각시 인형처럼 놈은 벽을 타고 주르륵 힘없이 미끄러졌다. 고통을 느끼지 않는 창백한 얼굴이 피를 토해냈다.

“죄송해요."

헤나드의 목소리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마지막 날숨처럼 가냘팠지만 선명했다. 창문이 열리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마력이 헤나드의 심장에서 나온 생명력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을 깨부수는 데 집중했다.

”아무런 관계없는 척하는 게 그들의 눈을 피해 당신을 지킬 최선이라 생각했어요.“

무슨 헛소리야?

끝까지 무시하려고 했지만 가당치도 않은 헛소리라 저절로 고개가 돌아갔다. 헤나드는 목숨을 구걸하는 사람처럼 양팔로 바닥을 기어서 겨우 내 발아래로 왔다. 아마 척추가 부러졌거나 그와 비슷한 손상을 입은 듯했다. 나는 아무런 표정 없이 그 꼴을 지켜봤다. 거친 돌바닥을 긁는 손가락 끝에서 피가 묻어나왔다.

”오늘 당신이 움트헷을 처리하는 걸 봤어요. 그토록 거대하고 강한 힘은 처음 봤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당신을 지키리라 생각했던 게 얼마나 주제넘은 짓이었는지...“

헤나드는 손을 뻗어 내 발 위에 얹으려고 했다. 손끝이 사정없이 떨리는 게 보였다. 나는 발을 뒤로 물렀다. 헤나드가 힘없이 손을 떨궜다. 놈은 가물거리는 눈을 뜨려고 애쓰며 나를 올려다 봤다.

”하지만 너무 많은 걸 드러냈어요. 레티시아, 모두 당신을 주시하고 있어요. 제발...“

봉인이 깨진 창문을 열었다. 날카로운 찬바람이 갈퀴처럼 머리카락 사이를 긁으며 지나갔다. 나는 망설임 없이 뛰어내렸다. 뛰어내리는 내 등에 대고 헤나드가 외치는 소리가 바람 소리와 마구 섞이며 머릿속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조심하세요... 그들은... 구원자는...

구원자?

나는 불현듯 떠오른 생각에 제대로 착지하지 못하고 몇 바퀴 굴렀다. 돌에 부딪힌 것인지 등이 얼얼했지만 그런 사소한 고통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나는 낙엽에 파묻힌 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희뿌연 고리처럼 전체를 관통하는 골자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놓쳤던 단서가 여기 있었다. 비로소 왜 며칠간 꿈자리가 사나웠는지, 거슬리는 불안감을 느꼈는지, 동정심과 혼란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았는지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해 여름엔 비가 오지 않는 날이 계속 되었다.

강은 말라 허연 강바닥을 드러냈고 우물의 두레박을 한참 내려도 텅텅 부딪치는 소리만 났다. 산 열매조차 누렇게 떠죽어 배를 곪는 사람들이 늘어갔다. 온 거리에서 푹 익은 썩은 내가 진동했고 쥐조차 더위에 지쳐 거리로 나와 열사병으로 죽었다.

전염병이 도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다. 사람들은 시체를 말라 갈라진 땅에 묻다가 감당할 수 없어지자 마을 밖에 내다 버렸다. 쌓인 시쳇더미에 어린아이들이 유독 많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늘 어린아이는 전염병이 돌면 제일 먼저 죽었으므로.

아이 시체가 하나 같이 비쩍 말라 미라처럼 보이는 게 슬플 뿐이었다.

그 시기에 하얀 옷을 입은 무리가 전염병을 치료하러 다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손을 대니 씻은 듯이 나았다더라, 비를 내리거나 그치게 하고 강물을 가른다더라, 번개를 내린다더라 하는 허무맹랑한 얘기도 뒤따랐다. 사람들은 모이면 그 이야기를 했지만 흩어지면 잊어버렸다. 바깥에서 시체 썩은 내가 진동하고 갈증 때문에 목이 찢어질 듯 아팠기에 반나절 머물다 도망친 외지인의 헛소리를 진지하게 믿을 기력조차 없었다.

마을의 아이 세 명 중 한 명이 죽을 때쯤 하얀 로브를 입은 사람들이 마을로 찾아왔다. 여관이 폐업해 묵을 곳을 찾자 사람들은 앞다투어 자기 집을 양보했다. 다들 눈앞에 다가온 희망을 잡으러 아우성이었다. 그리고 그 날 밤, 기적은 일어났다.

로브를 입은 사람 중 하나가 하늘을 향해 길게 중얼거리자 별만 밝은 저녁 하늘에서 그간의 갈증을 해소하려는 듯 가열하게 비가 쏟아져 내렸다. 비는 며칠 밤 동안 이어졌고 바깥의 시체가 퉁퉁 불어 살점이 떠내려오건 말 건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빗물을 마시고 그 속에서 뛰어놀았다. 아이 둘이 더 죽었지만, 기적을 목격한 마당에 그깟 일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형제를 몽땅 잃은 부모의 울음이 환호 속에 묻혔다.

사람들은 하얀 로브 입은 무리를 구원자라 불렀다. 소문대로 구원자는 병든 자를 치유하고 시든 작물을 되살리고 빗속에서 산더미같이 쌓인 시체를 불태웠다. 구원자들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기적을 행했다. 그 태도를 두고 신의 사도니 왕의 보살핌이니 많은 추측이 오갔지만 나는 알았다. 그들은 마법사였다. 내가 이 마을에서 산지기의 딸 행세를 하면서 본 어중이떠중이 마법사와 다른 진짜 마법사.

오랫동안 지속된 극심한 가뭄은 마나의 균형이 깨져 생긴 일이었다. 고르게 분포되어야 하는 마나가 턱없이 부족해져 이 주변의 자연이 생명의 힘을 잃은 것이다. 자연재해가 근방에서 일어나면 흔히 생기는 일이다. 혹은 인간이 대형 마법을 위해 무리하게 끌어다 썼거나.

마을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부르는 일은 마나석의 마나를 풀어 대기에 부족한 마나를 채우는 일에 불과했다. 그것뿐이지만 어쨌거나 며칠 동안 비를 내리게 할 정도라면 귀족 작위를 받거나 마탑에 소속될 정도의 실력자였다. 저들이 무리하게 마나를 끌어다 쓴 놈들이라면 상종 못 할 파렴치한 인간들이지만 정말로 ‘구원자’라면 마을 사람들한테 잘된 일이다. 그들은 구원의 손길이 필요했다.

내가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은 일.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쉽게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었다. 수잔나, 에나, 폴린, 비렌... 어느 집의 누가 셋째를 가졌다더라 하는 소식까지 알 정도로 마을 사람들과 가깝게 지냈었다. 깊은 산 속에 혼자 살았지만 미샤에가 파는 파이에 중독돼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마을에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병에 걸린 산지기 아비를 둔 여자로 통했다. 의심을 피하고자 만들어 낸 가상의 존재가 같이 마을을 오갈 리 없었고 다들 멋대로 병 든 아버지를 모시며 열심히 산다 추측했다. 나는 부정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안쓰럽게 여겨 내가 물건을 사면 하나라도 더 끼워주려고 안달이었다.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큰 규모의 마을이었는데도 하나같이 다 친절하고 순박한 사람들이었다. 착한 성정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된 삶이었는데도. 나는 그 사람들이 죽는 동안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다. 나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살리고 마음을 주는 일에 지쳤다.

하지만 구원자 덕에 마을에 다시 활기가 돌고 떠들썩해지자 미뤄두었던 진실이 고개를 들었고 마음 한 켠이 무거워졌다.

사실 나는 그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다.

구하고 싶었고 살리고 싶었다.

며칠 전까지 내 뒤를 졸졸 따라오며 언니! 누나! 하던 아이들이 마을 밖에 쓰레기처럼 쌓이는 것은 긴 세월을 산 나한테도 버거운 일이었다. 미샤에는 더는 파이를 만들지 않았다. 반죽과 파이 굽는 일을 담당하던 남편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녀는 파이 대신 매일 밤 눈물을 만들었다. 내가 거래하던 약초 가게는 남편이 죽으니까 아내가 일을 도맡아 하다 그녀가 죽고 딸이, 딸마저 죽으니 문을 닫고 말았다.

알던 사람이 죽을 때마다 나는 속으로 내가 그들을 죽인 게 아니라는 말을 되뇌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마을이 보이는 절벽으로 달음박질쳐 높아지는 시체의 산을 살피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다. 아는 얼굴을 발견하는 날이면 온종일 우울한 기분에 시달렸다.

그들을 돕지 않았던 건 순리대로 흘러야 한다는 거창한 이유가 아니었다. 그저 내 능력을 보고 변할 사람들이 두려웠다.

이용당하고 버려졌던 과거는 망령처럼 따라붙어 눈을 가렸다. 나는 어설픈 두려움에 미적대고 있었다.

이들이 욕심을 드러내고 가치를 가늠해서 이용하려고 든다면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순박한 마을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았다. 박제처럼, 그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못 박아 두고 싶었다.

하지만 결국 잃어버리고 말았구나.

마을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구원자들이 보였다.

눈앞에 로브의 흰 빛이 어른거렸다. 가슴팍에 달린 브로치가 두 번째 태양처럼 환하게 금빛으로 반짝였다.

불쑥 역겨움이 치밀어올랐다. 나는 왜 이런 인간이 돼버린 거지? 인간이라고 부르기도 힘든 흉측한 괴물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죽는 건 나에게 칼을 들이밀고 위협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과 다른 일이다. 전쟁터에서 수백의 목숨은 나에게 값어치가 없었지만 내가 모처럼 마음을 붙인 사람의 목숨은 천금보다 귀했다.

가장 역겨운 건 사실을 깨닫고 나서도 죽은 이들에게 죄책감이 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는 내가 잃어버린 인간성에 대해 생각할 뿐이었다. 자신이 너무 끔찍했다. 그래서 나는 그 날 밤 일궈둔 터전을 버리고 멀리 도망쳤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 도착하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닮은 사람을 볼 때면 속이 답답해졌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것마저 괜찮아졌다. 나는 다시 사람들 사이에 섞여들었다.

“어제 톤다에서 넘어온 상인한테 들은 건데, 전에 톤다에서 전염병 심하게 돈 거 기억나? 아, 왜 그때 국경 폐쇄하고 그랬잖아.”

“당연히 기억하지, 이 사람아. 우리나라에도 넘어올까 봐 얼마나 걱정했다고. 나는 그때 톤다 쪽에서 부는 바람도 피해 다녔어.”

“그때 구원자인가 하는 사람들이 병 치료하고 다녔잖아. 소문으로만 들었으니까 나야 진짜로 치료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종교까지 생기고.”

“아, 그랬지.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그냥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이긴 한데...”

소리 높여 이야기하던 남자는 술집 안의 사람들을 의식한 것인지 목소리를 낮추고 친구에게 바짝 다가가 속삭였다.

“그게 전염병이 아니라 사실 구원자들이 죽인 거라 나봐. 구원자가 죽이는 걸 본 사람이 있대. 손을 갖다 대니까 시든 풀처럼 바짝 말라서 죽었다던데?”

“에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구원자가 치료된다면서? 그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다시 살리는 거란 말인가? 뭐 하러 그런 짓을 해?”

“이유야 많지. 그게 사실이라면 죽이려다가 그만둔 것뿐인데 기적이니 신의 사도니 하며 떠받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에헤이, 이 사람아. 어디서 헛소문 듣고 와서 이상한 소리 말게. 어떻게 손만 갖다 댔는데 사람이 말라 죽어? 전염병으로 마을의 절반 이상 죽었다던데 그때까지 안 들켰다고?”

“기이한 사술이겠지. 진짜로 그렇게 죽이는 걸 본 사람이 있대도 그러네.”

남자들은 소문의 진위를 두고 옥신각신하다가 결론이 나지 않자 맥주를 들이켜며 다른 주제로 말을 옮겼다. 나는 먹다 만 음식의 값을 치르고 가게에서 나왔다. 오랜만에 들은 톤다의 소식이지만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 생각했다. 시간을 방패 삼아 뒤로 숨으면 언제까지고 피할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외면은 해답이 될 수 없다. 외면은 그저 내 오랜 고질병일 뿐이다. 감당할 수 있는 감정의 총량을 넘어서면 피하고 마는 비겁함. 결국, 이렇게 따라붙어 나를 괴롭히는 것만 봐도 과거는 지독한 놈들이다.

번뜩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어 몸을 일으켰다. 등줄기를 타고 아픔이 뻐근하게 올라왔다.

나는 구원자라는 명칭에 따라붙은 다른 이름을 알고 있었다. 의식적으로 묻어두었을 뿐이지.

그리고 최근에 그 단어를 어디서 본 것 같다. 어디였지?

손바닥 아래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땅에서 올라오는 젖은 흙냄새가 기억을 떠올리는 데 도움을 줬다.

매몰찬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톤다 뿐만 아니라 인근 국가도 가뭄에 피해를 보았기에 모두 풍족하지 못한 가을이었다. 우물가에 삼삼오오 모인 사람들은 한창 구원자에 대해 떠드는 중이었다. 이 마을에서 저 마을까지 소문이 닿는 속도는 느려서 내가 아무리 마을을 옮겨 다녀도 놀리는 것처럼 항상 구원자에 관한 이야기는 최신 화젯거리였다.

가뭄과 전염병을 해결하는 신의 사도, 거기에 얽힌 부정적인 추측. 내가 봐도 한두 명이 떠들고 말 이야기는 아니었다.

나는 진흙에 더러워진 신발을 물로 씻으며 대화를 흘려듣고 있었다.

"영생자."

그렇게 중얼거린 자는 마을 사람과 확연히 구분되는 외지인의 복장을 하고 있었다. 며칠 동안 못 잔 것 같이 파리한 안색을 한 채 그자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냈다.

"그것들은 자신을 그렇게 부릅니다. 영생자라고."

그리고 그자는 사라졌던가? 어떻게 되었지? 내 생에 비해 너무 찰나라서 이 정도까지 떠올린 것만으로 대단한 일이다.

나는 약한 빛을 띄우고 주머니를 뒤졌다. 고급 가죽으로 마감한 책의 겉면이 만져졌다. 안 버리고 가지고 있길 잘했지. 다시 열어볼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역시 세상일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탐욕을 드러내고 취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누구보다 낮은 곳에 머무른다면 영생을 얻을 것이니, 이는 우리의 뜻이라.”

“구원은 우리의 힘이요 권능이다.”

“너희는 구원을 통해 영생을 얻으리.”

나는 솔비아가 준 책에서 몇 가지 의미심장한 구절을 찾아냈다. 흐린 불빛에 글씨가 일렁거리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대놓고 알려주는데 왜 전에는 의심조차 안 했을까?

솔비아는 불멸을 쫓는 영생자 중 한 명일 것이다. 거기다가 내가 자기와 같은 부류라 생각해 영생자가 될 방법까지 전해준 거다. '목숨을 구해준 대가.' 전혀 거창한 빈말이 아니었다.

뤼네 아비에의 가출한 학생들, 라무의 실종된 아이들, 톤다의 전염병에 걸려 죽은 아이들.

헤나드의 손에서 순식간에 말라 비틀어진 꽃이 눈앞에 스쳤다. 사라진 아이들은 그렇게 순식간에 말라 비틀어져 죽었겠지.

오랫동안 자신과 같은 사람을 기다렸다고? 저주를 풀고 싶다고?

마법사들의 비정상적인 불멸에 대한 집착을 모르는 바 아니었다. 헤나드는 마법사 사회에서 늙지 않고 백 년 넘게 활동했다. 계속해서 강해지는 그를 보며 마법사들은 열망했을 거다. 과거부터 내려온 기록도 건재한 표본도 있으니 가능성은 무궁무진했다. 헤나드가 자신과 같은 자들을 만들었던가, 누군가 방법을 알아내 독자적으로 영생자를 늘렸던가, 우연히 헤나드와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 있던가.

오랫동안 피가 통하지 않던 곳에 다시 더운 피가 도는 것처럼 온몸이 찌릿했다. 심장을 재어 볼 수 있다면 몇 배는 무거워졌을 거다. 손끝까지 강한 힘이 돌며 꿈틀댔고 이제야 모든 것이 현실처럼 생생하게 다가왔다.

내가 해결해야 하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마지못해 도와주거나 가볍게 임하는 게 아닌 내가 청산해야 할 빚. 모처럼 살아 있는 것 같다. 나는 찬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헤나드는 그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지만, 그렇다고 그가 영생자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없다. 인간의 세 치 혀는 얼마든지 거짓을 뱉어낸다.

나는 헤나드를 심문하기 위해 다시 그의 방으로 돌아갔다. 방은 여전히 어두웠고 바닥에 떨어진 핏방울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다. 나는 핏자국을 지익 신발로 끌어서 없애면서 아무도 없는 것처럼 고요한 어둠 속을 둘러보았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헤나드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긴 추격이 될 거야. 날카롭게 벼려진 사냥꾼의 감이 속삭였다.

하지만 어려운 사냥감이 재밌잖아?

나는 오랜만에 솟아오른 열정을 능숙하게 짓눌렀다.

단순히 헤나드나 솔비아처럼 겉으로 드러난 존재를 쫓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생자는 오래전부터 이어진 거대한 단체다. 뿌리까지 뽑으려면 확실한 기둥을 잡아야 했다.

침착하고 냉정할수록 사냥에서 큰 수확을 얻을 수 있다. 나는 사냥에서 늘 최고점을 얻어 마지막에 종을 울리는 자였다. 이번에도 실패하지 않을 거다.

나는 단잠에 빠진 옐츠란을 마구 흔들어 깨웠다. 사실 이걸 '마구 흔들었다.'라고 표현한다면 탈곡은 곡물을 '둥개둥개'하는 거다. 자다가 봉변당한 옐츠란이 물에 빠졌다가 건져진 사람처럼 숨을 들이켜며 일어났다.

놈은 깨어나서도 놀란 얼굴로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뭐야? 자고 있는데..."

잠기운을 떨쳐내지 못한 웅얼대는 말투였다.

나는 들고 있던 메빌 실리어의 책을 옐츠란 무릎에 툭 던졌다.

"책 가져왔어."

"뭐…?"

옐츠란은 대답을 바라고 반문한 건 아니었는지 곧장 책을 집어 들었다. 그는 까치집 같은 머리를 한 채로 책을 빠르게 넘겨보면서 미소를 숨기지 못했다. 과업을 이룬 학자보다 장난감을 선물 받은 아이 같은 웃음이었다.

"헤나드한테서 받아 온 거야?"

옐츠란은 아직 푸른 빛이 감도는 창밖을 보고 덧붙였다.

"이 새벽에?"

"아니, 그냥 척추를 부러트리고 뺏어왔어."

기분이 좋아 살벌한 소리마저 농담으로 받아들였는지 옐츠란은 웃었다. 내가 빤히 쳐다보고 있자 그 웃음은 금방 멈췄다. 웃음을 멈춘 뒤에도 설마 진짜 그랬겠어? 하는 가벼운 태도로 나한테 물었다.

"너를 꼭 만나야겠다는 이유가 뭐래?"

나는 헤나드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떠올려보았다.

명백한 경고였지만 그게 진심이었는지 나를 속이기 위한 거짓이었는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편을 가르기엔 놈이 나한테 준 정보가 너무 적었다. 나는 이제 와서 뭐라고 하는지 말이라도 들어볼 걸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다.

"나한테 경고하려고."

경고라는 단어에 어렴풋하게 띠고 있던 미소마저 옐츠란의 얼굴에서 지워졌다.

"그게 무슨 말이야?"

"너는 먼저 페르디낭에 가 있어."

옐츠란은 또 한 번에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반문했다. 아무리 호의로 돕는다 해도 계약은 계약이었다. 기약 없이 자리를 비우는 건 계약 내용에 위반되기에 참을성을 발휘해 한 번 더 말했다.

"먼저 페르디낭에 가 있으라고. 나는 해결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끝내면 갈게."

"무슨 일인데?"

"내 일."

옐츠란은 불만 어린 표정을 지었다.

"그럼 언제 끝나는데?"

"언젠가는."

옐츠란이 미간을 찌푸리고 상체를 뒤로 살짝 물렸다.

"무슨 일인지 설명을 해줘야 이해를 하지. 그냥 일방적인 통보는 너무한 거 아니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주 약간, 정말 티끌만큼 그렇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을 할 건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미리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오늘 이야기했잖아. 아직 해도 뜨지 않았어."

항상 뜨거운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옐츠란이 굳은 어조로 말했다. 나는 삐뚤게 고개를 기울였다.

"그래서?"

"그래서라니? 너는 정말 내 말을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구나."

옐츠란이 대꾸를 요구하는 사람처럼 입을 꾹 다물어버리자 밀도 높은 침묵이 들어찼다. 나는 갑자기 옐츠란과 거리가 너무 가깝고 답답하다고 느껴져서 반걸음 뒤로 물러섰다. 내 그림자가 비켜서자 새 푸름 한 달빛이 옐츠란의 얼굴 위로 옷자락을 드리웠다. 상처가 여실히 드러난 얼굴. 내가 한 것처럼 옐츠란도 내 얼굴을 읽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가 힘없이 스륵 미끄러진다. 아마도 조금의 틈도 내 얼굴에서 읽을 수 없었을 거다.

"위험한 일이야?"

그렇다면 어찌할 거고 아니라면 어찌할 건가. 나는 자꾸 선을 넘으려는 옐츠란이 이해되지 않고 불편하기만 했다. 옐츠란은 라무에서, 아니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다. 우리가 아주 살가운 사이처럼 사소한 것조차 이야기하길 바랐고 서로 의지하길 바랐으며 등을 맡기길 바랐다. 그리고 살가운 사이에서 그러하듯 나를 걱정했다. 그래, 나를 걱정했다. 나는 얹힌 것처럼 불편한 느낌이 어디서 오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옐츠란은 솔직함을 몸에 두르고 맨몸으로 부딪치는 자였다. 그건 아마 마탑에서 쭉 지내느라 인간관계가 협소해서 감정을 처리하는데 미숙한 탓일 거다. 아니면 천성이거나.

그가 누군가를 만나고 마음을 주고 가여워하는 것을 보면 날개를 한 번도 다친 적 없는 새가 떠올랐다. 온전한 새는 아파본 적 없기에 조심하는 법을 몰라 자유롭다. 너무 많이 다쳐 끔찍하게 뒤틀린 날개를 가진 나는 그런 모습을 마주할 때면 지독한 질투심에 사로잡혔다. 다시는 가질 수 없는 과거의 내가 떠올랐고 끝이 있는 자들의 찬란함이 눈부셨다. 부러워. 부러워. 바닥을 데굴데굴 구르면서도 나는 인정하기 싫어서 불편하다는 모호한 감정으로 덮어놨던 거다.

네가 그렇게 자유롭게 넘나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착각이 들잖아. 나는 절벽으로 떨어질 게 뻔한데.

"왜? 내가 죽기라도 할까 봐?"

내 딴에는 우스갯소리였지만 사정을 알 리 없는 옐츠란은 되려 얼굴을 구겼다. 그는 내가 구제 불능인 것처럼 고개를 저으며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내뱉는 숨이 떨렸다.

"레티시아."

내 진짜 이름도 아닌 짧은 단어에 옐츠란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나는 점점 더 화가 났다. 직면한 두려움과 자신에게 내는 화였다.

절벽으로 떨어질지 화려하게 날아오를지 해보기 전까진 모르는 거잖아? 하지만 보이지도 않는 선 밖으로 한 발짝 떼는 게 힘들었다. 고작 한 발짝인데, 그게 뭐라고.

나는 전형적인 성격 고약한 사람처럼 자신에게 난 화를 주변 사람에게 돌렸다. 치졸하고 얄팍했다.

"죽으면 너희 계획에 차질이 생기니까?"

옐츠란이 날카롭고 짧게 헛웃음을 지었다.

"너는 왜 항상 남을 상처 주기 위해 작정한 사람처럼 말하는 거야? 진짜 내가 그런 의미로 말했다고 생각해?"

옐츠란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지 이불을 걷어내고 침대에 걸터앉았다. 그는 한 손으로 눈을 가리고 숨을 두 번 들이쉬었다 내쉴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말을 이었다.

"나는 너를 걱정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할 건지 궁금해. 네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하다고 해도 걱정이 돼.”

그가 나를 지나치게 솔직히 대할수록 추궁받는 느낌이 들었다. 옐츠란은 그럴 의도가 아니었겠지만, 나에겐 공격으로 느껴졌다.

"내가 그러라고 했어?"

내 물음은 예상보다 뾰족하게 튀어나갔다. 나는 거의 그를 물어뜯을 듯이 말했다.

"이건 내 일이야. 설명할 수 없고 너도 이해 못 하겠지. 그냥 내가 진 감정의 빚일 뿐이야. 내 문제니까 신경 꺼."

"나도 그러고 싶어. 나도 그러고 싶다고!"

옐츠란은 자기가 언성을 높여놓고 되려 호통을 들은 사람처럼 손에 얼굴을 파묻었다.

"너는 나한테 아무것도 말하지 않지. 나를 믿지도 않고.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아니니까."

다시 얼굴을 든 옐츠란의 눈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의 눈에 점점 눈물이 고였다.

"그래도 나는 네가 걱정돼. 너는 그냥 계약 관계라고 선 그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그게 안 돼."

나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서 있기만 했다. 차라리 옐츠란이 그웬처럼 차분하고 세련되게 자기감정을 풀어서 이야기했다면 어린아이 투정을 듣듯 넘겼을 거다. 하지만 부딪치는 방법밖에 몰라 차라리 자기가 상처입고마는 진심을 무시할 방법은 몰랐다.

"적어도 서로 죽지 않기를 바랄 사이는 될 거라 생각했어."

기어코 옐츠란의 눈에 고여있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옐츠란은 실수인 것처럼 빠르게 눈물을 훔쳐냈다.

"내 착각이었나 보구나."

옐츠란은 책을 챙겨 침대에서 일어섰다. 그는 나를 건드리지 않고 슥 빠져나갔다. 옐츠란은 뒤돈 채로 한 번 더 눈물을 훔쳤다.

한 발짝이야. 한 발짝.

절벽으로 떨어지면 어때. 죽기라도 하겠어? 아직도 상처받을 여력이 남은 내가 속삭였다.

두려움이 어떤 후회를 불러일으키는지 숱하게 봤잖아, 답습은 같은 결과만 안겨줄 뿐이다. 몇백 년간 자기 연민만 떠안고 지지부진했으니 이젠 나아가야 할 때다.

“옐츠란 나는...”

줄곧 혼자만 간직해서 밖으로 털어놓은 적 없는 진심은 목에 가시처럼 박혀 한동안 나오지 않았다. 나는 억지로 기침이라도 하고픈 느낌을 참으면서 말을 이었다.

“오랫동안 혼자였어. 그래서 곁을 내어주는 게 서툴러."

나조차 깊게 생각해본 적 없는 진심을 내뱉는 건 불편하다. 이런 감각을 오랫동안 잊고 있었다.

혼자서 지낼 땐 말이 필요 없다.

형태를 얻지 못한 감정들은 삶에 대한 열망처럼 연기도 내지 못하고 푸스스 꺼져버린 지 오래였다. 생각하기 싫은 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 묵비권을 부여했다. 침묵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지만 혼자 지낼 땐 그럭저럭 쓸만했다.

하지만 함께 산다는 건, 다른 사람의 인생에 그림자라도 드리우기 위해 머무는 건 침묵으로 불가능하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재주가 없으므로 대화를 해야 한다. 묵비권은 상황에서 도망치기 위한 변명일 뿐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불편하고 나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어색해. 하지만 네 말이 맞아. 우리가 서로 죽지 않기를 바랄 사이는 되지."

내 말이 끝나고 몸을 돌린 옐츠란은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고 있었다. 그 볼썽사나운 얼굴을 보자 상황에 맞지 않게 웃음부터 터졌다. 그렇게 울 것까지야. 옐츠란은 소매로 얼굴을 거세게 비비면서 "아까 소리 질러서 미안해." 하고 사과했다. 나는 계속 웃으면서 침대에 앉아 옆자리를 툭툭 쳤다.

"앉아봐. 무슨 일인지 설명해줄게."

완결이 없는 인생이기에 좋은 점이 있다면 앞으로 계속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다는 거다.

나는 날카로운 유리로 된 희망을 품고 살고 싶다. 찔려서 피를 흘릴지언정.

상처는 언젠가 낫기 마련이니까.

모든 일을 빠짐없이 설명하다 보니 벌써 바깥은 동이 트고 있었다. 물론 내가 불사인 것과 구원자와 연이 있던 것은 말하지 않았다.

불멸은 팔에 박힌 화살과 같다. 박힌 자리가 고통스럽지만, 피할 수 없는 순간에 뽑아서 쏠 수 있는 마지막 화살.

이건 겨우 한 발짝이 아니라 만 걸음 정도 되는 깊은 이야기다. 겨우 눈물 몇 방울로 털어놓을 수 없지. 아무리 옐츠란의 우는 얼굴이 한순간 혹할 만큼 아름다웠어도 말이다.

마음에 걸어두었던 빗장을 풀어냈지만, 아직 내가 절벽 아래로 떨어졌는지 날아올랐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그저 작은 가능성에 마음이 조금 바뀌었을 뿐이다. 본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나는 나만 믿었고, 비밀은 혼자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지키기 쉽다. 하지만 언젠가 별일 아닌 것처럼 털어놓을 사람이 생기리라 미래를 가정하게 됐다.

만약 그런 사람이 생긴다면, 그 사람이 화살로 내 심장을 겨눈다 해도 감수할 생각이다. 그만큼 믿었을 테니까. 명예나 충성 같은 무의미한 일에 매달리는 사람들이나 믿음을 목숨으로 드러내지만 말이다. 뭐, 그놈들은 목숨이 하나뿐이고 나는 셀 수도 없이 많으니까 그렇게 어처구니없는 다짐은 아니다.

나는 헛기침을 몇 번 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한 건 정말 오랜만이라 목이 마를 정도였다. 대놓고 목마르다고 눈치를 주고 나서야 옐츠란은 삐죽한 얼굴로 물잔을 내밀었다.

"왜 이렇게 행동이 굼떠? 내가 목말라서 죽으면 어떡할 거야?"

"그만 놀려."

옐츠란은 달아오른 귀 끝이 느껴졌는지 귀를 벅벅 문지르며 시선을 회피했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정도 많고 감정에 솔직하다니 거참, 신기하다. 마법사들 사이에서 자란 마법사가 감정적이라니? 그건 옐츠란의 천성이 강하게 적용하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이었다.

마법사 사이에서 '감정은 사사로우므로 일을 그르치고 마력을 약하게 만들 뿐'이란 말은 진리였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아주 우습고 어리석다고 생각했기에 다들 거짓말을 일삼으며 점잔을 떨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항상 무표정에 나는 아무 감정이 없어요. 하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딱딱한 얼굴로 '비이성적이야.' 하고 지적하는 꼰대들이란 얘기다. 옐츠란처럼 네가 걱정돼. 하고 펑펑 우는 꼴을 보였다간? 묘비에 마나의 도움 없이 눈물로 사막을 호수로 만든 자, 여기 잠들다. 라고 적힐지도 모른다. 마도시대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 같다. 감정적인 마법사가 얼마나 등쳐먹기 쉬운데, 아쉬운 일이다. 나는 다 마신 빈 잔을 옐츠란에게 건넸다. 손가락질을 까딱까딱하자 알아듣고 이번에는 군소리 없이 물 한 잔을 더 떠왔다. 정말 쉽다니깐.

설명하다 보니 의외였던 건 옐츠란조차 헤나드의 저주와 축복에 대해 몰랐다는 거다.

물론 헤나드가 마법사 사회에 큰 변화를 불러온 워낙에 유명한 인물이라 그가 백몇십 살을 먹었다는 건 마법사라면 다 아는 사실이었다. 간간이 지금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 모습을 보여 늙지 않는다는 것까지 뽐내듯 확인시켜주기까지 했다. 다만, 다들 옐츠란은 다들이라고 표현했지만 내 생각엔 옐츠란 혼자 그렇게 생각한 것 같다. 그냥 이종족이거나 이종족과 혼혈이거나 마법에서 뛰어난 성취를 얻어 그런 거겠거니 했다고 한다. 옐츠란은 마도시대 외엔 딱히 관심이 없어 그러면 그렇지. 한 번도 헤나드가 어떻게 백 년이 넘게 살았는지 깊게 생각해본 적 없다고 했다. 헤나드에 관해 털어놓았을 때 옐츠란은 잠깐 가장 충격적인 것을 본 순간처럼 굳어있었다.

"어쩐지 내가 배에 불화살을 꽂았을 때도 표정 하나 안 변하더라."

"그걸 보고도 아무 생각 없었다고?"

"그땐 너무 어렸으니까. 내가 일부러 실수한 걸 알고 지기 싫어서 참는다고 생각했어."

"헤나드가 너한테 지기 싫어서 그랬을 거라니 진짜 어렸구나."

"그렇지. 내 나이가 그때... 아니야, 그만두자."

옐츠란은 찔리는 게 있는 사람처럼 황급히 말을 끝마쳤다.

뤼네 아비에의 가출한 학생들, 영생자, 그들이 어떻게 얽혀있는지 이야기를 들은 옐츠란은 자기도 같이 영생자를 쫓겠다고 말했다. 헤나드도 관련이 있다는 말을 들은 뒤로 더더욱 그랬다. 나는 그냥 그러라고 했다. 옐츠란은 헤나드를 증오한다고 했지만, 얘기를 듣는 반응만 봐도 아직 정을 떼지 못한 티가 났다. 헤나드도 옐츠란이 죽지 않길 바라는 사람에 속해있겠지.

어색한 분위기가 가시니 옐츠란이 헛소리했다. 자기 딴엔 농담이라고 한 모양이다.

“너 방탕하게 연애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는 한바탕 크게 웃었다.

"너보단 잘하겠지. 적어도 질질 짜진 않을 거니까."

옐츠란은 콧잔등을 찌푸렸지만, 용케 반박하지 않았다. 반응하지 않으면 놀리는 것을 그만두리라 믿는가 본데 나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다. '마나의 도움 없이 눈물로 사막을 호수로 만든 자, 여기 잠들다.' 묘비는 내가 세워주지.

"나가자."

나는 침대에서 일어섰다.

"헤나드를 쫓아야지."

옐츠란은 나를 따라 일어서다가 제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영생자가 마법사를 주축으로 움직이는 단체라면 솔비아처럼 전 세계 각지에 산발적으로 퍼져있을 거야. 지금 헤나드를 잡는다 해도 또 다른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

평민들은 농사 지을 땅에, 귀족들은 신분에, 기사는 맹세에 묶이지만, 마법사는 자기 한 몸만 가지고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어린아이가 사라져도 의심받지 않는 곳을 찾아 몸을 숨겼을 것이다.

"지금 쫓아가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어설프게 꼬리만 잡아서 피해가 더 커지면 어떡해?"

나는 어이가 없어서 허리춤에 손을 올리고 옐츠란을 쳐다봤다.

"과연 옳은 일 같은 소리 하네. 내가 그 정도도 생각 안 해봤겠어?"

"좋은 방법이 있어?"

나는 코웃음을 쳤다. 옐츠란은 나를 약간 믿고 의지하는 듯한 얼굴을 했다.

"일단 한 놈을 잡아."

"응."

"그리고 전부 다 털어놓을 때까지 계속 패. 그놈이 털어놓은 사람을 전부 잡아. 또 패. 그러다 보면 전부 잡을 수 있어."

옐츠란은 비난의 눈빛을 숨기지 않고 잠시 침묵했다.

“정말 그럴 생각이야? 얼마나 오래 걸릴지 짐작도 할 수 없잖아. 그동안 피해는 계속 생길 거고.”

“지금 잡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 중요하지 않아?”

옐츠란이 끝이 있는 자의 얼굴로 물었다.

죽기 직전까지 이뤄야 할 것이 그리도 많고 한 해, 두 해, 분기, 매달, 해가 뜨고 질 때까지 아주 작은 시간 단위까지 쪼개서 계획을 세우는 이들. 삶이 빛나는 만큼 쫓기듯 뛰는 필멸자를 보고 있으면 주로 질투심이 일었지만, 가끔 이렇게 치졸한 우월감과 안개 낀 저 너머의 섬을 바라볼 때처럼 아련하고 동떨어진 기분이 들었다.

“그냥, 중요하지 않으니까.”

옐츠란은 의미를 찾으려는 사람처럼 내 얼굴을 살펴보다가 불만스러운 어조로 뭐라고 중얼댔다. 욕 같은데? 나는 주먹을 말아쥐고 옐츠란의 엉덩이를 세게 후려쳤다. 예상하지 못한 곳을 얻어맞은 옐츠란이 엉덩이를 감싸 쥐고 펄쩍 뛰었다.

"뭐, 뭐, 뭐 어딜 때려?"

"지금 욕했지?"

"아니야!"

나는 주먹을 흔들면서 다시 한번 추궁했다.

"욕했잖아, 지금."

옐츠란은 내게 엉덩이를 보이지 않으려 몸을 돌리고 뒷걸음질 쳤다.

"무슨 소리야? 그냥 알아서 해라고 했을 뿐이야. 너도 들었잖아."

나는 동물을 우리에 넣는 사람처럼 옐츠란을 문밖으로 몰았다. 그는 내가 갑자기 왜 이러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당황해서 제 발로 복도를 펄쩍펄쩍 뛰었다. 나는 그 꼴에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그거 봐, 주먹이 제일 효과적이라니까."

"그걸 보여주려고 내 엉, 엉덩이를 때린 거야?"

"내가 못 때릴 곳을 때린 것도 아니고 왜 그래?"

"그냥 말로 해도 되니까 제발 검사들처럼 몸부터 쓰지 마. 그런 방식이라면 새벽 훈련 때 기사단과 흙바닥에 뒹구는 것만으로 충분해."

옐츠란은 주사를 호되게 맞은 어린아이처럼 엉덩이를 문지르며 계속 뒤로 물러섰다.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다들 단잠을 자고 있을 고요한 아침부터 왁자지껄하게 소란을 피우는 건 보람찬 일이다. 옐츠란은 계속 뒤로 물러서다가 뭐에 걸렸는지 중심을 잃고 기우뚱했다. 그대로 뒀다간 뒤통수를 돌바닥에 부딪칠 거 같아 나는 급한 대로 아무거나 낚아챘다. 멱살이 잡힌 옐츠란은 반동 때문에 고개를 뒤로 젖히며 캑 하고 목 졸린 소리를 냈다. 옐츠란 발에 걷어차인 건 놀랍게도 사람이었다. 아! 하고 변성기가 지나지 않은 목소리로 비명을 내지른 학생은 잠이 덜 깬 얼굴로 웅크리고 있던 몸을 풀었다.

"엘리! 어디 갔었어? 여기서 계속 기다렸어."

엘리라...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내가 어디서 들었는지 떠올리려고 노력하는 동안 그 아이가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어서 그게 내 이름이었다는 게 기억났다. 학생 흉내를 낼 때 친해진 애인가 본데 벌에 쏘인 것처럼 퉁퉁 부은 얼굴이라 왜 나를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는지 짐작하기 어려웠다. 그 애는 위로 우뚝 선 기둥 같은 옐츠란을 올려다보고 놀라서 옐츠란님! 하고 외치며 곧바로 일어서려고 애썼다. 아마 우리가 밤새도록 얘기하는 동안 쭈그려 앉아 기다렸을 소년은 다리가 굳었는지 앞으로 고꾸라졌다. 나는 안정적으로 그 애의 허리를 받쳤다.

"아, 고마워..."

옐츠란이 허, 하고 바람 새는 소리를 냈다. 소년은 내 품에 안기자마자 눈물을 왈칵 쏟아냈다.

"엘리, 글린다가 사라졌어! 제발 글린다를 찾아줘. 너는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렇지?"

나는 아직도 갓 태어난 사슴처럼 비틀거리는 소년을 다독였다. 소년은 내 옷깃을 생명줄처럼 붙잡고 계속 흐느꼈다. 이대로 두다간 내 어깨에 코를 닦을 것 같아 나는 은근히 옐츠란에게 소년을 넘겼다. 남을 위로하는 게 어설픈 옐츠란은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로 고장 난 것처럼 어색하게 주기적으로 등만 두드렸다.

"글린다가 사라졌다는 건 다른 애들처럼 가출했다는 거야?"

"응, 다른 애들처럼 쪽지를 남기고 사라졌어. 하지만 글린다가 가출할 애가 아니라는 걸 너도 알잖아.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쇼비가 숲에서 맨발로 쫓기고 있는 글린다를 봤대."

"쇼비가 누구야?"

"예언마법이 전공인 애야. 아마 너는 만난 적이 없을 거야. 어제 견학을 마치고 돌아왔거든."

소년은 거칠게 눈물과 콧물 범벅인 얼굴을 손으로 닦았다. 그리고 그 손으로 다시 옐츠란의 소매를 잡았다.

"쇼비는 친한 사람에 관한 예언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엘리, 제발 도와줘."

아덴은 이제야 이름이 기억났다. 내가 움트헷을 물리친 걸 본 모양이었다. 나한테 부탁하면 이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될 거라 굳게 믿고 있었다.

"글린다가 없어진 게 언제쯤인데?"

"바로 어제저녁이야. 저녁을 먹으러 오지 않아서 찾으러 갔더니 없었어."

"교수님에겐 알렸어?"

"응, 하지만 밤이 늦었다고... 날이 밝으면 찾아보겠다고 하셨어. 그냥 가출했다고 생각하시는 게 분명해. 그래서 애들이 글린다를 찾겠다고 경계의 숲으로..."

제대로 눈을 맞추지 못하고 시선을 회피하는 아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애들이라니? 몇 명을 말하는 거야?"

"쇼비랑, 미나랑 실비아. 세 명이야."

나와 아덴이 주고받는 대화를 듣던 옐츠란이 "뭐?"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서 외쳤다. 그것이 잘못인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아덴이 어깨를 움츠렸다. 알면서도 사고를 치니 아이인 거다. 돌겠군. 애를 하나도 아니고 넷이나 찾아야 하네. 어쨌건 옳은 일, 그른 일 따질 새 없이 빨리 움직여야 하는 이유가 생겼다. 우린 아덴도 섣부른 짓을 하지 않도록 단단히 협박한 다음에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아침을 맞이한 숲에는 축축한 진흙 냄새와 푸른 잎 냄새가 감돌았다. 짙은 고요가 깔린 곳을 가로지르는 동안 우리가 불청객 취급받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안개는 바지 아랫단을 축축하게 적셨고 툭 불거져 나온 나무뿌리와 미끄러운 썩은 잎은 가는 길마다 가로막았다. 나에겐 옛날 생각이 잠깐 나고 혀를 찰 정도의 불편함이었지만 옐츠란은 진작에 걷는 걸 포기하고 살짝 몸을 띄운 채 날아다녔다. 옳은 선택이다. 뒤처졌다면 미련 없이 버리고 가려고 했다.

옐츠란은 어떻게 날아다니는 자신보다 땅 위를 걷는 내가 더 빠르냐고 진심으로 궁금해 했다. 나는 코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하고 팔을 한껏 벌려 끌어안아도 부족할 만큼 거대하게 자란 나무를 짚었다.

"숲이 제법 큰데? 이런 게 아카데미 옆에 있으면 위험하잖아."

"육로를 통해 들어오려는 외부인을 차단하는 용도야. 방향감각을 잃고 헤매게 만들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서 학생들에겐 위험하지 않아."

"우리는 나가려는 건데 왜 이렇게 적대적인 거야?"

"어쨌건 외부인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럼 영생자를 만나지 않는 한 글린다를 찾으러 숲에 들어온 아이들은 무사하겠군. 알아서 무사히 나갔으면 좋으련만 그럴 리는 없겠지. 애들은 왜 그렇게 손이 많이 가는 걸까?

"안 되겠어. 기척이 너무 옅어서 추적이 안 돼"

헤나드의 마력을 쫓아 숲 깊은 곳까지 들어오긴 했지만, 이 이상은 힘들었다. 마지막 숨을 내뱉는 시체처럼 헤나드의 마력은 존재감이 옅었다. 생기가 가득한 숲에서 그를 찾는 일은 형형색색의 그림 속에서 작은 점 하나를 찾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었다. 아무리 나라도 모든 일이 가능한 건 아니까 말이다. 피로감이 몰려들어 나는 잠깐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옐츠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몸을 기울여 내 얼굴을 들여다 봤다. 쭉 뻗은 목선이 드러나고 올곧고 결 좋은 눈썹이 곡선을 그리며 쳐졌다. 군침이 싹 돌았다. 이건 정말로 옐츠란에게서 나는 기운의 향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 음, 신선하고 달콤한 과일 냄새. 어디 보자... 실하게 익었나…?

시선이 아래로 향하려는 걸 이성을 발휘해서 막았다. 미쳤냐? 얘는 옐츠란이잖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졌어."

현실감 없는 미모에 지속해서 노출되면 판단력이 흐려지는구나. 나는 옐츠란의 하늘과 바다를 담은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봤다. 저 안에 든 건 마도라이다. 교양을 아는 내가 배고픈 것도 아닌데 저런걸 주워 먹으면 안 되지. 나는 흡족한 외모를 가진 다른 이들을 떠올렸다. 그웬과 데블랑, 페스카인, 뭐 어쨌거나 헤나드. 역시 문제는 요즘 계속 옐츠란과 붙어 다닌 탓이다. 일을 해결하고 돌아간다면 손을 잘 씻고 음식을 잘 익혀 먹고 옐츠란을 가까이 못 오도록 해야지.

"어디로 가야 하지? 학생들은 추적이 가능해?"

"걔들의 마나는 주의 깊게 살핀 적 없어서 기억 안 나. 조금 번거롭지만 다른..."

나는 말을 멈추고 소리가 들린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숨죽인 채 잠자코 기다리자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절대 바람 소리로 생각할 수 없는 분명한 사람의 웃음소리였다. 웃어? 지금 웃음이 나와? 나를 따라 덩달아 숨죽인 채 눈치를 보는 옐츠란을 향해 한숨을 내쉬었다.

"애들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무사한가 봐."

"어디서 들려? 난 전혀 안 들리는데."

"여기서 엄청나게 멀어. 아, 또 웃는다. 완전 소풍 나왔네."

옐츠란도 듣고 싶은지 미간을 찌푸린 채 집중했지만, 그래 봤자 보통 사람의 청력으로 들을 수 없는 거리였다. 나는 아이들을 만나 독단적인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몸소 알려주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몇 대 맞을 각오는 했겠지? 교훈은 호되게 얻어맞고 깨닫는 거다.

내가 소리를 통해 뒤쫓는 걸 아는 것처럼 아이들은 쨍알 쨍알 끊임없이 대화를 주고받았다. 거리가 멀어 뭐라고 하는지 제대로 들리지 않았지만 즐겁고 들뜬 어조였다. 우리는 소리를 쫓아 조금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안개가 귓속을 채운 것처럼 모든 게 둔탁하게 들리는 숲속에서 아이들의 목소리만 선연하니 들려 기분이 이상했다. 다시금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림자가 조금 더 짙어졌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영역을 다투며 자라난 나뭇가지가 얽히고설켜 빼곡하게 햇빛을 가렸다. 덕분에 숲은 싸늘하고 물비린내가 많이 났다. '잘 따라와야지.' 목소리는 어느새 의미를 알 수 있는 말이 되었다. '기다려, 천천히 가!' 아이들은 뭐가 즐거운지 또다시 웃었다.

"이제 들리지? 다들 엄청나게 신났네. 계속 숲에서 헤맸을 텐데 무섭지도 않나 봐."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귀가 많이 안 좋네."

젊은 사람이 벌써 가는 귀가 먹어서야... 나는 옐츠란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보통 사람만도 못한 청력이네. 옐츠란은 영 모르겠다는 얼굴이었다.

소리는 가까워질 듯 가까워지지 않았고 길은 점점 더 험해져 갔다.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는 길인지 삐죽하게 솟은 돌멩이가 즐비했다. 사람이 지나간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길이였다.

주변이 어두워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다. 숲이 지나치게 크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소리를 따라 크게 숲을 우회하고 있었다. 옐츠란은 오랫동안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려우니 내려와서 걷다가 다시 날다가를 반복했다. 그가 걸을 때면 자연스레 우리의 속도는 느려졌고 기껏 좁혀놓았던 거리가 다시 멀어졌다. 우리에게 적대적인 것처럼 숲은 학생들에게 우호적으로 길을 열어주는 게 분명했다. 체력이 떨어지는 어린 마법사들이 쉬지 않고 걸으려면 여리고 보드라운 땅만 밟아야 겨우 가능할 테니까.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소리가 아주 지척에서 들린다는 점이다.

"잘 따라와야지."

"기다려, 천천히 가!"

바로 앞에서 외치는 것처럼 선명한 말소리였다.

나는 옐츠란을 돌아보았다.

"지금은 들리지?"

옐츠란은 미간을 찌푸렸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이 소리가 안 들린다고? 지금 웃고 있잖아, 바로 앞에 있는 거 같은데..."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웃음소리가 묘하게 익숙했다. 아까 들었던 대화와 웃음소리까지 똑같았다. 아무리 사람 웃는 게 거기서 거기라지만 정확히 똑같은 웃음소리를 낼 수 있나? 저건 사람 목소리가 아니야.

"먼저 가서 확인해볼게."

나는 옐츠란을 배려해서 속도를 늦추던 것을 관두고 땅을 박찼다. 앞을 가로막는 나뭇가지를 마법으로 베어내고 속도를 올리자 소리의 근원지까지 순식간이었다. 그곳엔 아이들이나 마법사, 혹은 헤나드 같은, 있으리라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발밑이 훅 꺼지며 몸이 붕 떠오른다는 착각이 들기도 전에 나는 깎아지른듯한 절벽 아래로 곤두박질쳤다. 골짜기는 아주 깊고 짙은 어둠이 스며들어 밤바다에 빠지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거세게 얼굴을 후려치는 바람 사이로 웃음기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기다려, 천천히 가!'

나는 비행마법을 펼쳐 허공에 몸을 세웠다. 아래로 떨어지던 힘을 제지한 탓에 몸에 고스란히 충격이 돌아왔다. 갈비뼈가 조금 시큰거렸다. 날아올라 골짜기를 벗어나니 뒤늦게 나를 쫓아온 옐츠란이 수풀을 넘다가 눈이 마주쳤다.

옐츠란은 내 발아래에 있는 바닥도 안 보이는 깊은 골짜기를 보고 숨을 들이켰다.

"저기 들어갔다가 나온 거야?"

"응, 떨어졌어."

"마법사라서 다행이다. 저렇게 위험한 곳이 경계의 숲에 있다니..."

휘이잉. 골짜기 사이에서 휘몰아치는 바람은 죽음이 부는 휘파람처럼 스산하고 음울한 울림을 가졌다. 나는 한 발짝만 내밀면 아래로 떨어질 듯한 지척에 내려섰다. 휘몰아치는 바람 사이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옐츠란은 아래를 내려다보는 나를 보고 얼굴이 약간 창백하게 질려있었다.

"저 웃음소리가 들려서 그런 표정 짓는 거 아니지?"

"바람 소리밖에 안 들려. 아까부터 무섭게 왜 그래?"

내가 붙잡고 뛰어내릴 거라 생각이라도 하는지 옐츠란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지금 상황에 장난치는 거면 화낼 거야. 진짜 목소리가 들린다고?"

"응, 저 아래에서 아이들 웃는 소리가 들려."

계속 본다고 이유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던 것을 그만두었다. 그 순간 누가 귓가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선명한 목소리가 들렸다.

'잘 따라와야지.'

아까 전부터 줄곧 듣던 목소리였다. 나는 소리가 들린 쪽으로 주먹을 내질렀다. 손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다.

"뭐지?"

환상 마법이었다면 진작에 내가 알아챘을 것이다. 내가 모르는 다른 마법인가 싶어서 주변을 훑어보았지만, 이상한 마력의 흐름은 감지되지 않았다. 진짜 이건 이상한데... 나는 의구심이 들어 환상을 깰 수 있는 마법을 펼쳤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갑자기 옐츠란이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나도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 같은데... 아이 목소리인 거 같아. 이쪽으로 오라는..."

옐츠란은 자연스레 소리가 잘 들리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다가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야 깜짝 놀라 절벽 바로 앞에 멈춰섰다.

"내가 방금 이 아래로 떨어질 뻔한 거야?"

"응, 난 이미 한번 떨어졌었어. 너는 어떻게 보고도 그쪽으로 걸어가냐?"

나는 옐츠란의 뒷덜미를 꽉 움켜쥐었다. 모든 돌발상황에 능숙하게 대처하는 나와 다르게 옐츠란이 이 아래로 떨어진다면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이 날 게 뻔했다. 하지만 키 차이 때문에 내가 그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목덜미에 내가 간신히 손을 얹은 것처럼 불편했기에 옐츠란은 무릎을 굽혀주다가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안 잡아줘도 돼. 이제 괜찮아."

나는 능청을 떨며 손을 내렸다.

"이게 그거 아냐? 죽지 않기를 바라는 사이?"

"산책 나온 주인과 개 아니고?"

나는 적절한 비유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 소리와 함께 휘몰아치며 골짜기에서 울렸다. 옐츠란과 나는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굳이 너도 들었냐는 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 말을 꺼내기도 전에 더 분명한 증거가 나타났다.

'아니야, 이쪽이야. 바보야.'

목소리는 다시 골짜기 아래에서 들려왔다. 우리를 놀리는 듯 들뜬 어조였다. 약간의 헐떡임이 섞인 목소리는 잡기 놀이를 하는 아이들을 연상시켰다. 곧이어 목소리는 다시 들렸다.

'분명 선생님이 우리를 찾으러 와주실 거야.'

실제로 골짜기 아래에 학생들이 있다면 저만큼 두려운 목소리로 떨었으리라. 앞 전의 이상한 일을 겪지 않았다면 나조차 깜빡 속을 만큼 감쪽같은 목소리였다. 아이들의 목소리를 흉내 내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우리를 골짜기 아래로 끌어내리고 싶어 하는 게 분명했다. 옐츠란이 몇 마디를 중얼거리자 골짜기 저 깊은 바닥까지 환하고 밝은 빚덩이가 차례대로 켜졌다.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 마법적으로 고안한 빚덩이였으므로 골짜기는 명암을 모르는 사람이 그린 그림처럼 어색하게 그림자 없이 밝아졌다. 동시에 거슬릴 정도로 소곤대던 목소리들도 사라졌다. 아래를 내려다보던 옐츠란이 와 하고 질린듯한 감탄을 했다.

"그대로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하기도 싫어."

나는 예술작품처럼 솟은 바위에 꿰뚫린 사슴을 가리켰다.

"상상할 필요도 없어. 저거 봐."

"상상하기도 싫다는 말은 저런 걸 보기 싫다는 말이야. 레티시아."

"알아. 근데 그냥 보여주고 싶었어."

옐츠란이 나에게 하는 것인지 비쩍 말라 가죽만 남은 사슴시체에 하는 것인지 모를 진저리를 냈다. 나는 옐츠란보다 지금은 사라진 소리에 집중했다.

내 짐작이지만 나는 똑똑하니까 짐작이 맞을 거다. 그 소리는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야호 하고 외치면 야호 하고 소리를 돌려주는 메아리처럼 과거의 소리를 흉내 내는 것에 불과했다. 아주 간단한 소리 재생 마법으로 가능한 일이지만, 마법이 아니라면 그건... 나는 옐츠란이 만든 빛에서 멀어졌다. 그림자는 멀리서 때를 기다리다 달려온 것처럼 다시 내 발밑에 붙었다. 그을림처럼 아주 짙고 이질적인 그림자. 나는 그림자에 검을 꽂아 넣었다. 그림자가 언젠가 경계의 숲에 들어왔을 사람의 목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돌의, 수풀의, 나무의 그림자를 타고 도망쳤다.

"아무래도 움트헷이 샤샤와 루루로 끝이 아니었나 봐."

검을 뽑아 살펴보았지만, 검날에선 마른 모래만 푸스스 떨어졌다.

"말도 안 돼. 펄만 씨가 경위서를 쓸 때 나도 같이 있었는걸. 분명히 움트헷은 신고서에 작성한 대로 두 마리뿐이었어. 게다가 펄만 씨는 위험인물이라 뤼네 아비에에서 추방당했는데 누가 움트헷을 부린단 말이야?"

"나도 모르지. 하지만 그 목소리를 낸 건 움트헷이 확실해. 그림자를 봤어."

"누군지 모를 사람이 움트헷에게 우리를 죽이라 시키고 심지어 학생을 찾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거구나. 이거 정말 재밌는데?"

"돌아가면 그웬에게 빈정거리는 법부터 배워. 못 들어주겠네."

몇 명인지 모를 영생자를 찾고, 어디 있을지 모를 학생 넷의 신변을 보호하고 어떻게 생긴 지도 모르는 움트헷까지 상대해야 한다니,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일이 쌓여만 갔다. 평소라면 하하! 귀찮아졌네! 잘해봐라. 멍청이들아! 하고 내뺐겠지만, 이건 내 일이니까 진지하게 임하기로 했다. 나는 브르뉴의 정치 암투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 정도는 복잡한 일 축에도 못 꼈다. 집중하기 위해 눈을 살짝 내리깔며 거미줄보다 얇게 마나를 뽑아 천천히 허공에 그물처럼 놓았다. 나를 중심으로 숲 전역에 펼쳐지는 마나의 그물은 깊은 바다를 유영하는 해파리처럼 우아한 움직임으로 너울댔다. 아이들 모두 마법사라서 다행이었다. 걸어 다니는 마나 뭉치 셋보다 확실한 지표가 또 있을까.

옐츠란은 물에 떨어진 잉크처럼 퍼지는 내 마력을 느꼈는지 얼굴을 구기며 끔찍한 냄새를 맡은 사람처럼 굴었다. 라무의 지하감옥에서 지겹도록 본 표정이었다.

"이건... 도대체 뭐야?"

남이 펼쳐놓은 마나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건 마법사에게 아주 불쾌한 경험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뭐가 좋을까. 그래, 꿀을 먹으려고 허니디퍼를 꿀단지에 넣었는데 그만 놓쳐버린 거다. 다시 집으려고 좁은 단지 입구에 손을 욱여넣는데 꿀과 설탕 과자같이 굳은 꿀이 덕지덕지 손등에 묻는다. 게다가 병 안에서 뱅뱅 돌던 허니디퍼 손잡이까지 온통 끈적거린다. 꿀을 겨우 다른 그릇에 푸는데 옮기는 동안 바닥에 줄줄 흘려버렸다. 심지어 그걸 모르고 발로 밟기까지 한다. 짜증이 난 상태로 단지 뚜껑을 닫다가 뚜껑을 놓치고 떨어진 뚜껑은 꿀이 묻은 쪽으로 바닥에 떨어지는, 그 정도의 불쾌함?

다시 생각해보니 그것보다 더했다. 맨 처음 다른 사람의 모쎌에 들어갔을 때 나는 꿀을 온몸에 끼얹은 줄 알았다. 무겁고 끈적이며 피부 위를 무언가 느리게 지나가는 느낌. 숨 쉬는 것마저 거슬렸다. 진짜 꿀이라면 적어도 달콤해지기라도 하지. 마도어로 모쎌로라 부르는 마나 장악을 당한 건 불쾌하기만 했다.

모쎌로는 마도시대에 쓰던 자연의 마나를 움직여서 이질적인 마나의 정보를 알아내는 대단위 탐색법이다. 모쎌의 개념을 모르고 체내의 마나만 다루는 현대의 마법사인 옐츠란은 처음 느껴보는 감각일 거다. 빈말로도 작다고 할 수 없는 숲 전체를 모쎌로 하는 건 한창 마법 문화가 찬란했던 시기에도 가능한 자가 드물었다. 그래, 나니까 가능한 거다. 영광인지도 모르고 옐츠란은 그렇게 하면 불쾌감을 떨쳐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거의 퍽퍽 소리가 날 정도로 온몸을 털어댔다. 거대한 모쎌을 볼 수 있다면 기분 나쁜 것도 잊고 넋이 나갔을 거다.

망망대해에서 발견한 등대처럼 아이들의 마나는 밝고 환했다. 장학생인 글린다의 친구라 그런지 다들 아카데미를 열심히 다녔나 보다. 마나처럼 미래가 환하고 밝은 아이들이군. 나는 좌표를 기억해두고 주변을 좀 더 살폈다. 안타깝게도 움트헷이나 영생자로 추정되는 마나는 찾을 수 없었다. 아마 움트헷은 자연의 영과 다를 바 없는 존재라 구분되지 않을 거고 영생자는 이 생물 저 생물 구분 없이 마나를 흡수해서 그럴 거다. 어떻게 보면 자연은 거대한 마나의 잡탕이니까. 원하는 좌표를 얻은 데다가 옐츠란이 자꾸 정신 사납게 몸서리를 쳐서 모쎌을 허물었다. 주인을 잃은 마나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광경은 얇은 실로 아주 곱게 짠 황금천이 하늘에서 너울대며 내려오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잠깐 나비의 날갯짓보다 가냘픈 모쎌의 움직임을 감상했다.

"뭐가 보여? 아까 그건 뭐였어?"

"너는 안 보일 거야. 이걸 못 보다니... 불쌍한 인생."

옐츠란은 내 말을 이해 못 하겠다는 듯이 고개를 흔들면서도 아무것도 안 보일 하늘을 계속 쳐다봤다. 그의 얼굴에 석양빛의 모쎌이 내려앉았을 때 우연인지 옐츠란은 눈을 감았다. 곧게 뻗은 콧대와 반듯한 눈썹뼈, 속눈썹에 닿은 모쎌은 놀란 반딧불처럼 파스스 흩어졌다. 아름다운 순간이 지나고 옐츠란은 중얼거렸다.

"방금 기분이 더러웠어. 누가 내 얼굴에 대고 방귀 뀐 느낌이야."

나는 잠깐 침묵했다.

"그 방귀 내가 뀐 것 같은데? 네가 느낀 게 내 마나야."

"아, 다른 사람의 마나는 이렇게 기분이... 아니, 잠깐만. 마법을 펼치지 않고 체내의 마나를 그냥 배출했다고? 그게 가능해?"

"배출이라니? 어감이 더러워."

적어도 상황을 따져가며 마법사 특유의 비사회적인 인격을 드러내리라 생각했는데 마도라이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옐츠란은 당장 종이와 깃펜을 꺼내 필기라도 할 기세였다. 으으, 눈이 부담스럽게 반짝여. 저게 미친 자의 안광인가.

"현재 나온 이론으로 불가능한 일을 네가 방금 한 거야. 진짜로 마나를 시전회로 형식에 따르지 않고 자연현상처럼 배출한 거라면 모든 게 발칵 뒤집힐 거야. 근간을 바꾸는 거라고."

"아무것도 뒤집거나 바꾸지 않을 거야.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잊었어?"

옐츠란의 눈이 천천히 가라앉더니 입을 꾹 다물었다. 조금 시무룩한 기색이었지만 아, 맞다. 하고 어린 생명을 잊은 티를 안 낸 게 어디야.

"애들이 있는 좌표를 기억해놨어. 따라와."

"그건 어떻게 찾은 거야?"

"내 방식대로."

나는 더 이상의 질문을 피하고자 일단 뛰었다. 옐츠란은 비장한 얼굴로 쫓아오며 내게 으름장을 놓았다.

"하루에 한 가지 질문 아직 안 잊었어. 페이퍼트로 돌아가면 안 재울 거야."

옐츠란은 자기가 하는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전혀 모르나 보다. 두 가지 뜻 중 좀 더 음란한 쪽으로 무심코 알아들은 나는 입을 오므려서 웃음을 참았다. 동정의 마법사에게 밤에 안 재울 거라는 소리를 듣다니,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라무에서 집필하면 제목만으로 인기를 끌 이야기잖아? '사실 제가 불멸자입니다만, 동정의 마법사에게 엄청난 말을 들어버렸습니다.' 제목에 내용이 다 들어가다니, 어마어마하군. 그래도 불티나게 팔릴 거다.

헛생각을 하면서 발을 놀리다 보니 뒤에서 쫓아오던 옐츠란의 인기척이 멀어졌다. 내가 얼마나 빠르게 뛰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도 쫓아오지 못하면서 같이 다니자고 징징대다니. 나는 허리춤에 손을 올리고 옐츠란이 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생각보다 더 거리가 벌어졌는지 이쯤이면 나타나겠지 하는 시간이 지나도 옐츠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얼마나 뒤처진 거야. 작게 투덜거리는데 날 부르는 옐츠란의 목소리가 들렸다.

"레티시아!"

목소리는 내가 지나온 길이 아닌 왼쪽에서 들렸다. 그새 길을 잘못 들었나 보다. 내가 대답하지 않자 옐츠란은 한 번 더 나를 불렀다.

"레티시아, 너 어디 있어?"

직접 찾으러 오란 말이군. 예 예, 제가 직접 가드려야죠. 무심코 발걸음을 옮기려는 찰나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혹시나 해서 옐츠란의 마나를 추적해봤다. 혹시는 역시였다.

옐츠란이 영 이상한 데로 가고 있는 건 맞지만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었다. 옐츠란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증스럽게 습하고 눅눅한 바람을 타고 나를 불렀다. 우리를 절벽으로 이끈 움트헷이 도망쳤다고 생각했는데 잠시 멀어졌다가 다시 쫓아왔나 보다. 부지런하고 할 짓도 없지.

내가 지나온 푹신하고 안정감 있는 땅과 다르게 온통 거슬리는 나무뿌리가 툭 불거진 땅을 걷다가 딱 옐츠란이 넘어진 것 같은 자리를 발견했다. 나는 콕 하고 신발 끝에 찍힌 땅과 두 무릎이 닿았을 법한 위치에 눌린 이끼를 보고 웃음을 터트렸다. 멀리서 움트헷이 다시 나를 유혹하려는 모양인지 누군가의 목소리로 웃었다. 숲에서 울리는 웃음소리는 다소 소름 끼치는 구석이 있었지만, 이 움트헷은 멍청한가보다. 그런다고 내가 이제 와서 속을 거라 생각하나?

옐츠란은 팔짱을 낀 채로 초조하게 제자리에서 찔끔찔끔 돌아다니다가 나를 보고 표정이 밝아졌다. 놈은 한쪽 눈을 찡그리듯 겸연쩍은 미소를 지었다.

"내가 숲에서 대책 없는 거 알잖아. 나뭇가지를 피하는 사이에 너를 놓쳐버렸어. 그러다가 이 쪽에서 네 목소리가 들려서..."

"멍청하게 나인 줄 알고 따라간 건 아니겠지."

"당연히 아니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떤 움트헷인지 파악하고 싶어서 일부러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움직인 거야. 꽤 가까운 곳에서 들리기에 조금만 가면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

나는 그의 무릎팍에 찍힌 이끼를 보고 코를 만지는 척 슬쩍 웃었다.

"그래서 봤어?"

"애초에 형태가 없는 것 같아. 그림자에서 소리가 나길래 숨어 있는 줄 알고 공격해봤지만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림자와 대화를 시도해봤는데..."

짧은 새에 호기심은 다 채웠네. 나는 팔짱을 꼈다.

"말까지 걸었어?"

"공용어를 알잖아."

옐츠란은 당연하다는 표정이었다.

"이지는 있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는 아닌가 봐.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들은 소리를 단순히 흉내 내는 것뿐이라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 못 하더라. 애초에 나를 불렀던 소리도 네가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 한 거라 네가 아니라 움트헷이라는걸 알아채기 쉬웠어. 어쨌든 그 움트헷이 우리를 죽이고 싶어 하는 건 맞아, 곳곳에 토끼 귀 풀이 깔렸더라고. 스치면 그대로 중독돼서 죽는 거지. 둘레에 들어가지 말라고 밧줄이 쳐져 있어서 다행이었지. 빠져나오다가 나를 쫓아온 움트헷의 그림자를 밟았는데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 감각을 느끼지 않나 봐."

옐츠란의 말로 판단하건대 결국 소름 끼치기만 할 뿐 별로 위험한 움트헷은 아니었다. 우리가 계속 무시한다면 아무런 해도 입히지 못 할 거다. 애들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엔 한눈팔지 말고 잘 따라와. 혼자 다른 곳으로 가면 버리고 갈 거야."

"마탑에서 있었던 상황이 반대로 전개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때 내가 한 고생을 알겠지?"

나는 라무에서처럼 실체화된 마나의 끈을 손에 팽팽하게 감아쥐었다. 힘주어 당기자 짜악 하고 가죽끼리 맞부딪치는 소리가 났다.

"목줄 매고 싶어?"

옐츠란은 질색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내 뒤로 바짝 붙었다.

"잘 따라가면 되잖아!"

내가 길잡이 노릇을 하자 다시 길은 여리고 부드러워졌다. 막 돋아난 새싹이 깔린 땅을 밟다 떠오른 생각에 옐츠란에게 넌지시 물었다.

"근데 움트헷의 그림자를 밟았다고? 움트헷의 그림자를 밟으면 남은 평생 불행하다는 말이 있잖아."

"되게 좋아하면서 말해주네. 그런 소리 못 들었어. 애초에 움트헷이 알려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너는 그걸 어디서 들은 거야?"

나는 움트헷을 처음 봤던 그림자 숲을 떠올렸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난 침엽수들, 인근 마을 사람의 우울한 얼굴까지도. 마을 전체에 떠도는 음울함에 '이런 부정적인 기운 때문에 움트헷 같은 게 생겨났을걸.' 하고 생각했었지.

"그림자 숲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야."

"거기는... 콸튼이잖아? 페르디낭에서 출발해도 한 달은 넘게 걸릴 곳인데... 여기저기 많이 다녔네."

그때는 콸튼이 아니었는데. 나는 옐츠란의 말에 음, 하고 대답 아닌 대답을 했다.

"그럼 여기 온 지 얼마나 된 거야? 네 얘기를 듣다 보면 나보다 이곳에 오래 산 사람 같아. 하긴, 나는 거의 마탑에서 지냈으니까 네가 여행을 더 오래 다녔겠지. 처음 만났을 때도 목적지 없는 여행을 하는 중이라 했잖아."

나는 했던 말 하나하나를 기억하는 성격이 아니었으므로 그 말을 떠올리는 데 한참 걸렸다.

"연애하려고 여행을 다닌다고 했잖아. 기억 안 나? 와, 별로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까마득하게 느껴진다."

"그러게."

옐츠란의 까마득함이 나의 까마득함 과 다를 거라는 생각을 하며 맞장구를 쳤다.

기억이란 신기하지. 몇십, 몇백 년 전 일이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기도, 바로 어제 일이 몇 년 전처럼 멀게도 느껴진다. 나는 옐츠란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뒤를 돌아 확인했다. 내게 바짝 붙어 따라오던 옐츠란이 멈춰 서서 숨을 골랐다. 그 꼴을 아래위로 훑으며 나는 입을 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귀찮은 일에 휘말리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옐츠란은 불퉁한 얼굴로 미간을 찌푸렸다.

"나도 그때까지만 해도 네가 싫었어. 절대 가까지 지내지 않겠다고 생각했지. 지금은..."

"죽으면 안 된다고 울 정도로 좋고?"

"내가 언제 그랬어? 말 지어내지 마."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에 머리카락이 한들한들 흔들렸다. 옐츠란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지금은..."

강함을 추구하며 살아온 인생, 그것도 980년이 지나자 시들해졌다.

지루한 하루하루를 살다가 어느 날, 모든 걸 다 해봤다고 생각했지만, 연애만 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집 밖으로 나간 그날 동정 미남 세 명을 만나게 되고, 다자연애를 하기 위해 계약을 한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마도 시대의 유물이 필요한데, 유물의 행방이 적힌 책 하권이 사라졌다. 책을 새로 구하기 위해 책의 도시 라무에 가지만 책 학살단 일에 휘말려 책을 구하는 걸 실패한다. 하지만 옐츠란이 소장하고 있던 책을 어디에다 뒀는지 기억해냈고, 그걸 찾기 위해 마법사 집회에 참여한다. 역시나 일은 순조롭게 풀리지 않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법사 집회가 열리는 아카데미의 학생이 실종되는 일이 발생한다. 레티시아는 과거에 외면했던 일과 연관이 있음을 깨닫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데...

"거기 누구세요?"

분명 별것도 아닌 소리를 하려고 옐츠란이 뜸을 들이는 사이 불안과 두려움이 섞인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기억해둔 좌표의 지척이긴 했지만, 움트헷의 장난질일 가능성이 있었다. 옐츠란도 학생들의 생사를 알게 됐다는 기쁨보다 달갑지 않은 의심이 앞선 표정이었다.

우리는 잠자코 침묵을 유지했다. 두려움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평정으로 가장한 목소리가 한 번 더 말을 걸었다

"저기요…?"

옐츠란은 눈을 살짝 찌푸리고 소리가 들리는 쪽에 외쳤다.

"거기... 아카데미 학생이야? 그렇다면 이쪽으로 와볼래?"

"사람 맞아요? 선생님이에요?"

질문에 돌아온 질문은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다.

"제발 이쪽으로 와서 저희 좀 구해주세요! 지금 저희가 그쪽으로 갈 수 없어요!"

옐츠란은 콧잔등을 찌푸리며 중얼거렸다.

"저렇게 말하는 게 더 불안한데... 왜 유인하는 거 같지? 역시 움트헷인가... 넌 어떻게 생각해?"

고개를 치켜들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때마침 바람이 저쪽에서 이곳으로 불어왔다. 풀 냄새 사이로 섞인 인간 냄새. 도저히 착각할 수 없는 인간 특유의 냄새다.

"사람 냄새가 나는데..."

"그런 게 난다고?"

옐츠란은 킁킁대다가 모르겠는데, 하고 나를 쳐다봤다. 그는 잠깐 불가사의한 생물을 보듯 나를 파악하려 노력하다가 고개를 돌렸다.

옐츠란은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를 냈다.

"왜 이쪽으로 올 수 없다는 거야?"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옐츠란이 땀을 닦다가 아까부터 달고 다니던 이파리를 떼어냈다.

천이 스치는 소리와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흙이 밟히는 소리가 예민한 청각에 잡혔다. 자연스레 풀숲에 누워서 뒹구는 사람이 연상됐다.

"도와주세요! 지금 저희 팔다리가 묶여서..."

소년의 말에 한껏 소리를 낮춘 소녀가 질책하는 어조로 속삭였다.

"야,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아예 저는 지금 아무것도 못 하는 멍청이예요 하고 말하지?"

"어? 그건 네가 말한 거다?"

"나는 속삭이는 거고 너는 소리 질렀잖아. 어차피 저쪽에 안 들릴걸. 그게 같진 않지."

"아니, 그러면 여기서 평생 이러고 있을 거야? 방법이 없잖아."

곧이어 씩씩대는 소리랑 작게 내지르는 비명이 들렸다. 소년이 "내 얼굴 밟지 마!" 하고 부정확한 발음으로 외쳤다. 이런 난장판까지 움트헷이 따라 할 수 있을까? 모든 대화를 듣지 못한 옐츠란이 "비명이 들리는데?" 하고 살짝 걱정스러운 어조로 중얼거렸다. 나는 아직도 책임을 전가하느라 바쁜 목소리의 주인공이 궁금해졌다. 손발이 묶인 상황에서 남 탓하기 바쁘다니, 여유가 넘치네.

덤불 몇 개를 넘어 가보니 간지럼 덩굴에 묶인 채 바닥에 나동그라진 학생 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올려다 봤다. 한 명은 남자아이의 얼굴에 발을 올려놓느라 반대편을 쳐다보는 중이었다. 셋 다 팔과 다리가 한 데 묶인 개구리처럼 우스꽝스러운 자세였다.

"헉, 너 그 번개 내린...! 어엇! 예..옐츠란님!"

"뭐?"

소년의 아마도 쇼비일 얼굴에 양발을 올리고 있던 미나가 몸이 뒤집힌 거북이처럼 버둥대가 소비의 얼굴을 발로 밀어 겨우 몸을 돌렸다.

"아파파파!"

셋 중에서 가장 어린 실비아가 입술을 꾸물꾸물하다가 울음을 터트렸다. 아는 얼굴을 보니 마음이 놓였나 보다. 나와 눈이 마주친 미나가 "엘리!" 하고 반가운 내색을 했다.

기가 차는군. 불편한 자세로 바닥에서 꼼짝도 못 하는 꼴을 보니 헛웃음이 나왔다.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쇼비가 민망한지 몸을 어떻게든 바로 세우려다 다시 나동그라졌다. 미나는 안녕? 오랜만이야. 하고 이 상황에 나에게 인사했다. 실비아는 숫제 경보처럼 애애앵 하고 울음을 쏟아냈다.

"글린다의 목소리가 들려서 이쪽으로 왔는데 갑자기 덩굴이 우리를 공격했어."

아까 그 움트헷 짓인가 보군. 그렇다면 이 정도로 끝난 게 다행이다.

"갑자기? 갑자기라고?"

쇼비는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얼굴로 미나를 쳐다봤다. 미나는 그 눈빛에 못 이겨 진실을 실토했다.

"그래, 내가 먼저 좀 만졌어. 야, 그걸 굳이 콕 짚고 넘어가야 해? 친구의 허물은 덮고 넘어가야지."

쇼비는 불만 가득한 얼굴로 입술을 삐죽였다.

"그냥 내가 말을 말지."

대화 흐름이 묘하게 익숙한데? 특히 쇼비의 불퉁한 말투에 누군가가 떠올랐다. 난 슬쩍 옐츠란을 쳐다보았지만, 놈은 늘 그랬듯 아무 생각도 없어 보였다.

"옐츠란님! 저희를 구하러 와주신 거죠?"

쇼비가 기대와 존경을 담은 눈빛으로 옐츠란을 올려다 봤다. 옐츠란이 뭐라고 대답하기 전에 나는 아직도 큰 소리로 경보를 울리는 실비아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조용히 하지 않으면 몬스터 먹이로 던져 줄 거야."

실비아가 겁먹은 얼굴로 훌쩍댔다.

"여기 몬스터 없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아냐, 아까 봤어. 우린 도망치다가 여기로 온 거야."

뽀얗고 통통한 볼을 씰룩이다가 실비아는 아까보다 더 크게 울었다. 나는 안타깝다는 듯이 한숨을 쉬었다.

"넌 어리니까 살이 부드럽고 연해서 더 좋아할 거야. 울음소리를 듣고 금방 찾아올걸? 몬스터가 얼마나 소리에 민감한데."

실비아는 울음을 참느라 얼굴이 터질 듯 새빨개져서 입을 꾹 다물고 도리질을 쳤다. 아니야! 아니야! 하는 눈빛이었다. 옐츠란이 한숨을 내쉬었다.

"너 왜 그렇게 못됐어?"

나는 굽혔던 무릎을 펴며 일어섰다.

"그냥, 귀엽잖아."

옐츠란은 전혀 이해 못 하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내저었다.

우는 와중에 그 말을 들은 것인지 실비아는 나 안 귀엽거든? 놀리지 마! 하고 앙앙댔다.

"저기, 풀어줄 거면 빨리 좀 해줄래? 이대로 온몸이 굳어버릴 것 같아."

쇼비가 불퉁한 얼굴로 툴툴댔다. 맡겨놓은 짐을 찾는 듯한 태도에 불쑥 짜증이 솟았다. 지금 누구 때문에 시간만 낭비하는데? 어린아이의 투정이라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난 못된 게 맞나보다. 그냥 넘어가긴 싫었다.

나는 일부러 아이들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내 침묵이 길어지자 아이들이 불편한 얼굴로 눈치를 살폈다.

"괘씸한데."

번거로운 일을 만들고도 일말의 죄책감도 없다니. 물론 그동안 벌벌 떨었겠지만 내가 보지 못한 고생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나 마찬가지다. 나는 아이에게 진짜 부모는 따로 있다고 장난을 치는 고약한 어른처럼 거짓 으름장을 놓았다.

"그냥 얘네 그대로 두고 갈까? 겨우 간지럼 덩굴에 꼼짝 못 할 거면서 경계의 숲에 들어와? 죽어도 괜찮다는 뜻 아냐?"

그동안 같이 다녔다고 눈치가 생긴 것인지 옐츠란은 잠깐의 침묵 뒤에 차분해서 진짜 같은 목소리로 맞장구를 쳤다.

"그러게. 이대로 두고 가면 아무도 모를걸."

옐츠란의 태도가 너무 진지해 보이자 진짜인가 싶어서 살살 눈치를 보던 쇼비와 미나의 표정이 안 좋아졌다.

"우리, 아니 저희 구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말했어?"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는 듯한 내 태도에 애들은 옐츠란에게 시선을 돌렸다. 옐츠란은 입만 다물면 워낙 차가운 인상이라 '어쩌라고? 몬스터도 먹고 살아야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옐츠란은 고고한 시선으로 아이들을 내려다보다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고개를 휙 돌렸다. 어설픈 연기가 들킬까 봐 시선을 회피했겠지만, 아이들 눈엔 그게 아니었을 거다.

쇼비는 애처로운 목소리로 옐츠란님을 두 번쯤 불렀다. 실비아는 우는 것조차 잊고 입을 꾹 오므리고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옐츠란이 고갯짓으로 나를 가르쳤다. 너희가 잡아야 할 동아줄은 쟤야. 하는 뜻이었겠지만 나와 눈이 마주치자 갑자기 목이 뻐근한 척 목운동을 했다.

그것만으로 미나는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는지 재빠르게 알아챈 모양이다. 갑자기 내게 애원하기 시작했다.

"엘리... 엘리맞지? 우리 좀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있는지 한참 된 거 같은데... 아직 지나가는 사람을 보지 못했거든. 너랑 옐츠란님 빼고 말이야. 그냥 가면 이대로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몰라... 제발 도와줄래...요?"

"뭐... 얼마 안 기다려도 될 거야. 해가 뜨면 누군가 찾으러 오겠지."

내가 계속 짝다리 짚은 채 심드렁한 태도를 보이자 옐츠란이 은근히 눈치를 줬다. 하여간 남자들이란. 보채는 것도 자기 할 일이라 생각하나 봐. 세상일엔 다 순서가 있는 법이고 그 법도를 내가 꿰고 있거늘.

"제발..."

미나가 둘의 몫까지 애원한 탓에 나는 못 이기는 척 입을 열었다. 어차피 여기서 노닥거릴 시간도 없다.

"그 식물의 이름이 뭔지 알아?"

"뭐? 무슨 식물? 아 이 덩굴? 모르는데..."

"아카데미에서 안 배워?"

"어? 식물학 수업이 있긴 한데...선택 과목이라... 보통 식물학은 선택 안 하지. 전공 학생 아닌 이상..."

미나는 내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영문을 모르는 얼굴이었다. 쇼비나 실비아도 다르지 않았다.

"그놈의 전공. 전공이 지금 마법사들을 다 망쳐놨어."

나는 투덜거리며 미나 옆에 한쪽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칭칭 감긴 줄기를 헤집으니 굵은 가지에 열매처럼 매달린 덩굴의 배꼽이 보였다. 어린아이 주먹 정도 되는 크기의 배꼽을 살살 긁으니 간지럼 덩굴은 정말 간지러운 듯 꿈틀대다가 스르륵 저절로 풀렸다.

"어? 어...?"

밧줄처럼 꽉 묶여있던 것이 스스로 풀리자 미나는 허무와 안도가 뒤섞인 표정으로 덩굴을 쳐다봤다.

"어떻게 한 거야?"

"간지럼 덩굴은 원래 배꼽을 간지럽히면 풀려."

"배꼽...뭐?"

나는 같은 방법으로 쇼비와 실비아를 풀어주며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었다. 셋 다 허탈하고 지친 표정으로 묶여있느라 피가 안 통했던 부위를 주물렀다.

"이걸 몰라서 여태 묶여 있었다니..."

옐츠란이 쇼비가 깔고 앉은 팻말을 엉덩이 아래서 꺼냈다. '간지럼 덩굴 주의' 하얀 페인트로 눈에 띄게 글씨가 적혀있었다. 옐츠란은 팻말을 아마 본래 있었을 자리에 꽂아 넣었다. 쇼비가 웅얼거렸다.

"저렇게 적어둔다고 누가 알아... 풀려나는 법을 적어줘야지."

미나와 실비아가 억울한 표정으로 맞아, 맞아. 하고 맞장구를 쳤다. 옐츠란이 고개를 저었다.

"얕은 식물학 지식만 있었다면 누구든 알았을 거야. 공부는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해야지. 생존에 관련된 거면 더더욱 그래야 하고. 선택과 집중은 다른 거야."

라고 마도라이가 말했다. 내 눈빛을 보고 찔리는지 옐츠란이 말을 덧붙였다.

"...교수님이 이런 말 자주 하셨지?"

"네에..."

꽤 인정받는 어른에게 잔소리를 들은 학생들은 풀이 죽은 얼굴이었다. 굉장히 교육적인 분위기지만 한가롭게 이럴 때가 아니었다.

"쇼비, 네가 쫓기고 있는 글린다를 봤다고 했지? 얼마큼 자세히 본 거야?"

미나가 "역시 우리와 글린다를 구하러 온 거구나!" 하고 중얼거렸다.

"내가 그 옆에서 달리고 있는 것처럼... 나는 친할수록 예지몽이 선명해지거든. 시간대는... 해 뜨기 전 같았어. 이끼가 낀 큰 나무뿌리가 많고...비가 내린 것처럼 땅이 축축하고 보라색 버섯이 핀 곳. 글린다가 잠옷 차림으로 계속 뛰었어.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그게 뭔지는 못 봤어. 글린다 표정이 되게... 그런 표정은 처음 봤어. 엄청 무서워했어."

쇼비가 글린다의 혼란을 같이 느끼는 것처럼 두서없이 설명하는 동안 미나는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건지려는 사람처럼 간절한 표정을 지었다. 옐츠란이 쇼비에게 물었다.

"그림자는 봤어? 쫓아오는 생물의 그림자."

"아니요, 어두워서 그림자는 안 보였어요."

"어두워서 그림자가 없었던 거야? 못 본 거야?"

"잘 모르겠어요..."

"지나가다가 꿈속에 나온 장소를 보면 알아볼 수 있어?"

쇼비는 손톱 끝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다 너무 비슷해서..."

옐츠란이 한숨을 참으려는 듯 고개를 돌리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예언마법은 마법 중에 제일 제멋대로라 애초에 별 정보를 기대하지 않았다. 예언마법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모릅니다. 그다음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일 거다. 마법을 직접 시전하는게 아니라 마법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린다니, 이 얼마나 비 마법적이고 미개한 술법인가.

"그럴 필요 없어. 내가 글린다의 마나를 추적 중이야."

내 말에 다들 모든 일이 해결된 것 같은 얼굴을 했다. 쇼비가 어리둥절한 어조로 그런 게 가능한가...? 하고 중얼거렸다.

눅눅함을 머금은 바람이 불어 나무들이 쏴아아 하고 몸을 떨었다. 아침 안개는 여전히 꺼림칙하게 발목 부근을 돌아다녔다.

"옐츠란, 네가 애들을 데리고 숲 밖으로 나가."

옐츠란은 뜻밖의 소리를 들은 사람처럼 나를 쳐다봤다.

"애들을 계속 데리고 다닐 순 없잖아. 아니면 진짜 여기다 두고 가게?"

"우리 잘 따라다닐 수 있어."

뭣 모르는 실비아가 주먹을 불끈 쥐고 말했다. 한입에 꿀꺽 삼킬 수 있을 만큼 작고 하얀 손이다. 쇼비도 한마디 거들었다.

"맞아, 나 전투마법도 좀 해."

이제 네 차례겠지.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쳐다보자 미나는 전혀 엉뚱한 말을 했다.

"그런데 엘리... 너 뤼네 아비에 학생이 아니지? 정체가 뭐야? 깊게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학생 중 번개를 내릴 만큼 강한 애가 있었으면 진작에 소문이 났겠지. 근데 글린다가 소개해주기 전엔 한 번도 엘리를 본 적 없단 말이야? 너희 이렇게 화려한 금발에 녹안을 가진 학생을 본 적 있어?"

실비아와 쇼비는 고개를 저었다.

"게다가 옐츠란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

미나는 손가락질로 나와 옐츠란을 가리키다가 황급히 손가락을 접었다.

"그... 누구세요? 혹시 마...마탑의 마법사님...?"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아까 잡아 두었던 마나를 거슬러 올라갔다. 글린다의 마나는 힘차고 빠르게 이동 중이다.

"살아 있는 글린다를 만나고 싶은 건 맞지?"

"네? 네..."

"그러면 넷 다 잔말 말고 기숙사로 가서 얌전히 기다려. 내 말에 따르지 않으면 글린다의 목숨은 없다."

정말 그럴 것 같았는지 아이들은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다. 옐츠란은 황당한 목소리로 '무슨 납치범이냐' 하고 중얼거렸다.

"애들이 나가고 싶어 하면 숲이 길을 열어주겠지. 얘네가 가고 싶어 하는 방향으로 가."

나는 손을 훠이훠이 내저었다. 군더더기 없이 여기서 헤어지자는 뜻이었지만 옐츠란은 발이 땅에 박힌 사람처럼 꿈쩍하지 않았다. 얼굴에서 차마 감추지 못한 걱정이 묻어났다. 평생치 걱정을 어제오늘 다 하겠네.

"넷이라고 했어. 옐츠란. 어차피 있어봤자 방해만 되잖아."

"그건 절실히 느꼈지만..."

절실히 느꼈다니 다행이네.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구는 옐츠란 때문인지 나는 평소라면 하지 않을 말을 입 밖으로 꺼내고야 말았다.

"너무 걱정하지 마. 괜찮아, 무사히 돌아갈게."

내가 말하고도 잠깐 어리둥절한 기분이 들었다. 데블랑한테나 겨우 내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왜 갑자기 나왔지?

옐츠란은 조금 얼떨떨한 표정을 짓다가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아마 웃음을 참느라 그랬을 거다. 건방진 놈.

옐츠란 뒤에 서 있던 미나가 옐츠란 얼굴을 올려다보더니 입을 오목하니 모으고 광대를 주체 못 한 채로 나를 쳐다보았다. 급기야 눈동자를 도륵도륵 굴려 나와 옐츠란을 번갈아 보고 고개를 끄덕인 다음 윙크까지 한다. 마그네슘 부족으로 눈꺼풀이 떨리는 게 아니라면 단단히 오해한 것 같은데...

나는 미나에게 싸늘하게 엄지로 목 긋는 시늉을 했다. 대충 뭐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지. 미나가 황급히 눈을 내리깔았다. 역시 이 수신호는 안 먹힌 적이 없다니까.

갈 방향을 정하라는 옐츠란의 말에 셋은 이러쿵저러쿵하더니 미나가 결국 방향을 정했다. 가장 아카데미를 오래 다녔으니 숲이 얼굴을 알지 않을까 하는 터무니 없는 이유였다.

나는 넷이 떠나기 전, 마지막 경고를 했다.

"혹시라도 너희를 부르는 내 목소리가 들린다면... 못 들은 척해."

"네? 왜요?"

"그건 내가 아니니까."

"무슨 말이에요?"

"글린다의 목소리도 마찬가지야. 네가 아는 그 누구의 목소리건 그 사람이 아니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건 아니었지만, 자연스레 스산한 바람이 깔렸다. 실비아는 미나 옆으로 가서 손을 꼭 잡았다. 미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왜 그러는 거예요? 무서워요..."

미나는 자연스레 옐츠란을 구원자처럼 바라봤다. 얼결에 시선을 받게 된 옐츠란은 나를 책망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잠깐의 고민 후에 대답했다.

"아직 파악하지 못한 특성이 있는 움트헷이 이 숲에 있어."

평소의 퉁명스러운 어투가 아닌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놀라게 하지 않으려는 옐츠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예민한 고라니처럼 화들짝 놀랐다.

"움트헷? 그 움트헷이요?"

루루와 샤샤를 겪었던 둘은 사색이 되었고 쇼비만 불안과 호기심이 섞인 얼굴로 뭔데? 하고 속닥거렸다.

"걱정처럼 그렇게 위험한 종류는 아냐. 우리를 죽이고 싶어 한다는 점만 유의하면 돼."

혁신적인 문장 구사에 셋은 어리둥절한 표정이 되었다. 옐츠란의 말은 별 것 아닌 투로 안심시키려는 의도가 지나쳐서 하자 있는 물건을 파는 사기꾼의 말처럼 신빙성이 떨어졌다. '아주 약간의 부속품이 모자란 마차를 팝니다! 바퀴와 몸체만 따로 달아주세요!'

장사꾼이 된 옐츠란의 모습이 실없이 떠올랐다 사라졌다.

이젠 옐츠란이 못 미더운지 미나의 시선이 자연스레 나를 향했다. '저 사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는 건가요?' 미나는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전달할 만큼 표정이 풍부했다.

"움트헷이 뭔데요? 뭔데 우리를 죽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쇼비가 상황에 맞는 질문을 던졌다. 단지 대답해줄 사람이 없었을 뿐.

저마다의 이유로 입을 열지 않자 쇼비가 질문을 던진 순간 오히려 고요가 찾아왔다. 갑자기 들어찬 침묵은 불청객처럼 어색하게 자리를 잡았다.

불편함을 견디지 못한 미나와 쇼비가 동시에 "좋아, 짧게 설명해줄게." "나중에 설명해주셔도 돼요."라고 말하자마자 저 멀리서 세상이 유리 파편에 찔리는 것처럼 날카롭고 끔찍한 비명이 났다. 수십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비명을 지르는 듯 중첩된 소리였다. 높고 얇은 비명에 칠판을 긁는 소리를 합친 것처럼 듣기 거북했기에 우리는 동시에 눈살을 찌푸렸다. 소리는 돌림노래처럼 계속 이어졌고 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귀를 막고 정신 나간 얼굴로 두리번거렸다.

나는 하늘을 쳐다봤다. 깃털을 가진 것들이 내는 파공음. 퍼득거리는 소리는 단순한 날갯짓이 아니라 포식자에게 도망치려는 몸부림이었다. 쇼비는 귀를 막은 채 두려움에 새빨개진 얼굴로 소리를 질렀다.

"저게 움트헷 소리야?"

이번에는 굳이 대답할 필요 없었다. 공포에 찬 새들이 잠깐 그늘을 드리울 만큼 하늘을 가득 채우며 저쪽에서 이쪽을 지나쳐 날아갔다. 새들은 여전히 그 째지는 비명을 지르며 멀어졌다. 괴상한 소리가 새소리였다고 해서 안심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가만히 있다간 우리가 비명을 지를 차례였다. 무엇인지 몰라도 그것은 우리 쪽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나무가 넘어지며 땅을 쿵쿵 울려댔고 발바닥에 진동이 전해졌다. 이상하게 뭐가 다가오는지 아무리 노력해도 보이지 않았지만, 겁에 질린 채 굳어있는 아이들의 얼굴은 잘 보였다.

"일단... 뛰어!"

"일단... 뛰어!"

내 말이 출발 신호라도 된 것처럼 바로 뒤의 나무가 우지끈 처참하게 부서졌다. 재촉의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다들 마법사 생애 가장 격한 달리기를 시작했다. 사실 비참한 속도의 경보에 가깝다.

마음 같아선 비행마법으로 전부 끌고 가고 싶지만, 그조차 쉽지 않았다. 장애물이 많은 숲에서 다중의 비행마법을 실행한다면 모든 게 끝났을 때쯤엔 인간 대신 개에게 물어뜯긴 너덜너덜한 헝겊 인형 같은 게 남아있을 거다.

뭐, 솜 대신 내장 같은 게 좀 나와 있겠지.

나는 일부러 속도를 늦추어 제일 뒤에서 달렸다. 낙오자가 실패한 반죽이 되는 상황은 내 선에서 방지해야 하니까. 등 뒤가 따끔따끔할 정도로 소름이 돋았다. 무언가 확실히 있다. 죽음이 가까워질 때의 감각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성가시니까.

뒤를 돌아보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움트헷 대신 장정 몇이 매달려서 겨우 베어 넘길 나무가 잔가지처럼 부러지는 풍경이 보였을 뿐이다. 애초에 형태가 없는 건가?

예상대로 가장 어린 실비아가 조금씩 뒤처졌다. 실비아는 훌쩍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엉엉 울고 있었다. 시야를 가리지 않으려고 눈물을 짜내가며 우는 얼굴은 필사적이었다. 용케 넘어지지 않았지만, 길이 살짝 내리막길이라 달리는 게 아니라 미끄러진다는 표현이 맞지 싶다. 저러다가 어디에 걸리면 굴러서 처박힐 거다. 마침 바닥은 넘어지기 딱 좋게 나무뿌리들이 삐죽빼죽 두더지처럼 솟아있었다.

"안돼! 못하겠어요! 엄마…!"

실비아는 비명을 지르며 헐떡였다.

과호흡으로 먼저 죽을 판이라 나는 실비아가 달리는 속도를 맞춰 말에서 다른 말로 넘어가는 곡예사처럼 요령 좋게 실비아를 들쳐 안았다.

갑자기 내게 안긴 실비아가 비명을 지르다가 이내 답싹 붙었다. 내 목을 끌어안은 실비아의 팔이 떨리는 게 느껴졌다. "엄마... 엄마..." 하는 울음소리도.

"아빠는 왜 안 불러? 섭섭하겠네."

실비아가 너무 무서워해서 긴장을 풀라고 한 농담이었지만 실비아는 이제 목놓아 아빠를 부르면서 울었다. 귀가 따갑다.

쇼비와 미나는 생각보다 잘 뛰었다. 옐츠란은 나처럼 일부러 속도를 늦춰 쇼비와 미나 뒤에서 쳐지는 사람이 없도록 재촉했다. 급하게 뒤를 돌아본 옐츠란의 시선이 나를 잠깐 거쳤다가 내 뒤를 향했다. 뭐가 우리를 쫓아오는지 정체조차 파악하지 못한 표정이다. 나는 실비아를 안고 달리는 속도를 유지하면서 뒤돌아보는 묘기를 선보였다. 역시 없네.

"투명한 건가?"

혼잣말이었는데 소리지르는 것을 멈추고 훌쩍거리던 실비아가 대답했다.

"쿠와흠 아니에요?"

"그게 뭔데?"

콧물을 마시는 소리가 섞이긴 했지만, 실비아는 대답했다.

"그러니까... 산사태를 일으키는 괴물 말이에요. 킁. 엄마가

..흐잉. 엄마가 말해준 건데 산사태를 일으키는 괴물이 있댔어요. 그 괴물 때문에 산사태가 생기는 거라고... 모습은 안 보이는데 엄청나게 크고 무섭다고 했어요. 쿠와흠이 쫓아오면 결국엔 잡히고 만다고... 크흥."

움트헷은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의 모습을 취하니 저게 쿠와흠이라는 대충 지은 것 같은 이름의 괴물일 가능성이 컸다.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똑바로 달리지 말고 옆으로 꺾어야 해요. 그다음 쿠와흠의 머리에 올라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비아는 그러니까 만 반복하다가 기억이 안 난다며 다시 훌쩍거렸다.

나는 옐츠란 옆으로 나란히 섰다. 실비아의 말을 전혀 듣지 못한 얼굴이었다.

"하나 둘 셋 하면 갈라지자. 너희는 그대로 뛰어. 난 옆으로 꺾을게."

절대로 나만 살겠다는 뜻이 아니다.

추측이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 미끼를 약간 풀어놓는 것뿐이다. 그렇기에 내 얼굴은 아주 당당했다. 옐츠란이 의심 없이 대답했다.

"알았어."

"하나... 둘."

나는 약속과 다르게 둘까지 세다가 그만두고 바로 방향을 틀었다. 찰나의 순간에 방향을 바꾸는 게 어차피 나뿐이라면 숫자를 셀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실비아를 꼭 붙잡고 조금 속력을 높여 뛰자 쉬이익하는 성난 바람 소리와 함께 뒤를 쫓아오던 무언가의 기운이 멀어졌다. 예상대로 저것은 나를 쫓아오지 않고 옐츠란들을 그대로 쫓아갔다. 정말 쿠와흠이라서 그런 것인지 미끼를 쫓아가는 것인지 지금부터 확인해봐야겠지만.

나는 적당한 곳에 실비아를 내려주고 가만히 있으라고 당부했다. 실비아가 미나와 쇼비,옐츠란은 어떻게 되는건지 물었지만 대답해주지 않았다. 죽기야 하겠어? 옐츠란이 있는데.

나는 팔을 앞으로 교차해 얼굴을 가린 채 나뭇가지들을 삽시간에 뚫고 하늘 위로 떠 올랐다. 파사사삭. 잎사귀들이 여지없이 비명을 질러댄다. 제대로 가려지지 않은 볼이 따끔거렸다. 엄청 긁혔겠군.

정체를 알 수 없는 그것은 생각보다 더 거대했다. 쿠와흠이 맞겠지? 머리가 있을 법한 위치는 까마득히 높아 구름을 가르고 발... 어쩌면 몸통이 있을 곳은 대재앙이라도 맞은 것처럼 숲이 움푹움푹 파였다. 산사태보단 철퇴에 가까운데 진짜 쿠와흠이 맞나?

나는 일단 빛의 화살을 쏘아보았다. 저 밑에서 옐츠란 네가 개미처럼 빨빨거리고 있으니 다른 자연 마법보다 안전한 선택이었다. 빛의 화살이 그대로 통과해 저 멀리 사라졌을 땐 그다지 좋은 선택은 아니었단 걸 깨달았지만 말이다.

혹시라도 하늘을 날아가다가 내 화살에 맞는 사람이 있다면 미리 묵념. 당신이 재수 없던 탓이니 이해해라.

숲 밖은 평화로운 아침이 한창이라 구름 속에서 금방 머리로 짐작 가는 위치를 찾았다.

"여기가 머리 맞겠지?"

머리가 엉덩이에 달려있다든가 그런 불상사는 없길 바란다. 밑에 무엇이 있을지도 모르면서 딛고서야 한다는 건 뱃속이 울렁거리는 불쾌감을 동반했다.

구름을 가르고 지나가는 뻥 뚫린 공간을 얼굴을 구긴 채 내려다보았다. 저 아래로 여전히 부서지는 나무들이 보였다. 죽을 만큼 위험하지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게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지. 나는 불쾌감을 억누르고 천천히 쿠와흠의 머리 위에 내렸다.

쿠와흠은... 대머리군. 기분 나쁘다.

나는 일단 대부분의 상황을 종결시켜주는 마법의 도구를 검집에서 꺼냈다. 말없이 찔러만 주면 상황이 깔끔하게 해결됐으니까 이번에도 시도해볼까.

빛의 화살은 통과 시켰는데 발로 딛고 선 채 검을 찔러 넣을 수 있는 물리적 입체감의 아이러니를 생각하며 간만에 힘을 썼다. 의외로 찔러 넣는 느낌은 평범하게 사람이나 동물을 찌를 때와 같았다. 익지않은 고기를 자르는 느낌. 가드부분이 닿을 때까지 푹 찔러 넣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나는 검을 뽑아 두어번 더 쑤셔보았다. 멀쩡하군. 어쩌면 쿠와흠은 너무 거대해서 내가 찔러봤자 모기의 침처럼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다.

무식한 방법은 통하지 않을 것 같으니 마법사다운 현명한 접근을 해봐야겠다. 움트헷은 주로 옛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귀신이나 괴물의 외형과 특성을 지니는 만큼 약점도 동일하다. 천둥을 보고 신의 분노라고 생각했듯 산사태를 쿠와흠이라고 옛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다. 그건 산사태를 막는 방법이 쿠와흠을 죽이는 방법과 같다는 말이다.

하지만... 도대체 산사태를 막는 방법이 뭐지? 산사태를 겪어보긴 했지만 막아본 적은 없어서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농부라도 둘이면 성벽을 지킨다고 갑자기 옐츠란이 아쉬워졌다. 들들 볶으면 뭉툭한 수쯤은 내놓을 텐데.

음, 좋아. 그렇게 해야겠군.

남아도는 게 힘뿐이라 나는 일반인이면 떠올리지 못할, 거대한 마력이 필요한 방법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산사태는 거의 폭우 때문에 생기니까 그냥 폭우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 거야."

누군가에게 설명하듯 허공에 혼잣말했다가 머쓱한 기분이 들어서 나는 턱을 매만졌다. 그게 무슨 뜻인지 되묻는 사람이 없는 게 어색했다. 벌써 이런 게 익숙해지다니.

쿠와흠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짚자 반들반들한 촉감이 느껴졌다. 기분 나쁜 대머리.

대머리에 대한 생각을 떨치려고 노력하며 손가락 끝으로 마법 수식을 그렸다. 생활 마법 중에 빨래를 잘 말려주는 탈수 마법이 있는데 잘 응용해 무식하게 마나를 쑤셔 넣으면 어떻게든 될 거다. 안 되면 바람을 날리고, 불로 태우고, 마력 끈으로 묶어봐야지. 하나쯤은 먹히겠지.

생활 마법은 성의 없이 적어야 성공확률이 올라가는 특이성 때문에 나는 낙서처럼 대충 끄적거린 다음 마법을 발동시켰다.

뜨거운 물이 가득 담긴 욕조에 들어갔을 때처럼 소름과 약간의 탈력감이 느껴지며 마력이 뭉텅이로 빠져나갔다. 나는 갑자기 추위를 느끼는 사람처럼 몸을 부르르 떨어 마나를 회복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단단하게 나를 받쳐주던 쿠와흠의 대머리가 무너지는 게 느껴졌다. 모래로 된 언덕 위에 올라선 것처럼 발밑의 것들이 스르륵 흘러내렸다.

쿠와흠에서 빠져나온 물방울이 비가 내리는 풍경을 거꾸로 되돌린 것처럼 지면에서 하늘로 사라지는 모습은 꽤 장관이었다. 수많은 물방울이 아침 햇살을 반사해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다. 나는 급하게 뛰어내리지 않고 저 멀리 생기는 무지개와 구름을 바라보며 서서히 낮아지는 고도를 즐겼다. 덕분에 악당의 극적인 등장처럼 옐츠란과 아이들 앞에 미끄러지듯 내려섰다.

"아직 안 죽었네."

옐츠란은 등에 업은 미나를 내려놓으며 헐떡였다. 어떻게 된 건지 묻고 싶은 얼굴이었지만 그걸 물을 여유는 없어 보였다. 그는 옷을 펄럭거리며 동시에 땀을 닦았다.

쇼비와 미나는 헛구역질을 어찌나 해대는지 진짜로 토하기 전에 이 자리를 빨리 떠서 실비아를 데려와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나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눈살을 찌푸렸다.

"일단 실비아를 데리고 올게."

그 자리에 봉인된 사람처럼 얌전히 기다리고 있는 실비아를 데리고 다시 갔을 땐 상황이 많이 나아져 있었다. 바닥에 앉아 물주머니 하나로 돌아가면서 목을 축이던 셋은 인기척을 느끼고 이쪽을 쳐다봤다. 군데군데 무언가를 흙으로 덮어놓은 흔적이 보였다. 생각하기도 싫군. 나는 흙구덩이에서 최대한 멀찍이 떨어져 섰다.

실비아는 내려놓자마자 쪼르르 달려가 미나를 얼싸안았다.

옐츠란은 땀에 젖은 머리를 손으로 거칠게 뒤로 쓸어넘겨 고운 이마와 눈썹을 훤히 드러내고 있었다.

"어떻게 처리했어?"

"탈수 마법으로."

옐츠란은 내 말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생명체에는 발동이 안 되잖아."

"몰라. 되던데?"

"왜 되는 거지? 게다가 저 크기에...탈수 마법을 사용했다고?"

탈수 마법은 마나를 탈탈 턴다고 해서 탈수 마법이라 불린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옐츠란은 내가 초월자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처럼 나를 바라봤다. 나의 위대함을 이제 알았냐?

상기된 혈색과 열망을 띤아마도 마법에 대한 눈동자가 합쳐지자 첫사랑에 빠진 데블랑의 표정과 닮아 보여 슬그머니 웃음이 나왔다.

그래, 이런 반응이지. 나는 묘한 만족감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나한테 반하지 마."

내가 왜 그러겠냐고 노발대발할 줄 알았는데 그럴 힘도 없는지 옐츠란은 고개를 돌리고 조용한 어조로 얘기했다.

"조금 더 쉬다가 애들을 데리고 숲 밖으로 나갈 테니까 먼저 가봐. 찾아야 할 사람들이 있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인 뒤 글린다의 방향을 확인했다. 아까 전보다 훨씬 멀어져 있었다. 쿠와흠의 목적이 글린다와 거리를 벌려놓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었다. 만약 그게 맞는다면 움트헷은 확실히 누군가 조종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이면 귀찮아지겠는걸.

하늘이 몸을 기울여 빛의 면사포 끝자락을 드리운 듯 찬란한 햇살이었다. 잔잔한 들꽃밭과 빛이 맞닿은 그곳에 글린다는 죽은 듯 누워있었다.

품질이 낮은 밀랍으로 만든 것처럼 우울한 기색이 묻어있는 창백한 얼굴, 파리하게 닫힌 눈꺼풀. 추모의 망사 포처럼 얼굴을 가로질러 엉킨 가느다란 머리카락. 신발 한쪽은 어디 갔는지 드러난 발은 흙투성이였다.

바람결 따라 살랑이는 하얀 들꽃 사이로 오르락내리락하는 가슴팍의 미약한 움직임만이 그녀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주었다.

나는 눈에 피로를 느낄 만큼 집중해서 글린다가 숨 쉬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마나의 흐름도 잔잔하고 외견도 멀쩡하니 단순히 고된 일을 겪고 잠든 듯했다. 당장 죽을 리 없다는 이성적 판단이 끝나자 올라탄 나무 기둥에 편하게 몸을 기댔다.

툴륜과 뒤통수만 보이는 로브를 뒤집어쓴 마법사. 그리고 이름 모르는 늙은 마법사.

누가 봐도 수상한 분위기의 마법사 셋이 글린다 옆에 자리를 잡고 무언가 밝혀질 게 분명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런 좋은 단서를 놓칠 수야 없지. 숨어서 지켜보다가 정말 죽을 것 같으면 눈 깜짝할 새 가서 구해줘도 될 거다.

늙은 마법사는 긴장되는지 손을 비비며 툴륜의 눈치를 봤다. 마른 거목 같은 손은 비빌 때마다 사악 삭 거슬리는 소리가 났다.

"젠님, 이제 저도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겁니까?“

툴륜은 가만히 두질 못하는 늙은 마법사의 손을 흘깃 쳐다봤다.

"약속했던 건 어디 있죠?"

늙은 마법사는 품에서 주섬주섬 얇은 책을 꺼내 툴륜에게 건냈다. 툴륜이 책을 확인하는 동안 늙은 마법사는 할 수만 있다면 놈의 신발이라도 핥겠다는 듯 비굴한 미소를 지었다.

"제가 그것을 펄만한테서 훔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이번엔 꼭 제게도 자격을 주십시오."

펄만은 움트헷을 부리던 마법사의 이름이었다. 책 내용은 여기서 보이지 않지만 대충 짐작이 갔다. 펄만은 일생의 노력을 남에게 도둑맞았다. 그는 기대했던 성공이 아닌 실패자의 누명을 쓴 채 고향으로 돌아갔겠지.

"종속해온 움트헷의 수는 그때 보고했던 셋이 전부입니까?"

"네. 부족하다면 다시 콸튼에 가서 종속시켜오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자격을 먼저 주십시오."

눈을 느리게 감는 것처럼 불투명한 막이 툴륜의 눈동자를 덮었다. 늙은 마법사는 침까지 튀겨가며 열변을 토했다. 나이 때문에 쳐진 살가죽이 파들파들 떨렸다.

"제발 저를 영생자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구원을 위해 일 할 수 있는 영광을...!"

툴륜이 눈을 뜨고 불쾌하다는 듯 코웃음을 지은 순간 늙은 마법사는 자기 얼굴을 벅벅 긁으며 비명을 지르더니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처럼 양손을 휘저으며 방향을 잃고 방황했다. 흡사 뜨거운 기름을 머리에 끼얹은 사람 같았다. 노인은 비틀거리며 괴상한 춤으로 보이는 짓을 선보이다가 바람이 부는 쪽으로 걸어갔다. 열 다섯 발자국 쯤 갔을 때 그는 갑자기 시야에서 사라졌다. 점점 아래로 멀어지는 비명소리. 스스로 절벽에 몸을 던진 것이다. 멀어지는 비명은 선연한 소리와 함께 뚝 멎어버렸다.

툴륜은 목에 구멍이 뚫린 사람처럼 쉭쉭거리는 소리를 냈다.

"늙은 인간이 영생을 추구하는 것만큼 추한 것은 없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눈엔 늙은 마법사가 혼자 미친 짓을 하다 자살한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의 정령이 날파리처럼 그 노인의 눈에 다닥다닥 붙던 걸 나는 보았다.

수십의 정령이 눈앞에 붙어 꿈틀댔으니 끔찍한 환영을 피하려면 자살이 최선의 도피처였을 거다.

죽음의 정령은 자연사를 제외한 모든 죽음에서 태어난다. 정령을 다루기 위해선 정령과의 관계가 필요하고 죽음의 정령의 경우엔 필연적으로 살인자가 정령의 주인이 된다. 저 정도 수의 죽음의 정령을 가지려면 최소 수십은 죽여야 한다. 수십은 무슨, 수백도 넘게 죽였을걸.

툴륜이 치료마법사라니, 역시 이상하다 생각했어. 절대 종족차별은 아니고 나는 원래 못생긴 것들에게 박하다.

절벽에서 죽음의 정령이 나풀나풀 떠올라 툴륜의 주위를 맴돌았다. 놈은 익숙한 듯 그것을 흡수했다.

툴륜은 다시 쉭쉭거리는 웃음소리를 내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헤나드님?"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

때마침 로브 벗었다면 그럴듯한 순간이 되었을 텐데 아쉽게도 헤나드는 여전히 나에게 등을 보인 채 로브를 뒤집어쓰고 있었다. 헤나드의 반응이 궁금했지만 내가 볼 수 있는 건 툴륜의 얼굴 뿐이라 그것의 표정을 보고 유추해야 했다.

사람도 아닌 툴륜의 표정을 읽으라고? 가당치도 않은 소리다. 나는 적당히 내 맘대로 상상하기로 했다. 아마도 비열한 웃음을 지었겠지.

"처음으로 같이 하는 의식인데 안 좋은 꼴을 보였군요. 사과드립니다."

"왜 그를 죽인겁니까?"

헤나드는 평소와 같이 고저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일말의 동정심도, 궁금함도 없는 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여전히 짓고 있는 비열한 웃음. 아마도.

"이런, 아무리 당신이라고 해도 너무한데요. 우리는 늙고 병든 자에게 영생을 주지 않습니다. 그 치들이 영생을 원하는 이유는 단순히 삶을 연장하고 싶은 더럽고 저열한 욕망이니까요.

우리의 열망은 그보다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당신을 살렸을 땐 그런 걸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툴륜이 아직 살아있는 이유가 있었군. 헤나드가 자신과 같은 존재로 만든 것 같았다. 생체 실험이라도 한 걸까? 그래서 저 툴륜이 영생이니 헛소리를 해대는 건가?

툴륜이 또박또박 "하하." 하고 인간의 웃음소리를 흉내 냈다. 명백히 비꼬는 의미였다.

"그래서 제가 당신을 한 번 더 믿기로 한 것 아닙니까. 헤나드님. 아니면 감사 인사가 아직도 부족한가요?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헤나드는 대답하지 않았다. 툴륜은 고개를 살짝 꺾어 그를 내려다보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스승님.”

뭐야? 저 툴륜도 헤나드의 제자인 거야? 생각보다 헤프게 제자를 받아들이네. 옐츠란의 태도를 보면 본인이 하나뿐인 제자라 헤나드를 싫어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정을 못 뗀 것처럼 굴더니.

헤나드는 흐릿하게 한숨을 내쉬었다.

"젠님을 제대로 가르친 적 없으니 굳이 그렇게 부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전하시군요."

툴륜은 기분 나쁜지 반가운지 알 수 없는 어조로 중얼거렸다.

"그래서 전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 우리 편에 서겠다 한들 제가 아는 당신은 그렇게 쉽게 마음을 바꿀 사람이 아닙니다. 워낙 당신을 보고 싶어 하는 자식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자식들?"

"당신이 발견한 조합마법으로 새로 태어나 영생을 받지 않았습니까? 다 당신의 자식들이죠.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도 있고... 하하. 우리끼리 하는 농담입니다."

툴륜은 집요하게 헤나드의 얼굴을 쳐다봤다.

"재미없군요. 당신의 표정을 기대했는데. 하긴, 당신은 원래 표정이 없는 사람이었지.“

헤나드는 잠깐 하늘을 바라보다 로브를 벗었다. 햇살 아래 금빛 관을 쓴 것처럼 머리카락이 반짝였다.

”날이 좋군요.“

그동안 헤나드를 살살 긁어댄 것은 본인임에도 어째서인지 그 행동 하나만으로 툴륜은 얻어 맞은 사람처럼 분함을 숨기지 못했다.

”저를 보고 싶어 한다는 영생자는 빛의 총회 때 보는 겁니까?“

”아, 빛의 총회. 그것에 대해 들으셨군요.“

”자세히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영생자 중에 특별한 몇몇만 갈 수 있는 모임이라 들었는데 특별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군요.“

툴륜이 묘한 눈빛으로 헤나드를 쳐다보았다.

”정말 몰라서 묻는 건가요? 확인하고 싶은 건가요?“

”젠님, 대답하고 싶지 않다면 그러셔도 됩니다.“

”아니지, 당신을 떠보는 짓은 그만두겠습니다. 시간 낭비군요. 제가 대답을 보류해도 당신에게 우호적인 영생자가 있는 한 언젠가 알아내겠죠. 빛의 총회엔 기적 집행자가 모입니다.“

기적 집행자? 뻔한 의미일 것 같은데. 자기네들이 하는 짓을 구원이라 칭하는 감성이라면 기적 집행자는 영생을 내려주는 사람이겠군. 헤나드의 조합마법을 아는 사람들.

헤나드는 여전히 아무것도 읽을 수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군요. 몇 명이 모입니까?“

”그 수는...“

그 순간 글린다가 뒤척였다.

팔을 움찔거리는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둘은 기민하게 알아채고 글린다를 바라봤다. 이어지는 움직임이 없자 툴륜은 입을 열었다.

”시간을 너무 지체했군요, 앞으로 대화 나눌 시간은 많으니 의식을 마무리하고 빠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뤼네 아비에에서 너무 꼬리가 길어졌어요. 예상치 못한 변수가... 그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야기하죠.“

툴륜은 비켜주듯 한 발짝 물러섰다.

”당신 몫입니다.“

헤나드는 움직이지 않았다.

“헤나드님,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툴륜은 독니를 숨기고 수풀을 기어오는 뱀처럼 조용히 그를 압박했다.

헤나드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툴륜의 입꼬리에 의뭉이 더해졌다. 귀처럼 보이지 않는 뭉툭한 살덩이가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저에게 양보해주시리라 생각지 못해서, 조금 놀랍군요.”

“그야 헤나드님이 아시는 학생이지 않습니까? 글린다 리오데리오. 헤나드님을 위해 특별히 선별했는데.”

헤나드는 글린다의 얼굴을 쳐다보는 듯 했다.

“별로 달갑진 않군요. 젠님은 제가 아는 학생을 모두 죽일 생각입니까?"

툴륜은 단서를 잡은 수사관처럼 눈을 빛내며 이를 드러내고 웃었다. 그건 툴륜의 외형과 어우러져 미소라기보단 위협적으로 얼굴을 일그러트리는 것처럼 보였다.

“이건 권유가 아니라 시험입니다. 통과하고 싶다면 의식을 진행하세요.”

툴륜은 각다귀 같은 손으로 헤나드의 손목을 잡아챘다. 글린다에게 향하도록 거칠게 끌었지만, 헤나드는 반항 없이 순순히 따라갔다.

“당신 손으로 죽여.”

작은 속삼임. 강렬한 감정이 담긴 마법사의 말은 그 자체로 시동어가 되기도 한다. 흔적을 숨기기 위함이었는지 가려져 있던 마나가 장막을 깨고 일렁이며 주변 공기를 흔들었다. 툴륜의 몸에서 죽음의 정령이 하나둘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져 주변을 맴돌았다. 평화롭고 온화한 공간이 순식간에 바짝 얼어붙었다. 나는 느슨하게 늘어져 있던 다리를 위로 올렸다. 여차하면 뛰어내릴 생각이었다.

헤나드의 뒷모습만으론 여전히 그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읽을 수 없었다. 다만 툴륜이 손을 거뒀음에도 금방이라도 글린다의 마나를 앗아갈 것처럼 헤나드의 손은 그 자리에 있었다. 입술을 핥으며 고대하는 툴륜과 믿기 어려워진 헤나드의 등을 번갈아 쳐다보고 갈등에 빠졌다.

헤나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할까? 글린다의 목숨을 담보로 이미 나를 한번 거스른 건방진 놈에게?

그럴 필요 없지.

나는 주머니를 뒤져 체리만 한 동그란 구슬을 찾아냈다. 이걸 이렇게 쓰게 되는군. 손바닥 위에 구슬을 두고 한쪽 눈을 감아 신중하게 거리를 가늠한 뒤에 구슬을 튕겼다. 구슬이 날아가는 동안에도 둔한 마법사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글린다를 맞춘 구슬이 툭 떼구르르 굴러 연록 빛의 보호막을 펼치고 나서야 둘은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헤나드가 허리를 굽혀 보호막을 살짝 건드리는 순간 눈 아픈 번쩍임과 함께 팔팔 끓는 기름에 물을 넣었을 때처럼 굉음, 연기가 동시에 피어올랐다. 놈은 표정 없이 살갗이 다 터져버린 손바닥을 피만 멎도록 대강 응급처치했다.

"처음 보는 마법이군."

방금 일어난 일을 본 툴륜이 방어막에 쉽사리 접근하지 못하고 주변을 돌면서 무슨 마법인지 분석하려는 눈치였다. 뻔하디뻔한 '누구냐. 정체를 드러내라!' 같은 말이 나오기 전에 나는 가뿐하게 나무에서 뛰어내렸다. 한껏 예민해진 툴륜이 먼저 나를 발견했다.

툴륜은 깜짝 놀라거나 당황한 기색 없이 파충류 같은 눈동자로 나를 훑어보았다.

“누구냐. 어디에 숨어 있었지?”

어휴, 식상하다.

나는 지겹다는 표정을 감추지 않고 한숨을 쉬었다

내 등장에 놀란 건 오히려 헤나드였다. 뒤돌아본 놈의 얼굴이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은 조각상처럼 순식간에 감정으로 가득 찼다. 죄책감과 후회, 두려움. 빈말로도 긍정적이라 할 수 없는 반응이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헤나드는 조각 내 불 속에 가둬버리고 툴륜은 생포해서 정보를 털어야겠다.

툴륜은 예의 없게 곧장 나에게 무언가를 날렸다. 제대로 보지도 않고 쳐내서 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의미 없는 공격이었다. 툴륜은 회심의 일격이 먹히지 않자 당황해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놈은 날 보고 깨달은 얼굴을 했다. 한번 보면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위엄이 있긴 하다. 내가.

툴륜은 한쪽 입꼬리만 삐죽 올렸다.

“친분이 없다고 하시더니 굉장히 각별한 사이네요. 이런 자리까지 초청하고...”

나는 나를 가리키며 내가? 그리고 헤나드를 가리키며 쟤랑? 이라고 소리 없이 입을 벙긋댔다. 원시인이라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저런 것과 엮지 말라는 뜻이다. 수준급의 사회성을 발휘해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정도 지었는데 툴륜은 자기 말만 맞다고 믿는 전형적인 마법사였다. 씨알도 안 먹힌 느낌이다.

헤나드는 어느덧 표정을 지우고 툴륜의 옆에 그림자처럼 음습하게 섰다.

“모르는 자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상관없겠군요. 의식의 재물은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헤나드가 흘긋 나를 본다. 눈이 마주칠까 두려운 사람처럼 놈은 황급히 시선을 피했다.

"뜻대로..."

정령계 마법사와 축복 겸... 저주 마법사라, 축복과 저주 마법이 시간, 노력, 재료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한 것처럼 정령 마법도 정령과 계약했다고 정령을 노예처럼 부릴 수 있는 만능이 아니다. 관계를 따지자면 의뢰자와 외주업계라는 비유가 딱 알맞다. 그 날 쓸 수 있는 마법은 전날 예약해둔 것들만. 급한 건인데 지금 당장 처리해달라고 떼쓰면 평소보다 많은 마나를 쑥쑥 뽑아먹는 거지. 영 비효율적이다.

비전투 계열 산송장 둘 대 모든 마법의 능통자이시며 따라올 자 없는 검술의 소유자, 수 백 년간의 전투 감각을 지닌 이 몸.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다.

나는 측은지심을 발휘해 먼저 상냥하게 권유했다.

"무릎부터 꿇어. 목숨만은 뺏어 주마."

툴륜은 하하. 하고 딱딱하게 웃음을 흉내 냈다.

“허세는 재밌지만 불가능한 소리를 하는군요. 거기 숨어 있는 동안 아무것도 못 들었습니까, 인간?"

영생,영생 노래를 불러대는 탓에 귀가 따갑긴 했는데.

나는 헤나드와 튤란의 가슴팍에서 '강아지의 항문' 모양 브로치를 발견했다. 황금으로 만들어진 찬란한 빛나는 똥꼬.

"영생자들은 다 그 똥꼬를 달아야 하는 거야?"

내 손가락질에 튤란이 생각 없이 내 말을 따라 똥... 까지 말하다가 멈췄다.

"...영생자라는 걸 알고도 덤비다니, 하나뿐인 귀중한 목숨 아까운 줄 모르는군요."

나는 점점 더 항문 같아 보이는 그 브로치를 빤히 쳐다봤다. 헤나드도 은근슬쩍 브로치를 힐끔 쳐다본다. 분명 속으로 공감할걸. 그러니까 입을 가리는 척 브로치를 가리지.

툴륜은 중얼거리며 내가 모르는 정령 몇을 불러냈다. 순식간에 공기가 날카롭게 변했다. 툴륜의 주변을 낮게 날아다니는 정령들이 지나간 자리마다 풀과 잔가지들이 베여 툭툭 떨어졌다. 툴륜이 뻣뻣한 나뭇가지 같은 손을 들어 나를 가리키자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공격이 쇄도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정령의 모습만큼 공격도 존재감 없어서 나는 한 발짝도 떼지 않고 날파리를 쫓는 것처럼 전부 툭툭 쳐내버렸다.

툴륜은 약간 굳은 얼굴로 ‘그건 시선 끌기에 불과한 공격이었다.’라고 말하듯 그나마 내가 알법한 위력 있는 정령을 연이어 소환했다. ‘진짜‘ 정령사는 준비가 착실하구나. 정령사가 드문 만큼 그들과 싸울 일은 없었기에 이론으로 알던 것과 실제 전투는 조금 달랐다. 몇 날 며칠을 캐스팅에 힘썼는지 모르겠지만 공격이 끊이지 않고 제법 매끄럽게 이어졌다. 어지간한 마법사라면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이미 목이 달아났을 거다. 상대가 나여서 그렇지.

나는 제대로 된 마법을 쓸 필요도 못 느껴서 검에다가 마나를 압축해서 두른 뒤에 야구방망이처럼 모든 공격을 쳐내는 중이었다. 무식한 방법이지만 마나의 결속력이 약한 정령에게 강한 마나를 때려 넣으면 번거로운 과정 없이 팡! 하고 풍선이 터지는 것처럼 해체된다. 내가 그렇게 상대할 거라 예상 못 한 툴륜의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했다. 당연하지. 정말 나만 할 수 있는 방법인걸.

파란 불꽃 덩어리가 내 검에 맞고 타다닥 불티가 되어 불꽃놀이처럼 퍼진다. 이야~ 툴륜의 정성이 터지네. 예쁘네.

이딴 것들에게 질 리 없어 공격을 기다려주는 여유를 부리는 동안 툴륜은 여유를 잃어갔다. 툴륜은 노란빛의 방어계 정령을 불러내어 주변에 두르며 꿔다놓은 보릿자루처럼 멀뚱히 서 있는 헤나드를 돌아봤다. 너도 뭔가를 해라는 무언의 압박 같았지만, 놈은 여전한 무표정으로 가만히 서있기만 했다. 툴륜이 한 발을 살짝 치우고 혀를 짧게 두 번 찼다. 절벽 쪽에서 까만 그림자가 땅 위를 기어 순식간에 툴륜의 그림자와 합쳐졌다. 그림자는 배불리 어둠을 먹어치운 것처럼 크게 늘어났다가 줄어들더니 불쑥 솟아올랐다. 꾸득 꾸드득. 철판을 씹어먹는 것처럼 절로 눈살이 찌푸려지는 선연한 소리가 울렸다. 소환된 움트헷은 그저 점성이 짙은 검은 진흙 덩어리 같았다. 그것은 스르륵 움직이더니 마음대로 부풀고 쪼그라들고 기포를 터트리다가 그럴싸한 형태를 갖추었다.

이족 보행에 크지 않은 키. 소녀로 보이는 외견, 길게 굽이치는 금발, 익지 않은 올리브색 눈동자. 인간 형태로 변화했지만 움트헷 특유의 꺼림칙하고 역겨운 느낌은 그대로였다.

내가 턱을 매만지며 고개를 꺾자 움트헷도 거울처럼 내 행동을 따라 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아래로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피부 가죽이 꿈틀대고 조금 더 구체적인 형태를 갖춘 움트헷이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봤다. 아니, 다시 보니까 나잖아?

나는 공연이라도 본 것처럼 손뼉을 쳤다.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는지 툴륜은 입술을 일그러트리며 마음에 안 든 표정이었다. 툴륜은 그 표정 그대로 분노의 정령을 불러냈다. 툴륜의 손 끝에서 피어오른 정령이 움트헷에게 날아가 스며들었다. 툴륜은 이겼다는 듯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번에는 얌전히 죽을 수 밖에 없을 거다."

벼락을 맞은 것처럼 움트헷의 온몸이 경직되더니 홉 뜨인 눈에서 스르륵 눈동자가 사라져 죽은 생선처럼 비릿한 흰 동공만 남았다.

현재 외형에 익숙해져 있던 터라 움트헷이 이 모습을 흉내 냈다는 것에 거부감이 느껴졌다. 절대 존재할 리 없는 내 시체와 대면한 기분이다. 사탕에 꼬인 개미를 볼 때처럼 온몸이 오싹하니 간지러워졌다.

움트헷은 두리번거리다 내가 공격 한 것처럼 분노에 차서 달려들었다. 분노의 정령 지휘 아래 놓인 움트헷은 심어진 감정을 분별력 없이 받아들였다. 저런 식으로 움트헷의 공격성을 끌어냈군.

괴성을 지르는 것치고 비척비척 형편없는 발놀림이다. 움트헷은 공격이라기보다 내게 닿고 싶어 하는 광신도 같은 몸짓으로 무기도 없는 양손을 앞으로 뻗어 휘적댔다. 걷는 것도, 팔을 휘두르는 것도 어설프기 짝이 없었다. 뒤집힌 벌레처럼 움트헷은 버둥대며 걷고 있었다.

옐츠란이라도 피할 공격을 가볍게 넘기면서 자신만만하게 선언한 것 치고 너무 보잘것없다는 생각을 했다. 이번에는 얌전히 죽으라는 말을 내뱉었으면 책임지고 최후의 무기를 꺼내야 하는 거 아닌가? 이건 보고 있기에 서글플 정도다. 나는 막무가내인 공격을 피하느라 어느새 멀어진 툴륜과 헤나드를 쳐다봤다. 툴륜의 얼굴은 여전히 자신만만하다. 누가 봐도 형편없는데 뭘 믿고 저런 표정인 거지? 수상하다.

상대가 너무 형편없다 보니 호승심이 미적지근하게 식어버렸다. 이용당할 뿐인 움트헷을 죽여야 할 필요도 모르겠고, 장단 맞춰주기도 질린다. 게다가 아무 표정 없이 올곧이 서서 관조하는 헤나드가 계속 내 신경을 긁었다. 나는 자비심을 발휘해 움트헷을 죽이는 대신 속박마법을 사용했다. 내 손짓을 따라 땅에서 뻗어 나온 마력의 사슬이 숲의 기운을 타고 나무 넝쿨의 형태로 움트헷의 발목을 휘감았다. 겨우 발을 묶었을 뿐인데 움트헷은 발목이 뚫리기라도 한 것처럼 비명을 지르다가 한순간에 바닥으로 빨려 들어가듯 쑥 사라졌다.

“엥?”

내가 안 했는데? 이젠 이런 능력까지 생기고 만 건가? 지겹다는 생각만으로 상대를 소멸시키는? 세상이 너무 가혹하다. 어쩌자고 나에게 자꾸 완벽을 더해주는지... 하지만 움트헷이 다른 그림자에서 쏙하고 다시 나와 그 생각은 끊기고 말았다. 그래, 움트헷은 저런 것들이었지. 제멋대로 그림자에서 나와 다시 그림자로 사라지는... 시험 삼아 얼음 화살을 몇 개 날려보니 얄밉게도 움트헷은 그림자에서 들락날락하며 내 공격들을 피해버렸다. 닳겠다, 이놈아. 행동은 허우적대는데 동체 시력은 비정상적으로 좋아서 아무리 빠르게 마법을 날려도 맞지 않았다.

툴륜은 내가 던져놓은 도난방지 마법을 해제하려 갖은 애를 쓰는 중이다. 자신만만했던 이유가 겨우 이것 때문이었나. 하긴, 저들은 주로 마법사를 대비해 모든 계획을 세웠을 테니 몸으로 뚫고 나가는 경우의 수는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겠지. 그웬 정도의 검사도 멋대로 그림자로 들어갔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쑥 나오는 움트헷을 피하기 쉽지 않을 거다.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내가 한다.

우스울 정도로 허우적거리며 달려드는 움트헷이 코앞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휙 하고 피했다. 제 속도를 이기지 못한 움트헷은 비틀거렸고 나는 손쉽게 움트헷을 제치고 툴륜과 헤나드에게 날릴 거대한 영역의 빙결 마법을 준비했다. 축복으로 인해 죽일 수 없는 둘이니 산 채로 얼려버릴 생각이었다. 구조를 쌓고, 이제 마나만 흘려보내면 마법이 완성되는데 순간 등이 섬칫했다. 나는 본능에 따라 몸을 숙이며 바닥을 짚고 앞으로 한 바퀴 재주넘기를 했다. 내가 아까까지 서 있던 자리로 움트헷의 발이 빠르게 파고 들어왔다. 예상보다 빠른 속도였다. 어쩐지 움트헷의 걸음과 팔을 휘두르는 속도가 빨라진 것 같은 묘한 느낌이 들었다. 우드득. 하체는 앞을 보고 상체를 뒤로 돌린 괴이한 자세로 움트헷은 다시 나에게 달려들었다. 아까와 같이 피했지만, 움트헷의 손가락 끝이 거의 내 머리카락에 닿았다.

나는 땅을 박차고 뒤로 크게 두 걸음 물러났다. 확실히 속도가 빨라졌다.

이상한 건 움트헷도 나를 따라 크게 두 걸음 물러났다는 거다. 직진밖에 모르는 바보처럼 계속 앞으로 뛰쳐나오더니? 절벽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내 머리카락과 움트헷의 머리카락이 정신없이 휘날렸다. 움트헷이 공격하는 대로 물러났기 때문에 글린다와 대각선으로 멀어져 절벽이 지척이었다. 이 전에 떨어졌던 절벽이 협곡으로 여기까지 이어진 듯했다. 강이 흘러가는 소리가 저 밑에서 들렸다.

“나를 절벽으로 밀어버리게?”

그 정도의 지능이 있는 건가. 움트헷은 질러대던 괴성을 멈추고 흐어...허...아... 하고 자꾸 듣기 싫은 소리를 냈다. 삶은 문어를 닮은 마법사가 움트헷 연구에 열을 올렸던 게 조금은 이해 갔다. 흥미로운 구석이 있다. 지금은 호기심보다 짜증이 먼저 나지만.

분명 아까까진 허술하기 짝이 없는 실패작 같았는데 지금은 아무리 봐도 저것을 피해 빠져나갈 틈이 보이지 않았다. 이상한 일이다. 나는 내 본능을 무시하고 이성에 따라 일단 눈에 보이는 빈 곳으로 몸을 옮겼다가 황급히 다시 몸을 뺐다. 내가 급하게 허리를 꺾은 자리에 움트헷의 손이 허공을 가르고 지나갔다. 가벼운 미풍에 머리카락이 흔들렸다. 나는 거리를 늘리며 연계 동작 없이 멀뚱히 선 움트헷을 아래위로 훑었다. 아까 전보다 더 빨라졌는데?

"뭐야,"

움트헷은 목이 졸린 것처럼 크억, 켁켁 하며 소리를 쥐어짜다가 어색하게 말을 했다.

"뭐,...야."

"날 따라 하는 건가?"

"...건,가?"

학습하고 있구나. 살면서 갖가지 이상한 것을 많이 봤지만, 겉모습뿐 아니라 능력까지 학습하는 것은 처음 봤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보고 배운 게 아닌가. 몸놀림뿐이긴 해도 몇 번의 합을 통해 제법 비슷하게 속도가 올라왔다는 건 시간을 오래 끌수록 귀찮아진다는 뜻이었다.

나는 죽여버리기로 마음먹고 검을 뽑아 들었다. 그러자 움트헷도 살덩어리를 꿀렁꿀렁 변형시켜 검을 만들어냈다. 피부에서 뽑아냈지만 완성된 검은 빛을 반사할 정도로 날이 바짝 서 있었다. 가볍게 검을 휘두르자 챙, 하고 움트헷이 받아쳤다. 경도가 높은 진짜 검이네. 슬쩍 놈들이 뭐 하고 있나 움트헷의 어깨너머로 확인하니 내게 공격을 준비하는지 툴륜이 정령을 불러서 지독하게 긴 정령어를 읊고 있다.

“네 주인이 뭔가 대단한 거라도 준비하나 보다.”

움트헷이 턱을 매만지며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검을 휘두르며 내게 달려들었다. 빠르다 해도 내가 건성으로 상대했을 때를 흉내 낸 속도다. 나는 검을 피하며 움트헷의 발목을 살짝 걷어찼다. 딛고 있던 발의 중심이 흔들리자 움트헷은 넘어지며 얼굴부터 바닥에 처박았다. 산길이 늘 부드러운 잔디와 이끼만 깔린 게 아니라서 운 나쁘게 움트헷은 불쑥 불청객처럼 솟은 큰 바위에 이마를 찧었다. 움트헷이 넘어지자마자 심장에 검을 꽂아 넣을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예상 못 한 고통이 밀려와서 나는 이마를 부여잡았다. 이마가 불에 타는 것처럼 홧홧하니 아팠다. 이마를 짚었던 손을 확인했지만 피는 나지 않았다. 움트헷이 고개를 치켜든다. 이마가 찢어져서 얼굴이 온통 피범벅이다. 불길한 추측이 등줄기를 오싹하게 타고 올라왔다.

이건 뭐, 거의 생태계 교란종인데? 하나만 해야지 귀찮은 특성은 다 가지고 있네. 튤룬의 자신감이 비로소 이해가 됐다. 그 어떤 마법사와 기사가 와도 이겨낼 자가 없는 최강이자 최적의 무기. 혹여 빼앗긴다 해도 고통을 느끼지 않고 죽지 않는 ‘영생자’에겐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다.

나는 고통을 착실하게 견디는 자신을 믿으며 확인을 위해 한 번 더 공격을 감행했다. 가볍게 팔을 베려고 했는데 움트헷이 어설프게 피하는 탓에 옆구리를 베고 말았다. 결과는 아이 따가워. 나는 옆구리를 부여잡고 뒤로 물러났다. 최근에는 다칠 일이 없던 터라 갑작스러운 고통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무리 나라도 아픈 건 아픈 거다. 이마의 고통 때문에 한쪽 눈이 자꾸 찌푸려지고 귀에 이명이 들렸다. 계획을 수정해야겠다. 움트헷을 죽이지 않고 툴륜을 먼저 쳐야지. 그렇게 마음먹고 비행마법을 써서 하늘로 날아올랐지만, 한가지 간과한 사실이 나를 막았다. ‘그림자는 어디에나 있다.’ 그 덕분에 움트헷은 높게 자라난 울창한 나무의 나뭇잎 사이에서 튀어나와 내게 검을 휘둘렀다. 앞에서 튀어나온 움트헷은 내가 검을 막자 떨어지면서 다른 그림자로 숨어들고 순식간에 뒤에서 튀어나왔다. 제까짓 게 나를 흉내 낸다 하더라도 절대 나를 따라잡을 수 없는 간극이 우리 사이에 존재했다. 나는 검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를 듣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검을 막아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땅에서 싸우는 것보다 더 번거롭기만 하다. 나는 다시 땅으로 내려섰다. 땅의 그림자에서 솟아난 움트헷의 얼굴은 난잡하게 붉은 칠을 한 것처럼 얼굴이 온통 피범벅이다. 아우, 아파라.

문득 시선이 느껴져서 고개를 돌려보니 헤나드가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쟤는 구경났나, 뭘 저렇게 빤히 봐. 검술마저 제법 정교해진 움트헷이 거리를 바짝 좁혀 검을 휘둘렀다. 내가 검을 쳐내자 그 힘을 이용해 부드럽게 검로를 변경해 왼쪽에서 베어 들어온다. 나는 한 바퀴 빙글 돌아 그것을 피하며 동시에 얼음 화살을 쏘았다. 툴륜의 척추를 부술 화살이었다. 세 개나 날렸으니 두 개는 놈의 정령을 무력화시키고 마지막 하나는 배를 꿰뚫고 지나갈 거다. 당장 지금 준비하고 있는 무엇인지 모를 정령 마법을 멈추는 것이 우선순위였다. 예상대로라면 척추가 부서져서 툴륜이 빌빌 바닥을 기어야 하지만 움트헷이 그림자에서 솟아나서 화살 두 개를 검으로 잘라버리고 미처 막지 못한 마지막 화살에 어깨를 꿰뚫렸다. 나는 움트헷과 동시에 비틀거렸다. 시발. 이걸 몸으로 막냐? 툴륜의 마법이 거의 완성돼가고 있는 게 느껴졌다. 마나가 술렁거리고 있다.

나는 고통을 참느라 이를 바득바득 갈며 귀찮은 움트헷을 처리할 최적의 방법을 모색했다. 제일 먼저 떠오른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했다. 그냥 움트헷을 죽이기. 뭐, 나도 잠깐 심장이 멎겠지만 다시 살아나겠지. 하지만 아무리 빨리 부활한다 해도 15분은 걸린다.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었다. 혹여라도 저놈들이 도난방지 마법을 깨버리면... 어?

본래 제대로 만들어진 도난방지 마법이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지만, 마법을 구성한 구조가 흔들리고 있는 게 보였다. 그것은 곧 모두가 알아챌 만큼 눈에 보이게 겉으로 드러났다. 연녹빛의 반투명한 보호막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다. 한번 금이 가기 시작한 이상 부서지는 건 시간문제였다. 툴륜은 마법을 완성하느라 여념이 없어 알아채지 못했고 헤나드가 내 시선을 따라 글린다를 쳐다봤다. 좆됐다.

그러니까 정리하는 습관이 다소 부족했고 사소한 건 마음 두지 않는 획기적인 기억력의 결과였다. 도난방지 마법은 불안정했고 그것을 구슬에 옮겨 담는 일은 열에 여덟이 실패였다. 실패한 것과 성공한 것을 적당히 책상 위에 올려두었지만, 구슬은 알다시피 동글동글하고 조그만 충격에도 데굴데굴 굴러간다. 절대 내 잘못이 아닌 이유로 구슬은 데굴데굴 굴러 섞여버렸고 분류하기 귀찮아지자 대충 그걸 주머니에 전부 쓸어 담았다. 그래, 다소 늦게 떠올리긴 했지만 나는 하필이면 실패한 구슬을 쓴 거다. 글린다가 운이 없었다.

금이 가기 시작한 이상 깨지는 건 시간문제였다. 눈치 없이 다시 달려드는 움트헷의 공격을 받아내며 나는 주머니를 뒤져서 겨우 구슬 하나를 찾았다. 이번에는 제발 성공한 구슬로! 소원을 빌며 동전을 던지는 마음가짐으로 힘껏 던졌지만, 움트헷이 그림자에서 튀어나와 검으로 정확하게 반을 갈라버렸다. 꼭 얄미운 쌍둥이 동생 같다.

“아오, 저 새끼 저거!”

나는 온갖 짜증을 담아 욕설을 중얼댔다. 지금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는 수십 가지의 마법이 아까 전부터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내가 주로 쓰는 불 속성 마법부터 지진과 산사태, 화산폭발 같은 자연재해 수준의 마법까지 모두 마나의 언어를 깨우쳐 준비 동작 없이 눈 깜짝할 사이에 시전 할 수 있었다. 문제는 글린다의 목숨도 종결시켜버린다는 거다. 혹은 뤼네 아비에의 살아있는 모든 것들도 휘말리겠지.

무언가를 지키면서 싸운 적이 드물어서 남을 보호하는 방어마법의 구조 같은 건 옛 저녁에 까먹어버렸다. 방어 계열의 언어를 터득했다면 상황이 달랐겠지만, 어차피 죽어도 되살아나는데 나는 그런 것에 정성을 쏟을 만큼 학구열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었다. 좀 더 편하게 살려고 마법을 익혔을 뿐, 검사로 산 세월이 더 길었고 애초에 모든 마법 구조와 수식을 기억하는 건 옐츠란같이 기억력이 더럽게 좋은 놈만 할 수 있는 짓이다. 아니, 걔도 외운 지 백 년쯤 지나면 까먹을걸? 공부도 다 때가 있는 법이다.

움트헷의 움직임과 검술은 점점 더 정교해져 갔다. 하지만 아무리 흉내 낸들 가짜는 진짜를 만나면 빛을 잃는다. 움트헷 따위가 나를 이길 순 없었다. 검을 맞대는 일은 그저 번거롭고 지겨운 반복운동 같았다. 귀찮은 날파리처럼 쳐내면 다시 엉겨 붙는 움트헷을 상대하다가 불쑥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신도 아니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살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 이 정도면 충분히 노력했지 않나?

그리고 검을 한 번 더 마주 댔을 때 그 생각은 짙어졌다. 지지부진한 싸움은 여기까지다. 한 명을 희생하고 전부 처리할 수 있다면 계산이 맞아떨어졌다.

나는 무심코 차가운 얼굴로 글린다를 쳐다봤다. 참 운이 없는 아이야.

심호흡 후에 마나의 언어를 더듬어갔다. 마나가 흘러가는 길은 밤에 흩뿌려진 별처럼 아무런 규칙이 없어 보이지만 저마다의 자리를 가졌다. 저토록 환한데 길을 따라가는 일이 어려울 수 있을까?

나는 웬만한 마법사가 몇 년은 걸려 쌓아 올릴 구조를 어떤 것은 속으로, 어떤 것은 입 밖으로 읊으며 몇 초 만에 정리했다. 범위를 정해주기 위해 마지막 숫자를 어떤 거로 정의하느냐가 조금 애매했지만, 어느 것이든 상관없이 느껴졌다. 뤼네 아비에까지 불길이 뻗치면 다들 알아서 도망가겠지. 불이 코앞까지 왔는데 궁둥이 붙이고 앉아있진 않을 거다.

‘본텐스식 수가 좋겠어.’ 거기까지 정해서 사실 입 밖으로 내뱉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다. 실제로 나는 입술을 떼기까지 했다. 하지만 첫 번째 숫자를 내뱉기 전에 헤나드와 눈이 마주쳤다. 놈은 글린다의 보호막이 깨지길 기다리는 사람처럼 한쪽 무릎을 굽히고 그것을 들여다보다 고개를 들었다. 맑게 빛나는 페리도트처럼 아름다운 연둣빛 눈동자.

그 순간 하얗고 창백한 도자기로 된 가면이 깨지듯 헤나드의 무표정이 산산조각이 났다. 처연하게 아래로 내려온 눈썹과 고통에 찬 미간, 놈은 입술을 달싹거리다 참을 수 없다는 듯 조용히 눈물을 쏟아냈다.

헤나드는 눈을 떼지 못하고 작게 고갯짓했다. 마치 내게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원하는 사람처럼.

가끔 말하지 않아도 사람의 진심이 손에 잡힐 듯 보이는 순간이 있다. 이골이 난 아픔을 갑자기 못 견뎌서였는지 나는 지금이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놈은 고양이가 인사할 때처럼 느릿하게 눈을 감았다가 떴다. 굵은 눈물이 그의 속눈썹을 타고 후두둑 떨어졌다. 손에 꼭 쥐고 있던 거의 완성된 마법도 스르륵 빠져나갔다.

결정을 번복하는 건 미련한 짓이지. 지배자로 살았던 과거가 나에게 속삭였다.

알 게 뭐야. 나는 과거가 건네는 충고를 개소리로 일축했다. 과거의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한들 현재의 내 감정보다 중요하겠는가?

애초에 여기까지 온 이유도 그 잘난 과거의 충고를 듣고 손 놓은 채 내버려 뒀다가 일이 커진 탓이다. 다시 그 미련한 짓을 반복하기 싫다. 이번 일로 명백히 깨달은 게 있다면 ‘그때 그랬으니 이번에도 그럴 거야’ 단정 짓기 전에 너그럽게 기회를 준다고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다. 나는 손에 꼭 쥐고 있던 거의 완성된 마법을 스르륵 놓았다.

툴륜이 중얼대던 마법을 완성한 것과 보호막이 깨지자 헤나드가 글린다를 끌어 품에 안은 것, 나와 칼을 맞대던 움트헷이 그림자로 사라진 것까지 모든 건 동시에 일어났다. 그리고, 놀라울 만큼 아무 일도 없었다. 글린다의 목숨을 저울질했던 것치고 싱거운 분위기였다. 분명 툴륜이 모아둔 마나가 움트헷에게 흡수되긴 했는데... 엄청난 굉음과 함께 폭발하거나 유성이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 그저 그림자로 들어갔던 움트헷이 툴륜의 그림자에서 솟아나고 놈이 홀린 듯한 눈으로 이렇게 말했을 뿐이다.

“드디어 완성되었군. 나의 아네쉬.”

움트헷에게 이름 붙여주는 게 유행인가? 요즘 애들의 감성은 영 모르겠다니까.

완성되었다는 말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꼼꼼히 보았지만, 여전히 피투성이 가짜 레티시아 모습이었다. 그것은 만화경의 풍경처럼 일그러졌다가 눈이 네 개가 되고 팔이 하나로 합쳐지는 둥 영 불안정해보였다. 툴륜이 그림자를 콱 밟고 눈을 감은 채 정령을 그림자로 흘려보냈다.

그사이에 급하게 이쪽으로 몸을 피한 헤나드가 품 안의 글린다를 추스르며 중얼거렸다.

“완성되고 말았군요. 그렇게 막으려고 애를 썼는데...”

“뭐가 완성된 건데?”

헤나드 품속의 글린다는 여전히 두 눈을 꼭 감고 잠들어있었다. 죽은 거 아냐? 나는 방금까지 그냥 그녀를 죽이려고 했던 걸 잊고 글린다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보았다. 색색 숨을 내뱉으며 잘도 자고 있다.

"젠은 종속시킨 움트헷마다 마법 저항을 부여했습니다. 모두 아네쉬를 위한 예행연습이었어요. 그간의 준비 끝에 아네쉬에게 마법 저항 능력을 성공적으로 이식한 겁니다."

"왜?"

헤나드는 중대 발표를 하는 사람처럼 뜸을 들였다가 비장하게 대답했다.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젠은 그것을 위해 인간을 꼬드겨 저와 같은 괴물로 만들고 세력을 늘렸습니다. 그 불사의 군대가 저들이 영생자라 칭하는 단체입니다.”

"오... 그렇군."

늙지도 죽지도 않는 무리가 세상을 정복하겠다 했을 때 내놓을 반응으로 알맞지 않았지만 나는 힘 빠진 듯 작은 탄성과 함께 심드렁한 대꾸를 할 수밖에 없었다. 세상 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나? 왜 주기적으로 세상을 자기 것으로 하겠다는 놈들이 나와서 설쳐대는 거람? 살면서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봐서 이제 때 되면 나타나는 해충 같다.

처음 봤을 때야 깜짝 놀라서 간악한 악의 무리를 소탕하자! 하고 용사 흉내를 냈지만 세 번째 됐을 땐 그럴 수 있지, 다섯 번쯤 되면 이번엔 내가 해볼까? 싶고 지금처럼 숫자를 세는 걸 까먹었을 지경이 되었을 땐 별 반응할 생각도 들지 않는다.

“모두 제가 툴륜을 살리고 그에게 정을 주어 그 방법을 스스럼없이 알려준 탓입니다. 혼자 힘으로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이제 거대한 불덩이로 느껴지는 이마를 손으로 짚었다. 치료마법조차 통하지 않는 가짜 상처는 주기적으로 틱틱대는 소리처럼 신경이 곤두서게 했다.

헤나드는 내 이마를 어루만지고 싶은 것처럼 손을 올렸다가 내 눈치를 봤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봐. 내가 눈썹을 까딱거리자 하얀 빛무리가 터져 나오며 손길 대신 부드러운 깃털 같은 마력이 이마를 스치고 지나갔다. 통증을 줄여주는 축복이었는지 이마는 이제 살짝 긁힌 것처럼 따끔댈 뿐이었다.

"죄송합니다. 레티시아님. 당신이 휘말리지 않게 거리를 두었는데 아무 소용 없었군요."

나도 내 인사 안 받아준다고 척추를 부러트렸으니까 적당히 넘어가자.

“사과는 입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야. 참고로 최근에 나한테 잘못한 놈은 내 수발을 들고 있지.”

역시 생각해보니 사과는 받아주는 게 연장자의 도리다. 내 말에 헤나드가 그렇군요. 하고 뭔가 깨달은 듯 대답했다.

“당신은 역시 그런 인간이지.”

나 말하는 건가? 괜히 찔려서 소리가 들린 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우리 대화에 불청객처럼 끼어든 툴륜이 헤나드에게 손가락질하고 있었다.

“그렇게 알량한 도덕심을 지키면 자기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나 보군? 다른 인간의 목숨을 빼앗아 살고 싶지 않다는 건 그저 나약하다는 증거다.”

헤나드는 반응하지 않았고 툴륜도 그의 반응을 기대하지 않았다.

“옛날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어. 혼자만 고고한 척, 혼자만 잘난 척! 자기 마음 편해지자고 멋대로 나를 살려놓고 네 방식을 나한테 강요했지. 늘 자기만 옳은 사람이니까! 위선자!"

쌓인 게 많나 본데. 툴륜은 온몸이 새빨개질 때까지 부들부들 떨면서 울분을 토해냈다. 흘끔 헤나드를 보니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이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게 그저 ‘내 방식’은 아니잖습니까?”

“너희 인간들은 여우나 돼지, 사슴, 닭 같은 온갖 동물을 죽이잖아. 난 툴륜이다! 툴륜이 인간을 죽이는 게 뭐가 나쁜가?”

그것참 논리가 있는 듯하면서 없는 말이다.

하지만 그건 표면적인 이유일 뿐, 툴륜의 뱀 같은 눈동자에 질투심이 소리를 내며 뚝뚝 떨어질 정도로 가득 고여있었다. 사람을 죽여서 생명을 연장하는 작자가 굳이 가짜 신분으로 치료마법사 행세하는 건 결국 선망이 고픈 거다. 헤나드는 오랜 옛날부터 사랑받는 축복 마법사이자 저주 마법사. 아무리 노력해도 그를 뛰어넘을 순 없었겠지. 더군다나 헤나드는 잘생겼고, 툴륜은 흉측하다.

“못생겨서 심성까지 꼬여버렸군.”

툴륜은 눈을 세로로 가늘게 뜨고 나를 보았다.

"이제야 기억나는군. 너 번개를 내려 루루를 죽인 그 마법사지?"

"눈은 좋고 기억력은 나쁘네."

툴륜은 매미가 열심히 날개를 비빌 때처럼 스슷 스스슷 하는 괴상한 소리를 냈다. 인간으로 치면 박장대소인 듯했다. 어딜 봐도 기분 나쁜 종족이다.

"그런 마법사조차 아네쉬를 상대로 고전하다니, 30년간 그림자 숲을 뒤진 보람이 있군. 펄만 그 작자가 대단해! 나조차 진짜로 움트헷을 종속시킬 수 있을 거로 생각지 않았는데 말이야... 바람 한번 불어 넣었다고 이렇게 마법을 완성하다니."

툴륜은 자식을 보는 부모의 눈빛으로 아네쉬를 바라봤다. 자랑하고 싶어 못 견디는 얼굴이다.

"얌전히 아네쉬의 밑거름이 되어준 건 고맙군. 마법사인 줄 알았는데 검술도 수준급일 줄이야! 덕분에 빨리 정보를 수집했어.”

"음, 그러게."

나와 비등할 정도로 능력을 베낀 건 아니지만 저 정도 실력이라면 세계에 큰 위협이었다. 더군다나 마법도 통하지 않으니 툴륜이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설쳐도 쉽게 그 앞을 막을 존재는 없을 거다.

어쩌면 이때껏 세계를 정복하겠다 나선 놈 중에 제일 큰 성과를 이룰지도 몰랐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자."

그 말을 심각하게 듣는 건 헤나드뿐이었다. 툴륜은 내가 어린 치기를 부린다는 듯 싯싯대며 웃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만 나는 헤나드에게 도망칠 시간을 주기 위해 손을 들어 올렸다. 살갗이 징징 떨릴 정도로 강한 마력이 순식간에 모여들었다. 현대의 마법이 감히 능가하지 못할, 고대의 법칙이 땅에 있는 마나를 게걸스럽게 먹어 치우며 다가올 재앙을 준비했다. 힘을 잃은 땅이 우르르 작게 몸을 떨며 두려움의 소리를 냈다. 마력의 크기를 느낀 헤나드와 툴륜이 경악에 찬 얼굴로 혼란을 드러냈다. 나는 헤나드에게 속삭였다. '이 손이 아래로 내리꽂기 전에'

"알아서 도망쳐."

그리고 그 자체만으로 의미를 담지 못한 가벼운 손길이 바닥을 가리켰을 때, 내 의지를 따라 모인 마나가 마도 시대의 언어를 빌어 현대에 발현됐다. 마력이 주변을 장악하자 몸을 짓누르던 중력이 사라졌다. 아니, 사라졌다고 잠깐 느꼈다. 힘을 풀어놓는 순간 자유의 희열이 몸을 가뿐하게 만들며 중력조차 잊게 했다. 나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입꼬리가 당기도록 웃었다.

곧 소리만으로 몸을 찢어버릴 듯한 광풍이 휘몰아치고 내 주변의 모든 것을 베어 넘겼다. 수백 년간 하늘을 지탱해온 나무가 베이고 뽑혀 떠올랐다가 콰아앙 포탄이 터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땅으로 곤두박질쳤다. 바람의 무자비한 작두질 사이에서 움트헷이 툴륜을 보호하기 위해 그림자와 그림자를 밟으며 뛰어다니는 게 보였다. 아네쉬의 움직임은 이제 경이의 궤도에 올랐지만 제 몸 이외의 짐까지 지키기엔 역부족이었다. 눈먼 바람에 툴륜의 오른손이 잘려 저 멀리 사라지고 곧이어 다리도 뼈를 드러낼 만큼 너덜거렸다. 그래도 제 몸보다 큰 짐을 짊어지고 아네쉬는 이리 저리로 잘도 날아오는 위협을 피했다. 그림자가 너무 많은 탓이다. 예상했던 일이다.

나는 아직도 분을 풀지 못한 바람에게 흩어지라고 명했다. 이미 힘을 얻은 바람은 내 말을 거역하기 위해 몸을 더 부풀려 반항했다. 바람이 숲을 넘어 세를 늘리는 게 느껴졌다. 마도시대의 마법은 도구가 아니라 생명체처럼 제멋대로 꿈틀댄다. 마법이 삶이자 친구이자 연인이었던 그 시대 사람들이 만든 수식답다. 하지만 나는 그 찬란한 시대에도 위세를 떨쳤던 자. 목을 틀어쥔 거대한 힘 앞에 고대 마법은 굴복했다.

곧이어 바람이 잠잠해지고 드러난 주변의 모습은 혹한 지진을 겪은 듯 처참했다. 감히 내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것은 없었다. 수십, 수백 년을 묵묵히 견디며 커온 나무는 죄다 바닥에 쓰러져 울창한 숲이 쓰레기 더미의 평야로 변했다. 여기서 저 멀리 있는 뤼네 아뷔에가 보일 정도였다.

이 난리에도 툴륜이 조금 다쳤을지언정 아네쉬는 멀쩡해 보였다. 하지만 애초에 마법이 통하지 않는 움트헷이니 공격이 먹힐 거란 기대는 하지 않았다. 이건 귀찮게 그림자를 들락날락하는 움트헷의 발을 자르기 위한 준비 단계였다. 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툴륜의 피는 흰색이었다. 나는 실소를 터트렸다.

"보람이 없네. 하나도 안 아파 보여."

헤나드처럼 고통을 느끼지 않는 툴륜이 분노로 표정을 일그러트리며 내게 정령 몇을 쏘아 보냈다. 정령은 다가오지도 못하고 나를 둘러싼 강대한 마나의 힘에 저절로 소멸했다.

"불가능해! 이렇게 강한 힘을 필멸자가...!"

구원자 단체에서 영생자가 아닌 인간을 필멸자라 부르는 모양이지만 시기적절한 단어 선택에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재미있는 상황 아닌가? 내 입으로 이 단어를 꺼내게 될 줄이야.

"나는 불멸자다."

마나의 언어를 쫓아 순식간에 구조를 정립하자 거대한 골격을 이룬 마법은 불길이 되어 솟아올랐다. 여기저기 널려있는 타기 좋은 나무 잔해가 스스로 지옥 불에 뛰어든 것처럼 순식간에 불에 휩싸였다. 불은 그림자를 태운다. 숨을 곳이 사라지면 움트헷은, 어디로 도망칠까?

그토록 큰 불길을 본 적 없었다.

그것은 불로 이루어진 망망대해, 수천 개의 불꽃으로 이루어진 파멸의 화원, 별이 불이 되어 쏟아진 화상 자국.

숲은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불티를 쏟아냈고 하늘은 검은 연기로 자욱했다. 지옥도가 발 아래에 있다. 하늘에서 불 타는 숲을 내려다 본 자라면 그렇게 생각 할 것이다. 글린다가 연기를 마시지 않게 옷으로 꼭 감싸며 날아가던 헤나드는 인간 한 명이 이 풍경을 만들어냈다는 두려움과 함께 그 인간이 레티시아라는 것에 황홀함을 느꼈다.

불길은 나무를 태우고 풀과 땅도 태우고 급기야 제 살까지 먹으며 더욱 거세져만 갔다.

불이 추는 춤은 참 요사스럽다. 너울너울, 이쪽으로 다가올 듯 팔을 쭉 내밀었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뒤로 물러나고 다시 움켜쥐듯 손가락을 한들한들 움직인다. 밝고 아름다운 저승의 무희들.

옐츠란은 그 춤사위에 홀려 방금까지 하던 일도 잊고 멍하니 불을 바라봤다. 어느새 그의 키만큼 자란 불이 잔디를 타고 뱀처럼 스멀스멀 기어와 제물을 뱃속으로 삼킬 준비를 했다. 옐츠란은 코 앞에서 느껴지는 열기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결계를 마저 완성했다. 결계 속에 갇힌 불이 아쉬운 듯 화르륵 크게 타올랐다. 그는 심각한 표정을 한 뤼네 아비에의 원로 교수에게 말을 건넸다.

“불이 더 번지지 못하도록 처치는 끝내놓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분명 아주 강한 마나 폭풍이 느껴졌는데...”

협회에 참가했던 마법사 중 하나가 두려움을 숨기지 못하고 솟아오른 불의 장벽을 바라보았다. 옐츠란이 빠르게 뤼네 아비에를 빙 둘러 결계를 쳐준 덕에 부상자 없이 무사했지만, 숲에서 느껴진 강대한 힘은 떠올리기만 해도 모골이 송연했다.

주변의 마나가 숲을 향해 거세게 빨려 들어가는 순간은 마나에 민감하지 않은 마법사라 할지라도 느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이었다. 영혼을 송두리째 꿰어 잡아당기는 느낌. 처음 느껴보는 감각에 모두 깜짝 놀라 건물 바깥으로 뛰쳐나오니 저 멀리 숲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어느 마법사가 중얼거렸다.

“오, 신이시여.”

신을 거스르며 마나를 다루는 마법사의 입에서 신의 이름이 나올 만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어떤 마법사는 속으로 ‘세상이 저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야. 우린 전부 다 죽을 거라고.’ 하고 생각했다. 그는 제 추론이 똑똑하다 생각했기에 입 밖으로 내뱉지 않고 조용히 식당으로 향했다. 배가 불러서 내려놓은 케이크를 마지막 만찬으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제각기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그와 같이 곧 죽을 거라 생각한 자는 많았다. 그랬기에 칼바람이 본관을 덮칠 듯 정원을 반파시켜 놓았을 때도 마법사들은 감히 막지 못하고 아웅다웅 서로 도망치겠다고 제 몸만 피했다. 그만큼 숲에서 느껴지는 마나의 태동은 절대적이었다. 자비를 구하는 거지처럼 겨우 자연에게 빌려 품는 마나를 죄다 끌어모아 낭비하니 어느 마법사가 두려움에 떨지 않겠는가? 신과 대적할만한 존재만이 할 수 있는 일. 현대의 마법사라면 더더욱 상상도 못 할 일이었다. 옐츠란이 때맞춰 도착하지 않았다면 곧이어 덮칠 불길에 수백의 마법사가 멍청하게 그대로 타죽었을 것이다.

옐츠란은 학생들과 숲을 빠져나오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대강 짐작하고 가장 빠른 속도로 결계 수식을 땅에 새겼다. 힘을 아끼지 않고 털어 넣은 게 지금 생각해보면 잘한 일이었다. 그는 아슬아슬하게 불길을 막아내는 결계 너머를 바라보았다.

‘레티시아, 너는...’

초월자. 그것만으로 그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뛰어넘었다.

다른 마법사들이 숲에서 느껴지는 힘의 주인을 몰라 혼란스러웠다면 옐츠란은 누군지 알기에 혼란스러웠다. 레티시아는 어느 날 홀연히 등장해 옐츠란이 정립한 마법의 한계를 모조리 깨부쉈다. 마법사 중 탁월한 성취를 보이는 그였지만 레티시아 앞에만 서면 걸음마를 겨우 뗀 어린아이처럼 느껴졌다. 옐츠란은 어렴풋이 이 강대한 힘조차 레티시아가 전력을 다한 게 아니라고 짐작했다. 다른 눈치는 없는 그였지만 마법에 관해서라면 누구보다도 기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옐츠란은 초조하게 큰 원을 그리며 빙빙 도는 걸 멈출 수가 없었다. 불길을 헤치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어쩌다 보니 불이 좀 커졌다.’ 하고 등장 할게 뻔하다고 속으로 계속 되뇌어 봐도 안심되지 않았다. 레티시아가 쫓는다는 ‘영생자’는 이름대로 죽지 않는 존재인데 혹시라도 다쳤으면? 이 마법이 레티시아의 것이 아니라면? 영생자를 잡기 위해 죽음도 불사하고 숲에 불을 지른 거라면?

마지막 추측은 너무나 터무니없어서 불안한 와중에 옐츠란은 피식 웃었다. 좋아, 레티시아를 보면 이 말 먼저 하는 거야. ‘저 불을 보고 네가 동반 자살이라도 한 줄 알고 깜짝 놀랐어.’ 꽤 그럴싸한 농담이네.

슬핏 드러났던 웃음은 따라온 걱정에 바로 묻혔다. 무사해야 할 텐데. 다친 레티시아는 상상할 수 없었지만, 그 단어를 떠올리는 것만으로 심장 아래가 뻐근해졌다.

죽지 않기를 바랄 사이. 그때는 에둘러 그렇게 표현했지만, 생각할수록 그 말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 저기!”

옆의 마법사가 손가락질하며 내지르는 비명에 마법사들의 시선이 그쪽을 향했다. 그러면 그렇지. 하늘에서 불길을 가르며 나타난 인영을 발견한 순간 옐츠란은 안심하며 그쪽으로 향했다. 최대한 태연하게 레티시아를 맞이할 생각이었다. 귀찮게 질문을 해 레티시아가 대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손해 보는 건 옐츠란이었다. 걱정한 만큼 뾰족하게 튀어나오려는 소리를 누르며 하늘을 응시하는 옐츠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검은 연기를 헤치며 등장한 것은 품에 어린 소녀를 끌어안은 헤나드였다. 피가 묻은 그의 흰 로브, 그을음이 묻어 잿빛이 된 머리칼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옐츠란은 단번에 헤나드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레티시아는 어딨어?”

그 어리던 것이 진심으로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게 되었구나. 말로는 그를 증오한다, 죽이겠다 얘기하지만, 부모에게 사랑받고 싶은 아이처럼 자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시선을 모를 만큼 헤나드는 둔하지 않았다.

그러던 아이가 이제는 제게 저런 표정을 지을 만큼 정을 준 사람이 생겼구나. 하긴, 어려서부터 정이 많은 아이였지.

헤나드는 제 어깨를 꽉 쥐느라 뼈마디가 도드라진 손을 두드렸다.

"네가 걱정하는 게 건방질 정도로 강하신 분이다. 조금만 기다리면 돌아오실 거야."

그 토닥거림에 옐츠란은 괜한 화풀이를 헤나드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그걸 헤나드가 일깨워준 게 분하지만, 옐츠란은 손을 치웠다.

정신을 잃은 글린다를 교수로 보이는 마법사에게 넘겨주는 사이 두려움에 빠진 마법사들이 꾸역꾸역 옐츠란과 헤나드 근처로 몰려들었다. 적어도 방금 불길 속에서 날아온 헤나드라면 뭔가 알려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 불안감을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니었지만 제 걱정만으로 속이 까맣게 타는 옐츠란은 얼굴을 구겼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헤나드님의 마법인가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금세 와글와글 시장통 같아진 목소리 사이로 마법사다운 매우 학문적인 질문도 섞여서 들렸다. 지긋지긋한 마법사들! 옐츠란이 참지 못하고 화를 내려던 찰나였다.

마법사들이 모인 중앙으로 무언가 휙 하고 날아왔다. 여행 동안 쌓은 민첩함으로 옐츠란은 겨우 피했다. 옐츠란이 서 있던 자리로 떨어진 꽤 거대한 숯덩어리 같은 것은 매캐하고 끔찍한 냄새를 풍겼다. 꼬챙이 같은 것에 고깃덩어리를 끼운 다음 고약할 만큼 바짝 태운 것 같았다. 모두 그것이 풍기는 냄새에 코를 막고 뒤로 물러섰다.

바짝 탄 동물의 잔해인가, 옐츠란이 미간을 찌푸린 채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놀랍게도 그것이 꿈틀댔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어떤 마법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설마... 살아있는 건가?'

"헤나드, 그건 네가 관리할 거지?"

명망 높은 왕족처럼 이미 사라진 고상한 발음의 잔재가 남아있는 매끄러운 공용어였다. 스스로 비켜주는 것처럼 절반으로 딱 갈라진 불의 장막 사이로 처음 보는 이가 걸어왔다.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하얀 맨발이 검게 탄 바닥을 밟을 때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그는 고통을 느끼지 않은 태도였다. 거리낌 없는 걸음에 로브 아래로 탄력 있고 건강한 다리가 드러났다 사라졌다. 큰 키에 당당한 체구인 여자는 놀랍게도 맨 몸에 로브만 걸쳤지만,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그것을 떠올리지 못했다. 그 눈동자. 모든 걸 무릎 꿇린 뒤 자신이 세상의 처음이자 끝이라 선포하는 눈동자. 끝 모를 강대함이 담긴 녹색의 눈동자는 굴종을 바치고 싶을 만큼 매혹적이었다.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도 그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시원하게 올라간 눈꼬리로 주변을 훑던 그는 옐츠란을 향해 똑바로 걸어왔다. 백금발에 가까운 머리끝에서 여전히 물이 뚝뚝 떨어졌다. 거세게 타오르는 불길은 그의 머리를 석양빛으로 물들였다.

옐츠란은 세상을 내려다보는 그 녹색 눈동자를 알고 있었다. 너무 선명해서 바라보는 자가 눈을 돌리고 마는 시선.

그 순간 옐츠란은 전혀 다른 색임에도 마탑 깊은 곳에서 발견한 영상구 속 눈동자를 떠올렸다. 마도 시대의 유물로, 영상의 대부분은 흐릿하게 보였지만 그 속에서 유일하게 짙은 다갈색 눈동자만 또렷했다. 그 눈동자의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없다는 건 중요하지 않았다. 옐츠란은 그 시선만으로 전율했다. 부러지고 벼락을 맞아 타버렸지만, 지혜의 샘에 뿌리를 댄 채 자리를 지키고 선 고목의 눈빛이 이러하겠구나. 옐츠란은 그 영상구가 작동을 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순간을 돌려보았다. 마도 시대의 사람은 다 이렇게 강하고 깊은 눈을 가졌을까? 그랬다면 그 시대는 어땠을까? 상상하며.

옐츠란은 거의 잊었던 기억이 왜 지금 떠오를까 생각하며 입을 열었다.

체구도, 얼굴도, 머리색과 눈 색도 바뀌었지만, 저 눈과 시선이 마주친 순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추측이나 어림짐작이 아닌 창문을 통해 빛이 내리쬐는 것처럼 막을 수 없는 계시 같은 깨달음이었다.

"레티시아."

“잠깐! 머리카락, 머리카락!"

뭐라는 거야, 웅얼대지 말고 확실하게 말하라고.

내 손에 거추장스럽게 들고 있는 건 뭐지? 놓아버리자. 잠깐, 내가 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앉아 있는 거지? 숙이고 있자. 기왕이면... 눈도… 감고...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져서 잠이 들려는 찰나 텁, 하고 뜨뜻미지근한 손바닥이 내 이마를 받쳤다. 정말 눈을 뜨기 싫지만 건방지게 내 이마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군지 확인해야 했으므로 별수 없었다. 한 손에는 무엇인지 잘 모를 붉은 소스가 뚝뚝 흐르는 머리카락을 쥐고 다른 한 손으로 내 이마를 짚은 옐츠란이 곤란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달그락. 내가 손에서 놓아버린 나무 수저가 바닥과 부딪치는 소리가 들렸다.

“머리카락이 파스타에 그대로 들어갔어.”

“조심 좀 하지...”

“네 머리카락이야!”

으응? 그러고 보니 내 머리카락이 맞다. 언제 바꿔치기한 거람? 이러고 있으니 옐츠란 손의 미지근한 온기가 포근하게 느껴졌다. 이마를 받쳐주는 것도 있으니까 이대로 잠깐 눈을 감았다 떠도 되지 않을까? 내가 감기려는 눈을 끔뻑거리며 겨우 뜨는 동안 옐츠란은 내 머리카락을 물컵에다 넣고 휘휘 저어 소스를 씻어내는 중이었다. 내 머리카락을 그렇게 다루다니. 이노오오옴... 이라고 하기엔 너무 졸렸다.

옐츠란이 내 어깨를 잡고 흔들어댄다.

“안돼. 이건 다 먹고 자. 배고프다며.”

나는 천근같은 눈꺼풀을 다시 들어올렸다. 배를 더듬어보았더니 홀쭉하다.

“맞아. 나 배고파.”

말을 내뱉고나니 배가 아플정도로 고팠다는게 갑자기 느껴졌다. 꼬르륵. 부족한 위장이 마저 넣어달라고 아우성이었다. 옐츠란이 새 나무숟가락을 내 손에 쥐어줬다 자, 떠서 먹어. 나는 감기는 눈을 부릅 뜨며 저절로 움직이길 바라는 사람처럼 리본 모양의 파스타 면을 힘껏 노려보았다. 이제 손만 움직이면 된다. 그러면 되는데... 왜 파스타가 자꾸 가까워지지? 지나치게 가까운데...?

결국 나는 파스타에 얼굴을 쳐박고 말았다. 따뜻하고 편안한 것 같다. 베개로 만든건가?

"레티시아!"

옐츠란이 황급히 내 어깨를 잡고 나를 일으켰다. 잠이 막 들려고 했는데 굉장히 무례하다. 하지만 한숨 자고 일어난 뒤에 혼내도록 하자. 축축한 무언가가 얼굴에 닿았다. 눈을 살풋 뜨니 물에 적신 손수건이었다. 옐츠란은 제법 살뜰하게 내 얼굴을 닦아냈다. 나는 그 부드러운 손길에 다시 꾸벅꾸벅 졸았다. 옐츠란은 아이 세수를 시키는 부모처럼 한 손으로 내 양 볼을 꾹 잡고 속눈썹에 묻은 소스까지 모두 닦아줬다.

"나 졸려."

내 말에 옐츠란은 포기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자라, 자. 한숨까지 푹 쉬었다. 하지만 배가 여전히 홀쭉한걸.

"나 배고파."

옐츠란은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걸 참는 사람처럼 나를 쳐다보다가 자기 그릇을 끌고 와서 한술 뜬 채로 내게 내밀었다.

“아.”

나는 옐츠란의 말에 따라 얌전히 입을 열었다. 몇 번 씹다가 잠들면 옐츠란이 흔들어 깨우고 마저 씹고, 또 먹다가 잠들면 깨워서 마저 먹고. 피차 괴로운 순간이 지나가자 그릇이 비워졌고 나는 만족스러울 만큼 배가 불렀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이 양치하는 동안 반복 돼서 결국 옐츠란이 내 양치질까지 대신해주고 말았다. 막판에 퉤 뱉으라고 했는데 내가 잠결에 웨 하고 그냥 입을 열어서 옷을 버린 것만 빼면 며칠간 이 상황에 둘 다 적응하게 된 것 같다.

"이제 침대로 가서 자. 나도 양치질하게."

욕실에서 나와서 몇 걸음 떼다 보니 왠지 안락해 보이는 바닥이 마음에 든다. 이 여관은 방이 쓸데없이 넓어. 침대까지 머니까 이 안락한 바닥에 누워도 괜찮을 거야.

양치하고 나오던 옐츠란이 나를 밟을 뻔해서 으악! 하고 소리 지른 것만 빼면 정말 괜찮았다. 옐츠란은 결국 바닥에 누운 나를 그대로 들어 침대로 옮겼다. 갑자기 자란 팔다리가 달랑달랑 흔들리는 감각은 이상하고 어색하다. 그 뒤로는 기억이 안 난다. 진짜로 깊게 잠들었으니까.

나는,

며칠 전에 죽었다.

정신 못 차리고 병든 닭처럼 꾸벅대는 건 육체를 재구성하느라 기력을 다 써버린 몸의 피로였다. 일종의 부활 부작용이다. 과거에는 이 기간에 어디에 숨거나 믿을 만한 사람 곁에서 지내거나 부활한 보람도 없이 눈도 뜨지 못하고 다시 죽었다. 뭐, 최근이라고 안전한 건 아니지만 나도 인간이라고. 깊게 잠들면 바로 못 일어난다. 전보다 부활하는 빈도가 줄어 며칠간 푹 자겠구나 하고 넘길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오랜만에 찾아온 '신생아 기간'의 수발을 본의 아니게 옐츠란한테 떠넘겨버렸다.

뤼네 아비에 측은 겨우 불장난 가지고 멋대로 학회를 조기 종결하더니 외부인은 다 나가라고 통보했다. 그 때문에 당장 페이퍼트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우리는 무슨 강 오리 알 신세가 됐다. 욕실에서 침대까지 걷는 것조차 힘든데 이틀 거리를 이동할 순 없는 일이고, 어찌 도착했다 해도 이동 마법진의 드물게 발생하는 부작용 때문에 내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정신을 잃은 사람을 이동시켰을 때 뇌에 문제가 생긴다나 뭐라나. 옐츠란이 절대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펄쩍 뛰었다.

“은혜도 모르는 고얀 놈들! 내가 학생 수십 명을 살려줬는데 숙소도 잡아주지 않고 내쫓다니.”

뤼네 아비에를 나오면서 내가 그렇게 말하자 옐츠란은 뭐라 설명할 수 없는 표정으로 나를 봤다.

“학생 수십을 살리고 전부를 죽일 뻔했잖아.”

“안 죽었잖아. 그러면 됐지.”

결국, 우리는 헨데이아에서 며칠 쉬어가기로 했다.

급하게 잡은 여관에 침실 두 개가 붙은 특실이 있어서 다행이었다. 이 정도로 큰 여관에 마침 딱 맞는 빈방이라니, 다 내가 평소에 덕을 많이 쌓아서 그렇다. 옐츠란이 처음엔 그냥 방을 두 개 잡자고 했지만 내가 묽은 수프를 먹다 말고 그 접시에 코를 박고 일어나지 않자 자기가 나서서 방을 잡았다. 목욕하다가 죽기라도 할 것 같다나 뭐라나. 나는 목욕은커녕 세수도 혼자 할 생각이 없는데 왜 굳이 목욕 이야기를 꺼냈나 모르겠다. 하하. 음흉하긴.

한참을 자고 배가 고파서 겨우 눈을 뜨니 바깥이 어스름했다. 저녁이 된 건가? 자다가 하루가 다 가네.

하품하며 눈을 비비다가 이질감에 손을 쫙 펴서 확인했다. 얼마 전까진 한 손에 겨우 사과 한 알을 쥘 수 있는 손이었는데 지금은 사과 두 알은 너끈히 쥘 수 있을 정도로 크고 긴 손이다. 나는 전보다 색이 옅어진 머리카락을 주욱 잡아당겨 눈앞으로 끌어왔다. 여전히 금발이네. 난 갈색 머리가 좋은데.

나는 침대에서 뒹굴뒹굴하다가 해가 저물어 점차 주변의 어둠에 섞여드는 창틀 그림자에 손을 뻗었다. 그림자를 보니 움트헷 생각이 떠올랐다.

나무를 전부 불태워 그림자를 없애자 숨을 곳이 없어진 움트헷은 본능을 거스르는 행동을 했다. 제 목숨을 바쳐 툴륜을 살리려고 애쓴 것이다. 다리에 불이 붙어 생살이 새까맣게 타서 떨어지는데 툴륜에게 불티 하나라도 닿을까 전전긍긍했다.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해도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체였다. 살고자 하는 욕구조차 거세된 움트헷은 괴상하면서 아주 편리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저것을 죽여 없애버릴 것이다. 그게 나와 튤룬의 차이였다. 나는 남을 착취할지언정 나를 위해 죽으라고 하지 않는다.

통증을 경감시켜주는 헤나드의 축복 덕분에 움트헷의 다리가 불타도 콕콕 찌르는 정도로 느껴졌다. 나는 다리를 벅벅 긁으며 움트헷과 툴륜을 물리적으로 분리했다. 자, 따끔. 몸과 분리된 움트헷의 왼쪽 팔과 툴륜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불바다에 떨어진 툴륜이 옷에 옮겨붙은 불을 끄려고 애쓰는 동안 나는 왼쪽 손을 움직여보았다. 마치 잘린 것처럼 손은 축 늘어진 채 움직이지 않았다. 역시 이렇게 되는 건가. 움트헷을 죽이면 나도 죽겠군. 괴상한 관계다.

움트헷이 불에 타죽기 전에 깔끔하게 심장을 찔러 없애는 게 내 목표였다. 영원히 봉인하거나 연구한 뒤 종속을 해제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그냥 죽이는 게 빠르고 간편했다. 어정쩡하게 무언가 남겼다가 또 이 짓을 하는 게 더 귀찮다.

나는 툴륜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대충 속박마법을 쓰고 움트헷을 절벽 끝으로 몰았다. 팔을 잃은 움트헷은 균형이 맞지 않아 기우뚱대며 내 검을 피했다. 아주 적절한 순간, 움트헷을 몸으로 밀어 같이 절벽에서 뛰어내렸다. 협곡 사이에 생긴 강은 땅을 타고 흐른 물이 모여 생긴 곳이다. 물 대신 마나가 철철 흐른다고 할 정도로 딱 알맞은 부활의 장소였다. 나는 허공에서 버둥거리며 벗어나려는 움트헷의 멱살을 쥐고 검을 쥔 팔을 힘껏 추어올렸다. 심장을 찌를 생각이었지만 팔이 짧아서 검 끝이 제대로 닿지 않았다. 짜증 나는군. 나는 정확히 조준하는 걸 포기하고 움트헷의 멱살을 놓으며 밀쳤다. 어느 정도 거리가 멀어진 순간 바람을 이용해 내 몸을 앞으로 밀었다. 흔들림 없는 검 끝이 정확히 심장을 찔렀다. 차가운 금속이 가슴을 가르고 들어오는 게 선연하게 느껴졌다. 아프지 않아서 기분이 더 더러웠다.

풍덩. 까마득한 위에서 두 명이 떨어진 만큼 거대한 물보라가 일며 강이 내 몸을 삼켰다. 시야를 가리는 공기방울과 입이며 코 할 것 없이 마구 들어오는 물 때문에 눈을 제대로 뜨고 있기가 힘들었다. 가물가물한 시야 사이로 내게 남은 한 손을 뻗는 움트헷이 보였다. 이제 와서 공격하려는 건가. 하지만 아네쉬는 그 손을 휘두르지 않고 내 볼에 살풋 손을 올렸다. 정신을 잃기 전 마지막에 본 건 강 표면에 닿아 찬란히 부서지는 햇살을 배경으로 어설픈 아네쉬의 미소였다.

“드디어 일어난 거야?”

방으로 들어온 옐츠란이 마법구를 켜는 버튼을 찾아 눌렀다. 앗, 눈부셔! 순식간에 환해진 눈앞에 나는 이불을 끌어 올려 얼굴을 덮었다.

“다시 자는 거야? 제발 그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꼬르뤼르룩. 하는 이상한 소리가 내 배에서 났다. 나는 이불 아래에서 배를 노려봤다. 소리가 참 맑고 청명한 게 가수를 해도 되겠다.

“나 배고파.”

“그럴 줄 알고 음식 가져왔어.”

나는 슬쩍 이불을 내렸다가 올리길 반복하며 밝은 빛에 눈을 적응시켰다. 가까이 다가온 옐츠란이 곤죽이 된 리조또 같은 것을 들고 서 있었다.

“뭐야? 그게 내가 먹을 음식은 아니겠지? 고기 어디 갔어?”

“너 이틀간 아무것도 안 먹고 잠만 잤어. 갑자기 고기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특별히 주방에 부탁한 거야. ”

“이틀이나 굶었다고? 근데 겨우 그걸 들고 온 거야? 두 입 먹으면 끝나겠다.”

옐츠란은 어쩐지 피곤한 얼굴로 한숨을 내쉬려다 말고 조용히 속으로 삼켰다.

“우선 이것부터 먹어. 갑자기 많이 먹으면 안 돼.”

건방진 놈! 하지만 배고프니까 일단 먹는다.

옐츠란은 익숙한 듯 침대에 걸터앉아 수저로 저어가며 리조또를 후후 불더니 한 숟갈 떠서 내게 내밀었다.

“자, 아.”

나는 한 다섯 숟갈 정도 얌전히 받아먹다가 옐츠란에게 말했다.

“근데 왜 먹여주는 거야? 내가 떠먹을 수 있는데.”

옐츠란이 한 숟갈을 뜨다가 말고 나를 쳐다봤다. 나는 말똥말똥한 눈을 깜빡거렸다. 옐츠란의 귀 끝이 달아오르는가 싶더니 곧 얼굴 전체가 새빨갛게 변했다.

“진... 진작 말을 하지! 전처럼 정신 못 차리는 줄 알았잖아! 이제부터 네가 떠먹어.”

저렇게까지 부끄러워할 일인가? 나는 심드렁하니 옐츠란이 건네주는 숟가락과 나무쟁반을 받아들었다. 애초에 옐츠란 간만큼 퍼온 탓에 몇 번 더 떠먹지도 않았는데 그릇은 금세 바닥을 드러냈다. 저걸 핥아? 말아? 진지하게 고민하는데 내 눈빛을 읽은 건지 옐츠란이 날름 그릇을 가져갔다.

“음식 더 올 거야.”

“안 오면 너라도 먹을 거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문이 열리면서 고기 냄새가 술술 풍겼다. 아주 부드러운 소고기를 핏기가 가시도록 구운 뒤 얇게 썬 스테이크와 감자 뇨키가 내게 걸어왔다. 나는 그 매혹적인 자태에 시선을 뗄 수 없었다. 다른 접시에는 닭가슴살을 찢어 어떤 소스에 버무린 것 같은 음식이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냄새부터 음미했다. 고기와 고기. 이제야 말이 통하는군.

“딱 맞춰서 일어나셨네요.”

음식을 보느라 들고 온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는데 눈이라도 녹을 듯 화사한 미소를 짓는 헤나드가 내 무릎 위에 작은 테이블을 올려주었다. 그동안 옐츠란은 이불을 걷어버리고 베개를 내 등 뒤에 받쳐주는데 둘이 손발이 척척 맞았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었다.

“네가 왜 여기 있어?”

“드릴 말씀이 있어서 깨어나길 기다렸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음식을 보니 침이 한가득 고였다. 옐츠란은 내가 침이라도 흘릴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황급히 냅킨을 펼쳐 내 목에 둘러주었다.

“나는 음식 먹을 때 누가 옆에서 조잘조잘 대는 걸 안 좋아해. 그러니까 지금 한술 뜨기 전에 빨리 말해.”

“저를 죽여주세요.”

너무 빨리 말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스테이크를 빨리 입에 넣는 게 더 중요했다. 나는 가볍게 대꾸했다.

“그래.”

감자 뇨키와 스테이크를 같이 한술 뜨니 드디어 제대로 식사를 하는 기분이 들었다. 겉은 부드럽게 풀어지고 속은 쫀득한 뇨키와 몇 번 씹지도 않았는데 녹는 것처럼 넘어가는 고기는 환상적인 조합이었다. 여기 요리사 실력이 좋네.

옆에서 옐츠란이 참지 못하고 한숨을 쉬는 사람처럼 길게 숨을 내뱉었다.

“지금은 무슨 말을 해도 레티시아가 귀담아듣지 않을 거야."

옆의 닭고기는 무슨 맛일까 한 입 먹어보니 차가운 소스로 버무린 닭고기 냉채는 제법 새콤하고 매콤한 맛이 났다. 크림 뇨키의 느끼함을 잡아주는 상큼함이 있었다.

“하고 싶다는 말이 그거였어? 죽여달라고? 그걸 위해 여태껏 기다린 거야?”

“그래.”

“도저히 이해하려야 이해할 수가 없군.”

“어린 옐츠란, 난 이해해 달라 한 적 없어. ”

“왜 굳이 레티시아한테 부탁하는 거야?”

뇨키를 한 숟가락 뜨고 그 위에 스테이크 세 점, 새콤한 냉채까지 한입에 넣으니 세 숟갈 만에 배가 부를 것처럼 만족감이 가득 찼다. 나는 볼에 미어터질 듯 넣고 냉채에 있는 방울토마토도 입에 넣었다.

“레티시아뿐이니까. 내 심장의 주인이 될 사람은.”

찌익, 툿. 기어코 입술 끝에 간당간당 물려있던 토마토가 터지면서 헤나드의 옷에 즙이 튀었다. 무슨 이야기를 심각하게 하고 있던 둘은 나를 쳐다봤다. 한참을 우물거린 뒤에 나는 말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인가 본데, 관심 없으니까 저리 가서 말해.”

“바로 옆에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 들었어?”

옐츠란이 황당하다는 듯 물었다. 내 이름이 몇 번 들린 것 같긴 한데 나를 칭송하는 소리였겠지.

“내가 꼭 들어야 하는 이야기야?”

“네.”

“아니.”

헤나드와 옐츠란이 동시에 상반된 대답을 했다. 둘은 말없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동안 화해했나 보네. 사이가 참 좋아 보인다. 몇 숟가락 훌훌 더 뜨자 만족스러운 식사가 다 끝났다. 나는 뒤로 기대앉으며 명령했다.

“치워. 갔다 오면 듣지.”

그 말에 헤나드가 테이블을 거둬가고 배가 부르니까 잠이 슬 올 것 같았다. 먹고 바로 자면 안 되는데... 내가 감기는 눈을 뜨려고 애쓰자 옐츠란이 걷었던 이불을 덮어주고 옆에서 살랑살랑 손부채질하기 시작했다.

“뭐 하는 거야?”

“헤나드가 하는 헛소리를 듣는 것보다 자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재우는 중.”

“그런다고 잠이…오...”

겠냐. 까지 말하고 싶은데 몸이 스르륵 미끄러진다. 옐츠란이 내 등 뒤에 끼워 넣었던 베개를 빼며 나를 제대로 눕힌 탓이다. 옐츠란한테서 나는 기운의 향기는 나를 재우고 싶다는 주인의 바람을 따르는지 포근하고 아늑하게 느껴졌다. 옐츠란은 그것으로 모자라서 어설프게 이불 위를 토닥토닥 두드리기까지 했다.

“...지금 레티시아를 재우는 건가?”

밑에 내려갔다 온 헤나드가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다. 옐츠란은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이다.

“나는 그냥 이불을 두드리고 있는데?”

뻔뻔함이 많이 늘었네. 옆에 좋은 스승이 있으니까 당연한 결과지. 나는 참을 수 없어져서 하품하며 말했다.

“하... 려는 말하암, 이 있다며.”

헤나드는 옐츠란을 밀치며 비집고 들어와서 나를 굳이 다시 앉혔다. 내가 눈을 감고 입맛을 다셔서 그런 것 같다. 누워있다고 못 듣는 건 아닌데 말이지.

“레티시아, 아네쉬를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자들을 제 손으로 없애려고 그들에게 접근했지만 움트헷 때문에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아네쉬의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땐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당신이 세계를 구했습니다. 이번에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지만 사실 잠이 와서 내 귀엔 엥양앵웽 하는 소리로 들렸다. 그래그래, 네 말이 다 맞아. 헤나드가 뭐라고 했는지 옐츠란이 자리를 비워주겠다며 문을 닫고 나가는 게 보였다. 나는 은근슬쩍 미끄러져 이불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이 죽는 것을 봤어요.”

이불을 어깨까지 덮다 말고 나는 그대로 멈췄다. 앞의 내용을 흘려들어 어떻게 봤다는지 모르겠지만 잠이 싹 달아났다.

“잘못 봤을걸?”

“강에 당신의 시체가 떠내려오더군요.”

“배영한 거야.”

“살아있을까 싶어 당신을 구조했지만,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이건 도저히 둘러댈 말이 없다. 나는 팔짱을 꼈다.

“그리고 시체가 갑자기 사라지더니...”

헤나드는 비밀을 공유한 사람처럼 은밀한 빛을 담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후에 불길 속에서 당신이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다른 모습으로 말이죠.”

“내가 레티시아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아니요, 겉모습이 바뀌어도 이 거대한 마력의 주인을 제가 모를 리 있겠습니까.”

헤나드는 한쪽 무릎을 꿇으며 나와 눈높이를 맞췄다.

“역시 제가 틀리지 않았어요. 당신뿐이에요. 당신이 저를 죽여줄 사람입니다.”

“너 좀 또라이같아.”

무슨 그런 말을 환희에 차서 하는 거지? 나는 헤나드의 이마를 꾸욱 밀었다. 얼굴 좀 멀리하고 말해. 헤나드는 침대 끄트머리에 고개를 모로 기울여 기대더니 볼우물이 팰 정로 진하게 웃었다.

“알겠다고 하셨잖아요.”

“대충 대답한 건데…어차피 너는 안 죽잖아?”

헤나드는 목에 차고 있는 목걸이를 풀더니 내 손에 쥐여주었다. 작은 모래시계가 둥근 원 안에서 쉴 새 없이 빙글빙글 도는 장식이 달린 목걸이였다. 가까이서 보니 그 안에서 쏴아 쏴아아 하는 파도 치는 소리가 들렸다.

“제 심장입니다.”

나는 꺼림칙한 물건이라도 받은 것처럼 그걸 툭 하고 던져버리고 손을 훌훌 털었다. 헤나드가 장난스럽게 아야, 하고 목걸이를 다시 집었다.

“진짜 심장은 아닙니다. 그렇게 더럽다는 듯이 던지면 저 상처 받아요.”

헤나드 손에서 달랑거리는 목걸이는 제 주인의 손에 들린 걸 기뻐하듯 요사스러운 보랏빛으로 반짝였다.

“제 축복을 파훼하는 목걸이입니다. 부디 이것을 받아주세요. 가지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저를 죽여주세요.”

“그게 지금이지? 자꾸 죽여달라고 하니까 지금 죽이고 싶어.”

헤나드는 내가 대단한 농담이라도 한 것처럼 웃었다. 아무래도 얘는 좀 미친 게 맞다. 처음부터 이상하긴 했다. 감정 기복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조금만 참아 주세요. 제가 모든 구원자를 죽이고 난 뒤, 그때 죽여주세요.”

“구원자는 어떻게 죽일 건데? 이걸로?”

“그건 재료를 더는 구할 수 없어서... 이제 못 만들어요.”

헤나드는 작게 만세 하듯 양손을 들었다.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마력을 모두 흡수하면 됩니다. 마른 나뭇가지처럼 앙상해져서 움직이지 못하죠. 강력한 저주로 죽을 때까지 봉인해두겠습니다. 그 일을 모두 끝내면 저를 죽여주세요. 저와 그들은 순리를 거스르는 존재들. 세상에 존재해선 안 됩니다.”

그런 이유로 자기도 죽으려는 거라고? 내 논리론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오랜 시간을 살았고 몇백 년을 고통 속에서 굴렀지만, 여전히 삶이 기껍다. 무슨 대단한 신념이라고 재가 되어 사라지길 택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헤나드가 물끄러미 나를 올려다보았다. 맑은 초록색 눈동자를 보자 숲의 녹음이 담긴 것처럼 푸르른 우켄 호수가 떠올랐다. 근방의 모두가 사랑했던 보물. 날이 더우면 바닥이 들여다보이는 맑은 물에서 첨벙첨벙 수영했다지. 전쟁을 겪으며 호수는 시체를 삼키고 무기를 삼키고 독까지 삼켜 병들어버렸다. 혼자 시름시름 앓다가 늪지로 변해버린 그 우켄 호수.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걸 알잖아. 이건 순리를 거스르는 게 아니야?”

“당신이잖아요.”

비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의 논리가 보고 싶은 것이지 되지도 않은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아녔다. 남을 죽이고 본인도 죽겠다면 죽은 사람이 아, 그럴 수 있지. 하고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게 아닌가. 나는 나라서 괜찮고 남은 내가 아니라서 안 된다고? 그럴싸하게 들리는 건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지 저놈이 논리적으로 말해서가 아니다.

나는 헤나드라는 이해할 수 없는 유형의 인간이 궁금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타적이라 생각하는 것들을 위해 희생한 자. 도대체 뭣 때문에? 뭐를 위해서?

높은 신분으로 태어나 환대받는 축복마법사로 자랐댔지. 그 과정에서 어떤 개똥철학이 들어가야 저런 인간으로 자라는 걸까? 연구대상 감이다.

“구원자들은 이미 악한 선택을 했습니다. 몇 번의 기회를 줬지만, 결과는 항상 똑같았어요. 제가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가장 애썼던 건 젠이였습니다. 하지만...”

숯불구이가 됐지.

헤나드는 손을 조심스럽게 뻗어 손끝으로 내 손톱을 톡 하고 두드렸다.

“당신이 결국 선한 선택을 한다는 걸 전 알아요.”

나는 픽, 헛웃음을 흘렸다.

“뭘 알아? 너 나랑 친해?”

“아니요, 친했으면 좋겠지만... 절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맞아.”

“아야. 또 상처받았어요.”

“상처 안 받으면 되잖아. 날 다 안다는 듯이 얘기하지 마. ”

헤나드가 내 손톱 끝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바라보다가 손을 쳐냈다. 헤나드는 손을 거두어 숨겼다. 놈은 늘 자신의 손이 남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걸 유념하는 듯했다. 꽤 용기를 내어 손을 뻗었겠지만 내 알 바 아니다. 나는 손을 베고 누운 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저는 그저 본 것을 믿을 뿐입니다.”

“네 말은 모순뿐이구나. 겨우 한번, 우연히 네가 가려던 길과 일치했을 뿐인데 너는 내가 순리를 거슬러도 되는 사람이라 하는군. 구원자들이 뺏은 생명 수를 합친 것보다 내가 죽인 인간 수가 더 많다면 어쩔 셈이지? 만일 구원자 중 선인이 있는데 네가 보지 못한 거라면? 혹은 네가 주지 않은 마지막 기회가 필요했던 거라면?”

헤나드는 그리운 것을 떠올리는 듯 약간 흐릿한 시선으로 나를 보았다.

“그렇게 물어보시니 옛날 생각이 나네요. 한번이 아니에요, 레티시아. 당신은 매번 그러셨죠.”

“매번이라고?”

헤나드를 처음 만난 게 옛날이라고 할 만큼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나는 헤나드의 턱을 잡고 요리 조리로 돌려보았다. 이렇게 잘생긴 걸 잊을 리가 없다.

“기억에 없는 얼굴이야. 우린 옛날에 만난 적 없어.”

헤나드는 옅은 쌍꺼풀이 풀어질 듯 나긋한 웃음을 지었다.

“기억 못 하실 줄 알았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보잘것없으니까요.”

나는 슬슬 이 선문답에 짜증이 나서 헤나드의 뺨을 짝 소리 나게 쳤다. 소리만 요란했을 뿐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힘을 실어서 친 건 아녔다. 갑자기 뺨을 얻어맞은 헤나드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소리 내 웃었다. 놈은 웃음이 멈출 때쯤에 이래서 당신이 좋아요. 하고 중얼거렸다. 그래, 나 좋다는 애들이 어디 한 둘이겠냐.

“라틸리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기억나시나요?”

짜증이 나서 그게 누군지 기억을 더듬기도 귀찮아진 나는 이불을 휙 머리끝까지 덮어버렸다. 라틸리라는 어디서 들어본 듯한 이름을 꺼내봤자 떠오르는 건 아무…아아아! 나는 이불을 휙 걷었다. 내가 그럴 거란 걸 알았다는 듯이 헤나드가 입동굴이 보일 정도로 환하게 웃었다.

140년 전쯤인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초월자가 젤타의 왕궁에서 지낸다는 소문이 돌았었다. 젤타는 크지 않음에도 광산을 끼고 있어 부유한 나라로, 마침 내가 지내던 곳에 가까이 있었다. 초월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은 간만이라 어떤 자인지 슬쩍 가서 보고 싶었다. 하지만 경비가 삼엄했고 궁은 타국에서 몰려온 자들로 바글바글했다. 젤타국은 영리하게 초월자의 정체를 끝까지 비밀에 부쳤다. 궁금한 걸 참지 못한 나는 결국 가짜 신분을 만들어 성에 잠입했다.

왕궁에 들어갈 만큼 정교한 가짜인물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았다. 그 당시 여러 사정 때문에 잠깐 도둑 길드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재밌었지. 의적 놀이.

“그래, 이제 기억나. 예절교사 라틸리.”

공교롭게도 가장 빠르게 조작할 수 있으면서 궁의 깊은 곳까지 잠입하는 신분은 3 왕자의 예절교사 자리뿐이었다. 이해관계로 인해 내내 공석인 자리에 슬쩍 발을 들이미는 건 일도 아니었다. 본래 예절교사란 이미 완벽한 예법을 익힌 왕족과 얘기나 나누면서 자기 입지를 다지는 자리지만 내 보좌관으로 지내던 놈이 절대 잡담은 금물이라 당부했다.

결국, 무난하게 어린 3 왕자와 수업을 하고 초월자를 만났던 것 같다. 그냥 빠르게 채소를 써는 능력을 갖춘 별 것 아닌 자였다. 피부가 푸른색인 것만 기억에 남는다.

“선생님. 당신이 제게 순리입니다.”

무난하지 않았나? 예절이 아니라 세뇌를 가르친 건가.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봐도 어떤 수업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죄가 미우면 쟤도 미워하라고 하셨잖아요. 가르침을 따르는 중입니다. 거창한 이유를 대라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선생님 앞에서 그러지 않을게요. 저는 그냥 구원자가 미워요."

이 미친놈이 내가 만든 미친놈이었다니, 개똥철학을 주입한 건 나였구나.

금빛 이슬에서 태어난 요정 같은 아이였는데 가치관을 형성할 나이에 나를 만나 과한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저도 미워요.”

헤나드는 내 손에 다시 목걸이를 쥐여줬다. 웃고 있지만, 어딘가 서글픈 미소였다.

어릴 때도 저렇게 웃었지. 여덟 살이었나 열 살이었나, 어린 것이 정치에 휘말려 있는 듯 없는 듯 우울한 성격이었다. 징징대는 애는 싫지만 오동통한 손가락으로 펜대도 제대로 못 쥐면서 다 제 탓이오 하는 애를 보는 건 더 싫어서 수업 외의 시간에 놀아줬던 게 기억난다. 나만 보면 항상 볼을 발그레 물들이고 수줍어하는 천사 같은 아이가 귀여워서 암살 위협에서 몇 번 구해주기도 했었다.

워낙에 목숨을 노리는 것들이 많아 열다섯을 못 넘길 거라고 떠날 때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오래 살아남았구나.

“미워서 그러는 거예요. 모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해요.”

헤나드가 과거의 그 어린 것이라 생각하니 심술이 조금 누그러졌다. 나는 헤나드의 볼을 꾹 눌러 볼살을 통통하게 만들어보았다. 입술이 붕어처럼 삐죽하고 나왔다. 이렇게 보니 확실히 그 얼굴이 남아있다. 나는 손에서 힘을 풀었다.

“그 벌을 왜 네가 내리는 거야?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옳고 그름은 네 마음속에 있다. 세상이 벌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결정을 내렸다면 실천해라.”

내가 그렇게 가르쳤네.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내가 할 법한 소리긴 하다. 나는 끄응 하는 소리를 내며 다시 몸을 일으켰다.

“백 년이 넘게 지났는데 가르침을 따를 만큼 내 수업이 감명 깊었어? 게다가 계절이 바뀌기 전에 내가 그만뒀잖아. 한 육 개월? 그쯤 가르친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어린 시절 전부였어요. 선생님이 떠난 이후, 저는 그 기억으로 살았습니다.”

하긴, 궁에서 다들 대놓고 3 왕자를 없는 취급 했었지. 다 큰 인간들이 어린애를 따돌리길래 다들 유치하게 정치한다고 생각했었다. 새끼 오리는 알을 깨고 나와 처음 본 것을 부모라 생각하고 따른다. 그것처럼 헤나드도 처음 따뜻하게 대해 준 게 –하필 나라서 내 말을 맹목적으로 믿고 따랐나 보다. 어딘가 변질된 것 같지만 본래 사람 기억은 어설퍼서 제멋대로 주석을 달고 편집하니까.

“당연히 선생님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떠난 날 궁전의 반이 무너졌고 잔해 속에서 시체조차 찾을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더 가르침을 기억하고 실천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선생님이 떠나고 없는 세상을 선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헤나드는 거기까지 말하고 눈을 가늘게 뜨며 슬쩍 미소 지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선생님이 궁을 무너트린 거죠?”

“뭐…, 작은 실수.”

“그 뒤로 내전이 일어나서 젤타는 망했어요.”

변방의 작은 시골 마을마저 왕국이라고 부르는 지금 시기에 나라는 생겼다가도 하루아침에 망한다. 절대 내 탓은 아니다. 나는 망국의 왕자 앞에서 뻔뻔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지.

“저는 뒤늦게 마법 재능을 발견해서 마법사가 되고, 마탑에 들어갔지만 내내 선생님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쯤 되면 좀 잊어. 집착이 심하네.”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이마를 탁 하고 때렸는데도 헤나드는 좋다고 웃었다.

“저도 40년쯤 지났을 때 잊으려고 했는데, 다시 당신이 나타나서 저를 살려주었잖아요. 어떻게 잊겠어요.”

전혀 모르는 소리인데? 내 표정을 본 헤나드가 대충 제 몸이 썩어갈 때 내가 치료해줬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했다. 여전히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구더기가 끓는 눈먼 마법사를 내가 왜 도와줘? 설명만 들어도 더럽다. 헤나드가 한 마디 덧붙였다.

“얼굴은 안 다쳤어요.”

그렇군. 예나 지금이나 납득가는 공정한 이유라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그분이 당신이라는 걸 몰랐지만, 묘하게 느낌이 익숙해서 연구를 통해 마나의 기운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아냈죠.”

너도 역시 마법사구나. 궁금하다고 바로 연구에 돌입해서 알아낸 게 되게 마법사스러웠다.

나처럼 색이나 향까지 느낄 정도로 예민한 마법사는 드물지만, 마나의 언어를 다룰 경지에 이른 마법사라면 어느 정도 체감할 거라 짐작했었다. 옐츠란이 겉모습이 바뀐 나를 보고 바로 레티시아라고 부른 것처럼 그만큼 강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다, 헤나드도 직감에 의지해 연결고리를 찾아낸 것이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선생님을 기다리는 걸 멈출 수가 없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영문 모를 소리를 늘어놓더니, 이제야 좀 이해가 된다. 얘는 단단히 미친놈이다. 불쌍하게도... 예쁜 얼굴에 망가진 뇌를 가졌구나.

내가 3 왕자에게 준 정이라곤 길 가다가 귀여운 강아지를 보고 우쭈쭈 이리 오련, 하고 쓰다듬어 준 정도에 불과했다. 남이 키우는 강아지. 겨우 그 정도 살가움 때문에 백 년이 넘게 나를 기다렸다니, 얼마나 미련한 삶을 산 거지?

믿고 의지한 자는 다 배신하고 사랑한 자는 죽고, 친근히 다가온 자는 헤나드를 이용하고... 진부한 이야기겠지. 나도 겪은 적 있을 만큼.

“숲이 불타고 당신이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날...”

헤나드는 일어나 한쪽 무릎을 침대 위에 걸쳤다.

“당신이 레티시아고, 라틸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 날...”

그는 서러운 눈물로 다음 말을 대신했다. 침대 위로 올라온 헤나드는 내 발 아래 무릎 꿇고 앉아 눈물을 뚝뚝 흘렸다.

“네 멋대로 기다려놓고 나에게 죄책감을 주려는 듯 울지마.”

생각하기도 전에 말이 차갑게 나갔다.

“죄송…,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헤나드는 팔을 들어 넓게 펼쳐지는 소매로 얼굴을 가리고서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헤나드의 가치관이 나를 통해 형성됐고, 어린 시절의 유일한 좋은 기억이고 그 뒤로 인간불신에 빠졌다 한들 그렇게 살기로 선택한 것은 본인이었다. 어설픈 배움을 고수한 고집이 그를 불행하게 만들었다. 헤나드는 드물게 모든 좋은 조건을 타고 났다. 마음을 조금만 열었다면, 아니 상처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그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를 내 인정을 받기 위해 희생하지 않았을 거다. 더 나은 삶을 살았겠지.

곧바로 나는 그게 얼마 전까지의 내 모습이란 걸 알아챘다. 인정조차 못 받는데 내 판단을 고수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삶. 게다가 헤나드는 자기를 희생했지만 나는 남들 희생했지 않은가. 말이 뾰족하게 나간 건 지우고 싶은 과거를 투영했기에 괜한 화풀이였다. 여전히 나한테 얼굴을 보이지 않고 우는 헤나드가 보였다.

“팔 내려봐.”

“아직, 눈물이...”

헤나드는 소매로 얼굴을 마구 비벼 닦고서 팔을 내렸다. 헝클어진 앞머리에 드러난 단정한 이마, 우느라고 빨갛게 달아오른 눈, 꾹 깨물어 빨개진 입술까지.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날개 잃은 천사가 따로 없었다.

“우는 얼굴은 변한 게 없구나. 여전히 못생겼어.”

내 말에 헤나드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졌다. 장난인 거 알면서 울기는.

나는 다정하게 내 무릎을 두드렸다.

“이리와.”

헤나드는 눈치 보며 빼는 것 없이 곧장 내 다리를 끌어안고 무릎에 얼굴을 파묻었다. 헤나드의 눈물 때문에 얇은 이불이 축축해지는 게 느껴졌다.

“다시 예뻐질 때까지 이러고 있을게요.”

“네가 예쁜 걸 아는구나.”

헤나드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킥킥대며 헤나드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예나 지금이나 정말 멍청해. 떠나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라고 했잖아. 남은 신경 쓰지 말고. 근데 왜 오래만 산 거야? 그게 무슨 재미라고.”

“왜 그랬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을 다시 만나기 위해 저는 끈질긴 목숨을 이어왔나 봅니다.”

역시 이상한 놈.

하지만 맹목적으로 내가 좋다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싫지만은 않았다. 뿌듯함처럼,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죽지 말라고 하면 안 죽을 거야?”

헤나드는 고개를 들었다. 애처로운 얼굴이다.

“저는 이미 망가졌어요.”

나는 손 안에 쥐고 있던 목걸이를 들어 올렸다. 내 손가락 사이로 목걸이가 달랑달랑 흔들렸다. 이게 네 심장이라 했지. 내 물음에 헤나드는 순종하는 신도처럼 네. 하고 눈을 내리깔았다.

“정말 죽고 싶은 거라면 네 심장을 나한테 맡기지 않았겠지. 너를 살릴지, 죽일지 선택권을 나한테 넘긴다는 뜻이지?”

헤나드는 시선을 피한 채로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헤나드의 턱을 쓸어올려 눈을 마주치게 했다.

“대답해.”

숨이 지나치게 가까웠다. 그가 젖은 속눈썹을 깜빡대자 눈가에 고여있던 눈물이 주룩 흘러내렸다.

“당신의 뜻대로...”

헤나드가 내 옆에 한쪽 손을 짚고 은근히 체중을 실었다. 침대가 한쪽으로 기우는 게 느껴지며 야할 정도로 붉고 눈물로 축축한 얼굴이 내게 다가왔다. 그가 울음을 참느라 짓씹어 댔던 입술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부드럽고 촉촉해 보였다.

“야!!!!!!”

갑자기 들려온 외침만 아니었다면 정말 그대로 헤나드를 홀랑 벗겨서 꿀꺽 해버렸을 거다. 내가 가르쳤던 학생이고, 어린 모습을 알고 있는 건 전혀 양심에 찔리지 않았다. 혹할 만큼 예뻤으니까 어쩔 수 없다. 여자의 본능이다.

문가에 선 옐츠란은 화가 잔뜩 난 채로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헤나드의 어깨를 잡아 뒤로 내던져버렸다. 옐츠란이 마법사인데도 기사로 착각할 만큼 덩치가 크고 최근에는 운동도 매일 빠짐없이 한 덕에 헤나드는 그대로 침대 밑으로 굴러떨어졌다.

“너무 길어져서 올라와봤더니...이거 완전 쓰레기 아냐? 정신도 못 차리는 애한테 무슨 짓이야!”

옐츠란은 그걸로 분이 안 풀리는지 헤나드를 몇 번 걷어찼다. 아픔을 느끼지 않는 헤나드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얼떨떨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옐츠란이 씨근덕대다가 괜찮아? 하고 나를 살폈다. 놈이 단단히 오해했고, 나를 걱정해서 그랬다는 걸 알지만 짜증이 머리끝까지 났다.

“이게 무슨 행패야!”

“아니, 혹시나 해서 와봤더니 이 쓰레기가... 잠깐, 행패?”

내 일갈과 잔뜩 찌푸린 표정, 운 흔적이 남은 헤나드의 얼굴을 번갈아 보던 옐츠란은 드디어 무슨 상황인지 깨달은 모양이었다. 어? 어? 어? 하고 정확히 세 번을 반복하더니 나를 가리키고 외쳤다.

“이게 쓰레기!”

“손가락 꺾어버리기 전에 내려.”

옐츠란은 충격받은 얼굴로 손가락을 내렸다.

“방탕하게 연애한다더니, 이제 사람을 협박해서 막, 막...”

“협박이 아니라 자의였어.”

어느새 일어난 헤나드가 옷에 묻은 먼지를 탈탈 털며 말했다. 별일도 아닌데 옐츠란은 엄마 아빠 이불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묻는 꼬마처럼 혼란이 가득한 얼굴로 우리를 보더니 뛰쳐나가 버렸다. 왜 저러는 거야... 흥이 식어버린 나는 다시 침대에 누웠다. 헤나드는 내게 다가오지 않고 문 가까이 서서 할 말이 있는 얼굴로 어물쩍댔다.

“이제 갈 생각이지?”

“네. 가끔 보고하러 들리겠습니다. 레티시아가 제 심장을 지닌 한, 어디에 있든 알 수 있어요.”

나는 금방이라도 목걸이를 던질 듯 손가락으로 뱅뱅 돌렸다.

“위치 추적이야? 기분 나빠.”

“위치 추적이 아니라 통신 마법이라 당신이 알려주셔야 해요. 목걸이를 손에 쥐고 좌표를 떠올리면 제가 거기로 갈게요.”

그 정도는 괜찮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갔다 와, 나는 다시 잘래.”

아직 조금의 졸음이 남아있었다. 회복을 위해 잠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는 굳이 졸음을 몰아내지 않았다. 한숨만 자고 일어나면 몸이 가뿐해져서 페이퍼트로 돌아가도 될 것 같았다. 내 간단한 작별 인사에 헤나드는 살짝 미소짓더니 이쪽으로 걸어왔다. 그는 내 이마가 드러나도록 머리칼을 살짝 쓸어 넘기고 입을 맞췄다.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 헤나드가 어릴 때 가끔 굿나잇 키스를 해줬던 게 기억난다. 입을 맞추지 않고 못 배길 만큼 귀여운 아이였으니까. 착한 일을 했으니까 해주는 거라며 잘 자라고 입을 맞추면 그날은 오히려 말똥말똥 눈을 뜨고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와요. 했었지. 다시는 안 해줄 거야 하고 으름장을 놓으면 꾹 힘주어 눈을 감다 그대로 잠들었지. 하지만, 지금은 다 컸잖아?

“그걸로 되겠어?”

나는 헤나드의 옷깃을 잡고 잡아당겼다. 균형을 잃은 헤나드가 기우뚱하며 한쪽 손으로 침대를 짚었다. 그의 얼굴에서 당황이 가시기 전에 그 탐스러운 입술을 훔쳤다. 쪽 하고 가볍게 떨어지는가 싶었는데 헤나드가 내 등허리를 받치며 다시 입술을 부딪쳐왔다. 그의 고운 얼굴처럼 헤나드의 입술도 까슬한 곳 없이 부드럽고 말랑했다. 서로 탐색하듯 젖은 혀가 오가고 내가 아랫입술을 깨물자 헤나드가 목 안 쪽으로 나지막한 소리를 냈다. 헤나드의 손가락이 내 등의 도드라진 척추뼈를 만지는 게 느껴졌다. 헤나드가 입을 떼고 나지막이 젖은 숨을 내쉬었다.

“...이러면 가기 힘들어져요.”

“그게 내 탓이냐?”

“네, 선생님 탓이에요.”

헤나드는 보기만 해도 반할 예쁜 눈웃음을 지으면서 나를 침대에 살짝 내려놓았다.

“안 가도 상관없는데.”

“거짓말.”

헤나드는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듯 천천히 내 눈꼬리를 쓸어내렸다. 거의 내게 닿지 않는 미약한 손길이었다.

“눈에서 졸음이 묻어나요.”

맞아. 내가 그렇게 대답했던가? 속으로 말한 건가? 헤나드가 내 불멸을 알아챘다는 사실 때문에 겨우 미뤄둔 졸음이 손 쓸 수 없을 만큼 쏟아졌다. 가물가물해지는 시야로 헤나드가 이불을 덮어주는 게 보였다.

“다시 볼 날을 기다릴게요.”

“무으을...”

목이 너무 말랐다. 나는 지금 사막에 있는 건가. 눈을 겨우 떠보니 사방이 깜깜하고 어두웠다. 사각거리는 침대 시트와 이불이 내 몸을 휘감고 있었다.

“무우우울...”

한 번 더 소리 내서 웅얼대자 한숨 소리와 함께 쪼르륵 물을 따르는 소리가 들렸다. 발걸음 소리가 들리고 눈앞에 물기가 맺힌 물컵이 내밀어졌다. 내가 받아들 생각도 않고 고개만 까딱대자 물컵을 든 자는 나를 일으켜 앉히더니 내게 물을 먹여주었다. 아이고 물이 참 달다. 고마우이, 청년.

겨우 눈을 뜨자 옐츠란이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물컵을 들고 서 있었다. 갑자기 그대로 줄행랑을 쳐버렸던 옐츠란이 생각나서 나는 웃음을 터트렸다.

“왜 웃어?”

“도망을 왜 가, 도망을...”

옐츠란은 얼굴이 확 붉어지더니 뭐라고 말을 했다. 아직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되지 않아서 잘 들리지 않았다. 나는 옐츠란이 하는 말을 제대로 듣기 위해 놈을 잡아당겼다. 사내자식이 빳빳하게 힘을 주길래 무릎 뒤를 살짝 쳤더니 앗 하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사실 잠결이라 조금 세게 쳤을 수도 있다. 옐츠란은 이불에 얼굴을 박고 신음을 참으며 한동안 못 일어났다. 조용하니까 다시 눈이 무거워졌다. 거의 잠이 들려는 찰나 옐츠란이 내게 물었다.

“너... 헤나드랑...하냐?”

“응?”

“너 스승님이랑 연애할 거냐고.”

그게 연애인가. 그냥 입술 좀 비빈 거지.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하품이 먼저 나왔다. 옐츠란이 내게 살짝 몸을 숙여 좀 더 잘 들리게 얘기했다.

“잠 와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언제까지 잠만 잘 거야?”

“응, 조금만 더...”

“어차피 잠에서 깨면 지금 한 대화를 다 까먹을 거지? 계속 그랬던 것처럼?”

“...건방...진...새끼...”

내가 살벌하게 중얼거리자 옐츠란이 조금 멀어졌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 몸이 거의 회복 돼서 그 전처럼 잠결에 한 대화를 까먹을 일은 없을 거다. 그 사실을 알 리 없는 옐츠란은 내 볼을 꾹꾹 찔러댔다.

“역시 어색해.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은 더 어색해. 정말 레티시아 맞아?”

나는 가늘게 눈을 떴다.

“죽는다, 너...”

“맞네...”

옐츠란은 그렇게 하면 내 볼을 찌른 사실이 없어지기라도 할 것처럼 볼을 살살 털어냈다. 바보 같기는.

“대답해줘. 헤나드랑 연애할 거야?”

어린애도 아니고 너 쟤랑 사귀어? 가 왜 궁금한 건데, 나는 대답할 가치를 느끼지 못해서 눈만 깜빡였다. 달빛을 등지고 있는 옐츠란의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옐츠란이 채근하듯 내게 얼굴을 들이밀었다. 다시 잠이 들었는지 확인했을 수도 있고. 달콤하고 맛있는 냄새가 확 풍겼다. 이유야 어찌 됐건 어둠으로 덮인 얼굴의 외곽선마저 잘생긴 남자의 얼굴이 불쑥 다가오자 한가지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나는 옐츠란의 목을 끌어안고 쪽 소리 나게 입 맞췄다.

“됐지?”

질투 나는 거면 말로 하지. 입술부터 내밀고 그래. 옐츠란이 입을 가리고 후다닥 멀어졌다. 그래그래, 가라. 가서 잠이나 자.

나는 다음 날 아주 산뜻하게 일어났다.

밤잠을 설쳤는지 얼굴이 말이 아닌 옐츠란과 다르게.

오랜만에 돌아온 페이퍼트는 어느새 여름이 한창이었다.

후덥지근하고 눅눅한 공기, 우거진 녹음. 발밑에 짓눌리는 진흙 섞인 축축한 땅.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여름을 만끽했다. 정이 들 만큼 오래 있지도 않았는데 돌아갈 곳이라 생각해서 그런지 페이퍼트가 반갑고 편했다.

옐츠란은 나보다 더 감회가 새로웠는지 이틀 내내 딱딱하게 굳어있던 얼굴에 미소까지 띠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숨을 참거나 같은 쪽 손발을 들어 올리거나 발이 꼬이는 둥 어색하게 행동했는데 페이퍼트에 도착한 순간 싹 잊은 것 같았다.

‘그냥 뽀뽀인데 까탈스럽게 굴긴.’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머리에 쟁반이라도 떨어진 것처럼 충격적인 표정을 짓길래 그 뒤로 나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유난이라는 생각은 변함없다.

성에서 보낸 마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말을 섞지 않았다.

본래 나는 우아하고 근엄하게 침묵을 유지하는 성격이고 옐츠란은 마법사답게 사교성을 똥통에 처박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아주 자연스러운 침묵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바쁜 데블랑과 그웬 대신 나온 레이첼은 그렇지 않았나 보다. 레이첼은 침묵이 가득한 마차 안에서 다리를 이쪽으로 꼬았다가 허벅지를 긁었다가 헛기침을 하며 불편한 티를 내었다. 그러더니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흘긋흘긋 보았다.

마차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너무 강해 나는 살짝 얼굴을 찌푸리며 손을 들어 햇빛을 가렸다. 레이첼은 이제 대놓고 헤 하고 입을 벌린 채로 나를 봤다.

“옐츠란씨, 이걸 물어봐도 되나 망설이고 있었는데 못 참겠어요. 이 분은 누구시죠? 레티시아씨와 옐츠란씨를 맞이하라는 명을 듣고 왔는데 레티시아씨는 어디 가시고 이 분이 계신 건가요?”

레이첼이 옐츠란에게 물어보면서 여전히 나에게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길래 슬쩍 웃어주었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더니 입을 틀어막고 의자를 퍽퍽 소리 나게 쳤다.

“레이첼, 오랜만이야.”

“네? 절 아세요?”

역시 날 바로 알아본 두 놈이 이상한 거군. 여관에 있던 거울을 박박 닦아 모습을 확인해보니 단 한 번의 죽음이었는데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다. 본래는 높은 나무의 잎사귀를 뜯어먹기 위해 목이 길어진 기린처럼 적게는 몇 번, 혹은 수십 번의 죽음을 통해 느리게 변화해야 했다. 아무래도 체구와 골격이 변한 게 가장 큰 요인인 듯했다. 옐츠란과 비교해 어림짐작해본 결과 내 키는 170 중후반쯤 되었고 키에 맞게 팔다리도 쭉쭉 길어져서 꽤 만족스러웠다. 뼈도 단단하고 어깨선도 곧아 전처럼 옷이 흘러내릴 일은 없을 것 같았다. 얼굴이 전보다 날카로워졌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다. 쭉 치켜 올라간 눈꼬리와 결이 반듯한 눈썹 산이 위압감을 주었다. 나는 잘생긴 이마에서 시원하게 뻗어 나온 콧대를 문질렀다.

내가 가졌던 것 중에 가장 당당하고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지배자의 얼굴이군. 전처럼 나를 가볍게 대할 놈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은 옐츠란이 약간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레티시아입니다.”

레이첼이 눈을 휘둥그레 떴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듯 그녀는 내 얼굴에서 예전 레티시아의 얼굴을 찾으려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언제, 언제 그렇게 크셨어요? 분명 에블린 또래였는데...”

에블린? 레이첼의 동생이던가? 그러고 보니 그런 말을 한 것 같기도 하다. 나는 생각해둔 변명을 했다.

“내 세계에선 원래 성장기를 지나면 금방 커.”

“아, 초월자셨지...”

난 원래 그래. 모두의 입을 틀어막을 만한 변명이었다. 원래 그렇다는데 어찌할 건가,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야지.

“성장기를 지나면 얼굴도 좀 바뀌나요?”

“바뀐 것 같아?”

내가 한 번 더 웃어주니까 레이첼은 정신 못 차리고 고개를 돌리더니 의자를 다시 힘껏 두드려 팼다.

“그런다고 의자가 부서지겠어?”

“자꾸 웃으시니까 그렇죠. 웃지 마세요. 반할 것 같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바뀌었어요. 심장이 아픈 미모입니다, 레티시아씨.”

레이첼은 가슴에 손을 올리고 몸을 뒤로 기울이다가 아무렇지도 않은 옐츠란을 보고 중얼거렸다.

“역시 미남은 다르구나. 자기 얼굴을 매일 봐서 그런가?”

마차에 붙어 앉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중얼거림이라도 못 들을 리 없었지만, 옐츠란은 못 들은 척 커튼을 걷어 마차 밖을 구경했다.

“며칠 전부터 페르디낭을 돕겠다는 마법사가 남는 방이 없을 정도로 몰려와서 성이 포화상태입니다. 하나같이 쟁쟁한 마법사들이라 없는 방을 만들어내려고 사용인들이 발바닥에 땀이 나게 청소하고 있어요. 학회에서 뭔가를 봤다고 하는데 다들 말에 두서가 없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에요?”

짐작 가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대답하기 모호했다. 나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고 대답하지 않았다. 옐츠란은 여전히 방관자처럼 바깥을 구경했다. 레이첼은 계속 내 눈이 아니라 목을 보면서 우리가 떠난 동안 페이퍼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소한 소식을 전해주었다.

신전이 최근 잠잠해서 더 조심하고 있다. 대꺾기 희생자로 후계자를 잃은 믿을 만한 귀족 몇을 회유 중이다. 상인 페스카인이 전보다 식료품을 싸게 공급해준다...

“그웬이 전보다 훈련을 더 빡세게, 아니 열심히 해요. 그래서 몸이 아주 어우...”

레이첼은 거기까지 말하고 실언이었다며 사과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나는 손짓으로 가슴 모양을 허공에 그렸고 레이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우리가 하던 짓을 쳐다보던 옐츠란이 진저리를 치며 어휴 하고 고개를 돌렸다.

“아, 그리고 데블랑 왕자님도 요즘 키가 많이 크셨어요. 물론 레티시아씨 만큼 훌쩍 큰 건 아니지만 전에는 깨물어주고 싶을 만큼 귀여웠는데, 왕자님 죄송해요. 지금은 깨물면 서로 민망할 것 같아요.”

그래? 나는 기대감에 눈썹을 까딱했다. 레이첼이 앓는 소리를 냈다. ‘그러지 마세요...’ 자꾸 다 하지 말라고 하니 참.

소소한 잡담 속에 마차는 달리고 달려 결국 성에 도착했다. 바깥이 꽤 소란스럽다. 데리러 올 시간도 없어서 레이첼을 보냈다더니. 옐츠란과 레이첼이 먼저 마차를 나가자 옐츠란! 하고 반갑게 이름을 부르는 데블랑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기억하고 있던 상큼한 소년의 목소리가 아니라 변성기를 호되게 겪는 목소리다.

예쁘던 목소리가 그게 뭐야. 놀려주고 싶은 마음이 불쑥 들어 마차에서 내렸다.

“레티...”

내 이름을 부르던 데블랑이 당황한 얼굴로 입을 닫아버렸다. 키가 많이 컸다더니, 소년티를 벗어 청년이라 불러도 손색없을 정도로 불쑥 커버렸다. 그래도 아직 깨물어줄 수 있겠군. 수염 자국이 있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젖살이 빠지지 않은 얼굴은 여전히 귀여웠다.

내가 한 발자국씩 옮길수록 소란스럽던 주변이 조용해졌다. 어느 순간부터 인간들은 말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이유인지 짐작 가서 나는 거만하게 머리를 쓸어올렸다. 날씨조차 나를 찬양했다. 햇살에 흩날리는 머리칼이 하나하나 정성 들여 뽑은 금사처럼 반짝였다.

데블랑이 옐츠란에게 속닥거렸다.

“저분은 누구셔?”

옐츠란이 한숨을 푹 내쉬었다.

이른 점심부터 벌어진 술판은 예상하지 못했지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기다리던 사람이 좋은 소식까지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술이 빠지리. 음식과 곁들인 와인부터 거나하게 마셔 흥이 오른 사람들은 예정에 없던 식후주까지 내놓으라 성화였다. 술주정뱅이와 멀쩡한 사람이 붙으면 술주정뱅이가 이긴다. 결국 데블랑은 난처한 얼굴로 술을 가져오라 명령했다.

뜨겁게 달아오른 분위기 속에 가장 뜨거운 주제는 바로 나였다. 여기저기서 나를 흘긋대서 얼굴이 따가울 정도였다. 내가 번개를 내리는 걸 목격해 페이퍼트까지 쫓아온 마법사들은 쉽사리 말을 붙이지 못하고 내가 움직이는 대로 우루루 무리를 형성해서 따라왔고 나랑 한번 말 섞어본 기사단 무리는 언제 말을 걸어야 하나 기회만 노리고 있는 눈빛이었다. 나는 시선을 즐기며 독주와 달콤한 디저트라는 괴상한 조합을 만끽했다. 고통스러운 쓴맛과 목이 타는 듯한 느낌이 좋다.

“그웬과 페스카인은 언제 온다고?”

“조금 늦어진다고 연락이 왔어요.”

데블랑은 약간 낯을 가리는지 나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그웬과 페스카인은 유통로에 차질이 생겨 잠깐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상단이 자주 드나든다는 것을 안 산적이 인근에 터를 잡고 페스카인 상단의 물품을 야금야금 훔치는 모양이었다. 아직 피해가 크지 않지만 그런 것들은 초장에 잡아놓아야 큰 피해가 생기지 않는다. 오합지졸로 이루어진 산적이 그웬 같은 실력자와 정예기사로 이루어진 병력을 당해낼 리 없었다. 당연한 승전을 알리고 급히 귀환 중인 모양이었다.

흐응, 그래. 나는 건성으로 대꾸하며 의자를 끌어 데블랑 가까이 앉았다. 데블랑이 어찌할 바를 모르며 포크로 빈 접시를 계속 찔렀다.

“왜... 왜 가까이 오세요?”

“우리 데블랑이 낯을 가리는 것 같아서 금방 익숙해지라고 그러는 거야.”

데블랑이 ‘우리...’ 하고 나지막이 중얼거리더니 눈을 질끈 감았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원래 낯가림이 심해서...”

“처음 만났을 땐 낯을 안 가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눈도 못 마주치잖아.”

“전에도 눈은 못 마주쳤… 읏!”

데블랑이 고개를 돌렸을 때 나는 후 하고 독한 술기운이 담긴 입김을 불었다. 가벼운 화이트 와인이나 깔짝대던 데블랑이 진저리를 쳤다. 나는 낄낄대며 악당처럼 웃었다.

“데블랑, 여전히 귀엽네.”

손을 휘저으며 술 냄새를 날리던 데블랑이 볼멘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해요. 키 크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여전히 귀엽기만 하다니...”

나는 데블랑의 양 볼을 잡고 쪼물딱댔다. 부드럽고 말랑한 볼이 금세 빨개졌다. 데블랑은 시선을 아래로 내리깔며 말을 이었다.

“레티시아씨를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는데 제가 더 깜짝 놀랐어요.”

“어디, 얼마나 컸는지 볼까?”

우리 손주 얼마나 컸는지 볼까? 할미가 요거 따먹는다. 호록 먹어버린다~. 하고 어린아이를 놀리는 듯한 어조로 나는 데블랑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잡아끌었다. 균형을 잃은 데블랑이 앗, 아니! 하고 내 쪽으로 기우뚱하고 폭 안겼다. 내 가슴에 어깨가 닿은 데블랑은 금방 얼굴이 터질 듯 붉어졌다.

“어린 애 취급은 그만둬주세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데블랑은 나를 밀어내지도 못하고 굳어있었다. 원래 지금쯤이면 옐츠란이나 그웬같은 놈들이 그만 놀리라고 말렸을 텐데 옐츠란은 마법사 무리에게 잡혔고 그웬은 오고 있는 중이라 내 세상이었다. 나는 제법 단단해진 데블랑의 팔뚝을 더듬었다. 데블랑이 읏,읏. 하고 누가 들으면 오해할 소리를 냈다.

“이야, 다 컸네~. 어른이야, 어른.”

내 손이 가슴으로 다가가자 데블랑이 황급히 내 손을 잡았다.

“여전히 절 받아줄 마음이 없으시잖아요. 이런 장난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긴 하지. 나는 부정하지 않고 데블랑이 잡은 내 손을 바라보다 손깍지를 끼었다. 데블랑이 “이런…이런 것 말이에요.” 하고 스르르 손을 빼내었다.

“레티시아씨는 장난이겠지만 저는 나약한 사람이라 자꾸 착각하게 돼요. 조금씩, 조금씩 더 바라고 싶어져요.”

나를 바라보는 데블랑의 눈동자가 촉촉하다.

막돼먹은 사람도 아니고, 싫다는데 억지로 장난치면 그건 장난이 아니라 괴롭힘이겠지.

나는 깔끔하게 인정하고 자세를 바로 했다. 그럼 나중에 마저 괴롭혀야지.

줄곧 느껴지던 시선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빨간 머리 쌍둥이 중 남자아이인 브린이 입을 벌린 채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주루룩 술이 그대로 바지에 쏟아졌다. 내가 하는 짓을 계속 보고 있던 게 틀림없군. 옆의 브리기테는 벌써 테이블에 머리를 박고 자고 있었다. 나는 브린에게 윙크했다. 쨍그랑. 브린이 손에 쥐고 있던 잔을 놓치고 말았다. 왠지 앞으로 나를 피해 다닐 것 같다.

데블랑이 우울해진 낯으로 내게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비우자 눈치만 보던 것들이 슬금슬금 다가오는 게 느껴졌다. 특히 단독으로 말 걸 자신이 없는 음침한 마법사들이 우루루 오더니 장벽처럼 서서 내 앞을 둘러쌌다.

“저기...”

게 중 가장 어려 보이는 마법사가 등 떠밀리듯 앞으로 나와 운을 띄웠다. 옐츠란이 한쪽에 서서 자기는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티 내듯 팔짱을 끼고 먼 곳을 보았다.

“무슨 일이지?”

나는 제일 똑똑해 보이는 마법사 한 놈을 손가락으로 콕 집었다.

“본론만 말해.”

내게 선택받은 마법사의 얼굴이 약간 창백해졌다. 그는 입을 우물우물하다가 겨우 말을 했다.

“당신이 움트헷을 죽이기 위해 벼락을 내린 그 마법사라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나는 흘긋 옐츠란을 보았다. 네가 말했냐? 그런 뜻을 담은 눈빛을 쏴주자 옐츠란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맞다.”

내 말에 마법사들이 술렁이며 저들끼리 속닥거리기 시작했다. 실력자, 초월자, 마탑, 고대마법, 마도시대. 유독 마도시대에 대한 얘기가 많이 오가고 마법사들의 안광이 희번뜩했다. 하나같이 어딘가 정신 나간 눈빛이다. 어디서 많이 봤는데... 술을 한잔 더 들이키며 고민하는 사이 다시 질문이 나왔다.

“당신이 내린 벼락은 마도 시대의 고대 마법입니까?”

어디서 봤는지 알겠군. 하나같이 마도라이들이잖아? 날이 이렇게 화창한데 피죽도 못 먹은 얼굴을 한 마도라이들이 나를 귀찮게 할 셈이다. 쪼륵, 한 잔 더 따르려던 술은 나오다가 말았다. 모처럼의 술자리인 만큼 학구열 넘치는 대화가 아니라 떠들썩한 분위기를 즐기고 싶었다. 저기 뒤쪽에서 무식하게 입에 두 병을 물고 그대로 삼키는 묘기를 보여주고 옆에서 “마셔라! 마셔라!” 하고 응원해주는 기사들처럼.

나는 테이블에 있는 빈 잔 하나를 가져와 옷 소매로 대충 닦고 내 맞은편에 탕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그게 궁금한가?”

갑자기 내려놓은 잔을 이상하게 바라보면서 마법사들은 입을 모아 그렇다고 대답했다. 나는 꽉 찬 술병을 찾아 맞은편의 잔과 내 잔에 술을 따랐다.

“나랑 술 대결을 해서 이긴 사람한테만 알려주지.”

이것이 후에 이 자리에 모인 자들이 두고두고 ‘정말 대단한 술자리였지.’ 라고 회자할 사건의 시작이었다.

‘마법사 대 기사 대 레티시아!’

그냥 재밌자고 제안한 술 대결이었지만 나한테 재밌는 일은 남에게도 재밌는 법.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사람들은 테이블을 끌고 붙이더니 결국 식당 중앙에 본격적인 자리까지 마련했다. 게다가 나 말술이요. 라고 주장하는 듯한 딸기코 기사가 손을 번쩍 들고 “혹시 용병 필요한 마법사님 없으심까?! 제가 해드림다! 싸게 모실게요!” 하고 외친 탓에 여기저기서 자기도 용병을 하겠다고 나서 금방 판이 커져 버렸다.

공정성 문제로 왁자지껄했지만, 어차피 누구든 내가 이길 테니 “그러던가.” 하는 내 대답에 어느새 마법사 대 기사 대 레티시아라는 삼파전까지 오게 되었다.

나는 제일 좋은 자리에 먼저 턱 하니 가서 앉았다. 데블랑이 내 옆에 붙어 안절부절못하며 나를 설득하려고 애썼지만, 허사였다. 데블랑도 술을 꽤 먹은 탓에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데블랑은 결국 되려 ‘너도 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으면 술 대결에서 이겨’ 라는 내 말에 설득당해 나와 술 대결을 하겠다는 마법사 사이에 줄을 섰다. 마법사들은 영 죽상이고 돈과 무기에 받는 마법부여, 혹은 그냥 재미 같은 보수를 받고 대결에 참여하게 된 기사단의 술고래들은 싱글벙글하였다.

옐츠란은 성의 금고까지 풀어서 술이 부족하면 포탈을 타고 다른 곳에 가서 사오라는 망발을 했다. 집사장이 그러시면 안 된다고 방방 뛰었지만, 페이퍼트 성의 재산은 세금보다 옐츠란 개인이 마법사로 쌓은 재산이 대부분이었기에 결국 금고문은 열리고 말았다.

자기 돈 자기가 쓴다는데 그냥 집사장만 조금 울상이었을 뿐 –그녀는 페이퍼트의 재산을 본인 돈으로 생각하는 게 틀림없다. 다들 환호했다.

“자, 지금부터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대결로 인해 얻는 상품은 무려 레티시아씨의 독대 3일권!”

어째 제일 신난 건 학구열에 불타는 마도라이보다 재밌는 구경거리가 생긴 사람들이었다. 특히 술자리에 내깃거리가 없으면 억지로 결투라도 붙이는 기사들이 신나서 한쪽에 내기판을 꾸리고 저들끼리 쑥덕대며 규칙을 정하더니 레이첼이 튀어나와 심판까지 보게 되었다.

내기의 상품 또한 그저 ‘질문에 대답한다’ 였는데 시시하다며 우~거리길래 그렇다면 하루, 이틀, 삼일? 하고 충동적으로 정해진 것이었다. 독대 100일이든 1000일이든 내가 이길 테니까 떠들썩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 써 붙인 것도 아닌데 구경꾼까지 늘어서 식당은 사람으로 바글바글했다. 한여름에 사람이 밀집된 공간이라니, 생각만 해도 불쾌한 온도지만 더워지기 전에 유난히 더위에 약해 보이는 마법사 하나가 참지 못하고 아무 데다가 얼음을 쏴대서 다행히 쾌적했다.

“이전까지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건 상관없이 전부 0잔으로 시작합니다! 레티시아씨가 한잔을 비우면 모두 같이 한잔을 비운다. 술의 종류도 동일! 그리고...”

레이첼은 인디언 보조개가 콕 하고 찍힌 웃음을 터트리며 케이크를 가리켰다.

“안주는 케이크입니다! 이 안주마저 레티시아씨가 한입 먹었을 때만 드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 ‘으... 최악이야.’ 하고 중얼거렸다. 어쩌라고. 내 취향이다.무지몽매한 인간들이 내 고상한 취향을 따라올 수 없는 법. 어차피 안주는 구색 맞추기 일 뿐. 많이 먹을 생각도 없었다.

“당연히 물도 레티시아씨가 마실 때만 마실 수 있습니다.”

나는 보란 듯이 빈 물컵을 거꾸로 엎었다. 누군가 손뼉을 치며 “멋져요!” 하고 외쳤다. 얼굴을 봤더니 전에 매수한 하녀들이다. 역시 돈을 주고 산 마음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내 앞에 가로로 빼곡하게 앉은 자들도 나를 따라 물컵을 뒤집어 놓았다.

좋아요. 좋아, 내기판을 꾸린 기사들이 신이 나는지 엉덩이까지 씰룩대며 직접 술병을 들고 한 잔씩 따라주었다. 내 잔에 술을 따르던 레이첼이 주먹을 불끈 쥔다.

“레티시아씨한테 걸었어요. 꼭 이겨요.”

당연한 말을.

나는 잔이 채워지기가 무섭게 단숨에 들이켰다. 후. 하고 내쉬는 숨에 벌써 술 냄새가 가득하다. 내 취향 따라 최대한 독한 거로 골라온 탓에 몇몇 사람이 들이키다 말고 웩 하고 내뱉었다. 저런, 술이 아깝다. 은은한 단맛에 옅은 바닐라 향도 나고, 끝에 올라오는 오크 향이 괜찮은 술이라 나는 역시 이놈들 귀족이었지. 하는 생각을 했다. 질보다 양이라서 대충 모아왔다고 한 술이 이 정도라니. 아직 한 잔이어서 그런지 내 맞은편에 앉은 사람들 –그중 옐츠란도 있다. 얼굴이 멀쩡하다.

역시 인간이 너무 많군. 잔챙이들은 먼저 골로 보내고 본격적으로 시작할 생각으로 나는 연거푸 다섯 잔을 들이켰다. 한 잔을 마시고 만취에 가까웠던 데블랑이 두 잔째에 테이블에 엎드려 잠들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꿈쩍하지 않았다. 가끔 보면 페르디낭 사람들은 나보다 더 왕자한테 너무 한 것 같다.

“워, 너무 달리시는 거 아님까?”

딸기코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여유 넘치게 잔을 머리 위로 탈탈 털었다.

허약한 마법사 몇이 테이블에 머리를 처박거나 뒤로 넘어가서 여기저기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테이블에서 끌려나갔다. 석 잔쯤 더 마시자 어떤 남기사가 옷을 벗겠다며 테이블로 올라가서 잠깐 소란이 일었다. 그와 절친해 보이는 자들이 환호하며 부추겼지만 결국 덜 친한 친구가 끌고 내려와서 대충 마무리가 되었다.

“에이, 재밌는 구경을 놓쳤네요.”

대결과 상관없이 술을 홀짝거린 레이첼이 얼굴이 벌게져서 내 잔에 술을 다시 따라주었다.

“기다리면 또 나올걸.”

남자란 여자 관심을 받기 위해 멍청한 짓을 마다하지 않는 놈들이니까. 내 예상대로 술잔을 비울수록 몇 놈이 옷을 더 벗었고 혹은 덥다고 바지를 벗는 놈도 있었다. 물론 그대로 끌려나갔다. 분위기는 조금 더 후끈해졌다. 빈 병이 점차 쌓여갔다.

어디서 가져왔는지 술자리에 음악이 빠질 수 없다며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 덕에 잔잔히 음악 소리가 깔리자 만취한 인간들이 모여서 음계도 안 맞는 노래를 고래고래 불러댔다.

‘우! 우! 노를 저어라,

우! 우! 노를 저어, 쿵!

우리는 지지 않는 바다의 자식.

바람을 타고 앞으로 나가자!’

별 내용도 없고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뱃노래였지만 박자에 맞춰 발을 굴러대는 춤이 있는지 한쪽에서 삼삼오오 짝을 맞춰 춤판이 벌어졌다. 쿵쿵, 발을 구를 때마다 진동이 전해져서 포크가 그릇에서 달칵거렸다. 나는 그동안 여섯 잔을 더 마셨고 또 테이블에 앉은 인원이 줄어들었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네.”

예상외로 지금까지 버틴 옐츠란이 내게 말을 걸었다. 그렇게 말한 놈도 얼굴색은 멀쩡했지만, 자꾸 흐 하고 한숨을 쉬면서 헛손질을 하는 걸 보아 겉만 멀쩡한 듯했다.

“이제야 나랑 대화할 마음이 들었나 봐?”

“일부러 말을 안 했던 건 아니야. 생각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

나는 한 잔을 더 들이켰다. 나를 따라 술잔을 드는 옐츠란의 손이 허공에서 흔들린다.

“무슨 생각 정리? 너도 생각이란 걸 하고 살아?”

옐츠란은 나를 불타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잔을 비웠다. 목울대가 느리게 움직이고 옐츠란은 겨우 빈 잔을 내려놓았다.

“그래. 너는 날 그런 취급하지. 잠깐 깜빡했어.”

놈은 잘생긴 미간을 찌푸린 채로 멈췄다가 자존심 상한다는 듯이 말했다.

“그런데... 케이크 한 입이라도 먹어주면 안 될까? ...제발.”

옐츠란의 부탁에 옆에 앉아있던 얼굴 모를 마법사도 제발요... 하고 나에게 빌었다. 어쩔 수 없지. 자비로운 내가 이해해주지. 나는 케이크의 생크림을 손가락으로 살짝 떠 핥았다. 테이블에 턱을 괴고 비스듬히 앉아있던 옐츠란이 내 손가락이 입으로 들어가는 걸 집요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젖은 입술이 살짝 열린다. 나는 여유롭게 턱짓했다.

“난 이걸로 됐으니까 너희들은 한 입 먹어. 봐줄게.”

“너...”

옐츠란이 술에 취해 느릿하게 눈을 감았다가 떴다. 어떤 마법사가 감삼다. 하고 케이크에 얼굴을 처박아서 규칙 위반으로 끌려나가는 게 옆 시야로 보인다. 옐츠란은 깊게 후 하고 술기운 가득한 숨을 내뱉더니 나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긴 손가락으로 생크림을 떠 한입 먹었다.

“나도 이거면 돼.”

“한입만 먹게 해달라고 빌었던 주제에 허세 부리기는.”

주변을 보니 내가 원했던 대로 잔챙이는 떨어져 나간 것 같다. 나는 돌려놓았던 물컵을 다시 뒤집었다. 레이첼이 “예~ 물 대령하겠습니다~.” 하고 따르려는 것을 저지하고 내 손으로 술을 따랐다. 꼴꼴꼴. 술병의 3분의 1이 그대로 물컵에 담겼다.

“그러다 죽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재밌는 농담이다. 말재주가 좋구나. 내가 어깨를 두드리자 레이첼이 영문 모르는 표정을 했다.

“그런 게 가능할 리가.”

내가 그렇게 대답하고 웃자 레이첼이 상태가 심각한 몇 놈을 가리켰다.

“아, 레티시아씨 말고 쟤네들이요.”

“흠... 알아서 처리해.”

레이첼이 휙휙 손짓하자 비교적 멀쩡한 건장한 기사들이 그들을 끌고 나갔다. 흐물흐물한 만취자들은 짐짝처럼 정원에 휙 하고 버려졌다. 테이블에 버티고 앉은 사람은 더 줄어들었다.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였다.

내가 물컵에 담긴 술을 물처럼 꿀꺽꿀꺽 넘기자 그걸 지켜보던 한 명이 “아, 아, 모타게쒀요.” 하더니 입을 막고 뛰쳐나갔다. 남은 사람들은 호기롭게 술을 들이켰지만 흘리는 것 반, 마시는 것 반인 사람은 실격. 바로 토한 사람도 실격.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눈 부시다. 참 좋은 대낮의 술판이다. 술을 적당히 마신 사람, 만취한 사람, 마시지 않은 사람 모두 어우러져 식당과 이어진 정원으로 나가 손을 마주치고 빙글 도는 이상한 춤을 춰댔다. 꽃집의 아가씨가 꽃을 따다 꽃바구니를 만들어 누구에게 선물한다는 노래가 같은 구절을 반복하며 한창 이어졌다. 사실 술 대결은 핑계고 계속 이어지는 긴장된 나날에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게 아닐까.

다들 답답한 식당보다 정원으로 나간 탓에 와글와글 소리가 울리던 식당도 비교적 잠잠해졌다. 반 시체가 된 만취자들과 내깃돈을 관리하는 둘, 심판을 자처하며 술을 따르는 몇. 자리를 지키고 앉은 상대는 옐츠란을 포함해 다섯밖에 안 남았다. 내가 물컵에 한 잔 더 따르자 다섯 명이 동시에 질린 얼굴로 따라지는 술을 바라봤다.

옐츠란이 정신을 차리려고 애쓰며 고개를 흔들었지만, 다시 테이블에 기대다시피 앉았다. 옐츠란은 채워지는 술잔을 바라보다 약간 혀 꼬인 발음으로 말했다.

“그때 그렇게 행패… 부리고 그냥 나가버렸던 건 미안해.”

“괜찮아, 너 나가고 키스했으니까.”

딸기코 기사가 갑자기 큼, 하고 딸꾹질을 시작했다. 다른 사람 한 명이 이쪽을 안 보는 척 슬쩍 귀를 기울였다. 옐츠란이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로 그래. 하고 대답하더니 마른세수를 했다.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게 참 너답다.”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너답다는 말만 들으면 나다운 게 뭔데? 하고 물어보고 싶어진다. 나는 그 충동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사실 조금 궁금하기도 했다. 뭐, '죽지 않기를 바랄 사이.' 옐츠란과 그 정도는 되지 않았는가.

“나다운 게 뭔데?”

옐츠란은 대답 대신 질문을 했다. 그는 시선을 내리깔고 살살 잔을 흔들어 손안에서 찰랑대는 술을 바라봤다.

“그 날 왜 헤나드랑 키스했어?”

“그냥.”

“나한테는 왜 입 맞췄어?”

“그냥.”

옆에서 테이블이 쪼개질 듯 쿵 하는 소리가 들렸고 모두의 시선이 그쪽을 향했다. 마법사로 보이는 여자가 결국 버티지 못하고 머리를 처박고 으으, 하고 테이블에 볼을 비벼댔다. 다시 고개를 돌리니 혼자 내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는지 옐츠란과 곧장 눈이 마주쳤다. 그는 흐릿하게 풀린 눈동자로 미소를 지으려다가 포기했다. 힘없이 올라갔던 입꼬리가 다시 쳐진다.

“그래. 그거야. 그런 점이 너다워. 항상...”

옐츠란은 말을 더 이을 듯 입을 살짝 연 채로 멈춰있다가 숨을 푹 내쉬었다. 말이 쉽게 나오지 않으면 술이 더 필요한 거지. 나는 "짠." 하고 잔을 맞대고 한 번에 들이켰다.

슬슬 배부른걸. 두 명이 못하겠다고 결국 기권 선언을 했고 딸기코 기사는 웨엑 하고 정원으로 달려가다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엎어졌다. 옐츠란은 이를 악물고 들이켰다. 나는 옐츠란이 잔을 내려놓기가 무섭게 물었다.

“너 나 좋아해?”

와작. 와작.

옆에서 우리를 구경하며 감자 칩을 먹던 레이첼이 나랑 눈이 마주치자 겸연쩍은 듯 웃었다.

“죄송해요. 먹는 소리가 너무 컸나요?”

그냥 거리가 너무 가까운 것 같은데.

레이첼은 거의 우리 사이에 머리를 들이 넣고 있었다. 술기운이 알딸딸하게 오른 얼굴이 우리 둘을 번갈아 돌아본 다음에야 얼마나 가까운지 눈치 챈 듯 했다. 레이첼은 뒤로 물러나면서 자기는 신경 쓰지 말고 계속하라며 흥미진진한 표정을 숨기지 않고 손짓했다.

옐츠란은 이마를 짚고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다.

"아니."

순간 기사 한 명이 놓았던 술잔이 햇빛을 반사해서 내 얼굴을 비췄다. 여름날의 햇빛은 찌르는 듯 따가워서 나는 눈을 찌푸렸다. 옐츠란이 손을 들어 자연스럽게 내 눈을 공격하는 햇빛을 가렸다. 눈이 한결 편안해졌다.

옐츠란은 펼친 손을 든 채로 다시 힘주어 말했다.

"아니야."

"그래.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나는 술을 들이켜려다 말고 케이크의 딸기를 포크로 콕 집어 옐츠란에게 내밀었다.

"자. 싸우진 않았지만 화해하자."

옐츠란은 제대로 말하기도 쉽지 않은지 말을 끊어가며 대답했다.

"규칙을, 지켜야지. 네가 한, 입 먹어야 나도 한 입..."

나는 딸기의 가장 맛있는 부분, 새빨갛게 익은 끝을 한 입 베어 물고 포크를 옐츠란에게 내밀었다. 옐츠란은 잠깐 그걸 쳐다보다 딸기를 받아먹었다.

그리고 그대로 테이블에 얼굴을 처박았다.

하하. 나의 승리다.

인기척이 느껴졌다.

대놓고 쿵쿵대며 다가오면 무시하고 잘 텐데 의도적으로 소리를 죽인 발걸음이었다. 나는 눈을 뜨고 어둠 속의 인영을 뚫어지라 바라보았다. 그것은 짧게 숨을 내뱉더니 코를 막고 닫힌 창문을 열어 환기부터 시켰다.

방을 가득 메운 지독한 술냄새가 창문을 타고 불어온 바람과 섞여 옅어진다. 방에 공기가 순환되자 술냄새에 절여있던 코가 신선한 냄새를 잡아냈다. 그웬의 기운.

“늦었구나.”

내가 내고도 새로울만큼 잔뜩 잠긴 목소리였다. 섹시한걸?

어둠 속에서 자세히 보려고 눈을 찌푸린 채 내가 누운 침대를 바라보던 그웬의 얼굴이 천천히 굳었다. 스르릉. 언제 들어도 서늘한 소리와 함께 그웬의 검이 검집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놈은 몇 걸음 만에 침대로 와서 내 목에 검을 겨누었다.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검이 참 날카로워 보였다.

“누구냐.”

“못 본 사이 버릇이 나빠졌네. 주인에게 검을 들이대다니.”

그는 잠깐의 침묵 뒤에 확신 없는 어조로 되물었다.

“레티...시아님?”

“알았으면 치워. 살벌하네.”

나는 검을 손가락으로 밀어냈다. 그웬이 주저하다 검을 거뒀다. 놈은 여전히 의심하는 얼굴로 탁자 쪽으로 걸어갔다.

타악. 불 피우는 마도구인 나뭇가지를 벽에 긋자 불꽃이 피어올랐고 그는 초에 불을 옮겨 붙이고 훅 하고 나뭇가지의 불을 껐다. 매캐한 냄새가 조금 난다.

그웬은 일렁이는 작은 촛불에 의지해서 내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일자로 다문 입술과 힘이 들어간 미간. 나를 살피는 날카로운 눈동자 안엔 불빛이 비친다. 촛농이 녹아 주룩 촛대를 타고 흘러내렸다.

“진짜, 당신입니까?”

“아니. 가짜야.”

내 대답에 긴장했던 얼굴이 맥이 탁 풀린 듯 누그러졌다.

“당신이 맞군요.”

“가짜라니까.”

그웬은 촛대를 탁자에 놓고 검집을 풀어냈다.

“왜 그런 모습입니까?”

“그냥 그렇게 됐어.”

그웬은 내 말을 이해하려는 듯 잠깐의 침묵 후에 그렇군요. 하고 나지막이 대답했다. 촛불이 일렁이며 그웬의 그림자를 여러 갈래로 만들어냈다. 나는 벽을, 천장을 가로지르는 그림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마법등을 켜지 않고 왜 촛불을 켠 거야?”

“마법등은 너무 눈부시니까요.”

원하는 대답을 얻자 슬쩍 미소를 지어졌다. 나인지 확신할 수 없었음에도 혹시 내가 맞을까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배려. 한쪽 눈을 감고 가죽 갑옷을 벗는 그웬을 손으로 가렸다가 움켜쥘 듯 주먹을 쥔다. 잘 길들어진 도구. 너무 편한 건 없어졌을 때 항상 티를 내기 마련이다. 잠깐이지만 불편했고 꽤 그리웠다.

“네 방을 두고 왜 여기서 옷을 갈아입는 거지?”

그웬의 손이 멈칫했다.

“설마 유혹?”

“익숙해져서 그렇습니다. 보기 불편하셨다면...”

“아니, 아주 좋아. 여기서 갈아입어.”

그웬은 귀 끝이 붉게 달아오른 채로 설명을 덧붙였다.

"갑자기 찾아온 마법사들 때문에 방이 부족해서 청소가 끝날 때까지만 제 방을 양보했습니다. 여긴 귀빈실이라 하인방이 붙어있으니까요. 당신이 없는 동안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나도 없는데 그냥 이 방을 쓰지, 굳이 하인 방에서?”

“당신 방이잖아요. 게다가 방에서 잠만 자니까 별로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땐 저것보다 작은 방에서 지냈는걸요.”

어릴 땐 지금보다 덩치가 작았으니까 그렇지. 페이퍼트성은 그다지 크지 않고 실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귀빈실에 딸린 하인방이라고 해봐야 겨우 작은 침대가 들어갈 만한 크기였다. 아마 그웬이 누우면 머리든 발이든 삐죽 튀어나올 거다. 게다가 바람이라도 불면 삐걱거리는 조그만 창문 하나가 환기시설의 다라서 늘 퀴퀴한 냄새가 났다.

나는 침대 밑에 쥐똥 부스러기가 있는 하인방에서 작은 침대에 구겨지듯 누워서 인상을 찌푸리고 자는 그웬의 모습을 떠올려봤다. 뼛속까지 귀족인 그웬이 잠만 잔다고 하인방을 편하게 느낄 리 없었다. 마법사들에게 방을 양보한 건 쉽게 내린 결정이 아닐 거다.

너는 네 나라가 어지간히 좋은가 보구나.

그렇게 물어보려다 관두었다. 단순히 페르디낭이 좋은 나라라서 청춘을 낭비하며 매달리기엔 현실은 너무 싸늘하다. 결국, 제 자리에서 잇속 챙기기에 불과하지. 좀 더 제대로 도와줄까? 하던 마음이 쏙 들어갔다.

어찌 됐건 나는 이 구경거리를 놓칠 생각이 없다. 나는 손으로 내 머리를 받치고 옆으로 비스듬히 누웠다. 대놓고 구경하려는 자세를 취하자 그웬은 무언의 눈빛으로 내게 항의했다. 저건 필시 ‘제가 정성껏 가꾼 몸을 예쁘게 봐주세요.’ 하는 의미일 거다. 알아, 알아.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웬이 한숨을 내쉬며 먼지가 뿌옇게 앉은 겉옷의 끈을 풀었다. 앞뒤가 따로 이루어진 옷을 단추 대신 허리 옆선을 따라 끈으로 묶는 형식의 옷이었는데 단단하게 묶은 매듭을 풀어내는 손끝은 참을성 있다. 저렇게 귀찮은 옷을 누가 입나 했더니 그웬이 입는구나.

끈을 풀어 겉옷을 벗자 깊게 파인 여미는 형식의 슈미즈가 나왔다. 겉옷이 먼지를 막아준 덕에 빨래한 직후처럼 새하얬다. 얇은 천으로 만들어진 슈미즈는 땀에 살짝 젖은 채 가슴팍에 찰싹 달라붙어 가슴의 굴곡과 짜 넣은 듯한 복근을 그대로 비췄다. 그웬이 후, 하고 덥다는 듯 옷을 살짝 팔락댔다. 저, 저 요망한 것.

허리띠에 매인 주머니를 풀기 위해 몸을 살짝 옆으로 틀었는데 팔뚝이 아주 우람하고 옆태마저 두툼하다. 거대한 물푸레나무의 둥치를 보는 것 같다.

“나 지금 배가 불러.”

“저녁을 많이 드셨습니까?”

그웬은 내 말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여상스럽게 대꾸했다. 아니,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이야.

내가 대답하지 않자 그웬은 흘긋 나를 봤다가 부담스러운 듯 눈을 피했다. 더러워진 신발을 벗기 위해 그웬이 의자에 걸터앉아 허리를 숙이자 파인 옷 사이로 근육이 꽉 차오른 가슴이 보였다. 날렵하게 잘 빠진 등을 감싼 슈미즈는 터질 듯 팽팽하게 당겨졌다.

나도 모르게 목을 쭉 빼고 옷 안을 들여다보려고 애쓰는 데 신발을 벗은 그웬이 고개를 들어 내가 아직도 보고 있는지 확인했다.

“그렇게 계속 구경하실 겁니까?”

나는 두 손가락으로 내 눈을 가리킨 뒤 그웬을 가리켰다. 똑똑히 보겠다는 뜻이다. 그웬은 머뭇대다가 느릿하게 슈미즈의 끈을 풀기 시작했다. 끈은 금방 풀렸고 스륵 옷의 앞섬이 벌어졌다. 나는 입술을 핥다가 침을 꿀꺽 삼켰다. 조용한 방안에 침 삼키는 소리가 유독 크게 났다.

“...저는 음식이 아닙니다.”

“응. 알지.”

그웬은 뭔가 불만인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물었다.

아, 죄 많은 가슴. 요즘 물이 올랐다는 레이첼의 말이 헛말이 아니었다. 저 정도 튼실함은 범죄다. 전에 내가 구멍 냈던 허벅지는 이제 찔러도 칼이 안 들어갈 것처럼 단단해 보였다. 그리고 헐렁한 바지인데도 왼 허벅지에 수납했구나 싶을 정도로 두둑한... 나는 슬쩍 시선을 다시 가슴으로 돌렸다.

“맛있겠다.”

그웬은 내 시선이 향한 곳을 따라가다 침음을 삼켰다.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어디 가? 마저 보여주고 가!”

그웬은 아예 내 말이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옷을 여미더니 후다닥 하인방으로 뛰어갔다. 저렇게 도망가봤자 돌아올 곳은 여기인데 참 부끄러움도 많군. 순식간에 눈요깃거리를 뺏긴 나는 손깍지를 베고 누워 불빛에 불그레하게 물든 천장을 바라봤다.

바람 따라 흔들거리는 붉은 빛은 나보고 빨리 잠들라고 강요하는 것 같다. 술을 그토록 마시고 방금까지 자다 일어났으니 잠이 오기도 하련만 눈이 더 말똥말똥해졌다.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그웬이 씻는 소리.

마법사의 성이라서 그런지 다른 곳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편리한 장치들이 많다. 그웬이 지금 쓰는 것처럼 손잡이만 돌리면 물이 나오는, 그러니까 샤워기처럼 말이다. 물론 섬세하게 온도조절은 안 되고 뜨거운 물을 쓰기 위해선 아침마다 시종들이 열심히 물을 길어서 거대한 물통 같은 곳에 부어 넣어야 했지만. 밖으로 엉덩이를 내밀고 똥을 싸는 성이 아직도 있는 마당에 마법등이니 샤워기니 불 없이 끓는 주전자만으로도 감지덕지다.

아, 샤워기라니. 분명히 뱀같이 생긴 줄에 은색의 몸통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변기는 이상한 항아리처럼 생겼었지. 뭔가를 누르면 물이 내려갔어. 어떻게 내려갔더라?

나는 본래 세계의 화장실을 떠올리려 애쓰다가 포기했다. 이제는 적당한 덤불 옆에 쪼그려 앉아 볼일을 보는 사람과 눈 마주치는 일이 더 익숙했다. 웬만한 더러운 것을 봐도 그러려니 하게 된다.

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무 상자가 열렸다 닫히는 소리도 들렸다. 다 씻었군.

“아직 안 주무셨군요.”

그웬은 아쉽게도 옷을 입은 채로 나타났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방금 씻고 들어왔기 때문에 피부가 뽀얗고 촉촉해 보여 이슬을 맞은 백합처럼 고왔다. 선한 얼굴에 음탕한 몸. 죄가 많아 보인다. 벌을 줘야겠다.

나는 누구보다 공명정대한 사람이니 내가 그렇게 생각한 이상 저놈은 죄인이고 내가 벌을 주는 건 당연하다.

그웬은 내게 쉽사리 다가오지 못하고 문가에 서서 낯선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그림의 초본을 뜨기 위해 머릿속에 선이라도 새기듯 그는 꼼꼼히 내 모습을 확인했다.

“어색해?”

“어떤 모습이든 당신인 건 변함 없지만, 역시...”

그웬은 고개를 저었다.

“앞으로 한 침대에서 자는 건 힘들 것 같습니다.”

“왜?”

“그 전엔 어린 여동생 같았는데, 지금은 성인이지 않습니까. 성인 여성과 남자가 한 침대에서 자는 건 아무래도 좀...”

그웬은 답지 않게 말끝을 흐리며 시선을 슬쩍 내리깔았다.

“이곳의 소문은 발이 여섯 개 달린 쥐보다 빠르고 민첩해서 온 성을 누비고 다닙니다.”

여기저기서 다양한 사람 끌어다 모아 한 공간에 넣어두니 유달리 소문이 빠르긴 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하루도 아닌 반나절 만에 모두가 입방아를 찧어댈 정도였으니까 말이다. 그웬이 내 아침 시중을 든다 해도 방을 치우고 침구를 정리하는 허드렛일은 시녀와 시종이 한다. 한 침대에서 잔다면 당장 내일 아침, 우리 둘이 한 침대에서 자고 일어났다는 소문이 새소리보다 먼저 울릴 것이다.

하지만, 그 정도의 소문이라면 이미 지겹도록 들은 것이 있지.

내가 어린 몸이었다고 하지만 다섯 살배기 어린아이도 아니고 엄연히 성년에 가깝거나 성년을 갓 지난 나이쯤 되어 보였었다. 정원 한 바퀴만 산책하면 마구간에서, 빨래터에서, 혹은 주방 뒷문에서 ‘그웬경이 천하의 몹쓸 놈이다.’ ‘그웬경은 호색한이라 막 성년이 된 아이를 좋아한다.’ 같은 질 나쁜 소문을 들을 수 있었다. 호색가에 몹쓸 놈이 된 건 내가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 뒀지만.

이번에도 비슷한 소문이 돌겠지. 혹은 호색가에 몹쓸 놈이 내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내 인생에 티끌만큼의 영향력도 없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떠들어 대는 소리를 신경써봤자 인생이 고달파지기만 한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다가 너무 거슬리면 제일 입 가벼운 한 명을 족치면 된다.

나는 내 옆자리를 가볍게 두드렸다.

“이리와.”

그웬은 여전히 문가에 서서 머뭇거리다가 내가 한 번 더 옆자리를 두드리자 입을 가리고 한숨을 쉰 뒤 침대 옆에 우뚝 장식처럼 섰다. 그리고 놈은 거기서 밤새 시간을 보낼 사람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 잊고 있었지만, 이놈 고집이 장난 아니었지.

“난 잠들 때까지 머리카락 만져 주는 거 좋아하는데.”

좋은 말로 할 때 얌전히 누워. 속뜻을 담은 완곡한 말이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니 내가 베푼 최대한의 친절이다. 나는 머리를 정리해서 모은 다음 침대에 펼쳐지도록 머리 위로 넘겼다. 그웬이 침대에 걸터앉았다.

“잠들 때까지 머리를 빗겨드리겠습니다.”

그웬은 굳이 불편한 자세로 내 머리카락을 손대면 끊어질 거미줄이라도 되는 것처럼 조심스레 빗겼다. 나는 그웬과 똑바로 눈을 마주치고 분명하게 말했다.

“이리 와. 내가 원하잖아.”

그웬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을 들은 사람처럼 미간을 찌푸리고 입을 살짝 벌렸다가 입술을 깨물며 꽉 닫았다. 그리고 내가 이불을 어깨까지 잘 덮어주고 침대에 올라왔다. 그웬의 다리가 하나씩 올라올 때마다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다.

나는 천장을 보고 누운 그웬의 어깨를 짚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어린잎의 색을 가진 눈동자가, 그의 기운의 향기가 바깥에서 풍기는 숲의 냄새보다 더 풍부한 기분을 가져다 줬다.

“소문이 무섭다고? 언제부터 그런 걸 신경 썼어?”

나는 그의 턱선을 엄지로 살살 쓸었다. 내가 닿는 자리마다 긴장해서 힘이 꽉 들어가는 게 보였다.

“전 생각보다 많은 걸 신경 씁니다.”

“그래? 몰랐네. 예를 들면 어떤 거?”

내 손가락은 그웬의 목을 쓸어내리며 쇄골 선을 덧그리다 가슴골을 은근히 문질렀다. 그웬이 내 손을 가만히 잡아서 멈추게 했다.

“지금 당신의 손이 어딜 향할지... 같은 거.”

내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다. 내 손을 잡은 그웬의 손은 뜨거웠고 빠르게 뛰는 심장맥박이 느껴졌다. 나는 장난스럽게 그의 손바닥을 손톱으로 긁었다. 그웬의 손이 움츠러든다.

“어디로 향했으면 좋겠는데?”

머리카락 색과 같은 속눈썹은 꼭 눈을 얹어놓은 것처럼 새하얗고 투명하다. 그웬의 눈동자가 천천히 아래로 향하며 내 입술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가 무의식중에 살짝 입술을 연다.

“...물을, 마셔야겠습니다.”

그웬이 황급히 내 손을 놓으며 침대에서 일어섰다. 그는 목이 말라 견딜 수 없는 사람처럼 목을 움켜쥐고 협탁에서 급하게 물을 따랐다. 당황한 손짓에 물이 잔 밖으로 넘쳐 바닥까지 흘렀다. 이런. 그웬은 작게 중얼거리며 손에 흐른 물을 탈탈 털어냈다. 나는 웃음기 섞인 말을 건넸다.

“목이 그렇게 마른 줄 몰랐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사람처럼 달려간 것치곤 물을 마시는 속도가 느리다. 침대로 돌아오는 시간을 늦추고 싶은 건지 그웬은 내 쪽으로 고개도 돌리지 않고 물을 천천히 나눠서 마셨다.

“그렇게 병아리처럼 물을 마시는 줄도 몰랐고.”

그웬은 다 마신 잔을 한 번 더 물을 마시는 것처럼 기울이다가 포기하고 내려놓았다.

“네. 병아리 닮았다는 말 자주 듣는 편입니다.”

헛웃음이 나왔다.

뻔뻔하기 그지없군. 입만 살아서.

그웬이 더는 시간을 끌 수 없단 걸 알았는지 잔을 소리 없이 내려놓고 촛불을 손가락으로 비벼 껐다. 아주 약간 매캐한 냄새가 났다. 어둠 속에서 커다란 인영이 그 옛날 얼굴을 보여주기 싫어했다던 어느 남신처럼 조용히 침대 위로 올라왔다.

“머리칼을 만져줘.”

어둠을 더듬는 눈이 바로 앞의 나를 보지 못하고 허공을 배회한다. 나는 몸을 조금 옮겨 그웬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단단한 가슴이 안정감 있게 나를 받쳤다. 방금 씻고 나온 몸에선 조금 촉촉한 비누 냄새가 났다.

드디어 갈피를 잡은 손이 조심조심 내 머리카락을 쓸어넘겼다. 어쩐지 손이 서툴다. 그 전에는 거슬리지 않게 잘 빗기더니. 이 정도로는 좀처럼 쉽게 잠들 수 없다. 잘 좀 해봐. 내 타박에 그웬은 움찔대기만 할 뿐, 여전히 손은 허공을 쓰다듬는 것처럼 엉뚱한 곳을 맴돌았다.

나는 그웬의 목덜미에 말랑한 코를 박고 크게 숨을 들이켰다. 가슴에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것처럼 따스한 향기가 폐부를 가득 채웠다.

“항상 제 냄새를 맡는군요. 저한테서 냄새나요?”

“응. 너는 못 맡는 냄새.”

그웬은 자기 목을 슬쩍 손으로 감쌌다. 냄새를 못 맡게 하려는 의도였다.

“나빠요?”

“아니, 좋아.”

그웬의 심장이 갑자기 거세게 뛴다. 이대로 튀어나오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다. 계속 이런 식이라면 거슬려서 못 잘 것 같은데. 나는 주먹 쥐고 그웬의 가슴을 꾸우욱 눌렀다. 그웬의 몸이 슬쩍 멀어졌다.

“레티시아님은 좀 나쁜 냄새가 나요. 술 냄새.”

“그래. 고맙긴 뭘.”

그렇게 말해놓고 그웬은 은근히 내 머리칼에 코를 슬쩍 비볐다. 어린아이가 곰돌이 인형에게나 할 법한 짓이다. 아직도 나를 끌어안고 위안으로 삼는 건가? 궁금해져서 고개를 들자 평소보다 짙게 가라앉은 눈동자와 눈이 마주쳤다.

신의 첫 번째 계시를 받는 성자. 그처럼 단정하고 금욕적인 얼굴이 몸을 타고 올라오는 욕망에 한발, 한발 무릎을 꿇고 있었다.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흔들림 없지만, 힘이 들어간 턱 근육과 솟아오른 목울대가 바짝 긴장해있다. 나와 눈 맞춤이 길어질수록 그 속에서 피어오르는 감정을 보았다.

그래.

목이 마르다.

나는 그의 입안을 침범해 여리고 부드러운 혀를 쫓았다. 방금 물을 마신 탓에 그웬의 입술은 촉촉하고 말랑했다. 나는 그 안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사람처럼 촉 하는 소리가 나게 자꾸 입을 뗐다 붙이며 입술을 괴롭혔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뻣뻣하게 내 키스를 받고만 있던 그웬은 시간이 지나자 내가 하는 행동을 어설프게 따라 했다. 별 것 아닌 움직임이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은근한 열감이 피어올랐다. 혀끼리 얽히자 질척한 소리가 야살스럽게 방 안을 채웠다. 모든 감각이 그곳으로 쏠려 혀의 오돌토돌한 돌기마저 느껴졌다. 혀끝을 세워 입천장을 긁을 때마다 그웬이 힘주어 나를 끌어안을 듯 어깨 근육을 바짝 긴장시켰다가 힘을 풀었다. 내 등을 껴안고 있던 그웬의 손이 차츰 허리로 내려오며 그가 목울림 소리를 나지막이 냈다.

내가 미끌거리고 말캉하고 따뜻한 감각에 집중할수록 그웬이 점점 뒤로 빠지며 몸을 움츠렸다. 자연스러운 몸의 반응 때문이었다. 나는 웃으며 입을 살짝 뗐다. 헐렁한 잠옷으로 갈아입었기에 그의 하체에 티 나게 불룩 솟은 것이 귀여웠다. 그웬은 아무 말 못 하고 얼굴을 붉히며 허리를 뒤로 뺐다.

"음, 안되지."

나는 두 손으로 그웬의 뺨을 감싸며 가까이 당겼다. 그웬이 살짝 헐떡였다.

"도망가지 마. 이번엔 안 봐줘."

성인분들은 노블로 가서 마저 봐주세요.

나는 손가락 끝에 힘을 주어 그웬의 귓불을 뭉그러트렸다. 그웬은 아픔에 눈가를 찌푸리면서도 내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나는 일부러 짓궂게 그곳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기세가 대단했다.

"키스로 ... 거야?"

그웬은 입을 꾹 다물고 자기 일이 아닌 척 시치미를 뗐다. 나는 무릎을 다리 사이에 깊게 집어넣으며 힘주어 꾹 눌렀다. 얇은 천 너머로 형태와 뜨거운 온도까지 전해졌다.

"대답해야지."

그웬이 급히 숨을 들이마시며 내 어깨를 잡았다. 그는 떨리는 밭은 숨을 두어 번 내쉰 뒤에 대답했다. 꼭 그 말을 들어야겠냐는 원망과 내게 고개 숙이고 마는 순종이 뒤엉켜 복잡한 표정을 자아냈다.

"네, 키스로 ...습니다."

보상으로 장난스럽고 가벼운 키스를 해주었다. 그웬이 내게 살짝 상체를 기울이며 아쉬운듯한 눈빛을 했다. 나는 ...다. 그웬이 숨을 참으며 다시 내게서 멀어졌다.

“같은 말을 또 하게 하지 마.”

그웬이 어둠 속에서 물기에 젖은 눈동자로 나를 본다. 그는 애원하는 듯 눈을 깜빡이다가 먼저 내게 다가와 내 입술을 삼켰다. 그웬은 내게 배운 대로 입안의 가장 여린 부위와 오싹한 감각을 피어오르게 하는 곳을 마치 손가락으로 하듯 섬세하게 헤집었다.

이 새끼... 금방 배우네?

그웬은 태생이 건방진 놈이었으므로 버릇을 잘 들여야 했다. 나는 입을 뗐다. 그웬의 입에서 긴 숨이 터져 나왔다.

“누가 먼저 키스해도 된다고 했지?”

그웬은 내 말이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성급하게 다시 입을 맞추려 들었다. 나는 그의 턱을 잡아 뒤로 밀었다. 그웬은 갑자기 턱에 가해진 고통에 정신이 든 듯 나지막이 신음을 흘렸다.

“버릇없게. 넌 내가 허락할 때만 내 몸에 손댈 수 있어.”

그웬은 입맞춤 때문에 젖은 입술을 달싹거리다가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내 어깨를 감싸 쥐던 손이 스르르 떨어져 나갔다. 하지만 눈동자는 여전히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처럼 사납고 집요하다. 정말로 내 말을 지킬 수 있는지 알아볼까?

나는...다. 안달 난 그웬이 어찌할 바 모르는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내 손이 옷 위로...마다 그웬은 무력하고 순종적인 자세로 억눌린 신음을 냈다. 나는 ... 건드렸다. 성의 없는 손길에도 그웬은 어깨를 떨었다.

"제발..."

그웬이 애원하며 고개를 살짝 숙였다. 내가 대답 없이 약한 자극만 반복하자 그웬은 한 번 더 '제발...' 하고 애원하며 내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다. 그는 코끝을 내 목덜미에 문지르다가 입술을 아주 가볍게 눌렀다 뗐다. 성애의 의미보단 강아지가 젖은 코끝을 들이대는 것처럼 응석의 느낌이 강했다.

"레티시아, 제발..."

"제발 뭘 해달라는 거야?"

"당신을 만질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도 만지고 있잖아.“

...긴 검열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또 다시 긴 검열

성격 나쁘다는 소리를 종종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부정하지 않겠다.

나는 갑자기 든 생각에 킥킥거리며 웃다가 그웬에게 물었다.

“...해본 적 있어?”

내가 손에서 힘을 빼자 고통으로 눈을 가늘게 떴던 그웬이 얼굴에서 힘을 푼다. 그웬은 숨을 몰아쉬며 내가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 가늠하려는 듯 잠깐 뜸을 들인 뒤에 대답했다.

“없습, 니다.”

“거짓말이지?”

귀 끝만 붉어져서 숨을 내뱉던 그웬이 얼굴이 점차 새빨갛게 물들어갔다. 그웬은 수치를 이기려는 사람처럼 눈을 감고 고개를 흔들었다. 반응을 보아하니 진실이군. 맛있는 음식을 마주한 것처럼 다시 침이 고였다.

“그래? 잘됐다.”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짐작한 듯 그웬이 눈을 감으며 숨을 길게 쉬었다. 눈치가 참 빠르다니까.

나는 그웬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보여줘.”

예상했던 말이 진짜로 나올 줄 몰랐는지 그웬의 몸에 힘이 들어간다. 가슴 근육이 단단해져서 잘 여문 과육 같다. 나는 손가락으로 그 가슴을 살살 쓸다가 가슴골을 타고 배를 지나 그웬의 ...를 툭하고 건드렸다.

“잘하면, 만지게 해줄게.”

그웬은 잠깐동안 내게 제발 그것만은 시키지 말아 달라 애원할 듯 바라보다가 체념한 얼굴을 했다. 역시 눈치가 빨라. 그렇게 어중간하게 뒤로 뺐다면 내버려 두고 잠이나 잘 생각이었다. 어르고 달래는 취미는 내게 없으니까.

그웬은 내 시선 하에 ...다. 나는 그 손을 찰싹 소리가 나게 때렸다. 아니지. 내가 말하자 그가 잘못한 사람처럼 내 눈치를 본다.

“무릎 꿇고 앉아서 제대로 해봐.”

내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듯 그웬이 눈을 크게 떴다. 나는 슬금슬금 몸을 일으켜 침대 헤드에 기대앉았다. 그웬이 최후의 보루처럼 겨우 발 치에 덮고 있는 이불까지 모조리 빼앗아 내가 덮은 채였다. 무언의 재촉에 그웬이 천천히 몸을 일으켜 내 쪽을 향해 침대 위에서 무릎을 꿇었다. 잘 짜인 근육의 남자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으니 짐승을 길들인 것 같다. 재밌네. 동시에 뱃속이 기대감으로 들끓었다.

내 시선이 자연스레 아래로 향했다.

검열

꽉 차오른 팔 근육과 손등에 불거진 핏줄까지 전부 야하다. 하지만 그중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아래를 가리고 본다면 밑에서 얼마나 저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깨끗한 얼굴이었다. 그 얼굴이 미간을 찌푸린 채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아는 듯 수치를 볼에 발긋하게 드러냈다.

어느새 든 달빛이 그의 얼굴에 내려 앉았다. 어둠이 물러난 자리는 환하고 밝아서 비밀 한 점 없게 모든 걸 낱낱이 드러냈다. 더 괴롭히고 부끄럽게 만들어서 저 얼굴이 찌푸려지는 것을 보고 싶다. 나는 다시 갈증이 일어 길게 숨을 내뱉었다.

“따분하네. 좀 더 잘 해봐.”

정말 지겨운 것처럼 중얼대자 그웬이 손을 멈췄다. 그는 잘못을 들킨 사람처럼 겨우 말을 고르고 골라 내뱉었다.

“노력하겠습니다.”

검열

“내가 좀 도와주지.”

검열

“흣...레티시아님...”

내 이름을 참 달게도 불렀다. 그 흐트러진 목소리가 나도 달아오르게 했다.

검열

나는 굳이 발을 빼지 않았다. 그웬은 그것만으로 감지덕지한 듯 낮은 신음과 함께 내 이름을 재차 불렀다. 자신이 아침마다 정성스레 닦고 마사지하는 그 발에 그웬은...있다. 날이 밝으면 다시 내 발을 닦아주겠지. 앞으로 내 발을 볼 때마다 그웬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그 상상이 제법 짜릿했다. 내가 입술을 핥으며 나른하게 미소 짓는 순간 그웬이 짧은 숨과 함께 ...

“이리 와.”

그웬은 윗옷을 벗어 침대 아래로 떨어트리고 내게 기어서 다가왔다. 방금 절정을 맞은 몸은 열꽃이 핀 것처럼 울긋불긋 물들어있었다. 땀이 촉촉하게 맺힌 몸의 굴곡은 만족의 숨을 끌어내기에 충분했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눈빛으로 그웬을 재촉했다.

어깨 근육이 나를 집어삼키려는 듯 사납다. 달빛을 받아 매끄럽게 빛나는 얼굴은 이미 저속함에 물들었다.

“만져도 좋아.”

내 허락이 떨어지길 기다렸는지 그웬은 내 발에 먼저 입 맞췄다. 그웬은 순례자가 성지를 따라 절을 하며 땅에 입 맞추는 것처럼 내 옷을 걷어 내 발목과 다리, 무릎을 따라 차츰 올라오며 짧게 입을 맞추었다. 입술이 머물렀다 간 자리가 뜨겁다. 그는 내가 덮고 있는 이불을 슬그머니 저쪽으로 뺐다. 그웬이 나를 올려다보는가 싶더니 내게 키스했다.

검열

“봉사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거대한 검열

나는 발로 그의 어깨를 힘주어 밀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그웬이 저항 없이 뒤로 밀렸다.

“됐어. 나 이제 잘래.”

그웬은 잠깐 동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처럼 숨을 몰아쉬다가 여전히 열망이 담긴 눈으로 내 얼굴을 훑었다.

나는 이미 한차례의 절정을 맞이했고 그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그웬이 아무리 끈적한 눈빛을 해도 심드렁했다. 배가 빵빵해지도록 술을 밀어 넣은 게 바로 오늘 낮의 일이었다. 그 뒤로 술주정과 행패를 부리는 인간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이상한 춤을 배우고 이상한 노래도 배웠다. 마음에 안 드는 놈은 허공에 둥둥 띄워 짤짤 흔들어주고, 더 마음에 안 드는 놈 위에 옮겨놓았다. 그러면 아랫놈이 위에서 쏟아지는 토 세례를 받는 장면을 보고 낄낄대고... 아무튼 오늘 하루가 참 길었다. 너무 피곤하다는 뜻이다. 나는 늘어지게 하품을 했다.

내 하품을 보고 그웬은 가느다랗게 뜨고 있던 눈과 미세하게 힘이 들어간 입매를 풀었다. 그는 별수 없다는 듯 약하게 미소를 지었다.

“많이 졸리시군요.”

“그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사라진 그웬은 물을 묻힌 깨끗한 천을 가지고 와서 내 아래를 정성껏 닦았다. 어느새 챙겨입은 바지 아래로 또 예의 그 ‘검 손잡이’가 불쑥 솟아있는데도 손길이 담백했다. 수건의 훈기가 지나가고 그 자리를 여름밤의 바람이 휩쓸자 피부가 뽀송뽀송하면서 시원해졌다. 눈이 깜빡깜빡 감겼다. 그웬이 내게 바지를 입혀주고 이불을 털어 내게 덮어주는 게 가물가물한 시야로 보였다. 공기를 머금은 이불이 깃털처럼 폭 내 몸을 감쌌다.

“잘자.”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는 곤란하다는 말투로 대답하곤 희미하게 웃었다. 너는 참, 노력해야 하는 것도 많아. 내 웅얼거림에 그웬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옆에 앉아 내가 눈을 감을 때까지 머리를 만져주었다.

입안의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럽고, 금방 녹아 사라질 것 같은 여름밤이었다.

어쩐지 한쪽이 소란스럽다.

감히 이 몸이 곤히 자는 중인데 소음을 만들다니. 잡아서 입에다가 벌을 가득 넣어줄 테다. 그러니까 내가... 침대에서 일어나기만 한다면...

눈을 뜨고 싶지만, 번데기처럼 이불에 폭 감긴 몸이 그러길 거부했다. 발가락 하나 삐져나온 부분 없이 얇고 바스락거리는 이불로 꼼꼼하게 덮여있어서 안온한 기분이 든다.

그웬의 솜씨구나, 반쯤 깬 정신으로 판단했다.

“들어오지 마.”

지익. 발을 땅에 끄는 소리. 이쯤이야 뛰어난 청력과 금성같이 반짝이는 내 판단으로 눈을 감고도 파악할 수 있다.

그웬이 문 앞에서 누군가 대화하고 있다. 발걸음 소리가 무거운 걸 보니 덩치가 꽤 큰 사람이다. 냄새를 맡아보려고 했지만, 코를 이불에 비비고 있는 탓에 햇볕에 잘 마른빨래 냄새만 났다.

“네 방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안된다는 거지. 아직 주무시고 계신다.”

“음식 냄새 맡으면 깨실 거야... 니다.”

“그럼 내가 전하마.”

그 뒤로 다시 직접 전해 드려야 한다, 그럴 수 없다 하고 옥신각신하는 소리가 들렸다.

저 멍청한 말투는 누구야? 왜 자꾸 평어와 높임말을 이상하게 섞어 쓰는 거지?

괴상한 말투치곤 동굴에서 말하는 듯 울리는 음을 가진 낮은 목소리였다. 말만 제대로 한다면 꽤 위압감을 줄 정도로.

하지만 저런 덜떨어진 말투를 쓰니 지금은 그냥 우습게 들릴 뿐이었다. 그웬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나긋나긋한 태도 따위 집어치우고 오랜만에 성격 나쁜 티를 냈다.

“더 귀찮게 하면 찌르겠다.”

절그렁하고 둔탁한 소리가 났다. 검을 건드는 소리다.

“안 찌를 거잖아... 습니까.”

“내가?”

나는 이 촌극을 참지 못하고 눈을 떴다.

벌써 해가 중천인지 방 안이 고통스럽게 환했다. 으윽, 눈부셔.

그웬이 문간에 서서 문대신 입장을 막는 듯 한쪽 팔로 턱 하니 한쪽 문간을 짚고 기우뚱 서 있었다. 그 어깨너머로 보이는 얼굴은 떼인 돈이라도 받으러 온 듯 험악한 페스카인이다.

페스카인은 근사한 아침 식사가 분명한, 차려진 한 상을 슬쩍 뒤로 물렸다. 어떤 음식인지 궁금했지만 뚜껑이 덮인 반질반질한 은 식기만 보였다.

“당신은 그렇게 못해.”

페스카인은 여유가 넘치는 낯으로 고개를 살짝 꺾어 그웬을 바라보며 미소 띠었다. 목소리마저 나른했다. 믿는 구석이 있다기보단 감히 너 따위가? 하는 여유 있는 눈빛이었지만 애석하게도 트레이를 든 손이 떨렸다. 커트러리끼리 부딪쳐서 달드르르르달달 하는 굉장한 소리가 났다. 평화롭고 따사로운 아침에 무시하기엔 너무 큰 소음이었다. 그웬이 픽 하고 웃었다.

“손을 떠네.”

페스카인은 다른 손으로 떨리는 손을 잡았다. 점차 흔들림이 멎었다.

“많이 무거운가?”

“아니, 전혀.”

여전히 고저가 없는 어조지만 허리를 세우고 가슴을 쫙 펴는 게 털을 부풀린 새끼 고양이 같다. 고양이치고 너무 험악해서 그냥 새끼 같지만, 어쨌거나 하찮았다.

나는 강아지를 부르듯 쮸쮸쮸 하고 입으로 소리를 냈다. 그웬이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봤다.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웬은 나지막이 결국 깨셨군요. 하고 중얼거리며 페스카인에게 흘긋 눈길을 줬다. 네 탓이야 하고 말하는 태도다. 그웬과 키가 엇비슷한 페스카인이 그웬의 머리를 피해 방 안을 들여다보려고 기웃거리다 나와 눈이 마주쳤다.

내가 레티시아인지 짐작조차 못 한 눈빛이었다. 놈은 계속 방안을 정신없이 훑다가 불만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질문했다.

“도대체 레티시아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뒷말을 잇지 않았지만, 가득 좁혀진 미간과 쏘아보는 눈초리가 불온하다. 저 여자는 누구길래 주인 없는 방에서 주인처럼 침대를 차지하고 누워있냐는 뜻이 전해졌다. 페스카인은 조금 전까지 유지하던 새끼 고양이 같은 태도를 버리고 간 크게 그웬의 어깨를 밀쳤다.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군. 렌츠 세이모어니 평소 권위적인 태도를 참고 넘겼지만, 아랫도리 사정까지 귀족 그 자체일 줄이야.”

예상치 못한 공격이었음에도 비틀거림 하나 없는 그웬이 더러운 것이 묻은 듯 어깨를 탁탁 털었다.

“레티시아님 앞에선 검이라도 바칠 듯 굴더니 그분이 안 계신다고 바로 침대에 다른 사람을 불러들입니까? 그것도 그분의 방에?”

페스카인은 흘긋 나를 보았다. 내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놈이 하는 양을 바라보고 있자 의식한 듯 목소리를 낮춰 으르렁대듯 말했다.

“순결과 다산이라는 거지 같은 교리를 앞세워놓고 귀족들은 항상 이런 식이지. 더럽고, 저열해.”

저 소리를 얌전히 듣고 있을 그웬이 아닐 텐데 이상하게 잠잠했다. 슬쩍 옆으로 비켜서서 내게 낱낱이 보여주기까지 한다. 저는 선량한 피해자입니다. 하고 눈을 내리까는 순한 낯이 적당히 의뭉스러워 보였다.

남들이라면 눈치채지 못했을 그웬의 속내가 내게는 빤히 보였다. 나이는 헛먹은 게 아니니까.

‘이거 보세요. 얘 나한테 나쁜 말 해요. 얘는 원래 이런 인간입니다.’

하고 내게 고자질을 하는 중이다. 뻔뻔하기 그지없다. 방금까지 검으로 찌르겠다고 협박하던 일은 싹 지워버렸나 보다.

“왕자님은 이 일을 아십니까?”

결국, 데블랑까지 들먹이고 말았다. 그웬이 ‘이것 보세요.’ 재차 말하듯 나를 쳐다본다. 참 앙큼하다니까. 남들은 못 할 짓을 눈 하나 깜빡 않고 천연덕스럽게 해낸다. 그게 이제 밉지는 않지만...

나는 이불 안에서 팔을 빼내려고 꿈틀대다가 실패했다.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 둘 다 그걸 들었는지 흉흉한 기세가 누그러들며 말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봤다. 그웬이 물잔을 들고 이쪽으로 걸어왔다. 나는 긴 다리에서부터 훑으며 위로 올라갔다. 나와 눈 마주친 그웬이 슬쩍 웃으려다가 웃음을 지웠다.

“그웬. 아무것도 모르는 애 괴롭히지 마.”

“괴롭힘당하는 건 접니다.”

그웬은 잘 잤어요? 라고 말하듯 애정 담긴 손길로 머리카락을 정리해준 뒤 엉켜버린 이불을 풀어주었다. 그가 내미는 물잔을 받아드는데 아연한 얼굴의 페스카인과 눈이 마주쳤다.

그웬은 그쪽으로 시선도 주지 않고 침대 옆에 꿇어앉은 채 내게 고자질했다.

“레티시아님. 페스카인이 저 괴롭혀요. 혼내주십시오.”

“날이 갈수록 더 뻔뻔해지네.”

그웬은 고개를 살짝 옆으로 기울이며 정말 걱정되는 사람처럼 처진 눈으로 되물었다.

“나빠요?”

그웬은 원하는 대답 단 한 가지를 얻기 위해 칭찬을 기다리는 개처럼 양손을 얌전히 침대 위에 올리고 처연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놈이 원하는 건 어제의 대화처럼 ‘아니, 좋아.’겠지만 나는 그것 대신 그웬의 이마를 꾹 밀었다.

“갑자기 왜 이럴까. 미인계를 쓰고.”

“좀 통했나요?”

그린 듯한 미소를 짓는 얼굴이 청초해서 부정할 수 없다. 나는 새끼손가락을 펴서 까딱거리며 윙크했다.

“요만큼은?”

그웬은 그것만으로 기쁘다는 듯 환하게 웃었다. 나는 못 이기는 척 까딱거리던 새끼손가락을 쫙 폈다. 옜다. 이만큼이다.

어느새 슬금슬금 다가온 페스카인이 도저히 못 믿겠다는 얼굴로 내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런다고 진짜 뚫어지겠니. 나는 하품을 쩍 했다.

그웬은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부터 시킨 다음 아침 시중을 위한 준비를 했다. 동선에 페스카인이 걸렸지만 귀찮게 누가 여기 의자를 갖다 놓았군. 하는 눈빛으로 볼 뿐 굳이 타박하지 않았다. 옐츠란이었으면 진작 엉덩이를 걷어찼을 것 같은데... 아예 상대를 안 하는 건지 생각보다 싫어하지 않는 건지 모르겠다.

“레티시아님?”

“그래. 손에 든 거 뭐야?”

내가 직접 대답해줬는데도 페스카인은 사나운 눈초리를 누그러트리지 않았다. 페스카인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나와 그웬을 번갈아 보더니 말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당신도 한통속이군요. 허술한 거짓말에 속을 정도로 제가 바보로 보입니까?”

뜨거운 물을 적신 천으로 내 얼굴을 닦아주던 그웬이 피식 비웃음을 흘렸다. 나는 코를 찡그리며 그웬을 타박했다.

“멍청이 비웃지 마.”

결국 그웬은 그 고운 얼굴로 웃음을 터트리고 말았다. 그웬의 웃음소리에 페스카인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찔했다. 뭘 얼마나 괴롭혔길래 저런 반응인 거야? 내가 의심하며 그웬을 쏘아보자 놈은 괜히 "눈 감으세요." 하고 내 눈 앞머리와 눈두덩이를 정성껏 닦아냈다. 비난하는 눈초리를 피하기 위한 속셈이다. 나는 그웬의 손목을 탁 잡아 멈추게 했다.

“멍청한 애가 경계심만 늘었잖아. 네 탓이지?”

그웬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시치미를 뚝 잡아뗐다.

“상인은 본래 사람을 믿지 않는 족속들 아닙니까?”

“쟤는 상인이 아니라 내 요리사야.”

그 말이 나온 순간 페스카인이 눈을 크게 뜨더니 또다시 커트러리가 달다다다다라라라달드르륵 떨리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조만간 쏟을 것 같다. 그웬의 입매가 미세하게 굳는가 싶더니 놈은 검이 내려온 각도가 불편한 것처럼 일부러 검을 한번 건드렸다. 무거운 쇳소리가 나자 거짓말처럼 달달 거리던 페스카인의 손이 멈췄다.

두드려 팬 건가? 하지만 그웬 같은 놈이 사람을 막 두드려 팼을 리 없다. 상단의 주인이면서 앞뒤 생각 않고 귀족에게 더럽고 저열하다며 입을 놀린 페스카인이나, 넘치는 오지랖 때문에 할 말 못 할 말 다 하는 옐츠란과 다르게 그웬은 꽤 영리했다.

평민이라 할지라도 에슬라네의 신임을 받아 유일하게 그녀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페이퍼트를 오가는 자였다. 게다가 자발적으로 패를 알 수 없는 도박판에 뛰어든 귀한 상단이다.

페스카인이 다른 귀족과 그 식솔들처럼 특정 문장을 말하면 독이 퍼져 죽게 되는 비밀서약을 하긴 했지만, 비밀은 지키되 손을 떼고 사라진다면 손해는 고스란히 페르디낭이 떠안는다. 상황이 상황이니 그웬은 딱 남들이 하는 만큼만 무시하고 절대 손을 대진 않았을 거다. 아니지, 남들이 무시해도 오히려 깍듯한 태도를 유지했을 확률이 높다. 처음 내게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도 그웬이 거의 페스카인을 가지고 논다는 건, 참 어지간히 밑천 다 보여줬구나.

나는 짠한 눈빛으로 페스카인을 바라봤다.

둘이 같이 산적토벌하러 다녀왔다고 했지? 눈치가 벌새 날갯짓보다 빠른 그웬이 페스카인의 본 성격을 꿰뚫어 보지 못했을 리 없다. 알아본 거로 모자라 슬슬 긁으면서 괴롭히고 협박하고 무시했겠지. 어쩐지 페스카인의 얼굴이 수척해 보인다

“발 씻을 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요리사가 아니라 똥 푸는 삽이라도 상관없다는 태도로 그웬은 사라졌다. 페스카인은 그웬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처진 어깨로 되물었다.

“레티시아님?”

“맞다니까.”

패스카인은 안절부절못하며 “그러니까...” 하고 중얼거리다가 풀 죽은 목소리로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나는 손을 휘적휘적 내젓고 놈이 들고있는 걸 가리켰다. 페스카인이 매끈한 뇌로 무슨 오해를 했든 무슨 말을 떠들어댔든 놈이 만든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았다.

어차피 인격체로 곁에 둔 것도 아니고 할 수만 있다면 주방에 가둬놓고 종 흔들면 음식 대령하도록 시켰을 거다.

“어제 과음하셨다는 소식에 칠리 스튜를 끓여왔어요.”

놈은 다소 급한 손놀림으로 조반용 테이블을 펼쳐 아침상을 차렸다. 화라도 났을까 봐 눈치 보는 얼굴이 잘못을 저지른 허스키 같다. 묘하게 웃기고 재밌는 표정이다. 나는 짐짓 화난 척 싸늘하게 말했다.

“상인이라면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지.”

“죄송합니다.”

몇 마디 더 하려고 했지만 구운 지 얼마 안 된 듯 빵 냄새가 폴폴 나는 흰 빵과 칠리수프 때문에 침이 고여 입을 열 수 없었다. 배고프다고 느끼지 않았는데 음식을 보니 갑자기 시장기가 돌았다. 페스카인의 환상적인 요리 솜씨를 알기에 더 배가 고파졌다. 나는 화난 척하는 걸 포기하고 수프를 한 입 떴다.

“와, 시발. 다 뒤졌어.”

“살…살려주세요.”

별안간 구조신호를 보내는 페스카인을 무시하고 나는 말 없이 수프와 빵을 끝장내버렸다. 특별한 메뉴도 아닌데 이렇게 맛있다니,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거지? 나는 장갑 낀 페스카인의 손을 조금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저 손을 삶아 먹어도 이렇게 맛있진 않을 텐데. 너무 만족스러운 나머지 조금 험악한 상상을 하며 미소지었다.

“맛있었어.”

겨우 그 말 한마디에 내 눈치를 보던 페스카인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웃었다. 식사가 끝나길 기다리며 서 있던 그웬이 페스카인을 흘긋 쳐다봤다. 잠깐 무슨 생각이라도 하는지 싸늘한 무표정이던 그웬은 그런 기색을 싹 감추고 페스카인이 침대용 테이블을 정리하는 걸 도왔다.

놈들이 치우는 동안 나는 그웬이 받아온 물에 익숙하게 발을 담갔다. 금방이라도 다시 잠이 올 듯 딱 좋은 온도다. 그웬은 내 표정을 보더니 시간을 가늠하듯 창밖의 하늘을 쳐다봤다.

“다시 주무실 건가요?”

사실 방금 먹은 칠리수프는 아침이 아니라 점심일 확률이 높았다. 몸에 기운이 지나치게 펄펄 도는 걸 보니 반나절쯤 잔 것 같다. 나는 코를 찡그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생각해보니까 할 일이 있어.”

그렇군요. 하고 묻지 않는 그웬 대신에 페스카인이 질문했다.

“무슨 일입니까?”

“아주 중요한 일이야.”

페스카인도 결국 그렇군요. 하고 수긍하고 말았다. 우매한 자가 내 위대한 일과를 알아봤자 이해 못 할 거다.

그웬은 한쪽 무릎을 꿇은 채 소매를 걷어붙이고 평소처럼 정성스럽게 내 발을 씻겼다. 발목과 아킬레스건을 지그시 누르는 손길이 어쩐지 집요하다. 발가락 하나하나를 어여쁜 듯 어루만지길래 나는 피식 웃고 말았다.

“지금 무슨 생각 해?”

시선이 못 박힌 듯 아래로 내리깔고 있는 고개를 톡톡 쳐서 들게 하니 나를 올려다보는 눈동자가 음습했다. 나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발로 그웬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내 발이 닿는 곳마다 축축한 물 자국이 생겼다. 내 발이 점점 허벅지 안쪽으로, 더 안쪽으로 파고들려는데 페스카인이 지나치게 큰소리로 외쳤다.

“아, 그러고 보니 잊고 있던 급한 일이 생각납니다!”

말투는 딱딱하고 지나치게 어깨가 긴장해서 간지러운 걸 참는 사람처럼 보였다. 페스카인은 우리와 눈도 못 마주치고 침대의 무늬라도 세어보는 사람처럼 눈동자를 왔다 갔다 움직이다가 간신히 여유로운 낯을 가장한 채 말했다.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여전히 커트러리를 달그락대면서 페스카인은 아 바쁘다 바빠. 하는 작위적인 말과 함께 쌩하니 방을 나갔다.

내가 그 꼴을 보고 넘어갈 듯 웃어 대자 그웬이 의외라는 듯 물었다.

“저런 걸 좋아하세요?”

“좋아한다기보단...”

나는 말을 이으려다 말고 갑자기 든 장난스러운 생각에 쌜죽하니 웃었다.

“좋아한다고 하면 저것도 노력해볼 거야?”

그웬은 그런 제 모습을 상상해보는 듯 약간 눈을 가느다랗게 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뇨. 멍청한 건 노력으로 안 됩니다. 제가 그쪽으론 재능이 전혀 없어서.”

“전혀 없진 않았는데? 멍청한 짓 하다가 나한테 뚫렸잖아. 아마 여기쯤이지?”

은근히 힘주어 허벅지를 발로 누르자 그웬의 표정이 미묘해졌다.

"반대편입니다."

뭐, 원래 때린 사람은 기억 못 하고 맞은 사람만 기억한다잖아. 그웬이 부드럽게 발을 떼어냈다. 그 손짓이 간지러워서 나는 발가락을 움츠렸다가 꼼지락댔다.

“그것 보세요. 저는 저런 쪽으론 재능이 없습니다.”

하긴, 그웬이 페스카인처럼 허둥대는 모습은 좀처럼 상상되지 않았다. 페스카인의 멍청함이 귀여운 편이라면 그웬의 멍청한 판단은 주로 건방지고 싸가지 없는 편이었다. 어설프게 흉내 냈다간 굳이 어느 쪽이었냐 물을 필요가 없게 공평하게 양 허벅지를 찔러버릴 거다.

“원하신다면, 부끄러운 척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웬은 포슬포슬 잘 마른 수건으로 발의 물기를 닦으며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됩니다.”

그리고 그는 내 발등에 입을 맞췄다.

“싫습니다.”

그웬은 코끝과 볼을 발등과 발목에 가만히 맞대다가 나를 올려다보며 유혹적인 눈웃음을 지었다.

“이러지 마십시오.”

나는 처음으로 말문이 턱 막혀버렸다. 요망한 놈이라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덤비니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살짝 풀어헤친 옷 사이로 보이는 가슴을 바라보다가 그웬이 눈을 깜빡이는 순간 겨우 입을 열었다.

“너... 아침부터 이럴 거야?”

“무슨 말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웬은 시치미를 뚝 잡아떼며 순진한 낯을 했다. 놈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처럼 내 무릎에 입술을 가만히 붙였다 뗐다.

“그리고 지금은 아침이 아니라 오후입니다.”

그웬은 내 발끝에서부터 천천히 햇빛이 내려앉은 자리를 따라 닿을 듯 말 듯 손끝으로 스치며 올라왔다. 가지런히 다듬어진 손톱을 가진 손가락이 발목, 무릎을 지나 허벅지 안쪽을 파고들 듯 멈췄다. 창문을 따라 들어온 햇빛의 가장자리였다.

“해가 이만큼 늘어졌는걸요.”

나는 내가 먼저 그웬의 허벅지를 더듬었다는 걸 제쳐놓고 생각하기로 했다. 이 파렴치한 놈. 해가 저렇게 밝은 데 몸이 달아올랐구나.

“그래서 괜찮다는 거야?”

그웬은 대답 없이 특유의 그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조금 건방지면서 어찌 보면 처연하고 야한 얼굴이었다. 시선이 얼마나 촘촘한지 그의 눈길이 닿은 곳은 얇은 베일이 쓸어내린 것처럼 간질간질해졌다. 그웬이 약간 잠긴 목소리로 속삭였다.

“입을 맞춰주세요.”

이건... 정말 어쩔 수 없다.

내가 손가락을 까딱대자 그웬이 몸을 일으켰다. 그는 한쪽 손으로 침대를 짚고 고개를 기울이다가 다른 한쪽 손마저 짚어 나를 품에 가둘 듯 몸을 밀착시켰다. 새벽바람처럼 쨍하고 싱그러운 기운의 냄새가 풍겼다. 목덜미를 감싸 쥐며 내게로 당기자 그웬이 고개를 살짝 틀어 입을 맞춰왔다.

퍼석하니 말라 까칠하게 느껴졌던 입술은 혀가 몇 번 오가자 금방 부드럽고 뜨거워졌다. 탐색하듯 짧고 가벼운 입맞춤이 곧 입안 곳곳을 헤집는 진한 키스로 바뀌었다. 뻣뻣하지 않은 혀가 내 움직임에 맞춰 얽혀오자 서로의 속살을 더듬는 것처럼 묘한 느낌이 들었다. 잠깐 입을 뗄 때마다 뜨거운 숨이 입술을 스쳤고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곧바로 다시 입술을 덮어 그 숨을 삼켰다. 그웬은 배웠던 걸 잊지 않았는지 내 움직임에 곧잘 응수해왔고 가끔은 주도권을 빼앗으려고 덤벼왔다. 그 점이 오히려 짜릿하게 느껴졌다.

나는 팔을 뒤로 짚어 차츰 가슴을 열다가 종국에는 거의 뒤로 드러누울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웬이 내 등을 받쳐 나를 끌어안고 있었기 때문에 불편하진 않았다. 내 가슴과 그웬의 가슴이 맞닿아 있는 곳에서 그의 거센 심장박동이 느껴졌다. 나는 살짝 입을 떼고 눈 밑이 붉게 달아오른 그웬의 얼굴을 감상했다. 살짝 숨을 몰아쉬고 있는 그웬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아래로 이끌었다. 그웬이 내 뜻을 읽고 침대 아래로 내려가 무릎을 꿇었다. 나는 내 다리 사이에 고개를 박은 채 바지를 벗겨내는 그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음, 그래. 생각해보니 지금은 아침이 아니라 오후니까 괜찮다.

“죽겠다...”

그리고 후우 꺼질 듯한 한숨 소리.

“죽겠어...”

옐츠란은 누워서 침대에서 끙끙대면서 가끔 넋두리처럼 중얼거렸다. 심히 거슬리는 소리였다. 쟤는 왜 여기서 앓고 있담? 이 방이 옐츠란의 방이라는 건 내 알 바 아니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안 죽어.”

“어떻게 알아... 이러다가 진짜 죽을 것 같아...”

“많이 죽여봤으니까.”

침묵이 유난히 길다. 옐츠란은 무언가 생각하는 듯 집중하는 표정을 짓다가 미간을 탁 풀어버렸다. 깊게 생각하기조차 힘든 모양이었다.

“그래도 죽겠어.”

“옆으로 좀 가봐.”

욕심쟁이처럼 자기 침대를 혼자 차지한 옐츠란을 툭툭 치자 놈은 끙끙대면서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건방진 놈. 내가 비키라고 하면 예, 자리를 데워놨습니다. 하고 잽싸게 일어나야지.

옐츠란의 머리 옆을 마구 두드려주자 침대가 흔들려서 토할 것 같은지 놈은 겨우 굴러서 내게 자리를 내주었다. 방 안 가득 온통 진득한 술 냄새가 가득하다. 옐츠란이 숨을 내쉴 때마다 술 냄새가 계속 났다. 나는 못마땅해서 입을 열었다.

“숨 쉬지 마. 숨 쉴 때마다 술 냄새 나.”

옐츠란이 축 늘어진 채로 대답했다.

“잊었나 본데, 사람이... 숨을 안 쉬면... 죽어...”

“그건 네가 알아서 잘해봐.”

“...내가 다시 술을 마시면 개다...”

옐츠란은 다시 한숨을 푹 쉬었다. 나는 참지 못하고 바람을 일으켜 방 안을 환기했다. 옐츠란이 한결 살 것 같은지 안색이 편해졌다. 너 좋으라고 한 게 아닌데. 내가 준 깨끗한 공기 들이마시지 말라고 코를 막으려다가 너무 유치해서 관뒀다. 나는 빈자리에 엎드려 누웠다.

“냄새나면 다른 데로 가면 되잖아. 왜 여기까지 와서 날...”

옐츠란은 거기서 욱 하고 손등으로 입을 가렸다.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 놈은 훽 하고 손을 던지듯 놓으며 말을 이었다. 힘이 빠져 어딘가 연약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괴롭히는 거야."

“괴롭히는 거 아닌데?”

나는 그렇게 대답하고 가져온 그릇의 뚜껑을 열었다. 썩은 비린내와 매캐한 후추 냄새가 훅 풍겼다. 그 냄새를 맡은 옐츠란이 참지 못하고 헛구역질을 하며 침대 밑으로 굴러떨어졌다.

쿵, 듣기만 해도 아플 것 같은 묵직한 소리가 들린 후 옐츠란은 네 발로 바닥을 기어가다가 대충 아무거나 붙잡고 토했다.

안타깝게도 옐츠란이 부여잡은 건 보석이 박힌 꽤 비싸 보이는 금 항아리였다. 옐츠란의 취향은 절대 아닐 테고, 애지중지하며 매일 닦아줬을 집사장만 피눈물 흘리겠군. 빈 항아리에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청아하게 울렸다.

“더러워...”

터질 듯한 얼굴로 겨우 고개를 든 옐츠란은 두 눈에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다. 놈은 생리적 현상이라 어쩔 수 없지만 분하다는 듯 거칠게 눈을 문질렀다.

“이게 괴롭히는 게 아니라고?”

굳이 한 번 더 물으니까 진짜 괴롭히고 싶어지네. 내 표정만 보고 생각을 읽었는지 옐츠란이 차라리 죽이라고 말하며 다시 항아리에 얼굴을 처박고 헛구역질을 했다.

“죽을 것 같아...”

옐츠란이 항아리에 대고 말한 탓에 저 먼 동굴에서 새어 나온 소리처럼 들렸다. 죽고 싶은 건지 죽기 싫은 건지 하나만 하지. 나는 선심 써서 덮개를 다시 닫았다.

"너 먹으라고 가져온 거야. 숙취 해소에 좋대."

옐츠란은 내가 갑자기 생전 처음 듣는 언어로 노래라도 부른 마냥 나를 쳐다봤다.

"왜?"

“왜긴 왜야.”

너 괴로워하는 꼴 보려고 가져왔지. 라고 말하면 당연히 안 먹겠지. 나는 세상에서 가장 선량한 사람처럼 그릇을 내밀었다.

“너 먹으라고 가져왔다니까?”

사실 이건 음식이라고 할만한 것도, 먹을 만한 것도 아니었다.

오는 길에 똥같이 생긴 걸 몇 놈이 먹으면서 괴로워하고 있길래 조금 얻어온 거다. 진짜 똥은 아니고 정어리와 토마토를 푹 익힌 다음 까매질 정도로 후추와 매운 고추를 부숴 넣은 수프였다. 음식물 쓰레기를 고등어 안에 넣고 썩힌, 똥보다 더 지독한 냄새가 났다.

이곳 인간들은 참 이상하기도 하지. 왜 그딴 걸 먹냐 물어보니 숙취 해소용 음식이란다. 냄새만 맡아도 비위 상하는 음식을 먹어 나쁜 것을 전부 게워낸다나 뭐라나. 자고로 숙취 해소란 뜨뜻한 국물이 최고거늘... 아는 게 없으면 사람은 몸을 고생시킨다.

어쨌든 페르디낭의 풍습이니 등신들을 무시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나는 그들이 하는 한심한 짓거리를 보고 바로 옐츠란을 떠올렸다. 볼 일이 있어 놈의 방으로 가던 길이었기 때문이다. 안 봐도 온종일 침대에 누워 빌빌대고 있겠지. 약간의 고통 후에 숙취를 빠르게 떨쳐 낼 수만 있다면 내게 고마워할 거다. 뭐, 진짜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괴로워하는 꼴을 보는 게 재밌으니 상관없다.

옐츠란은 여전히 못 믿겠다는 얼굴로 나를 봤다.

“먹을 수 있는 거 맞아?”

“다들 잘 먹던걸. 이래 보여도 효과 좋대.”

나는 옐츠란이 절대 거절 못 할 마법의 단어를 입 밖으로 냈다. 의식하고 휘두르려고 한 건 아니었다. 말이 민들레 홀씨만큼 가볍게 톡 하고 입에서 튀어나갔을 뿐이었다.

“네가 걱정돼서 일부러 가져온 거야.”

걱정이란 말에 잔뜩 찌푸려진 미간이 힘을 잃고 누그러졌다.

“...저기에 올려두면 나중에 먹을게.”

“나는 지금 먹는 게 보고 싶어.”

옐츠란은 창백한 얼굴로 나를 올려다보다가 욱하고 다시 입을 틀어막았다. 놈은 부들부들 어깨를 떨다가 겨우 고비를 넘겼는지 한숨을 내뱉었다.

“지금은 도저히 못 먹겠어. 좀 괜찮아지면 먹을게.”

내가 대답하지 않자 침묵을 오해한 건지 옐츠란은 진지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약속해.”

그 목소리에 먹는 것보다 토하는 게 더 많을 텐데 성의를 무시 못 하고 꾸역꾸역 수프를 입에 넣는 옐츠란의 모습이 떠올랐다. 도저히 먹을 수 없었다고 말하던가 다 먹었다고 거짓말을 하면 될 것을 요령 없이 한 그릇을 비우고야 말겠지.

내가 걱정한다고 말했으니까.

괴롭히기 위한 얄팍한 거짓말인 걸 알지라도 놈은 그렇게 할 거다. 그리고 다시 앓아눕고 어쩌면 정말 멀쩡해지고 며칠 뒤 나를 만나 약속을 지켰다고 말하겠지.

“넌 참 알기 쉬워.”

맥락 없이 던져진 말을 욕인 줄 알고 옐츠란은 콧잔등을 찌푸렸다.

그토록 뻔하게 굴어도 나는 심보가 고약해서 굳이 수프를 두고 가고 싶다. 꼭 먹어야 해. 라도 말하듯 잘 보이게 뚜껑을 덮었지만, 여전히 고약한 냄새가 나는 수프를 올려놓았다. 그동안 옐츠란은 비척비척 걸어서 침대에 풀썩 쓰러졌다.

놈은 엎드린 채로 고개를 내 쪽으로 돌렸다. 베개에 파묻혀 한쪽만 드러난 눈이 힘없이 깜빡댔다. 옐츠란의 어깨가 오르내릴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숨이 색색 대는 소리가 들렸다.

“그걸 주려고 온 거야?”

내가 그 정도로 다정한 사람으로 보여? 나는 말을 하지 않고 표정으로 뜻을 전달했다.

“아니, 책 몇 권 빌려 가려고 온 거야. 수식을 다 까먹었어.”

움트헷을 처리할 때 범위가 넓지 않은 마법이 기억나지 않아 애먹었던 걸 잊지 않고 있었다. 여유가 생겼으니 다시 머리에 꾸역꾸역 집어넣어야지.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르잖아?

그럴 필요 없지만,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나. 역시 멋있다.

옐츠란은 "응." 하고 대답하다가 눈을 감고 덧붙였다.

"찢지는 마. 불태우지도 말고..."

너무 터무니없는 당부라 귓등으로 흘려들으며 책을 골랐다. 대충 펼쳐서 훑어봐도 알짜배기 책뿐이라 나는 손에 집히는 대로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내가 책을 마구잡이로 다룰 때마다 움찔거리던 옐츠란은 끄응 하고 그냥 돌아누웠다. 나는 손가락으로 책등을 훑으며 살펴보다가 흥미를 끄는 제목을 보고 멈췄다.

‘만족스러운 잠자리를 위한 거부할 수 없는 마법.’ 나는 곁눈질로 슬쩍 옐츠란을 살피고 여전히 돌아누워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책을 꺼내 들었다.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지만, 역시 별 볼 일 없는 책이다. 흥미로운 제목과 다르게 침대의 벌레나 쥐를 내쫓는 마법진에 대한 내용이었다. 저 새끼 고자 아냐?

“완벽한 밤을 위하여, 상대를 달아오르게 하는 법, 만족스러운 잠자리를 위한 거부할 수 없는 마법. 전부터 궁금했는데 이런 책들은 제목 보고 고른 거야?”

내가 책 제목을 말할 때마다 어깨를 경직시키던 옐츠란이 돌아누운 채로 대답했다.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코웃음을 치며 당장 읽을 책을 옆구리에 꼈다.

“아닌 게 아닌 거겠지. 마법사 나리께서 호기심이 왕성하시네. 고자는 아닌가 봐.”

옐츠란이 처음 듣는 단어처럼 고, 자... 고자... 하고 중얼거리다가 “고자?!” 하고 벌떡 일어나 고개를 돌렸다.

“갑자기 고자 이야기가 왜 나와!”

“아니, 너 건강하다고.”

"당연히, 어? 어?!"

나는 티가 나게 옐츠란의 아래쪽을 힐끗 눈짓했다. 놈이 왁왁하며 얼굴이 달아오른 채 이불을 마구 끌어모아 아래를 가렸다. 목 위로 얼굴이 아니라 당근을 달고 있나 싶을 정도로 얼굴이 빨개졌다.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어딜 봐!”

“뭐 볼 거 있다고 가려, 거기 보물이라도 숨겨놨어?”

금붕어처럼 입만 뻐끔대던 옐츠란은 열 내느라 숙취가 도졌는지 머리를 부여잡고 신음을 흘리더니 결국 풀썩 앞으로 고꾸라졌다. 옐츠란은 이불에 얼굴을 파묻고 도리도리 고갯짓했다.

“으...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이런 책이나 보니까 머리가 아픈 거야.”

옐츠란은 내 말을 못 들은 체하기로 마음먹은 건지 꿈틀거리며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놈은 죽은 사람 같은 안색으로 눈을 감고 입을 꾹 닫았다. 별다른 반응이 돌아오지 않으니 나도 곧 흥미를 잃고 책을 골라내는 일에 집중했다.

나는 꽤 오랫동안 나중에 읽을 책과 지금 당장 읽을 책을 엄선했다. 정신 차려보니 허리춤에 손을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양팔 가득 책을 끌어안고 있었다.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 옐츠란이 뭔가 하다가 만 것들을 잔뜩 펼쳐놓은 책상 위에 책을 올려놓았다. 무거운 책 아래로 지도와 글을 끄적인 종이, 펼쳐진 책들이 구겨지며 깔렸다. 몇몇 물건이 책에 밀려 우당탕탕 요란한 소리를 내며 책상 아래로 떨어졌다. 잠깐 잠이 들었던 옐츠란이 깜짝 놀라 일어났다. 놈은 두리번거리면서 소리의 원인을 찾다가 내가 엉망으로 만들어놓은 책상을 보고 집을 잃은 수달처럼 요상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지, 비버던가?

“너, 너... 그걸...”

옐츠란은 나와 눈이 마주치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처럼 고개를 저었다. 결국, 놈은 자리에서 끙끙대며 일어나 바닥에 널브러진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메빌 실리어의 유언을 해석하던 중이었단 말이야. 잉크라도 엎어졌으면 어쩔 뻔했어.”

“응, 그러게.”

나는 의자에 눕듯이 앉아 책상 위에 턱 하니 발을 올려두고 책 읽을 준비를 끝마쳤다. 나중에 읽어야지 하고 전부 주머니에 쑤셔 넣어봐야 애물단지로 전락할 게 뻔했다. 모든 일은 마음먹었을 때 해야 그나마 의욕의 힘으로 진도를 나갈 수 있는 법이다.

옐츠란이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서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본다. 뭐? 할 말 있으면 하고. 내 말에 놈은 맥없이 아니야... 너한테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고 한숨을 내쉴 뿐이었다. 옐츠란은 터덜터덜 힘없는 발걸음으로 다시 침대로 돌아갔다.

나는 다리에 와 닿는 미지근한 햇빛을 느끼며 책장을 넘겼다. 죽을 고비를 넘기며 달달 외웠던 것들이라 몇 개의 문장만 봐도 쉽게 기억이 떠올랐다. 그래, 그땐 참 필사적이었는데. 꽤 오랫동안 안온한 시간을 보냈다. 이런 것을 잊어버릴 만큼.

나는 수식을 눈으로 좇으며 기억을 읽었다. 마나가 부족할 땐 이거 참 유용하게 썼지. 이 수식 덕에 걔를 겨우 구했었지. 누구였는지 이제 기억나지 않지만. 아, 말 타르의 법칙. 이건 정말 성공하기 어려워서 두 번 죽고 되살아 난 뒤 겨우 완성했지.

공격과 방어마법이라 떠오르는 기억이 한결같이 전쟁터나 숲에서 늪에서 구르고 다친 기억뿐이지만 늘 그렇듯 시간이 모든 걸 미화 시켰다. 사진첩을 보는 것처럼 나는 옛 추억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다리가 조금 저리다고 생각했을 땐 해가 기운을 잃고 불그스레한 낯으로 가라앉는 중이었다. 나는 뻐근한 몸을 일으키며 나눠서 쌓아둔 책더미를 바라봤다. 벌써 읽으려고 했던 책의 절반을 해치웠다. 설렁설렁 넘겼지만 뭐 당장 필요한 건 아니니 이 정도로 충분했다.

책 정리는 방 주인인 옐츠란 몫이니 내버려 두고 가려다가 잠깐 멈춰섰다. 옐츠란의 날려쓴 글씨가 빼곡하게 적힌 종이가 시선을 끌었기 때문이다. 나는 끝부분이 살짝 접힌 종이를 반듯이 펴서 내용을 살펴보았다. 메빌 실비어의 위대한 유언을 해석해서 그가 다닌 경로를 지도에 정리하나 본데 중요한 단어 하나를 해석 못 해서 ‘어렵다... 어려워...’ 라는 흘러내릴 듯한 글씨와 함께 끄적댄 이상한 낙서가 있었다. 자세히 보니 어딘가 얻어터진 토끼같이 생겼다.

나는 그 문장을 소리 내어 읽었다.

“터진 태양이 주시하고 시기심 없는 태초의 형제가 도망간 땅에 도착했다.”

바다에서 갈라진 두 개의 물줄기 중 욕심이 없는 첫째는 강이 되어 세상을 구경하고 욕심 많은 둘째는 인간이 되었다지. 마도 시대 사람들이 믿었던 인간의 탄생이다.

나는 돌돌 말려있는 지도를 펼쳤다. 내가 기억하던 지명은 많이 사라지고 새로운 이름이 그 자리를 채운 낯선 지도였다. 왕권이 자리 잡은 국가와 그렇지 못한 곳, 체제조차 덜 여문 곳. 하루가 멀다고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무너지는 혼란한 시대이니 어쩔 수 없었다. 나는 국경이나 국가의 이름을 기준으로 지리를 파악하지 않고 땅의 모양을 따라 손가락으로 훑어가며 원하는 곳을 찾아냈다.

시기심 없는 형제인 강이 도망가버리고 터진 것처럼 뜨거운 태양이 주시하는 땅, 바로 사막이다.

나는 옐츠란이 해석해놓은 부분을 참고하여 경로를 어림짐작했다. 그다지 멀지 않은 여행이 되겠군.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그럴싸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내 직감이 앞으로 고생길이 훤하게 열렸다고 일러댔다. 하지만 전처럼 회피하고 싶거나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들지 않았다.

사실 내게 필요치 않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책더미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팔짱을 꼈다. 나도 헛바람이 들었나.

나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얇은 붓에 잉크를 듬뿍 묻혀 침대로 다가갔다. 옐츠란은 꿈에서 얻어맞는 것처럼 끙끙 앓으며 잠에 빠져있었다. 약간 땀이 배어 나온 이마에 집중해서 글씨를 썼다.

‘사막이야.’

글씨체 한번 유려하다. 나는 내 작품을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다가 옐츠란의 코 옆에 점을 콕 찍어주고 방을 나왔다.